

경기도 박물관 학술서

趙榮福의

# 燕行日錄

 경기도박물관도서관



011869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박물관 학술총서

趙榮福의

# 燕行日錄

## 발 간 사

우리 박물관에서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여 이를 도민에게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따라 경기도박물관은 이제 개관한 지 2년 6개월에 불과하지만, 다양하면서도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를 쉽게 접하고 이해하는 터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박물관 소장유물중 하나인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134호 『연행일록』 및 『연행별장』의 국역 사업 역시 이러한 노력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행일록』이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파견된 사신이 한양(漢陽)을 떠나 북경(北京)에 다다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일기로, 그 속에는 여정의 고단함·중국과 조선과의 관계·중국에 대한 견문(見聞) 등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영복의 『연행일록』과 『연행별장』, 그리고 「오악도」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연행(燕行)에 대한 기록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청(淸)나라를 오랑캐로 야만시 하면서도 소국(小國)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겨야 했던 조선시대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있으며, 중국 북경의 황실(皇室)에서 천주교 신부와의 만남을 통한 서양 문물에 관한 관심, 중국과 우리와의 문화적 차이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조선 후기의 사회와 문화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자료가 조선 후기 우리의 역사와 문화상을 살펴보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귀중한 가문의 유품을 우리 박물관에 기증해 주신 조현종 선생님을 비롯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2년여에 걸쳐 국역 작업과 옥고를 보내주신 동국대학교 임기중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의 열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 12.

경기도박물관장 장 경 호

변역

임기중(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갑기(청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김상일(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문영오(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종건(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임종욱(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임준철(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정후수(한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교열·교정

김성환(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관)

김은선(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 차 례

## I. 연행일록

1. 조영복(趙榮福)의 『연행일록(燕行日錄)』에 대하여 (임기중) / 3
2. 연행일록(燕行日錄) / 17

## II. 연행별장

1. 연행록(燕行錄) 별장(別章)에 관하여 (임준철) / 173
2. 연행별장(燕行別章) / 197

## III. 부 록

1. 연행일록 원문 / 225
2. 연행별장 원문 / 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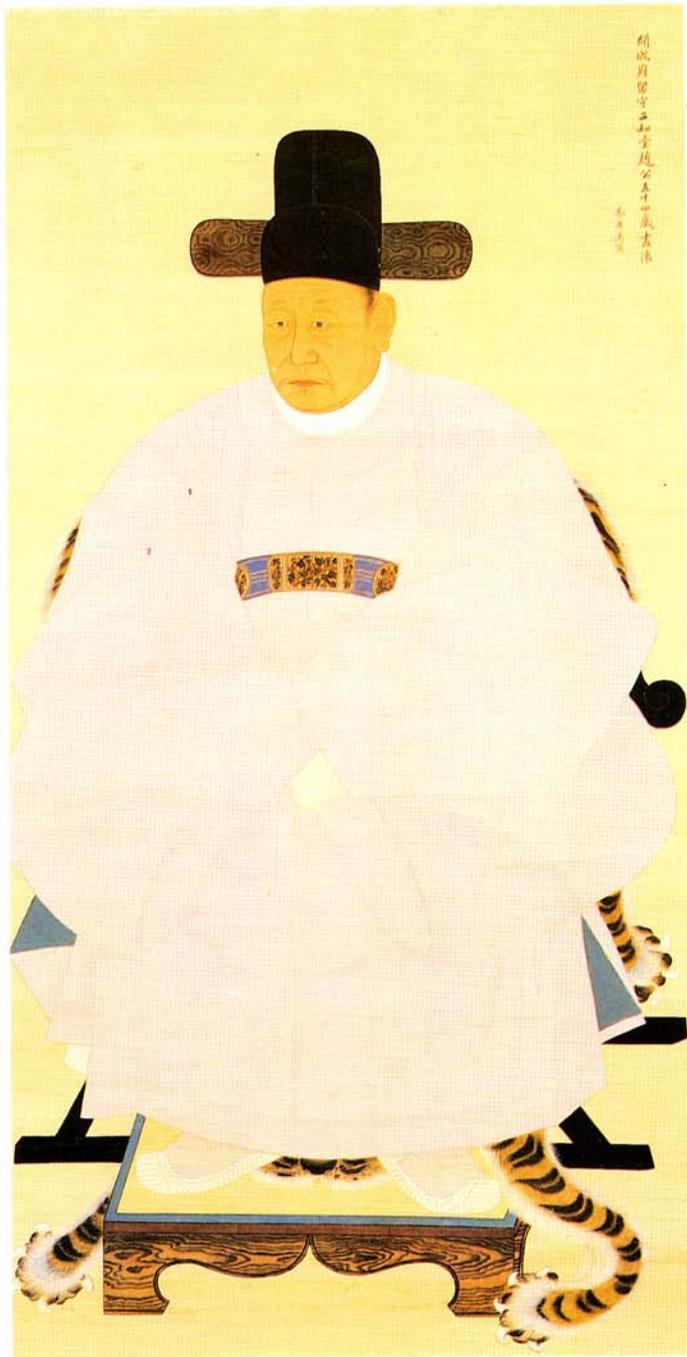


사진 1. 조영복 초상(관복본, 秦再奚 寫)



사진 2. 조영복 초상(유복본, 趙榮祐 寫)

教旨

幼學趙榮福生員二等第二十四人  
八格者

康熙四十四年三月初六日

사진 3. 조영복 생원합격 교지 (1705, 숙종 31)

教旨

通訓大夫行醴泉郡守安東鎮  
管兵馬同僉節制使趙榮福文  
科丙科第二人及第出身者

康熙五十三年十一月十八日

兵書奉

教賜折衝將軍行義興衛副司果趙榮福今庚子年第科祿者

康熙五十九年七月一日

參議臣呂亨

判書

參判

參知

正印

佐印臣李

사진 5. 녹패(祿牌) (1720, 숙종 46)

教旨

趙榮福為嘉善大夫行  
承政院都承旨兼經  
筵參贊官春秋館修  
撰官藝文館直提學  
尚瑞院正者

雍正五年二月十二日



사진 6. 조영복의 가선대부(嘉善大夫)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 예문관직제학(藝文館直提學) 상서원정(尙瑞院正) 임명교지(1727, 영조 3)

嘉善大夫開城府留守趙公行狀  
 公諱榮福字錫五系出咸安上世有諱昂  
 仕新羅為元尹趙氏之譜自此始 本朝  
 有諱悅為工曹典書典書之孫曰漁溪先  
 生諱旅當 端宗內禪之日自泮齋揖諸  
 生歸鄉里漁釣詠歌以終世論者以西山  
 採薇比之 贈吏曹參判建院於咸安伯  
 夷山下與金東峯諸賢並享焉有孫諱舜

사진 7. 조영복 행장(行狀)  
 (1739, 영조 15, 趙榮祐 지음)

維歲次戊申六月辛亥朔二十九日己卯友人曹  
 山洪重寄慟哭告訣于  
 松都留相趙公錫五台靈几之下文以痛之曰嗚  
 呼慟哉惟我心朋曰有三人栢堂同碩憶在戊  
 寅增天瑞沒對輒渾揮晚途何歸唯 于是  
 依匪惟同庚亦以姻好三十年來兩鬢俱皓  
 君中我笑舊情不易余所心脈內行純萬一婦  
 母事孀孀孀于親以及孤戚歸而有恃 奉先之  
 誠同或少息事係 墓隨一無遺闕于大獄啟餘  
 事文藝始在郡符晚閣科舉實甚眾憚蒞業  
 靈閣按湖壁嶺戚患並洽簿書裁決沛若江河  
 藍根利 瓦熟路輅中以 君負抱持大厥施極  
 密中書何地不宜滄桑屢變非諠則野 國之  
 有亂蒼黃匹馬 王室憂深 顏色減昔鏡慰  
 躑躅旋聞病劇陋止 臨訪曾未 甫旬晚計分  
 華約與作隣 吾黨厄甚 君遽不起白首依  
 又夫知已撫 屍踴慟 君胡不答仲手速宦  
 孀婦深嘆生死阻訣為恨曷極位未盡才年  
 不稱德笑 君之亡公松均洞前夜之夢握手  
 相逢歡顏情話宛如平日覺未惟浮海明悅  
 憶念我乘病幾何斯世他日泉臺可結舊會  
 吾以自慰 雲亦何賦揮文告訣庶 歆我爵  
 嗚呼慟哉尚  
 榮祐

사진 8. 조영복 제문(祭文) (1728, 영조 4)

副使軍官嘉善 崔尚鼎  
 宿衛官安世泰  
 朱序 李泰錫  
 憲以打角者為提中重華

中房趙德輝  
 奴子伴里金  
 孔裕亮直種因  
 中房河世興  
 奴子世積

丙子夜後書多辛而極

己未十一月廿四日晴平明清 潤下直龍皮帽掩一新胡  
 樹四排白碧七排丹木十五斤腦葉六種 賜給已付  
 相表到嘉華飯右相李健合禮判閱鎮厚判宋相琦  
 史海李秉孝禮潑魚有龜奉知尹陽未泰坐查苦單戶  
 判設募於洛傍以盟米以錢尹亦肯團於未判判孤倚  
 院德必設錢以待宗南立正則願貴亦未權台尚游  
 第伯鄭亨益淳尹李挺周副各洪啓迪持年金擇司係  
 尹錫其言洪執祚傑念金希魯日錦任陳復清凌君  
 標未出刑書巨沖沈世凌鄭雲尚依的閱應係朱候趙  
 判府事泰采為廷正使設鼻以選歷入一判丁壽海坤  
 律朴大祥高仲樞金大錫世秀李世茂李純錫金熙  
 閔事世愛權官林一信崔長山槐金理山傳李高

사진 9. 연행일록(燕行日錄)

奉贈  
 節使趙侍郎錫五赴燕，約  
 冠蓋年，立少庭更得何  
 語慰 若行天向人事今  
 雜料必恨竊甚且莫驚異  
 地山川看咫尺丈夫忠信  
 仗平生知智士能親國  
 他日得來仔細評  
 己亥陽月下泚

庚子年正月廿四日  
 庚子年正月廿四日  
 庚子年正月廿四日

庚子年正月廿四日  
 庚子年正月廿四日  
 庚子年正月廿四日

사진 10. 연행별장(燕行別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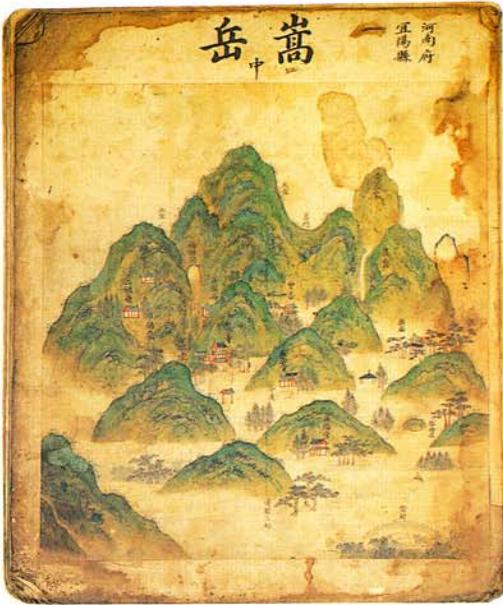


사진 11. 오악도(五岳圖)중  
하남부(河南府) 의양현(宜陽縣)  
숭악(嵩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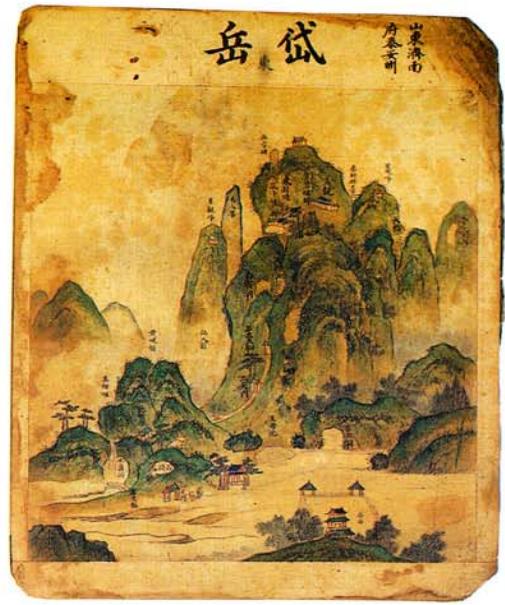


사진 12. 오악도(五岳圖)중  
산둥(山東) 제남부(濟南府) 태안  
주(泰安州) 대악(岱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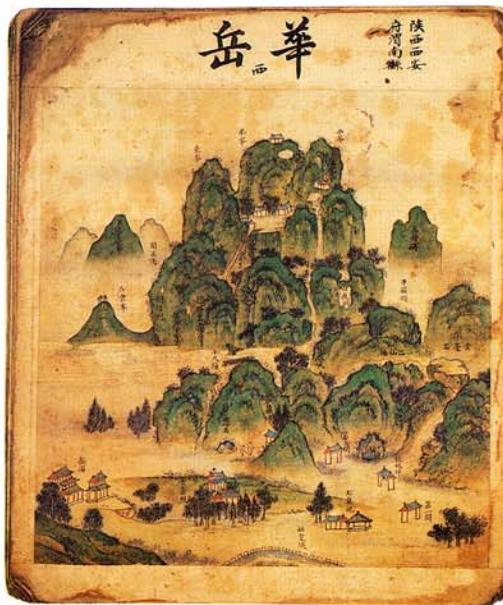


사진 13. 오악도(五岳圖)중  
섬서(陝西) 서안부(西安府) 위남  
현(渭南縣) 화악(華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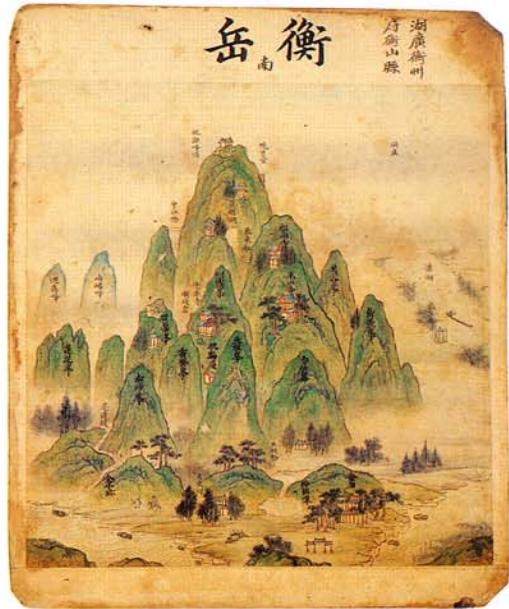


사진 14. 오악도(五岳圖)중  
호광(湖廣) 형주부(衡州府) 형산  
현(衡山縣) 형악(衡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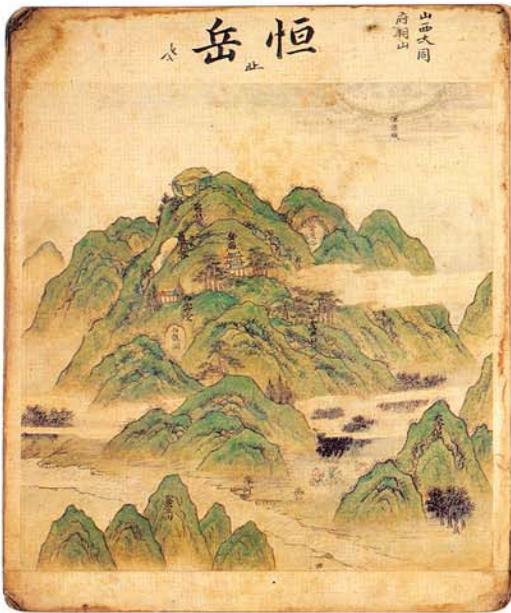


사진 15. 오악도(五岳圖)중  
산서(山西) 대동부(大同府) 조산  
(朝山) 향악(恒岳)



사진 16. 오악도(五岳圖)중  
소주(蘇州) 구현(具縣) 영암(靈  
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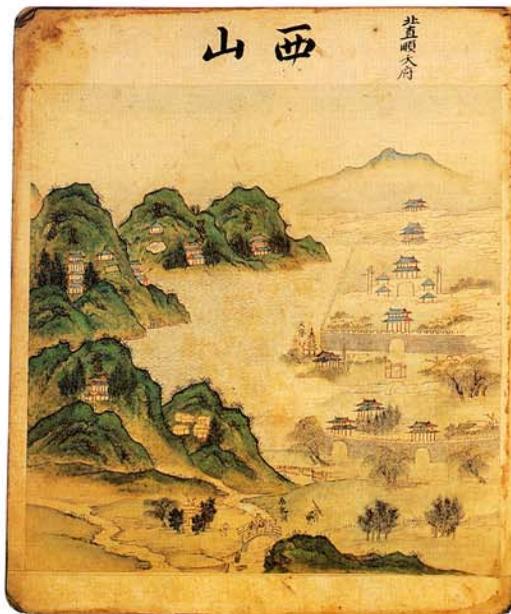


사진 17. 오악도(五岳圖)중  
북직(北直) 순천부(順天府) 서산  
(西山)



사진 18. 오악도(五岳圖)중  
산동(山東) 충주부(兗州府) 곡부  
현(曲阜縣) 공림(孔林)



사진 19. 오악도(五岳圖)중  
 절강(浙江) 온주부(温州府) 낙청  
 현(樂淸縣) 안탕(雁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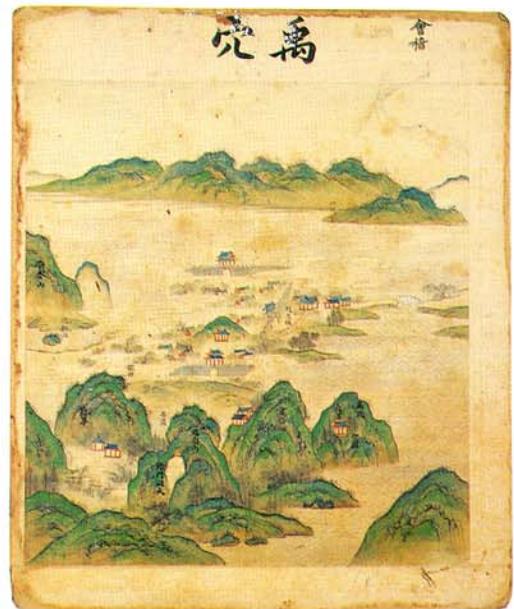


사진 20. 오악도(五岳圖)중  
 회계(會稽) 우혈(禹穴)



사진 21. 오악도(五岳圖)중  
 봉화(奉化) 설두(雪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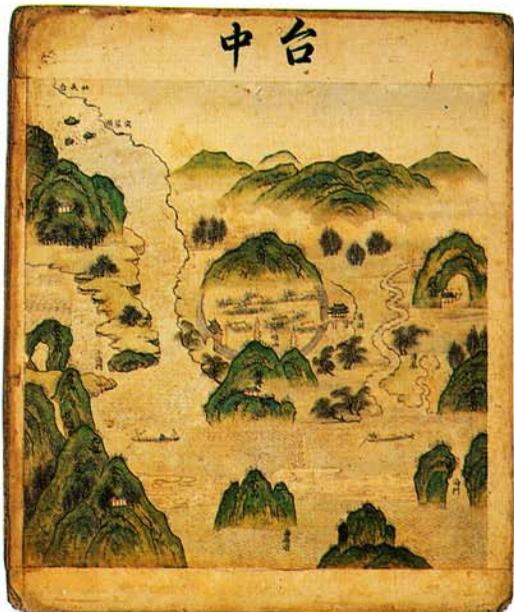


사진 22. 오악도(五岳圖)중  
 태중(台中)



사진 23. 오악도(五岳圖)중  
하남(河南) 하북(河北) 양하총도  
(兩河總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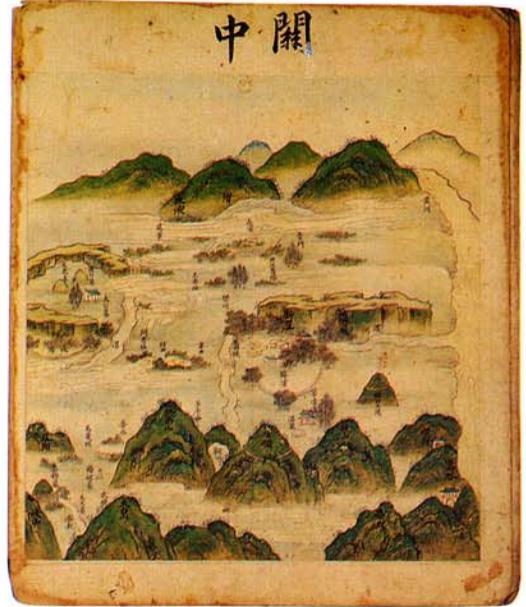


사진 24. 오악도(五岳圖)중  
관중(關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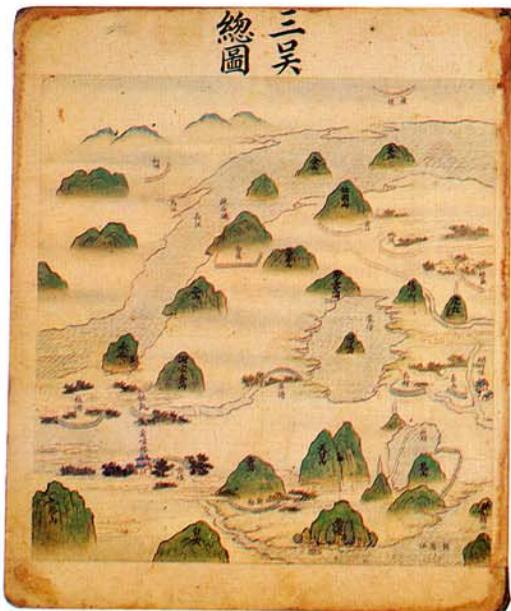


사진 25. 오악도(五岳圖)중  
삼오총도(三吳總圖)



사진 26. 오악도(五岳圖)중  
응천부(應天府) 금릉(金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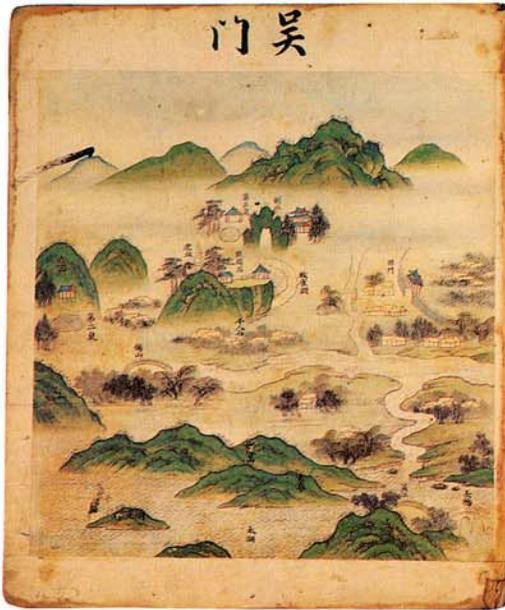


사진 27. 오악도(五岳圖)중  
오문(吳門)



사진 28. 오악도(五岳圖)중  
휘주부(徽州府) 휴녕현(休寧縣)  
백악(白岳)



사진 29. 오악도(五岳圖)중  
진강부(鎮江府) 단도현(丹徒縣)  
경구삼산(京口三山)



사진 30. 오악도(五岳圖)중  
항주부(杭州府) 전당현(錢塘縣)  
서호(西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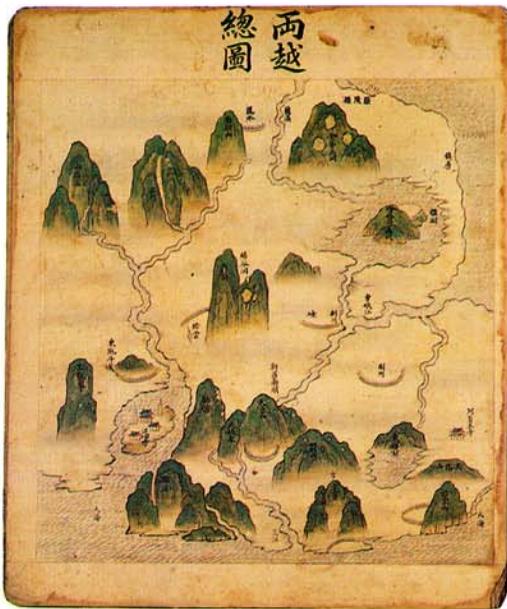


사진 31. 오악도(五岳圖)중  
양월총도(兩越總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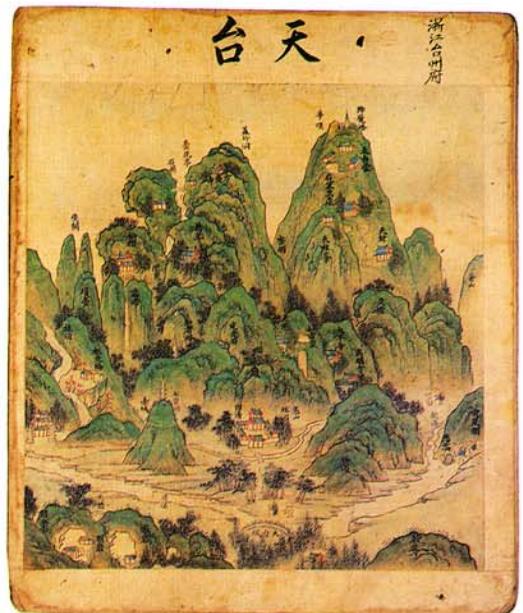


사진 32. 오악도(五岳圖)중  
절강(浙江) 태주부(台州府)  
천태(天台)



사진 33. 오악도(五岳圖)중  
섬서(陝西) 봉현(鳳縣) 지포현  
(至浦縣) 잔도(棧道)



사진 34. 오악도(五岳圖)중  
촉도(蜀都)



사진 35. 오악도(五岳圖)중  
사천(四川) 중경부(重慶府) 파현  
(巴縣) 삼협(三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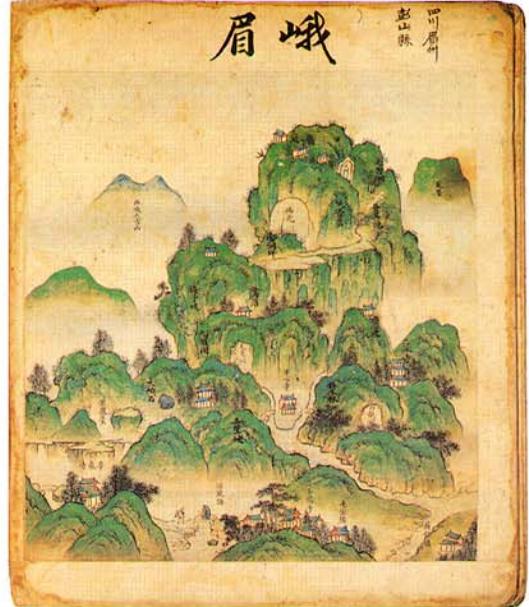


사진 36. 오악도(五岳圖)중  
사천(四川) 미주(眉州) 팽산현  
(彭山縣) 아미(峨眉)



사진 37. 오악도(五岳圖)중  
호광(湖廣) 양양부(襄陽府) 균주  
(均州) 태악(太岳)



사진 38. 오악도(五岳圖)중  
강서(江西) 남강부(南康府) 성자  
현(星子縣) 광려(匡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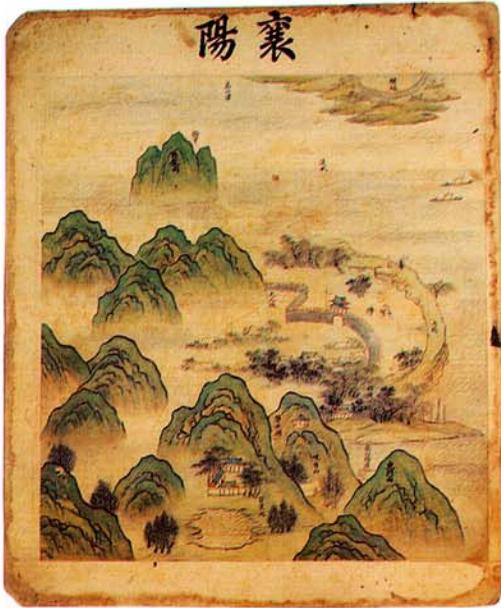


사진 39. 오악도(五岳圖)중  
양양(襄陽)



사진 40. 오악도(五岳圖)중  
광서(廣西) 계림(桂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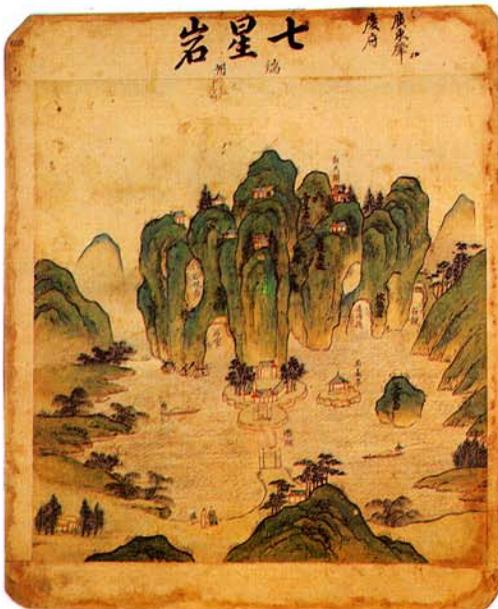


사진 41. 오악도(五岳圖)중  
광둥(廣東) 조경부(肇慶府) 칠성  
암(七星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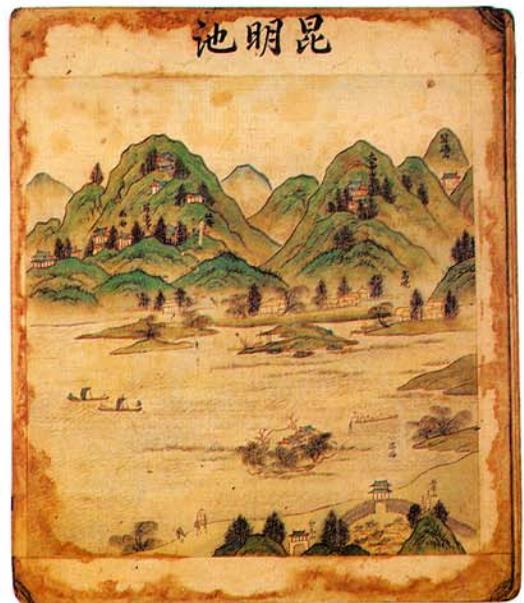


사진 42. 오악도(五岳圖)중  
곤명지(昆明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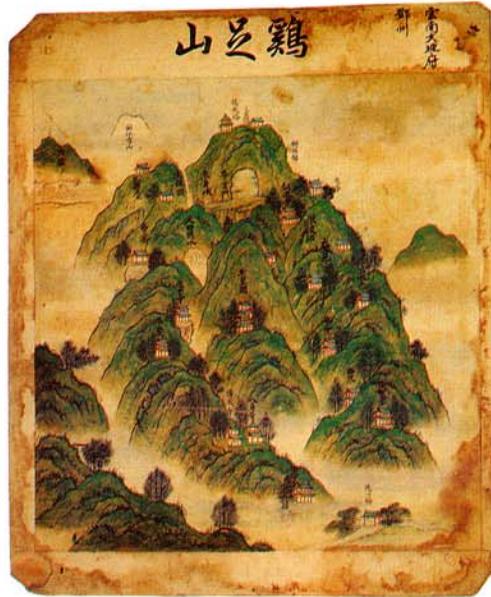


사진 43. 오악도(五岳圖)중  
운남(雲南) 대리부(大理府) 등주  
(鄧州) 계족산(鷄足山)



사진 44. 오악도(五岳圖)중  
운남(雲南) 대리부(大理府) 태화  
현(太和縣) 점창산(點蒼山)



사진 45. 오악도(五岳圖)중  
운남(雲南) 구정산(九鼎山)

# 燕行日録



第二泉

鶴山

虎丘

藍田石

第三寺

放生湖

塔門

## 조영복(趙榮福)의 『연행일록 燕行日錄』에 대하여

임기중 (林基中)

### 1. 머리말

조영복(趙榮福)의 『연행일록 燕行日錄』은 아직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경기도박물관 소장의 연행록(燕行錄)이다. 『연행일록』은 조영복이 연행할 때 행초(行草)로 쓴 초고본(草稿本)인데, 역시 행초로 쓰여진 별장(別章)과 함께 조문(趙門)에 가전(家傳)되어 왔다. 이번에 이를 모두 탈초하고 번역·주석하여 학계에 처음 소개하면서 이 글을 쓴다.

조천록(朝天錄)은 고려와 명나라(1368~1392) 또는 조선과 명나라(1392~1636)의 전형적인 조공 관계가 만들어낸 사기록(私記錄)을 말하는 것이며, 연행록(燕行錄)은 조선과 청나라(1636~1894)의 의례적인 조공 관계가 만들어낸 사기록을 말한다. 명칭의 표기가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표기 경향이 조천록과 연행록으로 변별되어 있다<sup>1)</sup>.

조선 왕조는 매년 명나라와 청나라에 정례 사행(冬至, 正朝, 聖節, 千秋)과 부정례사행(王薨, 嗣位, 冊妃, 建儲, 先王追崇)을 보냈다. 이들 사행은 대개 정사(正使), 부사(副使), 서장관(書狀官) 등 정관(正官)이 30여명으로 구성되나 실제의 인원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200여명에서부터 500여명이나 되었다. 그들 중 공사(公私)의 기록을 많이 남긴 것은 서장관(書狀官), 질동종사관(質問從事官), 사자관(寫字官), 화원(畫員), 반당(伴儻), 서자(書者), 의인(醫人) 등의 신분을 가진 이들이다<sup>2)</sup>.

그들의 공로(貢路) 노정(路程)은 바닷길과 육지길이 있었는데 어느 길로 가든지 고정된 코스만을 따라 가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조의 연행사들은 대개 육지길을 이용하였다. 그들이 남

1) 임기중 1992 「연행가사와 연행록」, 『고전시가의 실증적 연구』 동대출판부 481-564쪽 및 임기중 1997 「조천록과 연행록의 화답시」, 『국어국문학』 119호 국어국문학회 207-237쪽 참조.

2) 임기중 앞의 논문 「연행가사와 연행록」 참조.

긴 사기록은 대개 일기 형식으로 쓴 것인데, 그 내용은 새로운 문화에의 충격, 견문 소감, 학술 교류, 서양 문화의 간접 체험, 풍속과 문물 교류 등이 주된 것이다. 그들 일행이 한성(漢城 : 서울)을 떠나 연경(燕京 : 북경)을 다녀오는데는 대개 5~6개월이 걸렸으나 길게는 1년이 걸린 경우도 있다<sup>3)</sup>.

필자가 수집하여 정리 중에 있는 조천록과 연행록의 종류는 모두 500여종이 되는데<sup>4)</sup>, 조영복의 『연행일록』은 그 중의 하나이다. 경기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연행일록』은 부사(副使) 조영복이 쓴 것인데, 별장(別章)과 함께 오롯이 전하고 있어 그 규모는 적지만 자료적 가치가 있고 새로운 것이어서 여기 소개하는 것이다.

## 2. 조영복과 『연행일록』의 체제

조영복(1672~1728)은 함안인(咸安人)인데 자가 석오(錫五)이며 호를 이지당(二知堂)이라고 하였다. 숙종 31년(1705)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9년 뒤에 증광문과로 급제한 문신이다. 그는 증광문과로 급제한 5년 뒤인 숙종 45년(1719) 당시 37세의 나이에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차정되어 북경을 다녀 왔다. 이 해는 청나라 강희(康熙) 58년이다. 조영복은 이 때 부사로 다녀온 뒤 10년도 채 넘기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므로 그의 일대기에서 이 때 쓴 『연행일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영복의 『연행일록』은 동지부사인 그가 연행시(燕行時)에 일기체로 쓴 연행록이다. 이들 동지사 일행은 정사(正使)에 우참찬(右參贊) 조도빈(趙道彬), 부사(副使)에 형조참의(刑曹參議) 조영복(趙榮福), 서장관(書狀官)에 병조정랑(兵曹正郎) 신철(申哲)을 삼사(三使)로 구성하였다<sup>5)</sup>. 정사 조도빈은 양주인(楊州人)인데 당시 44세였으며, 부사 조영복은 앞에 밝혔듯이 함안인(咸安人)인데 37세였다. 그리고 서장관 신철은 평산인(平山人)인데 당시 27세였다. 따라서 20대와 30대와 40대의 나이로 삼사(三使)를 구성한 비교적 젊은층의 외교사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 일행을 공식적으로 수행한 사람과 정관(正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행중원역(行中員譯)으로 가의대부 최규(崔奎), 절충장군 변시화(卞時和), 한학상통사훈도(漢學上通事訓導) 김상현(金商鉉), 청학상통사(淸學上通事) 김세경(金世鏡), 교훈질문 고시연(高時彦), 년소총민(年少聰敏) 최한창(崔漢昌), 차상통사 박간(朴衍), 암물통사 홍순문(洪舜文)·정문유(鄭文裕)·이영욱(李英郁), 우어별채아 변상중(邊尙中), 청학별채아 최진화(崔震華)·신성침

3) 임기중의 앞의 논문 1992 및 1997과 「한중 외교문학 연구」 『동악어문논집』 제31집 171-213쪽 참조.

4) 임기중 위의 논문 참조.

5) 『숙종실록』 기해(45년) 11월 4일과 조영복의 『연행일록』 서두 참조.

(申性沈), 세폐영거교회 전정(前正) 한수희(韓壽禧), 몽학 김세민(金世敏), 왜학 한세범(韓世範), 세폐영거교회 전정(前正) 고시면(高時冕), 몽학 김익회(金益悔), 청학신체아 박창유(朴昌裕), 우어별차 임재방(林再芳), 의원 장세정(蔣世貞), 사자관 김유휘(金有輝), 화원 노태현(盧泰鉉), 정사군관(正使軍官) 이행검(李行檢), 중방(中房) 박지병(朴枝炳), 절충 김상현(金尙顯), 노자(奴子) 준이(俊伊)·유수기(劉壽基), 건량고직 노세성(盧世成), 부사군관(副使軍官) 최상집(崔尙嶠), 중방 조덕휘(趙德輝), 선전관 안세태(安世泰), 노자 건리금(件里金 : 버리쇠), 참봉 이태석(李泰錫), 건량고직 종동(種同 : 씨동이), 서장타각(書狀打角) 신중화(申重華), 중방 하세흥(河世興), 노자 세찬(世贊), 승문원 화원(書員) 신상겸(申尙謙) 등이 일행으로 같이 갔다<sup>6)</sup>.

이들 동지사행은 숙종 45년(1719) 기해(己亥 : 청나라 강희 58년) 11월 4일 오전 9시 경에 입궐하여 숙종께 하직인사를 하고 정례사행으로서 청나라 수도인 연경(燕京 : 현재의 북경)을 향해 떠났다. 대궐 안의 사대(查對)에는 우상 이견명, 예판 민진후, 호판 송상기 등이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12월 27일 조선조 연행사들의 숙소인 연경의 옥하관(玉河館)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회정(回程)에 든 것은 다음해 2월 15일이었으므로 실제 연경 체류 기간은 45일 정도였다. 정례사행의 경우 연경 체류 기간은 보통 35일부터 45일 정도만 허락되어 있었으므로 아주 정상적인 일정이었다. 이들 일행은 다음해인 숙종 46년(1720) 경자(庚子 : 청나라 강희 59년) 3월 26일 오후에 대궐에 들어가서 복명을 마쳤다<sup>7)</sup>. 따라서 이들 동지사 일행의 여정은 총 5개월간이었으며 날짜로는 모두 142일이 소요되었다. 이런 여정은 육지길을 이용한 청나라 연행사의 경우 가장 정상적인 여정이다.

조영복의 『연행일록』 체제는 가장 전형적이면서 아주 보편적인 것인데, 차운(次韻)한 시(詩)나 감흥을 읊은 시작(詩作)들을 맨 뒤에 별도로 모은 체제를 택하였다. 이와 다른 또 한 전형의 체제는 일기 속에 그런 시작(詩作)들을 일기의 일부로 쓰고 있는 것이 있다.

조영복의 『연행일록』은 새로운 문물에 대한 충격적 체험의 구체적 서술이 빈약한 것이 약점이라 할 수 있으나, 별장(別章)이 고스란히 모두 전하고 있다는 점은 이 연행록의 강점으로서 그런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현재 전하는 별장(別章)은 시(詩)가 19제(題)에 58수(首)나 되며, 문(文)이 2편이다. 시의 형식으로는 오언절구가 46수, 오언율시가 10수, 오언고시가 1수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별장(別章)들을 조영복에게 써 준 이들은 이 시기 정권의 주도 세력인 노론계(老論系)의 인물들이라는 것이 특색이다. 당시 조영복은 연경으로 떠나기 전 이런 별장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 별장(別章)의 내용에 나타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6) 조영복의 『연행일록』 서두 참조.

7) 조영복의 『연행일록』 참조. 이하 『연행일록』을 참조할 경우에는 본문 서술에서 날짜만 밝혀 쓰고 별도의 각주는 생략한다.

### 3. 『연행일록』의 내용과 연행별장(燕行別章)

조영복의 『연행일록』을 그 노정(路程) 별로 내용을 나눈다면 ① 한성(漢城 : 서울)을 출발하여 압록강을 건너는 도강(渡江)까지, ② 청나라에 입국해서 연경(燕京)까지, ③ 연경의 체류기간, ④ 회정(回程)에서 압록강을 건너는 도강(渡江)까지, ⑤ 도강(渡江)해서 한성(漢城)에 입성(入城)하여 복명까지,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영복 일행의 동지사(冬至使)는 숙종 45년 11월 4일 한성을 출발하여 11월 26일 국경 압록강을 건너 청나라로 갔다. 이 노정을 20일 내외로 기록하고 있는 연행록(燕行錄)은 도중 유람(遊覽)이 없는 가장 정상적인 일정이다. 송도(松都)와 평양(平壤) 등을 유람하고 다소의 풍류를 즐기는 경우 이 노정이 한 달 이상 걸린 연행록이 적지 않다. 이들 일행 중 삼사(三使)는 11월 12일 새벽에 망궐례(望闕禮)를 올리고 연광정(練光亭)에 올라서 잠시 관광을 하였다. 대부분의 연행사(燕行使)들이 그랬듯이 조영복도 그의 『연행일록』에 김황원의 “장성일면용용수 대야동두점점산(長城一面溶溶水 大野東頭點點山 : 긴 성 한 자락으로는 물이 질펀히 흐르고 넓은 들판 동쪽 끝에는 산이 점점이 이어진다)”을 읊조리며 주변 경관을 찬탄하는 기록을 남겼다.

도강(渡江)하기 전날인 11월 25일에는 강을 건너는 사람과 말의 수를 점검하고 일체의 방물(方物)을 재확인하는 일을 하였다. 정사(正使)는 5필, 부사(副使)는 4필, 서장관(書狀官)은 3필의 말을 가지고 갔으며, 세폐목(歲幣木)을 싣는 말이 140여필, 식량과 방물·약제·문서 등을 싣는 말이 300여필, 역졸이나 역관들이 가지고 간 말이 80여필이었다. 그리고 연행 도중 일행을 별출 때 쓰는 형장(刑杖)을 싣고 가는 말도 1필이 있었다. 압록강을 건너는 11월 26일은 서장관 신철(申哲)과 만윤(灣尹)이 일찍이 압록강변에 나가서 복물(卜物)을 수검(搜檢)하였다. 그리고 정사(正使) 조도빈(趙道彬)과 『연행일록』의 필자인 조영복이 도착하자 송별식을 가졌다.

송별식은 세폐(歲幣) 방물과 세사람 분의 마른 식량을 수검한 후 장계(狀啓)를 발군(撥軍)에게 부치고, 집에 보내는 편지를 부친 다음에 정사가 맨 먼저 설마(雪馬)를 탔다. 이 설마를 필두로 하여 이들 일행이 압록강의 소서강(小西江)을 건널 때 의주(義州)의 관속(官屬)들이 차례로 이별을 고하였다. 그리고 중강(中江)과 고진강(古津江)에서 조선과 청나라 양국의 차사원끼리 일행의 최종적인 인수인계를 하였다.

이 날 해질 무렵에 구련성(九連城)에 도착하여 서장관 신철(申哲)이 청나라 입국자 일행의 인원 점검을 하였다. 청나라 구련성의 첫날밤은 만상군관(灣上軍官)이 쳐놓은 막사에서 잤다. 정사의 막사는 몽고의 취막(毳幕)이었으며 부사와 서장관의 막사는 땅을 파서 만든 개가죽 막사였다. 막사 안에는 두 개의 화로에 불을 피우고 나무 밥상처럼 생긴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도록 하였다. 바깥에는 땅을 쳐서 호랑이를 막고, 사방에는 불을 피워서 추위에 대처하면서

고각을 불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을 경계하였다.

구련성에서 하룻밤을 묵은 일행은 11월 27일부터 연경을 향해 하루에 60리에서 100리 정도 켜를 가서 12월 27일 조선 연행사의 숙소인 옥하관(玉河館)에 도착하였다. 이 여정은 30여 일이 걸렸는데 아주 순조로운 정상적인 여정이었다. 이 구간에서 대부분의 연행록(燕行錄) 여정이 정상일 경우 2~3일간의 차이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다.

작자(作者) 일행은 11월 28일 책문(柵門) 밖 봉성(鳳城)에 도착하여 삼사(三使)가 책문(柵門)에 들어갈 장계(狀啓)를 수봉하고 집에 보내는 편지를 의주로 가는 장교 편에 부쳤으며, 호송초관 2명과 검군초관 1명과 창군(槍軍)도 돌려보냈다. 책문이 열리자 군뢰(軍牢)들이 접근을 막으면서 꾸짖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인(胡人)들이 몰려나와 막사 앞을 둘러쌌다. 관례에 따라서 역관들이 예단과 술, 과일을 나누어 주었다. 삼사(三使)가 먼저 교자(轎子)를 타고 책문(柵門)으로 들어갔으며, 여기를 지나서는 말로 갈아타고 갔다.

안시성산(安市城山)에 이르러서 작자는 이 산이 우리나라 서울의 도봉산과 삼각산 같다고 하면서 다만 돌의 색깔이 더 푸르고 희며 사랑스럽다고 썼다. 작자가 맨 먼저 받은 문화적 충격은 비단, 화기(畫器), 음식물 등 물화의 풍성함에서였다. 작자는 12월 1일에는 연산관의 청인(淸人) 기문수의 집에서 잤는데, 필담(筆談)으로 그에게서 고려왕(高麗王)이 황제의 사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수긍하지 않는다. 그 다음날은 회령령(會寧嶺)을 넘어서 청인(淸人) 고우직의 집에서 잤다. 그 집의 13~4세된 아들과 같은 또래의 집안 아이들이 글에 능하여 배운 바를 물었는데, 『맹자 孟子』를 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규벽맹자 奎璧孟子』, 『총류육언잡자 總類六言雜字』, 『천가시 千家詩』라는 책을 살펴보고 그 집 아이들로 하여금 외우도록 하여서 한자의 독음(讀音)이 우리나라와 유사함을 확인한다. 그 중 『총류육언잡자』는 살림살이와 관계된 사물의 명칭을 적은 것이고, 『천가시』는 당송(唐宋)의 칠언절구였다고 하였다.

12월 6일에는 혼강(渾江 : 일명 아리강)을 건너서 심양(瀋陽) 토성 밖에서 내성으로 들어가 찰원(察院)에서 유숙하였다. 여기서 작자가 말하는 혼하(混河)는 오늘날 혼강(混江)인 것 같으며, 심양토성(瀋陽土城)이란 발해성(渤海城)을 말하는 것 같다. 12월 7일에는 북경 문첩(文牒) 때문에 심양에서 세폐로 생목(生木) 2,500필과 큰 종이 150권, 작은 종이 2,100권, 그리고 점미(粘米) 3석 5말 4되를 바쳤다. 작자는 이를 주관하는 낭중배들이 동지사 일행이 가지고 가는 쌀까지 덜어내서 착복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통탄스러워 한다.

작자는 12월 10일에 이도정(二道井)에 도착해서 서장관과 함께 청인 정자망(鄭自望)의 집에서 잤다. 이판 빈태(賓台)에게서 이곳에 용한 점쟁이가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온 작자는 역관 김상현과 한수희를 시켜 장동백이라는 점쟁이를 불러들인다. 그는 운남 사람인데 오삼계(吳三桂)의 부하로 있다가 이곳으로 유배온 사람이었다. 점채는 가지고 간 종지와 칼로 주었다. 작자는 사주를 써 주고 이듬해 2월로 추산되는 회정(回程) 길에서 운세를 받아보기로 하

였으나, 회정 길에서 만난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그 때 짐채만 날리고 만 것 같다.

작자는 12월 13일 새벽에 길을 떠나서 여양역에서 아침을 먹고, 2·3·4·5·6대(臺)를 지나면서 국력을 소모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실감 있게 체험한다. 명나라 말기에 오랑캐가 침범하거나 상서롭지 못 한 일이 발생하면 그 소식을 보고하기 위해서 5리마다 연대(煙臺)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역(使役)으로 인해서 국력이 고갈되고 갑자기 백성들이 궁핍해져서 이로부터 1백년도 못 되어 명나라가 망하고 만다. 작자는 대 여섯 길이나 되는 옹벽들의 연대(煙臺)들이 모두 무용지물로 파헤쳐진 것을 보면서 흥망성쇠의 역사를 교훈적으로 체험하였다. 작자는 12월 14일 3대(臺)·대릉하(大凌河)를 지나서 사동비(四同碑)와 자정대부 지공 삼양신도비(資政大夫 遲公三讓神道碑)를 보았다. 사동비에는 만력(萬曆) 연간 제독 왕종선(王宗先)을 봉한 일을 기록하여 놓았으며, 삼양신도비는 강희(康熙) 연간에 세운 것이었는데 근처에 분영(墳塋)이 없어서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현재 광개토태왕의 분영(墳塋)이 문제되는 것과 유사한 사정이어서 이 문제의 해석 대안을 시사하는 중요한 기록이다.

작자는 12월 18일에 서장관과 함께 망부석축(望夫石築)을 본다. 여기서 전승되는 이야기를 기록한다. 몽염이 장성을 쌓을 때, 맹강녀의 남편 범랑이 종군했다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곳에 올라 바라보다 돌이 되었다고 썼다. 청인이 세운 사적비에는 맹강녀가 지아버의 시신을 얻어 깊어지고 바다에 뛰어드니 잠시 후에 돌보살이 떠올랐다는 기록이 있으나 돌이 된 까닭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작자는 의문을 가졌다. 딸에는 만력 연간에 이동(李棟)이라는 사람이 세운 비가 2개 있었는데, 마모가 심해서 읽을 수 없었다고 썼다. 바위에다 망부석이라고 세웠으며 그 곁에 발자국이 있었는데 맹강녀가 남편을 바라볼 때 생긴 것이라고 하였으나 가소롭다고 쓰고 있다. 필자가 1994년 2월 그 곳에 가 보았는데, 그 때도 이 기록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었다. 여기서 바라본 장성의 치성(雉城)이 연대와 같았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여행록(燕行錄)이 이곳 맹강녀의 이야기를 쓰고 있으며, 기록된 내용 또한 유사하다.

작자는 정사(正使)를 따라 산해관(山海關)으로 가서 한인(漢人) 맹구리의 집에서 잤다. 작자는 여기서 노가재 김창업(金昌業)의 부탁을 청긴다. 김창업은 그가 계사년에 몽와(夢窩) 상공(相公)을 따라서 북경에 갈 때 산해관에 사는 꺾여백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동작와연(銅雀瓦硯)을 가지고 있으므로 돈을 주면서 그것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김창업이 36수(首)나 되는 절구(絶句) 별장(別章)을 정성껏 써서 작자에게 준 바도 있어서 작자로서는 그의 부탁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sup>8)</sup> 그래서 그런지 작자는 역관(譯官)을 동원하여 꺾여백을 만난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 벼루는 목춘원(穆春元)의 조부가 소장하였던 것인데 꺾여백이 그런 소장품을 가벼이 여겨 팔 수준의 사람은 아니었다. 작자는 여기서 면박을 당하고 사정

8) 김창업(金昌業)의 여행별장 “노가재 김창업 참의 조석오 이동지부사 부연 내술일로산천사경 위절 구증지 범삼십육수(老稼齋 金昌業 趙參議 錫五 以冬至副使 赴燕 乃述一路山川事景 爲絶句增之 凡三十六首)” 참조.

하여 순화(淳化) 연간 당나라 회소(懷素)의 자서진첩(自敍眞帖)과 송나라 천마부진첩(天馬賦眞帖), 명나라 문징명(文徵明), 동기창(董其昌)과 당백호(唐伯虎)의 음중팔선화(飲中八仙畫)를 구경하는 안복(眼福)으로 만족하였다. 작자는 그 작품의 값이 백여 금이 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작자는 12월 26일 유하둔(榆河屯)에서 호마(胡馬)를 타고 달리는 황제의 조카 행렬을 보았다. 선두에는 호마를 탄 2~3 명이 달리면서 길을 비키라고 알리고, 그 뒤에 호의(胡衣)에 담비 갓옷을 입고 노새를 탄 한 무리 속에 누가 황제의 조카인지 알 수 없게 나란히 나아가고, 그 뒤에는 환관(宦官)과 내시(內侍) 백여 기가 수레를 타고 따랐다고 하였다. 작자 일행은 길가로 피해서 이 행렬을 보고 상세히 그 장면을 묘사하였다. 이날 백하(白河)에 도착하여 화려하고 다양한 수많은 배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많은 연행록에 이곳의 화려한 배 묘사가 나타나 있으며 항상 새로운 문화에의 충격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길가의 향과 꽃을 파는 가게에서 현란함을 느낀다.

작자는 12월 27일 드디어 용왕사(龍王寺)에서 관대를 바꾸어 입고 조양문(朝陽門)으로 들어선다. 그리고 작자는 조양문의 화려함과 큰 규모를 찬탄하면서 드디어 옥하관(玉河館)에 들어섰다. 이곳은 조선조 연행사들이 항상 북경 체류 기간에 묵는 숙소였다. 그런데 작자는 이곳에 도착해서 그곳의 상황을 “시가지며 사람들의 변화함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 할 정도로 대단한데 옥하관(玉河館) 안에는 뜰에 똥 무더기가 가득하고 창문이 부서지고 찢어져 있었으며, 강도 무너져 있어서 종이를 발라서 보수해야만 들어 갈 수 있었다”고 쓰고 있다. 이것은 당시 조선조 외교사절에 대한 청나라 지배층의 의식이 반영된 한 단면이다. 그런 상황에서 작자는 북경의 첫날밤을 맞았다.

이들 동지사(冬至使) 일행의 북경 체류는 숙종 45년(1719) 12월 28일부터 숙종 46년(1720) 2월 14일까지 45~6일 간이다. 조선 연행사의 체류 기간은 특수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이런 정도의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작자 일행은 옥하관(玉河館) 도착 다음날인 12월 28일 곧바로 청나라 좌시랑을 따라서 예부문(禮部門)으로 들어가 의전 예행연습을 하였다. 좌시랑은 좌편에 서고, 정사는 서쪽에 무릎을 꿇고 표자문 상자를 황제께 올린다. 작자인 부사(副使)도 정사를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삼사(三使)가 모두 3배 9고두의 예를 올렸는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청나라 좌시랑이 호통을 쳤다고 하였다. 참으로 굴욕적인 체험을 하면서도 그런 체험의 감정표현을 무감각하게 감추고 있는 것이 이 연행록(燕行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호통을 맞았다는 표현 자체가 굴욕 체험의 가장 응축된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설달 그믐날인 12월 29일에는 황제가 조선 연행사(燕行使)에게 세찬을 내렸다. 그 세찬은 살아 있는 양과 거위, 한 탁자의 과실과 유과였다. 이날 저녁에 북경에서는 딱총놀이가 성했다고 썼는데, 이런 풍속은 다른 연행록에도 대부분 들어 있고 그 폐단까지 기록하고 있다. 필자 역시 북경에서 체험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도 그런 풍속이 계속되고 있다. 숙종 46년 경자년 1월 1일에 삼사(三使)는 천안문과 단문, 오각문을 지나서 서쪽의 행랑채 앞에 앉았다. 그리

고 청나라 황제는 가마를 타고 오봉문(五鳳門)에서 나왔다. 작자는 이날의 기록을 비교적 상세하게 쓰고 있다. 지휘자의 구령에 맞추어서 청관(淸官)과 몽고관(蒙古官)이 먼저 벽들로 만든 품계석 앞에 서고, 모두 3배 9고례를 올린 다음에 조선의 삼사(三使)가 품계 푼말 아래 섰다. 작자는 이 때 황제가 삼사 앞에 와서 접견한 것이 마치 큰 예우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의전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들 일행은 처음으로 코끼리를 구경한다. 코끼리의 이빨과 긴 코에 관하여 신기한 체험을 하였다. 다른 연행록에도 코끼리의 묘사는 자주 나타난다.

조영복의 『연행일록』은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와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한 달 남짓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1월 9일도 새로 나온 『범충정공집 范忠貞公集』을 가져온 이가 있어서 그것을 살펴본 내용 일부만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므로 북경 체류 30일 가까이 그가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가 없다. 대부분의 연행록이 북경 체류 기간의 많은 체험과 문화 충격을 적고 있으며, 많은 인적 물적 교류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상례인데 조영복의 『연행일록』은 그런 상례를 벗어나 특이한 현상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그런 까닭이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점은 앞으로 이 동지사(冬至使) 일행의 다른 기록을 찾아서 반드시 규명해 내야 할 과제이다.

작자는 2월 10일에도 역관(譯官) 최규(崔奎), 박창유(朴昌裕), 고시언(高時彦)과 작자의 군관(軍官)인 최상집(崔尙嶠)이 은(銀)을 모아서 청나라 서반(序班)들에게 구해 온 책에 실려 있는 해적(海賊)들의 활동과 그 퇴치에 관한 내용을 자기의 『연행일록』에 옮겨 적은 것 외에 다른 기록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기이한 연행록이다. 작자 일행인 삼사(三使)는 2월 12일에 오문(午門)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간 말과 옥과 은을 황제에게 예물로 바쳤다. 그리고 황제로부터 상급을 받는다. 이날 청나라 우시랑의 안내로 잔치를 받았으며, 천주전과 황실 구경을 비교적 상세히 하였다. 이날의 관람에서 작자에게 날개 달린 사람의 벽화와 머리 푼 예수의 그림, 혼천의가 가장 새롭고 신기한 체험이었다.

작자 일행인 삼사(三使)는 2월 13일 청나라 예부시랑의 안내로 정청(正廳)에 들어가서 상마연(上馬宴)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제는 조선이 사대(事大)하는 정성이 가늠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북경 체류 기간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였을 것이라고 위로를 한다. 북경 체류 마지막 날인 2월 14일에 작자는 정청에 나아가서 서양인을 만나 필담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황제가 도교(道敎)에 깊이 빠져 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이 조선의 의제(儀制)에 관해서도 아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들과 작자는 천리경(千里鏡), 흡독석(吸毒石), 도서(道書) 등과 종이, 부채를 주고 받는 거래를 하였다.

작자 일행은 2월 15일 조양문(朝陽門)을 나와서 통주(通州)로 향하므으로써 회정(回程)에 올랐다. 이에 3월 17일 압록강을 건넜는데, 이 기간이 30여일이다. 다른 연행록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정상적인 일정이었다. 작자는 2월 16일 명륜당(明倫堂)과 대성전(大成殿)을 보았는데 대성전의 뜰에서 4배를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2월 17일에는 소림사(小林寺)를 본다. 여기에

서 작자는 전조예(錢兆豫)라는 한 서생을 만나서 궁금증을 푼다. 작자는 명나라가 진(辰)·술(戌)·축(丑)·미년(未年)으로 식년(式年)을 삼았다고 하는데, 청나라는 어찌하여 자(子)·오(午)·묘(卯)·유년(酉年)으로 식년을 삼는지가 궁금하였다. 이에 관해서 전(錢) 서생은 자·오·묘·유년에는 향시과(鄉試科)이고, 진·술·축·미년은 회시과(會試科)라고 정확히 알려준다. 그리고 작자는 전 서생의 청에 따라 글씨를 한 폭 써 주고, 붓과 먹·종이를 선물로 주자 전 서생은 조자양이 쓴 전적벽부 9폭을 주어서 받아 온다.

작자는 2월 23일 산해관에 도착한다. 여기에서 작자는 곽여백을 만나고 그에게서 증생(增生)과 늑생(廩生)의 뜻과 차이를 처음으로 알게 된다. 늑생은 팔고문(八股文)으로 여러 수재 중에서 일등 1명을 뽑아서 제자원(弟子員)에 충원되는 것인데 조정에서 녹미(祿米) 10석을 받는 것이고, 증생이란 처음 진학한 수재로 현재 생원인 자들 중에서 일등 2명을 가려 뽑아 증광생원늑생(增廣生員廩生)으로 삼고 녹미를 먹은 지 20년이 되면 출공(出貢)하게 하여 세공생(歲貢生)으로 삼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기 때문이다.

이들은 회정 도중 폭풍우를 만나서 고생도 하고 말이 몇 마리 죽는 일을 당하면서 3월 16일 책문(柵門)을 빠져 나왔다. 그리고 3월 16일 다시 압록강을 건넜다. 이날 삼사(三使)는 고향 소식을 접하는데 정사는 서질부(庶姪婦)의 부고를 들었으며, 서장관은 독자(獨子)가 죽은 것을 알게 된다. 서장관이 예를 지나칠 정도로 울었다고만 적은 것을 보면 작자는 지나치리 만큼 감정이 둔감한 것 같다. 이런 작자의 성향이 『연행일록』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조영복 일행은 3월 18일부터 고국에서 회정을 시작해서 3월 26일 정오를 지나 입궐하여 복명을 마침으로써 동지사(冬至使)의 임무를 모두 마친다. 이 기간도 지극히 정상적인 일정이었다.

연행록(燕行錄)은 시(詩)가 있는 연행록과 시(詩)가 없는 연행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조영복의 연행록은 전자에 속한다. 조영복이 연행 도중 지은 시(詩)는 모두 38제(題) 42수(首)로 되어 있다. 이 시는 그의 『연행일록』보다는 전반적으로 생동감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차운시(次韻詩)가 반 정도 되는데 서장관(書狀官)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정사(正使)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 많았다. 성여(聖輿)는 서장관 신철(申哲)의 자(字)이므로 성여의 시에 차운한 작품은 서장관 시에 차운한 것에 속한다. 매옹(枚翁)의 시에 차운한 작품은 한 두 수에 불과하다. 매옹은 성령설을 주창한 청나라의 시인인 원매(遠枚)이다. 이처럼 조영복의 시편들은 이미 그의 『연행일록』의 기술태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어떤 편향성도 보이지 않는 평형감각을 가진 것으로서, 그가 유가적 전형의 일정한 틀 속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은 연행사(燕行使)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는 회고와 감응의 시를 각각 한 편씩 썼으며, 그 밖에는 노정별(路程別)로 그가 이르는 곳의 자연 풍광과 그에 따른 감흥의 시를 썼다. 여기에 속하는 시제(詩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곧 「고양도중」, 「청석동」, 「주필산」, 「요동구성」, 「화표주」, 「요야(요동별관)」, 「심양」, 「영원위」, 「양수하」, 「유관」, 「무녕도중」, 「산해관역오삼계감음」, 「풍운도중」, 「계문연수」, 「계주반야암」과 같은 작품들이 그것이다. 조영복이

연행 도중에 쓴 시작(詩作)들의 시제(詩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양으로 가는 길에(高陽途中)
2. 청석동에서(靑石洞)
3. 금릉 골원 김명중과 배천 골원 서퇴숙이 영수루에서 모이기로 하였다. 이에 서장관과 술을 마시면서 판상운에 주필로 차운하다(金陵倅 金明仲 與白川倅 徐退叔 要會於暎水樓 仍與書狀小酌 走次板上韻)
4. 성여의 작품에 차운하다(次聖輿)
5. 봉황성 도중에 서장관의 운에 차운하다(鳳城途中 次書狀韻)
6. 매옹의 배민시에 차운하다(次枚翁 排悶韻)
7. 압록강을 건넌 후 산야에 나무가 울창한데 유독 소나무를 쓰다듬더니 무령령에 이르자 암석간에 몇 그루 소나무가 있었다. 서장관이 이에 대한 시를 읊어서 차운하다(渡江以後 山野樹木蔥鬱 而獨撫松木 到無寧嶺 巖石間有數株松 書狀有吟 仍次其韻)
8. 새벽에 낭자산을 출발하며 매옹의 시에 차운하다(曉發娘子山 次枚翁韻)
9. 냉정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가마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입으로 읊어서 정사에게 보이다(到冷井 卸馬坐轎而食 口號示正使)
10. 주필산에서(駐蹕山)
11. 요동의 옛성에서(遼東舊城)
12. 화표주에서(華表柱)
13. 서장관의 시에 차운하다(次書狀韻)
14. 요동 벌판에서(遼野)
15. 서장관의 주필산시에 차운하다(次書狀 駐蹕山韻)
16. 집을 생각하며(思家)
17. 청석령에서 서장관의 시에 차운하다(靑石嶺次書狀韻)
18. 심양에서(瀋陽)
19. 옛일을 돌이켜 느낀 2수의 시(懷古有感 二首)
20. 정사의 시에 차운한 2수의 시(次正使韻 二首)
21. 서장관의 시에 차운하다(次書狀韻)
22. 정사의 시에 차운하다(次正使韻)
23. 정사가 강을 건널 때 쓴 시에 차운하다(追次正使渡江時韻 二首)
24. 정사의 시에 차운하다(次正使韻)
25. 영원위에서 조대수의 패루를 보고 서장관과 더불어 운자를 짊어 시를 짓다(寧遠衛 見祖大壽 牌樓 與書狀拈韻以賦)
26. 정사의 시에 차운하다(次正使韻)
27. 양수하에서(兩水河)

28. 느껴워 읊조리다(感吟)
29. 정사의 망부석시에 차운하다(次正使望夫石韻)
30. 망해정에서 서장관의 시에 차운하다(望海亭次書狀韻)
31. 눈을 무릅쓰고 일찍 유관을 출발하다(冒雪早發榆關)
32. 서장관의 만리장성시에 차운하다(次書狀長城韻)
33. 무녕현 가는 길에(撫寧途中)
34. 산해관에서 오삼계를 생각하며(山海關憶吳三桂感吟)
35. 서장관의 「사호석시」 시에 차운하다(次書狀射虎石韻)
36. 풍운으로 가는 길에(豐潤途中)
37. 계문의 내긴 나무(薊門烟樹)
38. 제주 반야암에서 잘 때, 책상위에 송죽매 세 분재가 있었는데 극히 정묘해서 관상할 만 했다. 매화는 천엽홍매로 막 피었기에 서장관과 더불어 운자를 짝어 ‘송’자를 얻었다(宿薊州般若庵有松竹梅三盆在案上 極其精妙可愛 梅則千葉紅梅 方盛開 與書狀拈韻 得松字)

작자의 시작(詩作)에는 연행 도중 그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간의 상황들이 가장 선명한, 두드러진 특징으로 드러나 있다. 그의 시작(詩作)을 통해 보면 그가 심양(瀋陽)을 지나면서부터 건강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시 「차정사운 이수」에서 병이 깊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고 하였으며, 근자에 병이 점점 위중해 감을 깨닫는다고 하면서 벼슬을 내놓고 쉬고 싶어 고향에 돌아갈 날이 기다려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차정사운」에서는 머나먼 행역(行役)의 고달픔에 시달려서 지병은 날로 깊어만 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찬 겨울이어서 풍과 담이 겹치고 거기에다가 수토병(水土病)까지 걸려서 하루 속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벼슬을 내놓고 쉬고 싶다고 하였다.

그 다음 시의 「차정사운」에서도 동지사의 임무여서 반드시 정월 초하룻날에 맞추어서 북경에 도착해야만 하는데, 병든 몸 긴 여정에 고단함을 견디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또 「양하수」라 제(題)한 시에서는 연경 만리 길이 겨우 반정도 지났는데, 병에 시달리며 시를 겨우 읊조린다고 하면서 청나라에 동지사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을 비참하게 느낀다. 그는 「풍운도중」이라 제(題)한 시에서도 황하의 심한 흙먼지로 머리카락이 희여졌으며, 거기에다가 평원과 습지를 달리다보니 병든 몸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 시에서 작자는 그들 동지사 일행이 정해진 일정에 맞추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매일 칫닭이 울면 짐을 꾸려서 출발해야 하므로 매양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다는 여정의 고달픔을 실감 있게 쓰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작자의 『연행일록』에 북경체류 기간의 기록이 유난히 소략한 까닭이 그의 건강과 관계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작자가 귀국한 뒤 십 년도 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다는 것 역시 연행 도중의 이런 기록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시 「청석동」에서는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태종이 여기까지 쳐들어 왔었던 치욕의 역사를

회고하였다. 그리고 시 「봉성도중 차서장운」에서는 작자의 『연행일록』에 기록된 바 있는 상사가 몽고 취막에서 유숙한 일과 그날 밤에 맹수의 침범을 막으려고 창과 칼을 든 병사들이 취막 밖을 지켰던 특이하고 아주 인상적이었던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다. 시 「차매옹배민운」에서는 역관들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밀무역의 폐단을 꼬집었다. 그리고 시 「도냉정 어마좌교이식 구호시정사」에서는 청나라 요리사의 칼솥씨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날고기를 팔고 있는 풍속을 특이하게 보았다. 시 「요동구성」과 「화표주」는 요동성을 바라보면서 전쟁의 덧없음을 느끼고 화표주의 고사에 나오는 정령위(丁令威)가 요동 사람이어서 착상된 작품이다. 시 「차서장 주필산운」에서는 주필산의 땅이름 유래비를 보면서 작자와 서장관이 전쟁의 덧없음을 느껴서 쓴 것이다. 시 「사가」에서는 동생과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을 그들의 얼굴을 그리기도 하고 편지를 읽기도 하면서 달래보는 가족애의 애뜻한 정이 담겨 있다. 또 시 「심양」에서는 효종의 복벌정책이 성취되지 못한 것을 원통해 하고 대청 감정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으며, 시 「회고유감 이수」에서는 삼학사와 자신의 처지를 반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 「모설조발유관」에서는 여정의 고달픔을 좋은 구경으로 전환시켜 모든 것을 성군의 은혜라고 하면서 연군의 정으로 마무리하기도 한다. 그리고 시 「무령도중」에서는 처음으로 고서를 산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흥망성쇠의 무상감을 쓰고 있다.

조영복의 『연행일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행별장(燕行別章)이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연행별장에 관한 연구는 별도로 작성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별장의 목록만을 소개키로 한다. 연행별장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소재 이공 이명 양서 관 좌의정(疎齋 李公 頤命 養敍 官 左議政)
2. 장암 정공 호 중순 관 영의정(丈巖 鄭公 濞 仲淳 官 領議政)  
봉송 조승선 석오 부연(奉送 趙承宣 錫五 赴燕)
3. 지재 민공 진후 정해 관 판서(止齋 閔公 鎮厚 靜解 官 判書)
4. 한죽재 신공 임 화중 관 판서(寒竹齋 申公 鉉 華仲 官 判書)  
봉별 조시랑 석오 영공 사연부개지행(奉別 趙侍郎 錫五 令公 使燕副价之行)
5. 송공 상기 옥여 관 이판(宋公 相琦 玉汝 官 吏判)  
송 조석오 시랑 부연(送 趙錫五 侍郎 赴燕)
6. 봉신 석오 영공 연행(奉贐 錫五 令公 燕行)  
구천병우 배(驪川病友 拜)
7. 봉신 조시랑 석오 영공 부연(奉贐 趙侍郎 錫五 令公 赴燕 : 미상)
8. 윤공 양래 계형 관 봉조하(尹公 陽來 季亨 官 奉朝賀)  
증별 동지부사 조령 석오 부연(贈別 冬至副使 趙令 錫五 赴燕)
9. 봉신 조승지 부연지행(奉贐 趙承旨 赴燕之行)  
남곡첩인 배(南谷蟄人 拜)

10. 김공 민택 치중 관 승지(金公 民澤 致仲 官 承旨)  
기해 중동 증 광산 김치중 고(己亥 仲冬 贈 光山 金致仲 稿)  
조시랑 석오 사연(趙侍郎 錫五 使燕)
11. 조공 정만 정이 관 판서(趙公 正萬 定而 官 判書)  
봉신 조석오 영공 부연지행(奉贐 趙錫五 令公 赴燕之行)
12. 이공 중협 치화 관 판서(李公 重協 雉和 官 判書)  
봉송 조시랑 부사 부연지행(奉送 趙侍郎 副使 赴燕之行)
13. (제목없음)  
이백첨 고(李伯瞻 稿)
14. 윤공 석래 중길 관 참판(尹公 錫來 仲吉 官 參判)  
송 조령석오 연경사개행(送 趙令錫五 燕京使价行)
15. 봉신 석오 영형 부연(奉贐 錫五 令兄 赴燕)  
기해 양월 김필형(己亥 陽月 金必亨)
16. 몽와 김공 창집 여성 관 영의정(夢窩 金公 昌集 汝成 官 領議政)  
증별 조령 석오 부연지행(贈別 趙令錫五 赴燕之行)
17. 한포재 이건명 중강 관 좌의정(寒圃齋 李健命 仲剛 官 左議政)  
봉증 절사 조시랑 석오 부연지행(奉贈 節使 趙侍郎 錫五 赴燕之行)
18. 병산 이공 관명 자빈 관 좌의정(屏山 李公 觀命 子賓 官 左議政)  
송별 조령 석오 이부개부연(送別 趙令錫五 以副价赴燕)
19. 노가재 김공 창업(老稼齋 金公 昌業)  
조참의 석오 이동지부사 부연 내술일로산천사경 위절구증지 범삼십육수(趙參議 錫五 以冬至副使 赴燕 乃述一路山川事景 爲絕句贈之 凡三十六首)
20. 지촌 이공 희조 관 대사헌(芝村 李公 喜朝 官 大司憲)  
별 조령공 부연서(別 趙令公 赴燕序)
21. 황공 구하 성징 관 호판(黃公 龜河 聖徵 官 戶判)  
증별 조시랑 석오 봉사지연(贈別 趙侍郎 錫五 奉使之燕)

이처럼 이이명·정호·민진후·신임·송상기·구천병우·미상·윤양래·남곡·김민택·조정만·이중협·이백첨·윤석래·김필순·김창집·이건명·이관명·김창업·이희조·황구하 등 21명이 시(詩) 19제(題) 58수(首)와 문(文) 2편을 『연행일록』의 작자 조영복에게 별장(別章)으로 써주었다. 그 별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자가 떠나기 전 별장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별장을 써 준 이들은 노론(老論) 4대신 중 조태체를 빼고 이이명·이건명·김창업 등 3대신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진후·정호·송상기·이관명·신임·조정만 등 당시 노론의 중신과 문인들이 별장을 써 주는 일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영복에 앞서 이미 연행사로 북경을 다녀온 이이명·민진후·송상기·이중협·

이건명·김창협·김창집 등이 들어 있어서 조영복은 그들한테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뒤에 청나라에 간 것이 확실시 된다.

#### 4. 맺음말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새로운 자료 조영복의 『연행일록』은 초고본(草稿本) 상태 그대로 별장과 함께 오롯이 전해오고 있다는 점이 우선 주목을 받게 되는 요인이다. 그리고 이 『연행일록』은 그 당시 국가와 사회의 주도권 세력이었던 노론계 인맥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데도 기여를 한다. 『연행일록』에서 작자는 주로 서장관(書狀官)과 가까이 어울리고 정사(正使)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의례적인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그런 인간 관계의 까닭을 해명해 낸다면 이 연행록은 물론 당시의 다른 연구에도 기여할 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연행일록』에서 작자 조영복의 주된 관심의 대상은 세 가지였는데, 그 첫째는 산동(山東)의 순무(巡撫) 이수덕(李樹德)이 쓴 해적(海賊) 이야기이고, 둘째는 과거제도였으며, 셋째는 고서화(古書畫)에 관한 것이다. 작자는 이 세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해적에 관한 기록은 고스란히 그의 『연행일록』에 옮겨 적었다. 과거제도에 관해서도 소상히 묻고 그 대답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고서화에 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대가들의 작품 -문징명·동기창·당백호 등- 을 여러 번 배관했으며, 또 그것을 구해오는 일에 많은 노력을 하여 조자양이 비단에 쓴 전적벽부 병풍 등을 가지고 왔다.

『연행일록』에 나타난 기록으로만 본다면, 작자는 다른 연행사(燕行使)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존명배청사상(尊明背淸思想)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명의 멸망을 당위론적인 것으로 비판하면서 사석(私席)에서도 청을 대국(大國)으로 높이 호칭하는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작자는 북경 체류 기간 중 15일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 약 30일 정도를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많은 연행록들이 북경 체류 기간에 가장 왕성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점과 아주 다른 현상이 나타나 있어 이 점 또한 특이하다.

『연행일록』에 조영복은 항상 감정과 정서가 경직되어 있고 새로운 선진 문물에 관한 호기심과 충격이 별로 없으며 번민이나 기쁨 같은 것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의 나이가 30대인데도 연만한 연행사(燕行使)들보다도 더 감흥이 없다. 『연행일록』에서 작자는 폐쇄적인 면과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어 일행 중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또한 많지가 않았던 것 같다. 이와 같이 볼 때 『연행일록』은 작자의 전반적 성향과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연행일록』의 성격이 그렇게 된 까닭은 별장(別章)을 받고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앞서 다녀온 기라성 같은 연행사들의 기록에 압도되었던 억압된 의식 때문이 아니었던가 싶다.

연행일록  
(燕行日錄)

여 백

正使 右參贊 趙道彬 樂甫 乙巳  
 辛未司馬  
 壬午謁聖 楊州人  
 七月十七日午  
 副使 刑曹參議 趙 錫五 壬子  
 乙酉司馬  
 甲午增廣 咸安人  
 二月十七日子  
 書狀 兵曹正郎 申哲 聖與 辛酉  
 己卯司馬  
 戊戌庭試 平山人  
 七月二十三日午

정사(正使) 우참찬(右參贊) 조도빈(趙道彬)<sup>1)</sup> 낙포(樂甫)  
 을사년(乙巳年 : 1665년, 현종 6) 출생  
 신미년(辛未年 : 1691년, 숙종 17) 사마시(司馬試)  
 임오년(壬午年 : 1702년, 숙종 28) 알성시(謁聖試)  
 양주인(楊州人)  
 7월 17일 오시(午時)

부사(副使) 형조참의(刑曹參議) 조(趙) 석오(錫五)<sup>2)</sup>  
 임자년(壬子年 : 1672년, 현종 13) 출생  
 을유년(乙酉年 : 1705년, 숙종 31) 사마시(司馬試)  
 갑오년(甲午年 : 1714년, 숙종 40) 증광시(增廣試)  
 함안인(咸安人)  
 2월 17일 자시(子時)

서장(書狀) 병조정랑(兵曹正郎) 신철(申哲)<sup>3)</sup> 성여(聖與)  
 신유년(辛酉年 : 1681년, 숙종 7) 출생  
 기묘년(己卯年 : 1699년, 숙종 25) 사마시(司馬試)  
 무술년(戊戌年 : 1718년, 숙종 48) 정시(庭試)  
 평산인(平山人)  
 7월 23일 오시(午時)

1) 조도빈(趙道彬 : 1665~1729).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자(字)는 낙포(樂甫)이고, 호는 수와(睡窩)이다. 1702년(숙종 26) 알성 문과에 급제하였고 1719년 동지사(東使)로 연행(燕行)하였다. 시호는 정희(靖僖)이다.  
 2) 조석오(趙錫五 : 1672~1728).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경기도관찰사, 한성판윤을 지낸 영복(榮福)의 자(字)로 호는 이지당(二知堂)이다. 1705년(숙종 31) 사마시에 합격하고 1714년 증과 문과로 급제하였으며, 1719년 동지부사로 연행(燕行)하였다.  
 3) 신철(申哲 : 1681~?).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자는 성여(聖與)이다. 1718년(숙종 44년) 정시 문과에 급제하고 이듬해 동지사 서장관(書狀官)으로 사행(使行)하였다. 글씨에 능하다는 평을 들었다.

행중원역(行中員譯)

가의대부(嘉義大夫) 최 규(崔奎)  
 절충장군(折衝將軍) 변시화(卞時和)  
 한학상통사훈도(漢學上通事訓導)<sup>4)</sup> 김상현(金商鉉)  
 청학상통사(淸學上通事) 전판관(前判官) 김세경(金世鏡)  
 교훈질문(敎訓質問) 전정(前正) 고시연(高時彦)  
 상건량(上乾糧)  
 연소총민(年少聰敏) 전주부(前主簿) 최한창(崔漢昌)  
 차상통사(次上通事) 전정(前正) 박간(朴衍)  
 압물통사(押物通事) 전봉사(前奉事) 홍순문(洪舜文)  
 전직장(前直長) 정문유(鄭文裕)  
 장무관(掌務官)  
 전직장(前直長) 이영욱(李英郁)  
 우어별채아(偶語別遶兒) 전주부(前主簿) 변상중(邊尙中)  
 청학별채아(淸學別遶兒) 전판관(前判官) 최진화(崔震華)  
 피선(被選) 전판관(前判官) 신성침(申性沈)  
 세폐영거교회(歲幣領去敎誨) 전정(前正) 한수희(韓壽禧)  
 몽학(蒙學) 전주부(前主簿) 김세민(金世敏)  
 왜학(倭學) 전참봉(前參奉) 한세범(韓世範)  
 세폐미영거교회(歲幣未領去敎誨) 전정(前正) 고시면(高時冕)  
 몽학(蒙學) 전첨정(前僉正) 김익회(金益悔)  
 청학신채아(淸學新遶兒) 절충장군(折衝將軍) 박창유(朴昌裕)  
 우어별차(偶語別差) 첨정(僉正) 임재방(林再芳)

行中員譯

嘉義大夫 崔奎  
 折衝將軍 卞時和  
 漢學上通事訓導 金商鉉  
 淸學上通事 前判官 金世鏡  
 敎訓質問 前正 高時彦  
 上乾糧  
 年少聰敏 前主簿 崔漢昌  
 次上通事 前正 朴衍  
 押物通事 前奉事 洪舜文  
 前直長 鄭文裕  
 掌務官  
 前直長 李英郁  
 偶語別遶兒 前主簿 邊尙中  
 淸學別遶兒 前判官 崔震華  
 被選 前判官 申性沈  
 歲幣領去敎誨 前正 韓壽禧  
 蒙學 前主簿 金世敏  
 倭學 前參奉 韓世範  
 歲幣未領去敎誨 前正 高時冕  
 蒙學 前僉正 金益悔  
 淸學新遶兒 折衝將軍 朴昌裕  
 偶語別差 僉正 林再芳

4) 훈도(訓導)는 사역원(司譯院) 소속 정 9품의 내직(內職) 이름이다.

醫員 前參奉 蔣世貞	의원(醫員) 전참봉(前參奉) 장세정(蔣世貞)
寫字官 上護軍 金有輝	사자관(寫字官) 상호군(上護軍) 김유휘(金有輝)
畫員 副司果 盧泰鉉	화원(畫員) 부사과(副司果) 노태현(盧泰鉉)
正使軍官 前營將 李行儉	정사군관(正使軍官) 전영장(前營將) 이행검(李行儉)
折衝 金尙顯	절충(折衝) 김상현(金尙顯)
劉壽基	유수기(劉壽基)
中房 朴枝炳	중방(中房) 박지병(朴枝炳)
奴子 俊伊	노자(奴子) 준이(俊伊)
乾糧庫直 盧世誠	건량고직(乾糧庫直) 노세성(盧世誠)
副使軍官 嘉善 崔尙嶠	부사군관(副使軍官) 가선(嘉善) 최상집(崔尙嶠)
宣傳官 安世泰	선전관(宣傳官) 안세태(安世泰)
參奉 李泰錫	참봉(參奉) 이태석(李泰錫)
中房 趙德輝	중방(中房) 조덕휘(趙德輝)
奴子 件里金	노자(奴子) 건리김(件里金 : 버리쇠)
乾糧庫直 種同	건량고직(乾糧庫直) 종동(種同 : 씨동이)
書狀打角 前別提 申重華	서장타각(書狀打角) 전별제(前別提) 신중화(申重華)
中房 河世興	중방(中房) 하세흥(河世興)
奴子 世贊	노자(奴子) 세찬(世贊)
承文院 畫員 辛尙謙	승문원(承文院) 화원(畫員) 신상겸(辛尙謙)

여 백

기해년(己亥年 : 1719, 속종 45)

11월

여 백

## 初 四日

晴 平明 詣闕下直 貂皮帽掩一部 胡椒四升 白礬七升 丹木十五斤 臘藥六種 賜給 巳時拜表 到慕華館 右相李健命 禮判閔鎮厚 戶判宋相琦 吏議李秉常 禮議魚有龜 參知尹錫來 參坐查對畢 戶判設幕於路傍 設盤果以餞 尹承旨鳳朝來別 到弘濟院 德必設餞以待 宗甫 立之 孝先 正則頤貴亦來 權尙游 萊伯鄭亨益 濟尹李挺周 副學 洪啓迪 持平金樺 司諫尹錫來 正言洪龍祚 僕僉金希魯 司錄 任述夏 青陵君模 來別 刑曹正 郎沈世俊 鄭震高 佐郎閔應洙 以郎儕 來餞 趙判府事泰采爲 送 正使設幕以邀 歷入以別 丁 舜弼 卞緯 朴大梓 高緯柱 金 大錫 洪壽善 李世茂 李龍錫 金熙問 崔二柱 玄德朝 林一儒 金學諭宇杞 崔長水爐 金理山 鎔 李高敞晤 來別 餘不能盡記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뜰 무렵에 대궐에 들  
초 4일 어가 하직 인사를 하였다. (임금께서는) 담비  
가죽으로 된 모자와 가리개 1습을 하사하셨  
고, 호초 4되와 백반 7되, 단목 15근, 납약 6종을 내려주셨  
다. 사시(巳時)<sup>5)</sup>에 삼가 표문(表文)을 올리고 모화관에 도  
착하였다.

우상(右相) 이견명(李健命)과 예조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鎮厚), 호조판서(戶曹判書) 송상기(宋相琦), 이조참의(吏曹參議) 이병상(李秉常), 예조참의(禮曹參議) 어유구(魚有龜), 참지(參知) 윤석래(尹錫來)가 속관과 함께 사대(查對)를 마쳤다. 호조판서가 길가에 천막을 치고 다과상을 준비시켜 전송하였다. 승지(承旨) 윤봉조(尹鳳朝)가 와서 이별하고 홍계원(弘濟院)에 다다랐다. 덕필(德必)이 전별상을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종보(宗甫)와 입지(立之), 효선(孝先), 정직(正則), 이귀(頤貴)도 왔다.

정승(政丞) 권상유(權尙游)와 동래부사(東萊副使) 정형익(鄭亨益), 의주부윤(義州府尹) 이정주(李挺周), 부학(副學) 홍계적(洪啓迪), 지평(持平) 김고(金樺), 사간(司諫) 윤석래(尹錫來), 정언(正言) 홍용조(洪龍祚), 복첨(僕僉 : 司僕寺僉正) 김희로(金希魯), 사록(司錄) 임구하(任述夏), 청릉군(靑陵君) 모(模)가 와서 이별했고, 형조정랑(刑曹正郎) 심세준(沈世俊)과 정진설(鄭震高), 좌랑(佐郎) 민응수(閔應洙)도 와서 전별하였다. 판부사(判府事) 조태채(趙泰采)도 송별해주었다. 정사(正使)는 천막을 설치해 놓고 불리 일일이 들어가 이별하였다.

정순필(丁舜弼)과 변위(卞緯), 박대재(朴大梓), 고위주(高緯柱), 김대석(金大錫), 홍수선(洪壽善), 이세무(李世茂), 이용석(李龍錫), 김희문(金熙問), 최이주(崔二柱), 현덕조(玄德朝), 임일유(林一儒), 학유(學諭) 김우기(金宇杞), 장수(長水) 최호(崔爐), 이산(理山) 김박(金鎔), 고창(高敞) 이오(李晤)가 와서 송별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많아 모두 기록할 수 없다.

5) 사시(巳時)는 오전 9시경을 이른다.

이여오(李汝五)와 어성칙(魚聖則), 윤계형(尹季亨)도 물러나와서 송별하였다.

해가 질 무렵에 고양(高陽)에 다다랐다. 숙씨(叔氏)<sup>6)</sup>와 선전관(宣傳官)<sup>7)</sup> 변현묵(邊顯默), 홍구범(洪九範), 박세안(朴世安)이 서로 앞뒤로 와서 만났다. 성보(盛甫)도 희재(禧齋)로부터 뒤쫓아 왔으며, 한세기(韓世箕)와 한경(韓鏡), 한밀(韓謐)도 와서 만났다. 이세복(李世福)은 적성(積城)으로부터 와서 덕필(德必), 종보(宗甫)와 정칙(正則), 숙씨(叔氏) 성보(盛甫)와 함께 서헌(西軒)에서 잤다. 주취(主倅)<sup>8)</sup> 김도협(金道浹)이 와서 만났고, 김포(金浦)의 고을원[縣令] 조태기(趙泰耆)도 보았다. 정사(正使)를 보기 위해 당도해서 두루 방문하였다. 이 날 40리를 갔다.

날씨는 맑았다. 새벽에 길을 떠났다. 숙씨

**초 5일** (叔氏)와 덕필(德必), 종보(宗甫), 정칙(正則),

성보(盛甫)는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마음이 몹시 편치 않았다. 사시(巳時)에 당산(棠山)에 다다라 점심(中火)<sup>9)</sup>을 먹고 별당(別堂)에 배례(拜禮)하였다. 숙주(叔主)와 평숙(平叔) 여러분들과 산에 올라 성묘하고 배례하였다. 초곡(草谷)에 두루 들어가 사당(祠堂)에 참배하였다.

포시(晡時)<sup>10)</sup>에 관가(官家)에 들어가 성주(城主)를 만났는데, 이름은 김몽서(金夢瑞)이다. 유덕함(兪德咸)·유덕형(兪德亨) 형제, 유덕준(兪德俊), 유덕중(兪德中), 백시적(白時迪) 등 여러 사람이 와서 보았다.

李汝五魚聖則尹季亨 亦退到永別 黃昏到高陽 叔氏及邊宣傳顯默 洪九範 朴世安 相先後來見 盛甫自禧齋追到 韓世箕 韓鏡 韓謐 來見 李世福 自積城來到 與德必 宗甫 正則 叔氏 盛甫 同宿西軒 主倅金道浹出見 金浦倅趙泰耆 爲見正使來到 亦歷訪 是日 行四十里

初五日

晴 平明 發行 叔氏及德必 宗甫 正則 盛甫 分別還去 心事甚覺不佳 巳時到棠山中火 拜別堂 叔主及平叔諸人 上山所省拜 歷入草谷祇謁祠堂 晡時入官家 見城主 卽金夢瑞也 兪德咸德亨兄弟 兪德俊 兪德中 白時迪等 諸人來見

6) 숙씨(叔氏)는 남의 셋째 형이나 셋째 아우를 일컫는 말인데, 여기서는 자칭(自稱)인 듯 하다.

7) 선전관(宣傳官)은 조선시대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소속된 관직의 이름이다. 선전관은 고려 충렬왕 때부터 만들어진 제도로 초기에는 8명을 두었다가 영조 때 이르러 21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후에 또 25명으로 증원되었는데, 그 중 수석(首席 : 정 3품) 1명, 참상관(參上官) 7명, 참하관(參下官) 14명, 당상관 3명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주로 형형(刑形 : 軍號의 일종)과 계라(啓螺 : 吹打), 시위(侍衛), 전령(傳令), 부신(符信)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8) 주취(主倅)는 고을의 원, 즉 수령(守令)을 일컫는다.

9) 중화(中火)는 길을 가다가 먹는 점심을 말한다.

10) 포시(晡時)는 신시(申時), 곧 오후 3시부터 4시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榮懷兄弟 自積城來別 崔僉正  
仁壘 竣事籍田 歸路來訪 寄書  
家中 榮攸夕來同宿 是日 行五  
十里

### 初六日

晴 平明 發行 到臨津 李生統  
李僉知廓來見 巳時入長湍 因  
正使之往省 其外家先壘 下處  
於東軒 鄭墩 鄭戩 許鍊 許照  
父子 趙國輔 趙星國來見 韓而  
琦 車成振 自松都來見 中火後  
發行 到超峴 松京吏金世澄來  
謁 此卽己卯營葬於玉蓮洞時 護  
喪邑吏也 晡時 過駱駝橋 從南  
門入三朝軒 見留於僉公命雄 出  
宿於太平館 松京人崔灝 金天柱  
見來 汝大及許縑 欲從後往瑞  
興鳳山來到 呵止之 成生昌烈  
亦追到 韓生鏡亦來 仍囑留於  
宋梅其所訴 是日 行八十里

영회(榮懷) 형제들이 적성(積城)에서 왔다가 갔고, 침정(僉正)<sup>11)</sup> 최인후(崔仁壘)가 적전(籍田)의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찾아왔다. 집안의 영유(榮攸)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저녁이 되어 함께 잡자리에 들었다. 이 날 50리를 갔다.

날씨는 맑았다. 새벽에 출발하여 임진(臨

**초 6일**津) 나루터에 다다랐다. 선비 이환(李統)과 침지(僉知) 이廓래(李廓來)가 나와 맞았다.

사시(巳時)에 장단(長湍)으로 들어갔다. 정사(正使)가 그 외가의 묘소에 참배하러 갔기에 (나는) 동헌(東軒)에 머물렀다. 정돈(鄭墩)과 정정(鄭戩), 허련(許鍊)과 허조(許照) 부자, 조국보(趙國輔), 조성국(趙星國)이 와서 만났다. 한이기(韓而琦)와 차성진(車成振)이 송도(松都)에서 와서 만났다. 점심을 먹은 뒤에 출발하여 초현(超峴)에 다다랐다.

송경(松京 : 松都, 開城)의 관리 김세징(金世澄)이 와서 여가서 만났다. 그는 기묘년(己卯年 : 1699년, 숙종 25)에 옥련동(玉蓮洞)에서 장례를 치를 때 호상(護喪)을 맡았던 고을 관리이다. 오후 3시경에 낙타교(駱駝橋)를 지나 남문(南門)을 통해 삼조헌(三朝軒)에 들어가 유공 명웅(俞命雄)을 만났고, 나와서 태평관(太平館)<sup>12)</sup>에 묵었다.

송경(松京) 사람 최호(崔灝)와 김천주(金天柱)가 와서 만났다. 여대(汝大)와 허겸(許縑)이 뒤이어 서흥(瑞興)과 봉산(鳳山)까지 따라 오려고 했지만, 웃으면서 말렸다. 선비 성창렬(成昌烈)도 뒤쫓아왔고, 선비 한경(韓鏡)도 왔다. 송시(宋梅)가 부탁해서 그의 집에 묵었다. 이 날 80리를 갔다.

11) 침정(僉正)은 조선시대의 관직으로 둔녕부(敦寧府), 봉상시(奉常寺), 종부시(宗簿寺), 내의원(內醫院), 사옹원(司饗院), 상의원(尙衣院), 사역원(司譯院), 훈련원(訓練院) 등에 속했던 종 4품관을 말한다.

12) 태평관(太平館)은 조선 초기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던 곳으로 서울 태평로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고려시대 개경(開京)에 있었던 태평관(太平館)을 말하는 듯 하다.

날씨는 맑았다가 저녁 무렵에 구름이 졌다.

**초 7일** 새벽에 출발하여 청석동(靑石洞)을 지나 금천(金川)의 주막(酒幕)에 다다랐다. 해주(海州)에 서는 그곳 고을원이 간단히 다과를 준비하였으나 배천[白川]의 관리는 준비해두지 않아서 몇 마디로 꾸짖었다. 잠시 쉬 뒤 말을 달려 금천에 들어가니, 고을원 김계환(金啓煥)과 배천의 고을원 서종유(徐宗愈)가 관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안(遂安)의 고을원 이하상(李夏相)이 도당사원(都堂使員) 김교(金郊), 찰방(察訪)<sup>13</sup> 정중대(鄭重岱)와 함께 마부와 관원을 데리고 와서 만났다. 삼종형(三從兄) 영우(榮遇)씨와 해주(海州)의 윤(尹)으로 있는 종인(宗人)<sup>14</sup> 조인형(趙仁亨)도 와서 만났다.

점심을 먹은 뒤 정사(正使)가 먼저 떠났고, 명중(明仲)과 퇴숙(退叔)을 영수루(暎水樓)에서 만나려고 서장관(書狀官)<sup>15</sup>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주거리를 장만해서 마셨다. 저녁 때 말을 달려 해가 저물녘에 평산(平山)에 들었다. 고을원 박기조(朴起祖)와 방물관원(方物官員), 문산만호(文山萬戶)<sup>16</sup> 김창(金昌)이 와서 만났다. 단성(丹城) 박수언(朴粹彦)과 파산(坡山) 심도원(沈道原), 용인(龍仁)의 윤성흥(尹聖興)도 함께 들어와 만났다.

이정집(李廷輯)이 병에 걸려 주막(酒幕)에 묵게 되었다고 한다. 이 날 100리를 갔다.

初 七日

晴 夕陰 平明 發行 過靑石洞 到底金川酒幕 海州則爲上使略 設茶果 而白川吏不爲備待略 杖之 少憩後 馳入金川 則主倅金 啓煥 及白川倅徐宗愈 以支持 官 遂安倅李夏相 以都堂使員 金郊 察訪鄭重岱 以夫馬官員 來見 三從兄榮遇氏 尹海州宗 人趙仁亨 亦來見 午飯後 正使 先發 明仲退叔 要會於暎水樓 與書狀同話 仍設小酌 夕時馳 出 暮後入平山 主倅朴起祖 方 物官員 文山萬戶金昌來見 丹城 朴粹彦 坡山沈道原 龍仁尹聖興 並入見 李廷輯 以病留酒幕云 是日 行百里

13) 찰방(察訪)은 조선시대 관직의 이름 중 하나로 지방에서 역(驛)을 지키던 외직이다. 1535년(중종 30) 처음 두었고, 그 전까지는 역승(驛丞)이라 하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 이르는 중요한 도로에 마필과 관원을 두어 공문서를 전달하고 공용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한 기관을 역참(驛站)이라 하였는데, 약간의 역참을 1구(區)로 하여 이를 역도(驛道)라 부르고, 그 구간의 마정(馬政)을 맡아보는 관직을 찰방이라 하였다.

14) 종인(宗人)은 동족(同族)의 사람, 일가붙이를 지칭한다.

15) 서장관(書狀官)은 조선시대의 관직중 하나로 중국에 보내던 연행사(燕行使)의 일행인 정사(正使)와 부사(副使), 기록관 등의 3사신 가운데 기록관을 말한다. 정·부사 보다 지위는 낮았지만, 행대어사(行臺御使)를 겸했다. 일본에 가는 통신사(通信使) 밑에도 서장관이 있었다.

16) 만호(萬戶)는 고려 말기부터 있었던 무관직의 하나로 고려시대에 원(元)의 제도에 의해 수용되었는데, 천호(千戶), 백호(百戶) 등과 함께 본래 그 관령(管領)하는 민호(民戶)의 수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차차 민호의 수와는 관계없이 진장(鎭將)의 품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변하였고, 또 육군보다는 수군(水軍)에 명칭이 낄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도 만호, 부만호, 천호, 백호 등이 있었으며, 만호는 대개 정 4품관이 임명되었다.

## 初 八日

朝陰午晴 日出後 發行 中火於  
葱秀站 與正使書狀同坐玉溜泉  
上 汲泉以飲 水味甚清冽 夕入  
瑞興縣主倅慎言逸 新溪倅鄭厚  
一 入見 初暮入縣衙 議所爲設  
小饌餞行 命二妓 或詩或詞侑  
酒 夜深罷出 族姪重賢 李廷輯  
尹聖與皆來侍 黃州宗人趙尙賢  
迎候以見 是日 行八十里

## 初 九日

乍陰乍晴 日出後 發行 中火於  
劍水站 因撥便見初六日所出家  
弟書 黃州金兌潤 趙有環 趙有  
晃 趙有瓊 趙有善 林震杖 文  
彥糾 趙有璣 趙興廉 趙義廉  
趙永璧 趙漢雄 趙千方 趙萬方  
趙厚贊 趙仁贊 趙克廉 李元彬  
李祐等來見 晡時入鳳山 主倅  
趙儉 長淵倅金慶豪 不爲祇迎  
略杖散吏 鳳山人尹承甲 朴挺  
李世德 李萬哉 李行德 朴東彬  
等來見

아침에 어두웠다가 낮부터 맑아졌다. 해가

## 초 8일

뜬 뒤에 출발하였다. 점심은 총수참(葱秀站)  
에서 먹었으며, 정사(正使)와 서장관(書狀官)  
과 함께 옥류천(玉溜泉) 위에서 자리를 잡았다. 샘물을 길  
어 마셨는데, 물맛이 맑고 시원하였다. 저녁에 서흥현(瑞興  
縣)에 들어갔는데, 고을원[主倅] 신언일(慎言逸)과 신계(新  
溪)의 고을원 정후일(鄭厚一)이 들어와서 만났다.

이른 저물녘에 현(縣)의 관아(官衙)에 들어갔다. 의소(議  
所)에서 간단히 음식을 준비해 전송하였다. 기생 둘에게 시  
를 짓고 노래하게 하며 술을 권하게 하였다. 밤이 깊어 자  
리를 끝내고 나왔다. 친척 조카 중현(重賢)과 이정집(李廷  
輯), 윤성(尹聖)이 모두 함께 와서 맞이하였다. 황주(黃州)  
에 사는 종인(宗人) 조상현(趙尙賢)이 마중 나와 만났다.  
이 날 80리를 갔다.

어두웠다가 개었다가 하였다. 해가 뜬 뒤에

## 초 9일

출발하였다. 검수참(劍水站)에서 점심을 먹었  
는데, 과발(擺撥)을 통해 지난 초엿새 때 집  
안 동생이 붙인 편지를 보았다. 황주(黃州)의 김태윤(金兌  
潤)과 조유환(趙有環), 조유황(趙有晃), 조유경(趙有瓊), 조  
유선(趙有善), 임진장(林震杖), 문언규(文彥糾), 조유기(趙有  
璣), 조흥림(趙興廉), 조의림(趙義廉), 조영벽(趙永璧), 조한  
웅(趙漢雄), 조천방(趙千方), 조만방(趙萬方), 조후찬(趙厚贊),  
조인찬(趙仁贊), 조극림(趙克廉), 이원빈(李元彬), 이우(李祐)  
등이 와서 만났다.

오후 3 시경에 봉산(鳳山)에 들었다. 고을원 조빈(趙儉)  
과 장연(長淵)의 고을원 김경호(金慶豪)가 마중을 나오지  
않아서 몇 마디로 산리(散吏)<sup>17)</sup>를 나무랐다. 봉산(鳳山) 사  
람 윤승갑(尹承甲)과 박정(朴挺), 이세덕(李世德), 이만재(李  
萬哉), 이행덕(李行德), 박동빈(朴東彬) 등이 와서 만났다.

17) 산리(散吏)는 하찮은 아전배들을 지칭한다.

재령(載寧) 우권창(禹權昌)이 파주(坡州)의 우거(寓居)에서 와서 만났다. 풍천(豐川)에 사는 종인(宗人) 조세후(趙世堃)가 또 와서 문안했다. 이 날 70리를 갔다.

아침에는 어두웠다가 저녁에 눈이 내렸다.

**초 10일** 해가 뜬 뒤에 출발하였다. 동선령(洞仙嶺)을 넘어 왼쪽으로 정방산성(正方山城)을 지나 황주(黃州)에 다다랐다. 그 고을의 선비(州士)이형찬(李馨璨)과 김성부(金聲傅), 김진석(金震碩), 김태흥(金兌興), 최중재(崔重載), 김만계(金萬繼) 및 동지(同知) 조당(趙儻 : 그 때 나이가 95세였다)이 찾아와 만났고, 고을원 박태원(朴泰遠), 병사(兵使) 유성식(柳星植)과 우후(虞候) 유서(柳滋)가 들어와 만났다.

오후에는 정사(正使)가 서장관(書狀官)과 함께 동헌(東軒)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밤에는 병사(兵使)<sup>18</sup>가 음식을 차려 전송하였다. 풍천(豐川)의 종인(宗人) 조규(趙奎)와 조청(趙淸), 조석(趙碩), 조세후(趙世堃), 조옥(趙沃), 조세기(趙世琪), 조세구(趙世球) 등이 큰 상에 과실을 차려 행로를 전송하였다. 이 날 40리를 갔다.

안개가 지독히 끼어 어두웠다. 해가 뜨기

**11일** 전에 출발하여 중화(中和)에 다다랐다. 고을원 조엄(趙儼)과 상원군수(祥原郡守) 이세주(李世柱), 강동현령(江東縣令) 이춘원(李春源)이 방물차원(方物差員)으로 와서 만났다. 점심을 먹은 뒤 말을 타고 출발했는데, 눈싸라기가 가늘게 뿌릴 때였다. 오후 서너 시쯤 기성(箕城)<sup>19</sup>에 다다랐다. 주변의 좌우로는 숲이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 10여리에 이르렀다.

載寧禹權昌 稱以自坡寓居來見 豐川宗人趙世堃 亦來候 是日行七十里

初十日

朝陰夕雪 日出後 發行 踰洞仙嶺 左過正方山城 入黃州 州士李馨璨 金聲傅 金震碩 金兌興 崔重載 金萬繼 及趙同知儻 時年九十五而來見 主倅朴泰遠 兵使柳星植 虞候柳滋入見 午與正使書狀 會話於東軒 夜兵使設饌以餞 豐川宗人趙奎 趙淸 趙碩 趙世堃 趙沃 趙世琪 趙世球等 設大盤果餞行 是日 行四十里

十一日

大霧陰 未明 發行 到中和 主倅趙儼 祥原郡守李世柱 江東縣令李春源 以方物差員來見 中火後馳發 微霰時 作晡時到箕城界 左右長林 幾十餘里

18) 병사(兵使)는 조선시대 지방의 무관직(武官職)중 하나로 각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고 경비를 담당하였다. 인원은 모두 15명으로 경기도에 1명, 충청도에 2명, 경상도에 3명, 전라도에 2명, 황해도에 2명, 강원도에 1명, 함경도에 3명, 평안도에 2명을 각각 두었고, 그 중 1명은 관찰사가 겸임하였다.

到大洞江邊 庶尹金相助 整上船以待 船上扁以垂碧亭 三使同舟以濟 庶尹設茶啖以供 府居前五衛將崔成業 前縣監金志道 前察訪尹百齡 竝出十里外迎候 從大同門 直入澄清堂 與巡相李台光仲會話 移時暮後罷出 正使書狀直歸大同館 余則往見主倅於貳衛 時金奉事莘老相致 方以覲親來在衙中 少話後還西軒 復美汝久來會 主倅及三登倅白以絢入見 是日行一百五里

대동강(大洞江) 가에 닿으니 서윤(庶尹) 김상훈(金相助)이 정리를 마치고 배에 올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배 위에는 수벽정(垂碧亭)이란 편액이 달려있다. 세 사신이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서윤(庶尹)<sup>20</sup>이 다과를 준비하여 바쳤다. 개성(開城)에 사는 전(前) 오위장(五衛將)<sup>21</sup> 최성업(崔成業)과 전(前) 현감(縣監) 김지도(金志道), 전(前) 찰방(察訪) 윤백령(尹百齡) 등이 함께 10여리 밖까지 나와 전송하였다. 대동문(大同門)을 지나 곧 바로 징청당(澄清堂)에 들어가 순상(巡相) 이광중(李光仲)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지나 해가 저문 뒤 끝내고 나왔다. 정사(正使)와 서장관(書狀官)은 곧 대동관(大同館)으로 돌아가고 나는 이아(貳衛)에서 고을원을 만났다. 그 때 봉사(奉事)<sup>22</sup> 김신로(金莘老)와 서로 만났는데 부모님을 찾아 뵈는 길에 관아(官衙)에 머물게 되었다고 한다.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 서헌(西軒)으로 돌아왔다. 다시 미여(美汝)가 오랜만에 와서 만났다. 고을원 및 삼등(三登)의 고을원 백이현(白以絢)이 들어와 만났다. 이 날 105리를 갔다.

## 十二日

夜大雪 朝晴 質明行望闕禮

밤에 큰 눈이 내리다가 아침에야 개였다.

## 12일

날이 밝으려고 할 무렵<sup>23</sup> 망궐례(望闕禮)<sup>24</sup>를 행하였다.

- 19) 기성(箕城)은 평양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시대에 '기성(箕城)'으로 불린 곳은 세 곳이 있었는데, 먼저 평안도 평양이 있고, 다음으로 강원도 평해(平海)의 옛 지명이었으며, 전라도 함평(咸平)의 옛 지명이 그것이다.
- 20) 서윤(庶尹)은 조선 시대 한성부(漢城府)와 평양부의 중 4품 벼슬로 판윤(判尹)과 좌·우윤(左·右尹)을 보좌했으며, 정원은 1명이었다.
- 21) 오위장(五衛將)은 조선시대의 군직(軍職)으로 오위(五衛)의 최고 관직으로 초기에는 중 2품관으로 정원은 12명이었다. 대개 다른 관원이 겸임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오위(五衛)가 병제(兵制)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근근히 도성(都城)을 경비하는 직책으로만 그치게 되자 오위장(五衛將)이 이 직무를 겸임하게 되었다.
- 22) 봉사(奉事)는 조선 초기의 중 8품의 동반(東班 : 문관)에 속하는 벼슬이다. 돈녕부와 봉상시, 사옹원, 내의원, 내자시, 내섬시, 예빈시, 군자감, 관상감, 전의감, 사역원, 선공감, 광흥창, 사재감, 제용감, 전생서, 혜민서, 전옥서 등에 두었다.
- 23) 질명(質明)은 날이 밝으려 할 무렵을 말한다.
- 24) 망궐례(望闕禮)는 임금이 계신 궁궐을 향해 올리는 예이다.

정사(正使)가 앞에 서고 순상(巡相)<sup>25</sup> 및 나는 순서대로 섰으며 서장관은 조금 뒤에 머물고, 나머지 모두는 정원(庭園) 끝에 자리하였다. 고을원 및 여러 수령은 정원 서편에서 예(禮)를 올렸다.

당초에는 내가 정사에게 말을 올려 사신(使臣)이 마땅히 정원 동편[東庭]에 자리해야 하고 순상(巡相)이 수령을 이끌고 정원 서편[西庭]에 서야 일의 모양새가 당연하다고 하고, 서장관과 내가 영사(營司)의 아래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 글로 써서 올렸다. 정사는 이를 지적하여 조정(朝廷)의 뜻으로 보면 당연히 품계와 관직의 순서에 따라야 하나 바쁜 가운데 서로 다투게 된다고 하여 본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는 체례(體例)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해가 뜬 뒤에 조사(調查)와 대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아침밥을 먹은 뒤 세 사신이 연광정(練光亭)에 올랐는데, 순상도 또한 와서 모였다(눈이 온 뒤라서 맑게 개인 풍경이 더욱 아름다웠다). 10리에 걸쳐 맑은 강이 이어지면서 긴 성곽을 둘러쳤고, 동서로는 들판이 드넓은 데다가 못 산봉우리들이 벌여 있어서 시(詩)에서 말한 “긴 성 한 자락으로는 물이 질펀히 흐르고, 넓은 들판 동쪽 끝에는 산이 점점이 이어진다(長城一面溶溶水 大野東頭點點山)”<sup>26</sup>는 구절이 그 경치를 이미 극진히 묘사한 것이었다. 그 밖의 경치는 붓끝으로 쓰기에 어려울 정도였다.

얼마 뒤 대동문(大同門)을 나와 배를 타고 물길을 거슬러 부벽루(浮碧樓)로 향했다. 조천석(朝天石)을 지나서 장경문(長慶門)에 이르니 역풍이 심해 배를 몰 수 없었다. 그래서 배를 버리고 가마에 올라 청류벽(清流壁)을 지나서 부벽루에 올랐다. 부벽루에 오르니 시야는 더욱 더 넓고 거침없이 트여 온화한 모습이 연광정에 못지 않았다. 모란봉(牧丹峯)은 누대 북쪽에 있고 을밀대(乙密臺)는 그 서쪽에 있는데,

正使作頭 巡相及余 以次列立 書狀稍後 皆位於末庭 主倅及 諸守令在西庭行禮 當初 余送 言于正使 以爲使臣當位東庭 巡 相率守令位西庭 事體當然 書狀 及余不可在營司之下 書而正使 謂 此是朝廷之意 即當依品秩 序立之故 倉卒相爭 不能得未 知 此合於體例否也 日出後 行 查對 早飯後 三使登練光亭 巡 相亦來會 (雪後霽景尤可而) 十 里清江 圍繞長城 東西廣野 諸 巒環列 詩所謂 長城一面溶溶 水 大野東頭點點山 模寫已盡 其他景致 難以一筆記也 少頃 出大同門 乘舟溯向浮碧樓 過朝 天石 到長慶門 風逆不能行舟 捨船乘輜 過清流壁 上浮碧樓 眼界尤曠闊 然蘊藉即讓於練光 矣 牧丹峯在樓之北 乙密臺在其 西

25) 순상(巡相)은 관찰사(觀察使) 곧 감사(監使)를 일컫는데, 원래는 임시로 임명한 관직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정치와 민정을 살피던 관리를 말한다.

26) 김황원이 부벽루에 올라 영제시(題詠詩)로 썼다는 집구(集句)이다.

望之瓢渺 因日暮不得望眺 過文武井 麒麟窟 入永明寺 少坐後 從長慶門 入會話於宣化堂 暮後出來大同館 巡相及主倅設餞 夜深乃罷 超然臺在大同門之西 快哉亭在客館後 將臺在城中央 而俯臨一城云 而皆忙迫 不得歷覽 殊可恨也 三和倅李汝休來見

### 十三日

晴 日出後 發行 出普通門 午抵順安縣 主倅崔星瑞入見 中火後 發行 暮時入肅川府 主倅趙徹 不爲祇迎 槩因下吏設傳除禮而然也 略杖之 順川郡守文洪龜及主倅入見 是日 行一百十里

### 十四日

晴 日出後 發行 到雪岩 撥命三使 卸輜列于路左 坐輜打話 正使出酒 以饋諸軍官 晡時入安州市肆 列貨之富 殆亞於箕城 從南門入 正使館於運籌軒 余則館於觀德堂

바라보니 아득하고 막막한 데다 해가 저물어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었다. 문무정(文武井)과 기린굴(麒麟窟)을 지나 영명사(永明寺)에 들어갔다. 잠시 앉아 있다가 장경문을 지나 선화당(宣化堂)에 들어가 환담을 나누었다. 저문 뒤 나와 대동관(大同館)에 갔더니 순상과 고을원이 전송의 술자리를 마련하였기에 밤이 깊어서야 끝마쳤다. 초연대(超然臺)는 대동문(大同門)의 서쪽에 있고 쾌재정(快哉亭)은 객관(客館) 뒤에 있으며, 장대(將臺)는 성곽 중앙에 있어 성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갈 길이 바빠 모두 일일이 살펴보지 못했으니, 이것이 못내 아쉬운 일이었다. 삼화(三和)의 고을원 이문휴(李汶休)가 와서 만났다.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뜬 뒤에 출발하였다.

### 13일

보통문(普通門)을 나와서 정오쯤 순안현(順安縣)에 다다랐다. 고을원 최성서(崔星瑞)가 들어와 만났다. 점심을 먹은 뒤 출발하여 저물녘에 숙천부(肅川府)에 들어갔다.

고을원 조정(趙徹)이 나와 맞이할 수 없었는데, 하리(下吏)가 전하여 예(禮)를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벌했다. 순천군수(順川郡守) 문홍구(文洪龜)와 고을원이 들어와 만났다. 이 날 110리를 갔다.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뜬 뒤에 출발하였다.

### 14일

설암(雪岩)에 다다라서 삼사(三使)에게 발명(撥命)하여 교자(輜子)를 길 왼쪽에 벌리도록 하여 가마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사(正使)가 술을 꺼내 여러 군관(軍官)들에게 나누어 마시도록 했다. 오후 서너 시쯤 안주(安州)의 시장거리에 들어섰다. 재화의 부유함이 거의 기성(箕城)의 그것과 견줄 만했다.

남문(南門)을 쫓아 들어가니 정사(正使)는 운주헌(運籌軒)에 거처를 잡았고, 나는 관덕당(觀德堂)에 거처를 잡았다.

두 군데 모두 병사(兵使)가 머물던 곳이었다. 첨사(詹事)<sup>27)</sup> 이당집(李當醜)과 목사(牧使) 유술(柳述), 노강첨사(老江僉使) 이후강(李後綱), 중현첨사(中峴僉使) 상계주(尙繼周), 병우후(兵虞候) 민주헌(閔周憲)이 모두 들어와 만났고, 고성첨사(古城僉使)<sup>28)</sup> 이정상(李挺商) 또한 왔다. 이 날 60리를 갔다.

날씨는 맑았다. 안주(安州)에 머물렀다. 아

**15일** 침밥을 먹은 뒤 삼사(三使)는 망경루(望京樓)

에 올랐는데, 누대는 고을 동쪽에 있었다. 시야가 땅과 어우러지면서 대단히 높았고 탁 트였는데, 성 서쪽 끝에 누대(樓臺)가 있었다. 높은 언덕에 백상루(百祥樓)가 자리하고 있었다.

마침내 나아가 올라 청천강(淸川江)을 살펴보니 강 일대는 물줄기로 휘감기고, 루(樓) 아래의 칠불도(七佛島)가 두 물줄기 사이로 있어 흐름을 가르고 있었다. 칠불사(七佛寺)가 성터 북쪽에 있는데, 바라보고 구경하기 가장 좋은 곳이었다. 비록 연광정(練光亭)만은 못했지만 또한 좋은 누대(樓臺) 경치였다.

삼사(三使)가 들어와 삼청각(三清閣)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곧 마치고 운주헌(運籌軒)으로 돌아갔다. 첨사(僉使)가 음식을 장만해 갈 길을 전송하였다. 절충(折衝)<sup>29)</sup> 이시기(李時起)가 서숙(庶叔)의 시(詩)로써 불러 주안상을 대접하였다. 이어서 고을 사람 이제창(李悌昌)의 생사를 물으니 이시기(李時起)의 아버지와 모두 세상을 떠난지 이미 오래라고 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 수동(壽洞) 감사(監司) 이장(李丈)에게 가서 배웠는데, 그 때 이제창(李悌昌)은 이장(李丈)의 집안과 가깝고 미덥게 지냈던 사람이었다.

皆兵使所居也 詹史李當醜 牧使柳述 老江僉使李後綱 中峴僉使尙繼周 兵虞候閔周憲 皆入見 古城僉使李挺商亦來 是日行六十里

十五日

晴 留安州 飯後三使登望京樓 樓在府東 眼界交地極高 眼界通豁 城西角有樓 高峙在百祥樓也 遂往登臨淸川江 一帶圍繞 樓下七佛島 在二水分流中 七佛寺在城北 睡望之勝 雖不如練光 而亦是好樓觀也 三使入坐 三清閣 少話遂罷還運籌軒 僉使設饌以餞行 折衝李時起 以庶叔詩招見饋酒 仍問州人李悌昌生死則 卽時起之父皆死已久矣 余在童非往學 於壽洞李監司丈 其時悌昌 以李丈家親信人

27) 첨사(詹事)는 고려시대 동궁(東宮)의 종 3품 벼슬로 문종 때 설치되었다. 대한제국시대에는 황태자궁과 황태자의 시강원에 소속되었던 칙임(勅任) 벼슬이다.

28) 첨사(僉使)는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말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각 진영에 속했던 무관직이었다. 절도사 아래로 병영(兵營)에는 병마첨절제사, 수영(水營)에는 수군첨절제사가 있었다.

29) 절충(折衝)은 조선시대 무반 관계(官階)의 정 3품 당상관을 말한다.

日日相逢 與之嬉戲 悌昌嘗謂  
余曰 都令 他日作灣尹 當厚賜  
我耶 余戲作一帖 以給之矣 語  
其事於時起則 若以曾聞此狀 且  
尙藏厥帖 當搜納云 而終不來示  
似失去也 汝美汝久 自箕城來到  
夜作家書 付先奴之去

### 十六日

朝陰乍晴 日出後 發行 由北門  
出到清川江 三使共舟而濟 行  
二十里 水渡大定江 入幕酒打  
話良久 夕入嘉山郡 主倅洪啓  
靈 以病不能出侍 博川郡守朴  
東植 魚川察訪吳守植祇迎後入  
見 泰川縣監慶聖會 設饌餞三  
使 江東倅李春原 交付方物於  
博川倅 仍辭去 是日 行六十里  
余以路飲冷水 猝得胸痛 入郡  
後 多服童便少止 遂煎服行氣  
香蘇散一帖 泰川居前察訪白鴻  
達 本邑前縣監金屋 來見

날마다 서로 만나 함께 놀이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창(李悌昌)이 일찍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령님이 나중에 만윤(灣尹)이 되시면 마땅히 저에게 후하게 상을 내려야 합니다.” 나도 장난 삼아 맹세의 글을 써서 그에게 주었다. 이 사실을 이시기(李時起)에게 말했더니 만약 일찍이 그 사정을 듣고 또 그 글을 올렸다면 마땅히 찾아 거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내 와서 보여주지 않으니 잃어버린 듯했다.

문미(汝美)와 여구(汝久)가 기성(箕城)에서 와 당도하여 밤에 집안에 편지를 써서 먼저 떠나는 노비 편에 부쳤다.

아침에 흐렸다가 곧 맑게 개었다. 해가 뜬

### 16일

뒤에 출발하였다. 북문(北門)을 경유해서 청천강(淸川江)에 닿았다. 삼사(三使)가 모두 배를 타고 건너 20리를 더 나아가니 대정강(大定江)이 얼어 있어 건넜다.

주막에 들어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이 되어 가산군(嘉山郡)에 도착하였다. 고을원 홍계령(洪啓靈)이 병이 들어 나와 맞이하지 못하고, 박천군수(博川郡守) 박동식(朴東植)과 어천찰방(魚川察訪) 오수식(吳守植)이 나와서 맞이해 들어가 만났다. 태천현감(泰川縣監) 경성회(慶聖會)가 음식을 장만해서 삼사(三使)를 전송하였고, 강동(江東)의 고을원 이춘원(李春原)이 박천(博川)의 고을원으로부터 방물(方物)<sup>30</sup>을 교부하고는 작별을 하고 떠났다. 이 날 60리를 갔다.

나는 길가에서 찬물을 마셨다가 갑자기 가슴앓이를 하여 고을에 들어간 뒤에 어린아이의 변을 여러 차례 먹은 뒤에야 조금 그칠 수 있었다. 향소산(香蘇散) 한 첩(帖)을 다려 복용하니 마침내 기운이 돌아왔다. 태천(泰川)에 사는 전(前)찰방(察訪) 백홍규(白鴻逵)와 본읍(本邑)의 전(前)현감(縣監)인 김후(金垆)가 와서 만났다.

30) 조선시대 명나라에 바치던 우리 나라의 토산물이나 지방의 특산물을 말한다.

잠시 어두웠다가 곧 맑게 개었다. 해가 뜬  
**17일** 뒤에 출발하였다. 효성령(曉星嶺)을 넘어 남  
 청정(納淸亭) 참사(站舍)에 들어섰다. 삼사(三  
 使)와 방에 머물면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침내  
 길을 떠나 40리를 가서 정주(定州)에 들어섰다.

부사(府使) 이세근(李世瑾)이 들어와 만났다. 저녁 밥을  
 먹은 뒤 나아가 만났는데, 고을원은 내동헌(內東軒)에 있었  
 다. 관사(官舍)의 규모가 굉장하고 웅장하여 과연 서관(西  
 關)의 웅부(雄府)라 할 만했다. 송백정(松柏亭)은 관아의 서  
 남쪽에 있었는데, 바라보니 아득하고 까마득해 돌아갈 때  
 를 기약하고 하루를 유숙하였다.

고을원이 간략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삼사(三使)를 전별  
 하였다. 신백(愼伯)과 여구(汝久)가 문안 인사를 올렸는데,  
 신백(愼伯)은 구성(龜城)에서 왔고 여구(汝久)는 안주(安州)  
 에서 와서 만났다. 이 날 60리를 갔다.

안주에 사는 진사(進士) 이상태(李尙泰)가 와서 만났는  
 데, 그는 나와 동방(同榜)이자 동갑이다.

적은 눈이 내렸다. 신백(愼伯)이 작별을 고  
**18일** 하고 영유(永柔)로 향했다. 해가 뜬 뒤에 출  
 발하였다. 점심은 운흥관(雲興館)에서 먹었는  
 데, 곽산(郭山) 땅이다. 고을원이 교체되어 관리의 접대가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선천(宣川)의 고을원 정찬술(鄭讚  
 述)이 와서 맞이하여 만났다. 그리고는 곧 작별하고 떠났  
 다. 그의 막비(幕裨) 안세철(安世徹)은 바로 내부(萊府)의  
 소속이어서 서로 알고 지냈는데, 역시 따라와서 만났다. 점  
 심을 먹은 뒤 출발하여 선천(宣川)에 도착하였다.

상사(上使)는 의검정(倚劍亭)에 거처를 잡았고, 나는 관덕  
 당(觀德堂)에 거처를 잡았다. 관덕당(觀德堂)은 조세망(趙世  
 望)이 새로 지은 건물인데, 단청이 휘황찬란하며 규모가 웅  
 장하고 아름다웠다. 고을원 정찬술(鄭讚述)이 들어와 만났다.  
 구성(龜城)의 고을원 한성흠(韓聖欽)도 역시 와서 만났다.

### 十七日

乍陰乍晴 日出後 發行 踰曉星  
 嶺 歷入納淸亭站舍 三使打話  
 良久 遂行四十里 入定州 府使  
 李令世瑾入見 夕飯後就見 主  
 倅於內東軒 官舍宏傑 眞西關  
 雄府也 松柏亭在衙西南 望之  
 幽邃 約以歸時止宿 主倅略設  
 少饌 以餞三使 愼伯汝久自龜  
 城來候 汝久自安州來會 是日  
 行六十里 州居進士李尙泰 來  
 見 與余同年同庚也

### 十八日

少雪 愼伯分別向永柔 日出後  
 發行 中火於雲興館 卽郭山地  
 也 主倅遶去矣 官接待頗不成  
 樣 宣川倅鄭讚述來到迎見 仍  
 卽辭去 其幕裨安世徹 卽萊府  
 屬相識 亦隨來以見 飯後發行  
 到宣川 上使館於倚劍亭 余館  
 於觀德堂 堂則趙世望新構 丹  
 碧輝煌 制作宏麗 主倅鄭讚述  
 入見 龜城倅韓聖欽來見亦

夕三使談話於倚劍亭 亭亦宏傑  
有雄府規模 是日 行七十里

저녁 때 삼사(三使)와 의검정(倚劍亭)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의검정 또한 굉장하여 큰 고을의 규모를 보여주었다. 이 날 70리를 갔다.

### 十九日

大霧 晚晴 日出時 發行 到車  
輦站 卽鐵山地也 府使具後翼  
祇迎後入見 龍川府使鄭翼荊來  
迎見 宣川倅鄭繼述爲送正使陪  
來 仍作別以去 李高敞之子碩  
臣 豐川宗人趙淸來見 中火後  
作行 到良策站 卽龍川地也 正  
使館於聽流堂 余館于淸心堂 堂  
前巖巒林木溪澗 頗有勝趣 而茅  
日亭水合 不能登臨逍遙詳算 以  
爲回還 時每當花開 三使例登臺  
察花云爾 府使鄭習宣 沙浦僉使  
尙輝周 彌串僉使白光璧 安義僉  
使李熙泰 皆入見 槩尙輝周以歲  
幣差員 領付龍灣後還來 與之論  
余相法佳咎 白光璧卽休庵玄孫  
與之敘復 是日 行七十里

안개가 자욱히 끼었다가 저물녘에야 개었  
다. 해가 뜬 뒤에 출발하였다. 거연참(車輦站)  
에 다다르니 바로 철산(鐵山) 땅이다.

### 19일

부사(府使) 구후익(具後翼)이 마중나와 들어가 만났다. 용천부사(龍川府使) 정익형(鄭翼荊)이 나와서 맞이해 만났다. 선천(宣川)의 고을원 정찬술(鄭繼述)이 정사(正使)를 전송하면서 함께 나왔고, 얼마 뒤 작별을 고하고 떠났다. 이 고창(李高敞)의 아들 석신(碩臣)과 풍천(豐川)의 종인(宗人) 조청(趙淸)이 와서 만났다.

점심을 먹은 뒤 길을 떠나 양책참(良策站)에 다다랐다. 그곳은 용천(龍川) 땅이다. 정사(正使)는 청류당(聽流堂)에 자리를 잡았고, 나는 청심당(淸心堂)에 자리를 잡았다. 청심당(淸心堂) 앞에는 바위와 봉우리가 이어지고 숲과 나무들이 우거졌으며 시내와 개울이 흐르는, 아름다운 정취를 풍기는 곳이었다. 모일정(茅日亭)은 얼음이 얼어 산책하면서 일일이 살피기에는 어려워서 길을 돌려 돌아왔다. 때마다 항상 꽃이 피는 때를 당하면 삼사(三使)는 으레 누대(樓臺)에 올라 꽃을 감상한다고 한다.

부사(府使) 정습선(鄭習宣)과 사포침사(沙浦僉使) 상휘주(尙輝周), 미곶침사(彌串僉使) 백광벽(白光璧), 안의침사(安義僉使) 이희태(李熙泰)가 모두 들어와 만났다. 상휘주(尙輝周)는 세폐차원(歲幣差員)<sup>31)</sup>으로 용만(龍灣)에다 짐을 부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와 더불어 나는 관상법(觀相法)의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백광벽(白光璧)은 휴암(休庵)<sup>32)</sup>의 현손(玄孫)인데, 더불어 회포를 토로하였다. 이 날 70리를 갔다.

31) 세폐(歲幣)는 해마다 중국에 바치던 공물로 10월 사신이 가지고 갔다.

32) 백인걸(白仁傑 : 1497~1579)의 호이다.

밤에 큰바람이 불었다. 해가 뜬 뒤에 출발  
20일 하였다. 곱진강(串津江)에 이르러 다리를 건

넜다. 양하만호(楊下萬戶) 박세배(朴世培)가 도섭차원(渡涉差員)으로 길가 왼편에서 우리를 맞았다. 소곶참(所串站)에서 점심을 먹은 뒤 오후 3~4시쯤 전문현(箭門峴)에 다다랐다. 멀리 의주(義州)가 보였는데, 새로 지은 성(城)은 분첩(粉堞)이 올망졸망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통군정(統軍亭)<sup>33)</sup>은 그 북쪽에 있었는데, 우뚝이 높이 솟구쳐 있었다.

호산(胡山)<sup>34)</sup> 일대는 험하고 가파르게 북방의 싸늘한 기운이 뒤엉킨 가운데 자리잡고 있었다. 서북쪽은 아득하기만 하여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남문으로 들어와 군자당(君子堂)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곳은 훈련청(訓練廳)이라고 하기에 즉시 나가 살펴보았다. 고을원 김덕유(金德裕)가 머물고 있던 향청(鄉廳)에서 경사(慶事)가 있었으니, 대개 덕유(德裕)는 대간(大諫)에서 옮겨온 까닭으로, 동헌(東軒)을 수리하고 청소하기 위해 나와 이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에 서장관(書狀官) 부윤(府尹)과 함께 정사(正使)가 머물고 있는 거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해가 저문 뒤에야 그만두고 돌아왔다. 이 날 80리를 갔다. 양책참(良策站)에서 막 출발하려고 할 때 14일 집에서 보낸 편지를 받았다.

날씨는 맑았다. 청성첨사(淸城僉使) 최수웅  
21일 (崔秀雄)과 청수만호(靑水萬戶) 김상빈(金尙賓), 옥강만호(玉江萬戶) 박준(朴俊), 방산만호(方山萬戶) 노성건(盧成建), 수강만호(水江萬戶) 김억(金億) 등이 차원(差員)으로 와서 만났다.

二十日

夜大風寒 日出時 發行 到串津江橋渡 而楊下萬戶朴世培 以渡涉差員 迎于路左 中火於所串站 晡時抵箭門峴 遠望義州新城訖築 粉堞嵯峨 統軍亭在其北 屹然高聳 胡山一帶 峯嶺於朔氣錯莫中 西北漠漠 無涯際矣 入南門 館於君子堂 卽訓練廳云 卽往見主倅金德裕 有慶於所居鄉廳 槩德裕移權大諫故 爲修掃東軒 出居於此也 夕與書狀府尹會話 於正使所館 暮後罷還 是日 行八十里 良策將發行 蒙見十四日所出家書

二十一日

晴 淸城僉使崔秀雄 靑水萬戶金尙賓 玉江萬戶朴俊 方山萬戶盧成建 水江萬戶金億等 以差員來見

33) 통군정(統軍亭)은 관서팔경(關西八景)의 하나, 평북 의주(義州) 서북쪽 고지대에 있는 정자 이름이다.

34) 호산(胡山) : 변방에 있는 산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는 청나라 국경에 연결하고 있는 산을 지칭하는 듯 하다.

## 二十二日

陰 微雪 欲與灣尹發將校打獵  
因日亭 且雪 停止

## 二十三日

晴 平壤倍持姜有行 來見 十六  
日所出家書 客懷稍慰

## 二十四日

晴 撥便見十七日所出家信 仍  
修書府本府邊情狀達便 亥時 量  
謝恩使先來 譯官李必久 皇曆責  
咨官金壽長回來 聞彼中雖有作  
伐之事 姑得妥帖關內外 因水  
災 民居多蕩折 米置甚貴云矣  
監營軍官李熙疇來見

## 二十五日

晴 作書付先來譯官之去 李熙  
疇告還 槩僉使例送幕裨 問候  
使行故 李公爲別余圖差以來也  
初暮灣尹 設饌以餞三使於禦權  
堂

22일 흐리고 눈이 내렸다. 의주부윤[灣尹]과 더불어 장교(將校)를 풀어 사냥을 하려고 했는데, 낮때가 되었는데다가 눈까지 와서 그만두었다.

## 23일

날씨는 맑았다. 평양배지(平壤倍持) 강유행(姜有行)이 와서 만났다. 16일 집에서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객지(客地)에서의 회포로 우울한 참에 조금 위로가 되었다.

## 24일

날씨는 맑았다. 파발(擺撥) 편에 17일 집에서 보낸 편지를 받아 읽었고, 이어 본부(本府) 변방(邊方)의 정황을 적어 그 편에 보냈다. 해시(亥時)<sup>35)</sup>에 사은사(謝恩使)가 먼저 올 것을 알고, 역관(譯官) 이필구(李必久)와 황력책자관(皇曆責咨官) 김수장(金壽長)이 돌아왔다. 들으니 그 가운데 비록 정벌(征伐)의 일이 있다고 하지만, 그럭저럭 고을 안팎의 일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

홍수로 화(禍)를 입은 백성들의 집은 부서진 곳이 많아 쌀이 매우 귀하다고 한다. 감영군관(監營軍官) 이희주(李熙疇)가 와서 만났다.

## 25일

날씨는 맑았다. 편지를 써서 먼저 온 역관(譯官)이 떠날 때 부쳤다. 이희주(李熙疇)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대개 첨사(僉使)가 관례(慣例)에 따라 막비(幕裨)를 보내 사신길에 문후를 올렸기 때문에 이공(李公)이 나와 이별하기 위해 차원(差員)을 보내 온 것이다. 해가 막 저물자 만윤(灣尹)이 음식을 준비하여 어권당(禦權堂)에서 삼사(三使)를 전송하였다.

35) 해시(亥時)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를 말한다.

밤이 깊어진 뒤에야 끝내고 돌아왔다.

건량역관(乾糧譯官) 박간(朴衍)이 양책참(良策站)에 이르러 작은 갑에 든 초모부(草毛浮)와 쌀주머니를 잃어버렸다고 하였다. 말을 가식하여, 사사롭게 영리와 사통하여 용천(龍川)에서 많은 사람을 끄집어내 잡았으니, 용천(龍川)의 고을원이 사정을 의논해서 보고하라고 하였다. 많은 사람을 잡아 보낸 일은 또 그 가운데에서 드러난 일을 덮어두고서 이런 일로 드러나 탄로가 났다. 마침내 잡아들여 곤장을 치고 건량(乾糧)을 버리고 한수희(韓壽禧)로서 대신하게 하였다.

夜深後罷歸 乾糧譯官朴衍 稱  
以到良策站 見失小匣草毛浮 及  
米袋 假飾余言 私使營吏私通  
龍川推捉多人 龍倅論報事狀 捉  
送多人則 又從中掩置 因事現露  
遂拿入決棍 汰去乾糧 以韓壽禧  
代定

## 渡江人馬名數

團練使 灣尹軍官 南重河  
馬一匹 到瀋落後  
灣上軍官 任忠國 金鼎九  
庫直 於叱金

運餉別將 河漢得  
巡營別將 李順運  
以夫馬次知 到瀋還歸  
色吏 李禮中 馬一匹  
色吏 趙如雄 馬匹

開城府別將 孫尙周  
海營別將 禹尙奎  
李泰命  
以夫馬次知  
到瀋還歸  
色吏柳永平 馬一匹

開城別將 卓成潤

正使品馬 五匹  
成權驛 李尙男馬  
自如驛 金順上馬  
輸城驛 朴逢完馬  
幽谷驛 丞元馬  
保安驛 洪以業馬

## 강을 건넌 사람과 말의 수(渡江人馬名數)

단련사(團練使)<sup>36</sup> 만윤군관(灣尹軍官)<sup>37</sup> 남중하(南重河)  
말 1필이 심양(瀋陽)에 도착하여 뒤로 떨어졌다.  
만상군관(灣上軍官)<sup>38</sup> 임국충(任國忠) 김정구(金鼎九)  
창고지기(庫直) 엇쇠(於叱金)  
식량운반별장(運餉別將) 하한득(河漢得)  
부마(夫馬) 책임자로 심양(瀋陽)에 도착한 후 돌아  
갔다.  
담당아전(色吏) 이예중(李禮中)의 말 1필  
순영별장(巡營別將)<sup>39</sup> 이순운(李順運)  
담당아전(色吏) 조여웅(趙如雄)의 말 1필  
개성부별장(開城府別將) 한상주(韓相周)  
해주감영별장(海營別將) 우상규(禹尙奎)  
이태명(李泰命)  
부마책임자로 심양에 도착한 뒤  
되돌아갔다.  
담당아전(色吏) 유영평(柳永平)의 말 1필  
개성별장(開城別將) 탁성윤(卓成潤)  
정사품마(正使品馬) 5필  
성환역(成權驛) 이상남(李尙男)의 말  
자여역(自如驛) 김순상(金順上)의 말  
수성역(輸城驛) 박봉완(朴逢完)의 말  
유곡역(幽谷驛) 역승(驛丞)<sup>40</sup>의 말  
보안역(保安驛) 홍이업(洪以業)의 말

36) 중국으로 가는 우리 나라 사신이나 중국 사신의 왕래에 호송 임무를 맡던 무관을 말한다.

37) 의주부윤의 군관이다. 만윤(灣尹)은 조선시대 의주의 수령이며, 군관은 조선시대 각 관아의 군무에 종사하던 속역(屬役)을 말하는데, 군진(軍鎭)이 없는 곳에는 군관을 두지 않았다.

38) 만상(灣上)은 조선시대에 평안도 의주부(義州府)를 '용만부(龍灣府)'·'만부(灣府)', 의주부윤(義州府尹)을 '만윤(灣尹)'이라 하였듯이 '만상(灣上)'은 의주만(義州灣)의 강가라는 뜻으로 의주(義州)를 이렇게 불렀다.

39) 별장(別將)은 조선시대에 산성, 나루, 포구, 보루나 작은 섬 등의 수비를 맡은 무관을 말한다.

40) 역승(驛丞)은 조선시대 역(驛)에서 말을 관리하던 관원을 지칭한다.

서자(書者) <sup>41)</sup> 숙천관노(肅川館奴) 태성(大成)	書者	肅川館奴	大成
교자 드는 자(轎子扶囑) 순안관노(順安館奴) 천심(天心)	轎子扶囑	順安館奴	天心
마두(馬頭) <sup>42)</sup> 순안관노(順安館奴) 덕만(德萬)	馬頭	順安館奴	德萬
기린(棋隣)			棋隣
만상(萬尙)			萬尙
길잡이(引路) 금교(金郊) 만춘(萬春)	引路	金郊	萬春
가산(嘉山) 부심(富心)		嘉山	富心
곽산(郭山) 덕득(德得)		郭山	德得
곽산(郭山) 준만(俊萬)		郭山	俊萬
일산서자(日傘書者) 금교(金郊) 효인(效仁)	日傘書者	金郊	效仁
왼쪽 말잡이(左牽馬) 순안(順安) 만억(萬億)	左牽馬	順安	萬億
농마두(籠馬頭) 순안(順安) 엇복(於叱卜)	籠馬頭	順安	於叱卜
건량마두(乾糧馬頭) <sup>43)</sup> 정주(定州) 만성(萬成)	乾糧馬頭	定州	萬成
주방아이(廚子) 평양관노(平壤官奴) 세정(世丁)	廚子	平壤官奴	世丁
군뢰(軍牢) <sup>44)</sup> 안주(安州) 상백(尙白)	軍牢	安州	尙白
정주관노(定州官奴) 번재(番才)		定州官奴	番才
의주(義州) 순복(順卜)		義州	順卜
부사품마(副使品馬) 4필	副使品馬	四匹	
자여역(自如驛) 양세명(梁世明)의 말		自如驛	梁世明馬
금정역(金井驛) 박두창(朴斗昌)의 말		金井驛	朴斗昌馬
제원역(濟原驛) 정순철(鄭順哲)의 말		濟原驛	鄭順哲馬
창락역(昌樂驛) 허상만(許尙萬)의 말		昌樂驛	許尙萬
서자(書者) 순안관노(順安館奴) 중남(仲男)	馬書者	順安館奴	仲男
교자 드는 자(轎子扶囑) 곽산(郭山) 지창(之昌)	轎子扶囑	郭山	之昌
마두(馬頭) 중화관노(中和館奴) 충신(忠信)	馬頭	中和館奴	忠信
선천(宣川) 삼동(三同)		宣川	三同
농마두(籠馬頭) 선천관노(宣川館奴) 준관(俊寬)	籠馬頭	宣川館奴	俊寬
기린(棋隣)			棋隣
막한(莫閑)			莫閑

41) 서자(書者)는 조선시대에 각 역(驛)에서 담당하던 이역(吏役) 중의 하나이다.

42) 마두(馬頭)는 역마(驛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사람을 말한다.

43) 건량(乾糧)은 마른 식량을 말한다.

44) 군뢰(軍牢)는 조선시대 군대에서 죄를 다루던 병졸로, 지금의 헌병과 같다.

乾糧馬頭 龍川館奴 得良  
宣川  
英昌

左牽馬 安州館奴 石卜  
廚子 定州 厚傑  
枝萬

書狀官品馬三匹

輸城 文正官馬  
保安 朴太文馬  
輸城 安時恭馬

書者 定州館奴 稷山  
左牽馬 定州 斗隱  
馬頭 郭山館奴 憲同  
籠馬頭 順安 千歲

表咨文馬頭 嘉山 石栗  
入燕後 上房

歲幣馬頭 宣川 宇正  
瀋陽交付後 副房 丘從  
歲幣米馬頭 定州 守萬  
上房  
方物馬頭 嘉山 英萬  
副房  
宣川 松男  
書狀房

건량마두(乾糧馬頭) 용천관노(龍川館奴) 득량(得良)  
선천(宣川)  
영창(英昌)

왼쪽 말잡이(左牽馬) 안주관노(安州館奴) 석복(石卜)  
주방아이(廚子) 정주(定州) 후걸(厚傑)  
지만(枝萬)

서장관품마(書狀官品馬) 3필

수성(輸城) 문정관(文正官)의 말  
보안(保安) 박태문(朴太文)의 말  
수성(輸城) 안시공(安時恭)의 말

서자(書者) 정주관노(定州館奴) 직산(稷山)  
왼쪽 말잡이(左牽馬) 정주(定州) 두은(斗隱)  
마두(馬頭) 곽산관노(郭山館奴) 헌동(憲同)  
농마두(籠馬頭) 순안(順安) 천세(千歲)

표자문마두(表咨文馬頭)<sup>45)</sup> 가산(嘉山) 석률(石栗)  
연경(燕京)에 도착한 뒤에 상방(上房)이 되었다<sup>46)</sup>.

세폐마두(歲幣馬頭) 선천(宣川) 우정(宇正)  
심양(瀋陽)에서 교대한 뒤에 부방(副房)의 구종(丘從)<sup>47)</sup>이 되었다.

세폐미마두(歲幣米馬頭) 정주(定州) 수만(守萬)  
상방(上房)이다.

방물마두(方物馬頭) 가산(嘉山) 영만(英萬)  
부방(副房)이다.

선천(宣川) 송남(松男)  
서장방(書狀房)이다.

45) 표자문(表咨文)은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보내던 표문(表文)과 자문(咨文)으로, 대개 변문으로 쓴 의례적인 문장이다.

46) 정사(正使)를 수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으로, 상(上)은 정사를 지칭하며 방(房)은 일하는 범위나 소속을 가리킨다.

47) 구종(丘從)이란 벼슬아치를 모시고 따라 다니는 하인을 말한다.

표자문(表咨文) 싣는 쇄마(刷馬) 1필

表咨文載持刷馬 一匹

세폐목(歲幣木) 싣는 말 133필

歲幣木載馬 百三十三匹

7필을 더 가지고 갔다.

加把 七匹

쌀 싣는 말 84필

米載馬 八十四匹

방물(方物) 싣는 말 61필

方物載馬 六十一匹

13필을 더 가지고 갔다.

加把 十三匹

심양(瀋陽)에 도착한 뒤 돌려 보냈다.

到瀋陽還送

약재(藥材) 싣는 말 1척

藥材載馬 一隻

문서(文書) 싣는 말 1척

文書載馬 一隻

내농포(內農圃)<sup>48)</sup> 무역할 것 싣는 말 1척

內農圃貿易載 一隻

상의원(尙衣院)<sup>49)</sup> 무역할 것 싣는 말 6필 1척

尙衣院貿易載 六匹一隻

내의원(內醫院)<sup>50)</sup> 무역할 것 싣는 말 6필

內醫院貿易載 六匹

상방(上房) 마른 식량 싣는 말 34필내

上房乾糧載 三十四匹內

장막(帳幕) 2필

帳幕 二匹

축룽(柎籠)<sup>51)</sup> 2필

柎籠 二匹

가출(加出)

加出

부방(副房) 마른 식량(乾糧) 싣는 말 29필내

副房乾糧載 二十九匹內

장막(帳幕) 2필

帳幕 二匹

축룽(柎籠) 2필

柎籠 二匹

가출(加出) 9바리

加出 九馱

책문(柵門)에 도착한 뒤 돌려 보냈다.

到柵門還送

삼방(三房)<sup>52)</sup> 마른 식량(乾糧) 싣는 말 6필내

三房乾糧載 六匹內

장막(帳幕) 1필

帳幕 一匹

가출(加出) 없음

加出無

의주(義州)에서 낸 군량(軍糧) 싣는 것 25바리

義州出軍糧載 二十五馱

심양(瀋陽)에 도착 뒤에 돌려 보냈다.

到瀋陽還送

만상(灣上)에서 싣는 것 7필 내

灣上載 七匹內

1필은 형장(刑杖)의 기구를 싣었다.

一匹刑杖載

48)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농포를 말한다.

49) 조선시대 동반(東班) 소속의 정 3품 관아로서 왕과 왕비의 의복을 만들어 바치고 내부의 보화 금보 등을 관장하던 부서를 지칭한다.

50) 조선시대 궁중의 의약을 맡아보던 관청을 말한다.

51) 싸리나무로 만들어 바구니처럼 물건을 담는 그릇.

52) 서장관용(書狀官用), 혹은 서장관 소속을 지칭한다.

驛子都卜載 九匹  
 員譯所騎驛馬 三十一匹  
 私持馬 三十二匹  
 卜刷馬 二十一匹  
 已上驛馬 四十三匹  
 義州出刷馬  
 北京至 一百十六匹  
 瀋陽至 三百三十四匹  
 私持馬

역졸(驛卒) 우두머리의 짐 싣는 것 9필  
 역관(譯官)이 타는 역마(驛馬) 31필  
 (역관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는 말 32필  
 (역관의) 짐 쇄마(刷馬)<sup>53)</sup> 21필  
 이상 역마(驛馬) 43필  
 의주(義州)에서 낸 쇄마(刷馬)  
 북경(北京)에 이르기까지 116필  
 심양(瀋陽)에 이르기까지 330필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는 말

53) 쇄마(刷馬)는 우리 나라 사신이 중국에 갈 때 방물과 자문(咨文)을 싣고 가는 말을 지칭한다.

## 26일

날씨는 맑았다. 서장관(書狀官)과 만윤(灣尹)이 일찍 압록강변(鴨綠江邊)에 나가 복물(卜物)<sup>54</sup>을 수검(搜檢)하였다. 나와 정사(正使)가 일찍 아침을 먹은 뒤 길을 나서 강변에 도착하니 만윤(灣尹)이 간략하게 송별의 자리를 마련하여 일행을 전송하였다. 세폐(歲幣) 방물(方物)과 세 사람 분의 마른 식량, 복물(卜物) 등의 짐바리 수검(搜檢)을 마친 뒤에 장계(狀啓)를 수봉(修封)하여 발군(撥軍)<sup>55</sup>에게 부치고 그 편에 집에 보내는 편지도 부쳤다.

나와 정사(正使)가 먼저 출발하여 설마(雪馬)를 타고 압록강의 소서강(小西江)을 건너가니 의주(義州)의 관속들이 차례로 이별을 고하였다. 비록 옛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또한 사모의 정이 있음을 느꼈다. 교자(轎子)를 타고 중강(中江)과 고진강(古津江)을 건너가니 차사원(差使員)<sup>56</sup>인 압록강 이쪽 편인 청성첨사(淸城僉使) 최수웅(崔秀雄)과 저쪽 편인 청수만호(靑水萬戶) 김상빈(金尙賓), 소서강(小西江) 이쪽 편인 옥강만호(玉江萬戶) 박준(朴俊)과 저쪽 편인 방산만호(方山萬戶) 노성건(盧成建), 중강(中江) 이쪽 편인 수강만호(水江萬戶) 김억(金億), 저쪽 편인 건천권관(乾川權管) 김남추(金南樞), 고진강(古津江) 양하만호(楊下萬戶) 박세배(朴世培) 등이 차례로 이별하고 돌아갔다.

해가 질 때 구련성(九連城)에 도착하니 만상(灣上)의 군관이 막을 치고서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뒤에 서장관(書狀官)이 인원 점검을 마쳤는데, 역관(譯官)들의 개인 복물(卜物)이 뒤따라 도착하였다. 그리고 정사(正使)의 막사(幕舍)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며 한가한 시간을 보내다가 파하였다.

정사(正使)의 막(幕)은 소위 몽고의 취막(毳幕)이었다.

## 二十六日

晴 書狀與灣尹 早出鴨綠江邊 搜檢卜物 余與正使 早飯後 發行 到江邊 灣尹畧設餞送行 歲幣方物 及三乾糧卜馱 畢搜後 修封狀達付撥 仍付家信 余與正使 先發乘雪馬 渡鴨江小西江 灣府官屬 次第告辭 雖非舊相識 而亦覺依然 乘轎渡中江 古津江 差使員 鴨江此邊 淸城僉使 崔秀雄 彼邊 靑水萬戶 金尙賓 小西江此邊 玉江萬戶 朴俊 彼邊 方山萬戶 盧成建 中江此邊 水江萬戶 金億 彼邊 乾川權管 金南樞 古津江 楊下萬戶 朴世培 以次辭歸 日沒時 到九連城 灣上軍官 設幕以待 小頃 書狀畢檢員 譯私卜 追到 遂同坐正使幕中 打話攤飯而罷 正使幕則乃所謂蒙古毳幕

54) 짐. 마소에 싣고 가는 갖가지 물품. 특히 중국에 가는 사신이 공물 등을 마소에 싣고 갔으므로, 특별히 중국에 보내는 선물을 일컫기도 한다.

55) 원문에서 '발(撥)'로 표기되어 있는데, 파발군(擺撥軍)의 준 말인 듯하다. 파발군은 발군(撥軍)이라고도 약칭하는데, 역마를 타고 중요한 공문서를 변지(邊地)에 체송(遞送)하는 군졸을 이른다.

56) 차사원(差使員)이란 조선시대 중요한 임무를 지위 파견하는 임시직을 말한다.

余與書狀幕則 乃狗皮小幕 而作地坎 熾二爐 火上覆板床 以設寢具 夜深易其火 衾褥煖燠 無異房堦 而第四面甚疎冷矣 設網于外以防虎 熾火四方以緊寒 吹角吶喊以警衆 是日 行三十里

### 二十七日

晴 開東時 余先發 過松阿者 益補碑石隅 馬轉坂 抵金石山 幕 從書狀正使追到 同坐攤飯 過溫井 細浦 極田 湯站 夕抵 葱秀山 川邊對岸巖石 一如瑞興葱秀站 故仍以得名云爾 設幕而宿如前夜 是日 行七十里 夕飯後 先送驛官朴昌裕 於柵門 使通於鳳城 將以爲趁 卽開柵之地

### 二十八日

晴 平明 發行 過沙屯坪 水巖 沿溪 石路頗崎嶇 右過小龍山 到柵門外鳳城 清將烏二杜 以過婚往瀋陽未還 章京甫十口 只來待云爾

나와 서장관의 막(幕)은 개가죽으로 만든 작은 막(幕)으로 땅구덩이를 파고 2개의 화로에 불을 피고 불가에 나무 상을 덮어서 잠자리를 설치하여 밤이 깊으면 불을 바꾸었다. 이불 속만큼 따뜻하여 방안과 다름 없었으나 4면이 매우 성기어서 차가웠다. 바깥에 망을 쳐서 호랑이를 막고, 사방에 불을 피워서 추위에 대처하고, 고각(高角)을 불어 큰소리를 내어 대중을 경계하였다. 이 날 30리를 갔다.

날씨는 맑았다. 동이 틀 때 내가 먼저 출발

### 27일

하여 송아자(松阿者)의 익보비(益補碑)<sup>57</sup>의 모퉁이를 지나다가 말이 언덕에서 굴렀다. 금석산막(金石山幕)에 이르렀는데, 서장관(書狀官)과 정사(正使)가 뒤따라 도착하여 함께 앉아 밥을 먹은 뒤 잠시 쉬었다.

온정(溫井) 세포(細浦) 극전(極田) 탕참(湯站)을 지나 저녁에 총수산(葱秀山)에 이르렀다. 개울가가 언덕의 암석을 마주 대하여 하나같이 서흥(瑞興)의 총수참(葱秀站)과 같았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막(幕)을 설치하고 전날 밤처럼 잤다. 이 날 70리를 갔다.

저녁을 먹은 뒤 역관(驛官) 박창유(朴昌裕)를 책문(柵門)에 먼저 보내 사절(使節) 일행이 봉성(鳳城)을 통해서 장차 뒤따르게 된다고 알렸다. 봉성(鳳城)은 곧 책문(柵門)을 여는 곳이었다.

날씨는 맑았다. 새벽에 길을 나서 사둔평

### 28일

(沙屯坪)을 지나가는데 물바위(水巖)가 시냇가를 따라 있었고 돌길이 꽤 험하였다. 오른쪽으로 소룡산(小龍山)을 지나 책문(柵門) 밖 봉성(鳳城)에 도착하니, 청나라 장수 오이두(烏二杜)가 혼례(婚禮)로 심양(瀋陽)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장경(章京)<sup>58</sup> 배 10구가 다만 와서 기다린다고 하였다.

57) 익보비(益補碑)는 어떤 비(碑)인지 자세하지 않다.

58) 장경(章京)은 청나라 때 만주 8기(八旗)의 관직 이름으로 중하급 무관을 이른다.

삼사(三使)가 같은 막(幕)에 모여 책문(柵門)에 들어갈 장계(狀啓)를 수봉(修封)하고, 집에 보내는 편지를 먼저 돌아가는 의주(義州)의 장교(將校) 편에 부쳤다. 호송초관(護送哨官)<sup>59</sup> 2인, 검군초관(檢軍哨官) 1인 및 창군(槍軍) 등이 아침에 총수산(葱秀山) 물바위가 있는 곳에서 이별을 고하고 돌아갔고, 부마차사원(夫馬差使員)인 인산첨사(麟山僉使) 안세휘(安世輝)도 여기에 이르러 이별하고 돌아갔다.

조금 뒤에 책문(柵門)이 크게 열리고 무리로 호인(胡人)들이 섞여 나와 막(幕) 앞에 열을 지어 둘러보았다. 군뢰(軍牢)들이 꾸짖으며 접근을 금하면 잠깐 물러났다가 곧 모여들었다. 역관(譯官)들이 관례에 따라 예단(禮單)을 헤아려 나누어 주었다. 장경배(章京輩)들은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나므로 나와 막(幕)에 오지 못하고 차례로 마주 앉아 먹을 것을 받았으므로 전례(前例)에 따라 문안에다 술과 과일을 넣어 주었다.

잠시 뒤에 삼사(三使)가 먼저 책문(柵門)에 들어가고서 교자(轎子)를 타고 문에 들어갔다. 아문(衙門)을 지난 뒤에 비로소 말을 타고 갔다. 안시성(安市城) 진평부(榛坪府) 책문(柵門)을 지나 저녁에 봉황성(鳳凰城)에 도착했다. 성밖의 청나라 사람 오수인(吳守寅)의 집에 머물러 잤다. 이 날 60리를 갔다.

압록강을 건넌 이래 마이산(馬耳山) 송골산(松鵝山) 용산(龍山) 봉황산(鳳凰山) 소룡산(小龍山) 안시성산(安市城山)이 있었는데, 모두 길 오른 쪽에 있었다. 높은 절벽과 날카로운 봉우리들을 바라보니 기이하며 수려하였고, 송골산(松鵝山)과 봉황산(鳳凰山) 용산(龍山) 안시성산(安市城山)에 이르러 그 모습이 우리 나라의 도봉산(道峯山) 삼각산(三角山)과 같았으나 돌색이 더욱 푸르고 희며, 사랑스러웠다.

三使同幕而會 修封入柵狀達 及家信付送 於義州先歸將校便 護送哨官二人 檢軍哨官一人 及槍軍等 朝於葱秀水巖地辭歸 而夫馬差使員 麟山僉使 安世輝亦到此告辭 小頃 柵門大開 群胡雜出 列于幕前觀光 軍牢呵禁 則乍退旋集 譯輩計給例贈禮單 而章京輩 則因風吹塵起 不爲出來幕 次對坐受饋 故依例入給酒果於門內 俄許 三使先入柵 遂乘轎入門 過衙門後始御馬而行 過安市城 榛坪府柵門 夕抵鳳凰城 止宿於城外清人吳守寅家 是日 行六十里 自渡鴨江以來 有馬耳山 松鵝山 龍山 鳳凰山 小龍山 安市城山 皆在路右 峭壁尖巒 望之奇秀 而至於下鳳凰山 上松鵝山 龍山 安市城山 狀若我國道峯三角 而石色尤蒼白可愛

59) 초관(哨官)은 조선시대 각 군영의 위관(尉官)중 하나로 군대 1초(哨)를 거느리는 중 9품의 무관이다.

## 二十九日

晴日出時發行 過市肆 左右廊廡內設層架 錦形雜貨畫器等物 雲委山積 而整齊不紊 皆有條理 間置雉魚牛肉肆 盡頭即城南門 而崩頽不修 繞城行數十步 田疇間有六七棺 而下廣上尖 體短槩以木板連付造成 畧如船制 露受風雨 或半腐朽 間積土以覆矣 路間清人 或騎馬 或騎騾 揚鞭馳過 車子則或駕牛 或駕馬一二 或駕馬四五成群而行 而僕從呵禁其徐行 則車胡以長鞭驅馬 馳出轎前 以過前路 塵土紛起 車聲雜鬧 令人憤苦 麻貝尙明 次通官吳國柱及章京甫十口 甲軍十八名 自此護行云 而道中不見其人焉 歷三叉湖 到乾者浦 舍幕入處於酒舖店舖 三使同坐早飯 見店胡四五閑遊 問有身役與否 則答以無役 問何不力農 而爲此生業 則答以少失農功 以致貧辛云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뜰 때 길을 나서 시중

## 29일 (市中)의 가게를 지나가니 좌우의 가게들은

안에 층층이 시렁을 설치하여 비단 모양의 잡화와 화기(畫器) 등의 물건이 산 위의 구름처럼 쌓여 있었으나, 가지런히 정돈되어 문란하지 않고 모두 조리가 있었으며 사이에 물고기와 쇠고기를 파는 가게를 두고 있었다. 끝머리는 바로 성(城)의 남문(南門)이었으나 무너졌는데도 수리하지 않았다. 성을 둘러 몇 십 걸음을 가니 발두둑 사이에 예닐곱 개의 관(棺)이 있었다. 그것은 아래가 넓고 위가 뾰족했는데 몸체의 짧고 평평한 판은 나무판을 이어 붙여 만든 것으로 대략 배 모양과 같았다. 노출되어 비바람을 맞아 받은 썩었고 사이사이에 흙을 쌓아 덮어놓았다.

길 사이에 청나라 사람들이 말을 타거나 노새를 타고 채찍을 휘두르며 달려 지나갔다. 수레는 혹 소를 매었거나 말 1~2필을, 혹은 4~5필을 무리지워 매어 지나갔다. 종[僕]들이 서서히 가는 것을 꾸짖어 급하니 수레를 탄 호인(胡人)들이 긴 채찍으로 말을 치고 달리며 교자(轎子) 앞으로 나가서 길을 막아 흙먼지가 어지럽게 일어났다. 수레 소리가 시끄러워 사람으로 하여금 울분과 고통을 일으켰다.

마패(麻貝)<sup>60</sup> 상명(尙明), 차통역관(次通譯官) 오국주(吳國柱)와 장경(章京) 무리 10구(口), 갑군(甲軍) 18명이 여기서부터 지키며 수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도중에서 그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삼차호(三叉湖)를 지나 건자포(乾者浦)에 도착하여 막(幕)을 놓아두고 술과 면(麵)을 파는 객점(客店)에 들어가 처했다. 삼사(三使)가 함께 앉아 조반을 먹었다. 객점(客店)의 호인(胡人) 4~5명이 한가롭게 노니는 것을 보고 신역(身役)이 있는지를 물으니 역(役)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또 어찌 농업(農業)에 힘쓰지 않고 이것을 생업으로 삼느냐고 물으니 어려서 농공(農功)을 잃어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이르렀다고 대답하였다.

60) 마패(麻貝)는 우리 나라 사신 일행을 북경(北京)까지 안내·호송하는 청나라 측 관리의 직책을 가리키는 말인 듯하나 자세하지 않다. 참고로 마보(麻普)는 요(遼)나라 때 현승(縣丞 : 縣官의 副)을 가리켰다.

밥을 먹고 나서 하안동(河顔洞)을 지나 마고령(摩高嶺)을 넘었다. 포시(晡時)<sup>61</sup>에 송참(松站)에 이르러 정사(正使)가 거처하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였다. 사은사(謝恩使)<sup>62</sup> 일행의 역관(譯官) 최수명(崔壽溟)이 자기 아버지 상집(尙嶠)을 보기 위해 먼저 말을 달려 도착하여 그 사신 일행이 다음 날 통원보(通遠堡)에서 묵을 때 우리 일행과 서로 만나고 말했다. 저녁에 청나라 사람 왕사락(王史樂)의 집에서 잤다. 이 날 4리를 갔다.

날씨는 맑았다. 새벽에 길을 나섰다. 소장  
30일 령(小長嶺) 아래에 도착하니 호행(護行)하는  
마패(麻貝)와 차통역관(次通譯官)이 모두 말  
이 끄는 전거(氈車)를 타고 길을 양보하면서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옹배하(翁背河)를 건넜다. 옹배하(翁背河)는 곧 중강(中江) 상류라고 한다. 5리를 가고 또 대장령(大長嶺)을 넘었다. 두 고개는 모두 험하여 지나가기가 어려웠으나 오랑캐 수레가 쭉 이어서 끊어지지 않아 평탄한 길을 밟는 것 같았다.

교자(轎子)를 풀어 말을 바꿀 때 차통역관(次通譯官) 오국주(吳國柱)가 수레에서 내려 작은 말을 타고 빼격거리며 교자(轎子) 옆을 지나가며 마두(馬頭)를 부른 다음 나에게 문안하였다. 나 또한 마두(馬頭)를 이르게 하여 사의를 표했다. 팔도하(八道河)에 도착하여 그 점포(店舖 : 驛站)에서 점심을 먹고 장항현(獐項峴)을 넘었다. 포시(晡時)에 통원보(通遠堡)에 도착하였는데, 사은사 일행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곧 바로 부사(副使) 정승 유명홍(兪命弘)이 거처하는 곳에 나아갔다. 정사(正使)·서장관(書狀官)과 함께 모였다가 얼마 있지 아니하여 서장관(書狀官) 송필항(宋必恒)이 또한 와서 이야기하였다.

飯後 過河顔洞 踰摩高嶺 晡時  
抵松站 會話於正使所寓 謝恩  
使行中譯官崔壽溟 爲見其父尙  
嶠 先爲馳到 言其使行 明宿通  
遠堡 與此行相會云 夕宿於清  
人王史樂家 是日 行四十里

### 三十日

晴 平明發行 到小長嶺下 護行  
麻貝 及次通官 皆乘駕馬氈車  
讓路以俟過 渡翁背河 河卽中  
江上流云 行五里 又踰大長嶺  
兩嶺皆崎嶇難行 而胡車絡續不  
絕 如履坦途 卸轎易馬之際 次  
通官吳國柱 舍車騎小馬 憂過  
轎邊 而呼馬頭 勞問余 余亦使  
馬頭 至謝之 到八渡中河 火於  
店舖 踰獐項峴 晡時 抵通遠堡  
謝恩使一行 已先到矣 直就副  
使兪台命弘所寓 正使書狀同會  
俄而書狀官宋正必恒 亦來打話

61) 포시(晡時)는 신시(辛時), 즉 오후 4시 전후로 해질 무렵을 지칭한다.

62) 조선시대 우리 나라에 배운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중국에 보내던 사신을 말한다.

날이 저물어 차례로 정사(正使)·여산군(礪山君) 방(枋)을 만나 보았다. 서장관(書狀官)과 함께 양황기(鑲黃旗)<sup>63</sup> 노진충(盧逢忠)의 집에서 잤다. 이 날 60리를 갔다. 집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역관(譯官) 최수명(崔壽溟)이 가는 길에 부쳤다.

迫曛 歷見正使礪山君枋 與書狀同宿 於鑲黃旗盧逢忠家 是日行六十里 作家信 付呈譯壽溟行

63) 양황기(鑲黃旗)는 '양황기(鑲黃旗)'의 오류인 듯 하다. 양황기는 청나라의 행정 군사 생산제도였던 8기(八旗)중 하나로 정백기(正白旗)·정황기(正黃旗)와 더불어 상삼기(上三旗) 또는 내부삼기(內府三旗)라고도 불렀다.

여 백

기해년(己亥年 : 1719, 속종 45)

12월

여 백

大 初 一 日

晴 平明發行 行三十里長谷 中  
 火於宙洞店鋪 又行十餘里 踰  
 分水嶺 及二小嶺 夕抵連山關  
 村落甚蕭條 止宿於清人祁文秀  
 家 使譯官問屬何旗 則書以八  
 股山 五王八旂 八營黃旗云 又  
 問五王是何王 而於皇帝爲何人  
 則又書以采王 立王 金王 高麗  
 王 韓王 皆是皇帝四寸兄弟云  
 而其言有難信矣 又問鳳城以後  
 皆無州縣官 民之爭訟 於何決  
 之 則答以以分水嶺爲限 以東則  
 管於鳳城 以西則屬於遼東 而沿  
 路只有驛丞云爾 是日 行六十里  
 又問文秀父名 則文秀書於片  
 紙曰爺祁三有 父親 朝國哥哥祁  
 渠 其弟文登 文科 文魁云 以  
 祖爲爺 良可異也

初 二 日

晴 日出後 往正使所寓 與書狀  
 同攤飯 書狀以騎先行 正使與余  
 次第發行 行十餘里 踰會寧嶺  
 嶺路峻至 且狹隘堇通車馬 而水  
 雪塞路 其崎嶇無異馬嶺矣 又行  
 二十餘里

큰 달이다  
초 1일

날씨는 맑았다. 새벽에 길을 나서 30 리  
 의 긴 골짜기를 갔다. 주동(宙洞) 점포(店  
 鋪)에서 점심을 먹었다. 또 10여 리를 가고  
 분수령(分水嶺)과 2개의 작은 고개를 넘었다. 저녁에 연산  
 관(連山關)에 이르렀는데 촌락이 매우 쓸쓸하였다. 청나라  
 사람 기문수(祁文秀)의 집에 머물러 잤다.

역관(譯官)을 시켜서 어떤 기(旗)에 속하는 지를 물으니,  
 ‘팔고산(八股山) 오왕팔기(五王八旂) 팔영황기(八營黃旗)’라  
 고 썼다. 또 오왕(五王)은 어떤 왕이며 황제에게 어떤 사람  
 이 되는 지를 물으니, “채왕(采王) 입왕(立王) 금왕(金王)  
 고려왕(高麗王) 한왕(韓王)은 모두 황제의 사촌형제다”라고  
 썼다. 그러나 그 말은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 봉황성  
 (鳳凰城) 이후에는 모두 주현관(州縣官)이 없는데, 백성들  
 의 쟁송(爭訟)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물으니, 분수령(分水  
 嶺)을 경계로 삼는데 분수령(分水嶺) 동쪽은 봉황성(鳳凰  
 城)에서 관리하고, 서쪽은 요동(遼東)에 속해 있으나 길을  
 따라서 역승(驛丞)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 날 60리를  
 갔다.

또 문수(文秀)의 아버지 이름을 물으니, 문수(文秀)는 종  
 이 조각에, “야기삼유 부친 조국가가기거 기제 문등·문  
 과·문괴(爺祁三有 父親 朝國哥哥祁渠 其弟文登·文科·文  
 魁)”라고 썼다. ‘조(祖)’를 ‘야(爺)’라 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  
 한 일이다.

초 2일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뜬 후 정사(正使)의  
 처소로 가서 서장관(書狀官)과 함께 밥을 먹  
 고 쉬었다. 서장관(書狀官)이 말을 타고 먼저  
 출발하였다. 정사(正使)와 나는 차례로 길을 나서 10여리를  
 가서 회령령(會寧嶺)을 넘었다.

고개길이 아주 험하였고 또 좁아서 거마(車馬)가 겨우  
 통행할 수 있으며 얼음과 눈이 길을 막아 험한 것이 말치  
 고개[馬嶺]와 다름 없었다. 또 20여리를 갔다.

저녁에 침수참(恬水站)에 이르렀다. 옛 성이 퇴폐하여 벽(壁)이 반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남문으로 들어가 청나라 사람 고우직(顧友直)의 집에서 잤다. 그의 아들인 진채(進彩)와 그의 집안 일가의 아이인 양문(陽文), 거합(舉哈), 조신(朝臣) 등이 나이가 모두 13·4세였고 얼굴 모습이 자못 단묘(端妙)한데다 글에 능하였다. 그가 배운 바를 물으니 『맹자 孟子』를 읽었다고 하였다. 그로 하여금 책을 가지고 오게 하니, 『규벽맹자 奎壁孟子』와 『총류육언잡자 總類六言雜字』, 『천가시 千家詩』 3책을 가지고 왔다. 그것을 위우도록 하니 글자의 음이 우리 나라와 같은 것이 많이 있었다. 이른바 『육언잡자 六言雜字』는 앞머리에 사람살이에 있어 알리고 응하며 거치고 임할 때의 여러 가지 사물의 명칭 등을 말하였고, 『천가시 千家詩』는 바로 당나라와 송나라의 7언 절구였다.

서장관의 군관(軍官)인 신중화(申重華)가 빌린 호마(胡馬)를 타고 고개에 이르렀는데, 말이 놀라 떨어져 다친 것이 매우 심하였다. 내가 위부인(尉府人)에게 가니, 부장(副將) 강무선(姜武先)이 먼저 통원보(通遠堡)에 도착해서 마필을 잃었다고 하였다. 그 행동거지가 꽤 의심스러웠다. 서장관이 고개 밑에 도착하여 마침 호인(胡人) 중에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만나 그 출처를 물으니, “부위부인(副尉府人)이 일찍이 두 척당(隻唐)의 큰 빛을 진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3되[升] 1통(桶)을 더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 더 보태겠습니까?”하고 대답하였다.

강무선(姜武先)의 간사한 모습이 이에 비로소 드러난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잡아 들여 추문(推問)한 즉 마침내 뺨을 때리는 형벌에 이르러 15대를 해야 했고, 그로 하여금 그 말을 추현(推現)토록 하였다. 이 날 40리를 갔다.

夕抵恬水站 古城頽廢 只存半壁 入南門 宿於清人顧友直家 其兒子進彩 其族兒陽文 舉哈朝臣等 年皆十三四 形容頗端妙 且能文 問其所學 則讀孟子云 使之持來册子 則持奎壁孟子 及總類六言雜字 千家詩 三册以來 使之誦 則字音多有與我國同者矣 所謂六言雜字 則有言人生報應歷臨 凡百事爲物名 而千家詩 則乃唐宋七言絕句也 書狀軍官申重華 借騎胡馬到嶺 駑逸落傷甚重 余行尉府人 副將姜武先 到通遠堡 稱以見失馬匹云 頗疑其行止矣 書狀到嶺底 適逢胡人持我國馬者 問其出處 則答以副尉府人 曾有兩隻唐太負債之事 故奪此馬 則渠願加給三升一桶 然吾豈添價云云 武先奸狀 知此始著 故拿入推問 則終始抵頰推十五度 使之推現其馬 是日 行四十里

## 初三日

晴 日出後 發行 到靑石嶺 嶺東多石 嶺西峻至 其艱險甚於會寧矣 嶺下谷口 正使以爲草河口 而問于驛馬頭忠信 則以謂宙洞南石橋七里許 是爲草河口 年前金進士大有氏 詢于譯輩 以的定云 殊未知其言之果信 而雖以孝廟謔曲言之 靑石嶺過否 草河口何處云 則明是未踰靑石前所製 而草河在嶺之前矣 行中諸譯輩 亦未明知 聊記此以待知者 又踰小石嶺 午抵狼子山 村落稠雜 牛驢備野 與書狀 宿正白旗王天祿家 是日 行三十里 承文書員辛尙謙 中風病劇 殊可愍然

## 初四日

晴 未明先發 渡三流河 踰王祥嶺 石門嶺 到冷井 正使書狀追到 遂卸馬列轎泉邊打話 廚人進朝飯 坐轎中以喫 仍發行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뜬 뒤 길을 나섰다.

## 초 3일 청석령(靑石嶺)에 도착하니 고개 동쪽에는

돌이 많았고 고개 서쪽은 매우 험준하여 그 간헐한 것이 회령(會寧)보다 더했다. 고개 아래 골짜기 입구를 정사(正使)는 초하구(草河口)라 하였으나, 역마두(驛馬頭) 충신(忠信)에게 물으니 주동(宙洞)의 남쪽 석교(石橋) 7리쯤이 초하구(草河口)라 하였는데, 연전(年前)에 진사(進士) 김대유(金大有)가 역관(譯官)들에게 물었을 때 확실히 맞을 것이라 했다고 하였다. 그 말이 과연 믿을만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효종(孝宗)<sup>64</sup>의 가곡(歌曲)<sup>65</sup>으로 말하더라도 “청석령(靑石嶺) 지나거니 초하구(草河口) 어디 맨가(靑石嶺過否 草河口何處)”라 하였으니, 분명 청석령을 넘지 않고 그에 앞서 지은 것일 터라, 초하(草河)는 청석령 전에 있는 것이다. 길 가는 도중의 여러 역관(譯官)들 또한 분명히 알지 못하고 애오라지 이를 기록하여 아는 이를 기다려 둔다.

또 소석령(小石嶺)을 넘어 정오에 낭자산(狼子山)에 이르렀는데, 촌락이 뿔뿔히 섞여 있고 소와 나귀들이 들에 있었다. 서장관과 더불어 정백기(正白旗) 왕천록(王天祿)의 집에서 잤다. 이 날 30리를 갔다. 승문서원(承文書員) 신상겸(辛尙謙)이 중풍이 심했는데 매우 불쌍하였다.

날씨는 맑았다. 날이 밝기 전에 먼저 출발

## 초 4일 하였다. 삼류하(三流河)를 건너고 왕상령(王祥嶺)·석문령(石門嶺)을 넘어 냉정(冷井)에

도착하였다. 정사(正使)와 서장관(書狀官)이 뒤따라 도착하여 드디어 말을 풀어 교자(轎子)를 열지어 놓은 다음 샘가에서 이야기를 하였다. 주방 사람이 아침밥을 내왔다. 교자(轎子)에 앉아서 먹고 이어 길을 나섰다.

64) 조선의 제 17대 왕으로 병자호란이 끝난 뒤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8년 동안 머물렀다.

65) 청나라로 볼모로 잡혀갈 때 청석령(靑石嶺)을 넘으며 읊었다는 단가(短歌)를 말한다.

오른쪽으로 아미장(娥媚庄)을 지나 30리를 가서 요동(遼東) 구성(舊城)의 남문으로 들어가니 치첩(雉堞)이 다 무너지고 흙으로 쌓은 옛 모양이 있을 따름이었다. 시중의 가게를 가로지르는데 과일 등이 좌우에 쌓여 있었고, 온갖 상품이 사람의 눈을 어지럽게 하였다. 성안은 비록 심히 황폐하였으나 인물(人物)이 조밀하고 집들이 사치한 것이 오히려 이와 같으니, 옛날에 성대하게 변화했던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었다.

관왕묘(關王廟)<sup>66</sup>에 들어가니 죽은 뒤의 북마제군(伏魔帝君)의 소상(塑像)을 봉해 놓고, 앞에 소상(小像)을 두었는데 곧 생시의 모습이었다. 관왕묘의 회랑에는 걸어놓은 패액(牌額)이 많았고, 뜰 안에는 비석을 열지어 세웠는데 금벽(金碧)이 휘황하게 빛났다. 모두 근년에 장사하는 호인(胡人)들이 모금하여 증수(增修)하였다.

서문을 나가 백담사(白塔寺)에 다다르니 절이 모두 퇴폐(頹廢)하였다. 작은 전각(殿閣)과 굽은 담장이 모두 푸른 기와[碧瓦]로 덮여 있었는데, 또한 매우 황폐해 있었다. 중간 한 곳에 삼불상(三佛像)을 조성해 놓았는데 지극히 컸다.

곁에는 제 각기 2기의 작은 불상을 세워놓았다. 불상 뒤에는 꽃과 나무, 호랑이와 용을 부조해 놓았는데 매우 공교하고 정밀하였다. 뜰 앞에 이른바 ‘백담(白塔)’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벽돌로 그 기단을 쌓고 그 넓이가 서너 무(畝)가 되었으며 높이는 10여층이었다. 위에 또 대(臺)를 쌓았는데 높이가 3·4 장이었다. 또한 그 위에 탑을 조성하였는데, 13층이었다. 그 끝을 우러러보니 눈이 어지러워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혹 이것을 화표주(華表柱)라고도 하나 그 말은 근거하여 믿을 만한 것이 없었다.

내성(內城)을 돌아 북동으로 7리를 가서 오른쪽으로 요동(遼東) 신성(新城)을 보았다.

右過娥媚庄 行三十里 入遼東舊城南門 雉堞盡頹 只有土築舊形 橫過市肆 果餘左右堆積百貨眩人眼目 城內雖甚荒廢 而人物稠密 屋宇侈奢 猶如此 往時繁華之盛 可以推知也 入關王廟 乃死後封伏魔帝君塑像 而前置小像 卽生時形儀也 處宇廊廡多懸牌額 庭內列立石碑 金碧炫耀 皆近年 賈胡輩所募緣增修也 出西門 到白塔寺 寺皆頹廢 小閣及曲牆 皆覆以碧瓦 而亦甚荒蕪 中間一殿 塑三佛像極大 兩傍各立二小佛 而佛後雕刻花木虎龍 極巧精 庭前有所謂白塔者 以甃壁築基 其廣幾數畝 高十餘層 其上又築臺高三四丈 又其上造塔十三層 仰視其端 眼眩不能詳 或以此謂華表柱 而其言無所考信 繞內城北東 行七里餘 右視遼東新城

66) 관왕(關王)은 중국 삼국시대 촉나라의 장군으로, 이를 믿으면 전쟁 때 관왕(關王)의 영령이 나타나 도움을 준다고 한다. 특히 청나라 태종은 자신의 개국이 그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어 신심(信心)이 대단했다고 한다.

渡太子河 夕宿永壽寺前 清人  
李得龍家 本是商胡 而業敗年  
老 舊宅只巍然 是日 行八十里  
入視關廟時 城內居胡 毋論老  
少 全集 隨轎千百爲群 難以呵辟  
自鴨江至鳳城 山勢逶迤嫩美  
間有龍山鳳凰等山 而秀發可愛  
自松站至狼子山 山形鬱勃麤頑  
有峽氣 自冷井行五六里 將爲  
平野 迨與天接杳無際涯

### 初五日

朝陰旋晴風 平明 發行 歷接官  
廳場虛所 中火於爛泥堡 三使  
各給紙束刀子於主人 而嫌其小  
閉門 以遏下輩出入 令人憤惋  
行十里 渡萬寶橋 過烟臺河 五  
里臺 晡時抵十里堡 宿廂黃旗  
李廷玉家 是日 行六十里 轎馬  
丘從三同欲換 差正使軍官金尙  
鉉 所帶仗棍七度

태자하(太子河)를 건너서, 저녁에 영수사(永壽寺) 앞의 청나라 사람 이득룡(李得龍)의 집에서 잤다. 이득룡은 본래 호인(胡人) 장사꾼이었으나 그 업(業)이 패퇴한데다 나이가 들었고, 옛 집만이 높다랄 뿐이었다. 이 날 80리를 갔다.

관왕묘(關王廟)에 들어가 보았을 때 성내(城內)에 거주하는 호인(胡人)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교자(轎子)를 따라 떠들썩하게 모여들어 천백(千百)으로 무리를 이루니 꾸짖어 물리치기가 어려웠다.

압록강(鴨綠江)에서 봉황성(鳳凰城)에 이르기까지 산세가 구불구불하고 아름다웠다. 그 사이에 용산(龍山)과 봉황산(鳳凰山) 등이 있어 수려하고 사랑스러웠다. 송참(松站)에서 낭자산(狼子山)까지는 산 모습이 울발(鬱勃)하고 추완(麤頑)하여 골짜기의 기운이 있었다. 냉정(冷井)에서 5~6리를 가서 처음으로 평야에 접하였는데, 하늘과 접하여 아득하고 끝이 없었다.

아침에 흐렸다가 곧 맑아지고 바람이 불었  
**초 5일** 다. 새벽에 길을 떠나 관리(官吏)를 접대하는 관청(官廳)의 마당 허소(虛所)를 지났다. 난니보(爛泥堡)에서 점심을 먹었다. 삼사(三使) 각기 주인에게 종이와 칼을 주었다. 그 작게 준 것을 혐오하여 달을까 염려하였는데, 하인들의 출입을 막아 원망을 샀다. 10리를 가서 만보교(萬寶橋)를 건너고 연대하(烟臺河) 오리대(五里臺)를 지났다. 포시(晡時)에 십리보(十里堡)에 이르러 상황기(廂黃旗) 이정옥(李廷玉)의 집에서 잤다. 이 날 60리를 갔다.

교자(轎子)의 말을 구종(丘從)인 삼동(三同)이 바꾸고자 하니 차정사(差正使)<sup>67)</sup>의 군관(軍官) 김상현(金尙鉉)이 가지고 온 곤장으로 7대를 쳤다.

67) 차정사(差正使)는 고을원이 죄인을 잡으려고 내보낸 하인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날씨는 맑았다. 새벽에 길을 나서 판교보

**초 6일** (板橋堡) 상신점(常新店) 사하보(沙河堡) 화석교(火石橋)를 지나 백탑보(白塔堡)에서 점심을 먹었다. 일소대(一所臺) 홍화보(紅花堡)를 지나 혼하(混河 : 일명 阿利江)를 건넜다.

저녁 때 심양토성(瀋陽土城) 밖에 이르러 교자(轎子)에서 내려 말을 타고 1리 남짓 가서 내성(內城)의 남문(南門 : 門이 2층 누각이었다)을 따라 들어가니 성은 벽돌로 기초를 쌓았는데 높이가 서너 길이었다. 문 밖에 웅성(甕城)을 만들었고 동서로 문이 있었다. 그 기초가 단단하며 굳고 높으며 험준했는데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었다.

문의 동쪽은 수십 파(把)<sup>68</sup>가 되었는데 새로 쌓아서 조금 완전했고 성가퀴를 마치지 않아 기계(器械)가 열지어 있었다. 의주부윤[灣尹]이 올린 장계(狀啓) 중에 이른바 증축했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인 것 같으나, 말을 지나치게 하여 한바탕 시끄럽게 한 것은 실로 가소롭다.

성 안팎에 사람 사는 곳이 조밀하고 시중의 가게가 변화한 것이 요동성(遼東城)보다 백 배는 더 되었다. 하나의 커다란 도회지였다. 저녁에 찰원(察院)에서 잤다. 이 날 60리를 갔다.

날씨는 맑았다. 세폐(歲幣)로 생목(生木)

**초 7일** 2500필, 좋은 큰 종이 150권, 좋은 작은 종이 2100권, 점미(粘米) 3석 5말 4되를 북경문첩(北京文牒) 때문에 심양(瀋陽)에 마쳤으나, 들으니 주관하는 낭중(郎中)의 무리들이 뇌물을 찾는 것이 너무 많았다. 또 쌀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큰 말[大斗]로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해서 가지고 가는 것의 나머지를 털어 내었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스러웠다. 이날 머무르며 장계(狀啓)를 수봉(修封)하여 부치고, 집에 보내는 편지도 돌아가는 단련사(團練使) 편에 부쳤다.

初 六日

晴 平明 發行 過板橋堡 常新店 沙河堡 火石橋 中火於白塔堡 過一所臺 紅花堡 渡混河 (一名 阿利江) 晡時抵瀋陽土城外 下轎乘馬 入行里餘 從內城南門入 門有二層樓 城以壁甕基築 高三四仞 門外作壘城 東西有門 其基固高峻 曾所未見 門之東數十把 新築寸完 而未訖 女牆 器械當列 灣尹狀達中 所謂增築者 似由於此 而下語過重以致一場騷居 良可笑也 城內外人居稠密 市肆繁華 百倍遼東城 一大都會也 夕宿察院 是日行六十里

初 七日

晴 歲幣生木二千五百匹 好大紙一百五十卷 好小紙二千一百卷 粘米三石五斗四升 因北京文牒 留納於瀋陽 而聞生管郎中輩 往索賂物甚多 且於持米之際 以大斗准持除出剩餘持去 云 良可痛惋 是日留修封狀達及家書 付給於團練使回還行

68) 파(把)는 어른 팔을 가로로 가득 편 정도의 길이를 말한다. 발이라고도 한다.

## 初八日

晴 平明 發行 遶大路北行 街市繁盛 一如二昨所見 而閣衙門在路右 深邃雄偉 行宮在路左巷內 而遠望見之樓臺殿閣 勢若插天 奉天府在其巷口 到北鍾樓 樓是二層 其下有門折而小西 又有鍾樓 一如北樓 從其門出 又行里許 出西城門 又行三四馬場 出土城門 汗之墓在北數里外林木中 殿閣屹然覆以黃瓦 西行三四箭地 到所謂汗之願堂 從東邊小角門 入見則有堂 覆以黃瓦碧瓦 堂中間坐三金佛 堂西有高樓 而黃衣僧人 不許登覽 庭列松樹 前有重門 而從西邊角門出 遂乘輜不由壯元橋路 直向永安橋 中火後 過大方身大板橋 夕抵邊城 宿正黃旗常文炳家(漢人) 是日 行六十里

날씨는 맑았다. 새벽에 길을 나서 큰 길을

**초 8일** 따라서 북쪽으로 갔다. 시가지가 번성한 것이 이들 동안 본 것과 똑 같았다.

각 아문(衙門)이 길 오른쪽에 있었는데 깊숙해 웅위하였고, 행궁(行宮)은 길 왼쪽 거리 안에 있었는데 멀리 바라보는 누대(樓臺)와 전각(殿閣)의 형세가 하늘에 꽂힌 것 같았다. 봉천부(奉天府)는 그 거리의 입구에 있었다.

북쪽 종루(鐘樓)에 도착하니 누각은 2층이었고 그 아래 문이 꺾여 있었으며 조금 서쪽에 또 종루가 있었다. 북루(北樓)와 똑 같았다. 그 문을 따라 나와서 또 1리쯤 걸어가 서성문(西城門)을 나가 또 서너 마장(馬場)을 갔다. 토성문(土城門)을 나서니 한(汗)의 묘(墓)가 북쪽 몇 리 밖 숲속에 있었다. 전각(殿閣)이 높다랗게 누런 기와로 덮여 있었다.

서쪽으로 3~4전지(箭地)<sup>69)</sup>를 가서 이른바 한(汗)의 원당(願堂)에 도착했다. 동쪽가의 소각문(小閣門)을 따라서 들어가 보니, 당(堂)이 있어 누런 기와와 푸른 기와로 덮여 있었는데 곧 당(堂)의 중간 사이에 세 금불(金佛)이 앉혀 있었다. 당의 서쪽에 높은 누각이 있었는데, 누런 옷을 입은 중이 올라가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뜰에는 소나무가 열지어 서 있었고 그 앞에 중문(重門)이 있었으며, 서쪽가의 각문(角門)을 따라서 나왔다. 마침내 교자(輜子)를 타고 장원교(壯元橋)를 거치지 않고 길을 영안교(永安橋)로 곧 바로 향하였다. 점심 후에 크고 네모진 몸체의 대판교(大板橋)를 지나서, 저녁에 변성(邊城)에 이르러 정황기(正黃旗) 상문병(常文炳 : 漢人)의 집에서 잤다. 이 날 60리를 갔다.

## 初九日

晴 未明 發行 過神農店孤家子 渡周流河

날씨는 맑았다. 날이 아직 밝지 않을 때 길

**초 9일** 을 나서 신농점(神農店) 고가자(孤家子)를 지나 주류하(周流河)를 건넜다.

69) 전지(箭地)란 화살을 쏘아서 떨어지는 곳까지의 거리를 가리키는 단위인 듯 하나 자세하지 않다. 1전지(箭地)는 아주 가까운 거리, 수전지(數箭地)는 얼마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인다.

주류하보(周流河堡)에서 아침을 먹고 길을 떠나려고 할 때 마패(麻貝)의 종[奴]이 아직 그의 주인의 말을 듣지 못해, 참(站)을 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굳게 잠그었다. 정사(正使)가 우거(寓居)한 점문(店門)을 출입할 수 없게 하므로 역관(譯官)들이 오국주(吳國柱)에게 말하여 재삼 꾸짖은 뒤에 비로소 통행이 허용되었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통탄스럽게 하였다.

곽가장(郭家庄) 신민점(新民店) 소황기보(小黃旗堡)를 지나 대황기보(大黃旗堡)에 도착하여 말을 풀어놓고 교자(轎子)에 앉았다. 간단히 죽을 내와 마시고는 곧 길을 나섰다. 노하구(芦河溝)를 지나 석사자포(石獅子舖)에 도착하니 날이 이미 어두워져 교자(轎子) 앞에 촉룽(燭籠)을 매달고 길을 가며 고성자(古城子)를 지나니 초경(初更) 쯤 되었다. 백기보(白旗堡)에 이르러 상황기(上黃旗) 이천배(李天培 : 漢人)의 집에서 잤다. 이 날 120리를 갔다.

내가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 꽤 가볍지 못했는데, 여기에 도착하여 아주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니, 다행이고 도 다행이라 하겠다.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뜬 뒤 길을 나서 소백 초 10일 기보(小白旗堡)를 지나서 일판문(一板門)에서 점심을 먹었다. 포시(晡時)에 이도정(二道井)에 이르러 나는 서장관(書狀官)과 함께 청나라 사람 정자망(鄭自望)의 집에서 잤다.

일찍이 듣기를 이판(吏判) 빈태(賓台)의 말에 의하면, 이도정(二道井)에 점장이가 있는데 꽤 용하다고 하였다. 역관(譯官) 김상현(金商鉉)과 한수희(韓壽禧)로 하여금 맞이하여 오게 한 즉 그 성명이 장동백(蔣東白)인데 운남(雲南) 사람이며 일찍이 오삼계(吳三桂)<sup>70)</sup>의 부하가 되었다가 그 일로 여기에 유배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早飯於周流河堡 將發之際 麻貝之奴 稱以未聞其主言 不可越站 堅鎖 正使所寓店門 使不得出入 譯輩言于吳國柱 責諭再三後 始許行 令人痛惋 過郭家庄 新民店 小黃旗堡 到大黃旗堡 卸馬坐轎 晷進粥飲仍行 過芦河溝 到石獅子舖 日已曛黑 懸燭籠於轎前作行 歷古城子 初更許 抵白旗堡 宿上黃旗李天培家(漢人) 是日 行百二十里 余自昨日有感氣 頗不輕 到此殊覺蘇快 可幸 可幸

### 初十日

晴 日出後 發行 歷小白旗堡 中火於一板門 晡時抵二道井 余書狀同宿於清人鄭自望家 曾聞吏判賓台 言二道井有算命人 頗驗云 使譯官金商鉉韓壽禧邀來 則其姓名乃蔣東白 而自言以雲南人 曾隸吳三桂部下 因事謫居於此云

70) 오삼계(吳三桂)는 명나라의 장군으로 청나라 초기에 삼번(三藩)의 난을 일으켰다.

觀其所推 譯輩八字是紫微數 而  
所論平平無奇然 書給余及宗甫  
正則四柱 仍以紙束 刀柄爲幣  
期以明年二月推算以待 是日 行  
五十里

十一日

晴 日出後 發行 過明野寺 新  
店 三使卸駕列于原上 晷進粥  
飲 又過土子井烟臺 晡時抵小  
黑山 止宿於清人正黃旗趙河仁  
家 是日 行五十里

自邊城以後 西北邊遠山一帶  
凝露於雲烟間矣 及過白旗堡 峯  
巒羅列呈露 似是千山 或醫巫閭  
山 而驛卒云非是 殊可鬱 過新  
店 卽土崗 自到此始見以後丘陵

十二日

晴 日出時 發行 過羊腸河 中  
火於中安堡 初欲歷入舊廣寧 見  
李成棟牌樓 及北鎮廟矣 正使與  
余俱有疾 約以回路往見 遂過于  
家庄廟店里 二臺子 獐子店 大  
是家子 新店 夕抵新廣寧 寓於  
驛丞家 內外家舍極宏暢

추론한 바를 살펴보니, 역관(譯官)들의 팔자는 자미수(紫微數)이나 논한 것이 평이하고 기이한 데가 없었다.

나와 종보(宗甫) 정칙(正則)의 사주(四柱)를 써주고 종이와 칼로 폐백을 삼았다. 명년 2월로 추산하여 기다리라고 기약하였다. 이 날 50 리를 갔다.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뜬 뒤 길을 나서 명야

11일

사(明野寺) 신점(新店)을 지났다. 삼사(三使)가 가마를 풀어 들에 열지어 놓고 간단히 내온 죽을 먹었다. 또 토자정(土子井), 연대(烟臺)를 지나갔다. 오후 3시경에 소흑산(小黑山)에 이르러 청나라 사람 정황기(正黃旗) 조하인(趙河仁)의 집에 머물러 잤다. 이 날 50리를 갔다.

변성(邊城) 이후로부터 서북변의 먼 산 일대가 점차 구름과 안개 속에서 드러났다. 이어 백기보(白旗堡)를 지나서 산봉우리가 펼쳐 드러나 있어 이것이 아마 천산(千山)이나 의무려산(醫巫閭山)이 아닌가 했으나, 역졸(驛卒)이 말하기를 그것은 아니며 더욱 울창하다고 하였다. 신점(新店)을 지나니 곧 흙 언덕이었다. 여기에 도착해서 비로소 이후에 구릉(丘陵)이 있음을 보았다.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뜰 때 길을 나서 양장

12일

하(羊腸河)를 지나 중안보(中安堡)에서 점심을 먹었다. 처음에는 구광녕(舊廣寧)을 거쳐 들어가서 이성과(李成祿)의 패루(牌樓)와 북진묘(北鎮廟)를 보고자 하였으나 정사(正使)와 내가 모두 병이 있어 생략하고 길을 돌아가는 길에 보자고 약속하였다. 드디어 우가장(于家庄) 묘점리(廟店里) 이대자(二臺子) 달자점(獐子店) 대사가자(大是家子) 신점(新店)을 지나서, 저녁에 신광녕(新廣寧)에 이르러 역승(驛丞)의 집에 들었는데 안팎의 집채가 아주 굉장(宏暢)하였다.

항(炕) 앞의 활활 타오르는 화롯불에서 차를 끓여 올렸다. 이미 저녁이어서 찬을 두 탁자에 크게 차려 바쳤다. 건량관(乾糧官)에게 명하여 종이부채 등으로 보답하였다. 정사(正使)와 항(炕)을 마주하고 잤다. 이 날 80여리를 갔다.

신점(新店)에 도착하여 북으로 바라보니 구광녕(舊廣寧)이 들판 가운데 있었다. 성첩(城堞)이 숨어있는 듯 드러나 있었다. 북진묘(北鎮廟)는 그 서쪽 높은 언덕에 있었으며 창(窓)을 늘인 것이 굉장히 넓었다. 새로 회칠을 하여 바라보니 높다랗게 보였다.

날씨는 맑았다. 새벽에 길을 떠나 흥릉점(興

**13일** 隆店) 쌍하포(雙河舖) 장진보(壯鎮堡) 상흥점

(常興店) 삼대자(三臺子)를 지나 여양역(閭陽驛)에서 아침을 먹었다. 또 2·3·4·5·6대(臺)를 지났다. 대개 명나라 말에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그 소식을 보고하기 위해 5리 마다 한 연대(烟臺)<sup>71</sup>를 설치하고 옹벽들에 회를 섞어 쌓았는데 높이가 5~6 길이었다. 옹벽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의해 모두 파헤쳐졌고 간혹 완전한 것도 있었다.

당시에 포(舖)를 배열(排列), 설치하여 깊이 상서롭지 않은 조짐과 염려가 있어도 짧은 시간에 요동(遼東) 들 밖의 소식까지 알릴 수 있었다. 갑자기 나라의 저축이 다 고갈된 것은 이 사역(使役)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었다. 마침내 백성들이 궁해지고 나라가 망하여 백년이 못 되어 모두 폐허가 되고 말았으니 가슴 아픈 일이다. 연대(煙臺) 사이에는 모두 점사(店舍)와 촌락이 있으므로 2대(臺)·3대(臺) 등으로 이름지어 구별하였다.

저녁에 십삼산(十三山)에 이르렀는데 산(山)은 의무려산(醫巫閭山)에서 뻗어 있는 산기슭이었다. 평평한 언덕이 구불구불 남으로 내려와 큰 들에서 돌산으로 돌기한 것이었다. 수십 봉우리가 깎아지른 듯 기괴(奇怪)하였다.

炕前熾火爐火 煮茶以進 既夕大設饌二單以獻 命乾糧以紙扇諸種答之 與正使宿對炕 是日行八十餘里

到新店北望 舊廣寧在平野中 城堞隱然露現 北鎮廟在其西高岡上 延窓宏廣 新塗粉灰 望之巍然矣

十三日

晴 平明 發行 過興隆店 雙河舖 壯鎮堡 常興店 三臺子 朝飯於閭陽驛 又過二三四五六臺子 暨明末爲報虜警 五里置一烟臺 而以甃和灰以築 高五六丈 甃子今盡古人所掘者 間或有完存者 當時排舖設置 深有諒慮 片時之間 可報遼野千里外聲 忽然國儲耗竭 未必不由於此役 終致民窮國亡 而百年之內 盡成丘墟 可勝痛哉 烟臺之中 皆有店舍村落 故以二臺三臺等 名之以別焉 夕時抵十三山 山即醫巫閭餘麓也 平坂逶迤南來 突起石山於大野中 數十峯巒 峭峻奇怪

71) 연대(烟臺)는 연기를 피워올리는 대(臺)를 말하는 것으로, 옛날 통신 수단의 하나이다. 봉수대를 말한다.

石色亦蒼古 以此名焉 止宿於正黃旗趙士傑家 是日 行八十里 衙譯吳國柱 各送楮閱於三使 以紙扇給其持來家丁

#### 十四日

晴 未明 發行 過三臺子 大凌河 朝飯於大凌河站 到四同碑 路上有四大石碑 雕刻螭頭極巧 卽萬曆年勅間 封提督王宗先等事也 地之得名 以此故也 到双沿站 又有一大碑 刻以資政大夫遲公三讓神道碑 卽康熙年間所立 而其近處無墳塋 神道之稱 殊可異也 此外道多豐碑 而不能盡看 又過小凌河站 小凌河橋 到松山堡 畧進粥飲 初昏 抵杏山堡 三使止宿於清人孟得清家 是日 行九十里

過双沿站 一箭地 右有往錦將衛路 距此數十里遠云 到松山堡 南望海色接天 島嶼出沒 雲烟微茫 不見涯際矣

돌 빛이 또한 고색창연하여 이로써 이름을 지었다. 정황기(正黃旗) 조사걸(趙士傑)의 집에서 머물러 잤다. 이 날 80리를 갔다.

아역(衙譯) 오국주(吳國柱)가 세 사신에게 각기 저민(楮閱)<sup>72)</sup>을 보냈다. 그것을 가지고 온 가정(家丁)들에게 종이 부채를 주었다.

날씨는 맑았다. 날이 밝기 전에 길을 나서 3

#### 14일

대 대릉하(大凌河)를 지났다. 대릉하참(大凌河站)에서 아침을 먹었다. 사동비(四同碑)에 도착하니 길가에 4개의 큰 돌비석이 있었다. 이두(螭頭)<sup>73)</sup>를 새긴 것이 지극히 공교하였는데 만력(萬曆) 연간(1573년~1619년) 제독(提督) 왕종선(王宗先)을 봉한 일 등을 새겨 놓았다. 그 곳이 이런 이름[四同碑]을 얻게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쌍연참(双沿站)에 이르니 또 큰 비(碑)가 하나 있었는데 ‘자정대부 지공 삼양신도비 (資政大夫遲公三讓神道碑)’라고 새겨 있었다. 곧 강희(康熙) 연간(1662년~1722년)에 세운 것이었으나 그 근처에 신도비문(神道碑文)에서 일컬은 분영(墳塋)이 없으니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 이 밖에 길에 풍비(豐碑)<sup>74)</sup>가 많았으나 다 알아 볼 수 없었다. 또 소릉하참(小凌河站)과 소릉하교(小凌河橋)를 지났다.

송산보(松山堡)에 도착하여 간단히 죽을 내와 마시고 초저녁에 행산보(杏山堡)에 이르렀다. 삼사(三使)가 청나라 사람 맹득청(孟得清)의 집에 머물러 잤다. 이 날 90리를 갔다.

쌍연참(双沿站)을 지나서 한 전지(箭地)되는 오른쪽에 금장위(錦將衛)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수십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 송산보(松山堡)에 이르러 남쪽으로 바라보니 바닷빛이 하늘과 접해 있었고 섬들이 출몰하고 구름과 안개가 아득히 끼어 있어 땅 끝을 보지 못하였다.

72)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73) 이두(螭頭)는 신도비(神道碑)의 윗 부분에 새기는 교룡(蛟龍)의 머리 부분을 말한다.

74) 풍비(豐碑)는 공덕을 찬양하여 세우는 큰 비석으로 송덕비(頌德碑)의 일종이다.

아침에 어두웠다가 정오에 맑아졌다. 날이

**15일** 밝기 전에 길을 나서 10리를 가서 십리보점(十里堡店)을 지났다. 고교보(高橋堡)에 도착하니 날이 크게 맑아졌다. 탑산점(塔山店)에 도착해 아침을 먹고 북쪽으로 바라보니 큰 산이 있었다. 호인(胡人)에게 물어보니 홍라산(紅羅山)이라 하였다. 계류하(桂流河) 조라산점(罩羅山店) 연산역(連山驛) 오리하(五里河)를 지나서 쌍석성(双石城)에 다다르니 성(城)이 모두 무너지고 퇴락하였으며 그 터만 남아 있었다. 교자(轎子)를 점문(店門) 앞에 늘어 놓고 간단히 내온 죽을 먹었다.

13리를 가서 영녕사(永寧寺)에 도착하니 절이 길 곁에 있었는데, ‘영녕선림(永寧禪林)’ 4자(字)를 문의 액자(額字)에 걸어 놓았고, 수가(壽家)의 소상(塑像)을 설치하였으며, 안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었다. 7 리를 가서 영원위(寧遠衛) 동문으로 들어가 다시 몇 전지(箭地)를 들어가니, 또 안에 성문(城門)이 있었고 성은 반이나 퇴락했는데 모두 문이 없이 무너져 있었다. 또 1리쯤 가서 옛날의 종각(鐘閣)에 다다르니 옹벽을 쌓아서 하나의 돈대(墩臺)를 만들고 십자문(十字門)을 내서 사방으로 통하게 하였다. 위에는 누각을 설치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여 있었다. 동쪽으로 들어가 다시 남쪽으로 나가 한 전지(箭地)를 가니 조대수(祖大壽)의 패루(牌樓) 2채가 있었다. 누각(樓閣)이 양쪽으로 거리를 걸터 앉아 높게 서 있었는데 모두 3개의 문이 있고 돌을 조각하여 기둥을 만들었으며, 창문과 마룻대 난간 사이에 용·교룡(蛟龍)·호랑이·사자 등을 새겨놓았는데 지극히 정교하였다. 한 문에는 안팎으로 ‘사세원융소부(四世元戎少傅)’라는 큰 글씨로 새기고 그 위에는 ‘옥음(玉音)’의 2자를 새겼으며, 기둥의 안팎에 모두 여구(侶句)를 새겨 놓았다. 또 한 문에 허다한 각자(刻字)가 있었으나 날이 어두워져 다 보지 못하여 또한 기록할 수 없다.

주인에게 조대수(祖大壽)의 후손이 있는지를 물으니 조대수(祖大壽)의 후손들은 북경(北京)에 거주하며 어떤 이는 장군(將軍)이 되고 낭관(郎官)이 되었으나,

### 十五日

朝陰午晴 未明 發行 行十里 過十里堡店 到高橋堡 日大明 矣 到塔山店 早飯 北望有大山 雄特 問于胡人 謂之紅羅山云 過桂流河 罩羅山店 連山驛 五里河 到双石城 城皆崩頽 只有其基 卸轎列于店門前 畧進粥 飲 行十三里 到永寧寺 寺在路傍 以永寧禪林四字 揭之門額 中設壽家塑像 內奉佛軀 行七里 入寧遠衛東門 轉入數箭地 又有內城門 而城半頽圯 皆無門崩矣 又行里許 到舊時鐘閣 槩築甃 作一墩 出十字門 以通四方 上設閣而今廢矣 入東而轉出 南行箭地 有祖大壽牌樓 兩座 跨街屹立 皆有三門 而刻鏤石子 作椽題窗欖楹棟間 刻龍螭虎獅 極其精巧 一門則內外刻四世元戎少傅六大字 上刻玉音二字 柱內外皆刻侶句 一門亦有許多刻字 而日昏未盡見 亦未記得矣 問大壽有後孫與否 於主人 則以爲大壽之孫 方居北京 或爲將爲郎

而其舊家在牌樓之西 今盡廢 只有其奴 居在其基 看護牌樓云爾 復從鐘閣南入 折而西出 行數箭地 止宿於清人金風神家 是日行九十里

### 十六日

晴 平明 發行 出西門 又轉出外西門 祖大壽先塋在路右 圍以短牆 古木鬱然成林 門前又立石牌門 其外立華表二双 高五六丈 上刻坐獸 過青墩臺 曹庄驛 七里坡 五里橋 到沙河所(一名 中右所) 朝飯 過烟臺河(盛京志 作淵臺河) 望海店 曲尺河 夕抵東關驛 入南門 城半頽廢 止宿於漢人趙成忠家 是日 行七十里

### 十七日

晴 平明 先發 到二臺子 停駕 觀日出 海雲層疊 狀若列島 高峯 金波滉漾 變然無窮 與在萊時 義相臺所見無異矣 過六渡河(盛京志 作六州河) 到中後所 朝飯於城外店炕 古城半頽 而市肆頗繁盛矣

그 옛집은 패루(牌樓)의 서쪽에 있는데 지금은 다 폐가(廢家)되었고, 다만 그 종[奴]들이 살면서 패루(牌樓)를 보살피고 있을 따름이라고 하였다. 다시 종각에서 남쪽으로 들어가 꺾어서 서쪽으로 나와 몇 전지(箭地)를 갔다. 청나라 사람 김풍신(金風神)의 집에 머물러 잤다. 이 날 90리를 갔다.

날씨는 맑았다. 날이 밝아 길을 나섰다. 서

### 16일

문(西門)을 나가 또 다시 바깥 서문을 지나니 조대수(祖大壽)의 선영(先塋)이 길 오른편에 있었다. 짧은 담장으로 둘러 있었는데, 고목(古木)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었다. 문앞에 또한 돌패문[石牌門]을 세웠고 그 바깥에 화표(華表) 2쌍을 세워 놓았는데, 높이가 5~6 길이 되었다. 위에는 앉아 있는 짐승을 새겨 놓았다.

청둔대(靑墩臺)·조장역(曹庄驛)·칠리파(七里坡)·오리교(五里橋)를 지나서 사하소(沙河所 : 일명 中右所)에 도착하여 아침을 먹었다. 연대하(烟臺河 : 『盛京志』에는 淵臺河라고 하였다)·망해점(望海店)·곡척하(曲尺河)를 지나 동관역(東關驛)에 도착하였다. 남문으로 들어가니 성(城)이 반은 퇴폐하여 있었다. 한인(漢人) 조성충(趙成忠)의 집에서 머물러 잤다. 이날 70리를 갔다.

날씨는 맑았다. 날이 밝아 먼저 길을 나섰다.

### 17일

다. 이대자(二臺子)에 도착하여 수레를 멈추고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니 바닷 구름이 층층첩첩하였는데 그 모습이 늘어선 섬과 높은 봉우리와 같았다. 금빛 파도가 휘황하고 변화가 무궁하여 동래(東萊)에 있을 때, 의상대(義相臺)에서 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육도하(六渡河 : 『盛京志』에는 六州河라고 하였다)를 지나 중후소(中後所)에 도착하여 성 밖에 있는 점항(店炕)에서 아침을 먹었다.

옛 성(城)은 반이 퇴락했으나 시중의 가게는 번성하였다.

지나온 성이 모두 돌로 기반을 삼아 옹벽을 겹쳐 쌓았으나 이 성은 돌을 쪼아 한 길쭉 되게 쌓았고 성첩(城堞)과 같은 모양이었다. 그 위에 옹벽을 쌓은 제도가 더욱 정밀하고 장대하였으나 반은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어 없어졌다. 이것을 보니 애석한 마음이 들었다. 또 1대·2대·3대 사하참(沙河站)·섭가분(葉家墳)을 지났는데, 섭가분은 길 오른 편에 있었다. 숲 사이에 30여개의 비갈(碑碣)이 있었는데, 이것은 섭총병(葉摠兵) 조상의 땅이라고 하였다. 구어하(口魚河)를 건너니 길 가에 폐성(廢城)이 있었다.

저녁에 양수하(兩水河)에 이르러 역승(驛丞) 황폐석(黃陞石)의 집에 머물러 잤다. 이 날 65리를 갔다.

날씨는 맑았다. 날이 아직 밝기 전에 먼저  
18일 길을 나섰다. 전둔위(前屯衛)·왕가대(王家臺)

·왕제구(王濟溝)·고녕역(高寧驛)·송령구(松嶺溝)·소송령(小松嶺)을 지나서 중전소(中前所)에 도착하여 아침을 먹었다. 또 대석교(大石橋)·양수호(兩水湖)·왕가장(王家庄)을 지나 서장관(書狀官)과 함께 왼편으로 길을 돌아 이른바 망부석축(望夫石築)을 지나 보았다. 평평한 언덕 위에 한 돌로 된 돈대(墩臺)가 돌기하였는데, 세상에서 이르기를 “몽염(蒙恬)<sup>75</sup>이 장성을 쌓을 때, 맹강여(孟姜女)의 남편 범랑(范郎)이 종군(從軍)했다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곳에 올라 바라보았다”고 하였다. 짧은 담장을 두르고 건물을 세우고 그 안에 강녀소상(姜女塑像)을 봉안해 놓고 있었다. 좌우에 시동을 세워서 한결같이 옥대(玉帶)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곁에 청나라 사람들이 세운 비석이 있었는데 사적(事蹟)을 적은 것이 꽤 자세하였고, 다만 강녀(姜女)가 지아비의 시신을 얻어 깊어지고 바다에 뛰어드니 잠시 후에 돌보살이 떠올랐다는 일은 말하고 돌이 된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75)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 때의 명장(名將)이다. 30만 병졸로 흉노를 정벌하고 만리장성을 수축하였으나 나중에 조고(趙高) 등에게 몰려 죽임을 당했다. 붓을 발명했다고 전한다.

所過城子 皆以石爲址 以甃累築 而此城則琢石築丈許 如堦砌狀 其上築甃制 尤精壯 而半爲人毀去 見此令人嗟惜 又過一臺 二臺 三臺 沙河站 葉家墳 墳在路右林木間 有數三碑碣云 是葉摠兵祖地 渡口魚河道邊有廢城 夕抵兩水河 止宿於驛丞黃陞石家 是日 行六十五里

十八日

晴 未明 先發 過前屯衛 王家臺 王濟溝 高寧驛 松嶺溝 小松嶺 到中前所朝飯 又過大石橋 兩水湖 王家庄 與書狀左轉路 歷見所謂望夫石築 平崗上突起一石墩 世謂蒙恬築長城時 孟姜女夫范郎從軍未還 故登望於此云 圍以短牆 內建殿宇 中奉姜女塑像 左右立侍童 而一奉玉帶 殊未知其故 傍有清人所建碑 記其事頗詳 只言姜得夫尸 負而投海 俄而有石菩薩浮出之事 而不言化石事

抑後來詩人所增演者否 庭有萬曆年間所立二碑 一則李棟所製而字剝不可讀 殿後岩石上刻望夫石三字 傍有石罅 而謂之望夫時跡痕 其傳會之說 良可笑也 北望長城 一帶嵯峨 山上築就山勢稍夷處 跨岸截壑而築 間有粉雉 高聳於列堞之中 似若烟臺 然聞正使直向山海關 遂促駕追到 卸輜列于關外 晷進粥飲 譯輩來言 城將許令 使臣先入 卽渡濠橋 入二重關門 到城將所在處 卸駕而行 如入柵時 又入二重城門 上有二層樓 太半崩毀 而上層扁以天下第一關 下層扁以邦本永固四字 過稅官所居衙門前 到鍾樓 制如寧遠 西出右過成均館 止宿於漢人孟九里家 關內人屋之盛 市肆之繁 可與瀋陽相埒 而城樓雉堞 街巷中 舊時牌樓 一任傾倒 圯毀 令人慘然 是日 行八十里

아마도 훗날 이곳에 온 시인(詩人)들이 더하여 말한 것은 아닐까?

뜰에 만력(萬曆) 연간(1573년~1619년)에 세운 2기의 비석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동(李棟)이 만들어 세운 것이나 글자가 부서져 읽을 만한 곳이 없었다. 전후의 암석 위에 ‘망부석(望夫石)’ 3자(字)를 새겼다. 곁의 돌에 자국이 있었는데, 남편을 바라볼 때의 자취라고 하니 그 부회한 말이 참으로 가소롭다.

북으로 장성(長城)을 바라보니 일대는 차아(嵯峨)한데, 곧 산세가 조금씩 평평해지는 곳에 언덕을 걸터 앉도록 하고 골짜기를 가로질러 쌓여 있었다. 사이에 분칠(粉漆)을 한 치성(雉城)이 열 지어 있는 성첩(城堞) 중에 높이 솟아 있는 것이 연대(烟臺)와 같았다. 그런데 들으니 “정사(正使)는 곧 바로 산해관(山海關)으로 향했다”고 하므로 드디어 수레를 재촉하여 뒤쫓아 도착하여 교자(轎子)를 산해관(山海關) 밖에다 멈추고, 간단하게 내은 죽을 먹었다. 역관(譯官)들이 와서 말하기를 “성장(城將)이 영(令)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사신(使臣)이 먼저 들어가 곧 호교(濠橋)를 건너 이중 관문(關門)에 들어가 성장(城將)이 있는 곳에 도착하여 수레를 타고 갔는데, 책문(柵門)에 들어갈 때와 같았다. 또 이중 성문에 들어가니 위에는 2층 누각이 있었는데 태반이 무너져 훼손되었고, 상층 편액(扁額)에 ‘천하제일관(天下第一關)’ 5자(字)가, 하층 편액에는 ‘방본영고(邦本永固)’ 4자(字)가 쓰여 있었다.

세관(稅官)이 거쳐하고 있는 아문(衙門) 앞을 지나 종루(鐘樓)에 도착하였는데, 그 제도가 영원(寧遠)과 같았다. 서쪽으로 나가 오른 편으로 성균관(成均館)을 지났다. 한인(漢人) 맹구리(孟九里)의 집에 머물러 잤다.

관내(關內) 사람들의 집이 성대하였다. 시중의 가게는 변화하여 심양(瀋陽)과 같았으나 성루(城樓)와 치첩(雉堞)이 저자거리 가운데 있었다. 옛날 패루(牌樓)가 한결같이 기울어 넘어지고 무너져 훼손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쓸쓸하게 하였다. 이 날 80리를 갔다.

진사 김창업(金昌業)<sup>76</sup>이 일찍이 계사년(癸巳年 : 1713년, 숙종 39)에 몽와(夢窩) 상공(相公)<sup>77</sup>을 따라 북경(北京)에 갔었는데 산해관(山海關)에 사는 곽여백(郭如栢)이란 사람을 만나보니 아정한 인품의 소유자였으니, 나에게 정중하게 뵈서 보기를 요구하였다. 곽여백(郭如栢)에게는 동작와연(銅雀瓦硯)이 있었는데, 역시 나에게 사오기를 요청했다. 그래서 날이 저문 뒤에 역관(譯官)들을 시켜 맞아들였더니 여백(如栢)의 부자가 촛불을 밝히고 찾아왔다.

내가 읊하고 앉아서 인하여 김창업(金昌業)의 뜻을 전하면서 “당신들은 만족(蠻族)인가 한족(漢族)인가”를 물었더니, 여백(如栢)이 아들을 시켜 써보이기를 “명나라 300년 가문이었으나 청나라 갑오년(甲午年 : 1654년, 순치 11)에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하였다. 내가 묻기를, “가제(稼齋)께서 말씀하시되 ‘좌우에 동작와연(銅雀瓦硯)이 있다’고 하셨는데 볼 수 있는가”하니 답하여 말하되, “이 벼루는 목춘원(穆春元)<sup>78</sup>의 조부가 소장하던 것을 내가 갖게 된 것으로 그대에게 팔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내가 묻기를, “목춘원(穆春元)은 지금 북경(北京)에 있는가” 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듣는 바로는 초관(鈔關)과 함께 복건성(福建省)에 갔다 하며, 내년 봄에나 돌아온다 합니다. 이 벼루에 음각(陰刻)된 글씨를 보지 못했습니까”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음각(陰刻)된 글씨는 일찍이 보지 못했소. 그런데 가제(稼齋)께서 벼루값을 보내시며 사오라고 했는데 벼루는 있지 아니하니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자, 답하기를 “진실로 전혀 팔 사람이 없으나, 명년(明年) 봄을 기다리면 자연히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내가 또 묻기를 “안상(案上)에 있는 고서화(古書畫)는 내놓고 파는 것이오” 하니 대답해 말하기를,

金進士昌業 曾於癸巳 隨夢窩相公赴燕 與關居郭如栢有雅 要余招見致款 郭有銅雀瓦硯 亦要余買來 故昏後使譯輩邀致 則如栢父子 秉燭來見 余揖而坐 因致金丈意 問其滿漢與否 則如栢 使其子 書示曰 明三百年人家中 清甲午科舉人 余問曰 稼齋言 左右有銅雀瓦硯 可觀否 答曰 此硯 爲穆春元祖傳所藏 已携之 都中未知 果售大老否 余問曰 穆春元 方在北京否 答曰 又聞 同鈔關 往福建去矣 至後年春 方回 此硯墨刊已打去了 未知見否 余曰 墨本 卽未見之 而稼齋送硯直 要余沽之矣 硯既不在 將孤其意耶 答曰 倘都中不售定 有來音 俟明春 自然通知 余又問曰 案上有古書畫 出售者否 答曰

76) 김창업(金昌業 : 1658~1721)은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자는 대유(大有), 호는 노가재(老稼齋)이다. 1712년 사형(舍兄) 창집(昌集)을 따라 청나라에 다녀왔다.

77) 몽와(夢窩)는 김창집(金昌集 : 1648~1722)의 호로 그는 노론 4대신(大臣)중의 한 사람이다. 영의정 수항(壽恒)의 아들이며, 창협(昌協)·창훈(昌翕)·창업(昌業)의 형이기도 하다. 1712년 사은사(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78) 목춘원(穆春元)은 청나라의 시서화(詩書畫) 및 골동품 수집가로 짐작된다.

法帖上者 眞淳化 唐懷素自敍眞帖 宋天馬賦眞帖 畫則 有明文徵明 董其昌 唐伯虎 飲中八仙畫 字蹟 又有其昌 如欲玩即不妨取來清玩耳 遂辭去 使其子 來示諸書畫 問其直 少不下百餘金 余書問曰 近來西邊勝負如何 小郭答曰 書生未敢豫聞國家大事耳 槩郭之父子爲人 皆無朴實 意其所答 如此可恨可恨

“법첩(法帖) 중의 좋은 것은 진실로 순화(淳化) 연간의 당나라 회소(懷素)<sup>79)</sup>의 자서진첩(自敍眞帖)과 송나라 천마부(天馬賦) 진첩(眞帖) 등이 있습니다.

그림에는 명(明)나라 문징명(文徵明)<sup>80)</sup>·동기창(董其昌)<sup>81)</sup>과 당백호(唐伯虎)<sup>82)</sup>의 음중팔선화(飲中八仙畫)가 있고, 서예로는 또 동기창(董其昌)의 작품이 있습니다. 만약 구경만 하신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가져가서 깨끗이 보십시오” 하며 인사를 하고 돌아가서 그 아들을 시켜서 여러 서화를 가져다가 보여 주었다. 그 값을 물었더니 적어도 100여금(金)은 넘는다고 하였다. 내가 글로 써서 묻기를, “근자에 서쪽 변방의 상황은 어떠한가” 하였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서생(書生)은 일찍이 국가 대사(大事)에 대해서 들어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였다.

대체로 곽씨(郭氏) 부자의 사람 됨됨이가 질박신실(質朴信實)함이 없으니, 생각컨대 그 대답 역시 이와 같아 가히 한스럽기 그지 없었다.

### 十九日

晴 日出後 發行 又從鍾樓 南出過二重城門 行十餘里 到望海亭 層樓入雲 俯臨溟渤 令人心目快壯矣 樓上揭望洋舒抱四大字 下層揭海天一碧四字 此即吳逢春筆也 庭立二碑 左刻一句之多 天啓六年所立 而越人劉永基筆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뜬 뒤에 출발하였다.

19일 중루(鐘樓) 남쪽으로부터 이중(二重)의 성문을

을 지나 10여리를 가다가 망해정(望海亭)에 이르렀다. 층루(層樓)는 구름 속에 든 것 같고 굽어보는 바다는 사람의 마음과 눈을 장엄하고 통쾌하게 하였다. 다락위에 ‘망양서포(望洋舒抱)’라는 4자(字)의 큰 글씨가 걸려있고 아래에는 ‘해천일벽(海天一碧)’이란 4자(字)가 걸려 있는데, 이것은 오봉춘(吳逢春)의 글씨였다.

뜰에는 2기의 비석이 서있는데, 왼쪽 비석에는 글자가 1구(句) 더 많이 새겨져 있었다. 천계(天啓) 6년(1626년, 인조 4)에 세웠는데 월인(越人) 유영기(柳永基)의 필적이다.

79) 당(唐)나라의 서화가이다.

80) 명(明)나라의 시서화가이다.

81) 위와 같음.

82) 송(宋)나라 단릉(丹陵) 사람으로 초명(初名)은 섬(瞻)이고, 자(字)는 장유(長孺)이다.

오른쪽 비석에는 ‘한해기관(瀚海奇觀)’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송정(崇禎) 경진년(庚辰年 : 1640년, 인조 18)에 세웠으며 중주(中州) 사람 범지완(范志完)의 글씨였다. 비문(碑文)에는 많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바빠서 다 읽지 못하였다. 강희제(康熙帝) 신해년(辛亥年 : 1671년, 현종 12)에 세운 비석인데 거기에는 산해관(山海關)에 관련된 일들이 자못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산해관(山海關)과 정자(亭子)는 서중산왕(西中山王)이 창건하였다가 척계광(戚繼光)<sup>83</sup>이 이를 이어 완성하였다. 그 후 천계(天啓) 연간(1621년~1627년)에 왕치중(王致中)이 중수하였다가 금년 신해년(辛亥年: 1671년, 현종 12)에 다시 정자를 수리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천하제일관(天下第一關)’이라는 5 글자는 진(秦)나라 이사(李斯)<sup>84</sup>의 글씨로 전해졌는데 참으로 망녕되이 전해진 것이다. 누대(樓臺)를 돌아서 서쪽으로 가다가 2~3 개의 마을을 통과하여 갔더니 바야흐로 큰 길이 나왔다.

홍화점(紅花店)·범가점(范家店)·대리하(大里河)를 지나서 대리영(大里營)에 이르렀다. 일찍 밥을 먹고 다시 왕가령(王家嶺)·봉황점(鳳凰店)·망해점(望海店)·심하보(深河堡)·강자점(綱子店)을 지나 어두울 무렵에 유관점(榆關店)에 도착하여 청나라 사람 한전장(韓殿章)의 집에 묵었다. 이 날 90리를 갔다.

새벽에 눈이 내리다가 오후에 맑아졌다. 해  
**20일** 가 뜰 무렵 출발하여 강을 건넌 후 처음으로  
 눈내린 산천을 보게 되었다. 색깔은 온통 한  
 결같이 희어서 기분이 자못 상쾌하였다.

右刻瀚海奇觀 崇禎庚辰所立 而  
 中州范志完筆也 碑文題刻甚多  
 而忙未盡讀 有康熙辛亥所立碑  
 記山海關事頗詳 以爲關與亭 是  
 徐中山王所創 而戚繼光踵成之  
 其後天啓間 王致中重修 今辛  
 亥 又修亭云云 我國傳言 天下  
 第一關五字 卽李斯筆者 誠妄  
 傳也 轉而西行 穿過數三村坊  
 始出大路 歷紅花店 范家店 大  
 里河 到大里營 早飯 又過王家  
 嶺 鳳凰店 望海店 深河堡 綱  
 子店 初昏到榆關店 止宿於清  
 人韓殿章家 是日 行九十里

二十日  
 曉雪 午晴 平明 發行 渡江後  
 始見下雪山川 變色一望皓白 殊  
 覺意爽

83) 척계광(戚繼光)은 명나라 중기의 무장(武將)으로 자(字)는 원경(元敬)이다. 절강(浙江)의 참장(參將)이 되어 왜구(倭寇)의 평정에 용맹을 떨쳤으며 정병(精兵)을 뽑아 훈련을 엄히 하고 전술과 병기의 개량과 충실에 힘써 척가군(戚家軍)의 이름을 높였다. 또 그 경험에 의거하여 병서(兵書)인 『기효신서(紀效新書)』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84) 초(楚)나라의 상채(上蔡) 사람으로 진(秦)나라의 객경(客卿)이 되어 시황제(始皇帝)를 도와 천하를 통일하고 군현제(郡縣制)를 창립하였다. 그러나 후에 참소(讒訴)를 당해 피살되었다.

過榮家庄 上下白石鋪 吳家塋  
到撫寧 茲從東門入 穿過鐘樓  
出西門 街市人物 雖是小縣 治  
亦甚繁盛 制度大抵與寧遠衛相  
同矣 過羊河 五里堡 芦峯口  
茶棚庵 早飯於背陰堡 過雙望  
堡 城內踰部落嶺 歷十八里堡  
驢槽店 僑課堡 初昏入永平府  
止宿於漢人于士元家 永平府 章  
京 稱以眷弟書 送名帖且餽四種  
果子 托以不可私受 餽遣郤之  
正使請令收納 聞此亦不受 是  
日 行九十里

## 二十一日

晴 永平者左右北平 昨夕入城  
時已暮黑 不能覽 遂抵市街 而  
第見路右 大書北平首邑四字揭  
額者 府尹所居衙門也 平明 發  
行 從南門 出門 是三重城 內  
外市肆 亦繁盛 行一箭地 渡青  
龍橋 大木數千章 羅積河邊 槩  
自上流 流下者也 過南丘庄 渡  
灣河者 與青龍橋 水多流者也  
忠信橋 上流十餘里地林木依微  
處曰 此是夷齊廟云

영가장(榮家莊)·상하백석포(上下白石鋪)·오가영(吳家塋)을 지나 무령(撫寧)에 도착하였다. 이에 동문(東門)으로부터 들어가 종루(鐘樓)를 지나 서문(西門)으로 나왔는데 저자거리와 인물들은 비록 조그마한 고을이었지만, 역시 심히 번성해서 제도(制度)는 무릇 영원위(寧遠衛)와 더불어 서로 같았다.

양하(羊河)·오리보(五里堡)·노봉구(蘆峯口)·다봉암(茶棚庵)을 지나 배음보(背陰堡)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쌍망보(雙望堡)와 성안 부락령(部落嶺)을 넘어 십팔리보(十八里堡)·여조점(驢槽店)·교과보(僑課堡)를 지났다. 어두워지자 영평부(永平府)에 들어가 한인(漢人) 우사원(于士元)의 집에서 묵었다.

영평부(永平府) 장경(章京)은 당시에 권제(眷弟)의 글씨라고 알려진 명첩(名帖)과 4가지의 과자를 보내며 글씨를 부탁했으나 사사로이 받을 수 없어서 물리쳤다. 정사(正使)에게 수납을 청하자 이를 듣고 또한 보내온 것을 보내며 물리쳤다. 이 날 90리를 갔다.

날씨는 맑았다. 영평(永平)은 좌우 북평(北

21일 평)이다. 어제 저녁에 성(城)에 들었는데 때가 이미 어두워 볼 수가 없었다. 드디어 시가(市街)에 이르렀더니 다만 길 오른쪽에 ‘북평의 가장 큰 읍(北平首邑)’이란 4글자의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이곳은 부윤(府尹)이 살고 있는 관아(官衙)였다.

해가 뜰 무렵 길을 나서 남문(南門)으로부터 문을 나서니 이 성은 삼중(三重)으로 된 성곽으로 안팎으로 시가지가 또한 번성했다.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청룡교(靑龍橋)를 건너가니 큰 나무 수천 그루가 물가에 벌려 쌓여 있었는데 대체로 상류로부터 흘러온 것이었다.

남구장(南丘莊)을 지나 만하(彎河)와 청룡교(靑龍橋)를 건너니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다. 충신교(忠信橋) 상류 10여리 지점에 숲과 나무들이 휘늘어진 곳이 보였는데, 이곳이 백이(伯夷)와 숙제(叔齊)의 사당(祠堂)이 있는 곳이다.

삼사(三使)가 내년 봄에 날날이 볼 것을 약속하여 가보지 못했다. 범가장(范家庄)·망부대(望夫臺)·안하점(安河店)을 지나 야계둔(野鷄屯)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사하보(沙河堡)를 지나 오후 3~4시 경에 사하역(沙河驛)에 이르렀다. 찰원(察院)에서 묵었다. 이 날 60리를 갔다.

새벽에 눈이 내리고 안개가 짙더니 낮에는  
**22일** 맑았다.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하여 삼관묘(三官廟)·마포대(馬鋪臺)·칠가령(七家嶺)·신점포(新店鋪)·우하초(于河草)·신령장(新玲莊)·공우교(拱牛橋)·청룡사교(靑龍寺橋)를 지났다. 진자점(榛子店)에서 아침을 먹었다. 진자점(榛子店)에는 성문이 있었다.

진성감(鎭城坎)을 지나고 소령하(小伶河)의 나무다리를 지나 풍윤(豐潤)에 도착하였다. 이에 동문(東門)으로부터 찰원(察院)에 들어가니 백성이 사는 집과 가게나 저자거리의 번성함이 대체적으로 무령(撫寧)과 같았다. 이 날 100리를 갔다.

안개가 짙게 끼다가 낮에는 걷혔다. 해가  
**23일** 뜨기 전에 출발하였다. 추가장(趨家庄)·장가장(莊家庄)·환사교(喚沙橋)·노가장(盧家庄)을 지나 고려보(高麗堡)에 이르렀다. 무논[水田]수백 두락이 펼쳐져 있었다. 연천보(連阡堡)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이 때문이다. 연계보(軟鷄堡)·다봉암(多棚菴)에 이르렀다. 아침을 사류하(沙流河)에서 먹고 양수유(兩水榆)·양가점(兩家店)·시오리둔[十五里屯]·동팔리보(東八里堡)를 지나 용지암(龍池庵)에 이르렀다.

서장관(書狀官)과 더불어 들어가 보니 불전(佛殿)에 벌려 놓은 기명(器皿)과 창틈의 조각들이 심히 기묘하여 볼 만했다. 저녁 때 옥전현(玉田縣) 동문(東門)으로 들어가니 민가와 저자거리들이 풍윤(豐潤)보다 더 번성하였다. 찰원(察院)에서 묵었다. 이 날 70리를 갔다.

而三使既約 以明春曆見 故不能赴往 過范家庄 望夫臺 安河店 到野鷄屯 早飯 過沙河堡 晡時到沙河驛 入西城門 止宿於察院 是日 行六十里

## 二十二日

曉雪大霧 午晴 未明 發行 過三官廟 馬鋪臺 七家嶺 新店鋪 于河草 新坪庄 扛牛橋 靑龍寺橋 早飯於榛子店 店有城門 過鎭城坎 小伶河板橋 到豐潤 茲從東門 入宿察院 民居市肆之盛 略如撫寧 是日 行百里

## 二十三日

大霧 午晴 平明 發行 過趨家庄 蔣家庄 喚沙橋 盧家庄 到高麗堡 水田數百頃 連阡堡之得名以此 軟鷄堡 茶棚庵 早飯於沙流河 過兩水榆 兩家店 十五里屯 東八里堡 到龍池庵 與書狀入見佛殿 所列器皿 窓櫺雕刻 亦奇可觀 夕時 入玉田縣 東門 民居市肆 尤盛於豐潤矣 宿察院 是日 行七十五里

## 二十四日

晴 平明 發行 出西門 過西八里堡 五里屯 彩亭橋 南望 大野村落相連 林木蔥鬱 而烟靄迷茫 狀若滄海潑騰浪湧 此所謂薊門烟樹也 到大小枯樹店 嶺上有樹 外似枯而內有液 故店之得名以此 忠信言內 昨年 李台子賓 送人折見其枝則卽槐木云 早飯於蜂山店 過螺山店 到鰲山店 適當場市 人物雜貨充滿 道路不能行 過二里店 王現橋 小橋坊 渡漁陽橋 下流到薊州 從南門 入門 是三重城 堞堅完 如瀋陽 此卽古漁陽郡也 直抵獨樂寺 寺有兩層大殿 中奉一軀金佛 高十餘丈 仰視其面 似不甚大 及由兩重梯 登上層閣 佛頭 從樓軒中虛處 聳上肩與軒齊耳 幾一丈 傍設一擲上 有大佛曲肱而臥 藉以錦褥 覆以段被 憑檻俯瞰 城內屋宇柳比極繁盛矣 出寺復東行 止宿於般若庵 庵僧介繁者 頗沈靜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뜨기 전에 길을 나섰

## 24일

다. 서문(西門)을 나와 서팔리보(西八里堡)·오리둔(五里屯)·채정교(彩亭橋)를 지났다. 남으로 넓은 들이 펼쳐져 있고 촌락들이 서로 이어졌고 숲이 울창하였다.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가물거렸다. 멀리 바다에는 파도가 일고 물결이 솟구치는 듯하니 이곳이 이른바 계문연수(薊門烟樹)였다. 크고 작은 고수점(枯樹店)에 이르니 고개마루에 나무들이 있는데 겉은 마른 것 같으나 속으로는 수액(樹液)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점(店)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충신(忠信)의 말속에 작년에 정승 이자빈(李子賓)이 지나다가 사람을 시켜 그 가지를 꺾어 봤더니 곧 해나무였다고 한다.

아침을 봉산점(蜂山店)에서 먹고 나산점(螺山店)을 지나 별산점(鰲山店)에 도착하니 마침 시장이 컸다. 인물이며 잡화들이 길가에 층만하니 다니기가 불가능하였다. 이리점(二里店)·왕현교(王現橋)·소교방(小橋坊)을 지나 어양교(漁陽橋)를 건넜다. 다리 아래 흐르는 물은 계주(薊州)로 흐른다.

남문을 따라 문안에 들어서니 이곳 또한 삼중(三重)의 문이었다. 성가퀴의 견고함이 완전히 심양성(瀋陽城)과 같으니 이곳은 바로 옛날 어양군(漁陽郡)이다. 곧장 독락사(獨樂寺)에 이르렀다. 절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大殿)에 1구의 금으로 만든 부처를 모셨으니 그 높이가 10여장(丈)이나 되었다. 그 면모를 우러러보니 심히 장대해서 미치지 못할 것 같았다. 사다리를 통해 상층(上層)의 전각(殿閣)에 올라야만 비로소 부처의 머리를 볼 수 있다. 누대(樓臺) 가운데 빈곳에 윗 어깨와 귀가 우뚝 솟아 있었는데 거의 한 길이나 되었다. 곁에 하나의 탁상(擲上)을 마련해 놓았는데, 탁상 위에 큰 부처가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으며 비단 요를 깔고 비단 이불이 덮여 있었다. 기둥에 의지해서 성안을 내려다보니 짐들이 준비하고 극히 번성하였다.

절을 나서서 다시 동쪽으로 갔다. 반야암(般若庵)에서 묵었다. 반야암 승려 개번(介繁)은 자못 고요함이 있었다.

반산(盤山)으로 가는 길을 물으니 손짓해서 가리켜 주는데 또한 자상하였다. 한인(漢人)이 있어 안내자를 기다렸더니 급히 내방한 자가 있었다. 용모는 괴위했고 말에 거리낌이 없었다. 스스로 말하기를 “선대(先代)는 무인(武人)이었고 황명(皇明) 년간에 3품직에 올랐으며 업유(業儒)이다”라고 말하였다. “반산군(盤山郡)을 보고 싶은데 나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느냐” 하니 “용이하다”고 대답했다.

또 “반산(盤山)까지의 거리가 이곳으로부터 몇 리나 되느냐”고 물으니 구경할 수 없다”하기에 “그 중 제 하루 안에는 다 일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 줄 수 있는가”를 물으니 대답하여 가로되 “30리쯤 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기를 “반산(盤山)은 하루면 마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묻기를 “반산(盤山)으로부터 나군점(那均店)까지의 거리는 또한 몇 리쯤 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10리’라 하였다. 또 다시 묻기를 “조선 사람의 의관(衣冠)을 좋아하는가”하고 그 여부를 물으니 대답하여 가로되 “청나라 때에 벼슬아치들이 몹시 좋아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다시 묻기를 “그대가 입은 관대와 의복들은 좋아하는가”하고 그 여부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때에 따라 좋아하기도 하노라”고 하였다. 또 묻기를

問盤山路 指示亦詳 有漢人 俟來聘者 忽來訪 而容貌魁偉 言語不拘 自言其先以武仕 皇明爲三品職 渠則方業儒云 問欲見盤山郡 爲我先導之 答曰 容易耳 又問曰 盤山距此幾里 而一日之內不可盡玩 則其中最勝處 可指示否 答曰 三十里 又曰盤山之景 一日可畢 又問曰 自盤山 去那均店 亦幾里 答曰 十里 又問曰 朝鮮衣冠好否 答曰 清朝時候 有甚好處 又問曰 君所着冠服好否 答曰 隨時 又問曰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하였

**25일** 다. 독락사(獨樂寺) 뒤를 감싸고 돌아 서문(西門) 쪽으로 나섰다. 서문 또한 삼중(三重)으로 되어 있었다. 오리교(五里橋)에 이르러서 이른바 양귀비(楊貴妃)의 소상(塑像)을 보게 되었는데, 온몸이 황금색으로 마치 부처님과 같이 도금되었고 면류관을 쓰고 홀을 잡고 있었다.

산마루에 사당이 있었는데 자못 핑려한 가운데 안록산(安祿山)과 당나라 현종(玄宗)의 상(像)이 조각되어 있다고 말한다.

## 二十五日

晴 平明 發行 繞獨樂寺後 出西門 門亦三重 到五里橋 見所謂楊貴妃塑像 渾體塗金如佛軀 而戴冕執圭 後嶺上 有廟宇 頗宏麗 中塑安祿山 唐玄宗像云

祿山起兵反唐 在於漁陽 則楊妃之塑像於此 殊無意義 而玄宗之與祿山同廟 又可駭訝也 過正家庄 問盤山路程 則有一人指示路 右一山遠望之塔寺院隱見於林麓間 去大路 似不滿二十餘里 早飯於那均店 歷白澗店 到香火庵 前後四殿閣 皆奉佛像 左右又有廊 而或奉關王 或奉三清 第二殿 前有白松二株 柯葉一如松木 而稍扶疎 本木則白皮 堅潔可愛 亦是異觀 佛殿中 皆懸琉璃燈 斑竹作梯 紗燈廊廡 多設樺榴交椅 斑竹坐榻 第一殿樓下府中 設清皇所坐床榻 而亦極精巧 清皇 前月來此云 樓上揭香花閣三字金額 乃萬曆壬子所扁者 其餘 雕刻龍鳳 金碧丹雘 眩人眼目 有女尼五六輩 守直 庵之西 有清皇來宿行宮 其西又有倉舍曰 公樂店

안녹산(安祿山)이 당나라를 배반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어양(漁陽) 땅에 주둔하고 있었다면 이곳에 양귀비의 소상을 두는 것은 그 뜻이 기이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당나라 현종과 안녹산을 같은 사당에 안치함은 더욱 놀랍고 의아스럽다고 하겠다.

정가장(正家庄)을 지나면서 반산로(盤山路)까지의 거리를 물으니 밖에 있던 한 사람이 길을 안내하겠다고 하였다. 오른쪽으로 하나의 산이 멀리 보였다. 담과 사원이 우거진 수풀 사이로 은은히 보였다. 대로(大路)로 가면 20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방균점(邦均店)에서 이른 아침을 끝내고 백간점(白間店)을 지나 향화암(香火庵)에 이르니 전후 4전각(殿閣)에 온통 부처를 모셨다. 좌우에 또 묘당(廟堂)이 있는데 혹은 관왕(關王)을 모셔놓기도 하고 혹은 삼청(三清)을 모셔놓기도 했다. 둘째 전각 앞에 백송(白松) 2 그루가 있는데 가지와 잎사귀가 한결같이 소나무와 같고 가지는 울창하였다. 본디 이 나무는 표피가 희고 단단하여 깨끗함이 사랑스러우니 가히 또한 기이한 광경이라 하겠다.

부처를 모신 가운데는 모두 유리등(琉璃燈)을 달고 있고 반죽(斑竹)으로 만든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비단 초롱이 걸려 있는 낭묘(廊廡)에는 화류목(樺榴木)으로 만든 의자와 반죽으로 만든 의자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 첫 번째 부처를 모신 누각 아래 부중(府中)에는 청나라 황제가 앉을 걸상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또한 극히 정교하였다. 청나라 황제가 지난날에 이곳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누각 위에는 향화각(香火閣)이라고 금으로 쓴 3글자의 액자가 걸려 있는데 이는 만력(萬曆) 임자년(壬子年 : 1612년, 광해군 4)에 건 편액이다. 그 나머지 조각들에는 용과 봉황새가 조각되었는데 아름다운 색채와 선명한 붉은 색채가 사람들의 안목(眼目)을 현란케 한다. 비구니 5~6인이 당번을 정해 지키고 있었다.

향화암(香花庵) 서쪽에 청나라 황제가 와서 묵는 행궁(行宮)이 있었다. 그 암자 서쪽에 또한 창고가 있으니 이르기를 공락점(公樂店)이라 한다.

뒷길로 해서 단가령(段家嶺)·석비점(石碑店)·호타하(滹沱河)를 지나 저녁 때에 삼하(三河)에 이르렀다. 동문(東門)을 경유해서 문에 드니 또한 삼중(三重)의 문이었다. 청나라 사람 도필성(陶必成)의 집에서 묵었다. 이 날 70리를 갔다.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하였  
**26일** 다. 서문(西門)으로 나왔다. 서문은 양중문(兩重門)이었다. 남문 밖의 점포들은 극히 변화하고 성하다고들 말하였다. 조림장(棗林莊)과 백부도신점(白浮圖新店), 황시점(皇視店)을 지난 뒤 하점(夏店)에서 이른 아침을 먹고 유하둔(榆河屯)에 닿았다. 갑자기 호마(胡馬)를 탄 2~3명이 치달으며 말하기를 “황제의 조카 왕[王子]이 바야흐로 이른다”고 하였다.

길을 피하라기에 마침내 길가에 가마를 멈추니, 소년은 호의(胡衣)에 담비 깃옷을 걸치고 노새를 탔는데 한 무리의 따르는 자와 함께 고삐를 나란히 하고 달려 지나갔다. 그 중 어떤 사람이 왕의 아우인지 알 수 없었다. 누런 말 굴레[黃鞵]가 조금 달랐고 전후에 말을 타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자는 누런 보자기를 짊어졌고 어떤 자는 활과 화살을 찾으며, 또 어떤 자는 머리에 공작 깃털을 꽂았다. 혹은 환관(宦官)과 내시 100여기(騎)가 수레를 타고 뒤를 따랐다. 수레덮개는 가마와 같은데 드러난 버리에 붉은 바퀴가 대단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 연교포(煙郊鋪)·삼가장(三家莊)·등가장(鄧家莊)·호가장(胡家莊)·습가장(習家莊)을 지나 백하(白河)에 이르렀다.

백하(白河) 위 아래에는 배들이 가득히 정박해 있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어떤 배는 누각이 있고, 어떤 배는 지붕이 있었다. 그 작은 배들은 하수(河水)가 얼었기 때문에 얼음 위로 건너갔다. 하변(河邊)에는 배를 만들고 수리하는 공장이 서로 연달아 있었다. 시가(市街)를 가로질러 1리 남짓 가니 동문으로 들어섰다. 동문 또한 양중문(兩重門)이었다.

後路 過段家嶺石碑店 滹沱河  
 夕抵三河縣 由東門入 門亦三  
 重 止宿於清人陶必成家 是日  
 行七十里

## 二十六日

晴 平明 發行 出西門 門是兩  
 重 而南門外店鋪 極爲繁盛云  
 過棗林庄 白浮圖新店 皇視店  
 早飯於夏店 到柳河屯 忽有數  
 三騎胡馳到 謂皇帝之侄子王方  
 來 使之避途 遂駐橋路邊 則有  
 少年胡衣貂裘乘騾與群從者 並  
 轡馳過 莫知其何者 爲王之弟  
 黃鞵稍別矣 前後騎從 或負黃  
 袱 或佩弓矢 或頭懸孔雀羽 或  
 是宦寺幾百餘騎 所乘車子後隨  
 而有屋如轎 露網朱轂 極華侈  
 矣 過煙郊鋪 三家庄 鄧家庄  
 胡家庄 習家庄 到白河 沿河上  
 下 舸艦彌滿 不知其數 而或有  
 樓 或有屋 其小者 則因河凍  
 發諸河邊 氷渡河 河邊舡廠相  
 連 穿過市肆 行里餘 入東門  
 門是兩重

又行里許 入城門 過鐘閣 左右  
香鋪花鋪 清香撲鼻 五彩眩目  
其他貨寶 充積如山 瀋陽風斯  
在下 眞天下大都會也 止宿於  
譯人楊麒麟家 是日 行七十里

### 二十七日

朝陰 午晴 平明 發行 適出中  
成門 轉而西行里許 出西門 門  
是兩重 又行數箭地 出外城門  
到八里橋 橋廣五六間 長幾二  
十餘間矣 過楊家閘 管家庄 三  
間房 早飯於大王庄 又過太平  
庄 紅門十里堡 八里堡 到東岳  
廟外 自通州 至此四十餘里之  
間 左右店鋪寺觀 相連間有豪  
富家墓地 而雕牆朱門 虹橋 極  
其宏麗 內則松杉白樹 成行森  
立 飛閣屹然幽肅 若塚墓則雖  
或有圍以屏風石處 不過取土沙  
以成矣 易服冠帶於龍王寺 行  
里餘 入朝陽門 門是兩重兩門  
皆有三層樓 又行二三里 到十  
字街

또 1리 남짓 가다가 성문에 들어가 종각을 지나치니 좌우에 있는 향을 파는 가게와 꽃을 파는 가게에서 풍기는 맑은 향내가 코를 찌르고 오색이 눈을 현란하게 하였다. 그 외에 상품과 재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심양(瀋陽)의 풍경이 눈 아래 펼쳐져 있으니 참으로 천하의 큰 도시였다. 역인(譯人) 양기인(楊麒麟)의 집에서 묵었다. 이 날 70리를 갔다.

아침에는 음산하다가 낮에는 개었다. 해가  
27일 뜨기 전에 출발하였다. 마침 중성문(中成門)  
을 나와 돌아서 서쪽으로 1리 남짓 가서 서  
문(西門)으로 나오니 이 문 또한 양중문(兩重門)이었다. 다  
시 얼마쯤을 지나 외성문(外城門) 밖으로 나와 팔리교(八里  
橋)에 이르렀다. 다리의 너비는 5내지 6칸인데 길이는 거의  
20여칸이나 되었다. 양가갑(楊家閘)·관가장(管家庄)·삼칸  
방(三間房)을 지났다. 대왕장(大王莊)에서 아침을 먹고 다  
시 태평장(太平莊)·홍문십리보(紅門十里堡)·팔리보(八里堡)  
를 지나 동악묘(東岳廟) 밖에 이르렀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는 40여리의 거리였다.

좌우에는 점포(店鋪)와 사관(寺觀)<sup>85</sup>들이 있는데 서로 이  
어져 있는 부호가(豪富家)의 묘지(墓地)는 조각된 담과 빨  
간색 문에 무지개 다리가 그 웅장하고 화려함을 다했다.  
안은 소나무·잣나무·흰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서있다. 날  
듯한 전각(殿閣)들이 우뚝 서있어 그윽하고 엄숙하였다. 비  
록 병풍처럼 둘러 쌓였어도 이는 흙과 모래를 모아 이루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용왕사(龍王寺)에서 관대(冠帶)를 바꾸어 입고 1리 남짓  
가니 조양문(朝陽門)에 이르렀다. 조양문(朝陽門)도 양중(兩  
重)으로 되어 있는데 양중문(兩重門)에는 모두 3층 누대가  
있었다. 다시 2, 3리를 더가서 십자가(十字街)에 이르렀다.

85) 사관(寺觀)은 불사(佛寺)와 도관(道觀), 즉 승려가 사는 사찰과 도사(道士)가 사는 도관의 점칭이다.

남북으로 높고 큰 패루(牌樓)에는 금색으로 칠한 편액 위에 ‘대가시(大街市)’ 3글자가 씌어져 있었다. 길을 꺾어 남쪽으로 다시 3~4리쯤 가니 합달문(合達門)에 이르렀다. 합달문(合達門)을 돌아 서쪽으로 1리 남짓 가니 옥하관(玉河館)으로 들었다. 연로(沿路)에 시가지며 사람들의 번화함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겠다. 옥하관(玉河館) 안에는 똥무더기가 뜰에 가득하고 창이며 지게들이 찢기고 무너졌으며 아궁이는 다 퇴폐해서 종이를 발라 보수를 한 후에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날 40여리를 갔다.

맑고 바람이 불었다. 해가 뜨기 전에 관문(館門)을 나서 서쪽으로 1마장(馬場) 쯤 가다가 돌아 북쪽으로 가니 예부문(禮部門) 밖에 이르렀다. 예부문(禮部門) 밖에서 말을 내려 중문(中門)으로 들어갔다.

남쪽 행랑채에서 잠시 쉬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좌시랑(左侍郎)이 나왔다. 전도(前導)<sup>86</sup>의 말에 따라 대청(大廳)으로 가니 대청 위에는 ‘청명정직(清明正直)’이라 쓴 4자의 큰 글씨로 된 액자가 걸려 있고, 그 앞에 탁자를 놓아 시랑(侍郎)은 그 좌편에 서고 정사(正使)는 탁자 서쪽에 무릎을 꿇고서 표자문(表咨文)이 든 궤(櫃)를 전했는데, 나도 정사(正使)를 따라 무릎을 꿇었다.

전갈이 끝난 뒤 시랑(侍郎)이 마침내 안으로 들었다. 삼사(三使)가 잠깐 옛 자리에 앉아 그 표자문(表咨文) 다 보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타고 나와 북으로 가다가 돌아서 동쪽을 향해갔다. 큰길을 건너 홍려시(鴻臚寺)에 이르렀다. 문 앞에서 말을 내려 중문(中門)으로 들어가 잠시 앉아 쉬었다. 시관(寺官)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관배(官輩)들이 따뜻한 방에 들어가 잠시 쉬라고 했기에 대청 남쪽 방에 들어가 쉬었다.

南北立高大牌樓 金扁上書 大街市三字 折而南行 又三四里 到合達門 轉而西行里餘 入玉河館 沿路市肆人物之盛 不可盡言 館中糞穢滿庭 窓戶破裂 炕皆頽毀 塗紙補葺 始爲入處 是日 行四十餘里

## 二十八日

晴風 平明 出館門 西行一馬場 轉而北行 到禮部門外 下馬 入中門 少憩於南廊 俄而左侍郎出來 有前導聲 進詣 大廳前廳上 揭清明正直四大字 廳前設卓 侍郎者 立其左正使跪于卓西 傳表咨文櫃 余亦隨跪 傳畢 侍郎者 還入內 三使少坐舊處 俟其畢見 表咨 還出 騎馬又北行 轉而東向行 越大街路 到鴻臚寺 門前下馬 入中門 少坐 因寺官未入來 通官輩許令就溫炕 少休故暫入處 大廳之南廊

86) 선도(先導)의 뜻으로 열(列)의 의장병, 또는 선도하는 임무나 그 의식을 말한다.

俄而寺官來到 亦有呼唱聲 三使還出中門 東向立 其北有大門 門內有屋 如一架亭者 不知其大小 而屋頂高聳 槩象御坐者也 侍郎者出來 立于大門 前有人臚唱 三使北向 行三拜九叩頭禮 而譯輩在後 有跪起參差 失儀之節 侍郎者呼通 官令更習一次 余令譯輩 牽之不得 遂少退 東向旋即北向 行一拜三扣頭 其爲攪挽 不可形言 習儀畢 還館所

## 二十九日

晴 晡時 皇帝送歲饌 正使以病不得出受 余與書狀出館 前庭西北向 設席行三拜九扣頭禮 所謂歲饌 卽生羊生鵝 及一卓果實油果等物也 夕時城中 竟放紙銃 聲震天地 達夜不已 有國城對敵戲

이윽고 시관(寺官)들이 오고 또한 부르는 소리가 있었다. 삼사(三使)가 중문(中門)을 나와 동쪽을 향해 갔다. 그곳에 큰 대문이 서 있고 문안에 가옥이 있는데 마치 정자 하나를 세워 놓은 것 같은데 그 크기와 작기를 알 수가 없었다.

집 꼭대기에 현출한 소상이 높이 솟아 있으니 임금이 앉는 곳이다. 시랑(侍郎)이 대문으로 들어오고 홍려시(鴻臚寺)의 창홀자가 앞에서 삼사(三使)에게 북향(北向)하여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하는 예를 올리라 했다. 역관(譯官) 무리들이 뒤에 있다가 꿇었다가 일어났다를 어지럽게 한다. 가령 의전 절차를 잃게 되면 시랑이 호통을 치니 관배(官輩)들이 한 차례 다시 하도록 명령한다고 하였다. 내가 역관(譯官) 들로 하여금 그 일을 그만두도록 했으나 제대로 되지 못했다.

조금 물러나 동쪽으로 돌고 북쪽을 향해 일배삼고두(一拜三叩頭)를 행하는데 그것의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의전 익히기를 끝마친 뒤에 묵을 곳으로 돌아왔다.

날씨는 맑았다. 오후 3~5시에 황제께서 세

## 29일

찬(歲饌)을 내리신다고 하였다. 정사(正使)는 병으로 나가서 받지 못하였다. 나와 서장관(書狀官)이 관아(官衙)를 나와 전정(前庭) 서북쪽을 향해 갔더니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의 예를 행할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른바 세찬(歲饌)이라는 것은 살아 있는 양과 거위, 그리고 한 탁자의 과실과 유과 등이다.

저녁 때가 되었다. 드디어 성안에서는 딱총[紙銃: 종이로 만든 총]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 듯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도성(都城)에서 적에 대항하는 놀이가 있는 듯하였다.

여 백

경자년(庚子年 : 1720, 속종 46)

정월

여 백

初一日

晴 四更 出館門 由鴻臚寺前路  
北向行數馬場許 轉而西行 到  
東華門外 下馬步行 從北俠入  
過一箭地 轉而北行 有大石橋  
橋南有擎天柱一雙 橋南北有四  
石獅 而彫琢極巧 渡橋 有天安  
門 門內 又有擎天柱一雙 行數  
百步 又有端門 而兩門 皆有兩  
層樓五角門 從西末角門 入行  
百餘步 設席於西廊前以坐東方  
乍白 傳言皇帝將出 清漢官及  
蒙古官 出座於西庭 三使亦絕  
行 而坐其下 俄而騎馬者 數十  
雙先出 皇帝乘黃帳轎 從五鳳  
門出 轎夫衣織花紅錦衣者 不  
過八九人 轎下四方 懸燭籠 端  
門正門左右 有人執燭籠以立而  
已 其後騎馬者五六十 絡纜隨  
出 食頃 衣紅錦衣者 帽插黃染  
羽 各持儀仗 鼓吹以入 分東西  
序立極整齊 而旗旛皆用網龍織  
金 蓋則五色錯立 鳳扇鶴扇 其  
制圓與我國不同矣 及皇帝將還  
左右播鼓吹角有節拍

날씨는 맑았다. 사경(四更) 때 마장(馬場)의  
초 1일 여관문을 나와 홍려시(鴻臚寺) 앞길을 경유해  
서 북쪽을 향해 두어 마장(馬場) 남짓 가다가  
돌아서 서쪽으로 가서 동화문(東華門)에 도착하였다. 문 밖  
에서 말을 내려 걸었다. 좁은 곳으로부터 들어가 가까운  
거리를 지났다. 돌아서 북쪽으로 가니 큰 돌다리가 있었다.  
돌다리 남쪽에는 경천주(擎天柱) 한 쌍이 있었다. 다리 남  
북에 4마리의 사자상이 있는데 조각(彫琢)이 극히 교묘하  
였다. 다리를 건너면 천안문(天安門)이 있는데 천안문 안에  
또 경천주 한 쌍이 있었다. 수백 보를 걸어가니 또 단문(端  
門)이 있었다. 양쪽 문은 모두 다 2층 누대(樓臺)와 오각문  
(五角門)이었다. 서쪽 끝 각문(角門)으로부터 들어가 백여  
보 남짓 가니 서쪽 행랑채 앞에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모두 동쪽을 향해 앉으니 잠시 환함을 느꼈다. 황제가 장  
차 나온다 전함에 청관(淸官) 및 한관(漢官)과 몽고관(蒙古  
官)이 나와 서쪽 뜰에 좌정하였다.

삼사(三使) 또한 숨을 죽이고 그 아래 앉아 있었다. 잠시  
뒤 말탄 병사 수십 쌍이 선도해서 오는데 황제는 누런 색  
장막이 처진 가마를 타고 오봉문(五鳳門)으로부터 나왔다.  
가마꾼은 꽃이 수 놓여진 빨간 비단 옷을 입었는데 8, 9명  
에 지나지 않았다. 황제가 가마에서 내리자 사방에서 등롱  
(燈籠)을 비추었다. 단문(端門) 정문 좌우에는 사람들이 등  
롱을 잡고 서 있을 뿐이었다. 그 뒤에 말을 탄 병사 5~60  
명이 대오를 지어 따라 나왔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붉은  
비단옷을 입은 자들은 모자에 누렇게 물들인 깃털을 꽂았  
는데 각각 의식에 쓰이는 무기를 지녔고 북을 두드리며 나  
팔을 불며 들어선다. 그들은 동서로 나뉘어 차례로 서는데  
극히 가지런하다.

깃발들은 모두 용을 그리어 황금색을 깔았는데, 5 가지  
색이 섞여 있었다. 봉황새를 그린 부채와 학이 그려진 부  
채는 그 제도가 등글어 우리 나라와 같지 않았다. 황제가  
장차 돌아감에 미쳐서 좌우에서 북을 두드리고 태평소를  
절도있게 불었다.

황제가 삼사(三使)가 앉아 있는 곳에 이르더니 손수 누린 휘장이 드리워진 가마 창문을 열었다. 가마를 세우게 하고 가마에 기대어 접견을 하였다. 잠깐 휘장을 거두게 하고는 곧 돌아갔다. 통관(通官)들이 역관(譯官)에게 이르기를 황제가 휘장을 걷고 조선 사신을 본 것은 예(禮)로 대접한 것이라 했다.

오봉문(五鳳門) 위에 2층으로 지어진 높은 누각이 세워져 오문(午門)이라 편액했고, 아래에는 삼문(三門)이 있으며 좌우 양편에는 또 높은 전각이 있었다. 그 아래에 서로 마주하고 문(門)이 있는데 좌우에는 액문(掖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삼사(三使)가 오른쪽 작은 문을 따라 들어가다가 꺾어서 북으로 나오니 좌우의 문과 더불어 중앙에 삼문(三門)이 벌려지면서 오문(五門)이 되었으며 오봉문(五鳳門)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대개 이 때문이었다. 오문(五門) 안에 태화문(太和門)이 있고 좌우 행랑에는 또 큰 문이 있는데, 층루는 돌사다리와 돌난간 걸을 통해 출입하게 되어 있었다. 서쪽 복도는 방물(方物)을 두는 곳이라 이른다.

태화문(太和門)의 서쪽에 원도문(員度門)이 있었다. 이를 따라 들어가면 전각(殿閣)의 높이는 구름으로 들어가고 그 낭무(廊廡) 12기등으로 그 길이를 알 수 없는데, 태화(太和)라 편액했으니 곧 이른바 황제가 등극하는 곳이었다. 그 전각의 계단은 모두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돌난간으로 만들어져 있고 바라보면 아득하였다.

오문(午門) 밖에는 의장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뜰에 들어와 나열을 마쳤다. 잠깐 뒤에 북을 두드리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였다. 황제께서 나와 앉은 전각(殿閣) 위에서 정편(淨鞭 : 지휘봉)을 든 이의 세 마디 소리가 끝나자 청관(淸官)과 몽고관(蒙古官)들이 의장(儀仗)에 따라 옮겨 들어서서 각각 품계를 표시한 풋말 앞에 꿇어 앉게 하였다.

이른바 품계 풋말이란 것은 구운 벽돌인데 그 모양새가 마치 산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위에서 길게 끄는 호령소리가 나자 모든 관료들이 삼배구고례(三拜九叩禮)를 올렸다.

皇帝到三使所座處 手開轎窓 所垂少黃帳 立轎倚者接 而乍褰旋 卽 還垂 通官輩謂譯官曰 皇帝褰帷 見朝鮮使臣 可想其禮待云 五鳳門上 有兩層高樓 揭以午門 下有三門 左右兩行 又有高閣 其下相對有門 刻左右掖門字 三使從右掖門入 折以北出 左右門與中央三門 列爲五門 五鳳之稱 槩以是也 午門之內 有太和門 左右廊又有大門 層樓石梯石欄 旁通出入 而西廊卽方物捧置之所云 太和之西 有員度門 從此而入 有殿高入雲霄 其廡十二楹 其長不可知 扁以太和 卽所謂皇極殿也 殿階三層 皆設石欄 望之邈然 午門外 所設儀仗 已入庭羅列 少頃鼓吹作 皇帝出坐殿上 淨鞭三聲訖 淸漢蒙古諸官 趨入於儀仗之內 各隨品牌而跪 所謂品牌者 燐巒如山形者也 殿上臚唱 諸官行三拜九叩之禮

退訖 三使繼入 立於自南第亦  
行品牌下 殿上亦臚呼 通官金  
三奇在傍 言跪扣頭起 行禮訖  
退立於仗外 淨鞭又三聲 皇帝  
入內 諸官罷出 而滿庭肅然 終  
無喧嘩聲 三使復從員度右掖門  
出 其外有黃屋分列 而皆駕兩  
輪車 皇帝還宮之後 有五象 自  
外而入 而金鞍上載狀 若兜鍪  
者 復以黃袱金羈 絡頭垂 後有  
胡騎其頸矣 至是又有四象入來  
駕黃屋以出 象之高二丈餘 足  
如虎蹄 而有亦指耳如乾洪魚狀  
而或韜以青布 眼孔甚少 兩牙  
垂出尺餘 而或有其牙者 鼻垂  
至地 而時或卷舒 其體其毛而  
青黑色 又出設門 東西有門 門  
外卽宗廟社稷云 而松柏森立 此  
於曉入時 未之見者也 復從因路  
出東華門 還館所

예를 다한 뒤 삼사(三使)는 이어 들어가 품계 표말 아래에  
섰다. 전각 위에서 다시 길게 끄는 호령소리에 통관(通官)  
김삼기(金三奇)가 곁에 있다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뒤 일어나라고 하였다. 예를 올린 뒤 의전장(儀典仗) 밖에  
서니 지휘봉[淨鞭]이 또 3번 울렸다. 황제가 안으로 들자  
못 벼슬아치들이 과하고 따라 나섰다. 의전장 뜰에 가득찼  
던 숙연함이 끝내 시끄러운 소리가 없었다.

삼사(三使)가 다시 원도문(員度門)을 따라 오른쪽 액문  
(掖門)으로 나섰다. 그 집박에는 황금색 짐들이 나뉘어 도  
열한 듯이 서 있었다. 모두가 바퀴가 2개인 수레를 탔다.  
황제가 궁궐로 돌아간 뒤에 5마리의 코끼리가 밖에서 들어  
왔다. 황금색 안장 위에 있는 모양이 뽕족한 투구와 같았  
고 다시 또 누런 보자기에 황금빛 굴레를 머리에 드리워졌  
다. 뒤에는 호마(胡馬)가 있는데 그 목의 장식도 똑같았다.  
또 4마리의 코끼리가 들어오더니 누런 짐을 끌고 나갔다.  
코끼리의 키는 두 길 남짓 되고 다리는 호랑이 발굽과 같  
고 또한 처든 귀는 말린 홍어 모양이었다. 혹은 파란 베로  
몸을 갖추고 눈구멍은 매우 작고 2개의 어금니[송곳니]는  
밖으로 튀어 나왔는데 1자 남짓 되었다. 그 어금니[송곳니]  
와 긴 코를 땅에까지 드리우고 간혹 가다가 코를 말았다  
폈다 하였다. 그 몸통은 털로 덮였는데 청흑색이었다.

또 가설된 문을 나서니 동서로 문이 있었는데 대문 밖은  
곧 종묘사직(宗廟社稷)이라 하였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뺨  
뺨이 서 있는데, 이곳은 새벽에 들어왔기에 미처 보지 못  
했던 것이다. 다시 길을 따라 나서서 동화문(東華門)을 나  
와 숙소로 갔다.

初二日

晴

초 2일 날씨는 맑았다.

초 3일 날씨는 맑았다.

初三日  
晴

초 4일 날씨는 맑았다. 분재(盆栽)를 얻었는데 복  
숭아꽃이 활짝 피었다.

初四日  
晴 得盆植 桃樹花 盛開

초 5일 날씨는 맑았다. 유리 항아리를 얻었다. 금  
붕어[紅魚]를 기를 수 있다고 한다.

初五日  
晴 得琉璃壺 養紅魚

초 6일 새벽에 눈이 내렸다.

初六日  
曉雪

초 7일 날씨는 맑았다. 원숭이 놀이를 보았다.

初七日  
晴 見猿戲

초 8일 날씨는 맑았다.

初八日  
晴

날씨는 맑았고 큰 바람이 불었다. 새로 나  
온 『범충정공집 范忠貞公集』을 가지고 온 사  
람이 있어서 그 문집(文集)을 보았더니 범공  
(范公)의 이름은 승모(承模)이고 자는 근공(覲公)이며, 호는  
나산(螺山)으로 심양(瀋陽) 사람이었다. 순치(順治) 임진년  
(壬辰年 : 1652년, 효종 3)에 진사(進士)에 오르고 임자년  
(壬子年 : 1672년, 현종 13)에 병부우시랑 총독복건군무(兵  
部右侍郎 總督福建軍務)를 제수받았는데 오삼계(吳三桂)가  
반란을 일으킴에 미쳐서 경정충(耿精忠)<sup>87)</sup>에게 구금되어  
700여일 동안 유폐되어 있었다.

初九日  
晴 大風 有來新范忠貞公集者  
見其本傳 范名承謨 字覲公 號  
螺山 瀋陽人 順治壬辰 登進士  
壬子拜兵部右侍郎 總督福建軍  
務 及吳三桂反 爲耿精忠所拘  
囚 在幽繫七百餘日

冠賜冠 衣謝母時衣 每逢朔望  
輒奉時憲曆一冊 北向拜跪 間  
作詩文 其毫枯乃燒桴 存炭畫  
壁上 丙辰遂遇害精忠 焚尸棄  
之山野 泰寧人許鼎者 夜行亂  
石宿莽中 覓得爐骸 藏於家 明  
年負骸 進京師 康熙帝遣官致  
祭 親製碑文云 槩承謨 盡忠所  
事 殊可尙 且見其請 紓東南大  
困疏 盛言旗下逃人之禁 亦不  
無愛民之意 第身當明運之訖 昧  
於義理 誠無足取 聊記此以俟後  
考

이에 하사받은 관(冠)을 쓰고, 옷은 모친과 작별할 때 입  
었던 옷을 입으며 매양 초하루와 보름을 맞으면 번번이 시  
헌력(時憲曆) 한 책을 받들고는 북녘을 향해 절하고 꿇어  
앉아 간간히 시문(詩文)을 짓더니 그 붓끝이 달면 이에 붓  
대를 태워 숯을 만들어 벽 위에 썼다. 병진년(丙辰年)에 경  
정충(耿精忠)의 해를 입어 불탄 시체가 산 아래 버려지자  
태령(泰寧) 사람 허정(許鼎)이 밤에 어지러운 돌과 우거진  
풀 속에서 까맣게 타버린 시체를 찾았으니, 이를 집에 감  
춰 두었다가 다음해에 뼈를 지고 서울로 감에 강희제(康熙  
帝)가 관원(官員)을 보내 제사를 지내고 친히 비문(碑文)을  
지었다고 한다.

그 비문에 이르기를 “대체적으로 승모(承謨)는 충성을  
다해서 섬겼던 바가 자못 가상하도다. 또한 간청했던 바는  
「동남대곤소 東南大困疏」에 기하도인지금(旗下逃人之禁)이  
라고 말한 것이 보이니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뜻이 없지  
않다. 다만 몸이 명나라 말운(末運)을 당하여 의리에 어두  
움은 참으로 족히 취할 바 아니니 애오라지 이에 기록하여  
훗날의 고증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初十日  
晴 譯官李英郁所騎 栗峯驛馬  
病斃

날씨는 맑았다. 역관(譯官) 이영욱(李英郁)  
초 10일 이 타고 다니던 울봉역(栗峯驛)의 말이 병들  
어 죽었다.

十一日  
雪 夜大雪 刷馬一匹 病斃

11일 눈이 왔다. 밤에 큰 눈이 내렸다. 쇠마(刷  
馬) 한 마리가 죽었다.

十三日  
陰

13일 날씨가 음산했다.

87) 경정충(耿精忠)은 청나라의 장군으로 1674년 반란을 일으켰다가 1682년에 복주(伏誅)되었다.

14일	음산하더니 가는 눈이 내렸다.	十四日 陰 微雪
15일	눈이 내렸다.	十五日 雪
16일	음산하더니 눈발이 뿌렸다.	十六日 陰 洒雪
17일	맑더니 큰 바람이 몹시 불었다.	十七日 晴 大風極辛
18일	날씨는 맑았다. 각 아문(衙門)에서 비로소 오늘부터 최초로 개인(開印)한다고 일렀다.	十八日 晴 各衙門 自今日 始開印云
19일	날씨는 맑았다.	十九日 晴
20일	아침에 음산하더니 바람이 사나웠다.	二十日 朝陰 風辛
21일	맑고 날씨가 매서웠다.	二十一日 晴辛
22일	맑고 매서웠다.	二十二日 晴辛
23일	맑고 큰 바람이 사나웠다.	二十三日 晴 大風辛

二十四日  
晴 表沓文 下内閣云云

24일      날씨는 맑았다. 표자문(表沓文)이 내각(内閣)으로 내려 왔다고 하였다.

二十五日  
晴

25일      날씨는 맑았다.

二十六日  
晴

26일      날씨는 맑았다.

二十七日  
晴

27일      날씨는 맑았다.

二十八日  
晴

28일      날씨는 맑았다.

二十九日  
朝陰 午晴

29일      아침에 음산했다가 낮에는 맑았다.

三十日  
陰

30일      음산했다.

여 백

경자년(庚子年 : 1720, 속종 46)

2월

여 백

大 初一日 陰晴	큰 달이다 초 1일	음산하다가 맑았다.
初 二日 夕陰 皇帝往海子 佃獵云	초 2일	저녁에 음산했다. 황제께서 해자(海子) <sup>88)</sup> 로 가서 사냥한다고 했다.
初 三日 夜雪 午晴	초 3일	밤에는 눈이 오고 낮에는 맑았다.
初 四日 晴	초 4일	날씨는 맑았다.
初 五日 晴辛	초 5일	날씨는 맑았으나 매서웠다.
初 六日 晴 始納方物歲幣	초 6일	맑았다. 처음으로 방물(方物)과 세폐(歲幣)를 바쳤다.
初 七日 晴	초 7일	날씨는 맑았다.
初 八日 晴 觀幻術	초 8일	날씨는 맑았다. 환술(幻術) <sup>89)</sup> 을 보았다
初 九日 晴	초 9일	날씨는 맑았다.

88) 북쪽 지방에서는 호수(湖水)나 웅덩이[沼]를 해자(海子)라고 부른다.

89) 사람의 눈을 어리게 하여 속이는 기술, 칼을 삼키고 불을 토하는 등의 마술을 의미한다.

날씨는 맑았다. 역관(譯官)<sup>90</sup> 최규(崔奎)·  
초 10일 박창유(朴昌裕)·고시연(高時彦), 나의 군관  
(軍官) 최상집(崔尙嶽) 등이 힘을 합하여 은  
(銀)을 내어서<sup>91</sup> 서반(序班)<sup>92</sup>들에게 주었더니, 책 2권을  
얻어 왔다. 그중 하나는 곧 산둥(山東)의 순무(巡撫)<sup>93</sup> 이  
수덕(李樹德)이 삼가 아뢰는 것이다.

이에 이르기를 “바다의 도적이 등읍(登邑)<sup>94</sup>으로 침범하  
여 들어와서 그들이 병사(兵士)와 백성을 약탈하니, 울부짖  
어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신  
(臣)이 살펴봄에 “9월 안에 임금의 명(命)을 받들어서 도적  
의 우두머리인 정진심(鄭進心) 등이 바다에 있으면서 난을  
일으키고 내지(內地)를 시끄럽게 떠들썩하고, 바다에 연(沿)  
한 각 성(省)으로 글을 보내니, 미리 각각 방호(防護)하라”  
는 등의 말이 신(臣)에게 도달했습니다. 신(臣)이 즉시 각  
소속된 제진(提鎮)<sup>95</sup>과 각 아문(衙門)<sup>96</sup>에게 미리 각자 밖  
을 방호하라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12월 9일에 등주(登州)  
의 진지(鎮地)를 점거당하여, 중영(中營)<sup>97</sup>을 표적(標的)으  
로 하고 있었다고 유격(遊擊) 왕충(王忠)이 알려왔습니다.

6일 늦은 시각에 태풍이 크게 불었습니다. 도적의 괴수  
황비호(黃飛虎)와 또 성명을 알수 없는 몇 사람이 무리 만  
여명을 데리고 태풍을 틈타서 캄캄한 밤에 항구에 들어와  
황촌(黃村) 땅 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불을 밝히고 포를  
쏘며 대장기와 깃발들을 세우고 위에 쓰기를 ‘동평왕(東平  
王) 황비호 무리의 도적’이라 하고 크게 떠벌려서 말하기를,

初十日  
晴 譯官 崔奎 朴昌裕 高時彦  
余之軍官 崔尙嶽等 合力出銀  
給序班輩 得二題本以來 其一  
即 山東巡撫 李樹德謹奏 爲洋  
賊 侵犯登邑 教掠兵民 號呼不  
堪事 竊臣 於九月內 奉旨 賊  
首鄭進心等 在洋 作亂搔擾內  
地 着行文沿海各省 預各防護  
等語 到臣 臣即行文各屬并提  
鎮 各衙門 預爲防護外 不意  
於十二月初九日 據登州鎮 標  
中營 遊擊王忠服稱 初六日晚  
刻 颶風大作 賊首黃飛虎 又有  
不知姓名者 數人 帶衆萬餘 乘  
風黑夜進港 至黃村內地 明火  
放砲 豎立旗纛 上寫東平王 黃  
衆賊揚言

90) 통역을 맡아 보는 직책을 가진 관원(官員)으로 신분은 중인(中人)이다.

91) 출은(出銀)이란 “朱提銀重八兩爲一流 值一千五百八十”이라 하여 주제(朱提 : 은이 나는 산 이름)에  
서 나는 은의 무게가 8냥이면 일류(一流)라고 하는데, 1580의 값어치가 있다고 한다고 하는데서 유  
래하여 ‘은전(銀錢)을 내어’, 곧 ‘돈을 내어’의 뜻으로 쓰인다.

92) 서반(序班)은 명청(明清) 시대의 관직명으로 관직의 차례를 관장하던 벼슬이다.

93) 백성의 질고(疾苦)와 수령의 근무 성적을 살피던 외관직(外官職)을 말한다.

94) 등주(登州), 즉 중국 산둥성에 있는 고을의 이름이다.

95) 『청국행정법범론 淸國行政法汎論』에 보면, 대개 성(省)의 주방장군(駐防將軍)이나, 그 소속된 군대  
를 총총(總統)했다고 한다.

96) 급(級)이 높은 관청을 통틀어 일컫는 의미이다.

97) 군영(軍營)의 중심처를 말한다.

我們起義兵 報大讐而來 爾等何不早早投降 賊勢洶湧異常 登州總鎮 臣李麟急行救護 奈數千兵丁 如何 拭敵 惡賊恣意 教戮兵民 虜劫銀米等物 共一十八村至 登邑攻城索印圖 到天明 始行退去 次日即差水師 前營遊擊陳孟 帶兵二百名 往外子 張三鎮 綁押送到臣衙門 臣即嚴行 夾訊據鄧小鬼等 供稱小的們 是萊州府 膠州人 向與同州 鄺家庄 鄺二 鄺五 又與蓬萊縣人 王七 李大 李三 俱在外洋 捕魚爲業 現有本州本縣 印票爲據

“우리들이 의병(義兵)을 일으키어 큰 원수를 갚으려고 온 것이거늘, 너희들은 어찌 서둘러서 투항(投降)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적의 세력이 들끓어 올라 보통과 달라서 등주총진(登州總鎮)<sup>98)</sup> 신하(臣下) 이린(李麟)이 급히 가서 구하고 보호했으나 이에 수천 병정(兵丁)이었으니 어찌하여 적을 섬멸할 수 있을 것입니까. 악한 도적들이 방자(放恣)한 뜻으로 병졸과 백성을 죽이고 은과 쌀 등의 물품들을 약탈해 간 것이 모두 18마을이나 되었습니다. 등읍(登邑)을 점령(占領)하고 성을 공격해서 관청의 인장(印章)<sup>99)</sup>을 수색(搜索)해서 날이 밝아서야 비로소 물러가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날에는 수군(水軍)을 차출(差出)했습니다. 전영(前營) 유격(遊擊) 진맹(陳孟)이 병졸 200명을 데리고 외양(外洋)<sup>100)</sup>에 가서 도적을 탐색했는데, 가다가 멈추어 고기잡이 배를 나포했습니다. 사람이 4명인데 도적의 수급(首級)을 매달고 와서 정탐꾼이 관병(官兵)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등소귀(鄧小鬼)·육아면(陸阿免)·장마자(張麻子)·장삼진(張三鎮)을 묶어 압송(押送)해서 신(臣)의 아문(衙門)에 이른다 고 했습니다. 신이 바로 등소귀(鄧小鬼) 등을 잡아서 신문(訊問)하기를 엄히 행하니 모두 칭(稱)하기를 “저 하잘 것 없는 도적 무리들은<sup>101)</sup> 내주부(萊州府) 교주인(膠州人)인데, 지난번 같은 주(州)의 역가장(鄺家庄)의 역이(鄺二)·역오(鄺五)와 또 봉래현(蓬萊縣) 사람 왕칠(王七)·이대(李大)<sup>102)</sup>·이삼(李三)과 더불어 모두들 먼 바다에 있으면서 고기를 잡아 생업(生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현재 본주(本州)와 본현(本縣)에 인표(印票)<sup>103)</sup>가 그 근거(根據)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며,

98) 등주(登州)에서 지휘하는 군사의 직책을 말한다.

99) 인도(印圖), 도장(圖章), 새(璽) 등을 말한다.

100) 먼 바다를 말한다.

101) 공칭소적문(供稱小的們), 즉 중국 백화(白話)에서는 ‘도적 떼’ 같은 무리를 앞잡아서 이렇게 어린애들이라고 했다.

102) 이씨의 첫째 아들, 즉 대(大)는 맏아들을 의미한다.

103) 도장을 찍어 발행한 표시를 말한다.

“금년 3월 3일이 되어서 도적의 우두머리 황천보(黃天保)의 화를 만났는데, 별명을 황비호(黃飛虎)<sup>104</sup>라고 하고 우리들 9명을 잡아서 주수평(州水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바로 가르쳐 주었을 뿐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들도 다만 살기를 도모해서 순종했을 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묻기를, “너희 네 사람이 어찌 홀로 바다에 왕래하면서 사정(事情)의 세밀한 근거까지 타진(打診)하여 능히 사정을 정탐하지 아니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대답하기를 “급히 도적들은 우두머리를 만들고, 조무라기들 4명으로 하여금 물의 성질에 대해서 환하게 잘 알도록 했습니다. 등주(登州)의 노경(路境 : 길)을 잘 아는 까닭으로 우리들에게 와서 타진하고 탐색하고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중요롭게도 우리들을 봉하여 천총(千總)<sup>105</sup>으로 삼았으나, 뜻하지 않게 관병(官兵)에게 잡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도적의 우두머리인 황천보(黃天保)는 어느 곳 사람이며, 도적의 무리가 지금 어느 곳에 굴혈을 짓고 웅성거리고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이에 도적의 우두머리가 된 황천보(黃天保)는 청주부(靑州府) 일조현(日照縣)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몽음현(蒙陰縣) 사람이라고 하고, 조무라기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바로 진상신(陳常信)은 진상의(陳常義)의 형제이고, 양파파(楊巴巴)는 복건(福建) 복청현(福淸縣) 사람인데, 매일 각각 대좌선(大座船)<sup>106</sup> 한 척에 앉아서 조강(鳥缸)<sup>107</sup> 100여척을 거느리고 대양(大洋) 가운데 있으면서 여객선이나 장사하는 배를 만나면 즉시 겁탈(劫奪)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전일(前日)에 본래 금주(金州)로 가고자 하였었습니다. 바람과 물결에 따라서 등주(登州)로 갔는데,

至今年三月初三日 禍遭賊首黃天保 綽號黃飛虎 把我們九人 擄去州水平 他說爾答不允 我就教耳 小的們貪生 只得順從 又問爾四人 爲何獨在海洋往來 莫非打探事情麼 據做賊首 見小的們四人 熟諳水性 曉得登州路境 故差我們來打探 是寔回去還 要封我們爲千總 不意官兵拿獲 又問賊首黃天保 是何處人 賊衆現今在那裏 你巢穴呢 又供賊首黃天保 是靑州府 日照縣人 又說 是蒙陰縣人 小的們 不知的 寔陳常信 是陳常義的兄弟 楊巴巴 是福建福淸縣人 每日各坐 大座船一隻 帶鳥缸百餘隻 在大洋中 遇客商 卽行劫奪 前日本欲要往金州去的 因風水順便 所以到登州的

104) 날새기가 호랑이 같음을 비유한 말이다.

105) 청나라 때 무관 관직으로, 천명의 병졸을 거느리는 대장을 일컫는다.

106) 손님도 맞이하고 하는 큰 배를 말한다.

107) 오리 모양을 한 배를 의미한다.

現今衆賊 在五花島安花 待小的們回去 又要攻打 青州府城去了 小的們是貧民 並非洋賊一毫者 謊所供是 寔臣訊問後 將海賊鄧小鬼 發兵謹守 卽飛檄文 登副將黃元鑲 會全 總鎮李麟點 漁採船一百隻 每在登青二府 外洋巡邏 謹守防護 外其海賊 作何勦滅之處 臣愚不敢擅便 謹皇摺奏聞 其一十八村遇難 百姓臣委賢員 招撫外所獲小賊鄧小鬼等四人 或送部候旨 或就地 處決之處 亦請庶得 裁集謹具奏聞 康熙五十八年十二月云云 而元本第一帖 上面書以二十三日 奉旨 近來海賊作亂異常 殊可痛恨 着李樹德 會同江南鎮 將海軍 何天培酌量 進勦務 獲賊首黃天保等 其小賊鄧小鬼等四人 解部審問 餘依議云 傍書摺奏二字上 每朱印而刻 以應允

지금은 도적의 무리가 오화도(五花島)·안화(安花)에서 조무라기들을 기다리고 있다. 돌아갔고 또 청주부(青州府)의 성(城)을 요구하여 공격해 쳐서 돌아갔습니다. 조무라기들은 빈민(貧民)으로 바다의 도적들과는 조금도 나란히 견주어지지 아니하니 잠꼬대같이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이를 만든 것입니다.

이에 신(臣)이 바다의 도적 등소귀(登小鬼)를 거느리고 병사를 내어 근실히 지키며, 곧 격문(檄文)을 띄워서 등주(登州) 부장(副將) 황원양(黃元鑲)과 총진(總鎮)<sup>108</sup> 이인점(李麟點)을 함께 모이게 하고, 고기잡이 배 100척을 늘 등주(登州)와 청주(青州) 2부(府)에 두어 먼 바다를 순시하며 밖에 있는 도적들을 근실히 지켜서 막아 보호할 것이니 그 바다의 도적들이 어디에다가 우리 군대를 쳐서 무찌를 장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신이 어리석게도 감히 제 마음대로 편하게 하여 황제께 성실히 알려 드리오니 그 18마을의 난리를 만난 백성들에 대해 신이 어진 관원에게 밖의 도적들을 불러 위무(慰撫)하기를 위임하여 사로잡은 바 조무라기 도적 등소귀(登小鬼) 등 4사람은, 혹은 뜻을 물어 부처(部處)로 보내고 혹은 처지에 따라 처결(處決)한 곳으로 가게 하니 또한 칭찬대로 거의 얻은 것입니다.

삼가 갖추어 들려 드린 것이 강희(康熙) 58(1719)년 12월 운운(云云)이라고 책에 실려 있고, 원본(元本) 제일첩(第一帖) 상면(上面)에는 23일에 “뜻을 받들었다[奉旨]”고 했다. “근래 바다 도적이 작란(作亂)하여 평시와 다르니 특히 가히 통한(痛恨)하나 이수덕(李樹德)이 도착하여 강남진장(江南鎮將)에 해군 하천배(何天培)와 회동하여 진격함에 수고로이 힘써서 도적의 우두머리 황천보(黃天保) 등과 작은 도적들 등소귀(登小鬼) 등 4명을 사로잡아 각 부처(部處)별로 풀어 자세히 살피어 물어서 나머지도 의논에 의거하였다”고 써 있었다. 책 옆에 “접주(摺奏)” 두 글자 위에는 매양 붉은 인주가 찍혀 있었고, 운허라고 새겨져 있었다.

108) 총병(總兵)을 말한다. 청나라 때는 명나라의 제도를 따라서 각 성(省)의 제독 아래 부장(副將)과 총병(總兵)을 두었다. 총병(總兵)은 진(鎭)을 관할하였고, 부장(副將)은 그를 도왔다.

그 하나는 무원대장군왕(撫遠大將軍王)<sup>109</sup> 신하 윤정(胤禎)이 삼가 아뢰는 것인데, 병사와 군량이 다 떨어져 속히 나누어 주도록 해서 위급한 변란을 구한 것이다.

이에 이르기를 해당(該當)하는 신하들이 소추(小醜)·석왕(浙王)·객랍(喀拉)·보탄(普灘)을 만나 보아, 지난해 얼 굴빛이 놀램으로부터 병사(兵士)가 꽤한 이래로, 마음은 교만하고 뜻은 넘쳐 노상 우리들 병정을 죽이고 자주 우리 영(營)의 말을 도둑질하여 좋지 않은 일이 심히 건잡을 수 없이 특별히 일어나매, 만약에 병사를 주둔하여 세력을 빼앗지 아니한다면 후환이 날로 치열(熾熱)할 것입니다.

신(臣) 등이 조사해 보니 현재 본영(本營)의 병정들은 2만여명에 그치니 어찌 건디어 일을 성공하겠습니까. 신이 송반(松潘)과 타전로(打剪爐) 2곳에 편지를 보내어 각각 병정 1만명을 징발하라고 하여 10월 5일 양응조(涼應調)에 이르고 또 호광도(湖廣道)서 보낸 병정 2만명도 도착했습니다.

신(臣)이 천협총독(川陝總督) 악해(鄂海)·감숙순무(甘肅巡撫) 작기(綽奇)와 이달 15일 진무장군(振武將軍) 부이단(富爾丹)·총진(總鎮) 왕란(王蘭)에게 병사 2만 명을 주어 파아(巴兒) 고아(苦兒) 지방에 가서 출전하게 하고, 또 옛날 산동순무(山東巡撫)에 임명되었던 이석(李錫)과 총병(總兵) 강령(康寧)에게 병사 2만 명을 주어 갈사(噶斯)에 가서 출발하여 진격하게 하여, 두 길로 협공하면 비록 요마(妖魔)가 계교를 백가지로 내어 속인다 하더라도 황제께서 토벌하시는 법의 그물에서 도망가기가 어려울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만은 11월 7일에 급히 순무(巡撫) 이석(李錫)과 그 부장(副將) 이지민(李之敏)이 도착하여, 적을 복종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대병(大兵)이 갈사(噶斯)와 감무장(坎母藏)에 이르지 못했는데 장승(藏僧) 소호필이한(小胡畢爾漢)이 가지고 있는 땅이 이미 석왕(浙王)·객랍(喀拉)·보탄(普灘)에게 침략당하여 점령되었습니다.

其一卽撫遠大將軍王 臣胤禎謹奏 爲兵餉兩空 火速撥給 以救危變事 該臣等 看得小醜 浙旺 喀拉 普灘 自去年色楞 兵敗以來 心驕志溢 每戮我們 兵丁屢盜 我營駝馬 猖獗殊甚 若不頓兵 征勦照 後患日熾 臣等查現在本營兵丁 止二萬餘名 何堪濟事 臣飛遞 松潘打剪爐二處 各撥兵一萬名 至十月初五日 到涼應調 又湖廣道到兵丁二萬名 臣會同川陝總督鄂海 甘肅巡撫綽奇 於本月拾五日 遣振武將軍富爾丹 總鎮王蘭 給兵二萬 往巴兒苦兒地方進發 又遣舊任山東巡撫李錫 總兵康寧 給兵二萬名 往噶斯進發兩路夾攻 妖魔雖有計詐百出 難逃 天討法網 詎料 十一月初七日 據巡撫李錫 差副將李之敏報稱 我們大兵 未到噶斯 坎母藏 藏僧小胡畢爾漢藏地 已被浙旺 喀拉 普灘 侵佔去了

109) 무원(撫遠)은 길림성(吉林省) 동강현(同江縣)의 동북쪽으로, 그 땅은 오소리(烏蘇里) 하구(河口)에 해당한다. 노령(露領)과 상대해 있어서 변경의 요지(要地)이다. 무원대장군(撫遠大將軍)이란 이 지역을 맡은 대장군을 의미한다.

又見我們兵勢 微弱截住後尾 進退兩難 而土魯蕃之兵 見賊兵强悍 亦不能救護等語呈服 臣會同將軍富寧 每酌量行文 就近各國 苦苦腦兒王處 借兵二萬名 厄魯特處 借兵二萬名 速往噶斯救援 如浙旺 喀拉 普灘兵馬去虛 見機襲擊 如我們糧草恐有缺處 亦往就近 各國採買等語 行文并至總兵 王相商文燧持檄 飛遞前往 又據副將金大成服稱 振武將軍 富爾丹之兵 往巴兒苦兒地方 遇戰浙旺 喀拉 普灘之兵 誘至泥濘地方 大兵沈陷五千餘名等 語呈服 臣即遣策冷董多布使者 執檄飛 回本國 借兵三萬名 至巴兒苦兒地方 解圍添兵二萬名 給與將軍富寧 每準備三個月糧草 前往策冷董多布之國 酌量進取 如策冷董多布會同 苦苦腦兒王札薩克王 三路之兵 會同襲擊浙旺 喀拉 普灘 首尾不能相顧 自然膽裂

또 우리들 병사의 형세가 미약한 것을 보고 후미(後尾)<sup>110)</sup>를 잘라 점령하니 진퇴양난(進退兩難)이 되었으며, 토노번(土魯番)의 병사가 적병이 강하고 굳센 것을 보고 또한 능히 구호(救護)할 수 없다는 등의 말로 알렸습니다.

신이 장군(將軍) 부령(富寧)과 함께 모여서 매양 적들의 힘을 헤아려 글을 보내어 근처 각국(各國)과 고고뇌아(苦苦腦兒) 왕에게 나아가서 병사 2만명을 빌려 오기로 했고, 액로특처(厄魯特處)에 가서 병사 2만명을 빌려서 속히 갈사(噶斯)에 가서 구호할 것입니다. 만약 석왕(浙旺)·객랍(喀拉)·보탄(普灘)의 병사와 말들이 허(虛)한 데에 가서 기미를 보아 습격하고, 만약에 우리들이 군량과 건초가 모자란 곳이 있다면 또한 근처 각국에서 거두어 들이고 사들인다는 등의 말을 글로 써서 총병(總兵)에게 이르게 하고, 아울러 왕상(王相) 상문수(商文燧)에게 격문(檄文)을 지니고 빨리 앞서 가게 하고, 또 부장(副將) 김대성(金大成)이 아뢰기를, 진무장군(振武將軍) 부이단(富爾丹)의 병사가 파아(巴兒)와 고아(苦兒) 지방에서 석왕(浙旺) 객랍(喀拉) 보탄(普灘)의 병사를 맞아 이령(泥濘) 지방으로 유인해서 대병(大兵)이 5000여명을 무너뜨려 항복하게 할 것입니다.

신이 즉시 책냉동다포(策冷董多布)에 사신을 파견하여 격문(檄文)을 본국에 돌리고 병사 3만명을 빌려서 파아(巴兒)·고아(苦兒) 지방에 이르러 포위를 풀게 하고, 병사 2만을 더하여 장군(將軍) 부령(富寧)에게 주어 매양 3개월치의 군량과 건초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먼저 책냉동다포(策冷董多布)의 나라에 가서 기량을 헤아려 보고 나아가 취하되, 만약 책냉동다포(策冷董多布)가 고고뇌아왕(苦苦腦兒王)과 찰살극왕(札薩克王) 등 세 길의 병사가 함께 모여 석왕(浙旺)·객랍(喀拉)·보탄(普灘)을 습격한다면 능히 서로 머리와 꼬리를 돌아 볼 수가 없어서 자연히 간담이 찢어질 것이니,

110) 군대 주둔한 지역에서 뒷편을 말한다.

우리들은 뒤로 대병(大兵)을 쫓게 하여 한번 공격하면 소호필이한(小胡畢爾漢)이 가지고 있는 땅이 가히 마땅하게 수중에 얻어질 것입니다. 지금 감(甘)·양(涼)·숙(肅) 3주(州)의 병사와 말이 일제히 군량(軍糧)이 바닥이 나고, 말에게 먹일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또 쌀·콩·풀이 값이 올라서 이상하게 귀하게 되니 쌀 한 가마니의 값이 은(銀) 40냥을 하고, 콩 한섬의 값이 은(銀) 20냥을 하고, 풀 10근(觔)을 한 묶음으로 해서 한 묶음의 값이 은(銀) 5전(錢)을 한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병사가 10만이 아니거나 은(銀)이 100만이 아니라면 능히 점점 해결하지 못할 것이니 삼가 피를 흘려 상주(上奏)하나니, 우리 황부(皇父)<sup>111)</sup>께서는 문무(文武)에 성명(聖明)하시어 급히 공략해 보이신다면 소추(小醜)로 하여금 가히 점점 죽음의 자취로 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나라를 침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삼가 갖추어 아뢰어 들려 드립니다.

강희(康熙) 58년(1719, 숙종 45) 11월 어느 날에 이르기를, “본첩(本帖) 머리 첩지(帖紙)에는 18일에 뜻을 받들었다”고 써 있었다.

무원대장군왕(撫遠大將軍王)이 청한 바에는 병사에게 먹일 것이 심히 긴급(緊要)하다 하였으나, 짐(朕)이 며칠 동안 마음이 편안하지 못할 것 같으니 성친왕(誠親王)과 의정대신(議政大臣) 등이 만나서 확실히 의논하겠다고 했다. 속히 이를 공경하여 아뢰고, 또 나아가 방서(傍書)를 얻어 보니 답자(擲子) 2글자 위에 매양 인주(印朱)가 찍혀 있고, 그리고 새기어 있기를 응조(應照)라고 했다<sup>112)</sup>. 대개 우리나라 의정원(議政院)에서 편지를 써서 부친 예와 같다고 했다.

我們隨後大兵一擊 小胡畢爾漢  
之藏地 即可妥手得矣 現今甘  
涼肅三州兵馬 一空糧餉盡絕 又  
米豆草騰貴異常 米每石價 銀四  
十兩料 豆每石價 銀二十兩 草  
十觔一束 每束價銀五錢 臣思  
兵非十萬 銀非百萬 不能稍解  
眉至謹裂血奏聞 我皇父聖明文  
武 火速拔示 使小醜稍可殮跡  
而我國不得侵犯矣 謹具奏聞 康  
熙五十八年 十一月日云云 本帖  
首帖書 以十八日奉旨 撫遠大  
將軍王 所請兵餉甚緊 朕數日  
內 心緒不寧 着交與誠親王議  
政大臣等 確議 速奏欽此 又就  
傍書擲子二字上 每朱印 而刻  
以應照榮 如我國政院 院之書  
米付例也

111) 『시경 詩經』「시월지교 十月之交」(“皇父孔聖 作都于向 擇三有事 亶侯多藏 不愆遺一老 俾守我王 擇有車馬 以居徂向”). 황부(皇父)는 경사(卿士)로서 그의 자(字)이다. 황부는 심히 성명(聖明)하여 향(向)이라는 곳에다 도읍(都邑)을 정하고 삼경(三卿)을 가리되 믿음직하고 오직 가진 것이 많은 이로 하며, 마음에 욕심이 없는 한 노인을 남기어, 그로 하여금 우리 왕을 지키게 하고 부자(富者)를 골라 두어서 도읍한 곳에 가서 살게 했다. 여기서는 황제를 가리킨다.

112) 응조영(應照榮)이란 영화에 응조(照應)함을 말한다.

又得一紙內 稱誠親王 議政大臣等 奉旨 議得撫遠大將軍王所請兵餉甚緊着 將京城八旗 滿洲佐領下 派出護軍五名 被甲二名 又派出漢仗好者 綠旗兵一萬名 發往大將軍王處 其前往之兵 每站每馬 給與空草一束 此所給與口糧 空草令戶部派官 給與其兵馬 起程日期選得 二月初四日卯時起身 着副將韓良輔 領鳥鎗護軍 鳥鎗披甲 作爲一起 十六日巳時 着刑將陳棟 領鳥鎗綠旗 各作爲一起 每起派出弓馬 閑熟才技 優長者 遊擊二員 守備四員 千總八員 領兵同去伊等 至西寧 路途遙遠 各員添給馬二匹 行糧二個月 置備帳房鍋蓋等物 今總督趙弘燮 辦給再行文至 湖廣提督撥兵二萬五千名 河奉提督撥兵二萬五千名 遣官 送往大將軍處 其餉銀戶部內幣 不便給發

또 종이 한장 안에 성친왕(誠親王)이 의정대신(議政大臣) 등과 뜻을 만들었다는 말과 무원대장군왕(撫遠大將軍王)과의 의논하여 칭한 바 병사에게 먹일 심히 요긴(要緊)한 것을 얻었다고 했다.

장차 경성(京城) 팔기(八旗)와 만주좌령(滿洲佐領) 호군(護軍) 5명과 갑옷을 입은 병사 2명을 파견하고, 또 한장호자(漢仗好者) 녹기병(綠旗兵)의 병사 1만명을 파견하여 대장군왕(大將軍王)이 있는 곳으로 출발 시켰다. 그전에 간병사들은 병참(兵站)마다 말(馬) 1필에 공초(空草) 한 묶음을 급여(給與) 받았다. 이것이 급여(給與)한 바 식량(食糧)과 공초(空草)이다. 지금 호부(戶部)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그 병사와 말을 급여(給與)하니, 일정(日程)을 잡아서 바로 끌라 가지라고 했다.

2월 4일 묘시(卯時)<sup>113</sup>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니 부장(副將) 한량보(韓良輔)가 조창(鳥鎗) 호군(護軍)을 데리고 도착했는데, 조창(鳥鎗)에 피갑(披甲)이 한 기(起)가 되고 16일 사시(巳時)<sup>114</sup>에 형장(刑將) 진동(陳棟)이 조창(鳥鎗)<sup>115</sup> 녹기(綠旗)를 거느리고 도착하여 각각 1기(起)가 되었다. 매번 기(起)마다 말(馬)을 주어 파견하여 내 보내니, 익숙한 제주와 기술을 가진 자인 유격(遊擊) 2명, 수비(守備) 4명, 천총(千總)<sup>116</sup> 8명이 거느리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었다.

서녕(西寧)은 길이 멀어서 각 인원들에게 말 2필과 여행에 필요한 양식 2개월 분을 더 주고, 휘장을 친 방과 술 등의 물건들을 갖추어 놓았다. 지금 총독(總督) 조홍섭(趙弘燮)은 다시 여러 곳에 알리는 글을 써서 주도록 했다. 호광제독(湖廣提督)이 병사 2만 5천명을 뽑고 하봉제독(河奉提督)이 병사 2만 5천명을 뽑아 관(官)으로 파견하고, 대장군(大將軍)이 있는 곳에 보내어 호부(戶部)의 내폐(內幣)<sup>117</sup>인 은(銀)을 보냈으나, 나누어 주어서 출발하게 하는데는 불편했다.

113) 묘시(卯時)는 오전 6시를 전후 한 시각을 의미한다.

114) 사시(巳時)는 오전 10시를 전후한 시각을 의미한다.

115) 조창(鳥鎗)의 다른 이름이다.

116) 명(明)나라의 관직명인데 청나라 때도 변방 초소(哨所)에 두었던 관직이다. 지금의 소대장 급이다.

117) 상시로 비축하고 있던 호부(戶部)의 재물을 말한다.

산서순무(山西巡撫) 소극탕(蘇克湯)이 납부할 은(銀) 50만냥(兩)과 서번(西藩)의 창고에서 은 50만냥을 거둬서 현능(賢能)한 사람을 부도(府道)에 보내어 대장군이 있는 곳 등으로 보냈더니, 인하여 뜻을 받들었음을 아뢰고 이 녹기(綠旗)의 병사가 만주(滿洲) 병사와 함께 도착했다. 일동이 몸을 일으키어, 그 식량을 줌에 대하여 소극제(蘇克濟)에게 글을 써 보내고 가니, 도착이 빠른 곳으로는 보내고, 나머지는 의논대로 했다고 했다.

또 그해 초에 석현친왕(碩顯親王)의 신하 황연(璜衍) 등이 황력(皇曆)을 만들어서 위로 중천(中天)<sup>118)</sup>에 가서 솔토(率土)<sup>119)</sup>에서 빛나는 운수(運數)를 혼연히 만나는 것을 화답하여, 특히 나라의 경사스러운 전례(典禮)를 널리 펴시도록 공손히 청하여 지치(至治)<sup>120)</sup>의 일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신(臣) 등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예로부터 제왕(帝王)이 계시어서 나라를 누리기가 길고도 오래 되었습니다. 오제(五帝)<sup>121)</sup>의 앞에는 시서(詩書)<sup>122)</sup>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황헌(黃軒)<sup>123)</sup> 이후로 가히 그에 대해 실려 있는 책들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임금께서 임하신 것이 가장 오래 된 것은, 황제(黃帝) 재위(在位)가 101년이고, 요(堯) 임금 재위(在位)가 102년이고, 소호(少昊)·전옥(顓頊)·제곡(帝嚳)도 이처럼 많아서 또한 8~90년에 이르렀으니, 모두 다 성인(聖人)은 오래 사시어, 영원한 세월의 밝은 운세(運勢)에 대답한 것이며, 공덕이 높고 높은 것은 요순(堯舜)이 더욱 추앙을 받습니다.

着山西巡撫蘇克濟 發捐納銀五十萬 西藩庫 銀五十萬兩 遣賢能府道 送往大將軍王處等 因奏聞奉旨 此綠旗兵着 與滿洲兵 一同起身 去其餉糧行文蘇克濟 着速送往 餘依議云云 又於歲首和碩顯親王 臣璜衍等 爲皇曆 上邁中天 率土欣逢景運 恭請特頒慶典 以光至治事 臣等竊惟 自古帝王 享國長久 五帝之前 不著于詩書 黃軒以後 可稽于載籍 其間臨御 最久者 黃帝在位一百有一年 帝堯在位一百有二年 少昊顓頊帝嚳多者 亦至八九十年 皆以上壽之聖人 膺永年之明運 而功德巍巍 尤推堯舜

118) 하늘 한 가운데를 말한다.

119) 솔토지빈(率土之濱)의 준말로, 넓은 세상 즉 천자(天子)가 다스리는 땅을 의미한다.

120) 이상적으로 잘 다스려짐을 뜻한다.

121) 옛날 중국에 있던 전설상의 다섯 임금으로 황제(黃帝)·전옥(顓頊)·제곡(帝嚳)·요(堯)·순(舜)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태호(太皞)·염제(炎帝)·황제(黃帝)·소호(少昊)·전옥(顓頊)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밖에도 여러 설이 있다.

122) 『시경 詩經』과 『서경 書經』을 말한다.

123) 황제(黃帝)가 현원(軒轅)에 살았다고 해서 현원씨(軒轅氏)라고도 한다.

厥后惟殷之中宗 嗣位最長 其餘經史所載 聖王哲后 握符闡珍 卜曆綿衍 坐隆大業 能軼虞舜 而紹唐堯者 上下四千餘載 亦未嘗有也 欽惟我皇上 作萬邦之父母君師 萃萬古之祿位名壽 安而保定者 天神地祉 環而歌祝者 群黎百姓 自辛丑御極 至今年庚子 恭值皇上 登大寶之六十年 遡自膺圖出震 恰 干支之旋 轉初周于今 體健行乾 正日月之升 恒方始是 皇上在躬之曆數 已駕重華 而上之皇上 廣建之精神 亦視伊祈而遠過 梯航殘貢 大一統而無垠 寒燠雨暘 咸時順而不忒 榮光協氣 布護于寰區 鍾鼓管絃 謳思于荒服

그 후에도 오직 은(殷)의 중종(中宗)은 임금의 자리를 이은 것이 제일 오래되어 그 나머지가 역사에 기록된 바 성왕(聖王) 철후(哲后)<sup>124</sup>인 천자(天子)께서 주신 부절(符節)을 잡고, 보배로움을 드러내어 점친 듯이 좋은 세월이 이어져서 대업(大業)을 융성하게 하였으니, 능히 우순(虞舜)<sup>125</sup>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요(唐堯)<sup>126</sup>를 이은 것이 그 위 아래로 4000여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찍이 있지 않았습디다. 공경하옵는 우리 황상(皇上)께옵서는 반드시 세상 모든 나라의 부모이시고 임금과 스승이시며, 모인 수많은 것의 녹봉과 지위와 이름과 수(壽)가 편안하고 보전되고 정해진 것은 천신(天神)과 지지(地祉)<sup>127</sup>이시며, 빙 둘러 에워싸고서 노래하고 축복하는 것은 무리진 백성입니다.

신축년(辛丑年) 어극(御極)<sup>128</sup>으로부터 금년 경자년(庚子年)에 이르러 황상(皇上)께서 대보(大寶)<sup>129</sup>에 오르시기가 지 60년을 삼가 만나서 소급하여 임금이 될 운명을 만남으로부터 간지(干支)의 돌고 도는 것을 흠족(洽足)하게 하고, 이제 초주(初周)에 이르렀습니다. 몸은 건실하고 행실은 굳세어 바로 해와 달이 떠올라 항상 바야흐로 이를 시작하였으며, 황상께서 자신의 역수(曆數)에 있어서 이미 화갑을 만났으니 곧 위의 황상(皇上)입니다. 흥성(興盛)한 운세의 정신이 또한 이 기도함을 봄이며, 멀리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서 나머지 조공을 바치는 자들도 크게 하나로 통일하고,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따뜻하거나 가림이 없이 모든 때에 따라서 영광을 변하게 하지 않게 하고, 기운을 모아 환구(寰區)<sup>130</sup>를 펴 보호하여, 종과 북과 관현악으로 황복(荒服)<sup>131</sup>을 구가하도록 생각하게 하시니,

124) 성스러운 임금님과 현명하신 왕후(王后)라는 뜻이다.

125) 순(舜)임금을 이르는 말로, 우(虞)는 달리 유우씨(有虞氏)라고도 부른다.

126) 요(堯)임금을 이르는 말로, 요는 달리 도당씨(陶唐氏)라고도 부른다.

127) 땅 귀신, 즉 국토를 수호하는 신(神)을 의미한다.

128) 황제의 자리에 있음을 뜻한다.

129) 황제의 자리를 뜻한다.

130) 봉건시대 천자(天子)의 직할 구역을 뜻한다.

131) 왕기(王畿)의 2500리 지역을 가리키는 말(“指以王畿二千五百里之地區”)로, 오복(五服) 가운데 가장 먼 거리의 땅이라는 뜻이다.

이는 다 우리 황상(皇上)의 총명하심과 예지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생활이 편안함과 부귀와 장수와 강령(康寧)이 더욱 바르고 굳으니 이에 능히 써 먼저 근심하고 뒤에 즐기어 한 몸을 이룩할 수 있고, 오래도록 운수와 조화가 이룬 천하가 세워진 것이니, 지극한 것은 요순(堯舜)이 중정(中正)을 잡으신 것이요<sup>132)</sup>, 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요순(堯舜)이 그 기미를 잘 살핀 것입니다.<sup>133)</sup> 기쁜 마음을 합하여 돈독하고 석류(錫類)의 효도를<sup>134)</sup> 기르는 것은 요순의 돈독히 화목하고 작은 일에도 신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 지낼 때에는 친히 옥패를 잡으시고<sup>135)</sup>, 정결하게 교제사(郊祭祀)<sup>136)</sup>의 인(仁)을 엄숙하고 밝게 했으니, 어진 요순의 흠총(欽寵)<sup>137)</sup>이 베풀어진 유(類)입니다. 무디고 거친 것을 깎아서 무공(武功)을 밝히니 요순이 환두(驩兜)<sup>138)</sup>를 놓아 주시고, 유묘(有苗)<sup>139)</sup>를 내치셨습니다. 조세를 면제하고 자기를 책망하시며 창고의 재물을 퍼서 배로 실어 나르는 것을 멈추게 하시니, 요순이 이렇게 함으로써 농사짓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시었으니, 지극히 자신을 수양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백성을 가엽게 여기시어<sup>140)</sup> 옥사(獄事)를 신중하게 하시며,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형벌을 다스리니, 요순께서는 여러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의 조화를 모으시고<sup>141)</sup>,

此皆由我皇上 聰明叡智 得生安富壽康寧 尤貞固 乃能以先憂後樂之一身 成久運化 成之天下 建有極者 堯舜之允執也 所言逸者 堯舜之惟幾也 合歡心而展篤 養錫類之孝 堯舜之敦睦慎微也 親圭幣而肅 明禋郊饗之仁 堯舜之欽寵肆類也 削平頑梗 以彰武功 堯舜之放驩兜而迂有苗也 鑄租責己 發幣留漕 堯舜之所以安畊鑿之氓 極修和之事也 矜輅慎獄 過宥愛刑 堯舜所協平章之化

132) 윤집(允執)은 『서경 書經』 「우서 虞書」에 “人心惟危道心惟微 惟精惟一允執厥中”이라는 구절에서 나왔다.

133) 유기(惟幾)는 『서경 書經』 「우서 虞書」에 “安汝之惟幾惟康”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유기(惟幾)는 그 기미(機微)를 잘 살핀다는 뜻이다.

134) 독수석류지효(篤壽錫類之孝)란 『시경 詩經』 「대아 大雅」 황의장(皇矣章)과 기취장(既醉章)의 “威儀孔時 君子有孝子 孝子不匱 永錫爾類”을 참조.

135) 규폐(圭幣)는 제사지낼 때에 옥패를 잡는 예절을 말한다.

136) 천자(天子) 만이 하늘과 땅에 지낼 수 있는 제사를 뜻한다.

137) 황제의 훌륭하신 은총이라는 뜻이다.

138) 요(堯)임금 때의 악인(惡人)으로, 순(舜)임금 때 송산(崇山)으로 추방한 4흉(四凶) 중의 하나이다.

139) 옛날 중국 남방의 야만인 환두(驩兜)와 함께 4흉(四凶)의 하나이다.

140) 궁로(矜輅)는 『시경 詩經』 「소아 小雅」 홍안장(鴻雁章)의 “鴻雁于飛 肅肅其羽 之子于征 劬勞于野 爰及矜人 哀此鰥寡”의 주(註)에서 궁(矜)은 홀아비, 과부와 같은 불쌍한 사람을 가엾게 여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殫欽恤之心也 金匱玉版 網羅述作 堯舜之文思聰明也 茅茨土階 崇位敦朴 堯舜之克讓溫恭也 河嶽百神之望 屢幸省方而褒封 堯舜之歲巡柴望也 中外百僚之位 殘咸入見 而數奏 堯舜之咨岳命官也 曆正人事 爰考鍾律 則依永和聲之美善也 篤念老臣 則元首股肱 一心一體也 優崇耆耆 則上庠下庠 引善引恬也 皇上脩堯舜之合體 海內樂堯舜之昌平 皇上以格天之心 運如天之德而受 維祺之景福

죄수(罪囚)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심의하는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옥판(玉版)을 넣어 둔 금궤(金匱)에는<sup>142)</sup> 저술하신 것을 망라했으니 요순의 문사(文思)<sup>143)</sup>가 총명하신 것입니다. 검소한 머집과 흙으로 쌓은 계단이나<sup>144)</sup> 황제의 자리를 높이면서도 돈독하고 소박하신 것은 요순께서 능히 사양하시고 온공(溫恭)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악(河嶽)의 백신(百神)이 바라는 대로 여러번 지방을 순행(巡幸)하면서 상을 주어 봉하니 요순이 해마다 순시하시는 것을 바랐고, 중외(中外)의 백료(百僚) 자리에 있는 이들이 다 들어와 뵈고서 의견을 진술하여 올리니, 요순이 경사(卿士)와 관료들에게 자문을 명(命)하신 것입니다<sup>145)</sup>.

역(曆)은 인사(人事)를 바르게 하여 이에 종율(鍾律)을 상고한 즉, 길이 화성(和聲)이 아름답고 선하게 되었습니다. 돈독히 생각하건대, 늙은 신하라면 원수(元首)나 고굉(股肱)<sup>146)</sup>의 신하들이 다 한 마음 한 몸이 되었고, 기구(耆耆)<sup>147)</sup>를 우대하고 숭상한 즉 상상(上庠)과 하상(下庠)<sup>148)</sup>이 선(善)을 이끌어다 행하며 편안했습니다.

황상(皇上)께서 요순(堯舜)의 전체와 합하여 수양(修養)하시면 온 세상이 요순의 창평(昌平)<sup>149)</sup>을 즐길 것입니다. 황상(皇上)께서 하늘의 마음이 이르심으로써 하늘의 덕과 같이 움직이시어 받으시니 오직 즐거운 경복(景福)이 될 것입니다.

141) 요순소협호장(堯舜所協乎章)이란 천장지재(千章之才)를 의미한다.

142) 금궤옥판(金匱玉版), 즉 “刻於玉版藏於金匱”라는 말이 『한서 漢書』에 보인다. 금궤(金匱)는 예로부터 중요한 문서나 비밀 문서를 넣어두는 궤(匱)이다.

143) 여러가지 제도과 생각한다는 뜻이다.

144) 모자토계(茅茨土階), 즉 모자(茅茨)는 요순(堯舜)이 살던 집이고 토계(土階)는 요순이 정사(政事)를 보던 곳에 오르는 계단으로, 백성을 위하는 위정자(爲政者)의 검소한 삶을 의미한다.

145) 요순지자악(堯舜之咨岳), 즉 『시경 詩經』 「대아 大雅」 승고(崧高)에 “승고유악 (崧高維嶽)”이라고 했는데 그 전(箋)에 “四嶽 卿士之官 掌四時者也 因主方嶽巡守之事 在堯時姜姓爲之”라고 했다.

146) 원수(元首)에 대해서 그 아래서 심부름을 하는 수족과 같은 신하를 말한다.

147) 늙은이를 말한다.

148) 상상(上庠)이나 하상(下庠)은 모두 학교를 지칭한다.

149) 아름다운 평화라는 뜻이다.

조상을 높이는 마음으로써 조상을 범 받아 정사를 펴시어 길이 피어나는 상서로움을 맞이하소서. 이 운명을 어루만 짐은 홀로 4천여 년을 넘기셨으니, 역법(曆法)을 이어 억만 년을 여신 이 해입니다. 무릇 세상 안에 살면서<sup>150</sup> 용서해주는 인(仁)을 갖추어 끼쳐 주셔서,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이 거리에서 환호하며, 백료(百僚)들과 서윤(庶尹)들이 폐하의 뜰에서 기쁘게 춤을 추며, 모두 머리를 조아려 우리르기를 원하나니, 세상에 의식이 융성해져서 비상한 성전(盛典)<sup>151</sup>이 정해진 것입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황상께서는 무리들의 사정을 가리어 들이시어 매양 무리들의 바람을 위안해 주시고, 명(命)을 내리신 부처와 자세히 의논하십시오. 만수절(萬壽節)을 거행하는 전례(典禮)를 경하(慶賀)하니, 이로부터 60년이 만만 년에 이를 것입니다.

매 10년마다 한번씩 거행하여<sup>152</sup> 회전(會典)<sup>153</sup>에 써넣으면 오래도록 능히 정례(定例)가 될 것입니다. 서류(庶類)들로 하여금 창령(蒼靈)<sup>154</sup>이 골고루 인덕(仁德)이 있고 수명이 긴 세상에 물젖어 노닐게 하였습니다. 구주(九州)가 신의 은택에 길이 물젖으며, 대저 복록이 함께 생기니 단지 한당송명(漢唐宋明)만 이런 성세(盛世)가 없겠습니까. 아마도 우탕문무(禹湯文武)도 성조(聖朝)께 아름다움을 사양할 것입니다.

황상(皇上)께서 친히 신하의 상소를 평하시어 뜻을 깨우쳐 주시기를 “짐(朕)이 녹록(碌碌)<sup>155</sup>하여 재위 59년에 짐 또한 이를 알지 못했다. 모두 위로는 하늘이 돌보아 도와 주시고 선대의 임금께서 복을 주시어 짐과 함께 하시니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는가. 또 서쪽 변방에서 현재 용병(用兵)을 하니 군민(軍民)이 자못 노고가 많았다.

以尊祖之心 行法祖之政 而迓長發之祥 此撫運獨越四千餘載承曆肇開 億萬斯年也 凡在普天之內 俱蒙在宥之仁 白叟黃童 歡呼衢路 官僚庶尹 忭舞陞庭 咸願稽瞻世之隆儀 定非常之盛典 伏乞皇上採納群情 慰安衆望 勅部詳議 慶賀典禮于萬壽節 舉行 從此六十年 以至萬萬年 每十年一舉 載入會典 永爲定例 俾庶類蒼靈均泳 游于仁壽之世 九州神澤長沾 夫福祿之同 豈但漢唐宋明 無此盛世 抑亦禹湯文武 讓美聖朝 矣云云 硃批諭旨 朕之碌碌 在位五十九年 朕亦不知此 皆上天眷佑 先聖造福 與朕何涉

150) 범재보천(凡在普天),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을 뜻한다.

151) 홍성한 법전(法典)이라는 뜻이다.

152) 재입회전(載入會典), 즉 일대(一代)의 전제(典制)를 기록한 책으로 주(周) 시대가 바탕을 이루고 명(明)·청(淸)에 이르기까지 계속 기록되어 온 책이다.

153) 법규(法規)·판례(判例) 등의 규범(規範)을 모아 놓는 책을 말한다.

154) 복을 맞이하는 신(神), 즉 청제(靑帝)를 말한다.

且西陲 現在用兵 軍民殊屬勞苦 去年正月朔日食 方今七月朔日 又值日食 海洋颶風 飄沒官兵舡隻 山右東三府 黎民飢饉流離 屢次起蛟仄 民間廳舍戶口被淹淮黃水 大僅能掄護人之風俗 未修官之政事 未正此正君臣殷殷求治之時 至于屑屑慶賀行禮 亦不在朕之目中 朕御極雖在順治十八年間 現今時曆 係五十九年 此亦不可不審欽此

지난해 1월 1일이 일식(日蝕)이었는데 바야흐로 지금 7월 그 날이 되어 또 일식이 있었고, 바다에는 태풍이 관병(官兵)의 배들을 불어 없애며 산우동(山右東) 3부(三府)의 백성들이 굶주려서 가족이 헤어져 흩어졌다. 여러 번 이무기가 일어나서 민간의 청사(廳舍)와 호구(戶口)가 회수(淮水)와 황하(黃河)에 잠기니, 큰 기근이 능히 사람을 보호하는 풍속도 골라서만 할 수 있게 했다. 아직 관(官)의 정치하는 일도 수양(修養)하지 못하고, 아직 이 임금과 신하의 근심 걱정이 많은 상태를 바로 하지 못하여, 다스림을 요구하는 때가 위급함에 이르렀다. 경하하고 예를 갖추어<sup>156)</sup> 또한 짐의 안목 중에 있지 아니 하고, 짐이 임금의 일을 지극하게 함이 비록 순치(順治)<sup>157)</sup> 18년(1661년)간에 있으나 지금의 책력(冊曆)으로는 59년에 해당한다. 이 또한 가히 이를 공경하여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十一日

晴風 領賞 初許今日 爲之稱以渠之國忌 以明日改定

### 11일

맑고 바람이 불었다. 오늘 상(賞)을 받기로 했는데, 저들의 국기일(國忌日)이라 해서 다음 날로 개정(改定)했다.

### 十二日

晴 巳時從東華門 入到午門前 三使行三拜九扣頭 小退立 正使入受御前 所去馬匹銀段 後三使 以次受賞 賜馬銀段匹 仍退立 則次次呼入員 課分給賞段

### 12일

날씨는 맑았다. 사시(巳時)<sup>158)</sup>에 동화문(東華門)으로부터 오문(午門) 앞에 이르러 들어갔다. 삼사(三使)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고 조금 물러 나와 섰다가 정사(正使)가 다시 어전(御前)에 들어가서 가지고 온 말과 옷감, 은(銀) 등 예물을 바쳤다. 그 후에 삼사(三使)가 차례대로 하사하는 상급(賞給)으로 말과 은, 옷감 등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물러 나와서 서 있으니 나머지 인원들을 차례대로 불러 상으로 비단 등을 나누어 주었다.

155) 평범하여 쓸모가 없음을 말한다.

156) 주비(硃批)는 임금께서 친히 신하의 상소문(上疏文)을 평하는 일을 말한다.

157) 중국 청나라 제 3대 황제인 순치제(順治帝)의 연호(1643~1661)이다.

158) 사시(巳時)는 오전 9시에서 11시경을 말한다.

그런데 들어보니 그 전에는 비단 옷감을 나누어 짜서 차례로 주었다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통관배(通官輩)들이 말을 잘 하여 친분이 두터운 사람에게만 옷감을 골라서 주었다. 그러했기 때문에 수(數)에 있는 것 이외에 더 나누어 줄 수 있었다. 환수(還收)하는데 이르러서는 군관(軍官)과 역관(譯官)이 몸소 온 자나 세도가 없는 자는 질이 떨어지는 옷감을 얻었다. 기강과 인심이 진실로 가히 한심하다고 할 수 있다.

마침내 다시 뒤에 예부(禮部)에 도착한 즉, 우시랑(右侍郎) 경일진(景日珍)이 가마를 타고 와서 관청 앞에서 있었다. 계단에 올라 삼사(三使)와 더불어 북향(北向)하여 절을 3번하고 9번 고두(扣頭)<sup>159</sup>의 예를 했다. 다시 정청(正廳)으로 돌아와 하마(下馬)<sup>160</sup>의 잔치를 베풀었다. 시랑(侍郎)은 가운데에 자리하고, 삼사(三使)는 남향(南向)하여 앉고, 역관(譯官)의 무리들도 그 뒤에 있게 했는데, 잔치상을 높직하게 이미 자리 앞에 설치해 놓았다.

먼저 붉은 옷칠을 한 그릇에 낙장(駱漿)<sup>161</sup>을 담고 다음에는 금(金) 그릇에 담아서 술잔 돌리기를 3순배(巡杯) 하니 시랑(侍郎)이 대(臺)가 있는 소배(小盃)를, 삼사(三使)는 곧 대(臺)가 없는 대기(大器)를 주었다. 예절(禮節)이 이같이 진실로 가히 통한스러웠다.

이른바 경일진(景日珍)이라는 자는 거동이 거드름을 부리는 것으로 보이나 넉넉하고 깊고 무게가 있어서 늘 엄숙하게 행주(行酒)<sup>162</sup>하였는데, 처음에는 은근(慇懃)한 뜻을 보이더니 술자리를 파하고 상을 물리고 또 계단을 걸어 나올 때에는 1번 절하고 3번 고두(扣頭)를 하니 나머지 예(禮)는 하지 말도록 정지시켰다<sup>163</sup>. 평복(平服)으로 갈아입었다.

而聞在前分褰段匹 以次俵給云矣 今番不然通官輩 各以譯舌親厚 逐疋擇給之 故有數外加俵之惠 至於還收 軍官及譯官之初來者 勢者 得受劣段 紀綱人心 良可寒心也 畢更後 還到禮部 則右侍郎景日珍 乘轎來到 立廳前階上 與三使 北向行三拜九扣之禮 還入正廳 行下馬 宴而侍郎主壁 三使南向坐 譯輩在其後 宴卓已先設於座前矣 先以朱漆木器 盛駱漿 以次以金器 行酒三巡 而侍郎即有臺小盃 三使則無臺大器 禮節如此 良可痛也 所謂景日珍者 儀表崑偉沈重 每當行酒 以示殷勤之意 酒畢撤床 又出階 行一拜三扣餘禮 使之停免矣 改着平服

159) 이마로 땅을 치는 인사법을 말한다.

160) 말에서 내리는 예절을 말한다.

161) 낙(駱)은 낙타를 말하고 장(漿)은 술을 말한다. 즉 말젖으로 만든 음료수로 지금의 요구르트와 같은 것으로 짐작된다.

162) 예법(禮法)에 맞게 술을 마시는 일을 말한다.

163) 사지정면(使之停免)은 중지시키고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由太清門前路逶迤西行數里餘到天主殿 卽皇帝邀置西洋國人崇奉道教處也 所謂殿宇以甃甃築數仞使椽椳不露 門內棟壁欄楹皆以雜輩塗作文 石狀平摩而猶不卞眞贗 以扇擊之聞聲始知其木也 四壁皆畫人而或有翼者或有披髮者以紗帳垂蔽所列床卓什物皆窮極侈巧 眩人眼目難以形言 從西廊內上五六層胡梯則回互轉出殿閣上而曲曲出門上安渾天儀開戶瞰城內甲第層樓狀若魚鱗北望宮闕黃屋處處耀日下來到西洋人所位室則設榻對坐獻茶致敬仍贈吸毒石各一介而其人狀貌皆長髯準鼻雖着胡服與他有別

태청문(太淸門) 앞으로부터 길이 꾸불꾸불한데 서쪽으로 몇 리(里)를 가고 나서야 천주전(天主殿)에 이르니 곧 황제께서 서양 사람을 맞이하여 두었는데 도교(道敎)를 숭상하고 받드는 곳이다. 이른바 전우(殿宇)는 주벽(甃甃)<sup>164)</sup>으로 써 쌓았는데, 여러 길[丈]이 되었다. 서까래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문 안에 기둥벽을 쌓았고, 난간과 기둥에는 모두 잡울(雜粟)로 도배를 했다. 돌의 모양은 손으로 만져서 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었는데, 부채로 쳐서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나무인 것을 알았다.

4벽에 모두 사람을 그렸는데, 혹은 날개가 긴 사람도 있고(天使를 말하는 것인 듯 하다), 혹은 머리를 길게 풀어 헤뜨린 사람(예수의 제자를 가리키는 듯 하다)도 있는데 엷은 휘장을 드리워 가렸으며, 늘어놓은 바 탁상(卓床)과 집기 등 물건이 모두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사치스럽고 정교하여 사람의 눈을 현란하게 하니 말로써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서랑(西廊) 안에 5~6 계단을 걸쳐 올려 놓았는데<sup>165)</sup> 또한 우뚝하기가 높은 다락에 오르는 계단 같았다. 곧 서로 한 바퀴 돌아보고서 전각(殿閣) 위로 나왔는데, 굽이굽이 돌아서 문으로 나오니, 혼천의(渾天儀)를 안치(安置)해 놓았는데 문을 열고 성 안을 내려다보니 갑제(甲第)<sup>166)</sup> 층루의 모양이 마치 물고기의 비늘 같았다.

북쪽으로는 궁궐이 바라 보였는데 황제께서 타고 다니시는 수레<sup>167)</sup>가 곳곳에서 빛나는 해가 내려 온 것 같았다. 서양 사람이 와서 자리한 바 대(臺)에 나누어 탑(榻)을 설치했는데, 마주 앉아 차를 올리면서 공경하기를 극진하게 했다. 이에 흡독석(吸毒石)<sup>168)</sup> 각각 한 개씩을 주었다. 그 사람의 생김새는 모두 수염이 길고 코가 높고 비록 오랑캐의 복장을 입었으나 다른 것들과는 유별났다.

164) 벽돌의 한 종류이다.

165) 호제(胡梯)는 부제(扶梯)라고도 하는데, 높은 다락에 오르는 계단을 말한다.

166) 기와집을 지칭한다.

167) 황옥(黃屋)은 황제가 타고 다니는 수레를 뜻한다.

168) 독을 제거하는 돌로 서양의 섬에 사는 뱀의 뇌(腦)에서 얻는다고 하는데, 이 돌을 먹으면 몸의 독을 없앨 수 있어서 부스럼이 낫는다고 한다.

말과 행동과 말 속의 기운이 특별히 아름답고 고결함을 깨달았다. 말을 들어보니 그 나라는 서해(西海) 가운데 있는데, 거리가 연경(燕京)<sup>169</sup>에서 9만리나 되고, 그 나라 안에는 7성(省)이 있는데, 속국(屬國)이 30여국이나 된다고 한다.

다시 서북(西北) 쪽으로 가다가 꺾어서 동쪽으로 가니 오른쪽으로 서화문(西華門)을 지나게 되어 북쪽으로 여러 마장(馬場)<sup>170</sup>을 갔다. 서안문(西安門)으로부터 들어가서 또 북쪽으로 가니 태액지(太液池)에 도달했는데, 연못가의 버드나무들은 이미 봄기운이 있었다. 연못의 좌우(左右) 사방(四方)으로는 누각(樓閣)과 정사(亭榭)가 있었는데 거기서 바라보니 아득했다. 이것이 별천지(別天地)이다. 처음에는 오룡정(五龍亭)도 보고자 했더니 통관(通官) 김세륜(金世倫)이란 사람이 안내하는 수고로움을 싫어하여 채찍을 잡고 먼저 달렸다. 길을 안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니, 다리를 건넌 뒤에야 비로소 속임을 당한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또 말을 되돌리려 다시 유람할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끝내 다리[五龍橋]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달리면서 바라보니 초초(草草)하여 지나온 절경(絶景)이 자못 마치 꿈속에서 보는 것 같았다. 만세산(萬歲山) 앞을 지나서, 신무문(神武門) 밖으로부터 동쪽으로 동안문(東安門)으로 나왔다. 꾸불꾸불한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서 관소(館所)<sup>171</sup>로 돌아 왔다.

날씨는 맑았다. 사시(巳時)에 예부시랑(禮部侍郎) 경일진(景日診)이 또 관소(館所)에 왔다. 장차 상마연(上馬宴)을 행하려 했다. 삼사(三使)가 관대(冠帶)를 하고 중문(中門) 밖으로 나아가서 이어 뜰안으로 들어가니 서북쪽을 향하여 모두 함께 3번 절하고 9번 고두(扣頭)를 했다.

169) 중국의 도읍으로 지금의 북경이다.

170) 5리나 10리가 못되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171) 사신(使臣) 등이 묵는 곳을 말한다.

言動辭氣 殊覺雅潔 言其國在  
西海中 距燕京九萬里 其國內  
有七省 屬國三十餘云 復西北  
行 折而東 右過西華門 北行數  
馬場 從西安門入 又北行 到太  
液池 池邊楊柳 已有春意 池上  
下左右 樓閣亭榭 望之縹緲 自  
是別區 初欲觀五龍亭矣 通官  
金世倫爲名者 嫌其引導之勞 着  
鞭先馳 不肯招途 過橋後 始覺  
見欺 而又不許 回馬遊覽 終未  
得臨橋 騁望草草 經過 殆如夢  
中所見矣 過萬歲山前 從神武  
門外 東出東安門 逶迤南行 還  
館所

### 十三日

晴 巳時 禮部侍郎景日診 又來  
館所 將行上馬宴 三使冠帶出  
中門外 延入庭內 西北向 共行  
三拜九扣頭

入正廳 分東西座 而侍郎在東  
三使在西 譯輩列於其後 獻駱  
漿行酒 盃一如昨日 而景日眔  
使通官 勸酒頗懇正使 使譯官  
卞時和傳言曰 昨今屢蒙臨宴 誠  
甚感幸 景答曰皇帝嘉朝鮮事大  
之誠 待使臣甚優厚 而館宇疎  
陋 接遇之節 殊甚歉然 又曰三  
使皆是文學深邃之士 俺竊爲聞  
知云云 宴畢又出庭 行一拜三  
扣 仍罷出 三使欲過午中門外  
則揖手 止之而去矣

#### 十四日

晴 西洋國所來三老人 或垂簾  
或騎馬 爲例昨日送贐物來到 出  
正廳 分東西而坐 與之酬酌 問  
諸老來 燕京有何所幹 答曰皇帝  
崇奉道教 邀俺等爲師 故來此  
已三十餘年 又問曰西洋在西域  
之西 宜同奉佛教 而尊尙三清  
者 抑何故

정청(正廳)에 들었더니 동서로 나뉘어 앉는데 시랑(侍郎)은 동쪽에 있고 삼사(三使)는 서쪽에 있으며 역배(譯輩)들은 그 뒤에 벌려 서 있었다. 낙장(駱漿)을 드리고 행주(行酒)를 하는 것이 어제와 같았다.

그런데 경일진(景日眔)은 통관(通官)을 시켜서 술을 권하기를 정사(正使)에게 자못 간절히 하였다. 역관(譯官) 변시화(卞時和)를 시켜서 청하여 아뢰기를, “지난번부터 여러번 잔치를 베풀어 주심에 진실로 심히 감사합니다” 하니, 경일진(景日眔)이 답하여 가로되 “황제께서 조선(朝鮮)이 사대(事大)하는 정성이 아름답다 하시고 사신을 대접하심이 심히 후하시나 거처하신 집이 소략하고 누추하며 영접하는 절차가 특히 심하게 부족하다” 하시고, 또 말하기를 “삼사(三使)가 모두 문학에는 깊이가 있고 심오한 선비들이라는 것을 저도 그웁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잔치가 끝나고서 또 뜰에 나아가 1번 절하고 3번 고두(扣頭)를 하고서 이에 파하고 나왔다. 삼사(三使)가 오중문(午中門) 밖을 지나고자 하니, 손을 읊(揖)하고 걸음을 멈추었다가 갔다.

날씨는 맑았다. 서양 나라에서 온 노인 셋  
14일 이 혹 가마도 타고, 혹 말도 타고 어제의 답  
례(答禮)로 선물을 보내려고 왔다. 정청(正廳)

에 나와서 동서로 나누어 앉아 더불어 수작(酬酌)을 하면서 물어 보기를 “여러 노인이 연경(燕京)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하니, 대답해 가로되 “황제께서 도교(道教)를 숭상하고 받드시어 저희들을 맞아 드려서 스승으로 삼으신 까닭으로 여기에 온 지가 이미 30여년이나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또 물어 가로되 “서양은 서역(西域)의 서쪽에 있는데 마땅히 불교(佛教)를 받드는 것과 같이 하고, 삼청(三清)<sup>172)</sup>을 높이고 받드는 것이 아마도 무슨 연고입니까”라고 하니,

172) 도가(道家)에서 생각하는 별유천지(別有天地)로 인계(人界)와 천계(天界)를 제외한 다른 나머지의 세계를 말한다.

곧 답하여 가로되 “서양과 서역(西域)은 서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숭상하는 바도 저절로 같지 아니합니다”라고 했다.

또 물어 가로되 “서양 나라의 풍속이 또한 노사(老師)<sup>173</sup>의 복색(服色)과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하기도 합니까”라고 하니 대답해 가로되 “나라가 본래 이와 더불어 같지 아니하여 그렇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가로되 “조선(朝鮮)의 의제(儀制)가 구별이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대인(大人)을 뵈오니 진실로 심히 기쁩니다”고 했다.

간단하게 과일과 고기 안주를 장만하고 술자리를 마련하여 한 순배(巡杯)가 되어 파하고 돌아갔다. 이 때 자못 못 내 잊혀지지 않는 정(情)의 얼굴 표정이 있었다. 밖으로 나간 뒤에 각각 천리경(千里鏡)<sup>174</sup> 1개와 흡독석(吸毒石) 2개, 소령상(小靈象)<sup>175</sup> 2개, 칼 1자루, 화경(火鏡) 2개, 수박(手拍) 2건(件), 도서(道書) 9책을 증정해 보냈다. 또 여러 종류의 종이 부채로 답례(答禮)하였다.

예부(禮部)에서 물은 것에 3번 답한 것을 수정하여 보냈다.

날씨는 맑았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출발하

**15일** 고자 하니 통관(通官)과 갑군(甲軍)들이 제독(提督)이 오지 않아 문을 닫아 가마나 말을 타고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 시간을 고생스럽게 기다리고서야 비로소 관(館)을 나갈 수 있었다.

조양문(朝陽門)을 쫓아서 지나가 동악묘(東岳廟)에 들어가서는 전각(殿閣)에서 천천히 출발했다. 뜰에는 가득히 커다란 비석<sup>176</sup>을 세워 놓았는데 자못 볼 만한 곳이었다.

即答曰西洋與西域 相去絕遠 所尊自不同矣 又問曰西洋國俗 亦如老師服色否 答曰本國與此不同矣 仍曰曾聞朝鮮儀制之有別矣 今見 諸大人 誠甚忻幸云云 畧設果肴 行酒一巡 而罷去時 頗有繾綣之色 出外後各以千里鏡一介 吸毒石二介 小靈象二介 刀子一柄 火鏡二枚 手拍二件 道書九冊送贈 又以紙扇諸種 答謝之 禮部修送咨咨三度

十五日

晴 早飯後 欲發行 則通官 甲軍輩 稱以提督 未及來 閉門不許 出轎與馬 苦俟數時 始得出館 從朝陽門 出歷入東岳廟 則殿閣 深巖滿庭 列立豐碑 頗有可賞處

173) 중국 백화(白話)에서는 스승을 노사(老師)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도교(道敎)의 창시자인 노자(老子)를 이르는 것이다.

174) 지금의 망원경(望遠鏡) 같은 것을 의미한다.

175) 천주교(天主教)에서 사용하는 성물(聖物)의 일종으로 예수의 상(像)이나, 성모상(聖母像), 또는 천사(天使)들의 상(像)일 수 있다.

176) 풍비(豐碑)는 고대에는 황제의 하관시에 사용하던 도구였는데, 한나라 이후에는 묘 앞에 세우는 큰 비석을 일컬었다.

而適值開市 珠璣雜貨 羅列左右 人肩相磨 難於步行周覽 不得已還出 到市盡頭乘輜行 晡時到通州宿察院 是日 行五十里

### 十六日

晴 日出後 發行 穿過鍾閣下 折以北行 出北門 到白河 列舟河面上 鋪板土作浮橋 渡橋回望 前過時塞河舟船 盡不見焉 沿河一帶樓閣 層疊垂柳 裊娜依微於烟靄之間 如畫中所見 繞出胡家庄後 早飯於烟郊舖 晡時到三河縣 灣上軍官言 下處於學舍 以輜入明倫堂庭然後 始知之 拿入軍官 責問 槩學舍守直人 利其房錢許入故也 三使遂入大成殿庭 行四拜 入殿內 瞻審 則夫子位版 書以先師至聖文宣王 四聖十哲分配於東西

그리고 돌아와서 시장이 열린 것을 구경을 하였는데 구슬과 잡화(雜貨)들이 좌우에 벌여져 있고, 사람의 어깨가 서로 닿아서 걸음을 걸으면서 구경을 하기가 어려웠다. 부득이 돌아왔다가 시장이 다 파하고 나자마자 첫머리에 가마를 타고 갔다.

포시(晡時)가 되어 통주(通州)에 도착하여 찰원(察院)에서 잤다. 이 날 50 리를 갔다.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뜬 뒤에 출발하였다.

16일 종각(鐘閣) 아래를 거쳐서 지나갔다. 꺾어서

북쪽으로 북문(北門)을 나서서 갔다. 백하(白河)에 도착하니 배가 줄을 이었고 백하(白河) 물에 띄운 배 위에는 널빤지를 엮어서 흙으로 부교(浮橋)를 만들었다. 그 다리를 건너서 뒤를 돌아보니 전에 지나갈 때에는 변방의 백하(白河)에 배들에게 가로 막혔으나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백하(白河) 연안에 제일 가는 누각이 우뚝한 곳에 있는데 그 아래로 수양버들이 늘어져 있고 하늘하늘 흔들리는 모양이 자욱한 안개 사이에 희미하게 보여서 마치 그림 가운데에서 보는 것 같았다. 호가장(胡家庄)을 빙 둘러서 나온 뒤에 아침을 먹었다.

안개가 교외에도 끼어 포시(晡時) 경에 삼하현(三河縣)에 이르렀는데 만(灣)에 있는 군관(軍官)이 말하기를 “학사(學舍)의 아래에다 자리를 잡으라”고 했다. 가마를 타고 명륜당(明倫堂) 뜰에 들어 간 연후에 비로소 알고서 군관을 잡아 들여 책임을 물었더니 “대개 학사(學舍)에서 숙직하는 사람은 그 집에 붙이는 세금을<sup>177)</sup> 이익으로 삼아서 사람을 허여(許與)하는 까닭입니다”라고 하였다. 삼사(三使)가 드디어 대성전(大成殿) 뜰에서 절을 4번하고 대성전 안에 들어갔다. 쳐다 본 즉 공자(孔子)의 자리에는 판상(版上)에 선사(先師) 지성(至聖) 문선왕(文宣王) 등 4성인(聖人) 10명의 현철(賢哲)들이 동서로 나뉘어서 자리하고 있었다.

177) 방진(房錢)은 집에 붙이는 세금을 뜻한다.

그리고 동쪽 집에는 배향한 아래를 좇아서 나란히 주선생(朱先生)<sup>178</sup>이 배향되어 있었다. 그 앞에서 머물러 있는데, 숙소로 정해서 잤던 집은 도필성(陶必成)의 집이었다. 이날 70리를 갔다.

날씨는 맑았다. 어제 저녁에 반산(盤山)을

**17일** 보기 위해 길 아는 사람을 샀는데, 한 사람이 주인(主人)이라고 하며 또 길을 잘 안다기에 삼숙지(三束紙)<sup>179</sup>와 부채 4자루를 주었다. 새벽에 출발하려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그는 갑자기 숨어 버렸다. 종이와 부채를 되돌리려 하니 대개 종이 1묶음 부채 1자루로 그 사람을 사고 그 나머지는 그가 숨겨 버렸다. 그 사람에게 추급(推給)을 다하니 그 사람은 한인(漢人) 왕천옥(王天旭)이었다. 그는 타는 말을 세워 놓았다가 따라왔다.

잠깐 사이에 날이 밝았는데 성(城)을 나서서 아침을 공락점(公樂店)에서 먹고 가마를 버리고 말을 타고서 큰 길을 따라서 10여리를 갔다. 드디어 북쪽을 향하여 20여리쯤 가니 반산(盤山) 아래에 당도하였다. 이른바 사리탑(舍利塔)이 산의 제일 높은 곳에 있어서 바라보니 아득했다. 이청(李清)의 무검대(舞劍臺)가 흡사 이와 같았다. 이곳에 이르니 큰 절과 높은 탑이 산골짜기와 낭떠러지 구렁 사이에 별려서 이어 있으니, 자못 어느 것이 만송사(萬松寺)이며, 어느 것이 영탑사(靈塔寺)인지 알 수가 없었다. 산의 서쪽 기슭에는 고목(古木)과 기암(奇巖)이 많아서 가히 볼만한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열람하기에는 어려울까 두려웠다. 길은 험하여 말을 탈 수가 없으니, 마침내 왕한(王漢)에게 군령(軍令)을 내리어 동쪽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소림사(少林寺)에 들어가니 동구(洞口)는 넓기가 더할 수 없어서 한 동(洞)이 모두 배, 은행, 대추, 밤 등의 나무였다.

而第東 從享下竝配朱先生矣 止宿於前 寓陶必成家 是日 行七十里

十七日

晴 昨夕爲見盤山 購得知路人 則一漢 稱以主人 且言熟諳路 逕 故給三束紙 四柄扇矣 曉將發 替以他人 渠忽隱避 還推紙扇 槩以一紙一扇 雇其人 而其餘則渠從中匿矣 盡推給其漢 其漢名王天旭 騎駐從行 乍明出城 早飯於公樂店 舍輻騎馬 循大路 行十餘里 遂向北行 二十餘里 抵盤山下 所謂舍利塔 在山最高頂 望之縹渺 李清舞劍臺 似是其處 巨刹崇塔 羅絡於山谷 及崖壑間 殊不知何者爲萬松寺 何者爲靈塔寺 而山之西麓 古木奇巖 似多可賞者 然日力 恐難周覽 路險不可跨馬 遂徇于王漢 轉東行 入少林寺 洞口彌巨 一洞 皆是梨杏棗栗之樹

178) 송나라의 유학자(儒學者) 주희(朱熹)를 말한다.

179) 종이의 종류중 하나이다.

而山頂崖側 有土則有果木 袁中郎所謂中膚故果木繁者 儘不虛語也 路邊盤陀平鋪 色甚瑩白 清泉發流 下爲小潭 心目頓爽 遂下馬坐石盥手嗽口 味甚甘冽 曲肱而臥 四顧山壑 巨石嶙峋 層疊 或如勃馬 或如熊虎 或方或平 或若飛動 殆難形狀 騎馬行數十步 忽迷失途 亂石塞前 不能行 攝衣而步 踰越澗谷 始覓路 抵寺門僧數輩出而迎 而其中一老衲 年九十四 自言生來 始見朝鮮使臣之到此 意甚權忻不已 入坐僧堂 以袁宏道李東陽 王衡 遊山記中所載 諸勝處逐名 問之 僧輩甚粗俗 不評文言 一知者 只言龍劍臺之在絕頂 有兩生出見 問其所住 一生拈筆書示曰 錢兆豫 住江南常州府 武進所

그리고 산마루 언덕 옆에 흙이 있는데는 과일 나무가 있으니 원중랑(袁中郎)이 이른바 “살갓 속인 까닭으로 과일 나무가 번성한다”라고 한 것이 모두 헛된 말이 아니었다. 길가에는 반타(盤陀)<sup>180)</sup>가 평평하게 퍼져 있는데, 색(色)은 옥같이 심히 하얗다.

맑은 샘이 흐르기 시작하여 아래로 작은 못을 만들었는데, 마음과 눈이 온통 상쾌하였다. 드디어 말에서 내려서 바위에 앉아, 손으로 물을 움켜서 양치질을 하니, 입맛이 심히 달고 차가웠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사방의 산골짜기를 바라보니 커다란 바위가 깊고 험준한 골짜기와 첩첩이 쌓인 모습이 혹은 우적 일어나는 말과도 같고, 혹은 곰과 호랑이의 자태(姿態)와도 같고, 혹은 모가 나고, 혹은 평평하기도 하고, 혹은 날아 움직이는 것과 같아서 모양을 형용하기가 어려웠다.

말을 타고 수심 보(步)를 가다가 갑자기 길을 잃어 버렸다. 앞에서는 어지러이 바위가 막아서 갈 수가 없기에, 옷을 걸어잡고서 걸어갔다. 냇물 골짜기를 넘어서니 저 아래 절 문으로 난 길을 찾을 수 있었는데 스님 몇 명이 나와서 맞이했다. 그 가운데는 한 늙은 스님이 있었는데, 나이가 94세나 되었다.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태어난 이래로 조선(朝鮮) 사신이 여기에 도착한 것은 처음 본다고 했다. 뜻이 너무 기뻐서 그칠 줄을 모르기에 절에 들어가서 앉았다. 원평도(袁宏道)와 이동양(李東陽)·왕형(王衡)의 「유산기(遊山記)」 가운데에 실려 있는 바 모든 경치 좋은 곳의 이름을 좇아서 물어 보았다. 스님의 무리는 심히 조속하고 글에는 능하지 못하여 하나도 아는 자가 없었다. 다만 말하기를 용검대(龍劍臺)의 절정에는 두 서생(書生)이 있다고 했는데, 나아가서 보고 물으니, 그곳에 사는 한 서생이 붓으로 써서 보여 주면서 말하기를 “전조예(錢兆豫)는 강남(江南) 상주부(常州府) 무진소(武進所)에 사는데,

180) 평평한 산기슭을 뜻한다.

왕순(王詢)이 사는 곳은 바로 순천부(順天府) 보지현(寶坻縣)에 딸렸다고 하면서 지궐사(持關寺) 위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내가 물어 가로되 “명나라는 진년(辰年)·술년(戌年)·축년(丑年)·미년(未年)으로써 식년(式年)으로 삼았다. 그런데 지금 대국(大國)에서는 자년(子年)·오년(午年)·묘년(卯年)·유년(酉年)의 해로써 식년(式年)을 삼는가”라고 했다. 곧 전생(錢生)이 답하여 가로되 “자(子)·오(午)·묘(卯)·유(酉)의 해는 향시과(鄉試科)이고 진(辰)·술(戌)·축(丑)·미(未)의 해는 회시과(會試科)이다”라고 했다. 내가 그 지은 바를 구해서 보고 싶다고 하니 사서의(四書義) 5편(篇)을 내어 보여 주었다. 내가 대답해 가로되 “글이 부심(富贍)하고 높고 민첩한 것을 본받아서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 전생(錢生)이 심히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내가 물어 가로되 “그대의 선대(先代)는 일찍이 명(明)나라 조정에 벼슬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니, 전생(錢生)이 가로되 “5대조(五代祖)는 이름이 일본(一本)인데, 명나라에서 벼슬을 해서 어사(御史)와 광서순안(廣西巡按)에 이르렀고, 그 아들도 또한 벼슬이 상서(尙書)에 이르렀고, 일찍이 호광순안(湖廣巡按)이 되었으며 그의 적숙(嫡叔)<sup>181</sup>의 이름은 명세(名世)인데, 강희(康熙) 정축년(丁丑年 : 1677) 전시(殿試)에 합격하여 한림시강 내공봉(翰林侍講內供奉)이 되었다”고 했다.

나를 맞이하여 그가 거처하는 방으로 들어가니 책이 책상 위에 가득 쌓여 있고 그 옆에는 꽃이 활짝 핀 매화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전생(錢生)이 글로 써서 보여 주었다. “우리 나라에서 귀국(貴國)의 의관이 성대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선생을 뵈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귀국(貴國)은 8로(八路)<sup>182</sup>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라고 묻기에 내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王詢住直隸順天府 寶坻縣 而爲赴持關寺 上寺肄業云 余問曰 大明 以辰戌丑未 爲式年 而即今大國 以子午卯酉 爲式年 即錢生答曰 子午卯酉 鄉試科 辰戌丑未 會試科 余求見其所製 出示四書義五篇 余曰文辭富贍高捷 可期 錢生中甚喜 余問曰 君先代曾仕明朝否 錢生曰 五代祖 名一本 在明仕至御史 廣西巡按 其子又仕 至尙書 曾爲湖廣巡按 其嫡叔名名世 中康熙丁丑殿試 爲翰林侍講內供奉云 邀余入其所居室 圖書滿案 案頭一樹盆梅 方盛開 錢生書示曰 我國曾聞大國衣冠之美矣 今見老爺誠幸 大國有八路云然否 余答曰 然矣

181) 아내의 숙부를 말한다.

182) 팔도(八道)를 말한다.

又問曰 大國有節度使之官果否  
 余答曰 果有 節度之職 而武人  
 爲之矣 錢生仍歷問余年甲科名  
 官職 求余筆甚懇 屢辭不獲 書  
 給一紙 錢生出示其所製 七律  
 四首 卽鏤板印紙也 書其首曰  
 梗居近詠 以將赴都門 留別同  
 學 諸子爲題 其一曰云云 余以  
 筆墨紙束贈之 錢生以紙紋織成  
 趙子昂所書 前赤壁賦 爲七幅  
 及 他書二幅爲謝 窓外有盆種  
 一樹幹 長尺餘 上生數十枝裊  
 裊 下垂黃花方開 問其名 乃靈  
 椿 東廊下有盆 樹綠葉茂 密狀  
 若梔子 有實離離 其色青黃 名  
 是金橘云 摘贈數十枚 清香可  
 愛 相與出寺門外 月臺上 東南  
 空闊 茫無際涯 太行 礪石 似  
 立眼下 而不可見矣 寺後有多  
 寶塔 屹然幾百尺 下有石欄 可  
 登眺 而脚纏行忙 不得往見

또 “귀국(貴國)은 절도사(節度使)의 관직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라고 물기에 절도사의 관직이 있는데 무인(武人)이 맡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전생(錢生)은 나의 나이와 과명(科名), 관직 등을 자세히 물었다.

또 나에게 매우 간절히 글씨 한 폭을 요구하기에 여러 번 사양했으나 끝까지 거절할 수가 없어 한 장을 써 주었다. 그러자 전생(錢生)은 그가 지은 7언율(七言律) 4수(首)를 꺼내 보여 주었는데, 바로 목판 인본[鏤板印紙]이었으며, 그 첫머리에 “경거근영 이장부도문 유별동학 제자위제 기일왈운운(梗居近詠 以將赴都門 留別同學 諸子爲題 其一曰云云)”이라고 쓰여 있었다. 내가 붓과 먹, 종이를 선물하자, 전생(錢生)은 조자양(趙子昂)<sup>183)</sup>이 비단에 쓴 「전적벽부 前赤壁賦」 7폭과 다른 책 2폭을 주며 사례를 하였다.

창밖에는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한 자가 넘는 나무에 몇 십개의 가지를 간들간들 늘어뜨린 채 황금빛 꽃을 한창 피우고 있었다. 그 이름을 묻자 ‘영춘(靈椿)’이라고 했다. 동쪽 복도에도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푸른 잎이 무성한 마치 치자(梔子) 같은 모양을 한 나무가 청황색 열매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이것은 ‘금귤(金橘)’이라고 하였다. 몇 십개를 따서 주었는데 상큼한 향기가 정말 좋았다.

함께 절 문을 나와 월대(月臺)에 올라서니, 동남쪽이 광활하게 확 트여 끝이 보이질 않았다. 태행산(太行山)<sup>184)</sup>과 갈석산(礪石山)<sup>185)</sup>이 눈앞에 있는 듯하였으나, 보이지는 않았다. 절 뒤쪽에는 몇백척이나 되는 다보탑(多寶塔)이 높이 솟아 있었다. 돌계단이 있어 올라가 사방을 조망할 수 있었지만, 다리도 아프고 갈 길이 바빠서 올라가 보지 못했다.

183) 조자양(趙子昂)은 원(元)나라 호주(湖州) 사람으로 본명은 맹부(孟頫)이다. 시(詩)·서(書)·화(畫)에 뛰어났으며, 저서는 『송설재집 松雪齋集』 『상서주 尙書註』 『금원 琴原』 등이 있다.

184) 태행산(太行山)은 하남성(河南省) 제원현(濟源縣)에서 출발하여 동북쪽으로 뻗어가다 다시 하남성(河南省)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태행산맥(太行山脈) 가운데 대표적인 산이다.

185) 하북(河北) 창려(昌黎) 서북쪽에 있다.

길을 떠나려 할 때, 전생(錢生)이 작별을 아쉬워하며 하루 더 머물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사행(使行)의 길이 매우 바빠서 사양하고 작별을 한 뒤에 산을 내려왔다. 30리를 가서 계주(薊州) 서문(西門)에 들어가 주씨성(朱氏姓)을 가진 사람의 집에 유숙했다. 이 날 90여리를 갔다.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뜰 무렵에 길을 떠나  
**18일** 봉산점(蜂山店)에서 아침밥을 먹고, 점심 때 옥전(玉田)에 도착하여 찰원(察院)에서 유숙했다. 이 날 80리를 갔다.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뜬 뒤에 길을 떠나 사  
**19일** 류하(沙流河)에서 아침밥을 먹고, 고려보(高麗堡)에 도착했다. 어떤 사람이 들판에서 장례(葬禮) 지내는 광경을 보았는데, 무덤을 다 메우기도 전에 흰 수건을 쓰고 흰 옷을 입은 4명의 여자와 여러 명의 남자들이 먼저 파하고 돌아갔다.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길에 서서 사신(使臣)의 행렬을 보자 웃고 떠드는 것이었다. 태연한 채 슬픈 기색이 없었다. 무덤 가에는 단지 몇 사람만이 삽질을 하며 광중(壙中)을 훑으로 메우고 있었다. 참으로 특이한 풍습이다.

점심 때 풍윤찰원(豐潤察院) 도착하여 유숙했다. 이 날 75리를 갔다.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뜰 무렵에 길을 떠나  
**20일** 진자점(榛子店)에서 아침을 먹고, 저녁 때 사하역찰원(沙河驛察院)에 도착하여 유숙했다. 이 날 100리를 갔다.

臨行 錢生依然惜別 勸留一宿而辭 以王程甚忙 遂作別 下山行三十里 入薊州西門 止宿於朱姓人家 是日 行九十餘里

**十八日**  
 晴 平明發行 早飯於蜂山店 晡時到玉田 止宿於察院 是日行八十里

**十九日**  
 晴 日出後 發行 早飯於沙流河 到高麗堡 有人營葬於野中 而壙土未及盡實 四女人 數男子 戴白巾 衣白衣者 已先自罷歸 未知於死者爲何人 而立路傍觀 使行 言笑自如 略無戚容 壙處 只有數人 以鍤實土 習俗良可異也 晡時 止宿於豐潤察院 是日 行七十五里

**二十日**  
 晴 平明 發行 早飯於榛子店 夕宿沙河驛察院 是日 行百里

## 二十一日

晴 日初出 發行 自大路轉 而  
 東北行五十里 到夷齊廟 所謂  
 首陽山 在於路右 一峯屹然尖  
 峭 童濯無一木 入廢城門 下輜  
 於廟門外 門內外庭 豐碑數十  
 列立 數重門 額左右牆面 皆以  
 甃挾石 以築鐫刻文字 難以盡  
 記 入廟瞻拜塑像 多剝落 卓上  
 香爐酒樽燭臺 皆以花斑石 雕  
 成 頗古雅 有木版刻 以勅賜清  
 節祠五字 而撤置廟內 半朽破  
 似是明朝所刻者 廟後有堂 堂  
 後有清心臺 望之翼如 左右築  
 甃 爲梯繞以石欄 傍出虹門 登  
 臺北臨灤河一帶 繞臺下 東南  
 流 而停泓 爲碧潭 長松數十立  
 岸側陡絕處 竦然不可俯視 對  
 岸有廟 卽孤竹君祠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뜬 무렵에 길을 떠나

## 21일 큰 길을 지나 동북쪽으로 50리를 가서 이제

묘(夷齊廟)<sup>186</sup>에 도착했다. 바로 수양산(首陽山)<sup>187</sup>이다. 길 오른쪽에 봉우리가 깎아지듯이 높고 서 있었는데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었다. 폐성문(廢城門)을 거쳐 사당의 문 밖에서 수레에서 내렸다. 문 안팎의 뜰에는 수십개의 풍비(豐碑)가 몇 겹으로 서 있고, 문 양쪽 담은 모두 벽돌로 중간에 돌을 넣고 쌓아 문자를 새겼으나 모두 기록하기는 어려웠다.

사당에 들어가 소장(塑像)을 바라보며 참배를 했는데, 상(像)은 거의가 벗겨지고 조각도 떨어져 나간 채였다. 탁자 위에는 향로와 술잔, 촛대가 놓여 있었고 모두 화반석(花斑石)<sup>188</sup>으로 조각하여 상당히 은은하고 아담(雅澹)하였다. 사당 안에는 나무에다 ‘칙사청절사(勅賜清節祠)’라는 다섯 글자를 새긴 현판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많이 썩고 깨져 있었다. 아마도 명(明)나라 때 새긴 것인 듯 했다.

사당 뒤편에는 당(堂)이 있고, 당 뒤편에는 청심대(淸心臺)가 있다. 대(臺)를 바라보니, 마치 날개를 좌우로 펼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고, 대(臺) 양옆에는 벽돌로 쌓은 계단을 만들었고, 밉들러 돌난간을 쌓았다. 옆에 있는 홍문(虹門)으로 나와 대(臺)에 올라가 북쪽으로 난하(灤河)<sup>189</sup>를 굽어보았다. 한 줄기 강물이 대(臺)를 감돌아 동남쪽으로 흘러 가다가 멈추는 곳에는 깊고 푸른 못이 있었다. 그리고 각아지른듯한 절벽 가까이에는 키가 큰 수십 그루의 소나무가 서 있었다. 내려다보니 아찔하여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언덕 맞은 편에 사당이 있었는데, 바로 고죽군(孤竹君)의 사당이다.

186) 이제(夷齊)는 백이(伯夷)·숙제(叔齊)를 가리킨다. 이들은 주(周)나라 고죽군(孤竹君)의 아들로 서로 나라를 사양하고 달아났다가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칠 때, 형제가 말고뺨를 잡고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자 수양산(首陽山)에 들어가 굶어 죽었다.

187) 산서성(山西省) 영제현(永濟縣) 남쪽에 있다.

188) 홍백색(紅白色)의 무늬가 있고 바탕이 푸른색의 돌이다.

189) 옛날의 유수(滹水)로 상도하(上都河)라고도 한다. 내몽고(內蒙古)에서 발원하여 열하성(熱河省)의 경계를 지나 발해(渤海)로 흐른다.

사당 서북쪽에는 큰 바위가 우뚝 솟아 있어 난하(灤河)가 이곳에 이르러 두 갈래로 나누어져 한 줄기가 사당 북쪽을 감돌아 흐르다가 다시 합쳐져서 사당은 섬 가운데 있는 셈이다. 대 동쪽에 있는 각문(角門)을 나와서 난하(灤河)의 바위 위에 앉았다. 강에서는 2~3 명의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다. 조금 있자 2명의 어부가 잡은 고기를 광주리에 담아 와서 팔았다. 그 중 큰 것으로 10여 마리를 사서 회도 떠 먹고 구어도 먹었다. 그리고 술을 가져다가 대(臺) 밑에서 국을 끓여 먹으니, 그 맛이 일품이었다.

밥을 먹은 다음 다시 난하(灤河)에서 고기 잡는 것을 내려다 보았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몹시 불어 마침내 난하(灤河)를 따라 10여리를 가서 난하를 건너 영평서문(永平西門)에 들어가 찰원(察院)에 유숙했다. 이 날 70리를 갔다.

해가 뜰 무렵 길을 떠났다. 부락령(部落嶺)  
**22일** 에 도착하여 행렬이 있었는데, 2~3명의 호인(胡人)<sup>190</sup>이 활과 화살을 차고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있었고, 뒤따르는 2대의 수레에는 지붕이 달린 가마가 장막을 친 채 실려 있었다. 거기에는 누런 깃발 2개와 흰 깃발 1개가 꽂혀 있어 뒤따르는 수레를 인도하였다. 그 뒤에는 3대의 수레에 미녀(美女)들이 타고 있었고, 짐 실는 수레 3~4 대도 그 뒤를 이었다.

마두(馬頭)<sup>191</sup>를 보내어 물어 보니, 흑룡강(黑龍江) 관원(官員)이 체임(遞任)되어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어 유거(帷車) 속에 시신을 싣고 가는 길이다” 라고 하니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배음보(背陰堡)에서 아침밥을 먹고, 무녕현(撫寧縣)에 도착하였다. 빗길을 무릅쓰고 길을 떠나 유관점(榆關店)에 이르러 한인(漢人) 장림(張彬) 집에 유숙했다. 이 날 90리를 갔다.

이날 밤 비와 눈이 많이 내려 머무른 집이 새는 바람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

190) 북방 또는 서역(西域)의 이민족을 지칭한다.

191) 역마(驛馬)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사람을 말한다.

祠西北有巨岩特立 河到此分流  
 一派繞祠 北而下合流 祠便在  
 島中矣 出臺東角門 坐河邊岩  
 石上 數三漁舟 方布網捕魚 俄  
 而兩漁人 持數筐魚來 賣沽得  
 其十餘頭大者 或膾 或炙 且捧  
 鼎 臺下烹 而爲羹覺有滋味 飯  
 後 又臨河 見獵魚 晚風大作  
 遂循河 行十餘里 渡河入永平  
 西門 止宿於察院 是日 行七十  
 里

## 二十二日

平明 發行 到部落嶺 有數三胡  
 佩弓矢 前導兩車 上設屋轎 垂  
 重帷 兩黃旛 一白旛引路 後車  
 三輛 載以美女 輜車亦三四 使  
 馬頭問之 稱以黑龍江官員 遞  
 歸 或言身死 帷車中 載其尸  
 殊未可知也 早飯於背陰堡 到  
 撫寧縣 冒雨而行 抵榆關店 止  
 宿於漢人張彬家 是日 行九十  
 里 是夜 雨雪大作 所寓滲漏  
 達夜不眠

## 二十三日

平明 發行 早飯於鳳凰店 到深河 卒遇狂風 馳入山海關外城門 又入內城兩重門 止宿於所謂文舉人家 其門外牌額 以金字書 以青雲難望雲華蟾窟香漂御篆等字 問其姓 乃河 而其獃子名 卽朱蘭泰 方在北京爲什 只有奴守家云 先來譯官申性沈軍官李泰錫 灣上軍官金鼎九 夕時出關東歸 正使則以灣上替送故也 初昏郭如栢 率其四子來見 付傳石郊所去書角 且以一幅書贖 余以扇爲謝 問其子名 書諸紙以示曰 衡字平田 號曉珂 增生熟字仁田 號負郭 廩生億字濟田 號郭郭 裝字醫田 號外郭 俱業儒云 而兩子字號 則倉卒 父子相議創書 殊可笑也

해가 뜰 무렵 길을 떠났다. 봉황점(鳳凰店)

23일 에서 아침밥을 먹고, 심하(深河)에 이르렀다.

사나운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 서둘러 산해관(山海關) 외성문(外城門)으로 들어갔고, 또 내성(內城)의 양중문(兩重門)을 통해 들어가서 이른바 문거인(文舉人)의 집에 유숙했다.

그 집 대문 위에 현판에는 금자(金字)로 ‘청운난망 운화섬굴 향표어진(靑雲難望 雲華蟾窟 香漂御篆)’ 등의 글씨가 써 있었다. 집주인의 성(姓)을 물으니, 하(河)씨이고 그의 달자(獃子)<sup>192)</sup>의 이름으로는 주난태(朱蘭泰)인데, 지금은 북경(北京)에서 벼슬을 하고 있고, 단지 종[奴]이 집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앞서 도착한 역관(譯官) 신성침(申性沈)·군관(軍官) 이태석(李泰錫)과 만상군관(灣上軍官) 김정구(金鼎九)는 저녁 때 관(關)을 나가 동쪽으로 돌아갔는데, 정사(正使)가 만상(灣上)에서 체송(替送)하였기 때문이다.

초저녁에 곽여백(郭如栢)이 네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전석교소거서각(傳石郊所去書角)’을 보여 주고, 또 한 폭의 글씨를 선물로 주었다. 나는 부채를 선사하여 답례를 했다. 아들의 이름을 물으니, 다음과 같이 종이에 써서 보여 주었다. “형(衡)의 자(字)는 평전(平田)이고 호(號)는 효가(曉珂)인데 증생(增生)<sup>193)</sup>이요, 숙(熟)의 자(字)는 인전(仁田)이고 호(號)는 원곽(員郭)인데 늙생(廩生)이요<sup>194)</sup>, 비(億)의 자(字)는 제전(濟田)이고 호(號)는 부곽(郭郭)이며, 장(裝)의 자(字)는 의전(醫田)이고 호(號)는 외곽(外郭)입니다. 그런데 모두 유학(儒學)을 업(業)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자와 호는 부자(父子)간에 급하게 상의해서 비로소 쓴 것입니다” 라고 하니, 매우 우스웠다.

192) 북방의 이민족을 말한다.

193) 증광생(增廣生)의 준말로, 정원 이외에 더 뽑아 사학의 외사(外舍)에서 공부한다.

194) 관아에서 일정한 양의 돈이나 쌀을 지급하는 유생(儒生)을 말한다.

내가 “능생(廩生)이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자, “팔고문(八股文)<sup>195</sup>으로 여러 수재(秀才) 중에 1등 한 명을 가려 뽑아서 제자원(弟子員)에 충원되고 조정(朝廷)의 녹미(祿米) 10석(石)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또 “증생(增生)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자, “처음 진학(進學)한 수재(秀才)로 현재 생원(生員)인 사람들 중에서 1등 2명을 가려 뽑아 증광생원능생(增廣生員廩生)으로 삼고 녹미(祿米)를 먹은 지 20년이 되면 출공(出貢)하게 하여 세공생(歲貢生)으로 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전에 연경(燕京)에 있을 적에 호인(胡人) 김상명(金常明)이란 자가 있었는데, 우리 나라 의주(義州) 사람의 자손이라고 자칭하였다. 그가 산해관(山海關) 감세관(監稅官)으로 처음 부임하여 와 있었는데, 사신(使臣)의 일행이 묵고 있는 여관으로 와서 사사로이 만나려고 하였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말하여 사양하고 거절했다. 초저녁에 통관(通官)<sup>196</sup>편에 명첩(名帖)을 보내 왔는데, “향제(鄉弟) 김상명(金常明)이 배(拜) 합니다” 라고 써 있었다. 또 별단(別單)에는 “조석(粗席) 한 자리, 면찬(麵饌) 한 그릇, 호필(湖筆) 세 자루, 휘묵(徽墨) 두 개” 라고 써 있었다. 또 과일과 안주를 보낸 것이 매우 넉넉하였다. 정사(正使)가 말하기를 “이 물건들은 명분 없는 물건과는 차이가 있으니 받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므로 부득이 받고, 종이와 부채로 사례하였다. 이 날 90 리를 갔다.

### 장계초(狀啓草)

신(臣) 등은 사은사(謝恩使)가 먼저 온 것과 사은사(謝恩使) 일행이 돌아온 때에 이미 연달아 치계(馳啓)하였습니다.

問何謂廩生 答曰八股文 從衆秀才中 考取一等 第一名 充弟子員 食朝廷廩米十石 又問何謂增生 答曰初進學秀才 爲時生 考取一等二名 秀才爲增廣生員 廩生食餼二十年出貢 爲歲貢生云矣 在燕京時 有胡人金常明者 稱以我國 義州人子孫而渠方從山海關 監稅官 始赴任 要見使臣 以館中 私見不便辭却之矣 初昏 使通官 送名帖而書以鄉弟金常明 拜別單中書以粗席一筵 麵饌一筵 湖筆三封 徽墨二封 治送果肴甚優 正使曰此與無名饋有異 不可不受云 故不得已受之 以紙扇謝之 是日 行九十里

### 狀啓草

臣等於謝恩使 先來及同使行 回還時 既已連次馳啓

195) 명(明)나라 중엽 이후 관리 등용 시험에 쓰던 문체를 말한다.  
196) 통역관(通譯官)을 지칭한다.

## 二十四日

晴 早飯後 發行 到內城門內稅官 衙門前金常明出來 立轎前 揖手 致敬極 其懇款 欲爲出轎 相見 則挽止之 仍贈二裴子 其不忘本國之意 亦足可尙矣 聞爲謁聖方赴學宮云 而其儀仗導從 無異王者 通官輩 謹敬奉承 極敬慎 以此觀之 其職品不卑 而出來路 左立談轎 前直渠 頗似虧損体例 聞其祖母 以順治之保母 有權力於皇帝 職至崇品 且得爲監稅之任 而前頭 若有勅行 渠欲圖差使臣云矣 到外城門 稱以門將一人 未及齊會 不許出門 卸轎路側 遲留數時 其苦難狀 日將午 始出城 秣馬於中前所 初更許到兩水河 入察院 廚房籠卜 皆落後不來 夜半後始得 會就寢 其時困苦 不可盡說 是日 行八十里

날씨는 맑았다. 아침밥을 먹은 뒤 길을 떠

## 24일

나 내성문(內城門) 내세관(內稅官)에 도착하였다. 관문(官門) 앞에 김상명(金常明)이 나와 가마 앞에 서서 공손히 읊(揖)을 하며 정성을 극진히 표하였다. 그래서 내가 가마에서 내려 만나 보려고 하자 만류하며 못하게 막았다. 그가 배자(裴子) 2벌을 전해 주는 것을 보니, 우리 나라를 잊지 못하는 마음이 가상하였다. 알성(謁聖) 때문에 학궁(學宮)에 가는 길이라고 한다. 행렬의 의장(儀仗)과 따르는 일행을 보니, 왕자(王者)와 다름이 없고 통관(通官)들이나 시중을 드는 사람들도 공손히 받들며 공경의 예를 다한다. 이것을 보니 아마 그의 직품(職品)이 낮지 않은가 보다. 그런데 가마에서 내려 길가에 서서 이야기를 하거나, 수레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며 크게 예(禮)에 벗어난 행동을 했다.

듣자 하니 그의 조모가 순치(順治) 때 보모(保母)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영향력이 있어서 관직(官職)이 숭품(崇品)에 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그래서 그가 감세(監稅)의 직책을 맡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만약 칙사(勅使)의 행차가 있게 되면 그가 사신(使臣)에 차임(差任)되기를 도모하려 한다고 했다고 한다.

외성문(外城門)에 도착하니, 문장(門將)<sup>197)</sup>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문을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가마를 길옆에 내려놓고 3~4 시간이나 지체하였는데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정오가 되어서야 겨우 성문(城門)을 나와 중전소(中前所)에 이르러서 말을 먹이고, 초경(初更)<sup>198)</sup>에야 양수하(兩水河)에 도착하여 찰원(察院)에서 머물렀다.

주방(廚房)의 물건들은 모두 뒤쳐졌다가 한밤중이 지나서야 비로소 한데 모였다. 그 때의 곤란함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 날 80리를 갔다.

197) 수문장을 말한다.

198) 5경(更) 중 첫 번째 경(更), 즉 오후 7 시부터 9 시까지를 말한다.

아침에는 흐리다가 오후에는 맑았다. 해뜰  
**25일** 무렵 길을 떠나 중후소(中後所)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포시(晡時)에 동관역(東關驛)에 도착  
 하여 역승(驛丞) 동씨(童氏) 성(姓)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유숙했다. 이 날 60리를 갔다.

날씨는 흐렸다. 해가 뜰 무렵 길을 떠나 사  
**26일** 하소(沙河所)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포시(晡  
 時)에 영원위(寧遠衛)에 도착하여 찰원(察院)  
 에 유숙했다. 이날 70리를 갔다.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해가 뜰 무렵 길을  
**27일** 떠나 장춘교(長春橋)에 도착했다. 대통관(大  
 通官) 홍이기(洪二奇)가 회령개시(會寧開市)<sup>199)</sup>  
 로부터 돌아왔다. 역관(譯官)들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소식을 지난 달 회령(會寧)을 떠날 때 들었는데, 나라에 별  
 다른 일없이 무사합니다”라고 한다. 고국을 떠난지 여러  
 달만에 이런 소식을 듣고 보니,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위로가 된다.

연산역(連山驛)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포시(晡時)에 정교  
 보(亭橋堡)에 도착하여 찰원(察院)에 유숙했다. 이 날 60리  
 를 갔다.

밤 사이에 눈이 내렸다. 아침에는 흐렸다가  
**28일** 오후에는 맑았다. 해가 뜰 무렵 길을 떠나 송  
 산보(松山堡)에 도착하였다. 가는 길이 진흙  
 탕이라 힘들게 건넜다. 아침밥을 먹고 20리를 가서 포시(晡  
 時)에 소소하참(小溱河站)에 도착하여 우인(虞人) 이가신  
 (李可新)의 집에 유숙하였다. 이 날 60리를 갔다.

**二十五日**  
 朝陰 午晴 平明 發行 早飯於  
 中後所 晡時 到東關驛 止宿於  
 驛丞童姓人家 是日 行六十里

**二十六日**  
 陰 平明 發行 早飯於沙河所  
 晡時 到寧遠衛 止宿於察院 是  
 日 行七十里

**二十七日**  
 陰風 平明 發行 到長春橋 大  
 通官洪二奇 自會寧開市還歸 譯  
 輩問我國消息 則答以去月十六  
 日 離發會寧 而其時國家無事  
 云 屢月去國之餘 得此音耗 亦  
 足慰戀闕之思 早飯於連山驛 晡  
 時 到亭橋堡 止宿於察院 是日  
 行六十里

**二十八日**  
 夜雨雪 朝陰午晴 日出時 發行  
 到松山堡 路泥淖 間關跋涉 早  
 飯後 行二十里 晡時 抵小溱河  
 站 止宿於清人李可新家 是日  
 行六十里

199) 조선시대에 다른 나라와 통상을 허가한 회령(會嶺)에 있던 시장(市場)을 말한다.

## 二十九日

晴 風寒 平明 發行 早飯於大  
 溱河站 到河濱 橋圯水深 卸輜  
 握扶而渡 晡時 到十三山 止宿  
 於清人趙士傑家 是日 行六十  
 里 乾糧卜馬一匹 每宣傳所牽  
 刷馬 致斃

## 三十日

晴風 平明 發行 早飯於閭陽驛  
 晡時 到新廣寧 三使同寓於驛  
 丞家 驛丞以昨冬一宿之故 忻  
 然出迎 待以茶果及豬肉 是日  
 行八十里

날씨는 맑았으며 바람이 불었고 추웠다. 해

29일 가 뜰 무렵 길을 떠나 대소하참(大溱河站)에  
 서 아침밥을 먹고, 하빈(河濱)에 도착하였다.

도중에 다리가 무너져 길이 물바다가 되어서 가마를 풀어  
 어깨에 매기도 하고 들기도 하며 건넜다.

포시(晡時)에 십삼산(十三山)에 도착하여 청인(清人) 조  
 사걸(趙士傑)의 집에 유숙했다. 이 날 60리를 갔다.

마른 양식을 실은 복마(卜馬) 1필이 죽었는데, 매번 선전  
 (宣傳)에 소속되어 있던 쇠마(刷馬)였다.

맑고 바람이 불었다. 해가 뜰 무렵 길을 떠

30일 났다. 여양역(閭陽驛)에서 아침밥을 먹고 포  
 시(晡時)에 신광녕(新廣寧)에 도착하여 삼사

(三使)가 함께 역승(驛丞)의 집에 머물었다.

역승(驛丞)은 작년 겨울에 하룻밤 묵은 인연으로 해서  
 기쁘게 맞이하여 다과와 돼지고기로 대접해 주었다. 이 날  
 80리를 갔다.

여 백

경자년(庚子年 : 1720, 속종 46)

3월

여 백

## 小 初 一 日

晴風 未明書狀以單騎 馳往北  
鎮廟 而余則輜馬 疲劣不得同  
往 平明 與正使發行 早飯於中  
安堡 未末到小黑山 止宿於察  
院 是日 行七十里

## 작은 달이다

## 초 1일

날씨는 맑고 바람이 불었다. 해가 뜨기  
도 전에 서장(書狀)은 말을 타고 달려 북  
진묘(北鎮廟)에 갔고, 나는 가마를 끄는  
말이 지쳐서 함께 가지 못했다. 해뜰 무렵에 정사(正使)와  
함께 길을 떠나 중안보(中安堡)에서 아침밥을 먹고 미말(未  
末)<sup>200</sup>에 소흑산(小黑山)에 도착하여 찰원(察院)에 유숙했  
다. 이 날 70리를 갔다.

## 初 二 日

陰風 平明 發行 早飯於新店  
未末到二道井 止宿於鄭自望家  
是日 行六十里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해가 뜰 무렵 길을

## 초 2일

떠나 신점(新店)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미말  
(未末)에 이도정(李道井)에 도착하여 정자망  
(鄭自望)의 집에 유숙했다. 이 날 60리를 갔다.

## 初 三 日

乍陰乍晴 大風寒 早飯後 發行  
十里之間泥濘 沒馬足 董董跋  
涉 到所謂鰲子山 遙望一板門  
只隔八九里地 而水色迷茫 有  
若巨海中 胡人及馬匹之斃於泥  
中者 相屬云 遂出輜中 所儲魚  
果 以饋從人 留置卜物於坂上  
驅駕行水路中泥淖沮洳 大風又  
作 輜馬十步九顛 輜夫沒入泥  
中 不得拔宛轉 叫呼有不忍聞  
而人馬時 或爲輜所壓 死生在  
呼吸 不得已傾輜水中 而救援

잠시 비오다 잠시 갠다. 태풍이 몹시 불더

## 초 3일

니 잠잠해졌다. 아침밥을 먹고 길을 떠났다.  
10리 길이 온통 진흙탕이라 말의 발이 자꾸  
빠지는 바람에 힘들게 건너서 이른바 별자산(鰲子山)에 도  
착했다. 멀리 일판문(一板門)을 바라보니, 8~9리만 육지이  
고 나머지는 온통 물색으로 아득하여 마치 거대한 바다와  
도 같았다. 호인(胡人)과 말들이 진흙탕 속에 빠져 죽는 경  
우가 줄을 이었다고 한다. 할 수 없이 가마 속에 저축했던  
어과(魚果)를 풀어 종인(從人)들에게 주고 판상(板上)에 머  
물어 짐을 지키게 하며, 질퍽한 진흙탕 길을 건넜다.

그 때 태풍이 다시 불어와 가마를 끄는 말들이 거의 다  
쓰러지고, 교부(輜夫)가 흙탕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데도 끌  
어 내지 못하자 몸부림치며 아우성이니, 차마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사람이나 말이 가마에 깔리는  
경우에는, 사생(死生)이 달린 급박한 상황이라 부득이 물에  
서 가마를 기울여 구하였다.

200) 미시(未時)가 끝날 무렵으로 오후 3시 경을 이른다.

그러나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며 수레 안으로 들어오니 매우 위급해 재빨리 중지시켰다. 그 때의 긴박했던 상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조금씩 전진하여 저녁에는 일판문(一板門)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일행 중에 빠져 죽었거나 짐을 흙탕물에 빠트렸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역관(譯官)들은 말을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여 간신히 건넜지만, 온통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였다. 역관(譯官) 김세민(金世敏)과 화원(畫員) 노태현(盧泰鉉)은 진흙탕에 얽어진 것을 호인(胡人)이 구해 주어서 다행히 무사하였다.

이 때 갑자기 바람이 이상할 정도로 잠잠해지자 종인(從人)들이 두려움에 떨며 놀라는 표정이었다. 단지 나의 주방(廚房)의 짐이 먼저 도착하여 서둘러 뜨거운 탕을 끓여 급한 대로 허기를 면할 수가 있었다. 내 침구와 짐은 건노(件奴)와 쇄마인(刷馬人)<sup>201</sup>이 지고 오다가 중간쯤에 이르러 힘이 다하고 몸이 탈진하여 할 수 없이 진흙탕 속에 버려두고 왔다. 서장(書狀)이 탄 수레가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하지 않으므로 일행 중에서 8명을 보내고 또 샅을 주고 말 3필을 사서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일행 중에 뽑은 사람이 떠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끝내 떠나지 않았으므로 호인(胡人)들도 겁이 나서 가지 않았다.

1~2리를 가다가 돌아와 다시 소 3마리를 사서 보냈는데, 밤은 깊고 날씨는 추운데 끌던 소조차 진흙탕에 빠져 수레를 끌고 올 수가 없자 수레를 놔둔 채 새벽에 돌아왔다. 그래서 정사(正使)가 밤새도록 걱정하였으니, 이 때 명령을 아랫사람들이 따르지 않은 것은 어째서였을까. 이날 밤 묵은 집의 주인은 바로 청나라 사람 유안귀(柳安貴)였다고 한다.

渾水湧入車中 艱危之狀 不可盡狀 寸寸前進 夕時到一板門 一行員沒卜物之棄置於泥中者 不知其數 譯輩或騎或步 艱難得達 而無不沾濕 至於譯官金世敏 畫員盧泰鉉 顛仆水中 爲胡人所救幸而得生 時風寒異常 大小從人 戰慄無人色 而只余廚房一駄 能先到 急作熱湯 以救其急 余寢具冊卜 則件奴與刷馬人負 到中路力盡 身棄置於泥土中 而入來書狀所乘車子 墊沒泥土 不得運動云 督送行人八名 且雇得撻馬三匹送之 則行人夫 佯言已去 而終不往 胡人恟罷 行一二里 亦即還 又雇送三牛 則夜深寒緊 牛亦沒泥中 不得駕車 鷄鳴後空還 只是正使達宵憂慮 而此際命令 有不得行於下牽 誠奈何不下 是夜所寓家主 卽清人柳安貴云

201) 쇄마(刷馬)는 조선시대 지방에 갖추었던 관용(官用)의 말로 외관(外官)의 영송(迎送)이나 물건을 수송하는데 쓰였다.

## 初四日

朝晴夕雨 天明後 又雇送胡人  
三名 及馬五匹 始得救來 書狀  
終夜 水中能免大死傷損 誠可  
幸惠信 伴奴輩 負來卜物 亦免  
見失 行中刷馬之溺死泥中者四  
匹 書狀奴世贊 及河世興 譯官  
邊尙中 其他從人所持 驢子之  
棄置道中者 亦六七云 昨日 二  
道井胡人 持餅追到 出售於下  
輩 得錢纏腰 回到半程 而沒死  
拯出盧泰鉉之胡人 受錢與刀子  
而還 亦死泥中 而行中人 無一  
死亡 其喜不可言 店舍甚少 而  
行旅阻路留滯者甚多 一行人馬  
亦衆 柴草米供踊貴 一束草 直  
百錢 一升米 直五六百錢 是日  
留宿

## 初五日

乍陰乍晴 早飯後 發行 到白旗  
堡 聞前路亦險 留宿察院 是日  
行三十里

## 初六日

陰 平明 發行 早飯於石獅子店  
未時 抵蘆河溝

아침에는 맑았다가 저녁에는 비가 내렸다.

**초 4일** 날이 밝자 또 샅을 주고 호인(胡人) 3명과  
말 5필을 사서 보내어, 비로소 진흙탕에 빠  
진 수레를 끌고 올 수가 있었다. 서장(書狀)이 밤새도록 물  
속에 갇혀서 죽을 뻔하였지만, 그래도 무사하다는 것이 매  
우 다행스런 소식이다. 건노(件奴)들이 지고 오다 놔 둔 짐  
들도 유실된 것이 없었으나 오다가 쇠마(刷馬)가 진흙탕에  
빠져 죽은 것이 4필이었다. 서장(書狀)의 종[奴] 세찬(世贊)  
및 하세흥(河世興)과 역관(譯官) 변상중(邊尙中), 그 밖에  
종인(從人)이 가지고 있던 나귀를 도중에 버려 둔 것도  
6~7마리나 되었다고 한다.

어제 이도정(二道井)의 호인(胡人)이 떡을 가지고 뒤따라  
와 아래 사람들 한테 팔아 돈을 벌어 허리에 차고 돌아가  
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노태현(盧泰鉉)을 건져준 호인(胡  
人)도 돈과 도자(刀子)를 받았는데, 그 역시 돌아가다가 물  
에 빠져 죽었다. 일행 중에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것이 매우 다행이었다.

점사(店舍)는 매우 협소한데 머무는 행려인(行旅人)들은  
많았고, 우리 일행도 인원이 많고 말의 숫자도 많았다. 그  
래서 쌀감이나 곡식 값이 폭등하고 귀해져서 한 묶음의 쌀  
감이 100전(錢)이고, 한 되의 곡식이 5~600전(錢)이나 되었  
다. 이 날 유숙했다.

흐리기도 하고 맑기도 했다. 아침밥을 먹은

**초 5일** 뒤 길을 떠나 백기보(白旗堡)에 도착했다. 앞  
으로 갈 길도 험하다는 말에 찰원(察院)에  
유숙했다. 이 날 30 리를 갔다.

날씨는 흐렸다. 해가 뜰 무렵 길을 떠나 석

**초 6일** 사자점(石獅子店)에서 아침을 먹고 미시(未  
時)에 노하구(蘆河溝)에 도착했다.

15리가 온통 진흙탕 길이고 깊은 물에 빠질까 조심하며 건너느라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서 마침내 장명대(張明代)의 집에 유숙했다. 이 날 30리를 갔다.

十五里之間 泥濘亦甚 且有大水間關 跋涉人馬俱疲 遂留宿於張明代家 是日 行三十里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뜰 무렵 길을 떠나 대

**초 7일** (大)·소(小) 황기보(黃旗堡)를 지난 후 야계둔(野鷄屯)에 도착했다. 강정자촌(江亭子村)에서 아침밥을 먹고, 10여리를 가다 큰 길로 해서 주류하보(周流河堡)를 들렀다. 이태석(李泰錫)이 그믐날 유숙했던 기록을 보았는데, 타고 가던 역마(驛馬)가 병들어 죽었다고 한다.

주류하(周流河)를 건너 포시(晡時)에 고가자(孤家子)에 도착하여 한인(漢人) 배지청(裴之淸)의 집에 유숙했다. 이 날 70리를 갔다.

初七日

晴 平明 發行 繞大小黃旗堡後 過野鷄屯 早飯於江亭子村 行十餘里 出大路 過周流河堡 見李泰錫晦日所留告目中 所騎驛馬病斃 渡周流河 晡時 到孤家子 止宿於漢人裴之淸家 是日 行七十里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뜰 무렵 길을 떠나 대

**초 8일** 방진점(大方身店)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영안교(永安橋) 북쪽 길로 해서 장원교(壯元橋)를 건너, 저녁 때 심양(瀋陽) 서문(西門) 밖에 도착하여 말을 타고 들어가 찰원(察院)에 유숙했다. 이 날 90여리를 갔다.

初八日

晴 平明 發行 早飯於大方身店 從永安橋北路 渡壯元橋 夕抵瀋陽西門外 乘馬而入 止宿察院 是日 行九十餘里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뜰 뒤에 길을 떠나 혼

**초 9일** 하변(渾河邊)에 도착하였다. 다리가 무너져 관청의 배 한 척으로만 건널 수가 있었는데, 수레와 말들이 한데 몰려와 장사꾼을 먼저 타게 하였다. 별장(別將)<sup>202</sup>과 군뢰(軍牢)<sup>203</sup>로 하여금 서둘러 책문(柵門)에 가서 서둘러 온 편지를 가져오게 했다.

나는 개인 배를 세를 내어 건넜는데 2척의 배를 판대기로 엮어 그 위에 말을 실어 보기도 매우 위태로웠다.

初九日

晴 日出後 發行 到渾河邊 橋圯 只有官舡一隻 車馬駢闐 先送商賈 別將及軍牢於柵門 使之持來京書 爭渡 余則賃私船以渡 概以二隻馬尙橫結鋪板 所見甚危

202) 산성(山城)이나 도진(渡津), 포구(浦口), 보루(堡壘), 도(島) 등의 수비를 맡은 무관을 말한다.

203)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병졸을 뜻한다.

早飯於白塔堡 晡時 抵十里堡  
止宿於李廷玉家 是日 行六十  
里 余自昨夕 微有感氣 痛勢甚  
劇 服茶飲取汗

初十日

晴風 平明 發行 早飯於爛泥堡  
山海關 落後 譯官金商鉉 邊尚  
中 等始追到 未末 到新遼東  
止宿於談廷聘家 是日 行六十  
里

十一日

晴 平明 發行 到冷井 初欲臨  
溪攤飯 余病不可風 正使亦病  
入接於村店 采芹泉邊 作羹以  
食 亦覺有味 晡時 抵狼子山  
止宿於王天祿家 是日 行七十  
里

十二日

乍陰 乍晴風 平明 發行 踰小  
石嶺 靑石嶺 到恬水站 東二里  
許川邊 則書狀以騎先到 設帳  
而坐 賈魚作羹 臨流攤飯

백담보(白塔堡)에서 아침밥을 먹고 포시(晡時)에 십리보(十里堡)에 도착하여 이정옥(李廷玉) 집에 유숙했다. 이 날 60리를 갔다.

나는 어제 저녁부터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증세가 점점 심해졌기 때문에 차를 마셔 땀을 냈다.

맑고 바람이 불었다. 해가 뜰 무렵 길을 떠  
**초 10일** 나 난니보(爛泥堡)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산  
해관(山海關)에서 뒤쳐졌던 역관(譯官) 김상  
현(金商鉉)·변상중(邊尙中) 등이 비로소 뒤쫓아 이르렀다.

미말(未末)에 신요동(新遼東)에 도착하여 담정빙(談廷聘) 집에 유숙했다. 이 날 60리를 갔다.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뜰 무렵 길을 떠나 영  
**11일** 정(冷井)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시냇가에서  
쉬려 했으나, 나는 병이 낫지 않아서 바람을  
씩면 안되고, 정사(正使)도 병이 났으므로 촌점(村店)으로  
가서 쉬었다.

샘 주변의 미나리를 캐어 국을 끓여 먹으니 맛이 있었다. 점심 때 낭자산(狼子山)에 도착하여 왕천록(王天錄) 집에 유숙했다. 이 날 70리를 갔다.

흐리기도 하고 맑기도 했다. 바람이 불었  
**12일** 다. 해가 뜰 무렵 길을 떠나 소석령(小石  
嶺)·청석령(靑石嶺)을 넘어 침수침(恬水站)  
에 도착하였다. 동쪽으로 2리쯤 떨어진 천변(川邊)에 서장  
(書狀)이 말을 타고 먼저 가서 천막을 설치하고 자리를 준  
비해 놓았다. 그래서 잡은 물고기를 사서 국을 끓여 먹고,  
천변(川邊)에서 쉬었다.

회녕령(會寧嶺)에 도착하니, 정상에 두견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아직 꽃 소식은 아득하였다. 층층이 쌓인 얼음 난간은 마치 “호인(胡人)이 준마(駿馬)를 타고 가 큰 사슴을 잡아서는 배를 가르 채 말안장에 얹어 놓아 피가 줄줄 흐르는 듯한 씩씩한 모습”을 새겨 넣은 듯이 보였다. 먼저 지나갔던 군관(軍官) 이태석(李泰錫) 등이 길가의 돌에 “4일 오시(午時)에 이곳을 지나간다”라고 썼다. 저녁 때 연산관(連山關)에 도착하여 한인(漢人) 팽가진(彭可進) 집에 유숙했다. 이 날 70리를 갔다.

아침에 흐리다가 오후에 비가 내렸다. 해가  
**13일** 뜰 무렵 길을 떠나 분수령(分水嶺)에 도착하였는데, 정상에서 비를 만나 수동점사(岫洞店舍)로 들어갔다.

아침밥을 먹고 내리는 비를 무릅쓰고 길을 떠나 미시(未時)에 통달보(通達堡)에 도착하여 난두(攔頭) 조화민(趙化民) 집에 유숙했다. 이 날 60리를 갔다.

아침에는 흐리다가 오후에 추워지더니 눈  
**14일** 이 내렸다. 해가 뜰 무렵 길을 떠나 팔도하(八渡河)에 도착하였다. 서장(書狀)과 함께 천변(川邊)에 천막을 설치하고 아침을 먹었다. 오후에 송참(松站)에 도착하여 청인(淸人) 장천상(張天祥)의 집에 유숙했다. 이 날 60리를 갔다.

군뢰(軍牢)가 돌아와 2월 15일에서 25일 집에서 보낸 편지를 받아 보았다. 집안 식구는 모두 편안하고 아이 학업도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 객지 생활에서 기쁘고 다행스러운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이다. 다만 상감께서 동궁(東宮)이 병을 앓아 약청(藥廳)을 설치한다는 소식에 내속이 타고 걱정되는 것을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到會寧嶺 嶺上多杜鵑樹 而花意杳然 層水闌干 有一樣 胡騎駿馬 獲一大鹿 剗腹出腸 橫拖鞍上 腥血淋漓 殊甚快壯 先來軍官李泰錫等 書諸路邊石曰 初四日午時過此云 夕抵連山關 止宿於漢人彭可進家 是日 行七十里

### 十三日

朝陰 午雨 平明 發行 到分水嶺上 遭雨入岫洞店舍 早飯 冒雨而行 未時 到通達堡 止宿於攔頭趙化民家 是日 行六十里

### 十四日

朝陰 午洒雨雪 平明 發行 到八渡河 與書狀設幕川邊早飯 午到松站 止宿於淸人張天祥家 是日 行六十里 軍牢還 得見二月十五日二十五日所出家書 知諸家俱安 順兒學業有進 客中喜幸 無過於此 只是上候有加 東宮患疹 設議藥廳 區區憂患 不可言

## 十五日

晴 平明 發行 午到鳳城 城將稱以馬 皆放野 今日內難以騎往柵門云 不得已留宿於攔頭扈廷設家 是日 行五十里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뜰 무렵 길을 떠나 오후에 봉성(鳳城)에 도착했다. 성장(城將)이 말을 모두 들판에 방목했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말을 타고 책문(柵門)에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할 수 없이 난두(攔頭) 호정설(扈廷設)의 집에 유숙했다. 이 날 50리를 갔다.

## 十六日

晴 乍明 發行 到柵門 安宣傳世泰 畫員盧泰鉉 聞其親訃 發喪令人慘患 午時出柵 到溫井 日未晡矣 恐渡江似涉 深夜仍爲止宿 是日 行七十里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뜨자 길을 떠나 책문(柵門)에 도착하였다. 선전(宣傳) 안세태(安世泰)·화원(畫員) 노태현(盧泰鉉)은 아버지 부고를 듣고 발상(發喪)하니, 보는 사람을 슬프게 하였다. 오시(午時)<sup>204</sup>에 책문(柵門)을 나와 온정(溫井)에 도착하니, 포시(晡時)가 못되었다. 강을 건너다 빠질까 염려되어 밤이 깊어 그대로 유숙했다. 이 날 70리를 갔다.

## 十七日

未明 發行 早飯於九連城 舟渡中江 到鴨江 灣尹李令挺周設幕以待 入幕少話 朔州府使 白守一 龍川府使黃壽聃來見 從南門 入館於禦權軒東 別書金鼎九家 見十二日所出家書 正使聞其孳姪妻訃 書狀聞其獨子喪 哀號過度

날씨는 맑았다. 해가 뜨기 전에 길을 떠나 구연성(九連城)에서 아침밥을 먹고 배로 중강(中江)을 건너 압강(鴨江)에 이르렀다. 만윤(灣尹) 이정주(李挺周)가 막사(幕舍)를 잘 설치해 놓고 맞아 주어 막사(幕舍)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삭주부사(朔州府使) 백수일(白守一), 용천부사(龍川府使) 황수담(黃壽聃)이 찾아와서 만났다. 남문(南門)을 따라 어권헌(禦權軒) 동쪽으로 들어가 별서(別書) 김정구(金鼎九) 집에 유숙했다.

12일에 집에서 보낸 편지를 보았다. 정사(正使)는 서질부[孳姪妻]의 부고를 듣게 되었고, 서장(書狀)은 독자(獨子)가 죽은 것을 알게 되어 매우 슬퍼하며 통곡함이 예(禮)에 지나칠 정도였다.

204) 오후 11 시부터 1 시까지를 말한다.

정사(正使)와 함께 길을 떠나 다른 곳에 도착하였다. 저녁에 석령(碩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이 날 60리를 갔다.

날씨는 맑았다. 서장(書狀)은 해뜨기 전에  
**18일** 먼저 길을 떠났고, 나와 정사(正使)는 아침밥을 먹은 후에 통군정(統軍亭)에 올라 보았다. 드디어 길을 떠나 소곶(所串)에서 점심을 먹고, 포시(晡時)에 양책(良策)에 도착하였다. 고을원[主倅]이 대(臺) 위에다 화전(花煎)을 부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정사(正使)는 청류당(聽流堂) 난간(欄干)에 기대어 앉았고, 나만 대(臺)에 올라 내려다 보며 서로 농담을 주고 받았다.

3~4 그루의 두견화가 꽃을 터트리기 전이었다. 아직 꽃이 피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데, 붉은 꽃이 비단을 깔아놓은 듯이 삼지(三池)에 비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한스러웠다. 이 날 밤은 청심당(淸心堂)에서 잤다. 이 날 70리를 갔다. 선천군관(宣川軍官) 안세휘(安世徽)가 마중 나와 주었다.

날씨는 맑았다. 해뜨기 전에 먼저 길을 떠  
**19일** 나 진산(鎭山)에서 아침밥을 먹고, 선천(宣川)에서 점심을 먹었다. 곽산(郭山)에 도착하여 차(茶)를 마시고, 저녁 때 정주(定州)에 도착하여, 고을원[主倅] 이세근(李世瑾)을 내동헌(內東軒)에 들어가 만나 보았다. 잠시 송백당(松栢堂)에 올랐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져 경치를 바라보며 즐길 수가 없었다.

가산군수(嘉山郡守) 송전(宋瑑)·은산현감(殷山縣監) 신여검(愼汝儉)이 와서 만났다. 이 날 150리를 갔다.

與正使 出至於其二處 夕與碩令打話 到夜深 是日 行六十里

### 十八日

晴 書狀鷄三鳴先發 馳向前路 余與正使 早飯後 登眺統軍亭 遂發行 中火於所串 晡到良策 主倅煮花於臺上 正使倚坐聽流堂 欄干 余獨登臺俯臨 相對戲謔 數株杜鵑 方向開 恨差先數日 不得見其紅錦倒映三池 夕宿淸心堂 是日 行七十里 宣川軍官安世徽 來迎

### 十九日

晴 未明 先發 早飯於鎭山 中火於宣川 到郭山 只供茶啖 夕到定州 入見主倅李令世瑾 於內東軒 暫登松栢堂 日已昏黑 不能遊矚暢懷 嘉山郡守宋瑑 殷山縣監愼汝儉 來見 是日 行一百五十里

二十日

晴 午雷雨 平明 發行 到嘉山 泰川縣監李時恒 魚川察訪吳守經 博川郡守朴東樞 前察訪白鴻逵 前縣監金垆 來見 中火後 冒雨作行 舟渡大定清川兩江 昏後入安州館 於紫電樓 肅川府使趙徹 以兼官來候於江邊 前監使李尙馥 虞候閔周憲 入見 兵使夜設饌以供 是日 行一百四十里

20일

날씨는 맑았다. 오후에는 우뢰가 치고 비가 내렸다. 해가 뜰 무렵 길을 떠나 가산(嘉山)에 도착했다. 태천현감(泰川縣監) 이시항(李時恒)·어천찰방(魚川察訪) 오수경(吳守經)·박천군수(博川郡守) 박동추(朴東樞)·전찰방(前察訪) 백홍규(白鴻逵)·전현감(前縣監) 김후(金垆)가 와서 만났다. 점심을 먹은 후 비를 무릅쓰고 길을 떠나 배로 대정(大定)·청천(淸川) 두 강을 건너 어두워진 뒤에 안주(安州)에 도착하여 자전루(紫電樓)에 묵었다.

숙천부사(肅川府使) 조경(趙徹)이 겸관(兼官)으로 와서 강변(江邊)에서 기다렸다. 전감사(前監使) 이상복(李尙馥)과 우후(虞候) 민주헌(閔周憲)이 찾아와 만났다. 병사(兵使)가 밤에 음식을 마련하여 주었다. 이 날 140리를 갔다.

二十一日

晴 晚食後 發行 晡到肅川 府使趙徹入見 是日 行六十里

21일

날씨는 맑았다. 늦게 밥을 먹고 점심 때 짬 숙천(肅川)에 도착하였다. 부사(府使) 조경(趙徹)이 와서 만났다. 이 날 60 리를 갔다.

二十二日

晴 平明 發行 中火於順安 縣監李範之入見 晡時到普通門 方伯李光仲先來 門樓以迎 與正使上樓 少話 遂乘輜入館 三登縣令白以綯 永柔縣令宋相維 及主倅金相勛 並入見 禮山棘人英逸 以事已來營中 亦來見 是日 行百十里

22일

날씨는 맑았다. 해뜰 무렵 길을 떠나 순안(順安)에서 점심을 먹었다. 현감(縣監) 이범지(李範之)가 와서 만났다. 포시(晡時)에 보통문(普通門)에 도착하니, 방백(方伯) 이광중(李光仲)이 먼저 와서 문루(門樓)에서 맞아 주었다. 정사(正使)와 함께 루(樓)에 올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드디어 가마를 타고 관사(館舍)에 들어가니 삼등 현령(三登縣令) 백이현(白以綯)·영유현령(永柔縣令) 송상유(宋相維), 그리고 고을원[主倅] 김상훈(金相勛)이 찾아와 만났다. 예산극인(禮山棘人) 영일(英逸)이 일 때문에 영중(營中)에 내려 와서 모두 만났다. 이 날 100리를 갔다.

## 23일

해가 뜰 무렵 길을 떠나 중화(中化)에 도착했다. 부사(府使) 조엄(趙儼)과 순천군수(順川郡守) 송홍구(宋洪龜)가 시관(試官)으로 와서 모두 만났다. 오시(午時)에 황주(黃州) 땅에 이르자, 김태윤(金兌潤)·조상현(趙尙賢) 등이 천막을 길가에 설치하고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간절히 청하므로 잠시 머물렀다. 정사(正使)도 자리에 앉고 나도 걸음을 멈추고 함께 앉아 술상을 대해 술을 마셨다.

부(府)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목사(牧使) 이덕하(李德夏)·감사(監使) 유성추(柳星樞)·우후(虞候) 유징(柳徵)이 함께 찾아와 모두 만났다. 본주(本州)의 사인(士人)과 상현(尙賢)의 제족(諸族), 풍천(豐川)에 사는 종인(宗人) 등 지난 겨울에 만났던 자들이 혹은 길에 나와 맞이하기도 하고, 혹은 관사(館舍)에 찾아와 만났다.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포시(晡時)에 서둘러 떠나 초저녁에 봉산(鳳山)에 도착했다. 군수(郡守) 이세형(李世馨)이 찾아와 만났다. 이 날 140리를 갔다.

## 24일

날씨는 맑았다. 해뜨기 전에 길을 떠나, 검수(劍水)에서 아침밥을 먹고 서흥(瑞興)에서 점심을 먹었다. 현감(縣監) 신무일(愼無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길을 재촉하여 총수(葱秀)에 도착하여 바람이 불었지만 옥유천(玉溜泉)가에 자리를 잡았다. 두견화가 활짝 피어 흐르는 냇물이 붉은 색으로 어룬 거렸다.

토산현감(兎山縣監) 최익가(崔翼家)와 수안군수(遂安郡守) 정지(鄭智)가 찾아와 만나며 간단히 차를 준비하여 마셨다. 수레를 재촉하여 초저녁에 평산(平山)에 도착했다. 부사(府使) 박기조(朴起祖)가 찾아와 만났다. 이 날 170리를 갔다.

## 二十三日

平明 發行 到中和 府使趙儼及順川郡守宋洪龜 以試官來到 並入見 午到黃州地 金兌潤 趙尙賢輩 設幕路傍 略備酒肴 懇邀少留 正使爲坐余光色 亦停駕同座 對床行酒而罷 入將府牧使李德夏 監使柳星樞 虞候柳徵 並來見 本州士人 及尙賢諸族 豐川宗人輩 前冬來見者 或邀於路傍 或入見館所甚多 不能盡記 晡時催發 初昏抵鳳山郡守李世馨入見 是日 行一百四十里

## 二十四日

晴風 未明 發行 朝飯於劍水中火於瑞興 與縣監愼無逸少話 促行到葱秀 冒風坐玉溜泉上 杜鵑盛開 川流映紅 兎山縣監崔翼家 遂安郡守鄭智 來見 略進茶啖 促駕而行 初昏入平山 府使朴起祖入見 是日 行一百七十里

## 二十五日

夜雨 鷄三鳴 發行 平明 到金川 主倅金啓煥有病 入見於衙內 白川郡守尹得仁 出站來見 午到松都 經歷李國休 來見 中火後 歷拜留守閔台鎮厚 於三節軒 晡時 到長湍 略進茶啖 夕渡臨津 俞生楫 及俞德咸兄弟 來候 舟上歷入花石亭 見李生館 初昏入坡州 牧使金夢瑞 入見 是日 行一百七十里 伴主人朱三吐伊 來候

## 二十六日

晴 鷄鳴 發行 早飯於高陽 交河縣監鄭希先 以兼官來見 前萬戶李東錫 來迎於昌陵橋外 戶曹色吏 金莫金 刑曹色吏 金世光 亦迎謁 巳時到弘濟院 德必宗甫 立之 正則 設幕以待 相對於經年 睽離之餘 忻喜不可狀 打話移時 遂踰沙峴 到京營 前入座與依幕待 正使之來 同入闕 復命

밤에 비가 내렸다.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나

**25일** 해가 뜰 무렵 금천(金川 : 牛峯)에 도착했다.

고을원[主倅] 김계환(金啓煥)이 병환이 있어 아문(衙門) 안으로 들어가 만났다. 배천군수(白川郡守) 윤득인(尹得仁)이 역사(驛舍)를 떠나려 할 때 와서 만났다. 오시(午時)에 송도(松都)에 이르렀다. 경력(經歷) 이국휴(李國休)가 찾아와 만났다.

점심을 먹고 나서 유수(留守) 민진후(閔鎮厚)를 삼절헌(三節軒)으로 찾아 뵙고, 포시(晡時)에 장단(長湍)에 도착하여 간단히 차를 준비하여 마셨다. 저녁 때 임진강(臨津江)을 건넜다. 유楫(俞楫)과 유덕함(俞德咸) 형제가 찾아와 만났다. 배를 타고 건너 화석정(花石亭)에 가서 이관(李館)을 만났다. 초저녁에 파주(坡州)에 도착했다. 목사(牧使) 김몽서(金夢瑞)가 찾아와 만났다. 이 날 170리를 갔다.

반주인(伴主人) 주삼토이(朱三吐伊)가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다.

날씨는 맑았다.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나 고

**26일** 양(高陽)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교하현감(交

河縣監) 정희선(鄭希先)이 겸관(兼官)으로 찾아와 만났다. 전만호(前萬戶) 이동석(李東錫)이 창릉교(昌陵橋) 밖까지 마중나와 주었다. 호조색리(戶曹色吏) 김막쇠(金莫金), 형조색리(刑曹色吏) 김세광(金世光)도 마중나와 뵈었다.

사시(巳時)에 홍제원(弘濟院)에 도착하니 덕필(德必)·종보(宗甫)·입지(立之)·정칙(正則)이 막사(幕舍)를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1년이 지나서 만나는 것이고 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사현(沙峴)을 넘어 경영(京營) 앞에 도착하여 장막 속에 들어가 앉아 정사(正使)가 오기를 기다려 함께 대궐에 들어가 복명(復命)하였다.

여 백

연행시  
(燕行詩)

여 백

高陽途中

離筵客散動征驂  
畫角聲寒酒未酣  
馬首水程遙塞北  
眼中山色失終南  
異邦專對才何有  
王事奔忙分所甘  
昕夕候班今遠隔  
戀君微悞最難堪

1. 고양(高陽)으로 가는 길에

전별(錢別) 자리 길손들 흩어지자 말을 재촉하니<sup>1)</sup>  
썰렁한 태평소 소리 술도 취하지 않네.  
말머리 가야할 빙판 길 아스란 변방 북녘인데  
보이나니 산색(山色)이나 종남산(終南山)<sup>2)</sup>은 찾을 수 없네.  
오랑캐와의 외교라 무슨 재주 있으랴만  
분망(奔忙)한 국사(國事)<sup>3)</sup>이기에 소임을 달게 여긴다.  
아침 저녁<sup>4)</sup> 대하던 신료(臣僚)들<sup>5)</sup> 이제 멀어지니  
임금 그리는 작은 정성<sup>6)</sup> 실로 견디기 어려워라.

次

鷄鳴驛子理行錄

2. 차운(次韻)하다.

닭 울음소리에 역자(驛子)가 행록(行錄)을 꾸려 주다.

靑石洞

兩山如束一川回  
十里崎嶇石路開  
遺恨至今丙子歲  
此中空遺虜兵來

3. 청석동(靑石洞)<sup>7)</sup>에서

두 산 맞닿은 곳에 한 냇물 굽돌고  
구불구불<sup>8)</sup> 십리에 돌길 뻗어 있네.  
병자년(丙子年)<sup>9)</sup>의 한(恨) 이제까지 남아 있어  
부질없이 오랑캐 군사 예까지 왔었지.

1) 정참(征驂)은 여정(旅程)에 나선 말, 즉 사신을 실은 수레의 말을 뜻한다.  
2) 임금님 계신 도성(都城), 즉 한양(漢陽)을 가리킨다.  
3) 왕사(王事)는 임금의 일, 곧 국사(國事)를 뜻한다.  
4) 혼석(昕夕)은 아침과 저녁의 뜻으로 조석(朝夕)과 같다.  
5) 후반(候班)은 후반(候班)으로도 쓰는데, 임금을 뵈는 때의 차례, 즉 문무백관, 또는 반열(班列)을 같이 했던 신료(臣僚)라는 뜻으로 조정의 신하들을 지칭한다.  
6) 미곤(微悞)은 하찮은 정성, 미성(微誠)이라는 뜻이다.  
7) 개성(開城)에 있는 고을 이름으로 순조 4년(1804) 청석진(靑石鎭)이 있었다.  
8) 기구(崎嶇)는 산길이 험악한 모양, 처세하기 어려운 모양, 세상살이가 어려운 모양 등을 나타낸다.  
9) 병자세(丙子歲)는 청 태종이 인조 14년(1636년) 우리의 척화론(斥和論)을 이유로 10만의 대병(大兵)으로 내침했던 병자호란(丙子胡亂)을 가리킨다.

4. 금릉(金陵)<sup>10</sup>고을 원님<sup>11</sup> 김명중(金明仲)<sup>12</sup>과  
배천(白川)고을 원님 서퇴숙(徐退叔)<sup>13</sup>이 영  
수루(暎水樓)에서 모이기로 하였다. 이에 서  
장관(書狀官)과 한잔하며<sup>14</sup> 판상운(板上韻)<sup>15</sup>  
에 주필(走筆)로 차운(次韻)하다.<sup>16</sup>

金陵倅金明仲 與白川倅  
徐退叔 要會於暎水樓 仍  
與書狀小酌 走次板上韻

금릉(金陵)은 명승지로 이름난 고을  
날 저물자 길손의 수레<sup>17</sup> 비로소 잠시 머물었네.  
마을은 고기 비늘처럼 언덕에 의지했고  
바위위는 그림 장지인양 맑은 강을 빙 둘러쌌네.  
아전들은 진작 걸맞는 정분을 나눌 줄 알고<sup>18</sup>  
태수(太守)들은 서로 맞아 함께 다락에 올랐네.  
진중한 한 잔 술로 이야기꽃 피우니  
취중(醉中)이라 나그네 시름 모두 잊겠네.

金陵形勝號名州  
日暮征軺初暫留  
村疊魚鱗依短岸  
岩開畫障繞清流  
吏人尙識曾分竹  
太守相邀共倚樓  
珍重一杯成小話  
醉中忘却客中憂

#### 5. 성여(聖輿)<sup>19</sup>의 작품에 차운하다.

次聖輿

천하<sup>20</sup> 명승이라 말들 하는 금릉(金陵)<sup>21</sup>에서  
서쪽으로 가던 말울음 잠시 머물었네.

海區名勝說金州  
西去鳴驄爲暫留

10) 옛 김포현(金浦縣)의 속군(屬郡)이다.

11) 졸(倅)은 고을원, 군수(郡守)를 말한다.

12) 김계환(金啓煥)으로 명중(明仲)은 그의 자(字)이다. 당시 금천(金川)의 고을원이었다.

13) 서종념(徐宗念)으로 퇴숙(退叔)은 자(字)이다. 그는 당시 배천(白川)의 고을원이었다.

14) 소작(小酌)은 간단히 한 잔한다는 뜻이다.

15) 영풍루(暎水樓) 판액(板額)에 걸린 제영시(題詠詩)의 운(韻)을 뜻한다.

16) 주차(走次)는 주필(走筆)로 차운(次韻)한다는 뜻이다.

17) 정초(征軺)는 나그네의 수레인 초현(軺軒)·초거(軺車)로 한 마리의 말이 끄는 가볍고 작은 수레를 말한다.

18) 분죽(分竹)은 죽마고우(竹馬故友)의 정분을 나눈다는 뜻으로 모시는 주인은 달라도 신분상의 동질성으로 나아가 주인 덕에 흥청거림의 정을 나눔을 말한다.

19) 성여(聖輿)는 신석(申晳 : 1681~?)의 자(字)로, 그는 부사(府使) 서화(瑞華)의 아들이다. 숙종 44년(1728) 정시문과에 급제하고 다음해 동지사(冬至使)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20) 해구(海區)는 사해(四海), 온 천하를 가리킨다.

21) 금주(金州)는 금릉(金陵)의 다른 이름이다.

山擁翠屏迎檻立  
湖鋪澄練繞村流  
皇華大筆回瀾石  
太守深盃暎水樓  
祗是吾行無好意  
終南矯首摠離憂

산은 푸른 병풍처럼 난간 앞에 섰고  
호수는 비단처럼 마을을 둘러네<sup>22)</sup>.  
물가에 빙 두른 돌마다<sup>23)</sup> 중국의 명필이요  
영수루(暎水樓)라! 원님의 넘치는 술잔이로다.  
다만 우리 일행 좋은 뜻 없어  
종남산(終南山) 고개 돌리니 이별의 근심 뿐<sup>24)</sup>.

### 鳳城途中 次書狀韻

### 6. 봉황성(鳳凰城)<sup>25)</sup> 도중(途中)에 서장관(書狀官)의 운(韻)에 차운(次韻)하다.

平明北渡鴨江阜  
已覺胡塵汚我袍  
暮稅征驂休靄幕  
夜防猛虎列槍刀  
山形峯嶺分燕界  
人語啁啾類犬嗥  
荒店寒燈無寐坐  
僕夫愁道曉風號

날 밝자<sup>26)</sup> 북으로 압록강(鴨綠江) 건너자니  
오랑캐 먼지 내 도포(道袍) 더럽히누나.  
저물어 말 안장 내리고 취막(靄幕)<sup>27)</sup>에서 쉬며  
밤으로는 맹호(猛虎) 막느라 창과 칼을 벌려 놓는다네.  
높고 험한<sup>28)</sup> 산세(山勢) 국경 이루고  
오랑캐 말소리 재잘재잘<sup>29)</sup> 개 짖는 소리 같네.  
낡은 주막<sup>30)</sup> 찬 등불 아래 앉아 잠 못 이루니  
마부들 새벽 바람 사납다고 걱정들 하네<sup>31)</sup>.

道一作懷

‘도(道)’는 ‘거(懷)’라고도 쓴다

22) 요촌류(繞村流)는 마을을 빙 둘러 흐른다는 뜻이다.

23) 회란석(回瀾石)은 물가에 빙 둘러 있는 돌을 말한다.

24) 총리우(摠離憂)는 이별의 시름을 나타낸다.

25) 봉성(鳳城)은 중국 요동(遼東)에 있는 지명(地名)중 하나이다.

26) 평명(平明)은 새벽, 여명을 뜻하며 평단(平旦)이라고도 한다.

27) 모직으로 만든 천막으로 몽고인들의 천막과 같은 형태이다.

28) 줄률(峯嶺)은 산이 높고 험한 모양을 나타내며, 울줄(崔率)이라고도 한다.

29) 주추(啁啾)는 악기 소리가 서로 섞여 들리는 소리를 형용한 것으로 새가 지저귀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30) 황점(荒店)이란 거칠고 낡은 주막을 뜻한다.

31) 수도(愁道)는 걱정스럽게 말하는 것을 나타낸다.

7. 매옹(枚翁)<sup>32</sup>의 배민시(排悶詩)<sup>33</sup>에 차운(次韻)하다.

次枚翁排悶韻

연산(燕山)이라! 가도 가도 갈 길은 멀기만 한데  
 여정의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네.  
 잠들자 자식들 생각 자주 꿈을 꾸게 되고  
 아득한 이역(異域)에서<sup>34</sup> 길이 임[君] 그리는 시름에 젖  
 노라.  
 하인들 비용 헤아려 떨감과 기름 사들이고  
 탐욕스런<sup>35</sup> 역관(譯官)<sup>36</sup>은 종이와 부채 사 모으네.  
 이번 행차 모두가<sup>37</sup> 고통스러움을 말하는데  
 어느 때 압록강 배 타고 돌아들 가리오.

燕山去去路悠悠  
 客裏光陰似水流  
 枕上頻成思子夢  
 日邊長結戀君憂  
 廚人費度柴油買  
 衙譯貪多紙扇求  
 到底茲行皆苦說  
 何時歸渡鴨江舟

8. 압록강(鴨綠江)을 건넌 후 산야(山野)에 나무  
 가 울창하되<sup>38</sup> 유독 소나무를 쓰다듬더니 무  
 녕령(無寧嶺)에 이르자 암석(巖石) 사이에 몇  
 그루가 있었다. 서장관(書狀官)이 이에 대해  
 읊은 시운(詩韻)을 차운(次韻)하다.

渡江以後 山野樹木蔥鬱  
 而獨撫松木 到無寧嶺巖石  
 間 有數株松 書狀有吟 仍  
 次其韻

정정(亭亭)한<sup>39</sup> 두어 그루 소나무 추위도 아랑곳 없이<sup>40</sup>

數樹亭亭傲歲寒

32) 매옹(枚翁)은 청나라의 시인 원매(袁枚 : 1656~1737)로 자는 자재(子才), 호는 간재(簡齋)이다. 전당인으로 소창산(小倉産) 수원(隨園)에 우거하였으므로 세칭 수원선생(隨園先生)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명나라 말기의 낭만문학사조를 매듭짓고 성령설을 주창하기도 하였다. 만년에는 창산거사, 혹은 수원노인이라 자호하였다. 문집으로 『소창산문집 小倉山文集』이 있고, 시화(詩話)에 『수원시화 隨園詩話』가 있다.

33) 배민(排悶)이란 마음속의 번민을 물리친다는 뜻으로 두보(杜甫)의 시(詩) 강정(江亭)에 “故林歸未得 排悶強裁詩”이란 구절이 있다.

34) 일변(日邊)은 하늘 가, 먼 변방, 임금, 혹은 고향과 멀리 떨어짐을 상징한다.

35) 탐다(貪多)는 탐욕스러운, 탐심이 많다는 뜻으로, 당시 역관(譯官)들은 일정한 봉록(俸祿)이 없어 사행(使行) 할 때 능력껏 일정 수입을 챙기는 것을 눈감아 주었다.

36) 아역(衙譯)은 관아(官衙)에 딸린 역관(譯官)으로, 여기서는 사신길에 동행하던 통역관을 말한다.

37) 도저(到底)는 ‘이르는 곳마다’의 뜻이다.

38)葱鬱(蔥鬱)은 푸르고 울창하거나 무성하게 잘 자라 뾰뾰한 모양을 나타낸다.

39) 정정(亭亭)은 나무가 곧게 서 있는 모양으로 정연(亭然), 정직(亭直)과 통한다.

朔風遼雪幸平安  
 千山木脫蕭條色  
 獨也青青入眼看

북풍[朔風]한설[遼雪]<sup>41)</sup>에도 평안하여라.  
 앞 다한 온 산의 나무<sup>42)</sup> 쓸쓸한데  
 독야청청(獨也青青)<sup>43)</sup> 너만이 우뚝하구나.

曉發狼子山 次枚翁韻

清晨治辦戒廚人  
 輜裏深深馱病身  
 邊塞行程當暮歲  
 燕山節候近新春  
 沙籠引駕纜通險  
 車軌爭途亂起塵  
 萬里間關辛苦足  
 馬前郵卒亦相親

9. 새벽에 낭자산(狼子山)<sup>44)</sup>을 출발하며 매옹(枚翁)의 시(詩)에 차운(次韻)하다.

새벽녘에 계산하고<sup>45)</sup> 하인들을 경계하며  
 가마 속 깊숙이 병든 몸 실었네.  
 북방의 변새(邊塞)길 때는 선달인데<sup>46)</sup>  
 연산(燕山)의 절후(節候)는 새봄에 가깝구려.  
 초롱불로 수레를 인도하여 겨우 험로(險路)를 벗어났고  
 못 수레<sup>47)</sup> 길을 다투니 어지러이 먼지 인다.  
 만리(萬里) 험한 길 고통도 많은데  
 파발마(擺撥馬) 앞 역리(驛吏)<sup>48)</sup>들 서로 아는 체하네<sup>49)</sup>.

到冷井 卸馬坐輜而食 口  
 號示正使

10. 냉정(冷井)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sup>50)</sup> 가마에  
 앉아 먹으며 구호(口號)<sup>51)</sup>하여 정사(正使)에  
 게 보이다.

- 40) 오세한(傲歲寒)은 추운 날씨를 아랑곳 없이 견딘다는 뜻으로,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의 시화(詩化)이다.
- 41) 요설(遼雪)은 광야에 아스라히 휘날리는 눈으로 요동 땅에 내리는 눈을 말한다.
- 42) 목탈(木脫)은 나뭇잎이 다 진 앙상한 나무를 말한다.
- 43) 독야(獨也)는 홀로라는 뜻으로, 이때 ‘야(也)’는 조어(調語)로 앞의 시어(詩語)의 어감(語感)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 44) 요동성(遼東城) 청산령(靑山嶺) 넘어 있는 산 이름이다.
- 45) 치변(治辨)은 다소려 분별하거나 소요경비 등 일체를 정산함을 뜻한다.
- 46) 모세(暮歲)는 한 해의 끝, 저문 해를 말한다.
- 47) 거궤(車軌)는 수레의 바퀴를 말한다.
- 48) 우졸(郵卒)은 역졸(驛卒), 역리(驛吏), 우리(郵吏)를 말한다.
- 49) 상친(相親)은 서로 친근한다는 뜻으로, 곧 중국 관문(關門)의 역리(驛吏)들과 저들 파발마(擺撥馬)끼리 수인사하는 것을 뜻한다.
- 50) 사마(卸馬)는 말에서 내려 말의 짐을 풀고 쉬게 함을 말한다.
- 51) 시문(詩文)을 즉흥적으로 읊조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즉흥구호(卽興口號)를 말한다.

황원(荒原)에 말을 놓고 수레에 앉아 생각하니  
 도중에 좋은 집 지어 사는 걸 보았네.  
 방풍한 창문엔<sup>52)</sup> 바람 차나<sup>53)</sup> 동지(冬至)<sup>54)</sup> 후요  
 부엌<sup>55)</sup>에 오르는 찬 연기 해는 점심<sup>56)</sup> 때라.  
 요리사 칼솥씨 뿔내 간출한 반찬 만들고  
 오랑캐 아이들 함지박<sup>57)</sup> 들고 막 잡은 고기를 파네.  
 여기서 오늘 밤 묵기에 합당커늘  
 하필 수고로이 주막을 빌릴 것인가.

放馬荒原坐小車  
 路中看作好家居  
 氈窓風冽陽生後  
 溪竈烟寒日午初  
 廚子持刀營小膳  
 胡雛提榼賣新魚  
 此間亦合今宵宿  
 何必辛勤借店廬

### 11. 주필산(駐蹕山)<sup>58)</sup>에서

### 駐蹕山

천하 통일을 등한하지 않고서<sup>59)</sup>  
 어찌자고 군사를 수고롭게 요동(遼東)까지 출병했나.  
 당시에 최후 승리<sup>60)</sup> 이루지도 못하면서<sup>61)</sup>  
 천년<sup>62)</sup> 후에 공연히<sup>63)</sup> 주필산(駐蹕山)이란 이름만 남겼네.

一統山河不等閒  
 勞軍何事出遼關  
 當時未遂窮兵計  
 千載空留駐蹕山

52) 전창(氈窓)은 외풍(外風)을 막기 위해 담요 등으로 가린 창을 말한다.

53) 풍冽(風冽)은 바람이 몹시 찬 것을 뜻한다.

54) 양생(陽生)은 동지(冬至) 이후 양기(陽氣)가 퍼짐을 뜻하는데, 음양오행에 동지(冬至) 후에는 일양(一陽)이 생(生)한다고 했다.

55) 계조(溪竈)는 부엌, 주방을 말한다.

56) 일오(日午)는 한낮, 정오를 말한다.

57) 제합(提榼)은 술그릇·물통에 고기를 잡아 담고 다니는 것을 말한다.

58) 주필(駐蹕)이란 임금의 행차 때 도중에 거가(車駕)를 잠시 머무르거나 숙박함을 뜻하는데, 당나라 태종(太宗)이 고구려를 침략할 때 요동(遼東)의 봉황산성(鳳凰山城)에서 주필(駐蹕)한 바 있어 그 산을 주필산(駐蹕山)이라 불렀다.

59) 부등한(不等閒)은 한가롭지 않다는 뜻이다.

60) 궁병계(窮兵計)는 용병술이 모자람을 뜻한다.

61) 미수(未遂)는 '이루지 못한다'는 뜻으로 당 태종의 고구려 침략이 안시성(安市城) 싸움의 패배로 결국 이루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62) 천재(千載)는 천년 세월, 오랜 동안의 뜻이다.

63) 공류(空留)는 '부질없이 남기다', '공연히', '숙절없이 남기다'의 뜻이다.

遼東舊城

嵩墉千雉盡崩頽  
憶昔經營費萬財  
可惜陽秋征戰地  
胡兒騎馬販商回

惜一作恨

12. 요동(遼東)의 옛성(舊城)

천 길<sup>64</sup> 높은 성첩(城堞)도<sup>65</sup> 다 무너지고  
옛날 이 성(城) 경영에 만금(萬金)을 소비했다 말 기억난다.  
가석(可惜)<sup>66</sup>하여라! 옛 전쟁 터 양추(陽秋)<sup>67</sup>  
말탄 오랑캐 아이들[胡兒]장사하고<sup>68</sup> 돌아오네.

‘석(惜)’을 ‘한(恨)’이라고도 한다.

華表柱

華表柱空鶴不歸  
遼陽或物又今非  
書生感慨無窮意  
立馬荒城對落暉

13. 화표주(華表柱)

화표주(華表柱)라! 속절없이 학(鶴)도 아니 돌아오는데<sup>69</sup>  
요양(遼陽)의 꾀이한 물건<sup>70</sup> 이제껏 잘못 전해왔구나.  
서생(書生)이 감개(感慨)하는 무궁한 뜻은  
황성(荒城)에 말 세우고 낙조(落潮)를 바라봄이러오.

次書狀韻

向晚驅車古堞東

14. 서장관(書狀官)의 시(詩)에 차운(次韻)하다.

느지막이 수레를 옛 성[古堞] 동쪽으로 몰아가니

64) 1장(一丈)을 도(堵)라 하고 3도(堵)를 치(雉)라고 한다. 그러므로 천치(千雉)의 성(城)은 둘레 3천장(三千丈)의 성(城)으로 높고 우람한 성(城)을 칭한다.

65) 송용(崇墉)은 높은 성(城)을 말한다.

66) 가석(可惜)은 가히 애석함을 뜻한다.

67) 중국 요동(遼東)의 지명(地名)중 하나이다.

68) 판상(販商)은 과일 등을 판다는 뜻이다.

69) 화표학귀(華表鶴歸)는 요동(遼東) 사람 정녕위(丁令威)의 고사(故事)에서 유래한 말이다. 『수신후기搜神後記』에 의하면, 젊어서 고향을 떠난 정녕위(丁令威)는 영허산에서 도를 닦아 신선이 되어 학으로 변신해 돌아와 성문 화표주(華表柱)에 집을 짓고 살았다 한다. 그러던 어느날 한 소년이 활을 겨누며 쏘려 하자 하늘로 날아 빙빙 돌며 “有鳥有鳥丁令威 去家千年今始歸 城郭如古人民非 何不學仙墳纍纍”라고 노래하며 하늘 높이 날아갔다고 한다. 학불귀(鶴不歸)는 학(鶴)은 가고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70) 혹물(或物)은 혹물(惑物), 즉 현혹된 물건이라는 뜻으로 화표주(華表柱)를 혹세무민(惑世誣民)하던 이단(異端)의 혹설(惑說)로 치부하였다.

싸늘한 요동(遼東) 뜰에는 바람도 많구나.  
 만나는 사람마다 말소리 다르나  
 지나는 점포마다 화폐는 같구나.  
 해 지는 낡은 절 밖으론 풍경소리<sup>71)</sup> 울려나고  
 지난 날 무너진 담 안엔 묘(墓)만 쓸쓸히 남았네.  
 천추(千秋)에 마지 않는<sup>72)</sup> 흥망(興亡)의 한(恨)  
 흐르는 태자하(太子河)<sup>73)</sup>처럼 다함이 없구려.<sup>74)</sup>

天寒遼野又多風  
 逢人箇箇聲音異  
 過肆家家貨寶同  
 落日磬鍾荒寺外  
 往時墳墓廢垣中  
 千秋衰衰興亡恨  
 太子河流共不窮

### 15. 요동(遼東) 별관에서

### 遼野

아득한<sup>75)</sup> 요동(遼東) 들이여! 바람수룩 끝이 없어<sup>76)</sup>  
 위 하늘은<sup>77)</sup> 땅과 맞닿았구려.  
 이 길이 막힌 곳 없다면<sup>78)</sup> 신선(神仙)의 뗏목처럼<sup>79)</sup>  
 내 두루두루<sup>80)</sup> 서천(西天)까지<sup>81)</sup> 가고 지고.ㄴ

茫茫平野望無倪  
 上有蒼穹接地低  
 此路仙槎如不阻  
 周遊吾欲到天西

### 16. 서장관(書狀官)의 주필산시(駐蹕山詩)에 차운 (次韻)하다.

### 次書狀駐蹕山韻

당나라 황제<sup>82)</sup> 어느 해 군사를 일으켜<sup>83)</sup>

唐帝何年大發兵

71) 경성(磬聲)은 풍경 소리를 말한다.

72) 곤곤(衰衰)은 곤곤(滾滾), 쇠없음이라는 뜻으로 옛말로 '니엄니엄'이라고 한다. 두보(杜甫)의 「登高」에 “不盡長江滾滾來”라는 구절이 있다.

73) 요동(遼東)의 물이름으로 혼하(渾河)와 합쳐 요하(遼河)로 흐른다.

74) 공불궁(共不窮)은 더불어 다함이 없음을 뜻한다.

75) 망망(茫茫)은 아득하고 아득하여 끝이 없음을 뜻한다.

76) 무예(無倪)는 끝이 없다는 뜻으로 무단(無端), 무애(無涯)와 통한다.

77) 창궁(蒼穹)은 푸른 하늘을 말한다.

78) 여불조(如不阻)는 “만약 막힘이 없다면”의 뜻으로 여(如)는 가정부사 약(若)과 같다.

79) 선사(仙槎)는 신선의 뗏목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행차를 그렇게 비유했다.

80) 주유(周遊)는 주유천하(周遊天下), 즉 거침없이 사방을 돌아다님을 뜻한다.

81) 천서(天西)는 하늘 서쪽, 하늘 끝을 뜻한다.

82) 당제(唐帝)는 당 태종을 뜻한다.

83) 하년대발병(何年大發兵)은 고구려 보장왕 4년(645, 당 태종 19) 고구려의 세력이 강대해지자 위협을 느낀 중국은 수나라 양제(陽帝)의 대원정을 비롯하여 수차 침범하였으나 실패하고, 당 태종 역시

親征遼左一孤城  
自誇海內行仁效  
謾得山阿駐蹕名  
嚴鼓停時悲念動  
踣碑豎處悔心生  
書生尙論千秋事  
感慨仍歌出塞行

몸소 요동(遼東)의 한 외로운 성(城)<sup>84)</sup> 치러 왔다.  
천하(天下)에 어진 정치 펼침을 본받으라고 자랑하며  
부질없이 산 언덕에<sup>85)</sup> 주필(駐蹕) 이름만 남겼네.  
북소리<sup>86)</sup> 울다 멎을 때 비장한 마음 일고  
비석 세운 곳에 '후회하는 마음도 생겼으리.  
서생(書生)들 이제껏 천추(千秋)의 역사만 논하다가  
감개(感慨)하여 출새곡(出塞曲)<sup>87)</sup>을 노래하네.

## 思家

去去長程驅使車  
胡山日隔彌雲居  
盆梅趁臘花應着  
頭髮經旬手未梳  
憶弟時看新畫障  
戀兒頻閱近傳書  
帳中驚起東歸夢  
猶臥遼陽滿子廬

## 17. 집을 생각하며

사신 수레 몰아<sup>88)</sup> 긴 여정(旅程) 가고 가노라니  
오랑캐 나라와 임 계신 곳<sup>89)</sup> 점점 멀어진다.<sup>90)</sup>  
선달<sup>91)</sup> 만난 분매(盆梅) 응당 꽃망울 맺었을 터인데  
나그네라 머리는 열흘이나 빗질도 못했다네.<sup>92)</sup>  
동생 생각 날 맨 새로 그린 족자(簇子)를<sup>93)</sup> 보고  
아이들 그리울 맨 근자(近者)에 보내온 편지 자주 읽는다.  
잠자리에선 고향 가는 꿈으로 자주 깨지만  
몸은 오히려 요동(遼東)의 만자(滿子) 집에<sup>94)</sup> 누웠다오.

육로군(陸路軍) 6만, 수로군(水路軍) 4만 3천을 친히 이끌고 내침해 왔는데, 여기서는 당 태종의 침 입을 말한다.

- 84) 고성(孤城)은 외로운 성, 즉 안시성(安市城)을 뜻하는데, 여기서 당 태종은 양만춘에게 패하여 돌아가고 말았다.
- 85) 산아(山阿)는 산 언덕을 말한다.
- 86) 엄고(嚴鼓)는 북을 둥둥 울려대는 것을 뜻한다.
- 87) 출새행(出塞行)은 출새곡(出塞曲), 즉 변방의 노래, 변새(邊塞)의 노래이다. 제목에 '곡(曲)·행(行)·인(引)·가(歌)·요(謠)···' 등이 있으면 악부체(樂府體) 작품이다.
- 88) 구사거(驅使車)는 사신의 수레를 몬다는 뜻이다.
- 89) 필운거(彌雲居)는 부모님, 임금이 계신 곳을 가리킨다.
- 90) 일격(日隔)은 날로 멀어지다, 또는 나날이 멀어진다는 뜻이다.
- 91) 진납(趁臘)은 선달로 접어든다는 뜻이다.
- 92) 미소(未梳)는 빗질하지 못하다, 또는 머리 손질을 못했다는 의미이다.
- 93) 신화장(新畫障)은 새로 그린 족자, 혹은 이역(異域)에서 새로 대하는 그림 같은 경치를 뜻한다.
- 94) 만자려(滿子廬)는 몽고인 풍습으로 지어진 집으로 요동(遼東)의 몽고인 숙소를 말한다.

18. 청석령(靑石嶺)에서 서장관(書狀官)의 운(韻)을 차운(次韻)하다.

靑石嶺次書狀韻

“새벽에 낭자산(狼子山) 아래를 출발하다”의 아래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當在曉發狼子山下

산은 깊고 수림(樹林)은 뻥뻥한데<sup>95)</sup>  
길은 험하고 돌은 첩첩(疊疊)하여라.<sup>96)</sup>  
말이 빙판이라 미끄러져서<sup>97)</sup>  
교자꾼[轎夫]<sup>98)</sup> 멍에 풀고<sup>99)</sup> 오르네.  
이 땅은 양(羊)의 창자처럼<sup>100)</sup> 구불구불하고  
평릉(平陵)은 새나 날아 넘을<sup>101)</sup> 험로(險路)로다.  
황혼녘에 높은 마루에 의지해 바라보며  
길이 탄식하노라! 가슴 어루만지며.

山深林鬱密  
路險石峻嶒  
馬足緣氷滑  
轎夫卸駕登  
羊腸應此地  
鳥道即平陵  
落日憑高望  
長嘆一撫膺

19. 심양(瀋陽)<sup>102)</sup>에서

瀋陽

아스라이 높은<sup>103)</sup> 성곽(城堞) 혼하(混河)<sup>104)</sup>의 갯에 섰는데  
곳곳의 누대(樓臺) 번쩍번쩍 하늘을 찌르네.<sup>105)</sup>  
수레가 유주(幽州)와 연산(燕山)<sup>106)</sup>을 달리니 말은 피땀  
을 흘리고<sup>107)</sup>

嵯峨粉堞混河邊  
處處樓臺影插天  
車服幽燕汗血馬

95) 울밀(鬱密)은 울창하고 뻥뻥함을 뜻한다.  
96) 준중(峻嶒)은 산이 높고 험한 모양을 나타낸다.  
97) 연빙활(緣氷滑)은 얼어붙어 미끄러짐, 또는 얼음으로 인하여 미끄러짐을 뜻한다.  
98) 교부(轎夫)는 교자꾼, 가마를 메는 사람을 나타낸다.  
99) 사가(卸駕)는 수레에서 말의 멍에를 푼다는 뜻으로, 길이 험해서 수레 대신 가마로 감을 의미한다.  
100) 양장(羊腸)은 양의 창자를 말하는데, 몹시 굽고 험한 길을 뜻한다. 구절양장(九折羊腸).  
101) 조도(鳥道)는 새가 다니는 길, 새나 날아 넘을 험한 길을 말한다. 박인범(朴仁範)의 「경주용삭사각 涇州龍朔寺閣」이라는 시(詩)에 “燈撼螢光明鳥道 梯廻虹影到崑崙”이라는 구절이 있다.  
102) 중국 요동성(遼東省)의 성도(省都)로 청나라 초기의 도읍이다. 옛이름은 봉천(奉天)이다.  
103) 차아(嵯峨)는 산이 높고 험한 모양을 나타낸다.  
104) 혼하(渾河), 요하(遼河)의 한 지류로 홍경·무순을 거쳐 봉천(奉天)의 남방을 지나 태자하(太子河)를 합쳐 요하로 흐른다.  
105) 창삽천(彰插天)은 번쩍번쩍 하늘을 찌를 듯 우뚝한 모양을 나타낸다.  
106) 유연(幽燕)은 지명(地名)으로 유주(幽州)와 연국(燕國)에서 유래하였다.

市通閩浙販珍船  
老翁自謂有三窟  
胡運誰道無百年  
緬憶寧陵未究業  
空念志士涕漣漣

저자는 복건(福建)과 절강(浙江)<sup>108</sup>으로 통하는데 배에서  
는 보물을 파네.

늙은 두목은 삼굴(三窟)<sup>109</sup>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누가 청나라 운수(運數)가 백년을 못간다 일렀던가.

효종(孝宗)<sup>110</sup>이 이루지 못한<sup>111</sup> 북벌정책(北伐政策) 생  
각하며<sup>112</sup>

속절없이 뜻 있는 선비 눈물만 흘리네.<sup>113</sup>

### 懷古有感 二首

### 20. 옛 일을 돌이켜 느껴워 2수(首)

(一)

(一)

先生節義凜秋昊  
尙憶幽囚北館辰  
有膝傲然不肯跪  
區區拜謝獨何人

선생(先生)<sup>114</sup>의 절의(節義) 가을 하늘보다 높아<sup>115</sup>

북채[北館]<sup>116</sup>에서 갇혔던 때를 생각한다.

무릎 꿇지 않던<sup>117</sup> 의연한 태도

구구히 굽실거리던 자 그 누구였더냐.

107) 한혈마(汗血馬)는 명마(名馬)의 이름으로 서역 지방에서 나는데, 피와 같은 땀을 흘린다는데서 유래하였다.

108) 민절(閩浙)은 지명(地名)으로 민(閩)은 복건성(福建省), 절(浙)은 절강성(浙江省)을 가리킨다.

109) 삼굴(三窟)은 효토삼굴(狡兔三窟)의 준말로, 교묘하게 잘 숨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시(詩)에서는 전술전략이 무궁무진함을 과시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110) 영릉(寧陵)은 조선의 효종(孝宗)과 그의 비(妃) 인선왕후(仁宣王后)의 능(陵)으로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에 있다.

111) 미구업(未究業)은 사업을 끝내지 못함을 뜻한다. 즉 병자호란으로 인조가 삼전도 수항단에서의 굴욕 이후, 청나라에 볼모로 있었던 효종의 북벌정책은 구호로만 끝났음을 나타낸다.

112) 면억(緬憶)은 지난 일을 회상한다는 뜻이다.

113) 연련(漣漣)은 눈물, 콧물이 주체할 수 없이 줄줄 흐르는 모양을 나타낸다.

114)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 1570, 선조 3 ~ 1652, 효종 3)을 지칭한다. 그는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 판서로서 비변사 당상을 겸하고 있으며, 화의(和議)를 극력 반대했음은 물론, 기초 중인 국서(國書)를 찢고 통곡하였다. 화의가 성립되자 심양(瀋陽)에 잡혀가 3년 동안 옥에 갇혀 갖은 심문을 받았으나 시종 뜻을 굽히지 않자 청나라 사람들도 그 충절에 감동되어 돌려 보냈다. 당시 옥 중에서 지은 창작집 『설교집 雪窖集』이 있다.

115) 늙추호(凜秋昊)는 가을 하늘 보다 늙연함, 또는 가을 하늘 보다 높고 위엄 있음을 나타낸 말이다.

116) 당시 청의 도읍이었던 심양(瀋陽)을 지칭한다.

117) 불궁궐(不肯跪)는 무릎 꿇지 아니함을 지칭한다.

오른쪽의 시(詩)는 청음선생(淸陰先生)을 읊은 것이다

右淸陰先生

(二)

(二)

만고(萬古)에 강상(綱常)<sup>118)</sup>을 지킨 세 분의 절사[三節士]<sup>119)</sup>

萬古綱常三節士  
追懷往事尚心驚

지난 일<sup>120)</sup> 생각하니<sup>121)</sup> 아직도 놀라울 뿐.

今朝皮幣遼陽路

예물(禮物) 바치려는 오늘 아침 요양(遼陽)의 길

駐馬西門不忍行

서문(西門)에서 말 멈추고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오.<sup>122)</sup>

오른쪽의 시(詩)는 삼절사(三節士 : 三學士)에 대해 읊은  
것이다.

右三節士

21. 정사(正使)의 시(詩)에 차운(次韻)하다.  
2수(首)

次正使韻 二首

(一)

(一)

맑은 새벽 옛 변성(邊城)에서 출발을 재촉하여<sup>123)</sup>

淸晨催發古邊城

짧은 해 추위 무릅쓰고<sup>124)</sup> 백리 길을 왔다오.

短日衝寒百里行

노하(蘆河)에서 말 먹이니<sup>125)</sup> 겨우 낮 때인데

秣馬蘆河纔向午

여보(旅堡)에서 말 안장 때니 이미 초경(初更)이로다.

稅鞍旅堡已初更

118)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 곧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말한다.

119) 오달제(吳達濟)와 윤집(尹集), 홍익한(洪翼漢) 등 삼학사(三學士)를 가리킨다. 인조 15년(1637) 삼전도 수항단에서의 항복 후 청나라의 요청에 의하여 척화파(斥和派)의 강경론자였던 삼학사가 잡혀가 처형된 사실을 시화(詩化)한 내용이다.

120) 왕사(往事)는 지난 일, 곧 삼전도 항례(降禮) 후 저들의 요청대로 소현·봉림 두 왕자를 볼모로 보내고, 척화파의 대표를 압송하여 처단한 일 등을 가리킨다.

121) 추회(追懷)는 거슬러 회고한다는 뜻이다.

122) 불인행(不忍行)은 차마 가지 못하거나, 차마 걸음을 옮기지 못함을 나타낸다.

123) 최발(催發)은 출발을 재촉함을 나타낸다.

124) 충한(衝寒)은 대단한 추위를 뜻한다.

125) 말마(秣馬)는 말에게 먹이를 준다는 뜻이다.

病深飲食尋常廢  
興到詩篇容易成  
小幕殘燈愁不寐  
臥看扇面計前程

병이 깊어 음식은 먹지 못하나  
흥이 나니 시편(詩篇)은 절로 이루어 지누나.  
작은 막사[小幕]가물대는 등불 시름겨워 잠 못 이루고  
누워서 부채를 보며 앞길을 가늠해 보네.<sup>126)</sup>

(二)

(二)

星輶前月發京城  
萬里關河不住行  
杳杳家山書久斷  
駸駸異域歲將更  
年來漸覺身痾重  
老去全無志事成  
茅屋數間清漢外  
休官歸臥待回程

지난 달 사신의 행차<sup>127)</sup> 서울을 떠나  
머나먼 변방 길 쉬지도 못했네.  
아득만한<sup>128)</sup> 고향 땅<sup>129)</sup> 소식조차 끊긴 지 오래고  
달려온<sup>130)</sup> 이역(異域) 땅 해도 곧 바뀌리.  
근자(近者)에 병이 점점<sup>131)</sup> 위중해 감을 깨닫겠고  
늙어가매<sup>132)</sup> 뜻하는 일<sup>133)</sup> 이름이 없네.  
청초한 한성(漢城) 밖 두어 칸 초가에서  
벼슬 내놓고<sup>134)</sup> 쉬고자 돌아갈 날이나 기다려 볼까.

次書狀韻

22. 서장관(書狀官)의 시(詩)에 차운(次韻)하다.

殊方節候臘冬深  
京國音書隔萬岑  
荒野晨行風透帳

타향의 절후(節候) 선달이라<sup>135)</sup> 한겨울인데  
서울[京國]소식 만산[萬岑]을 격하였도다.<sup>136)</sup>  
황량한 뜰 새벽길 바람은 장막을 뚫고<sup>137)</sup>

126) 계전정(計前程)은 앞길의 일정, 혹은 여정(旅程)을 헤아려 본다는 뜻이다.

127) 성초(星輶)는 먼 곳으로 가는 사신의 수레를 나타낸다.

128) 묘묘(杳杳)는 아득하고 아득함, 또는 몹시 아득함을 나타낸다.

129) 가산(家山)은 고국 산천, 고향 산천을 나타낸다.

130) 칩칩(駸駸)은 말이 달리는 모양, 일의 진행이 빠른 모양을 나타낸다.

131) 점각(漸覺)는 점차 깨닫다, 점점 느끼게 됨을 나타낸다.

132) 노거(老去)는 ‘늙어 감에’, ‘늙마에’의 뜻으로 대개 마흔 살 이후면 스스로없이 노자(老字)를 썼다.  
두시(杜詩)에 “老妻畫紙爲棋局 稚子敲針作釣鉤” 및 “親朋無一字 老去有孤舟”라는 구절이 있다.

133) 지사(志事)는 뜻한 일, 하고자 한 일을 말한다.

134) 휴관(休官)은 벼슬을 그만둔다는 뜻으로 궤관(掛冠)과 통한다.

135) 납동(臘冬)은 선달, 동지선달, 한겨울을 가리킨다.

136) 격만잠(隔萬岑)은 많은 산봉(山峰)을 격하였음이나, 머나먼 타향에서의 서신의 단절이 오래됨을 나타낸다.

137) 투장(透帳)은 장막을 뚫는다는 뜻으로, 세찬 바람을 묘사한다.

불 때지 않은 방에서<sup>138)</sup> 자노라니 이불엔 성애가<sup>139)</sup> 끼었네.

모래벌[沙場]엔 영웅(英雄)의 해골<sup>140)</sup> 수도 없이 많고  
나그네 길의 지사(志士) 마음 속절없이 애닦기만 하여라.  
아슴히 보이는<sup>141)</sup> 무려산(巫閭山)<sup>142)</sup> 옛 모습 그대로인데  
산머리 새벽달 흉금(胸襟)을 비추고 있네.

廢炕宵宿雪凝衾  
沙場無限英雄骨  
客路空傷志士心  
一髮巫閭依舊色  
山頭曉月照胸襟

### 23. 정사(正使)의 시(詩)에 차운(次韻)하다. 2수(首)

### 次正使韻 二首

(一)

연경(燕京)으로 가는 길 하늘에 잇닿아 멀기만 하고<sup>143)</sup>  
광활한 사막[大漠]에 이는 먼지 햇빛조차 뿌옇구나.<sup>144)</sup>  
용만(龍灣) 지경 언제쯤 벗어나 마이산(馬耳山)에 머물까  
구절양장 요하(遼河) 물은 어제 건넜다네.  
무려산(巫閭山) 수려하여 마음껏 구경하고<sup>145)</sup>  
장진(壯鎭)은 성(城)이 황폐하여 보는 눈 애잔하여라.<sup>146)</sup>  
무너진 명나라 조정 생각할 때마다<sup>147)</sup>  
동림당(東林黨)<sup>148)</sup> 싸움이 가장 고질이었네.<sup>149)</sup>

(一)

燕京一路接天長  
大漠飛塵日色黃  
灣界何時駐馬耳  
遼河昨日渡羊腸  
巫閭山秀留心賞  
壯鎭城荒觸目傷  
每念皇朝傾覆禍  
東林忍伐最膏肓

138) 폐갱(廢坑)은 무너진 방고래, 허물어진 방, 불 때지 않은 방, 곧 냉방을 말한다.

139) 설응금(雪凝衾)은 눈이 이불에 영김 모양, 방의 냉기와 체온으로 인해 성애가 서린 것을 나타낸다.

140) 영웅골(英雄骨)은 영웅의 해골로 치열했던 옛 전쟁터를 지나는 감회를 표현한 말이다.

141) 일발(一髮)은 한 가닥 머리칼을 놓은 것처럼 먼 산이 희미하게 보임을 형용한 말이다.

142) 무려산(巫閭山)은 태행산에서 북으로 뻗어간 요동성(遼東省) 유주의 진산(鎭山)이다.

143) 접천장(接天長)은 하늘에 맞닿은 듯 멀리 느껴짐을 말하는 것으로 지평선 끝까지 뻗어 있다는 뜻이다.

144) 일색황(日色黃)은 햇빛이 누렇게 보이는 것으로, 황사(黃砂)로 천지가 누렇게 보임을 나타낸 말이다.

145) 유심상(留心賞)은 마음 놓고 완상하거나 마음껏 구경함을 나타낸다.

146) 촉목상(觸目傷)은 보기에 애처로움, 볼수록 마음 상함을 나타낸다.

147) 경복화(傾覆禍)는 기울고 엎어지는 화(禍), 망국의 재앙을 나타낸다.

148) 동림(東林)은 명나라 말기 고헌성(顧獻成)과 고반룡(高攀龍)을 중심으로 한 정치 단체로 동림서당(東林書堂)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동림당(東林黨)이라 했다.

149) 최고황(最膏肓)은 가장 고칠 수 없는 고질적 병폐를 말한다.

## (二) 戲吟

嗟余一疾證源長  
 遠役由來日瘵黃  
 渴候定知由肺胃  
 醫治奈未潤心腸  
 寒冬且有風痰苦  
 瘴海專爲水土傷  
 意待明春還國日  
 休官只欲炳膏肓

## 追次正使渡江時韻 二首

## (一)

漠漠蘆林一路斜  
 胡風吹送數聲笳  
 微才只怪非專對  
 心上區區敢念家

## (二) 서러움에 읊음

아아 내 병이 깊은 줄 아니  
 머나먼 행역(行役)으로 날로 파리해 지네.<sup>150)</sup>  
 목마른 징후는<sup>151)</sup> 폐와 위에서 음을 알겠고  
 의원의 치료는 어찌하여 심장과 장을 윤택하게 못한담.  
 찬 겨울에는 풍(風)과 담(痰)으로 고생했고  
 장해(瘴海)에선 한바탕 수토병(水土病)으로<sup>152)</sup> 고생했다네.  
 내년 봄 환국(還國)하는 날 기다려  
 벼슬 쉬고 고향(膏肓)의 병이나 고쳐볼까나.<sup>153)</sup>

24. 정사(正使)가 강을 건널 때 쓴 작품에 차운  
(次韻)하다. 2수(首)

## (一)

막막(漠漠)한<sup>154)</sup> 갈대밭<sup>155)</sup> 외로운 길 빗겨 있고  
 북풍[胡風]에 실려오는 두어 가락 짓대 소리.<sup>156)</sup>  
 하찮은 재주라 소임도 다하지<sup>157)</sup> 못하는 처지에<sup>158)</sup>  
 마음으로나마 감히 집 생각이나 하라.<sup>159)</sup>

150) 유황(瘵黃)은 죄인이 옥중에서 기한(飢寒), 또는 고민으로 병이 들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여정(旅程)으로 인해 날로 병이 심해지고 파리해 감을 형용한 말이다.

151) 갈후(渴候)는 목마름 병의 징후로 당뇨병의 일종이다.

152) 수토상(水土傷)은 물과 흙으로 건강을 상한다는 뜻으로, 곧 지방 특유의 풍토병으로 몸이 상함을 나타낸 말이다.

153) 예고황(炳膏肓)은 고질병을 불사르다, 또는 고향의 병을 말끔히 치료한다는 뜻이다.

154) 막막(漠漠)은 아득하고 아득함, 또는 아스라히 펼쳐진 모양을 나타낸다.

155) 노림(蘆林)은 갈대 등 다년생 식물의 풀밭을 말한다.

156) 가(笳)는 화살을 만드는 대[竹]로 여기에서는 그 대로 만든 피리로 짐작된다.

157) 전대(專對)는 타국에 사신으로 가서 군명(君命)을 완수한다는 뜻으로 독대(獨對)함을 나타낸다.

158) 지괴(只怪)는 '다만 부끄러울 뿐'이라는 뜻이다.

159) 감념가(敢念家)는 감히 집 생각만 하라라는 뜻이다.

(二)

언덕 머리<sup>160)</sup> 찬 해는 쉬 기울고  
말 모는<sup>161)</sup> 소리에 젓대 소리도 어지러워라.  
내 마음 머나먼 사신 행차 가벼이 여기지<sup>162)</sup> 앓고<sup>163)</sup>  
몸 바쳐 나라 은혜에 보답하고자<sup>164)</sup> 할 뿐.<sup>165)</sup>

(二)

壘頭寒日易西斜  
牧馬聲中亂動笳  
不是吾心輕遠役  
將身只欲報邦家

25. 정사(正使)의 시(詩)에 차운(次韻)하다.

次正使韻

정월 초하루에 때 맞춰 북경(北京)으로 향하자니<sup>166)</sup>  
병든 몸 긴 여정(旅程)<sup>167)</sup> 고단함을 어이하리.  
연(燕)나라의 옛 지사(志士) 지금은 찾을 길 없으니  
천하(天下)의 흥망(興亡)을 누가 살필 것인가.<sup>168)</sup>  
이 몸은 언제쯤 돌아갈 날개 돌혀  
평생에 내 스스로 충성을 다하여 볼고.  
비긴 해 황원(荒原)에서 말을 쉬며<sup>169)</sup>  
시름을 달래려<sup>170)</sup> 술잔을<sup>171)</sup> 나누네.

催趁元朝向北京  
病軀其奈困脩程  
燕中意氣今無士  
天下興衰孰察情  
幾日身故生羽翼  
平生我自仗忠誠  
斜陽歇馬荒原上  
且爲寬愁進酒觥

160) 농두(壘頭)는 언덕 머리, 산 언덕을 나타낸다.  
161) 목마(牧馬)는 말을 친다는 뜻으로, 날이 저물자 목동들이 말을 몰아 오는 모습을 나타낸다.  
162) 경원역(輕遠役)은 먼 사신 길을 경솔히 여긴다는 뜻이다.  
163) 불시(不是)는 “~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시(是)는 심상적(心象的) 조어(助語)로 이하의 사실을 강조하여 불(不)에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164) 보방가(報邦家)는 국은(國恩)을 갚다, 보국(報國)의 뜻이다.  
165) 지욕(只欲)은 “다만 ~ 하고자 하다”라는 뜻이다.  
166) 최진(催趁)은 갈 길을 재촉한다는 뜻이다.  
167) 수정(脩程)은 긴 여정(旅程)을 말한다.  
168) 찰정(察情)은 정황을 살핀다는 뜻이다.  
169) 혈마(歇馬)는 말을 쉬게한다는 뜻이다.  
170) 관수(寬愁)는 시름을 달래다 또는 시름을 떨쳐 버린다는 뜻이다.  
171) 주굉(酒觥)은 술과 술잔을 말하며, 추주굉(追酒觥)은 술을 권한다는 뜻이다.

寧遠衛 見祖大壽牌樓 與  
書狀拈韻以賦

遼左名家赫世雄  
石樓千尺自銘功  
鏤鐫巧出天工外  
褒寵光生玉牘中  
業墜箕裘羞古月  
世移桑海染腥風  
千金棚設今何有  
峴首沈碑亦是空

26. 영원위(寧遠衛)<sup>172</sup>에서 조대수(祖大壽)<sup>173</sup>의  
비각(碑閣)을 보고 서장관(書狀官)과 더불어  
운자(韻字)를 짚어 시(詩)를 짓다.

요동(遼東) 명가(名家)의 뛰어난 영웅으로  
천 길 돌누각에 스스로 제 공(功)을 새겼다네.  
공교로운 솜씨는<sup>174</sup> 천공(天工)을 넘난 듯하고<sup>175</sup>  
칭찬과 총애는<sup>176</sup> 옥방(玉牘)<sup>177</sup> 가운데 빛나네.  
부조(父祖)의 업(業) 떨어뜨려<sup>178</sup> 오랑캐에게<sup>179</sup> 부끄럽고  
세상은 상전벽해(桑田碧海)로 변해 피비린내로 물들었네.  
천금(千金) 들여 만든 것 지금 어디 있느냐  
현산(峴山)에 세운 비(碑)도 잠긴지<sup>180</sup> 오래라오.

- 172) 영원위(寧遠衛)은 평안남도 영원군 지역에 있었다. 본래 고구려 지역이었는데, 후에 발해의 지역이 되었다가 여진(女眞)의 소거(所據)가 되었다. 세조 12년(1466) 영원진(寧遠鎭)을 두었다.
- 173) 조대수(祖大壽)는 명나라의 장수로 대릉하(大陵河)를 지키다가 실패하고 금주(錦州)에서 청나라에 항복하여 청나라 금주위총병(錦州衛總兵)이 되었다. 일명 조참장(祖參將)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 때 부친 조승훈(祖承訓)은 요동부총병으로 기병 3,000명을 거느리고 우리나라를 원병(援兵)한 바 있다. 영원성(寧遠城)에 그의 형 대락(大樂)의 패루(牌樓)가 함께 있으니 기록에 의하면, 증조 진(鎭), 조부 인(仁), 부 승훈에 이어 4대가 두루 무공(武功)을 떨쳤다고 한다.
- 174) 누각(鏤鐫)은 새긴다는 뜻이다.
- 175) 천공외(天工外)는 조물주의 신묘한 솜씨를 능가하다는 뜻으로, 천공을 넘나든다는 뜻이다.
- 176) 포총(褒寵)는 기리고 칭찬한다는 뜻이다.
- 177) 옥방(玉牘)은 옥(玉)으로 장식된 패(牌)이다.
- 178) 업추(業墜)는 누대 명장 가문이란 명성이 추락하여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송정 2년(1629) 1월 청나라의 북경 침입으로 금주 싸움에서 조대성, 조대명이 사로 잡히고, 대릉하성 싸움에서 조대수도 패하여 항복하므로 옛 명성만 패루(牌樓)에 남아 후인의 웃음거리가 되었음을 말한다.
- 179) 고월(古月)은 '호(胡)'자를 파자(破字)이다.
- 180) 침비(沈碑)는 비(碑)를 물에 잠근다는 뜻으로, 진(晉)의 두예(杜預)가 양호(羊祜)의 타루비(墮淚碑 : 峴山에 있다)를 보고 느낀 바 있어 자기의 공업(功業)을 2개의 돌에 각각 새겨 세우되 천지개벽에 대비해 하나는 현산(峴山)에, 다른 하나는 만산(萬山) 아래 담(潭)에 넣었다는 고사(故事)에서 유래하였다. 『진서 晉書』 「두예전 杜預傳」 참조. 고려시대 문인 김극기(金克己)의 「용만잡흥 龍灣雜興」 시(詩)에 “俗士爭功名 沈碑劇杜預”이란 구절이 있다.

## 27. 정사(正使)의 시(詩)에 차운(次韻)하다.

## 次正使韻

돌을 쪼아 만든 쌍루각(雙樓閣)<sup>181</sup> 아스라이 높은데<sup>182</sup>  
 조장군(祖將軍)<sup>183</sup> 당년(當年)에 많은 물력(物力)으로 이  
 록했다네.  
 금빛 찬란하게<sup>184</sup> 현판(懸板) 액자<sup>185</sup> 썼고  
 서린 용 구불구불<sup>186</sup> 대들보에 새겼네.  
 임금의 천금(千金) 장려금<sup>187</sup> 자랑했고  
 가문(家門)의 일대 명예(名譽)를 새겼다네.  
 한스럽다! 농서(隴西)에서의 유업(遺業)<sup>188</sup> 땅에 떨어지니  
 소경(少卿)도<sup>189</sup> 지금의 평판<sup>190</sup> 몹시 부끄러워하네.

雙樓琢石勢崢嶸  
 祖將當年費力營  
 金碧炫煌題榜額  
 蛟螭盤屈刻梁楹  
 自誇聖主千金獎  
 要勒私門一代名  
 可恨隴西遺業墜  
 少卿深恥至今評

## 28. 양수하(兩水河)에서

## 兩水河

연경(燕京) 만리(萬里) 길 이미 반은 지났는데  
 병은 깊어도 오히려 읊조림은<sup>191</sup> 마치 못하네.  
 옛 성(城) 삼대보(三臺堡)엔 갈가마귀 울고  
 양수하(兩水河)라! 퐁퐁 언 얼음 말도 겁을 내네.  
 들 주막 푸른 깃발<sup>192</sup> 길손<sup>193</sup> 영접하고

萬里燕程已半過  
 病沈猶不廢吟哦  
 鴉啼古堞三臺堡  
 馬慄層冰兩水河  
 野店青帘延客旅

- 181) 쌍루(雙樓)는 앞의 시(詩)에서 나온 조대수(祖大壽)와 그의 형 대락(大樂)의 패루(牌樓)를 나타낸다.  
 182) 쟁영(崢嶸)은 아스라히 높은 모양, 누각이 높고 웅장한 모습을 나타낸다. 연암 박지원(朴趾源)의 『열하일기』에 “今其牌樓崢嶸 而隴西之家聲隕矣, 徒爲後人之嗤點”이라는 구절이 있다.  
 183) 조장(祖將)은 앞의 시(詩) 조대수(祖大壽)를 나타낸다.  
 184) 현황(炫煌)은 빛나고 빛남, 또는 빛내고 빛냄이라는 뜻이다.  
 185) 방액(榜額)은 현판 액자, 누액(樓額)을 나타낸다.  
 186) 반굴(盤屈)은 구불구불한 모습이 용이 서린 듯한 모양, 반곡(盤曲)을 나타낸다.  
 187) 천금장(千金獎)은 천금(千金)의 장려금으로, 공업(功業)을 권장하기 위해 천금의 하사금(下賜金)을 내린다는 뜻이다.  
 188) 농서유업(隴西遺業)은 농서(隴西)의 명장(名將)으로 북방 흉노를 70여 차례나 물리치므로 그 명성이 대대로 드날렸던 한나라 이광(李廣)의 고사이다.  
 189) 소경(少卿)은 청나라 상향인으로 이름은 부택홍(傅澤鴻)이다.  
 190) 지금평(至今評)은 오늘날의 평, 이제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평을 뜻한다.  
 191) 읊아(吟哦)는 읊조리다, 흥얼거림, 흥에 따라 시구(詩句) 따위를 읊조리는 것을 나타낸다.  
 192) 청렴(靑帘)은 푸른 깃발로 주막 등에 설치된 상징 깃발, 주렴(酒帘)을 나타낸다. “閃閃酒帘 招醉客”라는 구절 참조.  
 193) 연객(延客)은 나그네를 맞는다는 뜻으로, 연(延)은 곧 영(迎)을 뜻한다.

海堙黃草散牛驪  
有時獨下傷時淚  
匣裏秋蓮謾手摩

바다 언덕 누런 풀밭엔 마소가<sup>194</sup> 풀을 뜯네.  
때때로 시국 사정에 홀로 눈물 흘리며<sup>195</sup>  
속절없이 갑 속의 추련검(秋蓮劍)을<sup>196</sup> 어루만지네.<sup>197</sup>

感吟

29. 느껴워 읊조림

長夜寒炕度似年  
擁衾起坐五更天  
呼燈展卷花生眼  
覽鏡搔頭雪滿顛  
臘盡燕山催去馬  
海連箕壤想歸船  
平生豪氣今消盡  
自惜流光意愴然

냉방의<sup>198</sup> 긴긴 하룻밤 일년 같이 지루한데<sup>199</sup>  
일어나 이불 끄리고<sup>200</sup> 새벽까지 앉았다오.  
등잔<sup>201</sup> 가까이 책을 펴니 눈은 아른거리고<sup>202</sup>  
거울을 보며 머리 긁으니 눈이 이마에 가득하네.  
첫달 다한 연산(燕山)에서 말을 재촉하노라니  
고국[箕壤]<sup>203</sup>까지 바닷가 연하여 돌아갈 배 생각나네.  
평생에 호탕하던 기개(氣概) 이제 다 삭아지고  
가는 세월<sup>204</sup> 안타까워 마음만 슬퍼지누나.<sup>205</sup>

次正使望夫石韻

30. 정사(正使)의 망부석시(望夫石詩)<sup>206</sup>에 차운(次韻)하다.

- 194) 우라(牛驪)는 소와 노새, 당나귀를 말한다.
- 195) 상시루(傷時淚)는 우국충정의 눈물, 시운(時運)을 한(恨)하는 눈물을 말한다.
- 196) 추련(秋蓮)은 칼이름으로 추련검을 말한다.
- 197) 만수마(謾手摩)는 “속절없이 손으로 매만지다”라는 뜻이다.
- 198) 한炕(寒炕)은 찬 방구들, 불기가 없는 찬 방을 나타낸다.
- 199) 도사년(度似年)은 지내기가 일년 같이 지루하다는 뜻으로 냉방에서의 하룻밤이 일년만 같다는 표현이다.
- 200) 옹금(擁衾)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쓰고 앉아 있음을 나타낸다.
- 201) 호등(呼燈)은 등불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다.
- 202) 화생안(花生眼)은 꽃이 눈에 생김, 즉 안화(眼花)가 낀다(눈이 어리비치고 진물이 남)는 뜻으로 두 시(杜詩)의 「음중팔천가 飲中八儂歌」에 “眼花落井水中眠”라는 구절이 있다.
- 203) 기양(箕壤)은 동국(東國), 곧 우리나라를 일컫는다.
- 204) 유광(流光)은 흐르는 세월, 흐르는 물같이 빠른 광음(光陰), 가는 세월을 말한다.
- 205) 창연(愴然)은 마음이 처연함, 쓸쓸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낸다.
- 206) 망부석(望夫石)은 정녀(貞女)가 국난(國亂)으로 원역(遠役)에 나간 지아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는 고사(故事)에서 유래하였다. 다양한 출전이 있으나, 호복성 무창현·요녕현·수중현 등에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박제상(朴提上)의 아내가 일본에 사신으로 간 지아비를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었다는 고사가 있다.

기나긴 성(城) 쌓는 수고로움이여  
 나날이 남편 돌아오기만을 바랬다네.  
 혼(魂)은 희미하게 고향 달을<sup>207)</sup> 꿈꾸고  
 집에 편지는 지난 선달에 끊겼다오.<sup>208)</sup>  
 시름에 찬 얼굴 이내 돌로 변했고  
 굳은 지조[貞志]어이 사라지랴.  
 남은 자취[遺蹟] 그대로 있어  
 천추(千秋)에 그 원망과 설움 잊으랴.

悠悠築城苦  
 日日望夫回  
 魂迷夢關月  
 音書斷驛梅  
 愁顏仍化石  
 貞志肯成灰  
 遺蹟依然在  
 千秋想怨哀

31. 망해정(望海亭)<sup>209)</sup>에서 서장관(書狀官)의 시  
 (詩)에 차운(次韻)하다.

望海亭次書狀韻

아스란 정자(亭子) 관문(關門)에 잇대어 있고  
 저 멀리 해뜨는 동해도<sup>210)</sup> 갈석산(碣石山)<sup>211)</sup> 너머에 있네.  
 동해에 처음 뜨는 해 난간에서 굽어보고  
 북으로 아득히 처마 두른<sup>212)</sup> 못산 우뚝하여라.  
 평생에 남은 한 회파람에 부치고  
 만리(萬里)의 나그네 시름<sup>213)</sup> 홀로 취해버렸네.  
 앉은 곳에서 날개<sup>214)</sup> 돋힌 듯  
 시원하게 바람 타고<sup>215)</sup> 돌아 가고파.

高高亭子接雄關  
 眼界扶桑碣石間  
 檻瞰東暎初出日  
 簷圍北漠亂騰山  
 百年遺恨空長嘯  
 萬里羈愁獨醉顏  
 坐處悅疑生羽翼  
 冷然直欲御風還

207) 관월(關月)은 관산(關山)의 달을 말한다.

208) 역매(驛梅)는 역도(驛道)에 심겨진 매화로 전석(田錫)의 「누장루부疊嶂樓賦」에 “驛梅江柳 動游宦之芳懷…”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는 지난 선달 역로(驛路)의 매화 필 때'로 풀이하였다.

209) 망해정(望海亭)은 요녕성(遼寧省) 금현에 있는 정자로 명나라 홍무(洪武) 17년(1384) 대장군 서중산달(徐中山達)이 산해관(山海關)을 축성하고, 장성 15리 남쪽 바닷가에 석를 녹여 터를 닦아 삼첩(三簷)의 거루(巨樓)를 세우고 망해정이라고 불렀다.

210) 부상(扶桑)은 해뜨는 동쪽 바다를 말한다.

211) 갈석(碣石)은 갈석산, 해반산(海畔山)이라고도 한다.

212) 침위(簷圍)는 처마처럼 빙 두른다는 뜻이다.

213) 기수(羈愁)는 나그네 시름을 말한다.

214) 우익(羽翼)은 새의 날개로 보좌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사(道士)의 별칭이기도 하다. 생우익(生羽翼)은 우화(羽化), 우화등선(羽化登仙)과 같은 뜻이다.

215) 어풍(御風)은 바람을 몰다, 바람을 타고라는 뜻으로 『열자 列子』 「어풍 御風」에서 유래한 말이다.

## 冒雪早發榆關

榆關侵曉動行軒  
暮歲寒天亂雪翻  
一夜瓊霏滿山海  
百年腥穢洗乾坤  
隔籬犬吠榮家店  
覓路人歸白石村  
萬里休言征役苦  
壯遊隨處總君恩

## 次書狀長城韻

屹屹長城勢撐空  
秦皇斯築意何雄  
周遭遠控河湟北  
形便橫連渤海東  
千堞未防宮鹿逸

32. 눈[雪]을 무릅쓰고 일찍 유관(榆關)<sup>216</sup>을 출발하다.

유관(榆關)에서 아침 일찍 수레를 움직이니  
선달 그믐 찬 하늘에 눈발도 어지럽네.<sup>217</sup>  
하룻밤 내린 눈<sup>218</sup> 산해(山海)에 가득하니  
한 백년 쌓인 먼지랑<sup>219</sup> 천지[乾坤]를 씻은 듯  
영가점(榮家店) 울타리 밖에서는 개가 짖고  
길을 묻던<sup>220</sup> 사람 백석촌(白石村)<sup>221</sup>으로 돌아가네.  
만리(萬里) 사신 길 수고롭다 말하지 마소.  
곳곳의<sup>222</sup> 좋은 구경 이 모두 성군(聖君)의 은혜인 것을.

## 33. 서장관(書狀官)의 ‘만리장성시(萬里長城詩)’에 차운(次韻)하다.

아득한<sup>223</sup> 만리장성(萬里長城) 하늘을 떠받친 듯<sup>224</sup>  
진시황(秦始皇) 이룬 장성(長城) 그 뜻 얼마나 컸던가.  
멀리 돌리 하황(河湟)<sup>225</sup> 북쪽까지 접하고<sup>226</sup>  
그 형세 발해(渤海) 동쪽까지 연(連)하였네.  
일천(一千)의 성첩(城堞)으로도 사슴 하나 빠져나감을  
막지 못했고

216) 관명(關名), 곧 산해관(山海關)의 옛 이름으로 하북성 임유현에 있다.

217) 난설번(亂雪翻)은 어지럽게 흩날리는 눈발, 눈이 바람에 공중에서 흩날리는 모양을 나타낸다.

218) 경비(瓊霏)는 순은(純銀)의 빛나는 눈이라는 뜻으로, 햇빛에 반사되는 깨끗하고 빛나는 눈을 시적(詩的)으로 미화한 표현이다.

219) 성에(腥穢)는 비린내 나고 더러움, 오랜 세월 전흔(戰痕)에 뒤덮힌 성에지기(腥穢之氣)를 말한다.

220) 떡로(覓路)는 “길을 찾다”, “길을 묻다”라는 뜻이다.

221) 하북성 내수현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222) 수처(隨處)는 “이르는 곳마다”의 뜻이다.

223) 홀홀(屹屹)은 산이 몹시 높음을 이른다.

224) 탕공(撐空)은 하늘을 떠받친다는 뜻이다.

225) 일명 황수(湟水)로 근원은 청해(青海)에서 나와 황하(黃河)로 흘러 들어간다.

226) 주조(周遭)는 “두루 ~을 만나다”, “~과 마주하다”라는 뜻이다.

온 나라[八區]<sup>227</sup>는 구렁에 감춘 배처럼<sup>228</sup> 안전했네.  
백성의 고크(膏血)를 말리고 무슨 이익 있었나.  
한패공(漢沛公)<sup>229</sup>은 큰 소리로 대풍가(大風歌)<sup>230</sup>를 불  
렀다네.

八區還如壑舟同  
民膏竭盡終何益  
豐沛高譟起大風

34. 무녕현(撫寧縣)<sup>231</sup> 가는 길에

撫寧途中

끝없는<sup>232</sup> 나그네 시름 가는 수레 따르고  
이르는 곳마다 이는 그옥한 회포(懷抱) 펼치게 되네.<sup>233</sup>  
지나는 상점마다 진귀한 과일 맛을 보고  
관문(關門)에 들자 처음으로 고서(古書)를 샀다네.  
이끼 낀 석물(石物)은<sup>234</sup> 뉘 집 무덤이며  
황금으로 새긴 누대(樓臺)<sup>235</sup> 누구네 정려(旌閭)인가.  
전대(前代)의 흥망(興亡) 물을 곳 없어  
석양(夕陽)의 빈 성터에 말을 멈추었네.

羈愁袞袞追征車  
遇境幽懷得小攄  
過店頻嘗奇品果  
入關初買古藏書  
苔封華表誰家塚  
金暎雕樓某氏閭  
前代興亡無問處  
夕陽駐馬廢城墟

227) 팔방(八方)의 구역으로 온 나라, 온 천하를 가리킨다. 『진서 晉書』에 “動格宇宙 化動八區”라는 구절이 있다.  
228) 학주(壑舟)는 “골짜기에 감춰진 배”, 혹은 “그 처럼 안전함”을 나타낸다.  
229) 풍패(豐沛)는 한(漢)나라의 고조(高祖)를 일컫는 말. 한의 고조는 패(沛)의 풍읍인(豐邑人)인데, 즉 위 후 그 백성을 복속시켰으므로, 이후 제왕의 고향을 풍패(豐沛)라고 함. 이 시에서는 증원을 평정하고 한나라를 세운 고조를 말한다.  
230) 대풍(大風)은 「대풍가」, 곧 한나라 고조가 지어 부른 노래를 말한다.  
231) 하북성 영평현 동쪽에 있다.  
232) 곤곤(袞袞)은 “다함이 없다”는 뜻으로 곤곤(滾滾)으로도 쓴다.  
233) 소터(少攄)는 “다소 펼쳐낸다”는 뜻이다.  
234) 화표(華表)는 묘 앞에 있는 기둥으로 화표주(華表柱)는 본디 묘 앞에 장식품으로 세운 기둥을 말한다.  
235) 금영조루(金暎雕樓)는 다양한 무늬를 새기고 황금빛 찬란하게 입힌 누대를 말한다.

山海關憶吳三桂感吟

重關自關失金湯  
 一旅未扶夏少康  
 屈膝終成何事業  
 尺書徒得絕天常

35. 산해관(山海關)<sup>236</sup>에서 오삼계(吳三桂)<sup>237</sup>를  
 생각하며

중후한 관문(關門)을 제가 열고 금탕(金湯)<sup>238</sup>을 잃어  
 한 무리 병력으로도 하(夏)나라 소강(少康)<sup>239</sup>을 붙들지  
 못했네.  
 무릎 꿇고 마침내 무슨 사업 이룩했나  
 애첩의 편지 한 장에<sup>240</sup> 천륜(天倫)이 끊겼네.

次書狀射虎石韻

隴西飛將帶微曛  
 罷獵歸來日色曛  
 頑石忽開射虎箭  
 聲名遙振度遼軍  
 三邊白首知緣數

36. 서장관(書狀官)의 ‘사호석시(射虎石詩)’<sup>241</sup>에  
 차운(次韻)하다.

농서(隴西)의 비장군(飛將軍)<sup>242</sup> 술이 얼큰해  
 사냥 마치고 돌아올 제 햇빛도 어두침침.  
 호랑이로 알고 쏜 살에 바위는<sup>243</sup> 갈라지고<sup>244</sup>  
 그 명성 멀리 요동(遼東) 군사에게까지 떨쳤다네.<sup>245</sup>  
 변방 세 곳은 늙어도 인연을 알겠고

236) 산해관(山海關)은 하북성 임유현의 동문(東門)으로, 임여관(臨閭關), 임유관(臨榆關)이라고도 한다. 명나라의 홍무(洪武) 17년(1384)에 대장군 서달(徐達)이 유관(榆關)을 옮겨 5점으로 쌓은 천하제일루(天下第一關)로 왕응린(王應麟)의 『지이통석 地理通釋』에 의하면, “우(虞)의 하양(下陽), 조(趙)의 상당(上堂), 위(魏)의 안읍(安邑), 촉(蜀)의 한락(漢樂)은 모두 그 지세로 보아도 꼭 웅거해야 하고, 그 성으로 보아도 꼭 지켜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237) 명나라의 무인(武人)으로, 자는 장백(長白)이며 요동인(遼東人)이다. 무예로써 명성을 떨쳤고, 청나라 초기에 삼번(三藩)의 난을 일으켰다. 연암의 「산해관기」에 “嗚呼蒙恬築長城以防胡 而亡秦之胡 養於蕭牆之內 中山設此關以備胡 而吳三桂 開門迎入之不暇也”라는 구절이 있다.

238) 금성탕지(金城湯池)의 준말로, 곧 쇠로 만든 성곽과 끓는 물로 채운 연못을 나타내는데 철통같은 경계와 방비를 뜻한다.

239) 하소강(夏少康)은 중국 하(夏)나라의 6대 임금으로 중흥주(中興主)이다.

240) 척서(尺書)는 편지, 간단한 문서를 나타낸다.

241) 사호석(射虎石)은 “호석(虎石)을 쏜다”라는 뜻으로, 호석(虎石)은 영평부 남쪽 10리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漢)나라 이광(李廣)의 고사(故事)가 있다(『漢書』「李廣傳」참조).

242) 비장(飛將)은 “날래고 힘찬 장수”라는 뜻으로, 호석(虎石) 밑에 있는 비석에는 “漢飛將軍射虎石”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한다.

243) 완석(頑石)은 굳고 단단한 돌을 가리킨다.

244) 홀개(忽開)는 “문득 열림”, “문득 갈라진다”는 뜻이다.

245) 요진(遙振)은 “아스라히 멀리까지 떨침”, “명성이 널리 알려짐”을 나타낸다.

멀리 음산(陰山)에서는 새긴 공(功)을 등졌네.  
 흉노(匈奴)를 없애지 못한 여한은  
 지금도 비린내 나는 전흔(戰痕)을<sup>246)</sup> 쓸어내고 지고.

萬里陰山負勒勳  
 不滅匈奴遺恨在  
 至今應欲掃腥氛

### 37. 풍윤(豐潤)으로 가는 길에

### 豐潤途中

요즈음 모발이 흰 실과 같음을 깨닫겠고  
 평원과 습지를 달리자니<sup>247)</sup> 병든 몸 지탱키 어려워라.  
 첫닭 울면 짐 꾸러<sup>248)</sup> 출발을 재촉하고  
 편안한 잠은<sup>249)</sup> 해 뜰 때까지 이루지 못한다네.  
 남의 손을 빌려 전현(前賢)의 필적(筆跡) 뒤적이고  
 운(韻)에 화답하느라<sup>250)</sup> 억지로 당시[近體詩]<sup>251)</sup>를 짓는  
 다오.<sup>252)</sup>  
 이역(異域)에서 선달 그믐 보냄을 탄식치 말라.  
 계문(薊門)에 꽃 필 때가 돌아갈 때니라.

邇來鬢髮覺成絲  
 原濕馳驅病不支  
 行李每催鷄唱後  
 穩眠難到日高時  
 從人借見前賢筆  
 和韻強成近體詩  
 莫歎殊方殘臘盡  
 薊門春樹是歸期

### 38. 계문(薊門)의 내긴 나무

### 薊門烟樹

백리라! 계문(薊門)의 내긴 나무 숲  
 바다처럼<sup>253)</sup> 아득히 넓은 아지랑이<sup>254)</sup> 비졌네.  
 뽕나무 밭[桑田]이 푸른 바다[碧海]로 변하고  
 숲의 푸르름 물결처럼 아득하여라.  
 햇빛에 반짝이는 빛깔 아스라니

百里薊門樹  
 滄茫淡靄斜  
 桑田成碧海  
 林藪杳滄波  
 曠日浮光遠

246) 성분(腥氛)은 '비린 기운', "가시지 않은 전흔의 분위기"를 나타낸다.

247) 구치(驅馳)는 말을 급히 달려 몬다는 뜻이다.

248) 행리(行李)는 '나그네의 짐', '짐꾸러미'를 나타낸다.

249) 온면(穩眠)은 숙면, 피로를 풀만큼 충분한 수면을 나타낸다.

250) 화운(和韻)은 남의 시(詩)에 차운(次韻)하여 화답하는 시(詩)를 말한다.

251) 고체시(古體詩)에 대한 대칭 개념으로, 평측(平仄)과 압운(押韻) 등 형식과 운률(韻律)을 중시하는 신체시(新體詩)이다. 당나라 때 완성되었다.

252) 강성(強成)은 억지로 짓는 시(詩)로 강재시(強裁詩)를 말한다.

253) 창망(滄茫)은 물이 푸르고 넓은 모양, 푸른 숲이 바다처럼 아득히 펼쳐진 모양을 나타낸다.

254) 담애(淡靄)는 넓은 안개를 말한다.

隨風變態多  
龍眠何處得  
將此寫輕羅

바람 따라 변태(變態)도 다양하구나.  
용면(龍眠)<sup>255</sup> 같은 재주를 어디서 얻어  
이 경계를 비단 화폭에<sup>256</sup> 그려낼꺼나.

宿薊州般若庵 有松竹梅  
三盆在案上 極其精妙可愛  
梅則千葉紅梅 方盛開 與  
書狀拈韻 得松字

39. 계주(薊州) 반야암(般若庵)에서 잘 때, 책상 위에 송죽매(松竹梅) 세 분재(盆栽)가 있었는데 극히 정묘해서 관상(觀想)할만 했다. 매화는千葉홍매(千葉紅梅)로 막 피었기에 서장관(書狀官)과 더불어 운자(韻字)를 짚어 ‘송(松)’자를 얻었다.

薄暮投鞭古寺中  
一床三友竹梅松  
紅葩粉藥開殘臘  
綠葉蒼髯傲大冬  
枕畔清侵羈夢冷  
杯心影落酒香濃  
燈前相對看無厭  
未覺梵樓動曉鐘

땅거미 질 무렵<sup>257</sup> 옛 절[古寺]에 찾아드니<sup>258</sup>  
한 상(床)에 송죽매(松竹梅) 세 벗 잘도 어울려.  
붉은 꽃 하얀 꽃술<sup>259</sup> 선달에 피었고  
푸른 잎 파란 수염 한겨울도 끄떡없어.  
베갯가 맑은 기운 나그네 꿈속으로<sup>260</sup> 들고  
잔 속에<sup>261</sup> 그림자 비추니 술 내음 향기롭다.  
등불 앞에 마주 앉으니 싫지 않아.<sup>262</sup>  
절간의 새벽 종소리 깨닫지도 못했네.

255) 송나라의 문인화가(文人畫家) 용면거사(龍眠居士)를 말한다. 이름은 이공린(李公麟)으로 만년(晩年)에 용면산(龍眠山)에 은거하며 용면거사라고 자호(自號)하였다.  
256) 경라(輕羅)는 얇은 비단으로, 특히 시서화(詩書畫)에 많이 사용된다.  
257) 박모(薄暮)는 어스름이 막 지필 무렵, 땅거미가 막 내려 앉을 무렵을 나타낸다.  
258) 투편(投鞭)은 “말 채찍을 던지다”라는 말로, “말을 멧게함” 또는 여정(旅程)을 마친다는 뜻이다.  
259) 홍과분예(紅葩粉藥)는 붉은 꽃과 흰 꽃술을 말한다.  
260) 기몽(羈夢)은 나그네의 꿈을 말한다.  
261) 배심(杯心)은 술잔 속을 나타낸다.  
262) 간무염(看無厭)은 바라보아도 싫지 않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백(李白)의 「독좌경정산 獨坐敬亭山」이란 시(詩)에 “相看兩不厭 只有敬亭山”라는 구절이 있다.

여 백

# 燕行別章



여 백

## 연행록(燕行錄) 별장(別章)에 관하여

임 준 철 (林 濬 哲)

### I.

조선 후기의 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상호 유기적 연결을 가진 일련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명·청(明·淸)의 교체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는 단순히 외교적 차원을 넘어서 이 시기 지식인들의 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대(事大)의 상대가 한족(漢族)의 나라인 명에서 만주족의 나라인 청으로 변함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돈에서 기인한다. 더 이상 중국의 실체를 중화(中華)라고 존송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소중화(小中華)로 여기는 주체적인 사고로 이어져 문화적으로는 일부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송명의리론(崇明義理論)의 당파적 전개를 통해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이는 비단 정치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문화 전반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친 까닭에, 조선후기 지식인들에서 보이는 대청인식(對淸認識)의 면모는 이 시기 의식양태의 침단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로서 주목합적하다.

이 글에서 소개하려는 조영복(1672~1728)의 연행록별장(燕行錄別章)은 조영복의 지인(知人)들이 그의 연행을 전승하며 지은 시문(詩文)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그동안 대청인식을 가장 첨예하게 보여주는 사적 기록문학이라 할 조선후기 연행록에 대한 관심은 작품발굴과 번역, 그리고 연구를 통해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결과물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김창업(金昌業)의 『노가재연행일기 老稼齋燕行日記』, 박지원(朴趾源)의 『열하일기 熱河日記』, 홍대용(洪大容)의 『담헌연기 澹軒燕記』와 같은 문학사적·사상사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 작품들이 부각될 수 있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같은 형식의 별장(別章)류에 대해선 관심이 매우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같은 형식의 자료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투성·의례성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기도 하지만, 그 의례성·상투성의 배후에 자리한 특정한 의식들은 당대인들의 대칭인식을 가늠하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 II.

조영복은 1719년(숙종45) 동지사(冬至使)의 임무를 띠고 정사(正使) 조도빈(趙道彬)·서장관(書狀官) 신철(申哲) 등과 함께 청나라의 수도 연경으로 출발하였다. 그의 연행록에 의하면, 11월 4일에 대궐에 들어가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하였다고 했으니, 이 별장에 실린 글들은 모두 그 이전에 지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별장에는 시(詩) 19제(題) 57수(首)·문(文) 2편이 실려있어 시가 대종을 이루고 있고, 시체별로는 오언절구가 46수·오언율시 10수·오언고시 1수로 오언절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문들은 그 내용으로 보아 사행(使行)을 전송하는 자리따위에서 동시에 지어진 것은 아닌 듯 하다. 예컨대, 정호(鄭澹)의 시는 말미에 계추(季秋)라고 부기된 반면, 조정만(趙正萬)은 출발 당일인 11월 4일, 이견명(李健命)의 시는 양월(陽月 : 10월) 하순 등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별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이 별장에 시문을 남기고 있는 인물들의 면면이다. 몇몇 확인이 되지 않는 인물들을 논외로 한다면, 이들은 모두 이 시기 정권의 주도세력이던 노론의 인물들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생애를 약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이명(李頤命 : 1658~1722). 자는 지인(智仁)·양숙(養叔), 호는 소재(疎齋)이다. 본관은 전주(全州)로 세종의 아들 밀성군(密城君)의 6대손이 된다. 이이명과 관련하여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가계이다. 그의 가계를 살펴보면, 그의 집안이 전·당대에 걸쳐 서인과 노론의 핵심적 가문임을 잘 알 수 있다. 그의 조부가 되는 경여(敬輿 : 1585~1657)는 철저한 배척친명적 노선을 견지하여 2차례에 걸쳐 청에 억류된 적이 있었던 인물로, 인조반정후 대체로 순탄한 환로를 거쳐 영의정까지 올랐다. 아버지 민적(敏迪 : 1625~1673)은 대사헌을 역임한 인물로 특히 문학적 소질로 현종의 아낌을 받았다. 어머니 황씨는 병자호란후 명을 도와 청을 치려다 피살된 의주부윤 황일호(黃一皓)의 딸이다. 이이명은 숙부인 지평 민채(敏采)의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의 친형이 남인에게 노론의 모사자로 지목되던 사명(師命 : 1647~1689)이다. 사명은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세평이 있었던 뛰어난 인물로 시재가 뛰어나 김창흠(金昌翕)과 이름을 나란히 하였지만, 경신대출척에 가담하는 등 당대 첨예한 당쟁에 노론의 선봉이 되었던 관계로, 결국 남인이 정권을 잡은 기사환국 때 사사되고 말았다. 후에 이이명은 친형인 사명

의 신원을 위해 애썼는데, 숙종의 강한 질책에도 굽히지 않다가 유배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이이명과 함께 노론의 4대신으로 꼽히는 이견명(李健命 : 1663~1722)과 그의 형 관명(觀命 : 1661~1733)과는 중형제간이 된다.

이이명은 1680년(숙종 6)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박사(博士)를 거쳐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에 올랐다. 1686년 사헌부집의로 있으면서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강원도관찰사에 특제되기까지, 홍문관의 박사·수찬·교리·응교, 사헌부지평, 사간원헌납, 이조좌랑, 의정부사인 등을 역임하면서 노론의 영수 송시열·김석주(金錫胄) 등의 지원 아래 이선(李選)·이수언(李秀言) 등과 함께 노론의 기수로 활약하였다. 그리하여 강원도관찰사로 나간 지 8개월만에 승정원의 승지가 되어 조정에 돌아오는 남다른 승진을 거듭하였으나, 1689년 기사환국을 당하여 영해로 유배되었다가 뒤이어 남해로 이배되는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유배생활 5년만에 이른바 갑술옥사가 일어나 호조참의로 조정에 복귀한 뒤, 승지를 거쳐 1696년(숙종 22) 평안도관찰사로 발탁되었지만, 노모의 병을 청탁하여 극구 사양하고 강화부유수로 나갔다. 그러다가 2년만에 대사간이 되어 돌아왔으나, 이번에는 형 사명의 죄를 변호하다가 다시 공주로 유배되고 말았다. 이듬해 2월 유배가 풀리기는 하였으나, 2년 동안 기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1701년 예조판서로 특임되었고, 이어 대사헌·한성부판윤·이조판서·병조판서 등을 역임하다가 1706년 우의정에, 1708년엔 좌의정에 올랐다.

1717년(숙종 43) 약방입진시(藥房入珍時)에 숙종의 특별한 하교가 있어 숙종과 독대하였는데, 이것이 후에 ‘정유독대(丁酉獨對)’라는 문제의 사건이 되었다. 곧 이이명의 숙종과의 독대가 세자(경종)를 대신하여 연잉군(영조)을 세우려는 노론의 음모로 소론측에 받아들여진 까닭에 엄청난 반발을 낳게 된 것이다. 당시 숙종은 거듭 엄교(嚴敎)를 내려 세자의 과실을 책망하고, 이어서 전례가 없는 이이명과의 독대를 통해 세자의 대리청정을 명하고, 별도로 세자에게 전일의 병신처분(丙申處分 : 윤선거·윤증 부자의 관작을 삭탈하고, 윤증을 스승 송시열을 배신한 죄인으로 죄준 사건)의 시비를 강조하였던 까닭에, 세자 지지세력이었던 소론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는 후에 경종 즉위시 노론측의 정치적 악재로 작용하여 소론에게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 결국 이이명은 1721년(경종 1) 김창집·이견명·조태채 등과 함께 세제(世弟 : 영조)의 대리청정을 추진하다 실패하게 되고, 이듬해 소론측의 탄핵을 받아 남해로 유배되었다. 유배중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으로 이듬해 4월 서울로 압송, 사사(賜死)되었다. 당시 목호룡의 고변에 그의 아들인 기지(器之), 사위인 김용택(金龍澤 : 김만중의 손자), 그리고 조카 희지(喜之 : 師命의 아들)도 연루되어 화를 당했다. 공주에 우선 안장되었다가 1725년(영조 1) 복작되면서 임천 옥곡(玉谷)에 이장되었고, 영조의 지시로 한강가에 사우(祀宇)가 건립되었다. 문집으로 『소재집』 20권 10책이 전하고, 『양역변통사의 良役變通私議』·『강역관계도설 疆域關係圖說』·『강도삼충전 江都三忠傳』 등이 있다.

이이명의 연행 경험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한 번은 1704년(숙종 30)에 동지정사(冬知

正使)로 부사 이희무(李喜茂)·서장관 이명준(李明浚) 등과 함께 연경에 다녀왔던 것이고, 또한 번은 1720년 숙종이 죽자 고부사(告訃使)로 연경에 다녀왔던 것이다. 이이명에게 있어서 두 번째 연행은 몇가지 중요한 소득이 있었는데, 그 중 주목되는 것은 독일신부 쇠글러와 포르투갈 신부 사우레즈 등을 만나 교류하면서 천주교·천문·역산에 관한 서적을 얻어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다. 이때의 일에 대해선, 「여서양인소림대진현 與西洋人蘇霖戴進賢」(『소재집』 권 19)이라는 서간에 그 경과가 잘 드러나 있다.

2) 정호(鄭濞 : 1648~1736). 자는 중순(仲淳), 호는 장암(丈巖)이다. 본관은 연일(延日)이며 서인의 영수였던 정철(鄭澈)의 현손으로, 아버지는 감찰을 지낸 경연(慶演)이다. 송시열의 문하로 매우 촉망받았으며, 1675년(숙종 1) 송시열이 귀양가게 되자 과거를 단념하고 성리학에 힘썼다. 그뒤 여러 형제의 권유로 1682년 생원이 되고, 1684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을 거쳐 정언이 되자, 오도일(吳道一)이 봉당을 키우고 권세를 부린다고 탄핵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인현왕후가 폐출되고 송시열이 사사당하자, 그는 파직되고 문외출송(門外黜送)되었다가 경성에 유배되었다. 1694년 갑술옥사로 인현왕후가 복위되자 풀려나 지평·수찬·교리 등을 역임하고, 1696년 이사상(李師尙)을 논핵하는 등 과격한 발언으로 파직되었다. 1698년 다시 수찬·집의·사간을 거쳐 이듬해 동래부사로 나갔다가, 1700년에 신은(新銀) 12만여 냥을 왜에 상매(商買)한 일로 파직되었다. 이듬해 광주부윤으로 기용되었고, 1702년 승지·부제학을 거쳐 1704년 함경도관찰사, 1710년 대사간·대사헌을 지냈는데, 당론을 일삼는다 하여 흥해·갑산 등지에 유배되었다. 1713년 대사성에 재임용되어 송시열의 묘정배향을 건의하였고, 1715년 부제학으로서 유계(兪啓)의 유저(遺著)인 『가례원류』의 서(序)를 썼다. 『가례원류』는 윤증의 집안과 유계의 집안 사이에 그 소유권을 둘러싼 알력을 낳았던 문제의 책으로, 유계의 손자 유상기가 당시 좌상이던 이이명에게 발간을 부탁하였고, 이때 정호가 서(序)를 썼던 것이다. 정호는 서(序)에서 소론 윤拯(尹拯)이 송시열을 배반하였다고 극력 비판하였는데, 후에 그 내용이 문제되어 파직되었다가 이듬해 노론이 승리함으로써 대사헌이 되었다. 이때 윤선거(尹宣擧)의 문집 『노서유고 魯西遺稿』가 간행되자, 효종에게 불손한 내용으로 썼다 하여 훼손(毀板)하고 윤선거 부자의 관작도 추탈하게 하였다. 1717년 세자(경종)의 대리청정에서 소론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예조판서를 거쳐 다음해 이조판서에 올랐다. 1721년(경종 1) 실록청총재관(實錄廳總裁官)으로 『숙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다가 신임사화로 노론 4대신(大臣)과 함께 파직되어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1725년(영조 1) 노론의 재집권으로 풀려나와 우의정에 승진되어 신임사화로 죽은 노론 4대신의 신원을 누차 상소하였으며,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다.

1727년 정미환국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1729년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영종추부사로 죽었다. 실록에 기록된 그의 줄기에 의하면, 일생을 노론의 선봉으로 활약하여 언론이 매우 과격

하였지만, 매우 청빈한 삶으로 존경받았다고 한다. 시문과 글씨에 모두 뛰어났다. 충주의 누암서원(樓巖書院)에 제향되었다. 문집 『장암집』 26권과 편서인 『문의통고 文義通攷』가 전한다.

3) 민진후(閔鎭厚 : 1639~1720). 자는 정순(靜純), 호는 지재(趾齋)이고,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아버지는 여양부원군 유중(維重)이니, 바로 숙종비 인현왕후가 그의 친제(親弟)가 된다. 그의 어머니 송씨는 동춘당 송준길의 딸이다. 노론의 당쟁서인 『단암만록 丹巖漫錄』을 남긴 진원(鎭遠)이 그의 동생이 된다. 송시열의 문인으로, 스승의 유업을 계승·완성하는데 매진하였다.

1681년(숙종 7) 생원이 되고, 1686년(숙종 12)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가 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기사환국이 일어나 아버지 유중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과 함께 삭탈관작되고 귀양살이를 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로 인현왕후가 복위됨에 따라 세자시강원설서로 다시 기용되었고, 사간원정언·홍문관부교리·부응교·사헌부집의 등을 거쳐 1697년 충청도관찰사가 되었다. 관찰사로 부임한 지 7개월만에 대사간이 되었으며, 이어 강화부유수·형조참의·한성부판윤·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그 사이 송조 6현(宋朝六賢 : 周惇頤·程顥·程頤·邵雍·張載·朱熹)이 대성전의 철위(哲位)에 승향(陞享)될 때도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모두 스승 송시열의 유지를 실천한 것이었다.

1704년 한성판윤으로 재직시 좌의정 이여(李翕)와 함께 대보단(大報壇) 설치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이 대보단은 명의 두 황제, 소위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베풀었다는 신종(神宗)과 마지막 황제 의종(毅宗)의 제사를 위한 제단의 성격을 띤 것이다. 1704년은 명이 망한지 일주갑(一周甲)이 되는 해였고, 또 시효성을 상실한 청에 대한 복수설치(復讐雪恥)의 논리를 대신할 무엇이 필요했던 까닭에, 그 정신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이 대보단의 설치에는 노론측이 적극적으로었던 반면에, 소론측은 다소 소극적이었다. 이때 민진후를 위시한 송시열의 직계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그 당위성을 강조하였으며, 민진후는 예조판서의 직임으로 직접 설단(設壇)의 공사를 지휘하기까지 하였다.

1706년 의금부지사가 되었는데, 이때 유생 임부가 세자모해설을 발설하여 일어난 옥사를 합부로 다루었다고 해서 소론측의 탄핵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났다. 1708년(숙종 34) 동지정사로 김치룡(金致龍)·김시환(金始煥) 등과 연경에 다녀왔고, 1717년(숙종 43) 다시 동지사로 청나라를 다녀왔다. 이후 의금부판사·돈녕부판사·홍문관제학·예조판서 겸 수어사·한성부판윤·공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1719년 의정부우참찬에 올랐으나 질병으로 사양하고, 그 뒤 개성부유수로 재직중 죽었다. 그의 인품은 선비의 기운을 돋우고 사문(斯文)을 지키는데 힘쓰며 외척의 호귀(豪貴)한 습속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정치적 반대파들조차도 그의 인격을 칭송하였다고 한다. 글씨에 능하였고 문집 『지재집』이 전한다. 시호는 충문(忠文)이고 경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4) 신임(申銍 : 1639~1725). 자는 화중(華仲)이고, 호는 한죽(寒竹)이며,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집의 명규(命圭)의 아들이며, 박세채(朴世采)의 문인이다. 박세채의 문인 중 다시 노론이 된 자가 많았는데, 그 역시 그 중의 한사람이다.

1657년(효종 8) 진사시에 합격, 1680년(숙종 6) 의금부도사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효종릉의 사건으로 귀양간 아버지의 억울함을 격쟁하여 방환하게 한 뒤, 1686년 별시문과에 응시하여 병과로 급제하였다. 전적·호조좌랑·경기도지사·정언 등을 거쳐 1696년 지평이 되었다. 이때 서문중(徐文重)이 정승이 되자, 인현왕후 민씨가 복위될 때 희빈 장씨를 두둔하려 하였다고 탄핵하였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경성판관으로 좌천되었다. 그 뒤 병조정랑 등을 거쳐 연안부사로 나갔을 때 후궁 한 사람이 그곳의 연(蓮)밭을 절수(折受)받으려는 것을 막다가 체직되어 고향에 은거하였다. 다시 수원부사에 기용되어 황해감사·대사간·이조참의를 역임하고 개성유수로 임명되었으나 조정과 마찰을 빚어 파직되었다. 그 뒤 6조의 여러 벼슬과 도승지·대사헌 등을 역임하고, 1718년 지중추부사가 되면서 기로소에 들어갔다. 경종이 즉위한 후 병약하자 연잉군(延昞君 : 영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고 대리청정하게 하려고 세자청정의 근거를 『세종실록』에서 초출하였다. 1722년(경종 2) 신임옥사가 일어나자 소론을 꾸짖고 세제를 보호하는 상소를 올려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다. 영조 즉위 후 사면되어 돌아오는 길에 해남에서 죽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5) 송상기(宋相琦 : 1657~1723). 자는 옥여(玉汝), 호는 옥오재(玉吾齋)로,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예조판서 규렴(奎濂)의 아들이다. 김창집·김창협·김창흡·김창업 형제가 그와 내중형제간이 된다. 사위 이천기가 김춘택의 처남이기도 하다. 송시열의 문인으로, 송시열의 유지를 완수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

1684년(숙종 10)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고, 홍문관저작을 지내면서 문장에 능하고 학식이 풍부하여 홍문관에서 상주(上奏)하는 글은 대개 그가 지었다고 한다. 박사·검열을 거쳐 부수찬으로 있을 때 희빈 장씨의 어머니가 가마를 탄 채 대궐에 출입하므로 가마를 불태워야 한다고 청하였다가 파직되었다. 1689년 부교리로 복직되었으나 이해에 기사환국이 일어나 송시열·김수항 등이 사사되자 남인이 집권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로 인현왕후가 복위되고 남인이 제거된 후 장령에 임명되어 부교리·사간·충주목사를 거쳐 보덕·교리·사인을 지냈다. 1697년(숙종 23) 세자책봉에 대한 주청사(奏請使)로 정사 최석정·부사 최규서 등과 함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가서는 여러 번 정문(呈文)을 지었는데 문장의 사리가 명확하여 청인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돌아온 뒤 품계가 올라 승지가 되었다. 노론의 중신으로서 대사성에서 예조·이조의 참의가 되고 승문원부제주를 겸하였으며, 충청도관찰사로 내려가 크게 치적을 올렸고, 대제학·대사헌·예조판서·이조판서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그사이 그는 명나라가 망한 지 주갑(週甲)이 되는 1704년(숙종 30) 송시열의 직계제자들의 주동으로 이루어진 대보단(大報壇)의 창설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송상기는 『예기 禮記』의 교특생(郊特牲)에서 유래한 ‘대보(大報)’라는 명칭을 직접 지어 올리기도 했다. 문학에도 조예가 깊던 그는 대제학으로 있던 1705년(숙종 31) 당대의 문풍이 고문사에 힘쓰지 않고 변려문과 표절에만 익숙한 폐단이 있음을 우려하기도 했다.

1718년 민회빈(愍懷嬪 : 소현세자비)의 시호 개정을 반대하다가 한때 파직되었는데 곧 예조판서에 기용되었다. 다시 이조판서·판돈녕부사를 역임하다가 세제의 대리청정을 여러 대신들과 상소하였기 때문에 1722년 목호룡의 고변으로 야기된 신임사화에 연루, 강진으로 유배되어 이듬해 적소에서 죽었다. 1725년(영조 1)에 관작이 복구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고, 문집으로 『옥오재집』 18권이 있다. 실록에 기록된 송상기에 대한 인물평에 따르면, 그는 성품이 자상·온화하였고 지론이 화평하였다고 한다. 또 문장이 뛰어났는데, 특히 주필에 능하였다고 한다.

6) 윤양래(尹陽來 : 1673~1751). 자는 계형(季亨), 호는 회와(晦窩)이다.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경주부윤을 지낸 리(理)의 아들이고, 석래(錫來)의 형이다. 1699년(숙종 25) 진사를 거쳐 170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주서(注書)에 초임되었는데, 이때 글씨를 빨리 써서 비주서(飛注書)라는 별명을 들었다. 그 뒤 지평·정언 등을 역임하고, 1716년 문학·필선·헌납·집의를 거쳐 이듬해 경상우도 암행어사로 나갔다가 돌아와 보덕(輔德)을 지냈다. 1720년 승지·병조참의·우부승지를 거쳐 1721년(경종 1) 충청도관찰사로 재직 중에 왕명을 어겨 효수형을 받게 된 박세명(朴世明)을 두둔하였다는 죄로 파직, 국문을 받았으나, 곧 석방되어 동지겸 주청부사(冬至兼奏請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청나라에 갔을 때 경종의 병약함을 발설하였다는 죄목으로 파직, 갑산에 위리안치되었다. 1725년(영조 1) 노론의 재집권으로 풀려 나와 승지가 되고, 이어 공조참판을 거쳐 대사간으로 재직중 윤심형(尹心衡)의 논척(論斥)을 받고 외보(外補)로 영월부사로 나갔다가 곧 병조참판이 되었다. 그뒤 안동부사를 거쳐 1729년 예조와 병조의 참판,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등을 역임하고 다음해 함경도관찰사, 1732년 한성부우윤·경상도관찰사·도승지·평안도관찰사·한성부판윤을 거쳐 형조판서·공조판서·호조판서·대사헌을 지냈다. 1741년(영조 17) 좌참찬에 제수되어 아경(亞卿)의 지위에 올랐다. 1743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가 되고 기로소에 들어갔다. 1746년 지중추부사로 있을 때에 소론 박문수가 유생 60여명과 연명상소로 탕평론을 펼침에, 신임사화와 관련된 소론들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삭직되었다. 이해에 판돈녕부사로 치사하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만년에 노론으로서 분란을 일으켰으나, 경사에 밝고 글씨를 잘 썼다. 글씨로는 「영상윤인경비 領相尹仁鏡碑」와 「엄흥도묘갈 嚴興道墓碣」 등이 있다. 시호는 익헌(翼獻)이다.

7) 김민택(金民澤 : 1678~1722). 자는 치중(致中), 호는 죽헌(竹軒)이고, 본관은 광산이다. 광성부원군 만기(萬基)의 손자이고, 호조판서 진구(鎭龜)의 아들이다. 춘택(春澤)이 그의 장형이 된다. 진사가 된 후, 1712년(숙종 38) 익릉참봉에 기용되었으며, 1718년 감제(柑製)에서 수석하여 호조좌랑에 오르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지평이 되었다.

이때 숙종의 질환으로 세자대리청정이 실시되자 의리와 명분을 바로잡기 위해 소론들과 논쟁하였다. 그 뒤 정언·수찬을 역임하였으며, 1720년 경종이 즉위하자 소론의 이진검(李眞儉)·이진유(李眞儒) 등이 호조참판인 형 운택(雲澤)을 논핵하자 형의 용서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고, 수찬·교리·남학교수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으며, 그 뒤 실록청낭관·지제교를 역임하였다. 1721년(경종 1) 김창집 등 노론 4대신이 절도에 안치되고, 다음해 경종을 시해하려 모의했다는 목호룡의 고변 명단에 끼어 선천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하옥되어 옥사하였다. 이때 주모자로 지목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노론 명문가의 자제들이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김만중의 손자며 이이명의 사위인 김용택, 이이명의 아들 이기지, 김창집의 손자 김성행, 김춘택의 처남 이천기 등이 있었다. 1741년(영조 17) 관작이 다시 회복되었으며, 김제겸(金濟謙)·조성복(趙聖復)과 함께 신임사화 때 죽은 신임삼학사(申壬三學士)로 일컬어진다. 문집으로 『죽헌집』이 있다.

8) 조정만(趙正萬 : 1656~1739). 호는 오재(寤齋), 자는 정이(定而)이고, 본관은 임천(林川)이다. 합천군수 경망(景望)의 아들이며, 줄수재(拙修齋) 조성기(趙聖期)의 종질이 된다. 송준길·송시열의 문인이다.

1681년(숙종 7) 진사시에 장원하여 성균관유생이 되고, 1694년 의금부도사가 되었다. 유생시절 윤증을 배척하고 송시열을 변호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어 공조·호조의 낭관, 제용감·군자감의 판관, 장악원정 등을 지냈다. 외직으론 강서현령·평양서윤·광산현감·안악군수, 청송·선천의 부사, 나주·능주·청주·양주·상주의 목사를 지냈다. 1722년(경종 2) 신임사화가 일어나자 벽동에 유배되었고, 이어 영변으로 이배되었다가 1725년(영조 1)에 풀려나 수원부사·충청도관찰사·호조참의·호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이때 경연에서 ‘알인육(遏人慾)·존천리(存天理)’의 설을 반복하여 아뢰니, 임금이 경청하고 호피를 특사하였다. 1735년 지돈녕부사·한성부판윤 및 공조·형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기로 이름이 있었고, 경(經)·사(史)·백가서(百家書)에 두루 통하였으며, 시와 글씨에도 뛰어났다. 김창협·김창흡·김창업·이희조 등과 친교가 깊었다. 문집으로 『오재집』이 있다. 특히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과 가까웠는데, 오재도 그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삼연이 지어준 것이라 한다.

9) 이중협(李重協 : 1681~?). 자는 화중(和仲), 본관은 경주다. 정언 익(瀼)의 증손이 된다.

1713년(숙종 39)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715년 사간원정언을 거쳐 1717년 사헌부지평에 오르고 유명웅(兪命雄)을 따라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18년 경종의 비 단의빈(端懿嬪) 심씨(沈氏)가 죽자 대전(大殿)인 숙종의 머느리에 대한 복상이 불장기(不杖葦)로 결정되자, 대공복(大功服)으로 해야 한다는 소를 올렸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1719년 흉년을 당하여 기민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명첩(空名帖)을 발행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상소하였다. 1722년(경종 2) 이후 사간원사간·홍문관수찬·승문원교리 등을 역임하였는데, 대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 하여 의금부에 간헐다가 석방되었다가, 다시 해남으로 귀양가고 후에 경원으로 이배되었다. 1728년(영조 4) 승지를 거쳐 1736년 강춘도관찰사를 역임하였으며, 1745년 대사간·공조참판을 거쳐 도승지가 되었다.

10) 윤석래(尹錫來 : 1665~1725). 자는 중길(仲吉), 호는 둔정(鈍靜)·만회(晩晦)이다.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부윤 리(理)의 아들이고, 양래(陽來)의 동생이다. 1690년(숙종 16) 사마시를 거쳐 1710년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 승릉직장(崇陵直長)이 되었고, 1714년 지평을 거쳐 필선·장령·헌납·집의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윤선거(尹宣擧)의 문집을 훼손한 병신처분(丙申處分) 후 소론을 옹호하다가 1716년 파직되었다. 그 뒤 1719년 동부승지·사간·우부승지를 지냈고, 이듬해 경종의 즉위로 소론이 득세하자 사직하였다가 다시 사간에 재임되었다. 1722년(경종 2) 동래부사로 재임 중에 신임사화로 노론이 실각하고 소론이 집권하게 되자 사직하고 물러났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면서 노론이 재집권하자 판결사·참찬관이 되었다. 이때 귀양가 있던 정호(鄭澹)의 서용을 청하여 이를 실현시켰고, 그 뒤 도승지를 거쳐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11) 김창집(金昌集 : 1648~1722). 자는 여성(汝成), 호는 몽와(夢窩)이다. 본관은 안동이다. 좌의정 상헌(尙憲)의 증손이며 영의정 수항(壽恒)의 아들, 창협(昌協)·창흡(昌翕)·창업(昌業)의 형이다. 그의 아우인 창협(昌協)의 문하에 조영복이 출입하였다고 하며, 조영복의 동생인 문인화가 관아재(觀我齋) 조영석(趙榮祐)은 창흡과 절친한 사이이기도 했다.

1672년(현종 13)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1675년 아버지 수항이 화를 입고 귀양가 있었으므로 과거응시를 미루었다. 1681년(숙종 7) 내시교관을 제수받았고, 1684년 공조좌랑으로서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정언·병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 때 아버지 수항이 진도의 유배지에서 사사되자, 귀향하여 장례를 치르고 영평(永平)의 산중에 은거하였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정국이 바뀌어 복관되고, 병조참의를 제수받았으나 사임하였다. 다시 동부승지·참의·대사간에 임명되었지만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그 뒤 철원부사를 제수받았는데, 이때 큰 기근이 들고 도둑이 들끓어 민정이 소란하자 관군을 이끌고 토평하였다. 강화유수·예조참판·개성유수 등을 역임하고, 호조·이조·형조의 판서를 지냈다. 1705년 지돈녕부사를 거쳐 이듬해 한성부판윤·우의정, 이어서 좌의정에까지 벼슬이 이르렀다. 1712년에는 사

은사로 청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 1717년 영의정에 올랐다. 노론으로서 숙종 말년 세자의 대리청정을 주장하다가 소론의 탄핵을 받았다. 경종이 즉위하여 34세가 되도록 병약하고 자녀가 없자, 후계자 선정문제로 노론·소론이 대립하였다. 이때 영중추부사 이이명·판중추부사 조태채·좌의정 이건명 등과 함께 연잉군(영조)을 왕세자로 세우기로 상의하여, 김대비(金大妃 : 숙종의 계비)의 후원을 얻었다. 이에 경종의 비 어씨와 아버지 어유구(魚有龜), 사직 유봉휘(柳鳳輝) 등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으나 결국 실행하게 되었다.

1721년(경종 1) 다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상소하여 처음에 경종은 대소 정사를 세제에게 맡길 것을 허락하였으나 소론의 격렬한 반대로 실패하였다. 수개월 뒤 소론의 극렬한 탄핵으로 노론이 축출되고 소론 일색의 정국이 되었다. 곧 이어 소론의 김일경·목호룡 등이 노론의 반역도모를 무고하여 신임사화가 일어나자, 거제도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이듬해 성주에서 사사되었다. 1724년에 영조 즉위 후 관직이 복구되었으며, 영조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영조 때 과천에 사충서원(四忠書院)을 세워 이이명·조태채·이건명과 함께 배향하였으며, 거제의 반곡서원(盤谷書院)에도 제향되었다. 문집으로 『몽와집』이 있고, 『국조자경편 國朝自警編』을 편찬하였다.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이이명·조태채·이건명과 함께 노론 4대신으로 불린다.

12) 이건명(李健命 : 1663~1722). 자는 중강(仲剛), 호는 한포재(寒圃齋)이다. 본관은 전주로 영의정 경여(敬輿)의 손자이고, 이조판서 민서(敏叙)의 아들이다. 아버지 민서는 이이명의 숙부가 된다. 어머니는 좌의정 원두표(元斗杓)의 딸이다.

1684년(숙종 10) 진사시에 합격하고 1686년 춘당대문과에 을과로 급제, 설서(說書)에 임명되고 수찬·교리·이조정랑·응교·사간을 역임하였으며, 1698년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우승지·대사간·이조참의·이조판서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1717년 그의 종형 이이명이 숙종의 뒤를 이을 후계자 문제로 숙종과 단독 면대하였던 소위 ‘정유독대(丁酉獨對)’ 직후, 특별히 우의정에 발탁되어 왕자 연잉군의 보호를 부탁받았다. 숙종상(肅宗喪)에 총호사(總護使)로 장례를 총괄하였다. 이어 경종 즉위 후 좌의정에 승진하여 김창집·이이명·조태채와 함께 노론의 영수로서 연잉군의 왕세제 책봉에 진력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반대파인 소론의 미움을 받았다. 1722년(경종 2) 목호룡의 고변으로 전라도 홍양의 사도(蛇島)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앞서 주청사로 청나라에 가 있으면서 세제책봉을 요청하는 명분으로 경종이 병이 없음에도 위증(痿症)이 있다고 발설하였다는 죄목으로 소론의 맹렬한 탄핵을 받아 유배지에서 목이 베여 죽임을 당하였다.

재상으로 있을 때 민생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당시의 현안이던 양역(良役) 문제에 있어서 감필론(減疋論)과 결역전용책(結役轉用策)을 주장하여, 뒷날 영조 때의 균역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시문에 능하고 송설체에 뛰어났다. 송시열을 학문과 정치의 모범으로 숭배하였으며, 김창집 형제 및 민진원·정호 등과 친밀하였다. 1725년(영조 1) 신원되어 과천의 사충

서원(四忠書院), 흥덕의 동산서원(東山書院), 나주의 서하사(西河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문집으로 『한포재집』 10권이 전한다.

13) 이관명(李觀命 : 1661~1733). 자는 자빈(子賓), 호는 병산(屏山), 본관은 전주이다. 건명의 친형이다. 1687년(숙종 13) 사마시에 합격, 이듬해에 익위사세마가 되고, 공조정랑을 거쳐 함열현감이 되었다. 1698년 알성문과에 급제, 전조랑·사인 등을 역임하고, 이조·병조·예조 등의 참관을 거쳐 양관 대제학에 올랐다. 1721년(경종 1) 모함을 받아 관직을 삭탈당하였으며, 이듬해 신임사화 때 아우 건명이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으로서 극형을 받자, 이에 연좌되어 덕천으로 유배되었다. 1725년(영조 1) 사면되어 우의정이 되고 이듬해 좌의정에 이르렀다.

외직에 있을 때 민은(民隱)을 잘 보살폈고, 시폐의 시정책을 촉구하는 상소를 많이 올렸다. 또한 묘당에서는 임금의 융숭한 예우를 받았으며, 특히 문장에 뛰어나 응제문(應製文)·반교문(頒敎文)·시책문(諡冊文) 등을 많이 남겼다. 흥덕 동산서원에 배향되었다. 문집으로 『병산집』 15권 8책이 있다.

14) 김창엽(金昌業 : 1658~1721). 본관은 안동, 영의정 수항의 넷째아들로 창집(昌集)·창협(昌協)·창흡(昌翕)의 동생이다. 자는 대유(大有), 호는 가재(稼齋) 또는 노가재(老稼齋)이다. 어려서부터 창협·창흡 등 형들과 함께 학문을 익혔으며, 특히 시에 뛰어나 후에 김만중(金萬重)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1681년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한양의 동교송계(東郊松溪)에 은거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이 일어나자 포천에 있는 영평산(永平山) 속에 들어가 숨어살다가 1694년 정국이 노론에 유리하게 되자 다시 송계로 나왔다. 이때 조정에서 내시교관의 벼슬을 제수했지만, 응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노가재라 부르며 세상일을 멀리하였다. 그리고 향리에 사창(社倉)을 설치하고 거문고와 시짓기를 즐기면서 사냥으로 낙을 삼았다.

김창엽의 집안은 선원(仙源 : 김상용)·청음(淸陰 : 김상헌) 형제이래 연행한 횡수만 20차례에 이를 정도로 중국의 문물에 대한 견문이 풍부하였던 까닭에, 그 역시 중국 산천을 보지 못한 것을 늘 아쉽게 여겼다고 하는데, 1712년 연행정사(燕行正使)인 형 창집을 따라 연경에 다녀옴으로써 그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본래는 다른 형제들도 모두 연행하고자 하였던 까닭에 윗형인 창흡이 자제군관으로 따라가고자 했지만 결국엔 창엽이 그 기회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보고들은 것을 모아 『노가재연행일기 老稼齋燕行日記』를 펴냈는데, 이 책은 중국의 산천과 풍속, 문물제도와 이때 만난 중국의 유생, 도류(道流)들과의 대화를 상세히 기록하여 역대 연행록 중에서 가장 좋은 책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주가 있어 젊어서도 그림그리기를 즐겼으므로 아버지로부터 그림에 마음을 빼앗겨 학업에 방해가 될까 걱정을 사기도 했다. 현존하는 그의 그림인 「추강만박도 秋江晩泊圖」(간송미술관 소장)나 후인

이 모사한 「송시열 77세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같은 작품으로 보아 그림 솜씨가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그림에 대한 취향은 서자인 윤겸(允謙)에게 이어져 조선시대 후기에 유행한 진경산수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15) 이희조(李禧朝 : 1655~1724). 자는 동보(同甫), 호는 지촌(芝村)이다.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부제학 단상(端相)의 아들이며, 송시열의 문인이다. 박세채의 문하에서도 수업하였다.

허적(許積)이 권세를 잡고 송준길을 배척하는 소를 올렸을 때 조정에서 누구도 감히 명변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그는 김수항(金壽恒)에게 글을 올려 논박하니 김수항도 탄복하였다. 송시열이 귀양을 간 뒤에는 양주의 지동(芝洞)으로 물러가 「대귀설 大歸說」을 지었다.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이 있는 뒤 유일로 천거되어 건원능참봉에 임명되었으나 사퇴, 다시 천거되어 전설별검(典設別檢)에 임명, 이어서 의금부도사·공조좌랑을 지내고 진천현감이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1694년 갑술옥사 후에 다시 기용되어 인천현감이 되고, 이어 동궁서연관(東宮書筵官)·지평을 거쳐 천안군수로 나가 치적을 올렸다. 그뒤 장악원정에 승진, 해주목사가 되어서는 석담(石潭)에 있는 이이(李珥)의 유적을 찾아 요금정(搖琴亭)을 세우고, 이제묘(夷齊廟)에 찾아가 송시열의 글씨로 편액을 달고 기(記)를 지어 걸었으며, 나라를 위하여 죽은 사람들의 사당을 세워 민심을 격려하였다. 1717년 대사헌, 이듬해 이조참판·찬선·좌주를 지내고 1719년 다시 대사헌이 되었다. 그러나 1721년(경종 1) 신임사화로 김창집 등 노론 4대신이 유배당할 때 영암으로 유배되었고, 칠산으로 이배도중 죽었다. 1725년(영조 1) 신원되어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인천의 학산서원(鶴山書院)과 평양의 산양재영당(山仰齋影堂)에 봉향되었다. 문집으로 『지촌집』 32권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실록에 실린 줄기에 의하면, 송시열과 윤증의 사이가 나빠진 후 평생 송시열을 보호하므로 윤증의 무리가 몹시 미워하였다고 한다.

16) 황귀하(黃龜河 : 1672~1728). 본관은 창원(昌原)이고, 자는 성징(聖徵)이다. 아버지는 건(建)이며, 어머니는 이문행(李文行)의 딸이다. 1705년(숙종 31)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승문원에 들어갔으며, 1712년 지평·사서를 거쳐 이듬해 정언·부수찬·수찬·교리를 지냈다. 이어 충청좌도어사로 나가 천안군수 어유봉(魚有鳳)을 폄삭(貶削)하도록 주청하였다. 1716년 별견어사(別遣御史)가 되어 제주도에 다녀와서 굶어 죽은 제주도민을 치제·적위하도록 하였으며, 진상품인 전복의 양을 3/2로 감해주도록 주청하여 실현시켰다. 또한 기아중에 있는 도민의 진대와 제주유생의 전시직부(殿試直赴)를 주청하였다. 그뒤 헌납을 거쳐 1717년 이조정랑이 되고, 이듬해 부응교·사간을 거쳐 1719년 응교·승지·대사간을 역임하였다.

같은 해 경상좌도군전사가 되었으나 자신이 전 군전사 윤헌주(尹憲柱)를 탄핵하였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하여 사직하고 이듬해 대사성이 되었다. 1721년 대사간으로 있다가 노론 4대신이 김일경(金一鏡)의 탄핵으로 유배될 때 파직되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여 노론이 집권하

자 다시 대사성이 되고, 이듬해 호조참판·대사헌·한성부우윤, 1726년 예조참판·도승지·좌부빈객·호조판서를 역임하고, 이듬해 동지경연사·호조판서·한성부판윤을 역임하였다.

이상의 서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별장(別章)에는 노론 4대신인 이이명·이건명·김창엽에서부터 인현왕후의 오빠 민진후, 정호·송상기·이관명·신임 등의 노론 중신, 김창엽·조정만 등의 노론계 문인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주요 노론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노론의 인사들만이 조영복의 사행(使行)을 전송하는 글을 남기고 있는 것은 조영복 자신의 당색이 노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일면 당연한 점이기도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이 당시 정국이 당파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조영복이 동지부사로 사행을 떠나려 하던 1719년의 정국은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재집권한 서인 세력 내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던 시기였다. 송시열과 윤증간의 회니시비(懷尼是非)로부터 촉발된 노·소론간의 갈등은 이 시기에 이르러 정국의 주도권을 두고 극한대결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었다. 특히 숙종 말년에 이르러 장희빈의 소생인 세자(후일의 경종)를 지지하는 소론과 연잉군(후일의 영조)를 지지하는 노론과의 다툼은 이즈음 ‘정유독대(丁酉獨對)’의 문제로 첨예화되고 있었다. 소론의 영수 윤선거·윤증 부자의 선정(先正) 칭호를 빼앗고 그 문집을 훼손한 병신처분에 이어, 1717년 숙종이 이이명과 독대하여 세자의 대리청정을 명하자, 소론은 이것이 노론측이 세자를 바꾸기 위한 의도에서 도모한 일로 받아들여 격렬한 저항을 하게 된다. 이에 당황한 노론측은 이 독대의 성격이 실상 세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하였으나, 후일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내용이 두 왕자(영령군과 연잉군)의 보호를 부탁한 것이었기에 신임사화의 발단이 되게 된다. 따라서, 1719년이란 시기는 노·소론 간의 이같은 갈등양상이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노론세력의 득세 하에 잠재태로 내재되어 있던 때라 할 수 있겠다. 그런 까닭에 별장에 올라있는 인물들은 대개가 후일 경종이 즉위하여 소론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흑독한 시련을 겪게 된다. 특히 노론 4대신인 이이명·이건명·김창엽 등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다른 인물들도 유배의 고난을 면할 수가 없었다.

별장에 글을 남기고 있는 인물들은 당색외에도 그들 사이에 혈연·사승·교유관계로서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먼저 혈연관계를 살펴보면, 이이명과 이건명·이관명이 종형제간이며, 윤양래와 윤석래·김창집과 김창엽은 친형제간이 된다. 또 이들 대부분은 송시열의 문인으로 노론세력중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성향을 띠며, 이같은 공통된 사승(師承)을 바탕으로 교유면에서도 조영복의 집안과 김창엽·김창집의 집안의 예에서 보듯 매우 두터운 교분을 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생애와 관련하여 또 하나 흥미를 끄는 것은 이들 중 상당수의 인물이 연행을 이미 경험하였거나, 후에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조영복의 연행이 있기 전에 다녀온 인물로는 이이명·민진후·송상기·이중협·이건명·김창엽·김창집 등이 있는데, 이중에 이이명은 후

에도 한 차례 더 연행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1720년의 두번째 연행에서는 독일신부 괴글러와 포르투갈 신부 사우레즈 등을 만나 교류하면서 천주교·역산·천문에 관한 서적을 얻어가지고 돌아왔다. 또 김창집·창업의 경우는 집안 자체가 선조 김상응·김상헌 형제이래 연행 횡수만 20차례에 이를 정도로 중국의 문물에 대한 견문이 풍부하였다고 하는데, 창집이 사은정사(謝恩正使)로 1712년 연행시에 형제간에 서로 따라가고자 하여, 결국 창업이 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연행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창흡은 그 후에도 이 일을 몹시 아쉬워하게 되었고, 창업은 연행시(燕行詩)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노가재연행일기』를 남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연행경험이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 이견명의 경우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연행시 세제(영조)책봉의 명분으로 경종의 병을 발설하였다는 죄목으로 후에 죽음을 당하는데, 이는 연행이 갖는 외교적 어려움과 국내정치와의 밀접한 상관성을 잘 보여주는 일화다. 이들이 별장에 남긴 글에는 이같은 자신들의 연행경험에서 우러난 내용들이 많이 보인다.

### III.

대개의 전승시가 그러하듯이 사행(使行)을 앞두고 지인들간에 주고받는 시편들은 의례성 내지 상투성을 띠게 된다. 예컨대, 사행인(使行人)으로 선발될 수 있었던 상대의 능력에 대한 칭송이나 그가 감당해야할 임무의 중대성, 혹은 중국의 문물을 견문할 수 있다는데에 대한 부러움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들 시편의 이같은 성격은 자연 문학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를 찾아내기 어렵게 한다. 하지만 각도를 달리해 보면 이같은 의례성·상투성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들의 의식세계와 관련된 몇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시대 중국으로의 사행은 명청시대에 걸쳐 이루어진다. 한족(漢族)에서 만주족(滿洲族)으로 중국의 지배세력이 대체되면서 사행이 갖는 의미도 자연 변화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소위 숭명의리 혹은 존주의리와 소중화의식이 그 배경에 자리한다. 중국의 지배세력이 고도의 문명을 지닌 민족이 아니라 야만민족이 그 자리를 차지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 소중화의식이라면, 존주의리는 조선에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베푼 명에 대한 의리론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명에 대한 사행과 청에 대한 사행은 외교적 관계에 있어선 변함이 없었지만, 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를 가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문화·경제적으로 앞선 중국에 가고 싶은 열망은 어느 시대의 지식인들에게나 공유되는 것이었지만, 명분상으론 명과 청의 사행은 동계의 것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명으로의 사행기록을 ‘조천록(朝天錄)’이라 한데 비하여, 청으로의 그것을 ‘연행록(燕行錄)’이라 한데서도 그같은 의식의 단초가

이미 드러나거니와, 특히 17·8세기에 나온 많은 연행관련 기록에서 이같은 의식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명에 대한 사행을 하나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조선 전·중기의 분위기와는 달리 청에 대한 사행이 하나의 치욕으로까지 여겨졌던 것은 이런 까닭에서이다. 효종대의 청에 대한 복수설치(復讐雪恥)에 대한 논의가 시든 뒤에도 숙종대의 대보단(大報壇)의 설치와 정조대의 『존주회편』의 편찬으로 이어진 청에 대한 명분론적 거부감은 특히 노론세력을 중심으로 당대사회의 정신세계의 한 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18세기의 대표적 존주론자인 황경원 같은 인물에게서 “청에 사행가는 벗에게 청에서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냉소적 언급이 나오는 것은 당시의 사회분위기로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별장에 실린 시문에서도 이와 관련된 의식을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莫說烏巒館 오만관(烏巒館)을 말하지 마라  
 生憎鴨水船 압록강 배가 원망스러워지누나.  
 北來唯古月 북쪽엔 오직 옛 달만이 남았는데  
 西去豈朝天 서쪽으로 가서 어찌 조천(朝天)을 한단 말인가.  
 往跡空遼薊 옛 자취 요동(遼東)과 계주(薊州)엔 찾아볼 길 없건만  
 悲歌尙趙燕 조(趙)·연(燕) 땅엔 슬픈 노래 아직도 이어지네.  
 那堪似峴路 어찌 험한 길을 견디랴마는  
 此別在年年 이런 이별은 해마다 있는 것.  
 (송상기(宋相琦) 「송조석오시랑부연 送趙錫五侍郎赴燕」)

송상기는 시의 함련에서 “북쪽엔 오직 옛 달만이 남았는데, 서쪽으로 가서 어찌 조천(朝天)을 한단 말인가”라고 오랑개의 나라인 청에 사대의 예를 행함이 부당함을 한탄하고 있다. 오만관(烏巒官)이나 고월(古月)로 상징되는 명나라의 멸망에 대한 한스러움이 사행을 위해 국경을 건너는 압록강의 배조차도 원망스럽게 할 정도로, 청이란 나라에 조천(朝天)한다는 것이 작자의 의식세계 내에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행 자체의 당위성에 대한 회의란,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때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당시인들의 명분론적 사고에선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청을 사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명을 위해 청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기도 하는데, 경련에서 등장하는 조·연의 비가(悲歌)와 같은 표현들이 그 한 예이다. 다음의 시에서도 이런 점이 잘 드러난다.

從古燕南義士多 옛날부터 연남(燕南)에는 의사(義士)가 많아서  
 金臺早晚尙相過 금대(金臺)에서 아침 저녁으로 마주쳤다네.

逢人若問吾東事 만나는 사람이 만약 우리 나라의 일을 묻는다면  
 試誦當年七首歌 그 옛날의 형가의 비수노래를 불러 주게나.  
 (정호(鄭澹) 「봉송조승선석오부연 奉送趙承宣錫五赴燕」)

정호의 시는 청에 남아있는 명의 부흥을 꾀하는 인물들을 만나거든 우리도 형가와 같이 의리를 지키기 위해 청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음을 알려주라는 내용이다. 실제적으로 조영복이 연행을 떠나던 1719년은 효종과 송시열이 주창했던 청에 대한 복수설치의 논의가 이미 그 실효성을 잃고 있던 시점이지만, 당시인들 사이에서 이같은 의식의 표출은 다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이 모두 진정성을 띤 것이라 볼 수는 없지만, 사행을 전송하면서 이와 같이 청에 대한 적대적 언사를 삼가지 않는 것은 당대인들의 대청의식이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웅변해 준다고 하겠다. 이점은 이들이 조영복의 사행을 염려하고 위로하는 이유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一去燕關歲動經 한 번 연경(燕京)에 다녀옴에 한 해가 지나니  
 天寒送別戒長程 차가운 날씨에 먼 길 조심하게나.  
 金強遠役何時已 강성한 금(金)으로 가는 먼 길 언제나 끝나려나  
 默數茲行近百齡 잠잠이 이 길을 헤아려보니 백년에 가깝구나.  
 (신임(申鉉) 「봉별조시랑석오령공사연부개지행 奉別趙侍郎錫五令公使燕副价之行」)

사행을 떠나는 상대를 위로하는 것은 먼 길 떠나는 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서 비롯하는 지극히 일반적 감정의 발로이다. 하지만 위 시에서 드러나는 의식은 단순히 먼 여정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 이같은 사행이 끝나기를 바라는 작자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청에 대한 사행이 끝나기를 바라는 이러한 간절한 열망은 결구(結句)의 표현에 잘 집약되어 있다. 여기서 백년에 가깝다는 것은 당시 전하는 말에 청이 백년도 못 갈 운수라고 한데에서 온 말인데, 이제 청나라의 운도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작자의 희망 섞인 염원인 셈이다. 이는 사대외교의 실체로서의 청을 의식적으로 부정하는 의식으로, 이들의 시에서 상대의 사행이 영광스럽고 축복받은 임무가 아니라 치욕적이고 고생스러운 일로 묘사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전략)...

中州今不古 중국은 이제 옛날 같지 않으니  
 溢目松腥塵 눈에 넘쳐나는 것은 온통 누린내 뿐.  
 玉帛爲誰執 폐백은 누굴 위하여 가지고 가는가  
 紅閣已荊榛 붉은 누각은 이미 가시덤불에 뒤덮혀 있다네.  
 想過燕市路 생각컨대 연경(燕京)의 거리 지날 적엔

須訪擊節人	모름지기 축을 치는 사람을 찾으라.
世無明天子	세상에 명의 천자 계시지 않으니
疇復肯拖紳	밭 두둑에서 어찌 예복을 갖추랴.
年年走北塞	해마다 북쪽 변새로 달려가며
嗟我小邦臣	내가 소국의 신하임을 탄식하네.
十月朔風寒	시월 북방의 바람 차갑고
行李亦艱辛	행장 꾸림도 고생스럽네.
此去謹奉命	이 번 길은 삼가 왕명을 받들고 가는 것이니
殊方更護身	타국에서 더욱 몸 조심 하게나.
悲歌仍慷慨	슬픈 노래 이에 강개해지고
離席感懷均	자리 떠나며 모두 감회에 젖네.
莫唱皇華句	황화(皇華)의 싯구를 읊지 말게나
何地尋王春	어느 곳에서 새 봄을 찾으리오.
欲將志士淚	지사(志士)의 눈물을 가지고
寄泗泣殷民	흐느끼는 은(殷)의 백성에게 쏟아 붓고 싶구나.
一篇勤致意	시 한 편에 애써 내 뜻을 전하노니
要得看檢頻	자주 자주 살펴 보시게나.

(황구하(黃龜河) 「증별조시랑석오봉사지연 贈別趙侍郎錫五奉使之燕」)

황구하의 시는 이상에서 언급한 당시인들의 대청인식과 그에 기반한 사행에 대한 의미 규정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황구하는 조영복과 같은 나이로 절친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이 장편의 시를 통해 자신의 뜻을 곡진히 표현해 내고 있다. 중국이 이제 옛날의 중국이 아니고 호인(胡人)들의 누린내가 넘쳐 날 뿐이며, 명이 망하여 천자께서 계시지 않으니 청의 조정에서 예모를 갖추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데에서, 천자의 나라로 청을 섬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강한 부정과 혐오의 의식을 살펴 볼 수 있다. 황화구(皇華句)를 읊지 말라는 표현도 청에 대한 외교를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없다는 이같은 인식의 반영인 셈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같은 대청인식은 그 자체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나친 명분논리, 소위 존주론에 입각한 이러한 시각은 실제 청과의 외교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낳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청을 통한 선진문물의 수용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의식과 표리를 이루는 소위 '소중화의식'의 긍정적 측면은 가치를 부여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중화의 문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이같은 인식은 이전의 소극적 자기인식을 넘어선 적극적 자기인식이라는 점에서 위 시와 같은 청의 사회·문화 전반을 비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산생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IV.

별장에 실려 있는 시(詩)중 김창업의 36수의 절구는 단연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문학적 가치를 지닌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송시라는 성격상 상투성·의례성이라는 점에서 문학적으로 그다지 기대될 것이 없고, 실제로 별장에 실려있는 대다수의 작품들의 그같은 의례성·상투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작품의 존재는 더욱 가치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창업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영복의 사행이 있기 7년 전인 1712년 사은 겸 삼절년공사(謝恩兼三節年貢使)의 정사(正使)로 연행길에 오른 장형 창집을 따라 자제군관(子弟軍官)의 신분으로 연행을 경험할 수 있었다. 당시 그의 나이가 55세였던 만큼 자제군관이란 낮은 신분으로의 연행이란 주위의 놀림을 받을 정도로 걸맞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의 연행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까닭에 성사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때 그가 남긴 사적 기록물이 바로 『노가재연행일기』이다.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는 후대 실학과 지식인들인 박지원과 홍대용의 연행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만큼 후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저작이다.

조선후기 연행록을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김경선(金景善)의 『연원직지 燕輶直指』에서는 『노가재연행일기』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연경에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기행문을 남겼는데 그 중 세 사람이 가장 뛰어나니, 노가재 김씨·담헌 홍씨·연암 박씨가 그들이다. 사례(史例)로 말하면 노가재는 편년체(編年體)에 가까운데 평보(平寶)·조창(條暢)하고, 담헌은 기사체(記事體)를 따랐는데 전아(典雅)·진밀(縝密)하며, 연암은 전기체(傳記體)와 같은데 섬려(瞻麗)·굉박(閎博)하다. 모두 스스로 일가를 이루어 각기 그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이에 이어 기행을 기록하려는 자가 또한 어떻게 이보다 나을 수 있겠는가? (김경선(金景善), 「연원직지서 燕輶直指序」)

19세기까지 나온 수많은 조선후기 연행록들 중에서도 홍대용·박지원과 함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작품이 『노가재연행일기』라는 평가이다. 특히 『노가재연행일기』는 이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저술된 기록이고 실제 홍대용과 박지원이 연행시 지침서로 삼았던 까닭에 더욱 그 가치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김창업은 연행을 통해 402수의 연행시를 남기고 있는데, 이들 시중 현존하는 178수는 모두 『노가재연행일기』의 노정과 일치하고 있어 그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별장에 실려 있는 그의 시들도 그 내용이 연행일정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먼저 36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번째 수 : 서시(序詩 : 연행길에 차례로 보라고 당부)
- 두번째 수 : 의주의 전문령(箭門嶺)에 이르러 바라보는 중국의 경치
- 세번째 수 : 전송연 자리에 대한 회고
- 네번째 수 : 통군정(統軍亭)으로의 여로
- 다섯번째 수 : 금석산(金石山)으로 가는 길의 괴로움
- 여섯번째 수 : 책문(柵門) 주위의 경관
- 일곱번째 수 : 봉황산(鳳凰山)으로의 여정
- 여덟번째 수 : 청의 관리인 마패(麻貝)들의 행패
- 아홉번째 수 : 황량한 찰원(察院)의 정경
- 열번째 수 : 초하(草河)에서의 옛 일 회고
- 열한번째 수 : 요동벌의 경치
- 열두번째 수 : 요양성과 주변 백탑 등의 경관
- 열세번째 수 : 심양(瀋陽)에 대한 전문 소감
- 열네번째 수 : 선조 김상헌의 순국 회고
- 열다섯번째 수 : 변성(邊城)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의 고생스러움
- 열여섯번째 수 : 주류하(周流河) 주변의 여로
- 열일곱번째 수 : 낙타를 탄 몽고인을 봄
- 열여덟번째 수 : 중국에서의 음식 고생
- 열아홉번째 수 : 명대 척계광(戚繼光)이 만금을 들여 부질없이 봉화대를 만든 일에 대한 회고
- 스무번째 수 : 육중산(六重山 : 閭山)으로의 여로
- 스물한번째 수 : 송산(松山)에서 명군(明軍) 십만이 전사한 일에 대한 회고
- 스물두번째 수 : 명 서달(徐達)이 세운 성에서의 회고
- 스물세번째 수 : 높다란 성에서 바라보는 전경
- 스물네번째 수 : 난하(灤河)에 있는 고죽사(孤竹祠)에서의 회고
- 스물다섯번째 수 : 계문(薊門)의 아름다운 경치
- 스물여섯번째 수 : 계성(薊城)의 서쪽 삼반(三盤)의 빼어난 경치
- 스물일곱번째 수 : 성 안의 경관과 물산의 풍부함
- 스물여덟번째 수 : 동악묘(東嶽廟)와 조양(朝陽)의 대로에서 자신의 복장을 보고 청인들이 놀람
- 스물아홉번째 수 : 이역에서 맞는 제야
- 서른번째 수 : 청 임금을 알현하며 느끼는 수치스러움
- 서른한번째 수 : 망한 명의 유적에 대한 회고
- 서른두번째 수 : 형가(荊軻)와 소왕(昭王)의 일로 명의 부흥을 바랄 수 없는 현실 암시
- 서른세번째 수 : 옥하관(玉河官)에서의 객수(客愁)
- 서른네번째 수 : 통역관의 지나친 징수로 가져온 물건들을 모두 소진함
- 서른다섯번째 수 : 귀로의 여정과 감회

서른여섯번째 수 : 곁어 - 돌아오는 길에 이 시가 부질없는 말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리라고 함

첫 수와 마지막 수가 전체 시의 서(序)·결(結)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이 시들은 대체로 연행의 순서대로 내용이 전개되어 가고 있다. 다만 두 번째 수의 경우는 그 내용상 세 번째나 네 번째 시의 뒤로 위치가 바뀌어야 할 듯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순차적인 내용의 전개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김창업은 기본적으로 조영복이 이 시를 사행길을 위한 예비지침서로서 이용하길 바랬던 듯하다.

燕役悠悠半載間	연행(燕行)에 반년이 유유히 지나가니
許多酸味又雄觀	허다한 고생에 시달리고 또 웅장한 광경도 본다네.
如今摠向詩中說	이제사 모조리 시에 담아 말하여
寄與行人次第看	떠나는 이에게 주노니 차례로 보게나. (其一)

첫 수에서 김창업은 사행을 고생과 관광의 양면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경험을 이 시에 담았으니 차례로 볼 것을 권면하고 있다. 연행의 선배로써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작시 의도는, 상대에 대한 상투적 걱정과 염려의 연사보다 자상한 배려임에 분명하다. 이같은 김창업의 의도는 시 문면의 곳곳에서 단순한 여정의 나열을 넘어서 생생한 현장감의 표출로 구체화되고 있다.

北風號怒雪凌兢	삭풍은 노하여 부르짖고 눈발은 차가이 내리는데
露宿荒原兩夜仍	황량한 들판에서 노숙한지 두 밤 짜라.
金石山前指欲墮	금석산(金石山) 앞을 가리키던 손이 떨어지려 하는데
鍋中熱飯旋成冰	솔 안의 뜨거운 밥은 어느새 얼어버렸네. (其五)

연행의 여정이란 항시 정해진 숙소와 좋은 음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위 시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변의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 황량한 들판에서 노숙하는 괴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북변의 이 추위를 김창업은 산을 가리키는 손이 떨어지고 솔 안의 뜨거운 밥조차 얼어버리는 것으로 절절하게 형상화해내고 있다. 이는 부실한 잠자리(其九)나 음식과 물 때문에 겪는 고생(其十八)을 다룬 시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창업은 이를 통해 연행의 여정 중에 겪을 실질적인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사행의 모습은 그런 까닭에 지극히 사실적이며, 또 현실 생활의 장을 벗어나 명분론적으로 고상하게 포장된 작위적 고녀의 모습보다 문학적으로 다채로운 모습을 엮어낼 수 있었다.

護行麻貝是官員   행렬을 호위하는 마패(麻貝)는 청의 관리인데  
 駿馬憑陵忽後先   준마타고 앞과 뒤로 멋대로 다닌다네.  
 操縱去留元惡習   가고 머뭇할 마음대로 함은 본래 악습인데  
 近聞徵索更加前   근래 듣자니 거두어 들임도 전보다 더하다네. (其八)

사행의 과정에서 우리측의 입장에서 곤욕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국경을 지나면서 거치게 되는 청 관리들의 텃세와 횡포의 문제였다. 여기서 마패(麻貝)라 함은 우리 사신을 호행하는 청나라 측의 영송관을 말하는데, 당시엔 이들의 행패가 무척이나 심하였던 듯하다. 이 시는 이들의 불합리한 행패를 잘 형상화해내고 있다. 일정에 맞추어 가야하는 우리 일행의 조바심과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잇속을 차리려고만 하는 마패들의 모습은 당대 청으로의 사행 과정에서 약소국으로서 설움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측의 처지를 반영하는 하나의 삽화라고 하겠다. 하지만 연행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고생만은 아니었다. 다음의 시는 말로만 듣던 중국의 웅관(雄觀)들을 직접 본 감격이 잘 나타나 있다.

瀋陽形勝一何雄   심양(瀋陽)의 뛰어난 경치 어찌 그리 웅장한가  
 百雉崢嶸大野中   가파른 백치(百雉)의 성은 넓은 들 안에 있다네.  
 市肆繁華宮闕壯   상점은 변화하고 궁궐은 웅장한데  
 漢車胡馬八門通   한인(漢人)과 만인(滿人)들의 수레와 말은 은 성문 안에 넘쳐나네.  
 (其十三)

이 시에서 묘사되는 심양성(瀋陽城)의 웅장한 광경을 통해 우리는 작자가 느끼는 감격의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말로만 듣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는 경이로움과 조선의 몇 십배, 혹은 몇 백배는 될 듯한 청의 궁궐과 재화의 규모에서 비롯한다. 당시 지식인들이 청에 대한 명분론적 적대감을 지녔던 것과는 별개로 그들 사이에선 연행에 대한 욕구가 항시 있었다. 특히 청은 조선이 선진문물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별장에 실려있는 전송시에선 그같은 의식은 그다지 드러나 있지 않다. 당대 정국의 주도세력으로서의 그들의 입지가 그런 사적 욕구보다는 명분에 집착하게 된 한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김창업의 전송사에서 미약하지만 청의 물산과 경제의 규모에 대한 경탄이 나타난다는 것(其二十七)은 청의 문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 인식 태도라는 점에서 평가될 만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행의 다채로운 측면이 부각되는 김창업의 시에서도 주도적 국면은 역시 대명의리론을 기반으로 한 대청인식의 전개이다.

文山柴市西門外	삼학사 순국하신 곳은 서문 밖에 있고
屬國羝羊北館中	선조계선 속국의 신하로 북관(北館) 속에서 곤경을 겪으셨다네.
往事驚心那可問	지난 일에 놀란 마음으로 어찌 물어볼 수 있으랴마는
悲風朔雪古今同	슬픈 바람과 오랑캐 땅의 눈은 예나 지금이나 같구나.

심양의 서문 밖은 삼학사가 순국한 곳이고, 북관(北館)은 김창업의 증조부인 청음 김상헌이 붙잡혀 고초를 겪던 곳이다. 이 시에는 병자호란시 끝까지 척화(斥和)를 주장하다 온갖 고초를 당한 자신의 증조부와 역시 척화를 주장하다 심양에 압송되어 죽음을 당한 삼학사를 떠올리며 젖는 비탄의 감회가 잘 드러나 있다. 심양 땅에 이르러 증조부가 고초를 겪던 그 현장을 확인하면서 그가 느꼈을 이 비탄의 정서가 “슬픈 바람과 오랑캐 땅의 눈은 예나 지금이나 같구나”라고 표현된 결구에 잘 집약되어 있다. 그가 연행시 명의 유허에서 옛 명나라의 일을 추억하며 애상적 감상(其三十一)을 드러내거나, 명나라의 옛 전장에서 청나라의 군대에 대비하지 못한 일들을 강개한 어조로 한탄(其十九·其二十二)하고 있는데에는 송명의리론의 대표 자라 할 선조를 둔 집안 내력과 무관할 수 없는 그의 적개적인 대청인식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특히 청의 임금을 알현하는 모습의 묘사를 통해 잘 드러난다.

五鳳門開燭影深	촛불 그림자 깊은데 오봉문(五鳳門) 열리고
肆然御座老胡臨	용상엔 오만하게 늙은 띄놈이 앉아 있네.
回看東海何由蹈	우리가 무슨 이유로 짓밟혔나를 되돌아 보니
萬歲呼來欲碎心	만세를 외치는 이 마음 뼈개지려 하네.

2차례의 호란으로 인해 조선이 입은 피해와 그로 말미암은 수차례의 굴욕들이 청의 어전에서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는 작자의 마음을 몹시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청의 임금을 방자히 어좌(御座)에 앉은 늙은 띄놈으로 묘사하는 데에서 우리는 당대 지식인들이 가졌던 청에 대한 적개심의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김창업의 예에서도 재삼 확인되듯이 적어도 이 시대까지의 사행에서의 주도적 의식은 역시 철저한 송명의리론에 입각한 대청의식에 있다. 하지만 별장에 실려있는 대다수의 송시(送詩)에서 드러나는 단선적 대청인식과 그에 기반한 의식의 표출에 비한다면, 김창업의 그것이 가지는 보다 다채로운 인식의 가능성과 폭의 여지는 분명 가치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마지막 수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이 시를 읽어보면 이것이 부질없는 글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리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는 김창업 스스로가 자신의 연행 경험의 폭과 깊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의 연행의식이 당대 다른 인물들에 비하여 적극적이었음을 반영한다. 물론 김창흡이 전송시에서 보여주는 면만을 가지고 재단하기는 어려우나, 그의 연행기록

인 『노가재연행일기』에서 보여주는 청의 문물·문화에 대한 상대적으로 개방된 인식태도와 그것이 후대 북학과 실학자들의 연행의식에 미친 영향을 감안한다면, 김창업의 이같은 인식태도는 이 시대 지식인중 선진적 예로 지목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고가 갖는 이러한 측면이 가장 의례적·상투적 문학인 전송시에서도 이와 같이 다채로운 견문과 의식을 담은 작품을 낳게 하였을 것이다.

여 백

연행별장  
(燕行別章)

여 백

夢窩 金公昌集 汝成 官  
領議政

1. 몽와(夢窩) 김창집(金昌集)<sup>1)</sup> 여성(汝成) 벼슬  
영의정(領議政)

贈別  
趙令錫五赴燕之行

조영공(趙令公)<sup>2)</sup> 석오(錫五)<sup>3)</sup>가 연경(燕京)으로 감에 이  
별하며 주다

燕山苦況我曾經  
且向君行說與聽  
金石山前愁弊幕  
玉河館裏困巖扃  
音書兩阻冥冥翼  
飲食多逢鴝鴝腥  
出柵春來唯快意

연경(燕京)<sup>4)</sup>에서의 곤경을 내 일찍이 겪어  
이제 그대 떠나는 길에 말해 보려 하니 들어보게나.  
금석산(金石山)<sup>5)</sup> 앞의 해진 장막 안에서 근심하고  
옥하관(玉河館)<sup>6)</sup> 깊숙이서 괴로웠다네.  
소식도 편지도 막히어 어두운 하늘을 나는 듯 하고  
먹고 마심에 많이 대하는 건 꺾꺾 대는 비린 것<sup>7)</sup>이라.  
책문(柵門)<sup>8)</sup>을 나서 봄이 옴에 오직 즐거운 것은

- 1) 김창집(金昌集 : 1648~1722)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이고 호는 몽와, 자는 여성이다.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증손이며 영의정 수항(壽恒)의 아들로 창협(昌協)·창흠(昌翕)·창업(昌業)의 형이다. 아버지 수항이 기사환국 때 사사(賜死)되어 잠시 은거하기도 하였으나,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여 1717년(숙종 43) 영의정에 올랐다. 훗날 소론(小論)의 무고로 신임사화가 일어났을 때, 거제도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이듬해 성주에서 사사되었다. 저술로 『국조자경편 國朝自警編』·『몽와집 夢窩集』 등이 있다.
- 2) 영공(令公)은 종 2품과 정 3품의 벼슬아치에 대하여 이르는 존칭으로 영감(令監) 또는 영감(令鑑)이라고도 한다.
- 3) 조석오(趙錫五 : 1672~1728)는 조선 후기의 문신인 조영복(趙榮福)으로, 그의 본관은 함안(咸安)이며 석오는 그의 자이다. 호는 이지당(二知堂)이다. 군수 해(楷)의 아들이고, 김창협의 문인이다. 1705년(숙종 31) 사마시에 합격하여 관계(官階)에 나왔다. 1719년(숙종 45) 승지가 되었고, 그 해에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서예에도 뛰어나 필원(筆苑)에 이름이 끼었다.
- 4) 연산(燕山)은 송나라 선화(宣和) 4년(1122) 연경(燕京)을 고쳐서 연산부(燕山府)라 하였는데, 후에 이로 인하여 연경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 5) 금석산(金石山)은 평안북도 의주(義州)에 있는 산으로, 일명 송골산(松鵲山)이라고도 한다. 연행로(燕行路) 중 구련성(九連城) 다음에 지나게 된다. 산에 황색 돌이 많아 금석산이라 이름한 것이다.
- 6) 옥하관(玉河館)은 북경에서 우리 사신들이 묵던 숙소이다. 옥하관은 3면이 모두 높은 담으로 되어 있으며 남쪽이 큰 길이긴 하나 인가(人家)가 가로막고 있으므로 머리를 들어 성(城) 안을 보아도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한다(『노가재연행일기』 임진년 12월조 참조).
- 7) 역역성(鴝鴝腥)은 『맹자 孟子』·『등문공 滕文公』 하(下)의 진중자 이야기중에서 나온 말이다. 진중자는 형에게 산 거위가 선물로 들어오자 역역(鴝鴝 : 거위소리)하는 것을 어디에 쓰겠냐고 그것을 더럽게 보았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요리한 이 거위고기를 모르고 먹다가 나중에 알고는 그것을 토하였다고 한다.
- 8) 책문(柵門)은 본래 봉황성(鳳凰城)에서 동쪽 5리쯤에, 압록강에서 930여리 되는 곳에 있었는데, 후에 봉황성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경작지를 넓히기 위해서 차츰 압록강에 가까워졌다고 한다. 책문은 일종의 국경선으로 그 지역은 공백지로 비워 놓아 밀무역을 막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책문후

강 건너면 멀리 통군정(統軍亭)<sup>9)</sup>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네.

濟江遙認統軍亭

기해년(己亥年 : 1719년, 숙종 45) 중동(中冬)에 몽와(夢窩)

己亥中冬 夢窩

## 2. 소재(疎齋) 이이명(李頤命)<sup>10)</sup> 양서(養敍) 벼슬 좌의정(官左議政)

疎齋 李公頤命 養敍 官左議政

시랑(侍郎) 조여오(趙汝五) 그대가 연경(燕京)에 사신으로 가면서 나에게 이별의 말을 구할 적에 내가 능히 시를 읊을 줄을 모른다며 사양하자 “어찌 반드시 시를 지어야만 하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금증(金縉)<sup>11)</sup>을 신고 관개(冠蓋 : 사신 행차)가 마치 산천(山川)처럼 이어지도록, 이리 저리 떠돌아 다니며 어려운 문과 나라 잃은 슬픔을 모든 사람이 다 읊었으니 내 어찌 군더더기를 더 보태겠는가. 비록 ‘잘 가라는 두 글자면 좋다’라고 한다.

侍郎趙汝五 使燕求余以別語 余辭以焦憂 不能歌詠曰 何必詩乎 余曰金縉百年冠蓋織 如山川跋履之苦 麥秀香離之悲 人人必能言之 吾何贅乎曰 雖好去二字 可也 噫 其意勤矣 顧汝五韶顏 未衰方仗 王靈行忠信 去來非可憂也 拜稽之忍其恥 獻納之不能爭 余曾所自傷者 今無可爲 汝五謨將何以副其望乎 但余當入燕有疑而不自決者

아아! 그 뜻은 근심하기도 하구나. 돌아보건대 그대 여오(汝五)는 아직 동안(童顏)으로 쇠미하지 않아 바야흐로 왕명을 받들어 충신(忠信)을 실천하기 위해 가고 오는 것은 가히 걱정할 것 아니다. 떠나면서 임금에게 절하고 인사할 적에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 할 줄을 모르는 것을 내가 일찍이 스스로 마음 아파했던 것인데, 지금은 어찌 할 수가 없구나. 그대 여오(汝五)는 장차 무엇으로써 바라는 것에 부응하겠는가.

다만 내가 연경(燕京)에 들어갔을 때 의심나는 것이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시(柵門後市)라는 말이 생길 만큼 청나라와 조선 상인간의 밀무역 장소로 이용되었다.

- 9) 통군정(統軍亭)은 평안북도 의주(義州)의 서쪽 압록강 기슭의 삼각산(三角山) 위에 있는 정자 이름이다.  
 10) 이이명(李頤命 : 1658~1722)의 자는 양서(養敍), 호는 소재(疎齋)이다. 1686년(숙종 12) 문과 중시에 급제하고, 1698년(숙종 24) 갑술옥사로 남인(南人)이 실각하자 예조판서·사대헌·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705년(숙종 31) 영의정을 지내고, 이어 좌의정에 올랐다. 1720년(숙종 46) 숙종이 승하하자 고부사(告訃使)로 연경(燕京)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11) 금증(金縉)은 금불이와 비단으로 조공품(朝貢品)을 말한다.

夫燕都之不競 天下其言之矣 將  
未知扶蘇項燕之倫首事乎 中國  
與阿骨鐵木之屬憑陵於邊土歟  
天道人事十年 尤有可見者 願汝  
五默察 而東歸以決余疑

대저 연경[燕京 : 청나라]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천하 사  
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장차 부소(扶蘇)<sup>12)</sup>와 항  
연(項燕)<sup>13)</sup>같이 의(義)를 행할 사람이 있겠는가. 중국과 몽  
고[阿骨鐵木]의 족속(族屬)들이 변방에서 업신여기는구나.  
천도(天道)와 인사(人事)가 10년이 지났으니 더욱 가히 불  
만한 것이 있을 것임에, 원컨대 그대 여오(汝五)는 묵묵히  
살피고 돌아와서 나의 의심을 풀어주시게.

己亥仲冬 踈齋病拙拜

기해년(己亥年 : 1719년, 숙종 45) 중동(中冬)에 소재(踈齋)는 병석(病席)에서 배례(拜禮)하다.

寒圃齋 李健命 仲剛 官  
左議政

### 3. 한포재(寒圃齋) 이견명(李健命) 중강(仲剛)<sup>14)</sup> 벼슬 좌의정(左議政)

奉贈  
節使趙侍郎錫五 赴燕之行

절사(節使)<sup>15)</sup> 조시랑(趙侍郎) 석오(錫五)가 연경(燕京)으  
로 떠남에 드리다.

冠蓋年年走北庭  
更將何語慰君行  
天時人事今難料  
別恨羈愁且莫驚  
異地山川看咫尺  
丈夫忠信仗平生  
懸知智士能觀國

해마다 수레는 북정(北庭)<sup>16)</sup>으로 달려가고  
다시 무슨 말로 그대 떠나는 길 위로하리오.  
하늘의 때와 사람의 일이란 지금 헤아리기 어려우니  
이별의 슬픔과 갈 길 걱정으로 또한 당황하지 말게나.  
이역(異域)의 산천을 지척(咫尺)같이 볼 것이고  
장부(丈夫)로서의 충성과 신의를 늘 지니고 있으리.  
생각컨대 지혜로운 선비 나라를 돌볼 줄 알지니

- 12) 부소(扶蘇)는 진(秦)나라 진시황의 큰 아들로 시황제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극력 간하다가 노여움을 사서 북방의 몽염(蒙恬)에 의해 감시를 당했다. 시황제가 죽자 조고(趙高)에 의해 사사(賜死)되었다.  
13) 항연(項燕)은 초(楚)나라의 명장으로 진(秦)나라의 장수 왕전(王翦)에게 포위되자 자결하였다.  
14) 이견명(李健命 : 1663~1722)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노론사대신(老論四大臣)중의 한 사람이다.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중강(仲剛), 호는 한포재(寒圃齋)이며 영의정 경여(敬輿)의 손자이자, 이조판서 민서(敏叙)의 아들이다. 이이명(李頤命)이 중형이 된다. 경종 즉위 후 좌의정에 승진하여 김창집·이이명·조태채와 함께 노론의 영수로서 연잉군의 왕세자 책봉에 진력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반대파인 소론(小論)의 미움을 받았다. 시문에 능하고 송설채(松雪體)에 뛰어났다. 저서로 『한포재집』이 전한다.  
15) 절사(節使)는 절일(節日)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내는 사신을 말한다.  
16) 북정(北庭)은 청나라를 가리킨다.

훗날 돌아오거든 자세히 평해주게나.

他日歸來仔細評

기해년(己亥年 : 1719년, 숙종 45) 10월[陽月] 하순[下澣]

己亥陽月下澣

4. 장암(丈巖) 정호(鄭澣)<sup>17)</sup> 중순(仲淳) 벼슬  
영의정(領議政)

丈巖 鄭公澣 仲淳 官領  
議政

삼가 승선(承宣) 조석오(趙錫五)의 연행(燕行)에 부치다.

奉送趙承宣 錫五 赴燕

옛날부터 연남(燕南)에는 의사(義士)가 많아서

從古燕南義士多

금대(金臺)에서 아침 저녁으로 마주쳤다네.

金臺早晚尙相過

만나는 사람이 만약 우리 나라의 일을 묻는다면

逢人若問吾東事

짐짓 이제도 「비수가 悲愁歌」<sup>18)</sup>를 읊는다고 하거나.

試誦當年七首歌

기해년(己亥年 : 1719년, 숙종 45) 늦은 6월 하순 오천(烏川) 정호(鄭澣)는 쓰다.

歲己亥季秋下澣 烏川鄭澣稿

5. 지재(止齋) 민진후(閔鎭厚)<sup>19)</sup> 정능(靜能) 벼슬  
판서(判書)

止齋 閔公鎭厚 靜能 官  
判書

이번 길 일찍이 나도 호랑이에게 당한 어려움이 있었지

此役曾傷虎

야! 그런데 당신이 또 사신(使臣) 길을 떠나는구료<sup>20)</sup>.

嗟君又飲冰

17) 정호(鄭澣 : 1648~1736)의 자는 중순(仲淳), 호는 장암(丈巖)이다. 좌의정 정철(鄭澈)의 현손으로 1684년(숙종 10) 정시 문과에 급제하였고 송시열(宋時烈) 문하의 뛰어난 학자로 노론(老論)의 선봉이었다. 시문과 서예에 능했다.

18) 형가가 칼을 갈며 진시황을 죽이려고 했던 고사로, 여기서는 명나라를 친 청나라를 없애려는 의지가 있다는 말이다.

19) 민진후(閔鎭厚 : 1639~1720)의 자는 정순(靜純)이고, 호는 지재(趾齋)이다. 1686년(숙종 12)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18년(숙종 44) 승록대부 예조판서에 오른 후 홍문관 제학에 임명되었으나 거절하였다.

20) 음빙(飲冰)은 『장자 莊子』 「인간세 人間世」에 나오는 말로 “아침에 사신으로 가라는 명을 받고서 저녁에는 얼음을 마신 형편인데도, 저의 몸은 근심으로 뜨거워져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곧 사신의 길의 어려움을 말한다.

吟詩幽憤瀉  
撫劍壯心憑  
燕市千年照  
灤河一派澄  
今行遊賞遍  
亦足丈夫稱

鎮厚

시를 읊조리면 그윽히 분(憤)을 쏟아내고  
칼을 어루만지며 장부(丈夫)의 마음을 의지한다<sup>21)</sup>.  
연경(燕京) 저자에는 천년토록 형가의 의지가 비추고<sup>22)</sup>  
난하(灤河)<sup>23)</sup>에는 한 줄기 맑은 물줄기가 흐른다.  
지금 두루두루 보고 나면  
또한 족히 장부(丈夫)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진후(鎭厚)가 쓰다.

寒竹齋 申公鉞 華仲 官  
判書

奉別

趙侍郎錫五令公 使燕副价之行

一去燕關歲動經  
天寒送別戒長程  
金強遠役何時已  
默數茲行近百齡

語有無百年之運故云

(又)

店開奎壁鬻義經

6. 한죽재(寒竹齋) 신임(申公鉞)<sup>24)</sup> 화중(華仲)  
벼슬 판서(判書)

삼가 시랑(侍郎) 조석오(趙錫五) 영공(令公)의 연경(燕京)  
부사(副使)로 사신(使臣)감을 전별하다.

한 번 연경(燕京)에 가니 한 해가 지나  
추운 하늘 끝 먼 사신 길 조심하게나.  
금(金)나라<sup>25)</sup> 먼 길은 언제나 끝날 것인가.  
잠잠히 이 길을 헤아려보니 백년에 가깝구나.

“백년을 못가는 운수”라는 말이 있으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우)

점포에서 복희(伏羲)의 경전(經典)을 사니<sup>26)</sup>

21) 밍(憑)은 세상을 바꾸어 보고 싶다 곧 명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뜻이다.

22) 형가가 복수하려는 의지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뜻이다.

23) 난하에는 백이와 숙제의 사당이 있으므로 백이숙제의 의(義)가 이어오고 있다.

24) 신임(申鉞 : 1642~1725)의 자는 화중(華仲), 호는 죽리(竹里)·한죽재(寒竹齋)이다. 1686년(숙종 12)  
정시 문과에 급제하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공조판서에 올랐다. 신임사회에 항소했다가 제주에  
위리안치되기도 하였다.

25) 금나라는 곧 청나라를 일컫는다.

26) 희경(羲經)은 『주역』을 말한다.

사성(四聖)<sup>27</sup>이 받들어 온 책이 전하여 법이 되었다.  
세 번이나 끊어진 책<sup>28</sup>을 매양 이어 바라보며  
가만히 뒤져가다 나이를 헤아려 본다.

四聖奉書傳則程  
三絕第編每承望  
祗堪披琬度御齡

세모(歲暮) 기해년(己亥年 : 1719년, 숙종 45) 11월 상순  
81세 노인 죽리(竹里) 신화중(申華仲)은 쓰다.

歲暮己亥復月上浣 八十一歲老  
人 竹里申華仲稿

7. 송상기(宋公相琦)<sup>29</sup> 옥여(玉汝) 벼슬 이조판  
서[吏判]

宋公相琦 玉汝 官吏判

시랑(侍郎) 조석오(趙錫五)가 연경(燕京)에 감을 보내며

送  
趙錫五侍郎 赴燕

오만관(烏巒館)<sup>30</sup>을 말하지 마라.  
평생에 압록강(鴨綠江) 배가 원망스럽다.  
북쪽으로 오면 오직 오랑캐만이 있는데  
서쪽으로 가서 어찌 조천(朝天)을 한단 말인가.  
가는 자취는 요동(遼東)과 계주(薊州)에 비었고  
슬픈 노래는 조연(趙燕)<sup>31</sup>의 노래가 아직도 이어지네.  
어찌 고개길을 견디랴.  
이런 이별은 해마다 있는 것.

莫說烏巒館  
生憎鴨水船  
北來唯古月  
西去豈朝天  
往跡空遼薊  
悲歌尙趙燕  
那堪似峴路  
此別在年年

기해년(己亥年 : 1719년, 숙종 45) 11월[至月] 초 송옥여  
(宋玉汝)가 쓰다.

己亥至月之初 宋玉汝

27) 사성(四聖)은 복희, 문왕, 주공, 공자를 일컫는다.

28) 삼절(三絶)은 공자가 『주역』을 많이 봐서 그 책을 묶은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말로 위편삼절(韋編三絶)을 말한다.

29) 송상기(宋相琦 : 1657~1732)의 자는 옥여(玉汝), 호는 옥립재(玉立齋)이다. 1684년(숙종 10)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1702년(숙종 28)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노론(老論)이 득세하자 대사성과 대사간, 대제학, 대사헌, 예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30) 오만관(烏巒館)은 「관산용마」에 나오는 말로 멸망한 나라의 한(恨)이 서려 있음을 말한다.

31) 조(趙)나라와 연(燕)나라를 말한다.

## 奉贐 錫五令公 燕行

送君何事動悲吟  
禹鼎於今泗水混  
首陽山上孤吟月  
應照行人一片心

懼川病友 拜

屏山 李公觀命 子賓 官  
左議政

送別  
趙令錫五 以副价赴燕

褰衣獨上望洋亭  
腳下雲煙九點青  
河北男兒今幾介  
山西戰血尙餘腥  
怒鯨掣海波濤黑  
亂靄鋪空日月冥  
漢節歸來留感慨  
送君此去說丁寧

己亥孟冬 李子賓

8. 삼가 석오(錫五)가 연경(燕京)에 가는 것을 전  
별하며

그대는 무슨 일로 슬픈 노래 부르나  
우(禹) 임금의 터전이 지금도 사수(泗水)에 남아 있다네.  
수양산(首陽山) 위에서 외로운 달을 읊조리자니  
응당 지나는 사람의 일편단심(一片丹心)을 비춰주겠지.

묘천(懼川)에서 병석(病席)에 있는 친구가 쓰다.

9. 병산(屏山) 이관명(李觀命) 자빈(子賓)<sup>32)</sup> 벼  
슬 좌의정(左議政)

조영공(趙令公) 석오(錫五)가 부사(副使)로 연경(燕京)을  
감에 작별하여 보낸다.

옷을 걷고 홀로 망양정(望洋亭)<sup>33)</sup>에 오르니  
아래의 구름 이내 사이로 점점이 푸른 산이 보이네.  
하북(河北)의 사내[男兒]는 이제 얼마나 남아 있는가  
산서(山西)의 치열한 싸움에 아직도 피비린내 남아 있구나.  
노한 고래 바다를 가름에 파도는 칠흑(濤黑)이요  
하늘엔 어지러이 눈 날리고 해와 달도 어둑구나.  
사신(使臣)이 돌아올 땐 사무치게 느끼는 바가 있으리라  
그대 떠나는 길에 전송하며 정중히 말씀드리네.

기해년(己亥年 : 1719년, 숙종 45) 10월[孟冬] 이자빈(李子賓) 쓰다.

32) 이관명(李觀命 : 1661~1733)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이다. 자는 자빈이고, 호는 병산이며 이견명(李健命)의 형이다. 문장에 뛰어나 응제문(應製文)·반교문(頒教文)·시책문(諡冊文) 등을 많이 남겼다. 저서로는 『병산집』 15권 8책이 있다.

33) 산해관(山海關) 인근에 있는 정자 이름이다.

## 10. 지촌(芝村) 이희조(李喜朝)<sup>34</sup> 벼슬 대사헌(大司憲)

芝村 李公喜朝 官大司憲

조영공(趙令公)의 연경(燕京) 사행(使行)을 떠나 보내는 글

別趙令公赴燕序

영공(令公) 조석오(趙錫五)가 부사(副使)로 연경(燕京)에 감에 전송하는 자리에서 이별의 글을 구하였다. 그 때 내가 병에 시달려 누워 있었던 데다가 마음이 괴롭고 슬퍼 글을 지을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또한 어찌 아무 말도 없이 그 뜻을 저버릴 수가 있겠는가.

趙令公錫五 以副价使燕 臨行 送賤求別語 余方吟痛伏枕 兼 且心事悲苦 有不暇爲役於筆研 聞者 然亦何可全無一言 以孤 其意 盖惟晦翁夫子 嘗序南軒 先生文集 以奏議爲已施行 而 不錄 余每未詳其義 及見大全 中答胡季隨書 有曰 南軒文集 方編得略 就便可刊行最好 是 奏議文字 及往還書中論時事處 確實痛切 今却未敢編入 異時當 以奏議自作一書 而附論事書尺 於其後 勿令廣傳 或世俗好惡 稍衰 乃可出之

주희옹[晦翁夫子]<sup>35</sup> 선생이 이전에 남헌선생(南軒先生)<sup>36</sup>의 문집(文集)에 서문(序文)을 붙였는데, 주의(奏議)의 글은 이미 임금께 아뢰어진 글이라 하여 문집에 실지 않는다고 하였다. 내가 매양 그 의미가 석연치 않다고 여겼는데, 『주자대전 朱子大全』 가운데 「답호계수서 答胡季隨書」를 보니 다음과 같이 말한 부분이 있었다. “『남헌문집 南軒文集』이 대략 편찬되었으니 곧 간행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의문자(奏議文字)와 주고 받은 편지중에 당시의 일을 논한 곳은 너무나 확실하고 절실하여서 이제 감히 편찬하여 넣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날 마땅히 주의(奏議)로 써 한 책을 만들고 시사(時事)를 논한 편지글을 그 뒤에 덧붙여서는 널리 퍼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혹 세속(世俗)의 시비가 조금 가라앉거든 세상에 낼 수 있을 것입니다”.

34) 이희조(李喜朝 : 1655~1724)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 자는 동보(同甫), 호는 지촌(芝村)으로 부제학 단상(端相)의 아들이며, 송시열의 문인이다. 1717년(숙종 43) 대사헌, 이듬해 이조참판·찬선·재주 등을 지내고 1719년 다시 대사헌이 되었다. 신임사화로 김창집 등 노론 4대신이 유배당할 때 영암으로 유배되었고, 철산으로 이배 도중 죽었다. 저서로는 『지촌집』 32권이 있다.

35) 주희옹(朱晦翁)은 주희(朱熹)를 말한다. 희옹(晦翁)은 그의 호이다.

36) 남헌선생(南軒先生)은 송(宋)나라의 장식(張栻 : 1133~1180)으로 자는 경부(敬夫)·낙재(樂齋)이며, 호는 남헌(南軒)이다. 당시에는 흔히 남헌선생(南軒先生)이라 불렀다. 한주금죽(漢州錦竹 : 지금의 사천성) 출신으로 순희(淳熙) 연간에 이부원외랑(吏部員外郎)으로 있으면서 외척 장열(張說)이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에 임명되자 불가함을 상소하다가 외직으로 쫓겨 난 바 있다. 임종시에도 효종에게 직언으로써 상소하였다. 호굉(胡宏)에게 수학하였고 주희(朱熹)와 함께 남송(南宋) 도학(道學)의 대가로서 이름을 날렸다.

後又考文獻通考經籍考 果有南軒奏議十卷 見載 蓋序文所論雖如許 其實則必如書意爲避時諱故然也 但所謂奏議十卷者 當時似已刊行 未知 逆出於晦翁所編定 而論事書尺並附 入於其中否 此書宜與文集一體 并傳於東方 而乃未也 良以別行之 故人不能知 前後使行 一不購求故耳 苟能至誠求之 寧有不得之理哉 以近日四書精義 勉齋集等書觀之可知也 倘錫五廣問博訪 期於有得 又必不惜重價而買取 歸而獻諸九重 以備省覽 而資講論 則亦庶幾有補於君德 與治道矣 抑此外如宋元明諸儒先文集以暨性理諸書 亦宜一併訪問隨得市來 噫今天下之爲長夜者 久矣 然此等文籍 必當依舊在於書肆中 錫五於今行 如不欲以燕市一物 浼於歸橐則已 不然 須留意於此 使如我匏繫一方者 亦得見平日所願見 而未得者

후에 『문헌통고 文獻通考』의 「경적고 經籍考」 부분을 살펴보니 과연 『남헌주의 南軒奏議』 10권이 실려 있었다. 서문(序文)에서 말한 것은 비록 앞과 같지만, 그 실질은 반드시 앞의 편지글의 내용처럼 당시에 기휘(忌諱)될 바를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다만 이른바 『주의 奏議』 10권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미 간행되어 회옹(晦翁)이 편정(編定)한 것에서 역으로 나오고 논사(論事)의 약간이 그 안에 들어가 함께 부기(附記)된 것이 아닌가 알 수 없다. 이 책은 의당 문집(文集)과 일체가 되어서 아울러 우리나라에 전해졌어야 하건만 그렇지 못했다. 정말로 별도로 간행되었던 까닭에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것인가. 이는 그간의 사행(使行)에서 한 번도 구입하려 하지 않았던 때문이다. 진실로 정성을 다하여 구하였더라면, 어찌 이 책을 얻지 못할 수가 있었겠는가. 근래 『사서정의 四書精義』와 『면재집 勉齋集』 등의 책을 보건대 이 점을 알 수 있다.

혹 석오(錫五)가 책을 얻고자 널리 알아보고 찾아서는, 또 비싼 값을 아끼지 않고 사서 돌아와 궁궐에 바쳐 살펴볼 수 있게 하고 강론(講論)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면, 군덕(君德)과 치도(治道)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외에도 송(宋)·원(元)·명(明)의 여러 선유(先儒)들의 문집(文集)에서 성리학(性理學)에 대한 여러 책들을 모조리 찾아보고 만나는 대로 사가지고 오시게나.

아! 지금 천하가 지나긴 밤[長夜]이 된지 오래다. 그러나 이런 문적(文籍)들은 반드시 옛날처럼 서점 중에 있을 것이니, 석오(錫五)가 이번 사행에서 만일 북경(北京)의 거리에서 파는 한 물건으로 돌아오는 짐 꾸러미를 더럽히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나, 그렇지 않다면 모름지기 이에 유의해 주시게나.

만일 나같은 한 곳에 매인 자<sup>37)</sup>로 하여금 평상시 보고 싶었으나 보지 못하였던 책을 볼 수 있게 한다면,

37) '포계일방자(匏繫一方者)'는 『논어』「양화」편의 “吾豈匏瓜也哉 焉能繫而不食(내가 어찌 뒤옹박과 같아서 한 곳에 매달린 채 먹기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에서 온 말로, 여기서는 사행(使行)에 참가하여 청의 문적(文籍)을 직접 구해 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빗댄 것이다.

어찌 우리같은 사람의 커다란 즐거움이 되지 않겠는가.  
내가 마땅히 공손하게 기다리리라.

則豈非吾人一大快事耶 余當拱  
而俟之

기해년(己亥年 : 1719년, 숙종 45) 동지달[至月] 일(日) 영  
지주인(靈芝主人)이 쓰다.

歲己亥至月日 靈芝主人書

11. 황구하(黃龜河) 성징(聖徵)<sup>38)</sup> 벼슬 호조판서  
[戶判]

黃公龜河 聖徵 官戶判

시랑(侍郎) 조석오(趙錫五)가 명(命)을 받들고 중국으로  
사행(使行)을 감에 떠나 보내며 주다.

贈別  
趙侍郎錫五 奉使之燕

나의 입신출세[靑雲]한 벗 중에  
오직 그대와 가장 친하지.  
은대(銀臺)<sup>39)</sup>에서 세 차례나 자리를 이어받았고  
회갑[華甲] 또한 같은 해로세.  
청나라 조정[淸朝]에서 독대할 이로 간택되어  
만리(萬里) 길 갈 임무를 띠었네.  
돌아가는 배 장차 은하수에 띄울 것이고  
황폐한 성가퀴에서 반드시 진(秦)의 패망을 슬퍼하리.  
중국[中州]은 이제 옛 날 같지 않으니  
눈에 넘쳐나는 것은 온통 누린내 뿐.  
폐백[玉帛]은 누굴 위하여 가지고 가는가  
붉은 누각[紅閣]은 이미 가시덤불에 뒤덮혀 있다네.  
생각컨대 연경(燕京)의 거리 지날 적엔

我有靑雲友  
惟子最相親  
銀臺三接武  
華甲又同辰  
淸朝揀專對  
萬里口含綸  
歸槎將泛漢  
荒堞必愴秦  
中州今不古  
溢目惔腥塵  
玉帛爲誰執  
紅閣已荊榛  
想過燕市路

38) 황구하(黃龜河 : 1672~1728)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원이고 자는 성징이다. 건(建)의 아  
들이며, 이문행(李文行)의 외손이다. 1721년(경종 1) 대사간으로 있다가 노론(老論) 4대신이 유배될  
때 파직되었다. 1724년(경종 4) 영조가 즉위하여 노론이 집권하자 다시 대사성이 되었고, 이듬해 호  
조참판·대사헌, 1726년(영조 2) 도승지·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39) 승정원(承政院)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須訪擊節人  
 世無明天子  
 疇復肯拖紳  
 年年走北塞  
 嗟我小邦臣  
 十月朔風寒  
 行李亦艱辛  
 此去謹奉命  
 殊方更護身  
 悲歌仍慷慨  
 離席感懷均  
 莫唱皇華句  
 何地尋王春  
 欲將志士淚  
 寄洒泣殷民  
 一篇勤致意  
 要得看檢頻

己亥仲冬上浣 庚弟黃聖徵謹稿

奉贖 趙侍郎錫五令公 赴  
燕

城南飲餞送扶桑

모름지기 축을 치는 사람<sup>40)</sup>을 찾으라.  
 세상에 명(明)의 천자(天子) 계시지 않으니  
 발 두둑에서 어찌 예복을 갖추랴.  
 해마다 북쪽 변새[北塞]로 달려가며  
 내가 소국[小邦]의 신하임을 탄식하네.  
 시월 북방의 바람[朔風] 차갑고  
 행장 꾸림[行李]도 고생스럽네.  
 이번 길은 삼가 왕명(王命)을 받들고 가는 것이니  
 타국에서 더욱 몸 조심 하게나.  
 슬픈 노래 이에 강개(慷慨)해지고  
 자리 떠나며 모두 감회에 젖네.  
 황화(皇華)의 싯구를 읊지 말게나<sup>41)</sup>  
 어느 곳에서 새 봄을 찾으리오.  
 지사(志士)의 눈물을 가지고  
 흐느끼는 은(殷)의 백성에게 쏟아 붓고 싶구나.  
 시 한 편에 애써 내 뜻을 전하노니  
 자주 자주 살펴 보시게나.

기해년(己亥年 : 1719년, 숙종 45) 중동(仲冬) 상순(上浣) 경제(庚弟)<sup>42)</sup> 황성징(黃聖徵)은 삼가 짓다.

12. 삼가 시랑(侍郎) 조석오(趙錫五) 영공(令公)  
이 연경(燕京)에 가는 것을 전별하며

성남(城南)에서 이별하여 부상(扶桑)으로 보내니

40) 격절인(擊節人)은 아마도 형가(荊軻)가 태자(太子) 단(丹)의 설원을 위해 연(燕)나라를 떠날 때, 고점리(高漸離)가 격축(擊筑)함에 형가가 화답하여 노래부른 것을 염두에 둔 말인 듯하다. 따라서 여기서 뜻이 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1) 황화구(皇華句)는 『시경 詩經』 「소아 小雅」의 「황황자화 皇皇者華」편을 가리킨다. 이는 사신(使臣)을 보내는 시(詩)로, 예악(禮樂)으로써 전송하면서 국가를 빛낼 것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선 존주론적(尊周論的) 사고방식에 의해서 명(明)을 멸망시킨 청(淸)으로 사신가는 것을 하나의 치욕으로 여긴 까닭에 '황화구(皇華句)'를 읊지 말라고 한 것이다.

42) 같은 동년배에게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겸칭이다.

두터운 뜻은 은근하여 오히려 잊을 수가 없구나.  
 이날 동지사(冬至使)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니  
 이제껏 욱되게 조랑(曹郎)<sup>43</sup>에 있었다가.  
 6년만에 큰 벼슬길에 올라  
 만리(萬里) 임금을 위한 길에 눈 서리도 무릅쓰는구나.  
 그대는 임금의 은혜를 입어 먼 길도 마다 않으나  
 부끄럽게도 나는 병들어 여기에 누워있구나.

厚意殷勤尙不忘  
 此日聞爲冬至使  
 當時屈在地曹郎  
 六年宦業登霄漢  
 萬里王程犯雪霜  
 知子含恩輕遠役  
 愧吾淹病負于將

기해년(己亥年 : 1719년, 숙종 45) 10월

己亥 孟冬

13. 윤양래(尹陽來) 계형(季亨)<sup>44</sup> 벼슬 봉조하(奉朝賀)

尹公陽來 季亨 官奉朝賀

동지부사(冬至副使) 조령공(趙令公) 석오(錫五)의 연행  
 (燕行)길에 부처

贈別冬至副使 趙令錫五赴燕

사람들이 말하길 연경(燕京) 사신(使臣) 길은 힘들다고  
 내가 일찍이 변방에서 쓸쓸하였다오.  
 바람 부는 넓은 들판에는 비린내가 풍겨나고  
 검은 안개 낀 무너진 성(城)에는 도깨비불이 날아다닌다네.  
 객관(客館)에 머무는 나그네 혼(魂)은 새벽 호각 소리에  
 놀라고  
 고향에 돌아갈 꿈은 얼음 배[氷翰]에 놀란다네.  
 알겠다. 임금이 가장 중히 여기는 것은 오직 충(忠)과 신  
 (信)이란 것을  
 남북(南北)으로 달리는 어진이들의 노고가 근심스럽지  
 않네.

人說燕槎效壯遊  
 我曾榆塞飽牢愁  
 飄風曠野腥塵漲  
 黑霧崩城鬼燐流  
 客館羈魂驚曉角  
 故園歸夢恻氷翰  
 知君長物惟忠信  
 南北賢勞定不憂

43) 정랑(正郎)에 해당하는 벼슬이다.

44) 윤양래(尹陽來 : 1673~1751)의 자는 계향(季香), 호는 만와(晦窩)이다. 1708년(숙종 34)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속필로 비주서(飛注書)라고 칭하였다. 글씨와 시문에 능하였는데, 1746년(영종 22) 판돈녕 부사에 이어 봉조하(奉朝賀)에 올랐다.

己亥仲冬上浣 尹季亨稿

기해년(己亥年 : 1719년, 숙종 45) 11월[仲冬] 상순 윤계형(尹季亨)이 쓰다.

#### 14. 老稼齋 金公昌業

趙叅議錫五 以冬至副使赴燕 乃述一路山川事景 爲絕句贈之 凡三十六首

燕役悠悠半載間  
許多酸味又雄觀  
如今擲向詩中說  
寄與行人次第看

關西千里路無塵  
幾處笙歌鬧錦茵  
行到箭門岡上望  
胡山萬疊始愁人

弘濟橋邊別袂分  
忽忽祖席日將曛  
登車不覺重回顧

#### 14.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sup>45)</sup>

참의(叅議) 조석오(趙錫五)가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연경(燕京)에 감에 가는 길 산천(山川)의 일과 경치를 슬회하여 절구(絶句)로 만들어 주니, 무릇 36수(首)이다.

연행(燕行)에 반년이 유유히 지나가니  
허다한 고생에 시달리고 또 웅장한 광경도 본다네.  
이제사 모조리 시(詩)에 담아 말하여  
떠나는 이에게 주노니 차례로 보게나.

관서(關西) 천리 길엔 먼지조차 일지 않고  
몇 곳에서나 풍악소리 비단 자리 위에 요란했던가.  
행차가 전문령(箭門嶺)<sup>46)</sup>에 이르러 언덕에 올라 바라보니  
중국의 수 많은 산[胡山]들이 비로소 사람을 근심스럽게 하네.

홍제교(弘濟橋)<sup>47)</sup> 가에서 소매 떨쳐 이별함에  
어느덧 전송연의 자린 어둑어둑 해지려 하네.  
수레 올라 나도 모르게 다시 고개 돌려봄에

45) 김창업(金昌業 : 1658~1721)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화가이다. 본관은 안동으로 자는 대유(大有), 호는 가재(稼齋) 또는 노가재(老稼齋)이다. 수항의 넷째 아들이다. 1681년(숙종 7)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하였다. 1712년(숙종 38) 연행정사(燕行正使)인 형 창집(昌集)을 따라 북경에 다녀왔다. 이때의 견문(見聞)을 적어 『가재연행록』을 펴냈는데, 이 책은 중국의 산천과 풍속, 문물제도와 이 때 만난 중국의 유생, 도류(道流)들과의 대화를 상세히 기록하여 역대 『연행록』 중에서 가장 좋은 책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저서로 『노가재전집 老稼齋全集』·『노가재연행록 老稼齋燕行錄』 등이 있다.

46) 전문령(箭門嶺)은 평안북도 의주(義州 : 龍灣) 안의 고개 이름으로 이곳에서 북쪽으로 중국 땅의 송골산 등이 보인다.

47) 홍제교(弘濟橋)는 홍제원 북쪽에 있는 다리이다. 홍제원은 지금의 서울시 홍제동에 있었던 원(院)으로, 공무로 출장하는 벼슬아치들의 숙박을 위하여 설치한 곳이다.

저기 푸른 산 일대가 필운산(彌雲山)<sup>48)</sup> 이구나.

一帶蒼山是彌雲

번잡스럽게 배를 이끌고 강을 건너 쉬노라니  
말머리 앞으론 오직 푸른 일산만이 남아 있구나.  
갈대 숲에 들어가니 지척도 분간이 안되고  
고개 돌려도 통군정(統軍亭)은 보이지 않네.

紛紛導泛至江停  
馬首唯留一蓋青  
行入蘆林迷咫尺  
回頭不見統軍亭

삭풍[北風]은 노하여 부르짖고 눈발은 차가이 내리는데  
황량한 들판에서 노숙(老宿)한 지 두 밤 짜라.  
금석산(金石山) 앞을 가리키던 손이 떨어지려 하는데  
솔 안의 뜨거운 밥은 어느새 얼어버렸네.

北風號怒雪凌兢  
露宿荒原兩夜仍  
金石山前指欲墮  
鍋中熱飯旋成冰

책문(柵門) 백리의 수풀은 어슴프레하고  
때때로 빈 숲에서 말 뼈[馬骨]를 상하기도 하였네.  
사냥하러온 청인(淸人)들이 불을 놓았음을 알겠노니  
때때로 바라봄에 하늘 가득한 연기가 비추이네.

柵門百里莽蒼然  
往往空林馬骨損  
知是獵胡來放火  
望中時有燭天烟

용산(龍山)<sup>49)</sup>의 빼어난 경치 봉황산(鳳凰山)<sup>50)</sup>으로 이어  
지고  
네 다섯 봉우리가 특별히 사랑스럽네.  
위에 석성(石城)이 있으니 어느 시대에 지어진 것인가  
세상에선 안시성(安市城)이라 하나 와전(訛傳)된 것이네.

龍山秀色鳳山連  
四五峰巒特可憐  
上有石城何代築  
世稱安市是訛傳

행렬을 호위하는 마패(麻牌)<sup>51)</sup>는 청(淸)의 관리인데  
준마(駿馬)타고 앞과 뒤로 멋대로 다닌다네.  
가고 머뭇을 마음대로 함은 본래 악습(惡習)인데  
근래 듣자니 거두어들임도 전보다 더하다네.

護行麻牌是官員  
駿馬憑陵忽後先  
操縱去留元惡習  
近聞徵索更加前

48) 필운산(彌雲山)은 지금의 인왕산(仁王山)을 말한다. 경복궁의 북쪽으로 백악(白嶽)이 있고 인왕산은 백악의 서쪽에 있는데, 도성(都城)이 그 위를 지난다. 명나라 사신이 인왕산을 필운산이라 고쳐 이를 지었다고 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한성부조(漢城府條) 참조).

49) 평안남도 양덕에 있는 산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함경도 양덕현으로 되어 있다. 현의 북쪽 150리에 있다고 한다.

50) 봉천(奉天) 황성현(凰城縣) 동남쪽 5리에 있다. 당나라 태종(太宗)이 고구려를 칠 때, 이 산에 주둔하였다고 한다.

51) 사신을 호행하는 영송관(迎送官)으로 마패(麻牌)라고도 한다.

荒涼察院四圍牆  
破簾鋪炕未有床  
人馬滿庭同擾擾  
買柴買水徹宵忙

황량한 찰원(察院)<sup>52</sup>은 사방이 담으로 둘러있고  
헤진 자리를 깔 칸(炕)<sup>53</sup>에는 침상조차 없구나.  
인마(人馬)가 뜰에 가득하여 소란스럽기만 하고  
땀감과 물 사느라 밤새도록 분주하네.

草河何在亂山多  
此地曾經聖祖過  
陰雨冷風歌曲在  
至今[百年]悲憤滿山河

초하(草河)<sup>54</sup> 어디에 많은 산들이 있는가  
이곳은 일찍이 성조(聖祖)께서 지나셨던 땅이네.  
비 내리고 차가운 바람 이는데 노래가 있어  
백년의 슬픔과 분노가 산하(山河)에 가득하네.

歷盡連天兩嶺高  
茫茫遼野望來豪  
誰能胸次恢如此  
多少崎嶇覺自勞

하늘에 닿을 듯한 높다란 두 봉우리를 지나  
아득한 요야(遼野)<sup>55</sup>를 바라볼수록 호방해지네.  
누가 가슴속의 품은 뜻이 이와 같이 넓을 수 있으랴  
다소의 고생 겪느라 절로 피곤함을 느끼네.

遼陽城郭盡荒殘  
白塔亭亭獨自閒  
欲訪千山路遠近  
有僧深巷一門關

요양(遼陽)의 성곽(城郭) 다 황폐해졌건만  
우뚝한 백탑(白塔)<sup>56</sup>은 홀로 한가롭구나.  
천산(千山)<sup>57</sup>을 찾아보고 싶으나 먼지 가까운지 모르겠고  
깊숙한 골목에 스님이 계시지만 문을 닫고 있구나.

城中有閩僧雲生 居永安寺 知千  
山路

성 안에 민족(閩族) 승려인 운생(雲生)이 있었다. 영안  
사(永安寺)에 있는데 천산(千山)으로 가는 길을 알았다.

52) 각 참(站)마다 하나씩 찰원(察院)을 설치하는데, 사신을 유숙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찰원이 낡아서 사가(私家)를 빌려서 자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이의현 『경자연행잡지 庚子燕行雜識』 하 참조).

53) 칸(炕)은 중국식 온돌이다. 칸이란 방 바닥을 한 길 남짓 파고 그 속에 숯을 피운 다음, 위에 긴 판자를 덮고 판자 위에 사자리[簾]를 깔 것이다. 높이는 걸터앉을 수 있을 정도이고, 넓이는 한 칸 정도가 된다고 한다. 칸에 대해선 대부분의 연행기록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54) 초하구(草河口)를 말한다. 봉천(奉天) 황성현(鳳城縣) 북쪽 120리에 있다.

55) 요령성 요하(遼河) 양안의 대평야이다. 이 안에 심양·요양 등의 도시가 있다.

56) 요양성 밖에 있는 하얀 빛깔의 탑이다. 벽돌을 겹겹이 쌓아 올려 만든 탑에 백회(白灰)를 발랐기 때문에 백탑(白塔)이라고 한다. 당나라의 위지경덕(蔚遲敬德)이 고구려 정벌시 쌓은 것이라고도 하고, 선인(仙人) 정령위(丁令威)가 앉았던 화표주(華表柱)라고도 하나,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다 (박지원 『열하일기 熱河日記』 「요동백탑기 遼東白塔記」 참조).

57) 요령성(遼寧省) 서남부(西南部)에 있는 산 이름으로 요동반도의 척골(脊骨)이 되며, 장백산(長白山)의 지맥이다.

심양(瀋陽)의 뛰어난 경치 어찌 그리 웅장한가  
 가파른 백치(百雉)의 성은 넓은 들 안에 있다네.  
 상점은 변화하고 궁궐은 웅장한데  
 한인(漢人)과 만인(滿人)들의 수레와 말은 온 성문 안에  
 넘쳐나네.

瀋陽形勝一何雄  
 百雉崢嶸大野中  
 市肆繁華宮闕壯  
 漢車胡馬八門通

심양성(瀋陽城)은 10리 밖에 있는데, 성 안을 바라보면  
 한이(汗伊)가 살던 궁궐이 있다.

瀋陽城在十里外 望見城中 有  
 汗伊所居宮闕

삼학사(三學士) 순국하신 곳<sup>58)</sup>은 서문(西門) 밖에 있고  
 선조<sup>59)</sup>께선 속국(屬國)의 신하로 북관(北館) 속에서 곤경  
 을 겪으셨다네.  
 지난 일에 놀란 마음으로 어찌 물어볼 수 있으라마는  
 슬픈 바람과 오랑캐 땅의 눈은 예나 지금이나 같구나.

文山柴市西門外  
 屬國抵羊北館中  
 往事驚心那可問  
 悲風朔雪古今同

심양(瀋陽)의 서문 밖은 삼학사(三學士)가 순국한 곳이  
 고, 북관(北館)은 청음선조(淸陰先祖)께서 붙잡혀 계시던  
 곳이다. 문산(文山)이 시시(柴市)에서 순국하는 날에 큰  
 바람이 불고 낮인데도 밤같이 어두워졌다.

瀋陽西門外 三學士死處 北館  
 淸陰先祖被拘處 文山死柴市日  
 大風晝晦

변성(邊城)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니 구름은 높직하고  
 얼굴에 부딪히는 이곳의 바람[胡風]은 칼날로 베는 듯  
 하네.  
 돌아오는 날 다시 이 진창길을 지내리니  
 말은 병들고 수레는 빠짐에 마부는 침을 뱉는구나.

邊城北望朔雲高  
 當面胡風利似刀  
 歸日泥塗更此地  
 馬瘠車陷僕夫唾

변성(邊城)은 지명(地名)이다.

邊城 地名

58) 문산시시(文山柴市)중 시시(柴市)는 북경의 북쪽가에 있는 거리 이름으로, 순국한 송나라의 재상 문천상(文天祥)의 사당이 여기에 있다. 문산(文山)은 문천상의 호인데, 문산시시(文山柴市)는 삼학사의 순국을 비유한 것이다.

59) 저양(抵羊)은 『주역 周易』 「대장괘 大壯卦」 구삼(九三)의 효사(爻辭) 중의 “抵羊觸藩 羸其角”에서 유래한 말로, 숫 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아 뿔이 걸려 있다는 상(象)으로 곤경을 겪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시인의 선조인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이 심양(瀋陽)에 억류되어 온갖 고초를 겪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다.

周流河是古遼水  
極目邊沙塞草凋  
盡日駟車何處宿  
黃旗過了白旗遙

黃旗白旗 地名

貢車皆從兀刺至  
日夜鱗鱗向北京  
駝峰高坐知蒙古  
一陳臊風過後生

板門道店愁朝餐  
臭水如涎近口難  
大抵燕中無好井  
有金何處覓甘寒

一板門 二道井 皆店名

一坐烟臺費萬金  
星羅碁布互相臨  
祇今頽廢皆生樹  
戚老堪悲枉用心

주류하(周流河)는 옛 요수(遼水)를 이름인데  
변경의 사막을 아득히 바라보니 풀은 시들었구나.  
온 종일 수레타고 왔건만 어느 곳에서 쉬리오  
황기(黃旗)는 지나쳤고 백기(白旗)는 멀었다네.

황기(黃旗)와 백기(白旗)는 지명이다.

공물 실은 수레가 마부<sup>60</sup>)를 따라 다 도착하여  
밤낮으로 수레 타고 북경(北京)으로 향하여 가네.  
낙타의 등 위에 높이 앉아 있는 이 몽고인임을 알겠으니  
한 줄기 역한 바람이 그가 지나간 뒤에 일었다네.

판문(板門)과 도점(道店)에서의 아침밥은 한심스러우니  
침갈이 냄새 나는 물은 입에 대기도 어렵다네.  
대개 중국 안엔 좋은 물이 없다고 하더니  
금(金)이 있다한들 어디에서 달고 시원한 물을 구하라.

일판문(一板門)과 이도정(二道井)은 모두 상점 이름이다.

한 대의 연대(烟臺<sup>61</sup>)를 만드는데 만금(萬金)이 든다하는데  
별처럼 바둑 돌처럼 뻑뻑이 늘어서 있구나.  
지금엔 허물어져 온통 나무가 우거지니  
척계광(戚繼光<sup>62</sup>)이 잘못 마음 쓴 일 슬퍼할 만 하구나.

60) 울자(兀刺)는 울자치[兀刺赤]로 몽고어의 Ulagaci의 음역이다. 마부·역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61) 연대(煙臺)는 낭연대(狼煙臺)로, 봉화를 올릴 때 낭기(狼糞)을 태워 연기를 올리면, 연기가 바로 올라가고 바람이 불어도 퍼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봉수대(烽燧臺)와 같은 말이다. 이 시(詩)에서 말하는 연대(煙臺)는 척계광(戚繼光)이 왜구의 방비를 위해 만든 것으로, 요동·심양을 지나면 나타나 산해관(山海關)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이것을 설치함에 천하의 재력이 다하게 되었다고 할 만큼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다. 하지만 청나라의 침공시에는 명의 방위에 아무런 보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詩)의 마지막 구절 같은 한탄이 나오게 된 것이다.

연대의 구조는 상대(上臺)와 하대(下臺)로 되어 있으며, 각각 대포구멍과 화살구멍이 뚫려 있다. 대(臺) 바깥에는 성(城)을 둘러 해자를 파 놓았다. 가까우면 5리, 멀면 10리 정도의 거리에 바둑알 놓이듯 줄을 이어 있으며, 그 수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다(이의현 『경자연행잡지 庚子燕行雜識』 하, 김창엽 『노가재연행일기 老稼齋燕行日記』 임진년 12월 참조).

62) 척계광(戚繼光)은 명나라의 봉래인(일설에는 정원인(定遠人)이라고도 한다)으로 자는 원경(元敬), 호는 남당(南塘)이다. 집안이 가난하였으나 책읽기를 좋아하여 경사(經史)의 대의(大義)에 밝았다. 산

채찍으로 멀리 육중산(六重山)을 가리키니  
 말 머리 편의 안개와 노을은 만고(萬古)에 한가롭구나.  
 한 길에 떨어져 있던 도화(桃花)를 기억해 뒤야 하리니  
 백운관(白雲關)의 봄 물결에서 떠나려온 것이라네.

征鞭遙指六重山  
 馬首烟霞萬古閒  
 一路桃花須記取  
 春流不隔白雲關

여산(閩山)은 일명 육중산(六重山)이라고도 하는데, 산이  
 6겹으로 둘러싸고 있음을 이름이다. 산중(山中)에 도화동  
 (桃花洞)과 백운관(白雲關)이 있다.

閩山 一名六重 謂其掩抱六重  
 也 山中有桃花洞 白雲關

참담한 송산(松山)의 살기(殺氣)는 그쳤지만  
 명나라 군대[天兵] 십만이 이 성(城)에서 전사(戰死)했었지.  
 행인(行人)들이여! 능하(凌河)의 물을 마시지 말게나  
 아직도 그 해의 피비린내가 남아 있으리니.

慘憺松山殺氣停  
 天兵十萬死斯城  
 行人莫飲凌河水  
 猶帶當年戰血腥

능하(凌河)는 송산(松山) 동쪽 10리 쯤에 있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따르면, 한(汗)이 송산을 공격하는 날 효종  
 임금이 그 진(陳) 속에 계셨다고 한다. 밤이 되자 효종이  
 물을 청하셔서 모시는 이들이 물을 드렸더니 드시지 않  
 고 버리라고 명하셨다. 다음날 보니 그것은 피눈물이었다.

凌河在松山東十里許 世傳汗攻  
 松山日 孝廟在其陳中 當夜求  
 水 從者進之 孝廟不御命 覆之  
 翌朝視其哭血也

철을 녹여 성(城)을 짓고 발해수(渤海水)로 에워싸니  
 위국공(魏國公)이 설치하셨다 하니 또한 웅장하기도 하  
 구나.  
 누가 알았으랴 험한 지형 믿음이 좋은 계책[長策] 아닌  
 것일  
 전날 화려했던 망루가 다 풀숲이 되어버렸네.

鎔鐵爲城渤海回  
 魏公設置亦雄哉  
 誰知恃險非長策  
 昔日華譙盡草萊

위공(魏公)은 명나라의 서달(徐達)<sup>63</sup>인데, 쇠물을 바다에  
 붓고 그 위에 성(城)을 쌓았다.

魏公大明徐達 用鐵汁灌海 築  
 城其上

동에서 왜적의 침입을 막아내었고, 그의 병서인 『기효신서 紀效新書』는 우리나라에서도 읽혔다.

63) 서달(徐達 : 1332~1385)은 명나라의 호주인(濠州人)으로 자는 천덕(天德)이다. 처음에는 곽자흥(郭子興)의 부장(部將)이었다가 뒤에 태조(太祖)에게 귀순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여러 관직을 거쳐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졌으며, 사후에 중산왕(中山王)에 추봉(追封)되었다.

萬雉奔騰勢莫停  
危亭突兀入滄溟  
憑欄一望舒長嘯  
大漠群峰不盡青

뛰어오를 듯한 성벽의 형세 그침이 없고  
우뚝 솟은 높다란 정자(亭子)는 바다 속으로 들어갈 듯  
하네.

난간(欄干)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며 긴 휘파람을 부는데  
대막(大漠<sup>64</sup>)의 여러 산들은 끝없이 푸르구나.

千年孤竹有遺城  
一派灤河見底清  
袒裼何人敢侮聖  
清高廟貌儼如生

천년(千年) 고죽국(孤竹國)의 성(城) 자취가 남아있고  
한 줄기 난하(灤河<sup>65</sup>)는 바닥까지 푸르네.

어떤 이가 무례하게 감히 성인(聖人)을 모독하리오  
맑고 고아한 고죽군(孤竹君)의 모습은 근엄하기가 생시  
(生時)와 같네.<sup>66</sup>

萬頃江波忽眼前  
薊門烟樹古來傳  
重重野樹渾成畫  
却筆就眠定悵然

한 없이 넓은 강 물결 홀연히 눈 앞에 펼쳐지고  
계문(薊門)의 이내 긴 숲<sup>67</sup>은 예로부터 전해 들었네.  
겹겹의 들판의 나무는 완전히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데  
붓 던지고 잠자리에 들에 마음은 구슬퍼지는구나.

三盤秀色薊城西

계성(薊城<sup>68</sup>)의 서쪽엔 삼반(三盤<sup>69</sup>)의 빼어난 경치 있고

64) 대막(大漠)은 동으로 흥안령(興安嶺), 서편으로부터 서로(西路) 천산(天山) 동쪽, 북으로 몽고로부터, 남으로 열하(熱河)에까지 이르는 중국 북부에 펼쳐진 광대한 사막이다.

65) 난하(灤河)는 장성(長城) 북쪽 개평(開平)에서 처음 나와 동남쪽으로 흘러서 천안현(遷安縣) 지경을 거쳐 노룡색(盧龍塞)에 이르러 칠하(漆河)와 합하고, 다시 남쪽으로 흘러 낙정현(樂亭縣)에 이르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 권 5 산천(山川) 참조). 부근에 고죽성(孤竹城)이 있다. 요동·요서에 하(河)라고 이름한 물은 모두 흐르는데, 이 난하만은 고죽사(孤竹祠)의 밑에 이르러 깊게 고여서 호수가 되어 그 맑은 빛이 거울같다고 한다(박지원 『열하일기 熱河日記』 「관내정사 關內程史」 참조).

66) 고죽군(孤竹君)을 모신 고죽사(孤竹祠)가 이곳에 있다.

67) 계문연수(薊門烟樹)는 연도팔경(燕都八景) 중의 하나로 꼽히는 명승지이다. 계문(薊門)은 계구(薊邱)의 옛 이름으로 옛 연성(燕城) 서북에 위치하고 있다. '계문연수(薊門烟樹)'란 맑은 호수에 연기인 듯 안개인 듯한 것이 넓게 떠 있는 사이로 섬들이 얽혀 있고, 또 나무의 그림자가 퍼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물 속으로 2중·3중 비쳐서 기이한 경관을 이룬 것이다(김경선 『연원직지 燕輓直指』 「계문연수기 薊門烟樹記」 참조).

68) 계성(薊城)은 순천부 동쪽에 있으며, 옛날 연나라의 도읍지였다. 주나라 무왕(武王)이 상(商)을 이기자 제요(帝堯)의 후손을 계(薊)에 봉하였는데, 뒤에 연나라가 계지(薊地)를 합병하고서 여기에 도읍하였다.

69) 이곳을 상·중·하 3개의 반산(盤山)으로 부르는 이유는 위태로이 솟은 봉우리가 각아 세운 듯하고, 봉우리마다 위가 퍼지고 아래가 가늘어서 그 꼴이 소반과 같기 때문이다(박지원 『열하일기 熱河日記』 「관내정사 關內程史」 참조).

이 곳의 솔과 돌에 대하여는 원중랑(袁郎)의 뛰어난 글  
이 있다네.<sup>70)</sup>

바라보니 구름다리는 하늘에 까마득히 걸려있는데  
지금까지 남은 한(恨)은 올라가 보지 못한 것이라.

松石袁郎有品題  
望裡雲梯空縹緲  
到今遺恨失攀躋

산에 상반(上盤)·중반(中盤)·하반(下盤)의 명칭이 있다.

山有上盤中盤下盤之稱

백하(白河)의 물길은 성(城)을 관통하여 흐르고  
다리 아래로는 만곡(萬斛)의 큰 배도 다 통하네.  
양쪽 언덕의 높은 누대엔 온갖 재화가 있어  
금릉(金陵)<sup>71)</sup>의 상인들이 모두 오래 머물고 있구나.

白河一道貫城流  
橋下皆通萬斛舟  
兩岸高樓居百貨  
金陵賈客盡淹留

백하통(白河通)은 물 이름이다.

白河通 爲水名

동악묘(東嶽廟)<sup>72)</sup> 앞엔 인파와 수레로 혼잡하고  
조양(朝陽)의 대로(大路)<sup>73)</sup>는 옥하관(玉河館)과 이어져 있네.  
오늘날 한족[華人]이 드물게 된 것에 마음 아프나니  
내 차림새를 보곤 다들 놀라는구나.

鞞擊肩磨嶽廟前  
朝陽大路玉河連  
傷心今日華人少  
見我衣冠盡駭然

이역(異域)에서의 제야(除夜)에 서글픈 마음 돋는 듯한데  
성(城) 안의 지포(紙砲)<sup>74)</sup> 소리 밤새도록 요란스럽구나.  
홀로 모직물 점방[氈房]<sup>75)</sup>에 앉아 근심스러워 잠 못 이  
루곤  
문 밖의 수레 지나는 소리만 듣고 있네.

異方除夕若爲情  
紙砲城中徹夜轟  
獨坐氈房愁不寐  
但聽門外過車聲

70) 원랑(袁郎)은 명나라의 문인 원굉도(袁宏道 : 1568~1610)를 가리킨다. 그의 자는 중랑(中郎)이다. 작품중에 반산(盤山)의 기이한 경관을 유람하고 지은 「유반산기 遊盤山記」(일명 「반산기 盤山記」라고 한다)가 있는데, 그 모두에서 삼반(三盤)의 소나무와 바위의 기절(奇絶)한 경관을 묘사하고 있다.

71) 금릉(金陵)은 지금의 강소성 안의 남경 부근에 있는 지명이다.

72) 동악대제(東嶽大帝 : 일명 仁聖帝)를 중심으로 도교의 여러 신들을 모신 사당을 말한다. 동악대제(東嶽大帝)는 도교에서 받드는 태산(泰山)의 신(神)으로 인간의 생사를 관장한다고 한다. 매년 3월 28일에 제사를 거행한다.

73) 연경(燕京) 도성 안에는 모두 16개의 가도(街道)가 있는데, 그중 조양대로(朝陽大路)는 조양가(朝陽街)에 있다.

74) 지포(紙砲)는 폭죽을 말한다.

75) 전방(氈房)은 모직 펠트를 파는 상점을 말한다.

五鳳門開燭影深  
肆然御座老胡臨  
回看東海何由蹈  
萬歲呼來欲碎心

춧불 그림자 깊은데 오봉문(五鳳門)<sup>76</sup> 열리고  
용상[御座]엔 오만하게 늙은 떠놈이 앉아 있네.  
우리가[東海] 무슨 이유로 짓밟혔나를 되돌아보니  
만세(萬歲)를 외치는 이 마음 빼개지려 하네.

荊棘銅馳不足悲  
大明文物盡爲夷  
龍興宮闕胡塵暗  
蹴破彤庭馬競馳

가시덤불 속의 동낙타[銅馳] 봄을<sup>77</sup> 슬퍼할 것도 없고  
대명(大明)의 문물(文物)은 다 오랑캐 것이 되었네.  
나라 일으켰던 궁궐[龍興宮闕]엔 오랑캐의 티끌이 자욱  
하니  
명의 궁정을 차고 부수며 말은 다투어 달리네.

燕市悲歌舊俗非  
荊卿名字少人知  
昭王駿骨歸何處  
喬木荒臺指點疑

연의 저자[燕市]에서 슬픈 노래 부르던 옛 풍속이 아니  
니<sup>78</sup>)  
형가[荊卿]의 이름 아는 이 드무네.  
소왕[昭王]<sup>79</sup>의 늙름한 모습 어디로 갔는가  
황폐한 궁궐터인가 의심스레 가리켜 보네.

玉館羈懷不可論

옥하관[玉館]에서의 나그네 시름 논할 것이 못되니

76) 오봉문(五鳳門)은 태화전(太和殿)의 2번째 문이다. 연경(燕京)의 궁궐 제도는 태화전(太和殿) 앞에 5개의 중문(中門)이 있는데, 제 1은 태화문(太和門)이요, 제 2는 오문(午門)으로서, 혹은 오봉문(五鳳門)이라고도 한다. 제 3은 단문(端門)이요, 제 4는 천안문(天安門)이며, 제 5는 태청문(太清門)이다. 그리고 문밖 수백보쯤 되는 곳에 정양문(正陽門)이 있으니 이것이 성문(城門)이다. 태화문에서 정양문까지는 일직선상으로 놓여 있다.

77) 한(漢)나라 때는 동으로 만든 낙타 2마리를 낙양(洛陽)의 궁문 밖에 설치해 두었다. 훗날 진(晉)의 색정(索靖)이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 천하가 장차 혼란하게 될 것을 예지하고는, 동낙타를 가리키며 탄식하기를, “네가 형극중에 있는 것을 반드시 보리라”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황폐해짐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78) 연시비가(燕市悲歌)는 『사기 史記』 「자객열전 刺客列傳」에서 형가(荊軻)가 연(燕)나라 태자 단(丹)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진(秦)나라로 떠날 때, 친구 고점리(高漸離)가 축(筑)을 치고 형가는 그것에 맞추어 노래를 부름에 듣는 이가 다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일을 가리킨다. 후에 이로 인하여 돈독한 우정을 지닌 벗간의 간절한 석별의 심회를 상징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중국의 주인이 명에서 오랑캐 나라인 청으로 바뀐에 따라, 이러한 미속(美俗)도 없어졌다는 의미에서 쓰였다.

79) 소왕(昭王)은 연(燕)나라의 소왕(昭王)으로 이름은 평(平)이다. 기원전 311년에서 기원전 279년까지 재위하였다. 아버지인 연왕(燕王) 회(噲) 때, 제나라의 공격을 받아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으나, 널리 현사(賢士)들을 초빙하고 바른 정치를 펼쳐 마침내 제나라를 공격,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당시 청의 수도 연경(燕京)이 전국시대 연나라의 땅이었으므로, 형가와 소왕의 고사를 들어 오랑캐의 땅으로 전락한 중국의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오십여일을 높은 담을 대한 채 홀로 있었네.  
저물녘이면 여러 퇴놈[群胡]들이 서로 불러내는데  
군뢰(軍牢)<sup>80</sup>의 문 닫는다는 소리에 몹시도 슬퍼지네.

五旬塊坐面高垣  
群胡日晚相呼出  
愁絕軍牢告鎖門

거침없이 말하노니 통역관[通官]의 징수[徵索]가 너무 지  
나치구나  
주머니 속의 금(金)을 다 거두어 어찌하려 함인가.  
그 많던 종이와 부채는 다 어디로 갔는가  
거의 다 없어짐에 다만 한탄할 뿐이네.

漫說通官徵索多  
囊金垂盡欲如何  
夥然紙扇歸何處  
大率皆無但咄嗟

성문을 나섬에 버들[燕柳]은 이미 하늘거리고  
돌아가는 기러기[歸鴈]는 내 말이 나는 듯이 달려감만  
못하네.  
봉황성[鳳城] 근처 가는 길에 고향 소식 듣게 되니  
지금까지의 기갈(飢渴)이 다 잊혀지네.

出門燕柳已依依  
歸鴈爭如我馬飛  
行近鳳城鄉信得  
向來飢渴盡忘之

압록강(鴨綠江)의 봄 물결은 한강(漢江)의 물결과 같고  
용만(龍灣) 땅에 이르니 내 집에 돌아 온 것과 무엇이  
다르랴.  
말에서 다시 이 시(詩)를 펴놓고 읽음에  
편편(篇篇)마다 함부로 쓰지 않았음을 알게 되리라.

鴨綠春波漢水如  
龍灣何異返吾廬  
於馬更展斯詩讀  
方識篇篇不浪書

기해년(己亥年 : 1719년, 숙종 45) 시월(陽月) 하순(下浣)  
김창업(金昌業)

己亥陽月下浣 金昌業

### 15. 삼가 조승지(趙承旨)가 연경(燕京)에 가는 것 을 전별하며

奉贖 趙承旨 赴燕之行

10월 기해일(己亥日) 눈 서리 치는 날을 잡아  
슬픈 노래 부르며 조승선(趙承宣)을 보낸다.  
몸에는 천년(千年)의 운수를 보지 못하면서

義卦純陰霜雪天  
悲歌遠送趙承宣  
於身莫覩一千運

80)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병졸을 말한다.

有口應羞三百篇  
苦節伯夷遺廟在  
深恩樂毅舊臺傳  
中州聞說名儒出  
講否春秋魯十年

南谷蟄人拜

입에는 응당 『시경 詩經』을 읊어대겠지.  
절개를 지킨 백이숙제의 사당묘(祠堂廟)가 있고  
깊은 은혜를 지닌 악의(樂毅)<sup>81)</sup>는 옛 대(臺)에 전한다.  
중국에는 명유(名儒)가 난다고 하는데  
『춘추 春秋』에서 ‘애공 10년’을 읽지 못했는가.<sup>82)</sup>

남곡(南谷)에 칩거해 있는 사람이 쓰다.

### 金公民澤 致仲 官承旨

己亥仲冬 贈光山金致仲 稿

趙侍郎錫五 使燕

西塞頻年勞遠使  
東城增築更何爲  
八觀不待夷吾術  
天下紛紛早已知

天機聊且驗君行  
正是微陽地底生  
白髮腐儒增起色

### 16. 김민택(金民澤) 치중(致仲)<sup>83)</sup> 벼슬 승지(承旨)

기해년(기해년 : 1719년, 숙종 45) 11월 광산(光山) 김치중(金致仲)이 쓰다.

시랑(侍郎) 조석오(趙錫五)가 연경(燕京)에 사신(使臣)으로 감을 전별하며

서쪽 변방에 사신(使臣) 길 해마다 수고로운데  
동쪽에 성(城)을 쌓아서 무엇에 쓰려는가.  
여기저기 보면서 관중(夷吾)<sup>84)</sup>의 재주는 기대하지 않으니  
천하(天下)가 분분(紛紛)하다는 것은 일찍이 알았다네.

하늘의 운수[天機]가 그대의 행차를 시험하니<sup>85)</sup>  
바로 은미한 양(陽)의 기운이 땅 밑에서 생겨 나온다.  
백발의 시원찮은 선비를 등용하는 걸 보니<sup>86)</sup>

81) 연(燕)나라 사람으로 연(燕) 소왕(昭王)의 상장군(上將軍)이 되어 제(齊)나라의 70여 성(城)을 빼앗고 창국군(昌國君)에 봉해졌다. 후에 소왕의 아들 혜황(惠黃)과 불화하여 조(趙)나라로 가서 망제군(望諸君)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연과 조 두 나라의 객경(客卿)이 되었다.

82) 『춘추』 애공 10년에 백이·숙제나 악의(樂毅)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곧 “그와 같은 충신의 이야기를 보지 못했는가”라는 뜻이다.

83) 김민택(金民澤 : 1678~1722)의 자는 치중(致中), 호는 죽헌(竹軒)이다. 1719년(숙종 45)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김제겸·조성복과 함께 ‘신임삼학사(辛任三學士)’로 불렸다.

84) 이오(夷吾)는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관중(管仲)을 말한다.

85) 명나라가 다시 일어날 것이란 징조를 말한다.

86) 김민택(金民澤) 자신이 등용되었음을 말한다.

황하(黃河)가 어제 꿈에 맑게 보였다네.<sup>87)</sup>

黃河昨夜夢中清

17. 조정만(趙正萬) 정이(定而)<sup>88)</sup> 벼슬 판서(判書)

趙公正萬 而定 官判書

삼가 조석오(趙錫五) 영공(令公)이 연경(燕京)에 감을 전  
별하며

奉贐  
趙錫五令公 赴燕之行

자네가 어명(御命)을 받아 은대(銀臺)를 나오니  
국사(國事)를 받들고 한 해 지나음을 어찌 견디랴.  
아무튼 차례대로 다녀오면  
응당 돌아옴으로 꿈 봉래(蓬萊)에 서리겠지.

看君御命出銀臺  
可耐王程濟歲迴  
最是侯班蹤跡阻  
也應歸夢曉蓬萊

연경(燕京)의 객(客)이 이별할 때 어떻게 정을 표시하겠나  
사나운 눈바람이 먼 길을 휩싸네.  
돌아오는 날 서울 봄날은 좋을 것이니  
북산(北山) 꽃밭에서 웃으며 서로 맞이하자꾸나.

燕客此別若爲情  
虐雪凜風擁遠征  
歸日洛城春正好  
北山花柳笑相迎

기해년(己亥年 : 1719년, 숙종 45) 11월[至月] 초 4일 조  
정이(趙定而) 쓰다.

己亥至月初四日 趙定而 艸

18. 이중협(李重協)<sup>89)</sup> 치화(雉和) 벼슬 참판(參判)

李公重協 雉和 官參判

삼가 시랑(侍郎) 조부사(趙副使)가 연경(燕京)에 감을 보  
내며

奉送  
趙侍郎副使 赴燕之行

사신 깃발 세우고 임금님께 인사하고  
수레 타고 압록강(鴨綠江)을 건너네.

旋節辭龍闕  
輶車渡鴨河

87) 황하(黃河)는 오백년에 한 번 맑으며, 이 때가 되면 성인(聖人)이 나와 천하가 태평할 것이라고 한다.  
88) 조정만(趙正萬 : 1656~1739)의 자는 정이(定而), 호는 오재(寤齋)이다. 경사백가(經史百家) 및 시문(詩文)과 서예에 뛰어났다.  
89) 이중협(李重協)에 대한 이력에 대해서는 자세치 않다.

星辰瞻極遠  
氷雪入遼多  
石破將軍射  
波寒壯士歌  
此時卷裏涕  
使灑此中過

별들은 북극성만이 보이고  
얼음 같이 어려운 길 요동(遼東)에 널렸구나.  
돌은 장군의 화살에 깨졌고<sup>90)</sup>  
파도는 장사의 노래가 싸늘한 소리 들리는 듯<sup>91)</sup>  
이 때 책 속에 지어준 글  
눈물이 이 속에 떨어지는구나.<sup>92)</sup>

己亥孟冬 漢南景蹤艸

기해년(己亥年 : 1719년, 숙종 45 )10월 한남(漢南) 경종(景蹤)이 쓰다.

李公喬岳 伯瞻 官大司憲

19. 이교악(李喬岳) 백침(伯瞻)<sup>93)</sup> 벼슬 대사헌(大司憲)

乍報銀臺惠  
仍乘使价輶  
天寒氷合浪  
野闊地經遼  
往復須加護  
行程莫憚遙  
中原未歸客  
悵望別魂銷

잠간 은대(銀臺)의 은혜를 갚으려  
사신(使臣) 수레를 탔다.  
날이 추워 패수(浪水)가 얼었고  
들이 넓어 요동(遼東)과 통한다.  
왕복하는 길에 가호(加護)가 있기를  
다녀오는 길이 멀다고 꺼리지 마라.  
중원(中原)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객(客)  
이별의 혼(魂)이 아득하기만 해라.

李伯瞻 稿

이백침(李伯瞻)이 쓰다.

90) 한나라 이광(李曠)이 밤에 돌을 호랑이인 줄로 알고 활을 쏘아 돌을 깨뜨렸다는 고사(故事)를 말한다.  
91) 형가가 칼을 갈고 지나며 부르는 노래가 마치 추운 날 노래 같음을 비유한 말이다.  
92) 책에 써준 이별시(離別詩)에 눈물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93) 이교악(李喬岳 : 1653~1728)은 용인인(龍仁人)으로 자가 백침(伯瞻)이고 호는 석음와(惜陰窩)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으로 1705년(숙종 31) 알성문과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여 정언, 황해도관찰사, 예조참의, 대사간 등을 지냈다. 1720년(숙종 46) 대사간으로 동지부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신임사화 때는 경산, 동래로 유배되기도 하였다.

20. 윤석래(尹錫來) 증길(仲吉)<sup>94</sup> 벼슬 참판(參判)

尹公錫來 仲吉 官參判

조영공(趙令公) 석오(錫五)가 연경(燕京)에 사신(使臣) 감을 보내며

送 趙令錫五 燕京使价行

우리 나라[東韓]의 학사(學士)가 연산(燕山)에 달려 가는데  
길이 노룡새(老龍塞)와 화표주(華表柱) 사이에 뻗었다네.  
몇 번이나 다락에 기대 노래를 읊었던고  
봄바람을 가득히 비단 주머니에 담아 돌아오게나.

東韓學士走燕山  
路出龍城鶴野間  
幾處倚樓長短詠  
春風携滿錦囊還

기해년(己亥年 : 1719년, 숙종 45) 10월[陽月] 윤증길(尹仲吉)이 쓰다.

己亥陽月 尹仲吉稿

21. 김제겸(金公濟謙) 필형(必亨)<sup>95</sup> 벼슬 승지(承旨)

金公濟謙 必亨 官承旨

삼가 석오영형(錫五令兄)이 연경(燕京)에 감을 전별하며

奉驢  
錫五令兄 赴燕

요동(遼東) 들판은 아득히 넓은 들판에 이어졌고  
진시황(秦始皇)의 만리장성(萬里長城)은 서쪽으로 끝이  
없구나.  
사람이 태어나 한 번 상쾌한 일을 보고 나면  
만리(萬里) 과로운 길 응당 잊을 것일세.

遼野茫茫接大荒  
秦城西望竟已長  
人生一見斯爲快  
萬里冰程也可忘

기해년(己亥年 : 1719년, 숙종 45) 10월[陽月] 김필형(金必亨)이 쓰다.

己亥陽月 金必亨

94) 윤석래(尹錫來 : 1665~1725)의 자는 증길(仲吉)이고, 호는 순정(純靜)이다. 1710년(숙종 36)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1724년(경종 4) 영조의 즉위와 함께 노론(老論)이 집권하자 참찬관과 도승지를 거쳐 병조참판에 올랐다.

95) 김제겸(金濟謙 : 1680~1722)은 안동인으로 자가 필형(必亨)이고 호는 죽취(竹醉)이다. 영의정 창집(昌集)의 아들로 창흠(昌翕)에게 수학하였다. 1705년(숙종 31) 진사시에 합격하고 고양군수를 거쳐 사복시첨정으로 재직중 1719년(숙종 45) 증광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하여 예조참의, 승지 등을 지냈다. 조성복(趙聖復)·김민택(金民澤)과 함께 신임사화 때 죽은 삼학사중 한사람으로 꼽힌다.

# 燕行日録



正使右叅贊趙道彬

樂甫 辛未司馬 楊山人  
乙巳 壬午湯聖

副使刑曹叅議趙

錫存 乙酉司馬 咸安人  
壬子 甲午怡彦  
二月十七日

書狀兵曹正郎申

哲

聖與 乙卯司馬 平山人  
辛酉 戊戌庭試

七月二十三日午

行中負譯

嘉義大夫

崔奎

折衝將軍

卞時和

漢學上通事訓導奎商鉉

正使 右參贊 趙道彬

樂甫 乙巳 辛未司馬 壬午謁聖 楊州人  
七月十七日午

副使 刑曹參議 趙

錫五 壬子 乙酉司馬 甲午增廣 咸安人  
二月十七日子

書狀 兵曹正郎 申哲

聖輿 辛酉 乙卯司馬 戊戌庭試 平山人  
七月二十三日午

行中員譯

嘉義大夫 崔奎

折衝將軍 卞時和

漢學上通事訓導 金商鉉

清學上通事前判官金世鏡

教訓所質問前正高時彥

上乾糧

年少聰敏前主簿崔漢昌

次上通事前正朴衍

押物通事前奉事洪舜文

前直長鄭文裕  
掌務官

前直長李英郁

偶語別處兒前主簿邊尚中

清學別處兒前判官崔震華

被選前判官申性沉

歲帝領去教誨前正韓壽禧

蒙學前主簿金世敏

清學上通事	前判官	金世鏡	
教訓質問	前正	高時彥	上乾糧
年少聰敏	前主簿	崔漢昌	
次上通事	前正	朴 衍	
押物通事	前奉事	洪舜文	
	前直長	鄭文裕	掌務官
	前直長	李英郁	
偶語別適兒	前主簿	邊尙中	
清學別適兒	前判官	崔震華	
	被選 前判官	申性沈	
歲幣領去教誨	前正	韓壽禧	
	蒙學 前主簿	金世敏	

陸學前奉韓世範

歲幣未領去教誨前正高時冕

蒙學前金正金益悔

清學新應究折衝將軍朴昌裕

偶語別差令止 林再芳

醫官前奉 蔣世貞

寫字官上護軍 金有輝

畫員副司果 盧泰鉉

正使軍前營中李行倫

折衝 金尚顯

劉壽基

中房朴枝炳

如子俊伊

五粒布直盧世誠

倭學 前參奉 韓世範  
歲幣未領去教誨 前正 高時冕  
蒙學 前僉正 金益悔  
淸學新遊兒 折衝將軍 朴昌裕  
偶語別差 僉正 林再芳

醫員 前參奉	蔣世貞
寫字官 上護軍	金有輝
畫員 副司果	盧泰鉉
正使軍官 前營將	李行儉
折衝	金尙顯
	劉壽基
中房	朴枝炳
奴子	俊 伊
乾糧庫直	盧世誠

副父軍官嘉善 崔尚嶽

宣化官安世泰

朱奉 李泰錫

善姑打角翁提申重華

中房趙德輝

奴子伴里金

孔祿希直種因

中房河世興

奴子世墳

承父院書多辛而德

副使軍官	嘉善 崔尙嶠
	宣傳官 安世泰
	參奉 李泰錫
	中房 趙德輝
	奴子 件里金
	乾糧庫直 種同
書狀打角	前別提 申重華
	中房 何世興
	奴子 世贊
承文院	畫員 辛尙謙



己亥 十一月 初四日 晴 平明 詣闕下直 貂皮帽掩一部 胡  
 椒四升 白礬七升 丹木十五斤 臘藥六種 賜給 巳時  
 拜表到慕華館 右相李健命 禮判閔鎮厚 戶判宋相琦  
 吏議李秉常 禮議魚有龜 參知尹錫來參坐查對畢 戶  
 判設幕於路傍 設盤果以餞 尹承旨鳳朝來別 到弘濟  
 院 德必設餞以待 宗甫 立之 孝先 正則 頤貴亦來 權台尙游  
 萊伯 鄭亨益 灣尹李挺周 副學洪啓迪 持平金棹 司諫  
 尹錫來 正言洪龍祚 僕僉金希魯 司錄任述夏 青陵君  
 模 來別 刑曹正郎沈世俊 鄭震高 佐郎閔應洙以郎儕 來餞 趙  
 判府事泰采爲送 正使設幕以邀 歷入以別 丁舜弼 卞  
 緯 朴大梓 高緯柱 金大錫 洪壽善 李世茂 李龍錫 金熙  
 問 崔二柱 玄德朝 林一儒 金學諭字杞 崔長水 金理山 鍾 李高

敬晤未別錄為珍記李汝五魚聖則尹季亨六正判  
 叔子黃孝高陽姊氏及邊宣房默性九範朴世安  
 相定後未進盛雨自禧富正判排世真神鏡排溢未見  
 李世福自禧博事與正位必宗由正判姊氏甚由旬如  
 西軒主傳金道決世見金浦伴趙亦存五見正史事去  
 亦磨仍 是日行四十五

初五日晴午的落川姊氏及位必宗正則蓋浦多安道玄  
 心事古者公健正判到崇山中火由生姊主及平姊  
 在入上山不有叔展入草谷祇謁 祠主補時入官家  
 見城主卸金夢瑞也俞德咸由亨兄才俞德倭俞德中  
 白河迪亦在入未見榮懷兄才自禧城未由崔金正仁  
 臣後事籍田田訪未訪高書房中榮彼夕未回宿是日  
 川五十三

敞晤 來別 餘不能盡記 李汝五魚聖則尹季亨 亦退到  
 永別 黃昏到高陽 叔氏及邊宣傳顯默 洪九範 朴世安  
 相先後來見 盛甫自禧齋追到 韓世箕 韓鏡 韓謐 來見  
 李世福 自積城來到 與德必 宗甫 正則 叔氏 盛甫 同宿  
 西軒 主倅金道浹出見 金浦倅趙泰耆 爲見正使來到  
 亦歷訪 是日 行四十里

初五日 晴 平明 發行 叔氏及德必 宗甫 正則 盛甫 分別還去  
 心事甚覺不佳 巳時到棠山中火 拜別堂 叔主及平叔  
 諸人 上山所省拜 歷入草谷祇謁祠堂 晡時入官家  
 見城主 卽金夢瑞也 俞德咸德亨兄弟 俞德俊 俞德中  
 白時迪等 諸人來見 榮懷兄弟 自積城來別 崔僉正仁  
 塲 竣事籍田 歸路來訪 寄書家中 榮攸夕來同宿 是日  
 行五十里

初六日晴平日若川到臨津李生統李令知廟未見已呵  
 入長浩因口失口法名在勿必生枕以文於東軒鄭整  
 却最許鍊許過公子趙國輔趙君國未久韓而騎車成  
 振自松都未見中火後若川到起岷松索失金世澄未  
 福出即已叩堂案分玉蓋回時護去名失也補時互駭  
 駭樞繼者丁入三節軒見留和俞公令雄出窓外太平  
 飯松索人崔顯金天柱見未以火及許無欲臣後性殆  
 與今山未若何止了或生昂烈名退名韓士鏡名朱仍  
 為而和宗秘名不許名り川八十王

初七日晴夕信平日若川之者名回到唐金川比命海  
 則及上使累後案果白川夫不為侍累杖少懋  
 後如入金川則立伴金啓煥及白川伴徐宗愈以支持

初六日 晴 平明 發行 到臨津 李生統 李僉知廓來見 巳時  
 入長湍 因正使之往省 其外家先壟 下處於東軒 鄭墩  
 鄭晷 許鍊 許照父子 趙國輔 趙星國來見 韓而琦 車成  
 振 自松都來見 中火後 發行 到超峴 松京吏金世澄來  
 謁 此卽己卯營葬於玉蓮洞時 護喪邑吏也 晡時 過駱  
 駝橋 從南門入三朝軒 見留於兪公命雄 出宿於太平  
 館 松京人崔灝 金天柱見來 汝大及許縑 欲從後往瑞  
 興鳳山來到 呵止之 成生昌烈亦追到 韓生鏡亦來 仍  
 囑留於宋掩其所訴 是日 行八十里

初七日 晴 夕陰 平明 發行 過青石洞到底金川酒幕 海州  
 則爲上使略設茶果 而白川吏不爲備待略 杖之 少憩  
 後 馳入金川 則主倅金啓煥 及白川倅徐宗愈 以支持

官區每停李夏相四都空艾負金郭察証郭空然以夫  
 馬空負未見三巨元榮運氏尹 海州宗人趙仁亨  
 亦未見午作後正使先若以仲道并要名書曉水橋三  
 書此回話仍後少約夕時馳出幸後入平山主伴朴起  
 祖方物空負文山多產金昌 未見丹城朴粹老城山  
 沈道直扶仁尹聖典並入見李廷樺以訪留中命云是日  
 初八日相信午晴日出後帶入中火書葱秀站台正丈七  
 此回古玉溜泉上汲泉以飲水味甚清冽入格興蘇  
 主伴堪之逸耕溪停郭厚一入見於空入縣承教而為  
 後小饒餞行舍二技或濟或詞備正夜津死出後如室  
 賢李廷樺尹聖言亦未見黃水宗人趙亦賢迎候以見  
 是日八月廿五

官 遂安倅李夏相 以都堂使員金郊 察訪鄭重岱 以夫  
馬官員來見 三從兄榮遇氏 尹海州宗人趙仁亨  
亦來見 午飯後 正使先發 明仲退叔 要會於暎水樓 與  
書狀同話 仍設小酌 夕時馳出 暮後入平山 主倅朴起  
祖 方物官員 文山萬戶金昌來見 丹城朴粹彥 坡山  
沈道原 龍仁尹聖興 並入見 李廷輯 以病留酒幕云 是日 行百里

初八日 朝陰午晴 日出後 發行 中火於葱秀站 與正使書  
狀同坐玉溜泉上 汲泉以飲 水味甚清冽 夕入瑞興縣  
主倅慎言逸 新溪倅鄭厚一 入見 初暮入縣衙 議所爲  
設小饌餞行 命二妓 或詩或詞侑酒 夜深罷出 族姪重  
賢 李廷輯 尹聖興皆來侍 黃州宗人趙尙賢迎候以見  
是日 行八十里

初九日午陰乍晴。出法華山中。方打劍水。詎因措。次見  
 以山。以出。家牙。畫黃。金。先。潤。趙。有。探。趙。有。景。趙。有。  
 穉。趙。有。善。林。雲。村。文。彥。仲。趙。有。珠。趙。興。趙。有。嘉。趙。有。  
 歷。趙。有。雄。趙。有。方。趙。有。方。趙。有。厚。趙。有。仁。趙。有。克。趙。有。李。元。  
 彬。李。祐。亦。未。見。晴。時。入。鳳。山。多。伴。趙。領。長。同。伴。金。慶。壽。  
 不。如。祖。迎。羅。杖。友。丈。鳳。山。人。尹。承。甲。朴。挺。李。世。德。李。翁。  
 哉。李。川。造。朴。東。彬。亦。未。見。戴。房。禹。叔。昌。插。以。日。故。寓。居。  
 未。見。曹。川。宗。人。趙。世。厚。亦。未。信。是。日。以。七。十。里。  
 初十日。初信。夕。帶。出。法。華。山。訪。洞。仙。巖。左。區。正。方。山。城。  
 入。黃。竹。山。士。李。馨。襟。金。祥。性。金。震。碩。金。允。興。崔。重。載。金。  
 美。佳。及。趙。曰。知。儻。四。年。九。十。五。亦。未。見。主。伴。朴。承。遠。  
 兵。文。柳。是。往。喜。候。初。逢。入。月。午。半。正。出。山。收。去。信。亦。東。

初九日 乍陰乍晴 日出後 發行 中火於劍水站 因撥便見

初六日所出家弟書 黃州金兌潤 趙有環 趙有晃 趙有瓊 趙有善 林震杖 文彥糾 趙有璣 趙興廉 趙義廉 趙永璧 趙漢雄 趙千方 趙萬方 趙厚贊 趙仁贊 趙克廉 李元彬 李祐等來見 晡時入鳳山 主倅趙儻 長淵倅金慶豪 不爲祇迎略杖散吏 鳳山人尹承甲 朴挺 李世德 李萬哉 李行德 朴東彬等來見 載寧禹權昌 稱以自坡寓居來見 豐川宗人趙世堉 亦來候 是日 行七十里

初十日 朝陰夕雪 日出後 發行 踰洞仙嶺 左過正方山城

入黃州 州士李馨璨 金聲傳 金震碩 金兌興 崔重載 金萬繼 及趙同知儻 時年九十五而來見 主倅朴泰遠 兵使柳星植 虞候柳滋入見 午與正使書狀 會話於東

軒在無火沒鍾以餓曹川卒人題奎題清題碩題世座  
 趙沃趙世祺趙世祐中役大盤果餓以多。川四十五  
 十一日大霧松未名少。到中。和至伴趙徽祥原野守李  
 世柱江東在乞李春源以方物乞負未見中大清馳報  
 淑寢時心脯時到箕城界左右長林未十珍至到大日  
 江意庭尹金相勉整上船以結船上扁以垂碧帶三丈  
 同舟以傍舟沒崖峻以供村居者多南於崔成業亦  
 而冬令老道亦密訪尹而此並出十五外迎候巨大同  
 門直入澄清寺以此書台老仲無話攝時老活死出  
 正又書此直恸大日猶金。世父多伴亦或承時金李  
 事掌先相殺多以親親未。高甲少行活意西軒以美  
 以久未。多伴及三。伴白。詢入見。一。川。一。百。五

軒 夜兵使設饌以餞 豐川宗人趙奎 趙清 趙碩 趙世垣  
趙沃 趙世琪 趙星球等 設大盤果餞行 是日 行四十里

十一日 大霧陰 未明 發行 到中和 主倅趙儼 祥原郡守李世柱 江東縣令李春源 以方物差員來見 中火後馳發 微霰時 作晡時到箕城界 左右長林 幾十餘里 到大洞江邊 庶尹金相勛 整上船以待 船上扁以垂碧亭 三使同舟以濟 庶尹設茶啖以供 府居前五衛將崔成業 前縣監金志道 前察訪尹百齡 竝出十里外迎候 從大同門 直入澄清堂 與巡相李台光仲會話 移時暮後罷出 正使書狀直歸大同館 余則往見主倅於貳衙 時金奉事莘老相致 方以覲親來在衙中 少話後還西軒 復美汝久來會 主倅及三登倅白以絢入見 是日 行一百五

王

十二

十二日在大營館宿留。明日。禮部。正史。心頭。思。及。
 余。以。以。列。之。業。此。積。後。位。於。末。處。之。併。及。涉。守。之。志。也。
 庭。以。禮。部。所。屬。之。三。正。史。以。出。大。臣。之。位。末。處。也。
 率。守。之。位。西。處。事。作。為。於。此。亦。力。志。學。自。下。之。
 正。史。論。出。也。 餘。道。一。志。出。也。 正。史。之。積。後。之。故。矣。
 於。率。守。之。位。事。也。 此。合。於。作。也。 此。後。以。查。其。早。
 於。後。之。史。學。傳。之。年。也。 此。未。也。 中。王。法。以。國。使。也。
 東。西。唐。野。館。密。櫻。列。 於。西。河。長。條。一。面。落。也。
 野。東。頭。路。山。樓。百。道。宜。在。此。京。校。部。以。一。筆。記。也。
 以。出。方。同。之。案。丹。廟。白。浮。碧。樓。之。影。天。石。到。長。慶。了。
 運。石。於。川。丹。松。如。垂。柳。道。清。派。壁。上。浮。碧。樓。眼。界。尤。

里

十二日 夜大雪 朝晴 質明行望闕禮 正使作頭 巡相及  
 余 以次列立 書狀稍後 皆位於末庭 主倅及諸守令在西  
 庭行禮 當初 余送言于正使 以爲使臣當位東庭 巡相  
 率守令位西庭 事體當然 書狀及余不可在營司之下 書而  
 正使謂 此是朝廷之意 卽當依品秩序立之故 倉卒  
 相爭 不能得未知 此合於體例否也 日出後 行查對 早  
 飯後 三使登練光亭 巡相亦來會(雪後霽景尤可而) 十里清江 圍繞長城  
 東西廣野 諸巒環列 詩所謂 長城一面溶溶水 大  
 野東頭點點山 模寫已盡 其他景致 難以一筆記也 少  
 頃出大同門 乘舟溯向浮碧樓 過朝天石 到長慶門 風  
 逆不能行舟 捨船乘輦 過清流壁 上浮碧樓 眼界尤曠

閩姑蘆籍之儀如傳克矣牡丹峯在樓一北乙密臺在  
 其西望之飄渺因石谷石乃望岷函文武井棋將窟入  
 亦在寺之生後從古廢之入言話方言但查其後出來  
 大同館之右及停主設錢夜後乃至越於臺之方白之  
 之西快列亭在宮館後也臺立城中央之俯臨一城云  
 之必北也少日歷覽殊多如也三和停李汝休未見  
 十三日晴日出後數日也善通丁午抵順安而多停宿是  
 禮入見中大後若川也時入雷川村主停趙汝石五和  
 迎華園之夫停停餘札之於也里杖之順川取守而世  
 急及主停入見主和停甚怡休不果見之川一石十  
 王

十四日晴日出後數日到雷岩指命三史新轄列于後左

闊 然蘊藉卽讓於練光矣 牧丹峯在樓之北 乙密臺在  
其西 望之瓢渺 因日暮不得望眺 過文武井 麒麟窟 入  
永明寺 少坐後 從長慶門 入會話於宣化堂 暮後出來  
大同館 巡相及主倅設餞 夜深乃罷 超然臺在大同門  
之西 快哉亭在客館後 將臺在城中央 而俯臨一城云  
而皆忙迫 不得歷覽 殊可恨也 三和倅李汶休來見

十三日 晴 日出後 發行 出普通門 午抵順安縣 主倅崔星  
瑞入見 中火後 發行 暮時入肅川府 主倅趙傲 不爲祇  
迎 槩因下吏設傳 除禮而然也 略杖之 順川郡守文洪  
龜及主倅入見 是日 行一百十  
里

十四日 晴 日出後 發行 到雪岩 撥命三使 卸轎列于路左

坐轎打話 亡失出山口 儲蓄有賴 時入安陽市 婦到  
 貨一宿 殆西出 城返 奪刀入 亡失 儲蓄 婦到 奪金  
 儲蓄 初 儲蓄 亡失 而 居也 奪金 婦到 儲蓄 亡失 儲蓄  
 江金 失李 潤 後 中 峴 金 失 為 維 周 無 憲 在 閔 周 處 必 入  
 月 古 城 金 失 李 挺 南 七 未 為 以 六 十 五

十 年 之 時 為 安 陽 餘 後 三 失 望 望 為 楊 在 對 東 眼 界 交

地 極 高 眼 界 通 融 城 西 角 有 楊 高 時 以 不 祥 楊 也 遂 性

望 情 清 以 江 一 帶 圍 繞 七 佛 島 在 二 水 流 外 中 七 佛 寺

在 城 心 雖 以 上 操 非 山 水 傳 之 以 名 為 好 楊 初 也 三 失

入 世 三 法 家 少 活 而 死 運 運 籌 新 各 失 設 儲 以 儲 行

折 金 李 時 起 以 慶 姑 符 招 貝 儲 任 何 可 為 人 李 佛 思 生

死 分 即 時 起 一 父 之 死 已 久 矣 余 立 臺 州 性 學 如 壽 同

坐轎打話 正使出酒 以饋諸軍官 晡時入安州市肆 列  
 貨之富 殆亞於箕城 從南門入 正使館於運籌軒 余則  
 館於觀德堂 皆兵使所居也 詹史李當醜 牧使柳述 老  
 江僉使李後綱 中峴僉使尙繼周 兵虞候閔周憲 皆入  
 見 古城僉使李挺商亦來 是日 行六十里

十五日 晴 留安州 飯後三使登望京樓 樓在府東 眼界交  
 地極高 眼界通豁 城西角有樓 高峙在百祥樓也 遂往  
 登臨清川江 一帶圍繞 樓下七佛島 在二水分流中 七佛寺  
 在城北 睡望之勝 雖不如練光 而亦是好樓觀也 三使  
 入坐三清閣 少話遂罷還運籌軒 僉使設饌以餞行  
 折衝李時起 以庶叔詩招見饋酒 仍問州人李悌昌生  
 死則 即時起之父皆死已久矣 余在童丕往學 於壽洞

李學日大在時情昂以書大忤取信人口、相逢只一  
 嬉戲情昂商為余曰都令他、心懷尹為厚為致可余  
 戲心一悅心後一言語在事為時起、若心為印出狀  
 且方控殿帳為搜內云之終不來余似出、去也、以美也  
 久日等誠素為夜心忘、付失奴、云

十六、初信年信、出後者、由北、出、身、清、江、三、丈  
 林、每、之、徑、川、二、十、里、水、漲、大、空、以、入、幕、以、打、信、直、久、夕  
 入、嘉、山、那、多、伴、性、恐、矣、心、勢、少、我、出、後、博、川、那、守、那、東  
 在、魚、川、房、以、吳、身、性、祗、迎、後、入、員、春、川、那、守、縣、令、廢、經  
 會、後、倭、賊、三、丈、以、第、伴、李、是、浪、多、付、之、物、那、博、川、伴、何  
 為、去、矣、川、以、十、里、余、心、極、快、冷、水、特、以、音、痛、入、那、後  
 多、快、童、僕、止、以、益、熱、快、以、氣、香、蘇、友、一、號、慕、川、店、不、寐、也  
 白、晴、遠、下、在、那、縣、令、金、座、未、見

李監司丈 其時悌昌 以李丈家親信人 日日相逢 與之  
 嬉戲 悌昌嘗謂余曰 都令 他日作灣尹 當厚賜我耶 余  
 戲作一帖 以給之矣 語其事於時起則 若以曾聞此狀  
 且尙藏厥帖 當搜納云 而終不來示 似失去也 汶美汝  
 久 自箕城來到 夜作家書 付先奴之去

十六日 朝陰乍晴 日出後 發行 由北門出到清川江 三使  
 共舟而濟 行二十里 氷渡大定江 入幕酒打話良久 夕  
 入嘉山郡 主倅洪啓靈 以病不能出侍 博川郡守朴東  
 植 魚川察訪吳守植 祇迎後入見 泰川縣監慶聖  
 會 設饌餞三使 江東倅李春原 交付方物於博川倅 仍  
 辭去 是日 行六十里 余以路飲冷水 猝得胸痛 入郡後  
 多服童便少止 遂煎服行氣香蘇散一帖 泰川居前察訪  
 白鴻達 本邑前縣監金埜 來見

十七日午陰乍晴日出後者行兩陸星巖歷入泗清亭詔  
 舍三丈打話良久遂入四十王入宮外有文李台世陸  
 入見尹休後執兒主伴於內步軒有舍宏傑生西園水  
 村也松栢亭三亭西李望一函遂約心宿村止宿主伴  
 累後少饒以錢三丈博仍欲不日急城來信以名日安  
 明事云幸々川少十<sup>為原</sup>進士李為恭未定上余同年同庚也  
 十八日少雷博仍多別向永柔自出後者川中火知雲興  
 飯以郭山地也主伴甚去去友揚送婦不成操宣川伴  
 郭濟述未到迎見仍以郭云其幕禪步世微以某村急  
 去微名隨來以見伴後者到宣川上丈飯和倚詞亭  
 余飯和視盧畫、以題世陸新構毋碧輝煌知心者麗  
 主伴郭濟述入見志微伴執盤飲未名見夕三丈於話

十七日 乍陰乍晴 日出後 發行 踰曉星嶺 歷入納清亭站  
 舍 三使打話良久 遂行四十里 入定州 府使李令世瑾  
 入見 夕飯後就見 主倅於內東軒 官舍宏傑 眞西關雄  
 府也 松柏亭在衙西南 望之幽邃 約以歸時止宿 主倅  
 略設少饌 以餞三使 愼伯汝久自龜城來候 汝久自安  
 州來會 是日 行六十里 州居進士李尙泰 來見 與余同年同庚也

十八日 少雪 愼伯分別向永柔 日出後 發行 中火於雲興  
 館 卽郭山地也 主倅適去矣 官接待頗不成樣 宣川倅  
 鄭纘述來到迎見 仍卽辭去 其幕裨安世徹 卽萊府屬  
 相識 亦隨來以見 飯後發行 到宣川 上使館於倚劍亭  
 余館於觀德堂 堂則趙世望新構 丹碧輝煌 制作宏麗  
 主倅鄭纘述入見 龜城倅韓聖欽來見亦 夕三使談話

於傍初亭、名宏傑有雄府規模、○川七十里

十九日大霧晚晴日出時、○到車輦站即涉山地也村

丈身後霧祇迎後入員、○抗川村丈部翌前未正見宣川

伴部僂述五之正丈信未仍心如以去李喜誠○子碩

臣曹川岳人趙清未見中大後心行、○良策站抗川

地也正丈信、○為袖函李舍彼于信、○李、○新岩密林木

溪間頗有樓、○趙、○白第、○李、○水、○石、○道、○遙、○証、○常、○以、○回

意、○同、○每、○為、○世、○間、○三、○丈、○好、○望、○老、○唐、○宅、○云、○而、○村、○丈、○部、○翌、○宣、○何

浦舍丈、○知、○科、○園、○滿、○事、○舍、○丈、○白、○芝、○歷、○安、○翁、○舍、○丈、○李、○照、○泰、○以

不見、○為、○科、○園、○以、○李、○第、○定、○資、○領、○付、○抗、○信、○遠、○來、○上、○以、○信、○舍

相、○法、○佳、○塔、○白、○芝、○歷、○以、○信、○應、○臺、○孫、○上、○一、○叙、○院、○名、○川、○七、○十

王

於倚劍亭 亭亦宏傑 有雄府規模 是日 行七十里

十九日 大霧 晚晴 日出時 發行 到車輦站 卽鐵山地也 府使具後翼祇迎後入見 龍川府使鄭翼荊來迎見 宣川倅鄭纘述爲送正使陪來 仍作別以去 李高敞之子碩臣 豐川宗人趙清來見 中火後 作行 到良策站 卽龍川地也 正使館於聽流堂 余館于清心堂 堂前巖巒林木溪澗 頗有勝趣 而茅日亭氷合 不能登臨逍遙詳算 以爲回還 時每當花開 三使例登臺察花云爾 府使鄭習宣 沙浦僉使尙輝周 彌串僉使白光璧 安義僉使李熙泰 皆入見 槩尙輝周以歲幣差員 領付龍灣後還來 與之論余相法佳咎 白光璧卽休庵玄孫 與之敘復 是日 行七十里

二十日在大令堂。出时昔川到半津江橋渡之楊下為  
 戶朴世倍以該湯急急過于後左中下方所率治捕時  
 抵箭門岷遠望新軍物樵炭我統軍字在石水屹  
 在真岸如山一帶岸岸如氣歸真中西北遠。無匪  
 際去入李丁館如君子去即訓法石之。即法兄之伴  
 金德裕有慶亦不居。口廳茶酒極極大休故極極物  
 多料出居亦出此夕之書此村尹之信如正史不館者  
 後至急急之川八十里之策如常。雖見亭。而世亦書  
 二十一日高浦城令文官秀都青山多戶金初宿玉江為  
 戶朴俊方山多戶盧成連水口多戶金信亦等名未見  
 二十二日信傲堂以正信尹者。在後打樺因。字且信停  
 止

二十日 夜大風寒 日出時 發行 到串津江橋渡 而楊下萬  
 戶朴世培 以渡涉差員 迎于路左 中火於所串站 晡時  
 抵箭門峴 遠望義州 新城訖築 粉堞嵯峨 統軍亭在其北 屹  
 然高聳 胡山一帶 峯嶺於朔氣錯莫中 西北漠漠 無涯  
 際矣 入南門 館於君子堂 卽訓練廳云 卽往見主倅  
 金德裕 有慶於所居鄉廳 槩德裕移權大諫故 爲修掃  
 東軒 出居於此也 夕與書狀府尹會話 於正使所館 暮  
 後罷還 是日 行八十里 良策將發行 蒙見十四日所出家書

二十一日 晴 清城僉使崔秀雄 青水萬戶金尙賓 玉江萬  
 戶朴俊 方山萬戶盧成建 水江萬戶金億等 以差員來見

二十二日 陰 微雪 欲與灣尹發將校打獵 因日亭 且雪 停  
 止

二十三日晴平懷得報妻有日未元十六日所出高書

懷德慰

二十日晴措所見十七日所出亦佳仍修付過信狀

道後夜時量物且失生未得官事必久望厚責恐友金

壽長回未中彼中雖有征伐一事北口海帆閣內分因

水突身居多為柝末直甚苦云云冬苦年官事照晴未見

二十日晴心善付生未得友之去事照晴告急榮之文

例之幕禪曰在出戶城書公五出屬當道以來也

惟尹投僱以錢三火打學物在涉涉在州報報訴板

杯街插少事在署說見出小運年毛浮及軍帝低飾余

之私失營失松通抄引推拉多人枕伴治按事以括已

為人則又以中掩至因事現病亟奪入涉程法云孔粘

二十三日 晴 平壤倍持姜有行 來見 十六日所出家書 客  
懷稍慰

二十四日 晴 撥便見十七日所出家信 仍修書府本府邊情  
狀達便 亥時 量謝恩使先來 譯官李必久 皇曆責咨官金  
壽長回來 聞彼中雖有作伐之事 姑得妥帖關內外 因  
水災 民居多蕩折 米置甚貴云矣 監營軍官李熙疇來見

二十五日 晴 作書付先來譯官之去 李熙疇告還 槩僉使  
例送幕裨 問候使行故 李公爲別余圖差以來也 初暮  
灣尹 設饌以餞三使於禦權堂 夜深後罷歸 乾糧譯官  
朴衍 稱以到良策站 見失小匣草毛浮 及米袋 假飾余  
言 私使營吏私通 龍川推捉多人 龍倅論報事狀 捉送  
多人則 又從中掩置 因事現露 遂拿入決棍 汰去乾糧

以韓考禘代亨

渡江人馬各數

團練使邊尹耳友南車河 馬一匹 到儒後

邊上耳官任忠國

庫直於世金

金鼎九

運伯於於河博白

一 以夫馬次知到儒後

色史李礼中 馬一匹  
色史趙少雄 馬一匹

以榮於於李悟運

開城府於於孫於周

海營於於守於奎

以韓壽禧代定

渡江人馬名數

團練使 灣尹軍官 南重河

馬一匹 到瀋落後

灣上軍官 任忠國

庫直 於叱金

金鼎九

運餉別將 河漢得

以夫馬次知 到瀋還歸

色吏 李禮中 馬一匹

巡營別將 李順運

色吏 趙如雄 馬匹

開城府別將 孫尙周

海營別將 禹尙奎

李奉命

夫馬次不到儒邑西

色吏柳永平馬一匹

同城水於卓改閏

正使品馬五匹成權澤李方男馬

自以揮金順上馬

輸城揮朴達完馬

出后揮承元馬

任方揮性以崇馬

善者肅川佐奴大成

轄子括順安彼奴天心

馬頭順安彼奴海美

松楸 萬方

引德金郊

萬美

嘉山

富心

郭山

德得

郭山

億翁

口傘心北金郊孝仁

左常馬順安

萬億

鏡馬頭順安於化下

元振馬頭定於

萬成

李泰命

以夫馬次知 到藩還歸 色吏柳永平 馬一匹

開城別將 卓成潤

正使品馬 五匹 成權驛 李尙男馬 自如驛 金順上馬  
 輸城驛 朴逢完馬 幽谷驛 丞元馬  
 保安驛 洪以業馬

書者 肅川館奴 太成	轎子扶囑 順安館奴 天心
馬頭 順安館奴 德萬	棋隣 萬尙
引路 金郊 萬春	嘉山 富心
郭山 德得	郭山 俊萬
日傘書者 金郊 效仁	左牽馬 順安 萬億
籠馬頭 順安 於叱卜	乾糧馬頭 定州 萬成

厨子平壤宿奴世丁

軍牢安以尚白

忠武官奴書子

孫如順卜

副使子馬四正自水澤異世伯馬

金井孫朴斗昌馬

信厚孫鄭順哲馬

昌孫孫許尚馬

書在修安飯奴仲男

韓子松鳴鍾山 之昌

馬頭中和飯奴忠信

宣川 三昌

孫馬頭宣川飯奴俊寬

棋獅 吳閑

孔松馬頭沈川飯奴得良

宣川 吳昌

左常馬頭飯奴石卜

厨子忠如 厚傑

枝翁

書以官吊馬三正輪成文正官馬 得安朴太文馬

廚子 平壤官奴 世丁	軍牢	安州	尙白
定州官奴 番才		義州	順卜

副使品馬四匹 自如驛 梁世明馬	金井驛 朴斗昌馬
濟原驛 鄭順哲馬	昌樂驛 許尙萬馬
書者 順安館奴 仲男	轎子扶囑 郭山 之昌
馬頭 中和館奴 忠信	宣川 三同
籠馬頭 宣川館奴 俊寬	棋隣 莫閑
乾糧馬頭 龍川館奴 得良	宣川 英昌
左牽馬 安州館奴 石卜	
廚子 定州 厚傑	
枝萬	

書狀官品馬三匹 輸城 文正官馬 保安 朴太文馬

鞍假抄時葉馬  
 善北定如佐奴襪山  
 左席馬定如斗德  
 馬頭郭山嶺奴屋白  
 執馬頭順安千歲

表澄文馬頭嘉山石栗 入澄後上房  
 歲帶馬頭 宣川守正 儒仙交付後副房丘臣  
 歲帶末馬頭定州好翁 上房  
 方物馬頭 嘉山英翁 副房  
 宣川松男 善北房

表澄文載於刷馬一匹

輸城 安時恭馬

書者 定州飯奴 稷山 左牽馬 定州 斗隱  
馬頭 郭山飯奴 憲同 籠馬頭 順安 千歲

表咨文馬頭 嘉山 石栗

入燕後 上房

歲幣馬頭 宣川 宇正

瀋陽交付後 副房 丘從

歲幣米馬頭 定州 守萬

上房

方物馬頭 嘉山 英萬

副房

宣川 松男

書狀房

表咨文載持刷馬一匹

歲幣木載馬百三十三匹

加把七匹

宋載馬八十四匹

到需仍包送

方物載馬六十一匹

加把十三匹

棠村載馬一隻

文書載馬一隻

尚農圃貿易載一隻

尚衣院貿易載六匹一隻

白琴院貿易載六匹

上房瓦松載三十匹  
帳布二匹  
相瓦二匹

加出

副房瓦松載二十九匹  
帳布二匹  
相瓦二匹

加出九駟 到柵門包送

歲幣木載馬百三十三匹	加把七匹	} 到瀋陽還送
米載馬八十四匹		
方物載馬六十一匹	加把十三匹	

藥材載馬一隻

文書載馬一隻

內農圃貿易載一隻

尙衣院貿易載六匹一隻

內醫院貿易載六匹

上房乾糧載三十匹內

帳幕二匹 柎籠二匹

加出

副房乾糧載二十九匹內

帳幕二匹 柎籠二匹

加出九馱 到柵門還送

三房五箱載六匹內 帳布一匹

加出無

義州出軍箱載二十五估 到瀋陽

上載七匹內一匹州林載

驛三都卜載九匹

負譯不涉驛馬三十一匹

私於馬三十二匹

卜刷馬二十一匹

已上驛馬四十三匹

義州出刷馬北京差一百十六匹

瀋陽差三百三十一匹

私持馬

三房乾糧載六匹內

帳幕一匹

加出無

義州出軍糧載二十五馱 到瀋陽還送

灣上載七匹內一匹刑杖載

驛子都卜載九匹

員譯所騎驛馬三十一匹

私持馬三十二匹

卜刷馬二十一匹

已上驛馬四十三匹

義州出刷馬 北京至一百十六匹

瀋陽至三百三十四匹

私持馬

二十六日晴書此三修尹早出鴨綠江過搜檢卜物余  
 正火早作後者以多以過修尹累設錢三斤帶帶方物  
 及三五狼卜姑單搜後惟討狀 在付措仍付各信余  
 正火出費乘馬渡鴨江小西江修村有屬以茅告  
 為修也者相識為不覺依托乘糶液中江古津江之史  
 矣鴨江出過清概舍史宿秀雄彼過青水多戶金古賓  
 小西江出過玉以多戶朴俊彼過方山多戶盧成建中  
 江出過水口多戶金德彼過九川權管金南魁古津江  
 樞下多戶朴世培以次對向日沒時到九連概修上軍  
 右役帶以終少以書此單檢矣詳如卜追多遂回世正  
 失帶中打活排飯之莊正火命刻乃而謂為古義命  
 余之七快帶之乃拘反小帶之心地坎熾二炒火上發

二十六日 晴 書狀與灣尹 早出鴨綠江邊 搜檢卜物 余與  
 正使 早飯後 發行 到江邊 灣尹畧設餞送行 歲幣方物  
 及三乾糧卜馱 畢搜後 修封狀達付撥 仍付家信 余  
 與正使 先發乘雪馬 渡鴨江小西江 灣府官屬 次第告  
 辭 雖非舊相識 而亦覺依然 乘轎渡中江古津江 差使  
 員 鴨江此邊 清城僉使 崔秀雄 彼邊 青水萬戶 金尙賓  
 小西江此邊 玉江萬戶 朴俊 彼邊 方山萬戶 盧成建 中  
 江此邊 水江萬戶 金億 彼邊 乾川權管 金南樞 古津江  
 楊下萬戶 朴世培 以次辭歸 日沒時 到九連城 灣上軍  
 官 設幕以待 小頃 書狀畢檢員 譯私卜追到 遂同坐正  
 使幕中 打話攤飯而罷 正使幕則乃所謂蒙古毳幕  
 余與書狀幕則 乃狗皮小幕 而作地坎 熾二爐 火上覆

板床以後宿里在津西五火倉將煖燠之幕房據之券  
四面甚味冷無設個干為少坊中燧火柱四方以棠布  
吹角由城以懸灸生以三十里

二十七日晴開未時余先者過松河者景朴碑在渴馬轉  
坂按舍名山幕以畫北正丈進到同生掘飯過溪井網  
浦松田湯流夕控蕙秀山川過雲崖岩在一出控興蕙  
者流以何口口名云而後帝之高北為莊是川七十  
里夕舒流先云語有朴昌裕石柵夕丈通如風城如以  
五坊即開柵一地

二十八日晴平日帶巾至少老坪九紫治溪石後頗崎岨  
右過小坡山到柵門外圍檄清如島二柱以過橋陸橋  
仍未盡章余甫十口出未待之而三丈回命之么修封

板床以設寢具 夜深易其火 衾褥煖燠 無異房堦 而第  
四面甚疎冷矣 設網于外以防虎 熾火四方以緊寒  
吹角吶喊以警衆 是日 行三十里

二十七日 晴 開東時 余先發 過松阿者 益補碑石隅 馬轉  
坂 抵金石山幕 從書狀正使追到 同坐攤飯 過溫井 細  
浦 極田 湯站 夕抵葱秀山 川邊對岸巖石 一如瑞興葱  
秀站 故仍以得名云爾 設幕而宿如前夜 是日 行七十  
里 夕飯後 先送驛官朴昌裕 於柵門 使通於鳳城 將以  
爲趁 卽開柵之地

二十八日 晴 平明 發行 過沙屯坪 水巖沿溪 石路頗崎嶇  
右過小龍山 到柵門外鳳城 清將烏二杜 以過婚往瀋  
陽未還 章京甫十口 只來待云爾 三使同幕而會 修封

入柵此處及方信付正お芬好先伯於核後該道防友  
 二人檢軍哨有一人及柵軍未獲お葱秀取岩地務伯  
 之夫馬之失負柵山舍史史世輝七到此告教少以柵  
 乃大開群柵非出列于命お廻是耳年少於今台退後  
 集譯常許佐佃燈紅單之章集保則因今吹彦起不為  
 出來命以雲生交核坂依佃入佐山果乃由俄許三失  
 先入柵遂垂轄入乃過焉乃後此所馬之川過亦市城  
 橋坪意柵乃夕按鳳凰城山窟お城勿請人吳奇矣亦  
 意乃リ少十至自該鴨江以乘有馬耳山松龍山枕山  
 鳳凰山少枕山少平城山少立後右峭壁尖巒望之奇  
 秀之至お鳳凰山松龍山枕山少市城山少家我 圖  
 在奉三角之石老尤炭白の老

入柵狀達 及家信付送 於義州先歸將校便 護送哨官  
二人 檢軍哨官一人 及槍軍等 朝於葱秀水巖地辭歸  
而夫馬差使員 麟山僉使 安世輝 亦到此告辭 小頃 柵  
門大開 群胡雜出 列于幕前觀光 軍牢呵禁 則乍退旋  
集 譯輩計給例贈禮單 而章京輩 則因風吹塵起 不爲  
出來幕 次對坐受饋 故依例入給酒果於門內 俄許 三使  
先入柵 遂乘轎入門 過衙門後 始御馬而行 過安市城  
榛坪府 柵門 夕抵鳳凰城 止宿於城外清人吳守寅家  
是日 行六十里 自渡鴨江以來 有馬耳山 松鵲山 龍山  
鳳凰山 小龍山 安市城山 皆在路右 峭壁尖巒 望之奇  
秀 而至於下鳳凰山 上松鵲山 龍山 安市城山 狀若我國  
道峯三角 而石色尤蒼白可愛

二十九日晴日出時帶川過市城在右廊廡內設局祭神  
 形雜貨盡先未物亦委山禱日整宿不寐必有夢經問  
 宜雜魚牛肉封盡即撤奉勺與崩額不修德誠川每  
 十步田疇間有六七推之下序上尖佈短器以木板也  
 付造半畝而能若露矣今與或半腐朽間、禱出以夜  
 無<sup>或</sup>詔<sup>馬</sup>請人<sup>或</sup>步馬<sup>或</sup>步驢<sup>或</sup>步鞍<sup>或</sup>馳過車<sup>或</sup>或駕牛  
 或駕<sup>馬</sup>一二或<sup>馬</sup>甲五成群<sup>或</sup>之<sup>或</sup>僅<sup>或</sup>巨<sup>或</sup>何<sup>或</sup>愁<sup>或</sup>在<sup>或</sup>係<sup>或</sup>行<sup>或</sup>車  
 胡心長<sup>或</sup>鞅<sup>或</sup>係<sup>或</sup>馬<sup>或</sup>馳<sup>或</sup>出<sup>或</sup>轄<sup>或</sup>畜<sup>或</sup>以<sup>或</sup>過<sup>或</sup>亦<sup>或</sup>係<sup>或</sup>產<sup>或</sup>土<sup>或</sup>係<sup>或</sup>起<sup>或</sup>車<sup>或</sup>詳<sup>或</sup>報  
 聞<sup>或</sup>人<sup>或</sup>換<sup>或</sup>若<sup>或</sup>麻<sup>或</sup>且<sup>或</sup>尚<sup>或</sup>明<sup>或</sup>、<sup>或</sup>次<sup>或</sup>通<sup>或</sup>收<sup>或</sup>吳<sup>或</sup>國<sup>或</sup>租<sup>或</sup>及<sup>或</sup>章<sup>或</sup>多<sup>或</sup>由<sup>或</sup>十  
 口<sup>或</sup>甲<sup>或</sup>軍<sup>或</sup>十<sup>或</sup>八<sup>或</sup>名<sup>或</sup>自<sup>或</sup>及<sup>或</sup>後<sup>或</sup>之<sup>或</sup>云<sup>或</sup>之<sup>或</sup>在<sup>或</sup>中<sup>或</sup>也<sup>或</sup>見<sup>或</sup>在<sup>或</sup>人<sup>或</sup>店<sup>或</sup>層<sup>或</sup>三  
 又<sup>或</sup>由<sup>或</sup>到<sup>或</sup>粒<sup>或</sup>出<sup>或</sup>浦<sup>或</sup>早<sup>或</sup>係<sup>或</sup>者<sup>或</sup>余<sup>或</sup>亦<sup>或</sup>入<sup>或</sup>官<sup>或</sup>抄<sup>或</sup>店<sup>或</sup>鋪<sup>或</sup>三<sup>或</sup>次<sup>或</sup>可<sup>或</sup>也<sup>或</sup>早  
 係<sup>或</sup>見<sup>或</sup>店<sup>或</sup>的<sup>或</sup>甲<sup>或</sup>多<sup>或</sup>閑<sup>或</sup>遊<sup>或</sup>之<sup>或</sup>有<sup>或</sup>身<sup>或</sup>後<sup>或</sup>之<sup>或</sup>否<sup>或</sup>則<sup>或</sup>層<sup>或</sup>以<sup>或</sup>無<sup>或</sup>後<sup>或</sup>可<sup>或</sup>也

二十九日 晴 日出時發行 過市肆 左右廊廡內設層架 錦形雜貨畫器等物 雲委山積 而整齊不紊 皆有條理 間置雉魚牛肉肆盡 頭卽城南門 而崩頽不修 繞城行數十步 田疇間有六七棺 而下廣上尖 體短槩以木板連付造成 畧如船制 露受風雨 或半腐朽 間間積土以覆矣 路間清人 或騎馬 或騎騾 揚鞭馳過 車子則或駕牛 或駕馬一二 或駕馬四五 成群而行 而僕從呵禁其徐行 則車胡以長鞭驅馬 馳出轎前 以過前路 塵土紛起 車聲雜鬧 令人憤苦 麻貝尙明 次通官吳國柱 及章京甫十口 甲軍十八名 自此護行云 而道中不見其人焉 歷三叉湖 到乾者浦 舍幕入處於酒糲店鋪 三使同坐早飯 見店胡四五閑遊 問有身役與否 則答以無役 問何

不力累之為以生業分居以少失農切以技業年云休  
 後過以類同病摩高厥補可松松結氣語亦正失而萬  
 海且丈口中河右在壽溟焉兄在父方嶽忠之勉云云  
 今亦以水窟通遠僅云此句在卷之夕窟亦清人王史  
 考亦是口口四十里

三十日晴平日者口到小長嶺讀日麻具及以通有公案  
 駕馬穩車讓袂信口口液憲官河以中以上係云  
 川五至又出大長嶺而後以崎此部小云地車係法不  
 德也殺坦進卸糖而馬一隊以道方吳國柱舍車於小  
 馬夏過橋過口呼馬頭勞口屋、名丈馬頭至海之到  
 八海中河大右店舖站種項規補村林直遠徑海具失  
 一川已先到矣直就船失命台命弘以窟正失書於同

不力農 而爲此生業 則答以少失農功 以致貧辛云 飯後 過沙顏洞 踰摩高嶺 晡時抵松站 會話於正使所寓 謝恩使行中譯官崔壽溟 爲見其父尙嶠 先爲馳到 言其使行 明宿通遠堡 與此行相會云 夕宿於清人王史樂家 是日 行四十里

三十日 晴 平明發行 到小長嶺下 護行麻貝 及次通官 皆乘駕馬氈車 讓路以俟過 渡瓮背河 河卽中江上流云 行五里 又踰大長嶺 兩嶺皆崎嶇難行 而胡車絡續不絕 如履坦途 卸轎易馬之際 次通官吳國柱 舍車騎小馬 憂過轎邊 而呼馬頭 勞問余 余亦使馬頭 至謝之 到八渡中河 火於店舖 踰獐項峴 晡時 抵通遠堡 謝恩使一行 已先到矣 直就副使俞台命弘所寓 正使書狀同

○四岳俄以書此右來正也恒名來打括且聽歷免正  
丈礪山君抄之書此同密お驥英禱履進忠意也  
六十里仕官信付星河書厚川

十二月六

初一日晴平白帶川、三十王長各中亦知雷洞座鋪又  
川十級至瀉白水嶺及二十嶺夕按連山閑村落甚爾  
條止宿於法人國日春母神文書否丈深右曰屬仍該  
分書以八股山五王八袴八塔黃旗云又曰五王名仍  
王にお皇帝五仍人か又書以策王立王金王高麗王  
拂王以皇帝四寸又才云之有非信矣日  
日可且又曰圓俄少後書是也孫友矣、幸訟於存快  
之、分看以以水嶺五派以東、分符鳳城以西、分屬

會 俄而書狀官宋正必恒 亦來打話 迫曛 歷見正  
使礪山君枋 與書狀同宿 於驤黃旗盧逢忠家 是日 行  
六十里 作家信 付呈譯壽溟行

十二月 大

初一日 晴 平明發行 行三十里長谷 中火於宙洞店鋪 又  
行十餘里 踰分水嶺 及二小嶺 夕抵連山關 村落甚蕭  
條 止宿於清人祁文秀家 使譯官問屬何旗  
則書以八股山 五王八旂 八營黃旗云 又問五王是何王 而於  
皇帝爲何人 則又書以采王 立王 金王 高麗王  
韓王 皆是皇帝四寸兄弟云 而其言有難信矣  
又問鳳城以後 皆無州縣官 民之爭訟 於何決  
之 則答以以分水嶺爲限 以東則管於鳳城 以西則屬

書遼東之詔詔亦有擇歷之當者。川六十至

又曰文秀父名不文秀也。書序曰帝神三有父親  
孫因哥、鄭果也。才文登文科文魁云。以祖名命之

少異也

初二日晴日出。後性正。火正。寓也。少休。同。擲飯。心。快。以。按  
先。行。正。火。也。余。以。策。策。行。十。餘。里。海。名。岩。嶺。海。嶺  
至。且。秋。信。董。通。車。馬。之。冰。當。室。極。其。崎。嶇。之。異。馬。嶺。云  
又。行。十。餘。里。夕。松。柑。地。詔。古。城。韻。應。之。存。半。壁。入。寺。之  
窈。而。清。人。朋。友。立。室。也。子。應。彩。之。鏡。湯。又。平。冷。相。居。亦  
年。十。三。四。形。容。頗。浩。妙。且。此。火。曰。正。火。學。之。詔。無。子。云  
史。之。於。素。丹。子。之。於。虛。壁。學。子。及。總。類。云。郭。字。千。家  
詔。三。丹。以。素。火。之。補。之。字。意。多。有。之。我。國。同。出。矣。不

於遼東 而沿路只有驛丞云爾 是日 行六十里

又問文秀父名 則文秀書於片紙曰爺祁三有 父親  
朝國哥哥祁渠 其弟文登 文科 文魁云 以祖爲爺 良  
可異也

初二日 晴 日出後 往正使所寓 與書狀同攤飯 書狀以騎  
先行 正使與余 次第發行 行十餘里 踰會寧嶺 嶺路峻  
至 且狹隘堇通車馬 而冰雪塞路 其崎嶇無異馬嶺矣  
又行二十餘里 夕抵恬水站 古城頽廢 只存半壁 入南門  
宿於清人顧友直家 其兒子進彩 其族兒陽文 舉哈 朝臣等  
年皆十三四 形容頗端妙 且能文 問其所學 則讀孟子云  
使之持來冊子 則持奎璧孟子 及總類六言雜字 千家  
詩 三冊以來 使之誦 則字音多有與我國同者矣 所

理山云郭字則首之人生於應歷凡其事如物名之  
 千富姓乃唐宋七皇後句也此可省申在華信所  
 始馬之族皆遠落世重余有尉人焉以馬武生焉  
 通者僅柳之已出馬匹云烟糖之川正矣以此到於  
 宜遠極人於我 國馬在可出交之看以部尉人  
 有有為隻唐方員信一軍城奪出馬之塔願不從之亦  
 一捕於吾定活所云武定好此之長如嘉城拿入控  
 司以終如猛損刑推十多度矣一非現其馬者之川甲  
 十皇

初三日晴日出後考川至青名嶺、東南石嶺西嶺至石  
 部險甚程會房去嶺山谷口正史以石嶺河以之曰牙  
 跡馬忠信以以治當回幸在橋七王許為草河以年

謂六言雜字 則有言人生報應歷臨 凡百事爲物名 而  
 千家詩 則乃唐宋七言絕句也 書狀軍官申重華 借騎  
 胡馬到嶺 駑逸落傷甚重 余行尉府人 副將姜武先 到  
 通遠堡 稱以見失馬匹云 頗疑其行止矣 書狀到嶺底  
 適逢胡人持我國馬者 問其出處 則答以副尉府人  
 曾有兩隻唐太負債之事 故奪此馬 則渠願加給三升  
 一桶 然吾豈添價云云 武先奸狀 知此始著 故拿入推  
 問 則終始抵頰刑推十五度 使之推現其馬 是日 行四  
 十里

初三日 晴 日出後發行 到青石嶺 嶺東多石 嶺西峻至 其  
 艱險甚於會寧矣 嶺下谷口 正使以爲草河口 而問于  
 驛馬頭忠信 則以謂宙洞南石橋七里許 是爲草河口 年

方金達士大有氏詢于海濱曰的定之跡為當今之  
 果信之程也 考扁濟也之古名在廣道原率河口以  
 交之今曰是也 考扁濟也之古名在廣道原率河口以  
 中涉海之舟必當經此也 以地而考之 又海山在廣道原  
 移之山村舊稱耕牛驢馬野禽正白鑄王天柱等者  
 川三午至身文也各事也 德中八訪到跡多然於  
 初四日晴幸白岩教海三派河海王祥殿在乃觀至冷井  
 正史以此追至遂卸馬列橋泉過打新耐人遂往作生  
 橋中口喚仍帶行右邊嶽眉庄川三午至 遼東老城  
 奉了雜糧並款亦有土等老形橫道市地 遼東老城  
 貨賁人眼目成曰移世業廣之人物稠密居年尚繁也  
 移少佳 涉時繁年之幸也 以排知也 入閩奉廟乃死後

前金進士大有氏 詢于譯輩 以的定云 殊未知其言之  
 果信 而雖以孝廟譌曲言之 青石嶺過否 草河口何  
 處云 則明是未踰青石前所製 而草河在嶺之前矣 行  
 中諸譯輩 亦未明知 聊記此以待知者 又踰小石嶺 午抵  
 狼子山 村落稠雜 牛驢備野 與書狀 宿正白旗王天祿家 是日  
 行 三十里 承文書員辛尙謙 中風病劇 殊可愍然

初四日 晴 未明先發 渡三流河 踰王祥嶺 石門嶺 到冷井  
 正使書狀追到 遂卸馬列轎泉邊打話 廚人進朝飯 坐  
 轎中以喫 仍發行 右過娥媚庄 行三十里 入遼東舊城  
 南門 雉堞盡頽 只有土築舊形 橫過市肆 果餘左右堆積 百  
 貨眩人眼目 城內雖甚荒廢 而人物稠密 屋宇侈奢  
 猶如此 往時繁華之盛 可以推知也 入關王廟乃死後

村依慶帝君相靈之者至小像即生時形似也致宇廊  
 庭多懸牌額庭內列三石碑全碧煇耀必屬顯近年實  
 故常山墓傳地然也出西門到白塔寺、出款為小冢  
 及曲橋以夜以碧尾之七其景畫中有一及聖三佛像  
 極大濤名三二佛之佛法彫刻在木架枕極巧精庭  
 前有西河白塔北以梵壁等是也唐第如款其十級唐  
 其上又等塔高三四丈又在上造塔十三層仰視在塔  
 耶眩而外塔或以石等表柱之五云云而考位儀曰  
 城北東門中至塔左視遠寺新城後為子河干水東流  
 一由東門向西拘于林人曰穆、西源地為入海之事  
 極極地細曰唐人乃西水流到乾潭城折之西北流西  
 水、在董一箭地至任水潭左而中北流也、夕宿亦壽

封伏魔帝君塑像 而前置小像 卽生時形儀也 處宇廊  
廡 多懸牌額 庭內列立石碑 金碧炫耀 皆近年 賈  
胡輩所募緣增修也 出西門 到白塔寺 寺皆頽廢 小閣  
及曲墻 皆覆以碧瓦 而亦甚荒蕪 中間一殿 塑三佛像  
極大 兩傍各立二小佛 而佛後雕刻花木虎龍 極巧精 庭  
前有所謂白塔者 以甃壁築基 其廣幾數畝 高十餘層  
其上又築臺 高三四丈 又其上造塔十三層 仰視其端  
眼眩不能詳 或以此謂華表柱 而其言無所考信 繞內  
城北東 行七里餘 右視遼東新城 渡太子河  
夕宿永壽



寺前 清人李得龍家 本是商胡 而業敗年老 舊宅只巍  
然 是日 行八十里

入視關廟時 城內居胡 毋論老少 仝集 隨轎千百爲  
群 難以呵辟

自鴨江至鳳城 山勢逶迤嫩美 間有龍山鳳凰等山  
而秀發可愛 自松站至狼子山 山形鬱勃麤頑 有峽  
氣 自冷井行五六里 將爲平野 迫 與天接杳無際涯

初五日 朝陰旋晴風 平明 發行 歷接官廳場虛所 中火於  
爛泥堡 三使各給紙束刀子於主人 而嫌其小閉門 以  
遏下輩出入 令人憤惋 行十里 渡萬寶橋 過  
烟臺河 五里臺 晡時抵十里堡 宿廂黃旗李廷玉家 是  
日 行六十里 轎馬丘從三同欲換 差正使軍官金尙鉉

而帶以棍七夜

初六日晴平旦者川邊板橋堡常社在沙河堡火石橋中

火石白塔堡過一而老花堡後混河一名河浦入有橋

瀋陽城●者小橋乘馬入城里後南入城

壁巷是等高三四仞刀外心壘城東西有門至因城

者所未見了東為十把新等寸完未記女牆花城者

列營尹杖途中而為垣等長似由中出語過意

以致一城驛房多矣也城曰外人居稠密市肆繁

而信遠東城一方者與也夕宿營於是日川六十五

初七日晴乘帶木二千五百匹好方有一百五十卷好

小麥二千一百卷糶米三石五斗甲井因以乘文賦

而書瀋陽之中多管部中深淫赤物甚多且於村末

所帶仗棍七度

初六日 晴 平明 發行 過板橋堡 常新店 沙河堡 火石橋 中  
 火於白塔堡 過一所臺 紅花堡 渡混河(一名 阿利江) 晡時抵  
 瀋陽土城外 下轎乘馬 入行里餘 從內城南門入 門有二層樓 城以  
 壁甃基築 高三四仞 門外作壅城 東西有門 其基固高峻  
 曾所未見 門之東數十把 新築寸完 而未訖女牆 器械當  
 列 灣尹狀達中 所謂增築者 似由於此 而下語過重  
 以致一場騷居 良可笑也 城內外人居稠密 市肆繁華  
 百倍遼東城 一大都會也 夕宿察院 是日 行六十里

初七日 晴 歲幣生木二千五百匹 好大紙一百五十卷 好  
 小紙二千一百卷 粘米三石五斗四升 因北京文牒 留  
 納於瀋陽 而聞生管郎中輩 往索賂物甚多 且於持米

之際以大斗准持陰出刺後於去云其乃痛按是乃留  
將討以 迄及膏書付給書團練使田意川

初八日晴平日者川邊大路北行街市繁盛一水二陸不

司之多為之左路右漢遼雄偉川店立路左巷內之遠

望員一梅臺及潤勢多揮天守天府多在巷口到北種

梅、是二層在下有門柵之小西又有修梅一水北梅

區及門出又川至許出西城門又川三四島然出出持

門汗之自墓主北如里外林木中數畝此竹茂以蒼尾

西川三四島地到西河汗之願寺後東過小角門入見

有寺廢於其尾如尾則寺中百生三金佛寺西有古梅之蒼元俗人不許坐

賢庭列松樹如有重門之區西過角門出通摩轄不由

此之枯詔直白永多梅中大後過大方身方極枯夕持

之際 以大斗准持除出剩餘持去云 良可痛惋 是日留  
修封狀達及家書 付給於團練使回還行

初八日 晴 平明 發行 遵大路北行 街市繁盛 一如二昨所  
見 而閣衙門在路右 深邃雄偉 行宮在路左巷內 而遠  
望見之樓臺殿 閣勢若插天 奉天府在其巷口 到北鍾  
樓 樓是二層 其下有門折 而小西 又有鍾樓 一如北樓  
從其門出 又行里許 出西城門 又行三四馬場 出土城  
門 汗之墓在北數里外林木中 殿閣屹然覆以黃瓦  
西行三四箭地 到所謂汗之願堂 從東邊小角門 入見  
則有堂 覆以黃瓦碧瓦 堂中間坐三金佛 堂西有高樓 而黃衣僧人  
不許登  
覽 庭列松樹 前有重門 而從西邊角門出 遂乘轎不由  
壯元橋路 直向永安橋 中火後 過大方身大板橋 夕抵

遂微而正黃旗常文炳等八人漢文等川六十五

知九日晴未始落一遭冲暑店况家子渡周西河平外於

周流河堡於考一係麻具云叔梅以事甲在去云石少

越詔堅讀正史不宮店之史山日出入程呼云于吳國

柱素函再三後如存川七人痛抱凶郭高座新或店小

黃旗堡劉大黃旗堡卸馬古橋累逢來飲仍川過芦河

溝高石獅子舖口已聽裏亞焯筑勿轉分以川歷古博

子初更許樓白旗堡宿上黃旗李天悟宮漢考川百

二十王余自吐口有感氣煩不怪到以殊覺甚於子

初十日晴日出清考川歷小白旗堡中亦考一極口晴時

按二危井口此同宿書清人却自望家●石中史刺

邊城 宿正黃旗常文炳家（漢人）是日 行六十里

初九日 晴 未明 發行 過神農店孤家子 渡周流河 早飯於  
周流河堡 將發之際 麻貝之奴 稱以未聞其主言 不可  
越站堅鎖 正使所寓店門 使不得出入 譯輩言于吳國  
柱 責諭再三後 始許行 令人痛惋 過郭家庄 新民店 小  
黃旗堡 到大黃旗堡 卸馬坐轎 畧進粥飲仍行 過芦河  
溝 到石獅子舖 日已曛黑 懸燭籠於轎前作行 歷古城  
子 初更許 抵白旗堡 宿上黃旗李天培家（漢人）是日 行百  
二十里 余自昨日有感氣 頗不輕 到此殊覺蘇快 可幸  
可幸

初十日 晴 日出後 發行 歷小白旗堡 中火於一板門 晡時  
抵二道井 余書狀同宿於清人鄭自望家 曾聞吏判

賓台三二尺井有善舍人頌驗云使河右金商松律壽  
 禱邀未則其姓名乃數東白之自云以亦南人為隸吳  
 三桂部以因事滴辰物出云親多西非語常八字是崇  
 徽如之而論平之奇於也統余及家而正則勿柱何  
 少秀未刀初為第以明年二月推第以待是日午  
 十里

十一日晴日出洛考行過明野寺新店三丈即駕到平原  
 上累坐未飲又過土子井烟臺晴時挂小黑山止宿於  
 清人正黃旗趙河仁營是日午十五

自過城以後西山過遠山一帶嶽嶺烟間者及過  
 白旗堡峯巒羅列呈露似坐千山到山路中如見陶山之峰岸  
 云地先拜可詩過新店以土崗到山如見如見後丘陵如見成坂

賓台 言二道并有算命人頗驗云 使譯官金商鉉韓壽  
禧邀來 則其姓名乃蔣東白 而自言以雲南人 曾隸吳  
三桂部下 因事謫居於此云 觀其所推 譯輩八字是紫  
微數 而所論平平無奇然 書給余及宗甫正則四柱 仍  
以紙束 刀柄爲幣 期以明年二月推算以待 是日 行五  
十里

十一日 晴 日出後 發行 過明野寺 新店 三使卸駕列于原  
上 畧進粥飲 又過土子井烟臺 晡時抵小黑山 止宿於  
清人正黃旗趙河仁家 是日 行五十里

自邊城以後 西北邊 遠山一帶 凝露於雲烟間矣 及過  
白旗堡 峯巒羅列呈露 似是千山 或醫巫閭山 而驛卒  
云非是 殊可鬱 過新店 卽土崗 自到此始見以後丘陵



十二日 晴 日出時 發行 過羊腸河 中火於中安堡 初欲歷  
 入舊廣寧 見李成樛牌樓 及北鎮廟矣 正使與余俱有  
 疾 約以回路往見 遂過于家庄廟店里 二臺子 獐子店  
 大是家子 新店 夕抵新廣寧 寓於驛丞家 內外家舍極  
 宏暢 炕前熾火爐火 煮茶以進 既夕大設饌二單以獻  
 命乾糧 以紙扇諸種答之 與正使宿對炕 是日 行八十  
 餘里

到新店北望 舊廣寧在平野中 城堞隱然露現 北鎮  
 廟在其西高岡上 延窓宏廣 新塗粉灰 望之巍然矣

十三日 晴 平明 發行 過興隆店 双河舖 壯鎮堡 常興店 三  
 臺子 朝飯於閭陽驛 又過二三四五六臺子 暨明末

出扶唐塔五里置一烟臺之以歷和所以等其五之丈  
 履子之五五尺以據去間或有完存古石時枕鋪設其  
 後有浮魚片時之石少扶遠野千里外舞息於園能耗  
 竭其少而由移以役供致我於園已之百年之由書本  
 年憶少婦痛引烟臺一十少有虎窟村舊故以二麓三  
 臺亦名之心出居戶時枕十三山、由路出閣遠遙本  
 未究知石山出方野中數十峰巒峭峻亦拉石色之灰  
 古以出石居止宿石正蒼後趨步傑奇為之引以十里  
 西評是園柱出之移崗方三丈以所廟塔在於車營下  
 十四日晴未白者川過三臺子大漢河及說到中門碑記  
 上有中木在碑記善磨年間勒封王岳先以羅帶事也  
 離刺備註松巧地中中第少及碑在東邊程餘方大漢

爲報虜警 五里置一烟臺 而以甃和灰以築 高五六丈  
 甃子今盡古人所掘者 間或有完存者 當時排舖設置  
 深有諒慮 片時之間 可報遼野千里外聲 忽然國儲耗  
 竭 未必不由於此役 終致民窮國亡 而百年之內 盡成  
 丘墟 可勝痛哉 烟臺之中 皆有店舍村落 故以二臺三  
 臺等 名之以別焉 夕時抵十三山 山卽醫巫閭餘麓也 平坂逶迤南  
 來 突起石山於大野中 數十峯巒 峭峻奇怪 石色亦蒼  
 古 以此名焉 止宿於正黃旗趙士傑家 是日 行八十里  
 衙譯吳國柱 各送楮閱於三使 以紙扇給其持來家丁

十四日 晴 未明 發行 過三臺子 大凌河  
 朝飯於大凌

河沿到四同碑路上有四大石碑雕刻極巧巧巧  
 啓年物間封提督王宗先未事也地之口名以此故也  
 到双沿沿又有一大碑刻以資政大夫遼公三德神尼  
 碑以唐熙寧年而三之之之之之之之之之之之  
 異也此乃尼多豐碑之所於並看又過小清河沿小凌  
 河橋到松山堡累進未飲和老松杏山堡三丈止宿於  
 清人蓋得清志之乃以十里

過双沿沿一第地右有雜錦水水沿沿沿沿沿沿  
 云到松山堡寺望海色接天島嶼出沒云烟嫩茫不

貝匪院考

十五日朝信午時奉命帶川、十里過十里堡唐到其橋  
 堡日大白着到塔山唐早作北沿有方山、可午却人仍

雄特

河站 到四同碑 路上有四大石碑 雕刻螭頭極巧 卽萬曆年勅間 封提督王宗先等事也 地之得名 以此故也 到双沿站 又有一大碑 刻以資政大夫遲公三讓神道碑 卽康熙年間所立 而其近處無墳塋 神道之稱 殊可異也 此外道多豐碑 而不能盡看 又過小凌河站 小凌河橋 到松山堡 畧進粥飲 初昏抵杏山堡 三使止宿於清人孟得清家 是日 行九十里

過双沿站 一箭地 右有往錦將衛路 距此數十里遠 云 到松山堡 南望海色接天 島嶼出沒 雲烟微茫 不見涯際矣

十五日 朝陰午晴 未明 發行 行十里 過十里堡店 到高橋堡 日大明矣 到塔山店 早飯 北望有大山雄特 問于胡人 謂

之江澤山云過桂源河罩羅山唐古山峰五里河到雙  
 石城、皆崩頽有石基命轉列于唐門為黑金帶飲  
 川十三里到亦房寺、在後傍以亦房禪林四字揭  
 門額中設壽亭塑像內有佛殿七十里入亦遠南東門  
 轉入亦房地又有內城門之城本頽地以之門廟矣又  
 川里許到回河禪寺築塔院一墩出十字門以通四  
 由上設羅之七廣矣入東之轉出南川第地有祖考  
 牌樓兩座跨街屹立必有三口之刻樓石上樓題空  
 柱檉棟間刻挑矯并獅柱其精巧一門則內外刻四世  
 之我少傳上大字上刻玉壽二字柱內外皆刻偈句一  
 門名有許多刻字之口卷書畫貝名集記口無曰考壽  
 有後孫口否考主人則以口大壽之口方居北京口

之紅羅山云 過桂流河 罩羅山店 連山驛 五里河 到双石城 城皆崩頽 只有其基 卸轎列于店門前 畧進粥飲 行十三里 到永寧寺 寺在路傍 以永寧禪林四字 揭之門額 中設壽家塑像 內奉佛軀 行七里 入寧遠衛東門 轉入數箭地 又有內城門 而城半頽圯 皆無門崩矣 又行里許 到舊時鍾閣 槩築甃 作一墩 出十字門 以通四方 上設閣而今廢矣 入東而轉出 南行箭地 有祖大壽牌樓兩座 跨街屹立 皆有三門 而刻鏤石子 作椽題窓 欂櫨棟間 刻龍螭虎獅 極其精巧 一門則內外刻四世元戎少傅六大字 上刻玉音二字 柱內外皆刻侶句 一門亦有許多刻字 而日昏未盡見 亦未記得矣 問大壽有後孫與否於主人 則以爲大壽之孫 方居北京 或爲

於五斗之寺。座家在碑橋。西口五磨。亦有。奴辰之  
其基有該牌橋之。每日。入折而西。出川

於五斗之寺。座家在碑橋。西口五磨。亦有。奴辰之

於五斗之寺。座家在碑橋。西口五磨。亦有。奴辰之

於五斗之寺。座家在碑橋。西口五磨。亦有。奴辰之

於五斗之寺。座家在碑橋。西口五磨。亦有。奴辰之

於五斗之寺。座家在碑橋。西口五磨。亦有。奴辰之

於五斗之寺。座家在碑橋。西口五磨。亦有。奴辰之

十七。古平。生教。到二。老。身。後。河。中。以。中。朝。修。分

傳。駕。現。日。出。海。雲。層。疊。狀。若。列。島。高。峯。金。波。滉。漾。深。受。其

無。窮。興。在。某。時。義。相。李。吳。矣。過。六。渡。河。六。州。河。到。中

畫見

威靈廟

將爲郎 而其舊家在牌樓之西 今盡廢 只有其奴 居在其基 看護牌樓云爾 復從鐘閣南入 折而西出 行數箭地 止宿於清人金風神家 是日 行九十里

十六日 晴 平明 發行 出西門 又轉出外西門 祖大壽先塋 在路右 圍以短墻 古木鬱然成林 門前又立石牌門 其外立華表二双 高五六丈 上刻坐獸 過青墩臺 曹庄驛 七里坡 五里橋 到沙河所 (一名 中右所) 朝飯 過烟臺河 (盛京志 作淵臺河) 望海店 曲尺河 夕抵東關驛 入南門 城半頽廢 止宿於漢人趙成忠家 是日 行七十里

十七日 晴 平明先發 到二臺子 停駕觀日出 海雲層疊 狀若列島高峯 金波滉漾 變然無窮 與在萊時 義相臺所見無異矣 過六渡河 (盛京志 作六州河) 到中

後以朝休於城外店炕古城半頽而市肆頗繁盛矣以  
 過城子皆以石為址以甃累等而此城則琢石等丈許  
 如階砌狀其上等甃若尤精壯而半為人牧去見此合  
 人嗟惜又過一臺二臺三臺沙河站葉家墳在路左  
 林木間有古三碑碣云是葉撫兵祖地後口魚河道邊  
 有廢城夕按兩水河出宿於驛歷黃陞石亭是日行六  
 十五里

十八日晴未明先發過前屯衛王家臺王臨深萬寧驛松  
 嶺濼小松嶺到中前屯朝休又過大石橋兩水湖王家  
 臺其書狀左轉路歷見所治望石染平崗上突起一石  
 墩世謂翁恬尊長城時孟姜女范郎韓未遂故望望於此  
 云圍以短牆內建殿宇中奉姜女塑像左右立侍童也

後所 朝飯於城外店炕 古城半頽 而市肆頗繁盛矣 所  
 過城子 皆以石爲址 以甃累築 而此城則琢石築丈許  
 如塔砌狀 其上築甃制 尤精壯 而半爲人毀去 見此令  
 人嗟惜 又過一臺 二臺 三臺 沙河站 葉家墳 墳在路右  
 林木間 有數三碑碣云 是葉摠兵祖地 渡口魚河 道邊  
 有廢城 夕抵兩水河 止宿於驛丞黃陞石家 是日 行六  
 十五里

十八日 晴 未明 先發 過前屯衛 王家臺 王濟溝 高寧驛 松  
 嶺溝 小松嶺 到中前所朝飯 又過大石橋 兩水湖 王家  
 庄 與書狀左轉路 歷見所謂望夫石築 平崗上突起一石  
 墩 世謂蒙恬築長城時 孟姜女夫范郎從軍未還 故登望於此  
 云 圍以短墻 內建殿宇 中奉姜女塑像 左右立侍童 而

一奉玉帶殊未念其故尙有情人所達碑記其事頗詳  
 只言姜得夫尸負而投海俄而有石菩薩浮出之事而  
 不言化石事抑後來詩人所增信若吾庭有萬曆年古  
 所立二碑一則李棟所製而字刻不可讀歟後石上  
 刻望夫石三字尙有石罅而謂之望夫時跡痕其傳會  
 之說良可笑也如望長城一帶嵯峨山上築銃山榜稍  
 夷處跨崖截壑而等間有粉雉高聳於列堞之中似若  
 烟臺於間正丈直向山海關遂促駕退到卸橋列于關  
 外畧進粥飲譯筆未言城將許令使臣先入即渡漂橋  
 入二重關門到城於石在處卸駕而行如入柵吋又入  
 二重城門上有二層樓太半崩散而上層廟以天下茅  
 一閣下層廟以邦本永固四字過稅友石居象門前到

一奉玉帶 殊未知其故 傍有清人所建碑 記其事頗詳 只言姜得夫尸 負而投海 俄而有石菩薩浮出之事 而不言化石事 抑後來詩人所增演者否 庭有萬曆年間 所立二碑 一則李棟所製 而字剝不可讀 殿後岩石上 刻望夫石三字 傍有石罅 而謂之望夫時跡痕 其傳會 之說 良可笑也 北望長城 一帶嵯峨 山上築就山勢稍 夷處 跨岸截壑而築 間有粉雉 高聳於列堞之中 似若 烟臺 然聞正使直向山海關 遂促駕追到 卸轎列于關 外 畧進粥飲 譯輩來言 城將許令 使臣先入 卽渡濠橋 入二重關門 到城將所在處 卸駕而行 如入柵時 又入 二重城門 上有二層樓 太半崩毀 而上層扁以天下第 一關 下層扁以邦本永固四字 過稅官所居衙門前 到

鍾勝者如寧遠西出右過成均館止寓於漢人蓋九里  
 家閭內人產之盛市肆之繁可與瀋陽相埒而城樓雉  
 堞街巷中舊時牌榜一任顛倒地教令人憔悴是日行  
 八十里○金進士昌業曾於癸巳隨夢寓相公赴燕與  
 閔庭郭如栢有雅要余招見致款郭有銅雀瓦硯亦要  
 余買未敢取後使譯宰邀致則如栢父子秉燭未見余  
 揖而坐因致金文意問其滿漢與否則如栢使其子書  
 亦曰明三百年人家中清甲午科舉人余問曰稼齋言  
 左右有銅雀瓦硯可規否答曰此硯為穆春元祖傳而  
 歲已携之都中未敢果售大老乃余問曰穆春元方在  
 北京否答曰又聞同鈔閱徃福建去矣至後年春方回  
 此硯墨刊已打去了未敢見答余曰墨本在末見之而

鍾樓 制如寧遠 西出右過成均館 止宿於漢人孟九里  
家 關內人屋之盛 市肆之繁 可與瀋陽相埒 而城樓雉  
堞街巷中 舊時牌樓 一任傾倒圯毀 令人慘然 是日 行  
八十里○金進士昌業 曾於癸巳 隨夢窩相公赴燕 與  
關居郭如栢有雅 要余招見致款 郭有銅雀瓦硯 亦要  
余買來 故昏後使譯輩邀致 則如栢父子 秉燭來見 余  
揖而坐 因致金丈意 問其滿漢與否 則如栢 使其子 書  
示曰 明三百年人家中 清甲午科舉人 余問曰 稼齋言  
左右有銅雀瓦硯 可觀否 答曰 此硯 爲穆春元祖傳所  
藏 已携之 都中未知 果售大老否 余問曰 穆春元 方在  
北京否 答曰 又聞 同鈔關 往福建去矣 至後年春 方回  
此硯墨刊已打去了 未知見否 余曰 墨本 卽未見之 而

穉宮送硯直要余欲沽之矣硯既不在將孤其意耶峇曰倘  
 都中不售定有來音俟明春自茲通玄余又問曰案上  
 有古書畫出售者峇曰法帖上者真淳化唐懷素自  
 叙真帖宋天馬賦真帖画則有明文徵明畫其昌唐伯  
 年飲中八仙画字蹟又有其昌如欲玩即不妨取來清  
 玩耳遂辭去使其子未示洪書画問其直少不下百餘  
 金余書問曰近來西邊採負如何小郭峇曰書生未敢  
 預聞國家大事耳染郭之父子為人皆無朴實意其所  
 峇如此可恨

十九日晴日出後叢行又從鐘樓南出過二重城門行十  
 餘里到望海亭登樓入雲俯視溟渤令人心目快壯矣  
 樓上揭望洋舒抱四大字下層揭海天一碧四字此即

稼齋送硯直 要余沽之矣 硯既不在 將孤其意耶 答曰 倘  
 都中不售定 有來音 俟明春 自然通知 余又問曰 案上  
 有古書畫 出售者否 答曰 法帖上者 眞淳化 唐懷素自  
 敘眞帖 宋天馬賦眞帖 畫則 有明文徵明 董其昌 唐伯  
 虎 飲中八仙畫 字蹟 又有其昌 如欲玩 卽不妨取來清  
 玩耳 遂辭去 使其子 來示諸書畫 問其直 少不下百餘  
 金 余書問曰 近來西邊勝負如何 小郭答曰 書生未敢  
 豫聞國家大事耳 槩郭之父子爲人 皆無朴實 意其所  
 答 如此 可恨可恨

十九日 晴 日出後 發行 又從鍾樓 南出過二重城門 行十  
 餘里 到望海亭 層樓入雲 俯臨溟渤 令人心目快壯矣  
 樓上揭望洋舒抱四大字 下層揭海天一碧四字 此卽

吳逢春筆也庭立二碑左刻一勾之多天啓六年所立  
 而越人劉永基筆右刻瀚海奇觀崇禎庚辰所立而中  
 州苑志完筆也碑文題刻甚多而仁未盡讀有康熙年  
 表所立碑記山海關事頗詳以<sub>爲</sub>關與字是徐中山王所  
 創也戚繼光踵成之其後天啓間王致中重修今其表  
 又修字云、我國傳言天下第一關五字即李斯筆若  
 誠妄傳也轉而西行穿過如三村坊始出大路歷紅花  
 店范家店大里河到大里營早飯又過王家嶺鳳凰店  
 望海店涿河堡祠子店初昏到榆關店止宿於清人韓  
 友章家是日行九十里

二十日晴雪午晴辛卯歲二月廿三日江陰見下帶山川景色  
 一望皓白殊貴嘉乘之榮家座上白石鋪吳家壑到

吳逢春筆也 庭立二碑 左刻一句之多 天啓六年所立 而越人劉永基筆 右刻瀚海奇觀 崇禎庚辰所立 而中州范志完筆也 碑文題刻甚多 而忙未盡讀 有康熙辛亥所立碑 記山海關事頗詳 以爲關與亭 是徐中山王所創 而戚繼光踵成之 其後天啓間 王致中重修 今辛亥又修亭云云 我國傳言 天下第一關五字 卽李斯筆者 誠妄傳也 轉而西行 穿過數三村坊 始出大路 歷紅花店 范家店 大里河 到大里營 早飯 又過王家嶺 鳳凰店 望海店 深河堡 綱子店 初昏到榆關店 止宿於清人韓殿章家 是日 行九十里

二十日 曉雪 午晴 平明 發行 渡江後 始見下雪山川 變色 一望皓白 殊覺意爽 過榮家庄 上下白石鋪 吳家塋 到

樓房在巨東門入穿過樓街出西丁街市人初修在小  
 縣治名甚繁感密夜方樓上守查執如回去三年河五  
 里堡茅草口早修茅棚庵早修分背信堡邊双望堡  
 城由臨新舊城整十八里堡駝橋店后河院初冬入水  
 平村止焉打伴人于士之各亦平村章京稱以着牙心  
 之居悅且餽四程果在托心而少松長德遊卻之正火  
 亦至收佃中民名不數年川北十里

二十一日晴亦平古左右山平晴夕入城付已暮黑而  
 隨逐控市街之茅又移在方北平首名四官楊鎮以  
 初尹而居西門也平也者川以南南丁出門名三堂城內  
 分市城名繁集川一畧地廣甚枕樁大木每千章羅積  
 河過學自上流流下也迤南在在後漢河以名甚枕

撫寧 茲從東門入 穿過鐘樓 出西門 街市人物 雖是小縣 治亦甚繁盛 制度大抵與寧遠衛相同矣 過羊河 五里堡 芦峯口 茶棚庵 早飯於背陰堡 過双望堡 城內踰部落嶺 歷十八里堡 驢槽店 僑課堡 初昏入永平府 止宿於漢人于士元家 永平府 章京 稱以眷弟書 送名帖且餽四種果子 托以不可私受 餽遣卻之 正使請令收納 聞此亦不受 是日 行九十里

二十一日 晴 永平者左右北平 昨夕入城時已暮黑 不能覽 遂抵市街 而第見路右 大書北平首邑四字揭額者 府尹所居衙門也 平明 發行 從南門 出門 是三重城 內外市肆 亦繁盛 行一箭地 渡青龍橋 大木數千章 羅積河邊 槩自上流 流下者也 過南丘庄 渡灣河者 與青龍

橋中勿係在也悲位於上中許里地木位傲度口  
 此考夫宜而云之三丈无約以爲表歷兌城不五卦法  
 過危宜宜法夫老安河處到野雞老早作過河河堡  
 時多步河橋入西城門出宿於處改云，引以十里  
 二十二日晚雷大霧午晴未日若引過三石廟馬鋪茶七  
 前嶺新店鋪于河亭社碑在扛牛橋喜梳寺橋早修  
 橋子店有城門過法橋坎小冷河板橋到豐潤縣  
 東門入棧橋市肆之喜里山棧旁云，日百里  
 二十三日大霧午晴平日若引過熱營莊莊旁庄喚白橋  
 喜營庄到喜營堡水田如石頃喜行堡之石名以也  
 雞堡茶棚庵早修於河邊西水橋西營庄十五里  
 老京八里堡到狀地庵云，狀入貝井致不列光四回

橋 水多流者也 忠信橋 上流十餘里地林木依微處曰  
 此是夷齊廟云 而三使旣約 以明春曆見 故不能赴往  
 過范家庄 望夫臺 安河店 到野鷄屯早飯 過沙河堡 哺  
 時到沙河驛 入西城門 止宿於察院 是日 行六十里

二十二日 曉雪大霧 午晴 未明 發行 過三官廟 馬鋪臺 七  
 家嶺 新店鋪 于河草 新坪庄 扛牛橋 青龍寺橋 早飯於  
 榛子店 店有城門 過鎮城坎 小泠河板橋 到豐潤 茲從  
 東門 入宿察院 民居市肆之盛 略如撫寧 是日 行百里

二十三日 大霧 午晴 平明 發行 過趨家庄 蔣家庄 喚沙橋  
 盧家庄 到高麗堡 水田數百頃 連阡堡之 得名以此 軟  
 鷄堡 茶棚庵 早飯於沙流河 過兩水榆 兩家店 十五里  
 屯 東八里堡 到龍池庵 與書狀入見佛殿 所列器皿 窓

楊雄刻石奇而視夕時入玉田縣東居平野九峯山堂  
閔無窮寤彼去之リ七十有五

二十四日晴午後リ出西門之西八里堡五至老松亭  
橋南望大野村在松池林木蒼鬱之烟霧迷蒙此溪  
海收騰浪湧此西臨蘭門烟樹也到大小松村在嶺上  
有樹分似松之內有雁坡在之石名以史忠位言內也  
年李台子宿三人折見之枝之即楓木之早作松嶺山  
唐逸螺山在到驚山在並管坊市人物雜貨充道路  
不共行三二里在王玩橋小橋坊液漁何橋之不到蘭  
水巨南門入門之三重城堞堅完水清仍快以古漁仍  
郡也直抵獨柴寺有西居大殿中奉一軀金佛高十  
餘丈仰視之面似不甚大及由西重材登上層五日

榻雕刻 亦奇可觀 夕時 入玉田縣東門 民居市肆 尤盛於豐  
潤矣 宿察院 是日 行七十五里

二十四日 晴 平明 發行 出西門 過西八里堡 五里屯 彩亭  
橋 南望 大野村落相連 林木蔥鬱 而烟靄迷茫 狀若滄  
海潑騰浪湧 此所謂薊門烟樹也 到大小枯樹店 嶺上  
有樹 外似枯而內有液 故店之得名以此 忠信言內 昨  
年 李台子賓 送人折見其枝則即槐木云 早飯於蜂山  
店 過螺山店 到鰲山店 適當場市 人物雜貨充滿道路  
不能行 過二里店 王現橋 小橋坊 渡漁陽橋 下流 到薊  
州 從南門 入門 是三重城 堞堅完如瀋陽 此即古漁陽  
郡也 直抵獨樂寺 寺有兩層大殿 中奉一軀金佛 高十  
餘丈 仰視其面 似不甚大 及由兩重梯 登上層閣

佛頭位楊軒中虛文鼻上肩与好旁耳旁一丈倚設一  
 榻上甫大佛曲肱之卧藉以錦褥疾段被憑枕俯瞰城  
 内屋宇柳比極望言出寺以亦川止宿於般云庵  
 僧介繁長頗沉静曰盤山語格示名詳有律以侯未聘  
 長血未訪之容息對佛之語不拘自多其地皇白  
 出三邑放密之方崇位云白日日日日日見盤山  
 君如我坐導之吾曰容易升又問曰盤山非此義理曰  
 一日之內不可多說則在中鼎燒交之始示吾答曰盤  
 山之樂一曰乃畢又曰曰月盤山去却怕吾名義里若  
 曰十里又曰曰朝舞元厨好吾答曰清如時信有甚好  
 文又曰曰君以看對汝物吾答曰隨時又曰曰

佛頭 從樓軒中虛處 聳上肩與軒齊耳 幾一丈 傍設一  
榻上 有大佛曲肱而臥 藉以錦褥 覆以段被 憑楹俯瞰 城  
內屋宇柳比 極繁盛矣 出寺復東行 止宿於般若庵 庵  
僧介繁者 頗沈靜 問盤山路 指示亦詳 有漢人 俟來聘  
者 忽來訪 而容貌魁偉 言語不拘 自言其先以武仕 皇明  
爲三品職 渠則方業儒云 問欲見盤山  
郡 爲我先導之 答曰 容易耳 又問曰 盤山距此幾里 而  
一日之內不可盡玩 則其中最勝處 可指示否 答曰 三十里 又曰盤  
山之景 一日可畢 又問曰自盤山 去那均店 亦幾里 答  
曰十里 又問曰 朝鮮衣冠好否 答曰清朝時候 有甚好  
處 又問曰君所着冠服好否 答曰 隨時 又問曰

二十五日晴平明苦雨後獨步身後出西門、右三重到  
 五里橋見沙河楊步如塑像河係崖全以佛胎之戴冕  
 執圭法窟上有廟宇頗宏麓中塑女社山唐玄宗像云  
 社山起於唐及唐在於漁仍則楊妃之塑像亦比碑云者  
 豕之玄宗之社山曰廟尤可勝訝也過正音庵可登  
 山極極有一人移不移右一山遠望之西塔寺位極  
 員於林麓可去大詭似不遠二十餘里早作亦於柏庵  
 歷白間庵到香火庵前後四殿可謂寺佛像左右又有

二十五日 晴 平明 發行 繞獨樂寺後 出西門 門亦三重 到  
五里橋 見所謂楊貴妃塑像 渾體塗金如佛軀而戴冕  
執圭 後嶺上 有廟宇 頗宏麗 中塑安祿山 唐玄宗像云  
祿山起兵反唐 在於漁陽 則楊妃之塑像於此 殊無意  
義 而玄宗之與祿山同廟 又可駭訝也 過正家庄 問盤  
山路程 則有一人指示路 右一山遠望之塔寺院隱  
見於林麓間 去大路 似不滿二十餘里 早飯於那均店  
歷白澗店 到香火庵 前後四殿閣 皆奉佛像 左右又有

都之或草閣王或草三清茅二或為有白松二株柯葉  
 一如松木之稍枯跡卡木則白皮堅潔可量名是尋視  
 併取中必無孫穉燈裡竹心梯沙燈廊庭多設梓楊及  
 栴斑竹步楊芽一或梅下庭中設法皇而生床榻之名  
 極精巧也法皇為月表氏之梅上榻香冠取三字全  
 類乃多磨去子也法皇廟長有法雕刻扶舍金碧丹膜  
 眩人眼目有女尼寺六梁身坐庵之西有法皇未寤川  
 宮之西又有法皇由公紫唐後法皇陵西嶺石碑唐碑  
 法河夕抵三河兩由東入門名三重山需由法入陶  
 必成宮寺川七十五

二十六日晴半日微雨川出西門、是而重南門外唐鋪極  
 曲盤其之山卷林庄白浮蓋社唐皇視唐早修社唐

廊 而或奉關王 或奉三清 第二殿 前有白松二株 柯葉  
 一如松木 而稍扶疎 本木則白皮 堅潔可愛 亦是異觀  
 佛殿中 皆懸琉璃燈 斑竹作梯 紗燈廊廡 多設樺榴交  
 椅 斑竹坐榻 第一殿樓下府中 設清皇所坐床榻 而亦  
 極精巧 清皇 前月來此云 樓上揭香花閣三字金  
 額 乃萬曆壬子所扁者 其餘 雕刻龍鳳 金碧丹雘  
 眩人眼目 有女尼五六輩 守直 庵之西 有清皇來宿行  
 宮其西 又有倉舍曰 公樂店 後路 過段家嶺石碑店 滹  
 沱河 夕抵三河縣 由東門入 門亦三重 止宿於清人陶  
 必成家 是日 行七十里

二十六日 晴 平明 發行 出西門 門是兩重 而南門外店鋪 極  
 爲繁盛云 過棗林庄 白浮圖新店 皇視店 早飯於夏店

到柳河屯忽有兵三始如也到涇寧帝之侄子王亦來  
 其一避途遂駐輜過則有少年如元氣象柔驥多群  
 區長並專如~~此~~莫知在何處為王之茅黃鞭初去為  
 後始巨或負黃袱或佩弓矢或頭懸以在羽或之宦守  
 乘百餘騎不乘車子後隨之有危水輜宿網朱穀極年  
 徇矣迨烟郊舖三家在鄧家莊始家莊習家莊到白河  
 沿河上下舸艇彌滿不知在為之或有棹或有危水小  
 長之因河凍夜法河過冰渡河。過船廠如也穿過市  
 肆川至後入東丁、是西至又十里許入城丁過橋寫在  
 右番鋪花鋪法香撲鼻五彩眩目之地貨室充積如山  
 濤陽城仍在下真天下大都也止宿於旅人楊棋  
 檉家之口川七十里

有為任亦如知水王之騎長連長方直城  
 中記入之字時三群仍亦難未見水之常記

到柳河屯 忽有數三騎胡馳到 謂皇帝之侄子王方來  
使之避途 遂駐橋路邊 則有少年胡衣貂裘乘騾與群  
從者 並轡馳過 莫知其何者 爲王之弟 黃鞵稍別矣 前  
後騎從 或負黃袱 或佩弓矢 或頭懸孔雀羽 或是宦寺  
幾百餘騎 所乘車子後隨 而有屋如轎 露綱朱轂 極華  
侈矣 過煙郊舖 三家庄 鄧家庄 胡家庄 習家庄 到白河  
沿河上下 舸艦彌滿 不知其數 而或有樓 或有屋 其小  
者 則因河凍 發諸河邊 冰渡河 河邊缸廠相連 穿過市  
肆 行里餘 入東門 門是兩重 又行里許 入城門 過鐘閣 左  
右香鋪花鋪 清香撲鼻 五彩眩目其他貨寶 充積如山  
瀋陽風斯在下 眞天下大都會也 止宿於譯人楊麒  
麟家 是日 行七十里



二十七日 朝陰 午晴 平明 發行 適出中成門 轉而西行里許 出西門 門是兩重 又行數箭地 出外城門到八里橋 橋廣五六間 長幾二十餘間矣 過楊家閘 管家庄 三間房 早飯於大王庄 又過太平庄 紅門十里堡 八里堡 到東岳廟外 自通州 至此四十餘里之間 左右店鋪寺觀 相連間有豪富家墓地 而雕牆朱門 虹橋 極其宏麗 內則松衫白樹 成行森立 飛閣屹然幽肅 若塚墓則雖或有圍以屏風石處 不過取土沙以成矣 易服冠帶於龍王寺 行里餘 入朝陽門 門是兩重兩門 皆有三層樓 又行二三里 到十字街 南北立高大牌樓 金扁上書 大街市三字 折而南行 又三四里 到合達門 轉而西行里餘 入玉河館 沿路市肆人物之盛 不可盡言 館中糞穢滿庭 窗戶破裂 炕皆頽毀 塗紙補葺



始爲入處 是日 行四十餘里

二十八日 晴風 平明 出館門 西行一馬場 轉而北行 到禮  
 部門外 下馬 入中門 少憩於南廊 俄而左侍郎出來 有  
 前導聲 進詣 大廳前廳上 揭清明正直四大字 廳前 設  
 卓 侍郎者 立其左正使跪于卓西 傳表咨文櫃 余亦  
 隨跪 傳畢 侍郎者 還入內 三使少坐舊處 俟其畢見 表  
 咨 還出 騎馬又北行 轉而東向行 越大街路 到鴻臚寺  
 門前下馬 入中門 少坐 因寺官未入來 通官輩許令就  
 溫炕 少休故暫入處 大廳之南廊 俄而寺官來到 亦有  
 呼唱聲 三使還出中門 東向立 其北有大門 門內有屋  
 如一架亭者 不知其大小 而屋頂高聳 槃象御坐者也  
 侍郎者出來 立于大門 前有人臚唱 三使北向 行三拜

九叩禮之詳深立後有跪如履空只一節待卻如  
字直有坐更習一次余台深深年下而後進少進東向  
跪以小白巾之扣三抄歌多之換扼而形之習以畢  
意館不

二十九日晴時皇帝之乘儀正父少抄中自出矣余台  
書以出館於西向設席以三扣以扣頭禮以証乘儀  
以生羊生鵝及一卓果由果亦物也夕時城中竟極紙

庚子正月

統拜震天地遠在不已有圍城中竟極紙

初一日晴四更出館乃由階臆者為儀北向以馬坊許  
路之西小東牽乃於馬步以儀以供入道一第地  
有之其有方在橋、南有擊方柱一雙橋南有西石獅之雕琢  
柱間流橋南天安刀、由又有擊方柱一雙以馬百步

九叩頭禮 而譯輩在後 有跪起參差 失儀之節 侍郎者  
呼通 官令更習一次 余令譯輩 牽之不得 遂少退 東向  
旋即北向 行一拜三扣頭 其爲攪攙 不可形言 習儀畢  
還館所

二十九日 晴 哺時 皇帝送歲饌 正使以病 不得出受 余與  
書狀出館 前庭西北向 設席行三拜九扣頭禮 所謂歲饌  
卽生羊生鵝 及一卓果實油果等物也 夕時城中 竟放紙  
銃聲震天地 達夜不已 有國城對敵戲

庚子 正月

初一日 晴 四更 出館門 由鴻臚寺前路 北向行數馬場許  
轉而西行 到東華門外 下馬步行 從北俠入 過一箭地  
轉而北行 有大石橋 橋南有擎天柱一雙 橋南北有四石獅 而彫琢  
極巧 渡橋 有天安門 門內 又有擎天柱一雙 行數百步

又有浩門之西門外有西角樓五角門正西角門入川  
 而徑步設席於西廊外以去東方作白帳正皇帝於出  
 清涼殿及殿左右出古出西庭三丈長帳正下  
 戲之掛馬長每十双出皇帝乘黃帳正輜夫衣織花  
 紅錦衣長不過八九人橋下甲方亞灼統浩門正門左  
 右有人執灼統以立之已在後掛馬長每十絡清道  
 出合頃亦紅錦衣長帽挿黃柴羽各持仗鼓吹正東  
 西序立極整多之旌旆以用綢批織金蓋則五色正立  
 鳳初鶴初在紫園之正園不同言及皇帝於庭左右攝  
 鼓次角有節拍皇帝到三丈以坐正手開轉西以坐  
 英帳立於傍在揚台乍塞強以意垂通古常得得取口  
 皇帝正見莊鮮失臣之相正禮終云五鳳門上有西角

又有端門 而兩門 皆有兩層樓五角門 從西末角門 入行  
百餘步 設席於西廊前以坐東方乍白 傳言皇帝將出  
清漢官及蒙古官 出座於西庭 三使亦絕行 而坐其下  
俄而 騎馬者 數十雙先出 皇帝乘黃帳轎 從五鳳門出 轎夫衣織花  
紅錦衣者 不過八九人 轎下四方 懸燭籠 端門正門左  
右 有人執燭籠以立而已 其後騎馬者五六十 絡纜隨  
出 食頃 衣紅錦衣者 帽插黃染羽 各持儀仗 鼓吹以入 分東  
西 序立極整齊 而旗旛皆用網龍織金 蓋則五色錯立  
鳳扇鶴扇 其制圓與我國不同矣 及皇帝將還 左右搯  
鼓吹角有節拍 皇帝到三使所座處 手開轎窓 所垂少  
黃帳 立轎倚者接 而乍褰旋即 還垂 通官輩謂譯官曰  
皇帝褰帷 見朝鮮使臣 可想其禮待云 五鳳門上 有兩層

高橋揚以午門下有三门左右内仍又有高臺在下  
 軍有門刻序左掖門字三丈從右掖門入轉以北出左  
 右門<sup>有中夾</sup>三門列五五門<sup>有今</sup>一橋<sup>有</sup>以是也午門  
 之內<sup>有右廊</sup>廊有大門<sup>有</sup>橋石材<sup>有</sup>欄<sup>有</sup>度<sup>有</sup>出入之西廊  
 即之物持<sup>有</sup>一<sup>有</sup>西之太和之西有員度門<sup>有</sup>徑<sup>有</sup>出<sup>有</sup>入<sup>有</sup>  
 數<sup>有</sup>其<sup>有</sup>入<sup>有</sup>夜<sup>有</sup>常<sup>有</sup>及<sup>有</sup>唐<sup>有</sup>十二<sup>有</sup>樓<sup>有</sup>在<sup>有</sup>長<sup>有</sup>少<sup>有</sup>知<sup>有</sup>廟<sup>有</sup>以<sup>有</sup>右<sup>有</sup>和<sup>有</sup>即<sup>有</sup>  
 的<sup>有</sup>皇<sup>有</sup>橋<sup>有</sup>數<sup>有</sup>也<sup>有</sup>數<sup>有</sup>陛<sup>有</sup>三<sup>有</sup>層<sup>有</sup>以<sup>有</sup>設<sup>有</sup>石<sup>有</sup>欄<sup>有</sup>望<sup>有</sup>也<sup>有</sup>觀<sup>有</sup>於<sup>有</sup>午<sup>有</sup>門<sup>有</sup>外<sup>有</sup>  
 後<sup>有</sup>以<sup>有</sup>仗<sup>有</sup>已<sup>有</sup>入<sup>有</sup>羅<sup>有</sup>列<sup>有</sup>少<sup>有</sup>以<sup>有</sup>鼓<sup>有</sup>吹<sup>有</sup>也<sup>有</sup>皇<sup>有</sup>帝<sup>有</sup>出<sup>有</sup>步<sup>有</sup>數<sup>有</sup>也<sup>有</sup>淨<sup>有</sup>鞞<sup>有</sup>三  
 舞<sup>有</sup>記<sup>有</sup>清<sup>有</sup>詩<sup>有</sup>為<sup>有</sup>在<sup>有</sup>該<sup>有</sup>有<sup>有</sup>趨<sup>有</sup>入<sup>有</sup>數<sup>有</sup>也<sup>有</sup>皇<sup>有</sup>牌<sup>有</sup>之<sup>有</sup>流<sup>有</sup>石<sup>有</sup>河<sup>有</sup>皇<sup>有</sup>牌<sup>有</sup>  
 燔<sup>有</sup>麗<sup>有</sup>以<sup>有</sup>山<sup>有</sup>形<sup>有</sup>步<sup>有</sup>也<sup>有</sup>數<sup>有</sup>上<sup>有</sup>臚<sup>有</sup>昌<sup>有</sup>法<sup>有</sup>右<sup>有</sup>川<sup>有</sup>三<sup>有</sup>為<sup>有</sup>九<sup>有</sup>扣<sup>有</sup>一<sup>有</sup>禮<sup>有</sup>退  
 記<sup>有</sup>三<sup>有</sup>丈<sup>有</sup>進<sup>有</sup>入<sup>有</sup>立<sup>有</sup>方<sup>有</sup>自<sup>有</sup>奪<sup>有</sup>茅<sup>有</sup>六<sup>有</sup>以<sup>有</sup>皇<sup>有</sup>牌<sup>有</sup>下<sup>有</sup>數<sup>有</sup>上<sup>有</sup>也<sup>有</sup>臚<sup>有</sup>呼<sup>有</sup>直  
 全<sup>有</sup>官<sup>有</sup>三<sup>有</sup>奇<sup>有</sup>在<sup>有</sup>傳<sup>有</sup>云<sup>有</sup>流<sup>有</sup>抄<sup>有</sup>頭<sup>有</sup>地<sup>有</sup>川<sup>有</sup>禮<sup>有</sup>記<sup>有</sup>退<sup>有</sup>立<sup>有</sup>也<sup>有</sup>仗<sup>有</sup>分<sup>有</sup>淨<sup>有</sup>鞞

高樓 揭以午門 下有三門 左右兩行 又有高閣 其下相對有門 刻左右掖門字 三使從右掖門入 折以北出 左右門與中央三門 列爲五門 五鳳之稱 槩以是也 午門之內 有太和門 左右廊又有大門 層樓石梯石欄 旁通出入 而西廊卽方物捧置之所云 太和之西 有員度門 從此而入 有殿高入雲霄 其廡十二楹 其長不可知 扁以太和 卽所謂皇極殿也 殿階三層 皆設石欄 望之邈然 午門外 所設儀仗 已入庭羅列 少頃鼓吹作 皇帝出坐殿上 淨鞭三聲 訖 清漢蒙古諸官 趨入於儀仗之內 各隨品牌而跪 所謂品牌者 燔髀如山形者也 殿上臚唱 諸官行三拜九扣之禮 退 訖 三使繼入 立於自南第亦行品牌下 殿上亦臚呼 通官金三奇在傍 言跪扣頭起 行禮訖 退立於仗外 淨鞭

又三拜皇帝入内侍殿出之內庭肅穆皆總之喧嘩拜三  
 次後以房殿右掖門出也外有黃屋分列之沙駕西轎  
 車皇帝居宮一後有五象自外之入之金鞍上載狀五  
 龍登長卷以多秋金羈絡頭垂後有拍按之頭去至乞  
 又有四卷入未駕黃卷以出●卷一寫二丈餘之狀梯  
 滑之有占物耳如乳性魚狀之或韜以青布昭如甚少  
 兩牙垂出天線之或有之牙如巢垂至地之時或卷斂  
 有作之毛之青黑色又出沿門東西有之●門外即宗廟  
 社稷云●松柏志之出於曉入時未之見也及後復曰  
 ●初出車舞了意銀而

初二日晴  
 初三日晴

又三聲 皇帝入內 諸官罷出 而滿庭肅然 終無喧嘩聲 三使復從員度右掖門出 其外有黃屋分列 而皆駕兩輪車 皇帝還宮之後 有五象 自外而入 而金鞍上載狀若兜鍪者 復以黃袱金羈 絡頭垂 後有胡騎其頸矣 至是又有四象入來 駕黃屋以出 象之高二丈餘 足如虎蹄 而有亦指耳如乾洪魚狀 而或鞞以青布 眼孔甚少 兩牙垂出尺餘 而或有其牙者 鼻垂至地 而時或卷舒其體其毛而青黑色 又出設門 東西有門 門外即宗廟社稷云 而松柏森立 此於曉入時 未之見者也 復從因路 出東華門 還館所

初二日 晴

初三日 晴

舟中

初四日晴白松樹花甚開

初五日晴江陰松甚奇紅魚

初六日晴雪

初七日晴元猿戲

初八日晴

初九日晴友介

有書者范忠文公集在石上亦佳范忠文公字類公号  
 埋山順治辛辰望雲士于叔兵部右侍郎但替初至  
 手務及吳三桂反公欲往忠不拘因在此縣七百餘日  
 尉乃尉之弟母時不每逢經於輒言可憂歷一母北白  
 拜疏問世治文云度松乃燒梓在炭盡壁上而居遂道  
 寫精忠禁尸亭下山野奉安人許鼎長夜引雞石宿壽

初四日 晴 得盆植 桃樹花 盛開

初五日 晴 得琉璃壺 養紅魚

初六日 曉雪

初七日 晴 見猿戲

初八日 晴

初九日 晴 大風

有來新范忠貞公集者 見其本傳 范名承謨 字覲公 號  
螺山 瀋陽人 順治壬辰 登進士 壬子拜兵部右侍郎 總督福建  
軍務 及吳三桂反 爲耿精忠所拘囚 在幽繫七百餘日  
冠賜冠 衣謝母時衣 每逢朔望 輒奉時憲曆一冊 北向  
拜跪 間作詩文 其毫枯乃燒桴 存炭畫壁上 丙辰遂遇  
害精忠 焚尸棄之山野 泰寧人許鼎者 夜行亂石宿莽

中頁白煙巖莊為各以年頁臨逢年所應照奉造古技  
 當觀衆碑文之筆者漢書志以事殊方古且多各諸  
 東幸大國誠善之後下述人之慈釋身日因名不之  
 愛我之義崇身之心運一記時外多理調之及取取祀  
 比以信修考

初十日晴澤在吉善社石坊要峯峰馬步苑

十一日雪在大堂創馬一匹折苑

十三日信

十四日信淑香

十五日信

十六日信西香

十七日信大介松平

中 覓得爐骸 藏於家 明年負骸 進京師 康熙帝遣官致  
 祭 親製碑文云 槩承謨 盡忠所事 殊可尙 且見其請 紓  
 東南大困疏 盛言旗下逃人之禁 亦不無  
 愛民之意 第身當明運之訖 昧於義理 誠無足取 聊記  
 此以俟後考

初十日 晴 譯官李英郁所騎 栗峯驛馬 病斃

十一日 雪 夜大雪 刷馬一匹 病斃

十三日 陰

十四日 陰 微雪

十五日 雪

十六日 陰 洒雪

十七日 晴 大風極辛

十八日晴 舟至西丁自今の如開即云

十九日晴

二十日 船後八辛

二十一日 晴辛

二十二日 晴辛

二十三日 晴大風辛

二十四日 晴表澄文小由風辛

二十五日 晴 晝此因時評辛文抄信り船極未併航

二十六日 晴

二十七日 晴

二十八日 晴

二十九日 船後辛晴



十八日 晴 各衙門 自今日 始開印云

十九日 晴

二十日 朝陰 風辛

二十一日 晴辛

二十二日 晴辛

二十三日 晴 大風辛

二十四日 晴 表咨文 下內閣云云

二十五日 晴

二十六日 晴

二十七日 晴

二十八日 晴

二十九日 朝陰 午晴

二月天

三十日 陰

初一日 陰

初二日 夕 陰 皇帝性海子 佃獵云

初三日 夜 燔午 陰

初四日 陰

初五日 陰 辛

初六日 陰 如 四方物 辛 節

初七日 陰

初八日 陰 初 亥 和

初九日 陰

初十日 陰 海官在奎 亦昌 裕 高 時 餘 之 年 友 宜 為 樂 和

三十日 陰

二月 大

初一日 陰晴

初二日 夕陰 皇帝往海子 佃獵云

初三日 夜雪 午晴

初四日 晴

初五日 晴辛

初六日 晴 始納方物歲幣

初七日 晴

初八日 晴 觀幻術

初九日 晴

初十日 晴 譯官 崔奎 朴昌裕 高時彥 余之軍官 崔尙嶼等

令力出報佐序被罕口二誌本以來一鄒山東巡撫  
 李樹德陰奏江洋賊仍犯濠州竊掠兵戈號呼不絕率  
 竊居於九月內奉旨賊首鄒進心亦在洋江祀擒獲白  
 地着以文浩海多有頑多仿後亦得到臣臣即行文各  
 屬并提議多西門頑多偽後亦不意於十月初九日  
 接登以鎮標中營遊擊王忠執稱初二日晚刻颶令大  
 作賊首黃冠弗又有不知姓名者其人帶眾多似乘今  
 黑夜進港至黃村內地明火放炮墜三強毒上馮東平  
 王黃名賊揚云我們起為無狀大孽而來命亦何不早  
 投降賊勢凶勇異常登如提議臣李麟急仍板後序  
 為千兵丁少仍找敵思賊沒意殺戮兵戈虜劫銀米等  
 物共一十八村至登危攻城帝印圍到天明始行退出

合力出銀 給序班輩 得二題本以來 其一卽 山東巡撫  
李樹德謹奏 爲洋賊 侵犯登邑 教掠兵民 號呼不堪事  
竊臣 於九月內 奉旨 賊首鄭進心等 在洋 作亂搔擾內  
地 着行文沿海各省 預各防護等語 到臣 臣卽行文各  
屬并提鎮 各衙門 預爲防護外 不意 於十二月初九日  
據登州鎮 標中營 遊擊王忠服稱 初六日晚刻 颶風大  
作 賊首黃飛虎 又有不知姓名者 數人 帶衆萬餘 乘風  
黑夜進港 至黃村內地 明火放砲 豎立旗纛 上寫東平  
王 黃衆賊揚言 我們起義兵 報大讐而來 爾等 何不早  
早投降 賊勢洶湧異常 登州摠鎮 臣李麟急行救護 奈  
數千兵丁 如何 拭敵 惡賊恣意 教戮兵民 虜劫銀米等  
物 共一十八村至 登邑攻城索印圍 到天明 始行退去

次日卸差水師前營監擊陳孟帶兵二百名往水師探  
 賊行止拿獲捕魚船一隻人四名係賊首等未細任據  
 由官多動靜鄧小鬼陸河先張麻子張三賴綁押送到  
 臣等門臣即四行夾訊據鄧小鬼亦供稱小的們是某  
 水師膠州人向王曰水師營在鄆二鄆在又王蓬萊縣  
 人王七李大李三俱在公洋捕魚為業現有布水師縣  
 印票為據至今年三月初三日被遣賊首黃天保綽號  
 黃飛帶把我們九人擄去水手他說你等不允我就  
 殺了少的們命生只得順從又曰你四人為何獨念悔  
 洋法未莫飛打揮事情麼據他賊首見小的們四人熟  
 諳水性曉得登船該境故與我們未打揮是實回去意  
 要封我們為千總不意有吾拿獲又問賊首黃天保是

次日卽差水師 前營遊擊陳孟 帶兵二百名 往外洋探賊行止 拿獲捕魚缸一隻 人四名 係賊首差來 細作探聽官兵動靜 鄧小鬼 陸阿免 張麻子 張三鎮 綁押送到臣衙門 臣卽嚴行 夾訊據鄧小鬼等 供稱小的們 是萊州府 膠州人 向與同州 鄺家庄 鄺二 鄺五 又與蓬萊縣人 王七 李大 李三 俱在外洋 捕魚爲業 現有本州本縣印票爲據 至今年三月初三日 禍遭賊首黃天保 綽號黃飛虎 把我們九人 擄去州水平 他說爾答不允 我就教耳 小的們貪生 只得順從 又問爾四人 爲何獨在海洋往來 莫非打探事情麼 據做賊首 見小的們四人 熟諳水性 曉得登州路境 故差我們來打探 是寔回去還要封我們爲千總 不意官兵拿獲 又問賊首黃天保 是

何重人賊森現今立那裏在巢穴呢又作賊有黃天保  
 是者官府日血縣人又從是恭信縣人小的們不知的  
 憲陳如信是陳如恭的又才揚巴巴是補建福清縣人  
 每日多坐大座船一隻帶船百隻在大洋中遇有  
 商即劫奪前日亦以要性舍好去的因金水順次已  
 以到陰好的現今各賊在吾稅船劫掠小的們回去  
 又要攻打者好官府殺去了小的們是貪官並尤洋賊一  
 毫之微以世是憲臣訊曰海賊鄧小鬼駭名遠舟  
 即飛檄文陰副於黃元儀會令總撫李麟點海探船一  
 百隻每隻登者二府外洋巡邏守備獲船及海賊作  
 仍勒威之文臣愚不敢擅便治台摺奏中有一十八村遇  
 劫百姓臣委賢吏招撫以獲小賊鄧小鬼共四人或

何處人 賊衆現今在郝裏 你巢穴呢 又供賊首黃天保是青州府 日照縣人 又說 是蒙陰縣人 小的們 不知的寔陳常信 是陳常義的兄弟 楊巴巴 是福建福清縣人 每日各坐 大座船一隻 帶鳥缸百餘隻 在大洋中 遇客商 卽行劫奪 前日本欲要往金州去的 因風水順便 所以到登州的 現今衆賊 在五花島安花 待小的們回去 又要攻打 青州府城 去了 小的們是貧民 並非洋賊 一毫者 謊所供是 寔臣訊問後 將海賊鄧小鬼 發兵謹守 卽飛檄文 登副將黃元鑲 會仝 總鎮李麟點 漁採船一百隻 每在登青二府 外洋巡邏 謹守防護 外其海賊 作何勦滅之處 臣愚不敢擅便 謹皇摺奏聞 其一十八村遇難 百姓臣委賢員 招撫外 所獲小賊鄧小鬼等四人 或

送部候告成就地方决之否亦情存白裁奪陸軍奏中  
 原題五十八年十二月云云云元本第一帖上面書以  
 二十三日奉告以來海賊犯元異常殊可痛恨看李村  
 漁會司江南鎮如海軍何天控酌量進勅務獲賊首黃  
 天伴由云云賊鄧小鬼由四人解部審問給乞議得書  
 招奏二字上亦朱印之刻以正元其一鄧撫遠大將軍  
 王臣流禎陸奏五兵鈞西安大連措估以救危安事該  
 臣亦看得小醜漸旺竊拉善洲自去年包楞兵敗以來  
 心膽志溢每戮我兵丁屬盜我營駝馬棍鞭殊甚互  
 不相無征勦茲後甚日熾臣等查現在市營兵丁止二  
 萬餘名仍堪濟事臣等廬松潘打勇爐二營各措兵一  
 萬名至十月初五日到涼應調又協廣送到兵丁二萬

送部候旨 或就地 處決之處 亦請庶得 裁集謹具奏聞  
康熙五十八年十二月云云 而元本第一帖 上面書以  
二十三日 奉旨 近來海賊作亂異常 殊可痛恨 着李樹  
德會同江南鎮 將海軍 何天培酌量 進勦務 獲賊首黃  
天保等 其小賊鄧小鬼等四人 解部審問 餘依議云 傍書  
摺奏二字上 每朱印而刻 以應允 其一卽撫遠大將軍  
王 臣胤禎謹奏 爲兵餉兩空 火速撥給 以救危變事 該  
臣等 看得小醜 浙旺 喀拉 普灘 自去年色楞 兵敗以來  
心驕志溢 每戮我們 兵丁屢盜 我營駝馬 猖獗殊甚 若  
不頓兵 征勦照 後患日熾 臣等查 現在本營兵丁 止二  
萬餘名 何堪濟事 臣飛遞 松潘打剪爐二處 各撥兵一  
萬名 至十月初五日 到涼應調 又湖廣道到兵丁二萬

名臣會同川陝提督鄂海甘苗巡撫倬奇於本月拾五  
 日遣拓武在軍富苗丹德德王蘭倫兵二萬往巴兒者  
 兒地方進剿又遣回任山東巡撫李揚總兵唐宗佐兵  
 二萬名往噶斯進剿而後夾攻妖廢雖有詐詐而此難  
 遮天討信網詎料十一月初七日據巡撫李揚呈副將  
 李之敏抄稱我們大兵未到噶斯坎毋歲、佛小劫畢  
 爾漢藏地已被喇旺喀拉魯薩侵佔去了又見我們兵  
 勢微弱截住洛尾直進而卻而土魯番之兵且賊勢強  
 悍必不形救護等語呈款臣會同於軍富苗按酌量酌  
 文就進各國普、腦兒玉交借兵二萬名厄魯特處借  
 兵二萬名連往噶斯救援小喇旺喀拉魯薩兵馬去處  
 見機繞擊以我們精卒恐有缺交亦儘就近各國採買

名 臣會同川陝摠督鄂海 甘肅巡撫綽奇 於本月拾五日 遣振武將軍富爾丹 總鎮王蘭 給兵二萬 往巴兒苦兒地方進發 又遣舊任山東巡撫李錫 總兵康寧 給兵二萬名 往噶斯進發兩路夾攻 妖魔雖有計詐百出 難逃 天討法綱 詎料 十一月初七日 據巡撫李錫 差副將李之敏報稱 我們大兵 未到噶斯 坎母藏 藏僧小胡畢爾漢藏地 已被淞旺 喀拉 普灘 侵佔去了 又見我們兵勢 微弱截住後尾 進退兩難 而土魯蕃之兵 見賊兵强悍 亦不能救護等語呈服 臣會同將軍富寧 每酌量行文 就近各國 苦苦腦兒王處 借兵二萬名 厄魯特處 借兵二萬名 速往噶斯救援 如淞旺 喀拉 普灘 兵馬去虛 見機襲擊 如我們糧草恐有缺處 亦往就近 各國採買

亦請行文并呈總兵王相商文燧持檄免慮若性又投  
 副於金大成持檄武軍富拜冊之兵性也見其見  
 地方運戰浙旺喀拉善離之兵誘至沈滂地方大兵信  
 五千餘名亦誘呈批臣即遣策冷董多布失者執檄飛  
 回布國借兵三萬名至巴見若見地方解圍添兵二萬  
 名佐多拉年富○房安準估三個月括羊前任策冷董  
 多布之國約量進取冰策冷董多布會回若、腦見王  
 尤薩克王三孩之兵會同燒擊浙旺喀拉善離首尾不  
 能相顧自拉騰我隨後大兵一擊小胡畢漢爾  
 之藏地即少安手得身現今甘肅肅三好兵馬一查括  
 的並飽又未立草騰考昂常米每石價銀四十西料豆  
 每石價銀二十西羊十觔一末每米價銀五洋臣思兵

等語 行文并至總兵 王相商文燧持檄 飛遞前往 又據副將金大成服稱 振武將軍 富爾丹之兵 往巴兒苦兒地方 遇戰浙旺 喀拉 普灘之兵 誘至泥濘地方 大兵沈陷 五千餘名等 語呈服 臣即遣策冷董多布使者 執檄飛回本國 借兵三萬名 至巴兒苦兒地方 解圍添兵二萬名 給與將軍富寧 每準備三個月糧草 前往策冷董多布之國 酌量進取 如策冷董多布會同 苦苦腦兒王 札薩克王 三路之兵 會同襲擊浙旺 喀拉 普灘 首尾不能相顧 自然膽裂 我們隨後大兵一擊 小胡畢漢爾之藏地 即可妥手得矣 現今甘涼肅三州兵馬 一空糧餉盡絕 又米豆草騰貴異常 米每石價 銀四十兩料 豆每石價 銀二十兩 草十觔一束 每束價銀五錢 臣思兵

批十萬根也百萬不壯稍解肩意陸裂血奉中我皇父  
 聖旨文武火速始不失小醜稍可殮除之我國不得侵  
 犯若陸軍奉中康熙五十八年十一月日云云卡怡首  
 怡書心十八日奉旨接遠大將軍王不請兵餉甚緊朕  
 汝日內心緒不寧看文云誠親王似以方臣亦確以連  
 奏汝及又就傳書摺于二字上抄朱印之刻以陸軍  
 如我國以攻一書書付似也又自一書而稱誠親王議  
 政大臣亦奉旨以自撫遠大將軍王不請兵餉甚緊看  
 如京城八旗滿洲佐領下派出護軍各名披甲二名又  
 派出漢仗好北結旗各一名各發往方將軍王受在為  
 修之各每報每馬估云云奉一未出以估云口糧度年  
 令戶部派官估云云各馬如程日酌選自二月初四日

非十萬 銀非百萬 不能稍解 眉至謹裂血奏聞 我皇父  
聖明文武 火速拔示 使小醜稍可殮跡 而我國不得侵  
犯矣 謹具奏聞 康熙五十八年 十一月日云云 本帖首  
帖書 以十八日奉旨 撫遠大將軍王 所請兵餉甚緊 朕  
數日內 心緒不寧 着交與誠親王議政大臣等 確議 速  
奏欽此 又就傍書摺子二字上 每朱印 而刻以應照榮  
如我國政院 院之書米付例也 又得一紙內 稱誠親王 議  
政大臣等 奉旨 議得撫遠大將軍王 所請兵餉甚緊着  
將京城八旗 滿洲佐領下 派出護軍五名 被甲二名 又  
派出漢仗好者 綠旗兵一萬名 發往大將軍王處 其前  
往之兵 每站每馬 給與空草一束 此所給與口糧 空草  
令戶部派官 給與其兵馬 起程日期選得 二月初四日

卯可起身看副將韓玄輔領馬務護軍營鎧披甲任  
 一起十六日巳時着副將陳棟領馬鎧任護軍營  
 一起每起派出馬用熟才技倭長出遊擊二員守備四  
 員千總八員領馬出伊等至西序後遙遠出負奉  
 佐馬二匹行牒二介月置備帳房禍蓋亦物令摠督趙  
 弘燠辨佐再日文至湖廣提督措兵二萬五千名河  
 提督措兵二萬五千名遣右丞陸大光率文左領銀  
 部白帶不便佐着山西巡檢蘇克傍告捐餉銀五千  
 兩西藩派銀五千兩西道賢北府道送陸大光軍王交  
 由回奏中書告出緝強盜看三由湖無一四起身去  
 的牒行文蘇克傍着遣送陸大光任職云云 ○又於奉旨  
 和碩額親王臣橫行中為皇慶上道中天率出欣逢景

卯時起身 着副將韓良輔 領烏鎗護軍 烏鎗披甲 作爲一起 十六日巳時 着刑將陳棟 領烏鎗綠旗 各作爲一起 每起派出弓馬 閑熟才技 優長者 遊擊二員 守備四員 千總八員 領兵同去伊等 至西寧 路途遙遠 各員添給馬二匹 行糧二個月 置備帳房鍋蓋等物 今摠督趙弘燮 辦給再行文至 湖廣提督撥兵二萬五千名 河奉提督撥兵二萬五千名 遣官 送往大將軍處 其餉銀戶部內幣 不便給發 着山西巡撫蘇克濟 發捐納銀五十萬 西藩庫 銀五十萬兩 遣賢能府道 送往大將軍王處等 因奏聞奉旨 此綠旗兵着 與滿洲兵 一同起身 去其餉糧行文蘇克濟 着速送往 餘依議云云○又於歲首 和碩顯親王 臣璜衍等 爲皇曆 上邁中天 率土欣逢景

運恭請特頒慶曲以光至治奉旨亦宜惟自古帝王享  
 國長久亦帝之為不並于諸帝黃軒以後而禮于載籍  
 以方修脚最久此帝在位一古有一年帝在位一  
 百有二年之吳頡頏帝在位多古古至八十九年以以上壽  
 之聖人唐永年之白運之切由魏九推堯舜禹后非  
 敵之中宗嗣位最長之治修史而載聖王哲后極符闡  
 珍卜啓綿衍之隆大業北魏虞舜之泥唐堯也上下甲  
 千經載亦未常有也故惟我皇上心為於之父母君師  
 萃萬古之祿位為壽考之保受長天神地祖禱之報祀  
 長聲譽百姓自辛丑歲起至今庚子恭值皇上登大  
 室之六十年迺自唐高祖出震於千支之旋轉初周于今  
 佈健引乾正日月之升恒方祀是皇上在躬之慶為已

運 恭請特頒慶典 以光至治事 臣等竊惟 自古帝王 享  
 國長久 五帝之前 不著于詩書 黃軒以後 可稽于載籍  
 其間臨御 最久者 黃帝在位一百有一年 帝堯在位一  
 百有二年 少昊顓頊帝嚳多者 亦至八九十年 皆以上壽  
 之聖人 膺永年之明運 而功德巍巍 尤推堯舜 厥后惟  
 殷之中宗 嗣位最長 其餘經史所載 聖王哲后 握符闡  
 珍 卜曆綿衍 坐隆大業 能軼虞舜 而紹唐堯者 上下四  
 千餘載 亦未嘗有也 欽惟我皇上 作萬邦之父母君師  
 萃萬古之祿位名壽 安而保定者 天神地祉 環而歌祝  
 者 群黎百姓 自辛丑御極 至今年庚子 恭值皇上 登大  
 寶之六十年 遡自膺圖出震恰 干支之旋 轉初周于今  
 體健行乾 正日月之升 恒方始是 皇上在躬之曆數 已

駕重華之上之皇上應運之精神而視伊祈之遠迺  
 航成育大一統之宏規寒燠雨暘咸時順而不忒帝之  
 協氣布護于寰區鍾鼓者弦征思于荒伏出於由我皇  
 上躬乃睿知得步安富壽康慶九貞固乃其以此孝後  
 考之一身成久運化感之天下達有極去考舜之九執  
 也所以逸者考舜之非考也合歡心之長篤壽福類之  
 考考舜之敦睦慎徽也親親考之而為禮郊饗之仁考  
 舜之次矣肆類也刑年頑梗以彰武功考舜之放驩兜  
 之廷有苗也錫祖考已若帝治漕考舜之不以考耕鑿  
 之氓極情和之事也矜救慎獄過宥考舜之協平  
 章之化肆欽恤之心也金匱玉版網羅述也考舜  
 之文思聰也考舜之芳藻也考位敦朴考舜之克讓也考

駕重華 而上之皇上 廣建之精神 亦視伊祈而遠過 梯  
 航殘貢 大一統而無垠 寒燠雨暘 咸時順而不忒 榮光  
 協氣 布護于寰區 鍾鼓管絃 謳思于荒服 此皆由我皇  
 上 聰明叡智 得生安富壽康寧 尤貞固 乃能以先憂後  
 樂之一身 成久運化 成之天下 建有極者 堯舜之允執  
 也 所言逸者 堯舜之惟幾也 合歡心而展篤 養錫類之  
 孝 堯舜之敦睦慎微也 親圭幣而肅 明禋郊饗之仁 堯  
 舜之欽寵肆類也 削平頑梗 以彰武功 堯舜之放驩兜  
 而迂有苗也 蠲租責己 發幣留漕 堯舜之所以安畊鑿  
 之氓 極修和之事也 矜輅慎獄 過宥愛刑 堯舜所協平  
 章之化 殫欽恤之心也 金匱玉版 網羅述作 堯舜  
 之文思聰明也 茅茨土階 崇位敦朴 堯舜之克 讓溫恭

也河嶽百神之隆屬華者方之應封表舜之年巡幸望  
 也中分百億之位成咸入見之敷奏先舜之治世命及  
 也啓正人事爰考鍾律則依永和舞之美善也篤念先  
 臣則元首股肱一心一佈也後世者為則上庠下庠引  
 善引於也皇上慎考舜之合休海曰崇先舜之昌平皇  
 上以格天之心運以天之德而受維祺之景福以尊祖  
 之心行法祖之政之近長者之祥也格也智越四千級  
 載乃歷肆湖僊多斯年也凡在魯天之曰但常在有之  
 仁白叟若童欢呼縉衿官僚庶尹忭舞陞庭咸願禱  
 世之由隆仅宜地帝之筆曲伏乞皇上採伯康情而  
 众隆勅部詳儀慶賀曲祀于多壽御武引臣臣  
 年以至萬一年每十年一舉載入會典永為定例俾庶

也 河嶽百神之望 屢幸省方而褒封 堯舜之歲巡柴望  
 也 中外百僚之位 殘咸入見 而敷奏 堯舜之咨岳命官  
 也 曆正人事 爰考鍾律 則依永和聲之美善也 篤念老  
 臣 則元首股肱 一心一體也 優崇耆壽 則上庠下庠 引  
 善引恬也 皇上脩堯舜之合體 海內樂堯舜之昌平 皇  
 上以格天之心 運如天之德而受 維祺之景福 以尊祖  
 之心 行法祖之政 而迓長發之祥 此撫運獨越四千餘  
 載 承曆肇開 億萬斯年也 凡在普天之內 俱蒙在宥之  
 仁 白叟黃童 歡呼衢路 官僚庶尹 忭舞陞庭 咸願稽瞻  
 世之隆儀 定非常之盛典 伏乞皇上採納群情 慰安  
 衆望 勅部詳議 慶賀典禮于萬壽節 舉行 從此六十  
 年 以至萬萬年 每十年一舉 載入會典 永爲定例 俾庶

類蒼靈均泳游于仁壽之世九如神澤長浩夫福祿之  
 同生但降唐宋明三比寧世物名帝湯文武禳義聖朝  
 矣之 殊批詢旨朕之殊（在位五十九年朕亦不知  
 此以上天眷佐先聖造補与朕行涉且西陸現在用兵  
 軍戈殊屬勞苦去歲三月朔日倉方今七月終日又值  
 日食海洋颶風飄沒官舟如隻山左東三府怨戈飢饉  
 流難屢次起較及去冬戶舍戶口被淹淮黃水大僅北  
 於殺人之念恡未惟古之政事未正此正君臣履一求  
 治之時至于所慶賀行礼亦不在朕之目中朕即極  
 難在順治十八年間現今時慶係五十九年此名不可  
 不審欽此

十一日旨令銅廣初許今日為之稱心樂之國忘以明日

類蒼靈均泳 游于仁壽之世 九州神澤長沾 夫福祿之  
 同 豈但漢唐宋明 無此盛世 抑亦禹湯文武 讓美聖朝  
 矣云云 殊批諭旨 朕之碌碌 在位五十九年 朕亦不知  
 此皆上天眷佑 先聖造福 與朕何涉 且西陲 現在用兵  
 軍民殊屬勞苦 去年正月朔日食 方今七月朔日 又值  
 日食 海洋颶風 飄沒官兵舡隻 山右東三府 黎民飢饉  
 流離 屢次起蛟仄 民間廳舍 戶口被淹淮黃水 大僅能  
 掄護人之風俗 未修 官之政事 未正此正君臣殷殷求  
 治之時 至于屑屑慶賀行禮 亦不在朕之目中 朕御極  
 雖在順治十八年間 現今時曆 係五十九年 此亦不可  
 不審 欽此

十一日 晴風 領賞 初許今日 爲之稱以渠之國忌 以明日

# 啟定

十二日晴巳時復東舉刀入到午門前三丈日三拜九扣  
 頭少退立止丈入矣 御前所去馬正視殿後三丈以  
 次受賞賜馬銀段匹何正立則次、呼入各譯分給賞  
 段之中立者各果段匹以次俵給矣<sup>云</sup>審不於直右等  
 多以譯官既厚亟正招給一故有五分加俵一其為於  
 意收可及得旨一於未至勢長乃段他個人心  
 臣可實心也畢長後急到禮部則左侍郎景瞻日乘轎  
 未到立於殿上三丈北向以三有九扣之禮意入  
 正廳<sup>下馬</sup>立<sup>下馬</sup> ① 侍印至登三丈奉向坐<sup>下馬</sup> 侍印在<sup>下馬</sup> 後  
 卓坐已設於座前矣先以朱漆木光其路柴以<sup>下馬</sup> 啟<sup>下馬</sup> 以  
 金先引<sup>下馬</sup> 三<sup>下馬</sup> 以侍印<sup>下馬</sup> 有卷<sup>下馬</sup> 而<sup>下馬</sup> 登三丈則<sup>下馬</sup> 臺<sup>下馬</sup> 火<sup>下馬</sup> 光

## 改定

十二日 晴 巳時從東華門 入到午門前 三使行三拜九扣頭 小退立 正使入受御前 所去馬匹銀段 後三使 以次受賞 賜馬銀段匹 仍退立 則次次呼入員 課分給賞段 而聞在前分褻段匹 以次俵給云矣 今番不然通官輩 各以譯舌親厚 逐疋擇給之 故有數外加俵之惠 至於還收 軍官及譯官之初來者 勢者 得受劣段 紀綱人心 良可寒心也 畢更後 還到禮部 則右侍郎景日昝 乘轎來到 立廳前階上 與三使 北向行三拜九扣之禮 還入正廳 行下馬 宴而侍郎主壁 三使南向坐 譯輩在其後 宴卓已先設於座前矣 先以朱漆木器 盛駱漿 以次 以金器 行酒三巡 而侍郎即有臺小盃 三使則無臺大器

礼部少史古多病也。不偶。景日。珍长。仅表。冀休。沉言。每  
 川。以。示。教。勤。之。意。因。畢。撤。床。又。坐。供。川。一。叔。三。和。任  
 礼。父。之。停。免。矣。改。着。平。出。由。右。法。门。亦。法。造。造。川。官。任  
 到。天。主。殿。即。皇。帝。盥。盆。西。洋。国。人。常。守。后。殿。亦。也。而。仍  
 数。字。以。梵。字。等。如。伊。出。榻。榱。不。露。门。而。棟。屋。榻。程。必。以  
 非。宋。塗。仕。文。石。此。平。摩。之。榻。而。下。其。厦。以。扇。擊。之。中。拜  
 如。古。在。木。也。四。壁。必。画。人。之。或。有。異。长。或。有。披。髮。长。以  
 少。悟。者。散。而。列。席。卓。什。物。亦。有。德。德。巧。眩。人。眼。目。然。心  
 形。之。后。而。廊。由。上。五。占。后。林。之。回。互。轉。出。殿。而。上。之  
 曲。之。出。门。之。步。河。天。倚。南。产。椒。椒。由。甲。第。后。榻。此。会。鱼  
 解。社。望。空。程。善。屋。文。之。耀。日。以。来。第。西。洋。人。以。位。卷。之  
 没。榻。密。世。教。茶。枝。叔。仍。地。吸。毒。石。之。一。个。与。在。人。此。自

禮節如此 良可痛也 所謂景日眡者 儀表崑偉沈重 每當  
行酒 以示殷勤之意 酒畢撤床 又出階 行一拜三扣餘  
禮 使之停免矣 改着平服 由太清門前 路透迤 西行數里餘  
到天主殿 卽皇帝邀置西洋國人 崇奉道教處也 所謂  
殿宇 以甃甃築數仞 使椽椽不露 門內棟壁欄楹 皆以  
雜輩塗作文 石狀平摩 而猶不卞眞贗 以扇擊之 聞聲  
始知其木也 四壁皆畫人 而或有翼者 或有披髮者 以  
紗帳垂蔽 所列床卓什物 皆窮極侈巧 眩人眼目 難以  
形言 從西廊內 上五六層胡梯 則回互轉 出殿閣上而  
曲 曲出門上 安渾天儀 開戶瞰城內 甲第層樓 狀若魚  
鱗 北望宮闕 黃屋處處 耀日下來 到西洋人 所位室則  
設榻對坐 獻茶致敬 仍贈吸毒石 各一介 而其人狀貌

必長樂準翼神氣如故也他有所考稱氣殊貴神潔  
 多至國立西海中非至多九弟至左國內<sup>有七省</sup>濟國三十餘  
 有七省之故西北川州之東右過西岸丁北川如馬坊  
 巨西步丁入又北川至太深也、過楊橋已有甚氣也  
 上下左右橋多亭樹望之縹緲自去為迂以取視多恍  
 亭矣通友舍世倫名名極之引為一若着報生馳不  
 肯始逢過橋後如貫之歎曰又不許回馬遊覽終未以  
 怡橋轉望亭、臨過強水夢中亦見矣過<sup>●</sup>華山前  
 巨神武門外東出東安門遙遙南行意飯不  
 十三日晴巳時祀郡神景日<sup>●</sup>又未飯而於川上馬亭  
 三丈冠帶出中門外遙入庭向北白坊行三丈九扣頭  
 入正廳分東西世之侍神立東三丈在西譯案列於左

皆長髯準鼻 雖着胡服 與他有別 言動辭氣 殊覺雅潔  
 言其國在西海中 距燕京九萬里 其國內有七省 屬國三十餘  
 云 復西北行 折而東 右過西華門 北行數馬場  
 從西安門入 又北行 到太液池 池邊楊柳 已有春意 池  
 上下左右 樓閣亭榭 望之縹緲 自是別區 初欲觀五龍  
 亭矣 通官金世倫爲名者 嫌其引導之勞 着鞭先馳 不  
 肯招途 過橋後 始覺見欺 而又不許 回馬遊覽 終未得  
 臨橋 騁望草草 經過 殆如夢中所見矣 過萬歲山前  
 從神武門外 東出東安門 逶迤南行 還館所

十三日 晴 巳時 禮部侍郎景日昫 又來館所 將行上馬宴  
 三使冠帶出中門外 延入庭內 西北向 共行三拜九扣頭  
 入正廳 分東西座 而侍郎在東 三使在西 譯輩列於其

後教歸聚川西蓋一水也。乃景曰：於此通商，功由頻  
 皇正失，失復有下，時和信之曰：此上屬意，信寓律其威  
 昔景天曰：皇帝嘉其辭，奉大之誠，待史臣甚優厚。彼宇  
 殊不為繁考，殊用未分。之富畢，又出在川。一打三  
 如仍出，托主史，以是。打方則，拚手，此便之。古氣  
 十中，世，沐他，接通。一節，殊甚，勤於。又曰：三史，以是，文，學  
 降，遽之士，德，帝，之，中，之，富，畢，又，出，在，川，一，打，三，打  
 仍，飛，出，三，史，以，之，符，中，之，打，則，拚，手，止，之，而，去，矣  
 十四日，晴，西洋，國，人，或，乘，輜，戎，騎，馬，及，海，嶼，之，道  
 贖，物，者，至，此，正，廬，之，東，西，之，生，也。之，致，詐，曰：汝，老，者，也  
 余，有，竹，而，幹，若，白，皇，帝，常，年，危，救，邀，德，亦，及，所，故，乘，氏  
 已，三，十，餘，年，又，曰：曰，西，洋，在，西，域，之，西，宜，同，吉，併，救，之

後獻駱漿行酒 盃一如昨日 而景日眇使通官 勸酒頗  
 懇正使 使譯官卞時和傳言曰 昨今屢蒙臨宴 誠甚感  
 幸 景答曰皇帝嘉朝鮮事大之誠 待使臣甚優厚 而館宇  
 疎陋 接遇之節 殊甚歉然 又曰三使皆是文學  
 深邃之士 俺竊爲聞知云云 宴畢又出庭 行一拜三扣  
 仍罷出 三使欲過午中門外 則揖手 止之而去矣

十四日 晴 西洋國所來三老人 或垂轎 或騎馬 爲例昨日送  
 贐物來到 出正廳 分東西而坐 與之酬酌 問諸老來 燕  
 京有何所幹 答曰皇帝崇奉道教 邀俺等爲師 故來此  
 已三十餘年 又問曰西洋在西域之西 宜同奉佛教 而

等為三清長柳竹坡可者曰西洋之西域相在絕處不  
 等自不同者又曰曰西洋國俗之先所化者否者曰  
 國中其地不同者仍曰為中朝鮮似若之有別者其見  
 涉大人微苦竹苦之累後●梁有以酒一盃之我古時  
 媚有遺德一色出外後必心于王境一介吸毒石二介  
 小君急二介刀子一柄火鏡二枚手帕二件在書九冊  
 送贈又心者為強拉我腦之○社部修之我塔三度  
 十有之晴早作後以者以之通者甲軍常插以提督事及  
 乘開門不許出轄之馬若候其時起自出飯後能得丁  
 出磨入岳岳廟則數其淫者為庭列立豐碑頌有公賞  
 交之宜他開市林穢雜貨羅列左右人肩相磨趾如步  
 川虞質不曰已選出到市五政事轄川時到通為完

尊尙三清者 抑何故 卽答曰西洋與西域 相去絕遠 所尊自不同矣 又問曰西洋國俗 亦如老師服色否 答曰本國與此不同矣 仍曰曾聞朝鮮儀制之有別矣 今見諸大人 誠甚忻幸云云 畧設果肴 行酒一巡 而罷去時 頗有繾綣之色 出外後各以千里鏡一介 吸毒石二介 小靈象二介 刀子一柄 火鏡二枚 手拍二件 道書九冊 送贈 又以紙扇諸種 答謝之 禮部修送答咨三度

十五日 晴 早飯後 欲發行 則通官 甲軍輩 稱以提督 未及來 閉門不許 出轎與馬 苦俟數時 始得出館 從朝陽門 出歷入東岳廟 則殿閣 深巖滿庭 列立豐碑 頗有可賞處 而適值開市 珠璣雜貨 羅列左右 人肩相磨 難於步行 周覽 不得已還出 到市盡頭乘轎行 晡時到通州宿

登校是日行五十里

十六日晴日出後暮川穿過種至下折口北行出北門到  
 白河列舟河面上舖板土仕浮橋渡橋回望岳過河塞  
 便舟船盡不見有沿河葦一橋至尾墨垂柳鳥窠依散  
 於烟霧之間小舟中不見幾出如字在後早館亦相鄰  
 舖脯時分三河縣渡上可取言●下交於學舍以轉入  
 自倫幸庭於後如前一屋入耳有表白榮日學堂在入  
 利名為棧許入坊也並史通入大成殿在川口入苑  
 內●審則夫子信版也少定師至在天宣之日曰居十  
 極分配如東西之茅東區享下並祀朱先生之止宿於  
 安寓陶世成家是日行七十里

十七日晴時久不見巒山購以寄旅人一際插口之人

察院 是日 行五十里

十六日 晴 日出後 發行 穿過鍾閣下 折以北行 出北門 到  
 白河 列舟河面上 鋪板土作浮橋 渡橋回望 前過時塞  
 河舟船 盡不見焉 沿河一帶樓閣 層疊垂柳 裊娜依微  
 於烟靄之間 如畫中所見 繞出胡家庄後 早飯於烟郊  
 舖 晡時到三河縣 灣上軍官言 下處於學舍 以輜入  
 明倫堂庭然後 始知之 拿入軍官 責問 槩學舍守直人  
 利其房錢許入故也 三使遂入大成殿庭 行四拜 入殿  
 內 瞻審 則夫子位版 書以先師至聖文宣王 四聖十  
 哲分配於東西 而第東 從享下竝配朱先生矣 止宿於  
 前 寓陶必成家 是日 行七十里

十七日 晴 昨夕爲見盤山 購得知路人 則一漢 稱以主人

且云熟清欲送故給三木亦甲初之曉於費精以他人樂勿信也墨非初葉以一而一初在人之在何則深區中遠矣盡排信於李、、名王天旭騎驢行

即抽攀山下舞知者美松寺立山頂尋塔塔寺立山之西麓澁之律沙在木巨石似多亦廣在之日力也刻自肉賢身中法位而多馬行遂詢于玄序轉東行入少林寺同口白石清流位可老蓮二馬士石盟占教口水味極清潤且甘皆人樂之同左右及山少植梨栗間以杏老成林巨石嶙峋岸是美山第馬表以華帶或方或半或石或木

亦各出微早飾分公系處舍轄姑馬循右路引千經室

且言熟諳路逕 故給三束紙 四柄扇矣 曉將發替以他人 渠忽隱避 還推紙扇 槩以一紙一扇 雇其人 而其餘則渠從中匿矣 盡推給其漢 其漢名王天旭 騎駐從行 乍明出城 早飯於公樂店 舍輜騎馬 循大路 行十餘里

逐日向北川于千級至抵與山下西河舍村塔去山最  
 高頂望之深渺李法舞翁老似是在寺又巨刺常塔羅依  
 此山谷及崖壁全無不奇乃在汝弟松寺乃寺之界塔  
 寺之古木奇岩似多可驚長松乃力恐郭周覽極險不  
 可跨馬遂徇于王序轉東入少林寺旧口隔魚一河  
 乃是梨杏栗栗一樹之山頂崖側有土則有果木表甲  
 津而河中廣故果木繁長徒不虛語也後過盤蛇平鋪  
 色甚瑩白清露散流以石小潭心目相映遂以馬立石  
 盥手嗽口味甚甘冽曲肱以卧四飲山壑巨石嶙峋危  
 疊或如象馬或如龍虎或方或平或空危動殆如形狀  
 涉馬行及十步忽逢穴窪形石塞若不辨行抵衣之步  
 涉越間谷如負板抵寺乃僧如深出以迎乃下

遂向北行 二十餘里 抵盤山下 所謂舍利塔 在山最高頂 望之縹渺 李清舞劔臺 似是其處 巨刹崇塔 羅絡於山谷 及崖壑間 殊不知何者爲萬松寺 何者爲靈塔寺 而山之西麓 古木奇巖 似多可賞者 然日力 恐難周覽 路險不可跨馬 遂徇于王漢 轉東行 入少林寺 洞口彌亘 一洞皆是梨杏棗栗之樹 而山頂崖側 有土則有果木 袁中郎所謂中膚故果木繁者 儘不虛語也 路邊盤陀平鋪 色甚瑩白 清泉發流 下爲小潭 心目頓爽 遂下馬坐石 盥手嗽口 味甚甘冽 曲肱而臥 四顧山壑 巨石嶙峋 層疊 或如勃馬 或如熊虎 或方或平 或若飛動 殆難形狀 騎馬行數十步 忽迷失途 亂石塞前 不能行 攝衣而步 踰越澗谷 始覓路 抵寺門僧數輩出而迎 而其中

一老初年如十四自云生未如見朝鮮大臣一到氏嘉  
 其憔悴不已入仕僅盡心老矣在李承旨王衡遊山記  
 中云裁法律交通曰一僕等其粗俗不致久之一知  
 長云云奔勤老之冠頂有兩生出見曰在而位一生  
 按筆云知曰殘兆穩住江承常以府武達所王詢任直  
 隸順天府宣抵縣之五卦村取之上寺肄業云余曰曰  
 大德以在戊戌未五武年之部以大國以子午午午如  
 武年可錢生云曰子午午午午午午午午午午午午午  
 余求見之西製出不可書券再編余曰文致宿膳其  
 揆之即錢生世中嘉余曰曰君世代為仕明朝在錢生  
 曰五代祖名一本之冠仕至御史廣西巡撫之子又仕  
 至尚書名如游廣西撫之精妙名居世中康熙丁丑歲

一老衲 年九十四 自言生來 始見朝鮮使臣之到此 意甚懼忻不已 入坐僧堂 以袁宏道 李東陽 王衡 遊山記中所載 諸勝處逐名 問之 僧輩甚粗俗 不評文言 一知者 只言龍劔臺之在絕頂 有兩生出見 問其所住 一生拈筆書示曰 錢兆豫 住江南常州府 武進所 王詢住直隸順天府 寶坻縣 而爲赴持闕寺 上寺肄業云 余問曰 大明 以辰戌丑未 爲式年 而卽今大國 以子午卯酉 爲式年 卽錢生答曰 子午卯酉 鄉試科 辰戌丑未 會試科 余求見其所製 出示四書義五篇 余曰文辭富贍高捷 可期 錢生中甚喜 余問曰 君先代曾仕明朝否 錢生曰 五代祖 名一本 在明仕 至御史 廣西巡按 其子又仕 至尙書 曾爲湖廣巡按 其嫡叔 名名世 中康熙丁丑殿

法為枯林倚溪內竹亭云邀余入之而居遂為書田藥  
 一、此一材為梅方老開後生書亦曰我國名中大國元  
 冠之美美之見老壽敬者大國有以修之於少余亦曰  
 於美又曰曰方國有包度也一友果之在矣曰果有物  
 者一故之武人為之書法生仍磨曰余年甲科名故我  
 我余年世益厚為之獲書法一書後生出亦之而裝七  
 律四首口轉板印亦也書法音樓居近師以於外莊門而  
 方曰學於子也題之曰云：  
 金山華臺秀未題一詩今日但收織中豈子昂必不為  
 志望音七幅及池之二幅及田窓外有並種一材幹長  
 尺以上生於十枝葉、以垂芳於子間可及不乃君格  
 未部山有並材保葉茂密此乃梳子有窗部、有各書

試 爲翰林侍講內供奉云 邀余入其所居室 圖書滿案 案頭一樹盆梅 方盛開 錢生書示曰 我國曾聞大國衣冠之美矣 今見老爺誠幸 大國有八路云然否 余答曰 然矣 又問曰 大國有節度使之官果否 余答曰 果有 節度之職 而武人爲之矣 錢生仍歷問余年甲科名官職 求余筆甚懇 屢辭不獲 書給一紙 錢生出示其所製 七律四首 卽鏤板印紙也 書其首曰 梗居近詠 以將赴都門 留別同學 諸子爲題 其一曰云云

余以筆墨紙束贈之 錢生以紙紋織成 趙子昂所書 前赤壁賦 爲七幅及 他書二幅爲謝 窗外有盆種一樹幹 長尺餘 上生數十枝裊裊 下垂黃花方開 問其名 乃靈椿 東廊下有盆 樹綠葉茂 密狀若梔子 有實離離 其色青

芳名是金橋云摘燒如十枝清香可老扣寺出寺山如  
 月老上東李古閣后之階屋老門碼在似之眼下之石  
 可見身者後有多室塔屹於百米天以有石欄之登臨  
 之始德日長山日性又修り神生依於惜分効當一宿  
 之第以五程世世遂心於山川三十五入薊如西  
 止宿於朱姓人亦多り日九十修至

十九日晴 本屋者り早修り峰山店時多玉田止宿於  
 慶院是りり十五

十九日晴 出後若り早修り山溪河到寫養僅有人聲  
 聲如野中之塔土未及盡言四女人如男子戴白巾衣  
 白衣長已收自死悔未考お死長為仍人之立修傍規  
 史川之笑自水界云威容塘言云有女人以禱言出習

黃名是金橘云 摘贈數十枚 清香可愛 相與出寺門外  
 月臺上 東南空闊 茫無際涯 太行 礪石 似立眼下 而不  
 可見矣 寺後有多寶塔 屹然幾百尺 下有石欄 可登眺  
 而脚憊行忙 不得往見 臨行 錢生依然惜別 勸留一宿  
 而辭 以王程甚忙 遂作別 下山行三十里 入薊州西門  
 止宿於朱姓人家 是日 行九十餘里

十八日 晴 平明 發行 早飯於蜂山店 晡時到玉田 止宿於  
 察院 是日 行八十里

十九日 晴 日出後 發行 早飯於沙流河 到高麗堡 有人營  
 葬於野中 而壙土未及盡實 四女人 數男子戴白巾 衣  
 白衣者 已先自罷歸 未知於死者爲何人 而立路傍觀  
 使行 言笑自如 略無戚容 壙處只有數人 以鍤實土 習

供言多異凡晴時止為出豐潤瘴氣多川七十五里  
 二十日晴平谷步川早修出樓子店夕高沙河瘴氣多  
 日川百里

二十一日日出出步川自大洛轉至東北川五十里到身  
 當面而竹首山左知移左一峰屹於尖峭臺澤之一  
 木入唐城下下轉右廟門右門內有唐碑刻十列之  
 為重門額左在牆面以麗栲石以尊鶴刻文字刻以  
 畫記入高麗初刻高草上香炉內栲栳香少以花  
 斑石雕成始古雜有木版刻以初為請節祠五字之檄  
 是廟內半栲破似古石初不刻古唐法有堂、後有清  
 心堂望之巽水左右每麗石林後以石欄傳出西門望  
 臺北信濤河一帶繞者二末穿流之濤河石壁潭長松

俗良可異也 晡時 止宿於豐潤察院 是日 行七十五里

二十日 晴 平明發行 早飯於榛子店 夕宿沙河驛察院 是日 行百里

二十一日 晴 日初出 發行 自大路轉 而東北行五十里 到夷齊廟 所謂首陽山 在於路右 一峯屹然尖峭 童濯無一木 入廢城門 下轎於廟門外 門內外庭 豐碑數十列立 數重門 額左右牆面 皆以甃挾石 以築鐫刻文字 難以盡記 入廟瞻拜塑像 多剝落 卓上香爐酒樽燭臺 皆以花斑石 雕成 頗古雅 有木版刻 以勅賜清節祠五字 而撤置廟內 半朽破 似是明朝所刻者 廟後有堂 堂後有清心臺 望之翼如 左右築甃 爲梯繞以石欄 傍出虹門 登臺北臨灤河一帶 繞臺下 東南流 而停泓 爲碧潭 長松

五十里岸側陟地文殊於石上俯視巖岸有石如松竹  
 君初、西北有巨岩特立河到此如流一泓繞祠北之  
 下合派祠便在島中言出峯東角之生河過岩石上為  
 三漁舟方布網捕魚戲之為漁人持釣筐魚未熟沽以  
 五十餘頭大在或脍或炙且持鼎煮下烹之為羹美貴有  
 滋味節酒又修河見樞魚晚今大心益縮河以十餘里  
 渡河入水年西門止宿於岸樓之有七十餘里

二十二日午後到都宿於有西三坊佩多矢得、前西  
 車上設為轎垂重帷兩旁繡一白繡引後車三輛載  
 以美女輜車三三四女馬形白一插以黑杖以板為蓋  
 因或三身死帷車中載尸殊多奇也早作舟以信  
 僅到接舟而舟白之川棹柳閣在止宿於詩人地林意

數十立 岸側陡絕處 竦然不可俯視 對岸有廟 卽孤竹君祠 祠西北有巨岩特立 河到此分流 一派繞祠 北而下合流 祠便在島中矣 出臺東角門 坐河邊岩石上 數三漁舟 方布網捕魚 俄而兩漁人 持數筐魚來 賣沽得其十餘頭大者 或膾 或炙 且捧鼎 臺下烹 而爲羹覺有滋味 飯後 又臨河 見獵魚 晚風大作 遂循河 行十餘里 渡河入永平西門 止宿於察院 是日 行七十里

二十二日 平明 發行 到部落嶺 有數三胡 佩弓矢 前導兩車 上設屋轎 垂重帷 兩黃旛 一白旛引路 後車三輛 載以美女 輜車亦三四 使馬頭問之 稱以黑龍江官員 遞歸 或言身死 帷車中 載其尸 殊未可知也 早飯於背陰堡 到撫寧縣 冒雨而行 抵榆關店 止宿於漢人張彬家

是日川九十里之在兩旁大止以宮傍局遠在不成  
 二十三之平俗若引早作出鳳凰店到津河年通在介此  
 入山海關方城丁又入西城西多丁此篇往不計文君  
 人家之有牌額以金字書以青或紅或雲華樓窟者  
 煙樹篇亦字間之姓乃河之左控子名即朱蘭春古左  
 北系之仕古有叔守家之先妻解官申性既年友李忠  
 物津上耳古金鼎九月時出關未暇正丈則以津上替  
 送物也郭郭少初率之四子未見傳付石郭以去書  
 角且以一帖書短余以府西偏曰之子名書法亦以不  
 曰衡字平田書曉打增生熟字仁田書負郭廣生傑字  
 富田書郭郭然字碧田書郭郭然書俊書之西子字是則  
 今年父子相次劍書殊可笑也曰仍謂廣生答曰八股

是日 行九十里 是夜 雨雪大作 所寓滲漏 達夜不眠

二十三日 平明 發行 早飯於鳳凰店 到深河 卒遇狂風 馳入山海關外城門 又入內城兩重門 止宿於所謂文學人家 其門外牌額 以金字書 以青雲難望雲華蟾窟香漂御篆等字 問其姓 乃河 而其獐子名 卽朱蘭泰 方在北京爲仕 只有奴守家云 先來譯官申性沈 軍官李泰錫 灣上軍官金鼎九 夕時出關東歸 正使則以灣上替送故也 初昏郭如栢 率其四子來見 付傳石郊所去書角 且以一幅書贖 余以扇爲謝 問其子名 書諸紙以示 曰 衡字平田 號曉珂 增生 熟字仁田 號負郭 廩生億字濟田 號郭郭 裝字醫田 號外郭 俱業儒云 而兩子字號 則倉卒 父子相議創書 殊可笑也 問何謂廩生 答曰八股

文臣名秀才中考取一等第一名光才子多合朝廷厚  
 儀未十五又曰仍謂博生唇口氣逢學秀才亦何生考  
 取一等二名秀才亦博生貧賤生合儀二十年出貢  
 為奉貢生云言在燕京時有胡人合帝以長插白我國  
 為好人子孫之培古往山海雲岩稅收於此任要又出  
 臣托以館中私見不次雜記之矣初聖父通有之名帖  
 之書以紳才合帝極其<sup>○</sup>為單中書以粗布一疋契  
 傳一疋此奉三付徽墨二付治之果翁甚後正<sup>○</sup>  
 元若後有長不<sup>○</sup>不矣之故亦已矣<sup>○</sup>以存<sup>○</sup>  
 此<sup>○</sup>

臣不於田具史生未及同失<sup>○</sup>日回<sup>○</sup>意<sup>○</sup>可<sup>○</sup>矣<sup>○</sup>已<sup>○</sup>連<sup>○</sup>行<sup>○</sup>如<sup>○</sup>此<sup>○</sup>

文 從衆秀才中 考取一等 第一名 充弟子員 食朝廷廩  
 餼米十石 又問何謂增生 答曰初進學秀才 爲時生 考  
 取一等二名 秀才爲增廣生員 廩生食餼二十年出貢  
 爲歲貢生云矣 在燕京時 有胡人 金常明者 稱以我國  
 義州人子孫 而渠方從山海關 監稅官 始赴任 要見使  
 臣 以館中 私見不便辭却之矣 初昏 使通官 送名帖  
 而書以鄉弟金常明 拜別單中書 以粗席一筵 麵  
 饌一筵 湖筆三封 徽墨二封 治送果肴甚優 正使曰此與  
 無名饋有異 不可不受云 故不得已受之 以紙扇謝之  
 是日 行九十里

### 狀啓草

臣等於謝恩使 先來及同使行 回還時 旣已連次馳啓

二十四日晴早飯後昔日到內城門內視有西門前金帝  
 府出來至轎前揖手致辭極其懇款以出轎前見則  
 按止之仍破二甚子在不克亦國之憂也其子為之  
 為得在方外嘗官云云之及仗房後之界王知通有  
 軍敬德寺在教道觀之成而不界之出者後左立諸  
 轉為立渠煩似斷按作西中之祖母以順治一傳母有  
 接刀書皇帝致至崇而日自是後一任之亦非其有  
 勅引岸以高皇使臣云云各分城下插以門於一人車  
 及方者不許出門卸轎後側蓬留其付其老難也日  
 於午始出城轉馬書中為所取更研到西水何入寤院  
 尉為候卜其後後不來夜半後如自危就寤其時困苦  
 不可盡說者以八十里

二十四日 晴 早飯後 發行 到內城門內稅官 衙門前金常  
 明出來 立轎前揖手 致敬極 其懇款 欲爲出轎相見 則  
 挽止之 仍贈二裴子 其不忘本國之意 亦足可尙矣 聞  
 爲謁聖方赴學宮云 而其儀仗導從 無異王者 通官  
 輩 謹敬奉承極敬慎 以此觀之 其職品不卑 而出來路 左立談  
 轎 前直渠 頗似虧損体例 聞其祖母 以順治之保母 有  
 權力於皇帝 職至崇品 且得爲監稅之任 而前頭 若有  
 勅行 渠欲圖差使臣云矣 到外城門 稱以門將一人 未  
 及齊會 不許出門 卸轎路側 遲留數時 其苦難狀 日  
 將午 始出城 秣馬於中前所 初更許到兩水河 入察院  
 廚房籠卜 皆落後不來 夜半後始得 會就寢 其時困苦  
 不可盡說 是日 行八十里



二十五日 朝陰 午晴 平明 發行 早飯於中後所 晡時 到東關驛 止宿於驛丞童姓人家 是日 行六十里

二十六日 陰 平明 發行 早飯於沙河所 晡時 到寧遠衛 止宿於察院 是日 行七十里

二十七日 陰風 平明 發行 到長春橋 大通官洪二奇 自會寧開市還歸 譯輩問我國消息 則答以去月十六日離發會寧 而其時國家無事云 屢月去國之餘 得此音耗 亦足慰戀闕之思 早飯於連山驛 晡時 到亭橋堡 止宿於察院 是日 行六十里

二十八日 夜雨雪 朝陰午晴 日出時 發行 到松山堡 路泥淖 間關跋涉 早飯後 行二十里 晡時 抵小溱河站 止宿於清人李可新家 是日 行六十里



二十九日 晴 風寒 平明 發行 早飯於大溱河站 到河濱 橋  
 圯水深 卸輜握扶而渡 晡時 到十三山 止宿於清人  
 趙士傑家 是日 行六十里 乾糧卜馬一匹 每宣傳所牽  
 刷馬 致斃

三十日 晴風 平明 發行 早飯於閭陽驛 晡時 到新廣寧 三  
 使同寓於驛丞家 驛丞以昨冬一宿之故 忻然出迎 待  
 以茶果及猪肉 是日 行八十里

三月 小

初一日 晴風 未明書狀以單騎 馳往北鎮廟 而余則輜馬  
 疲劣不得同往 平明 與正使發行 早飯於中安堡 未末  
 到小黑山 止宿於察院 是日 行七十里

初二日 陰風 平明 發行 早飯於新店 未末到二道井 止宿

於都自望急者，川六十里

初三日午信，晴天，公早作法，教川十五里，乃渡海，渡馬

之董，一旅步到，不復驚，山出，轉中，不復果，並以饋，便

木為登，滿流，舟卜，山，散，逢，望，一，極，夕，為，作，八，九，全，地

之水，危，達，危，有，云，巨，海，中，招，人，及，馬，匹，一，聚，於，泥，中，在

相，厚，云，並，出，轉，中，不，能，魚，累，以，饋，巨，人，為，五，卜，物，於，坂

上，江，駕，川，水，法，中，沈，彈，沮，也，大，心，又，心，轉，馬，十，步，九，款

轉，夫，日，自，沒，入，泥，中，不，得，拔，宛，轉，叫，呼，有，不，忍，中，之，人

馬，耐，或，云，轉，而，壓，死，去，在，呼，吸，也，已，已，傾，轉，水，中，之，故

拔，呼，水，湧，入，車，中，韻，危，之，狀，亦，多，畫，狀，寸，為，逢，夕，時

到，一，極，夕，卜，始，之，一，刻，其，半，全，附，於，一，極，一，川，夕

後，卜，物，之，意，畫，於，泥，中，也，不，知，其，如，浮，常，口，或，始，或，步

於鄭自望家 是日 行六十里

初三日 乍陰乍晴 大風寒 早飯後 發行 十里之間泥濘 沒馬  
 足 董董跋涉 到所謂鯨子山  
 遙望一板門 只隔八九里地  
 而水色迷茫 有若巨海中 胡人及馬匹之斃於泥中者  
 相屬云 遂出轎中 所儲魚果 以饋從人 留置卜物於坂  
 上 驅駕行水路中泥淖沮洳 大風又作 轎馬十步九顛  
 轎夫沒入泥中 不得拔宛轉 叫呼有不忍聞 而人  
 馬時 或爲轎所壓 死生在呼吸 不得已傾轎水中 而救  
 援 渾水湧入車中 艱危之狀 不可盡狀 寸寸前進 夕時  
 到一板門 一行員  
 沒卜物之棄置於泥中者 不知其數 譯輩或騎或步

都說曰道之至不修徑至其海友會世敏畫矣曰廣泰  
 曰法類仆亦半五好人而故也曰此生時今幸君幸大  
 小信人戰慄之人色之去舍尉者一始此先到之世推  
 揚少松之至舍宿里丹卜則件如之刷馬人及到中後  
 力盡身凍索至其地中入未嘗快而乘車子整沒  
 沈出不得匡考云●替道中中人八名虛曰捷馬三匹  
 送之則中中人夫肉其伴之已去之修不性如人物死  
 幼一二里右即意又在送三牛則夜深寒際中名後泥中  
 不得駕車魏鳴法其意云云已史遺宿處立之世際分  
 今有不得りり和山幸藏幸仍不下是夜而寓家之世法  
 人物安考云

初四日朝晴夕雨天明後又在送如人三名及馬五匹如

艱難得達 而無不沾濕 至於譯官金世敏 畫員盧泰  
 鉉 顛仆水中 爲胡人所救幸而得生 時風寒異常 大  
 小從人 戰慄無人色 而只余廚房一馱 能先到 急作熱  
 湯 以救其急 余寢具冊卜 則件奴與刷馬人負 到中路  
 力盡 身棄置於泥土中 而入來書狀所乘車子 墊沒  
 泥土 不得運動云 督送行中人八名 且雇得撻馬三匹  
 送之 則行中人夫 佯言已去 而終不往 胡人恟罷  
 行一二里 亦卽還 又雇送三牛 則夜深寒緊 牛亦沒泥中  
 不得駕車 鷄鳴後空還 只是正使達宵憂慮 而此際命  
 令 有不得行於下率 誠奈何不下 是夜所寓家主 卽清  
 人柳安貴云

初四日 朝晴夕雨 天明後 又雇送胡人三名 及馬五匹 始

日叔乘書此於夜中北色方為使換時多幸忠信伴  
 叔緊負乘上物名免兒皆以中副馬一弱死泥中其四  
 匪之此叔世贊及河也與河有過中他國驗時之靈聖  
 道中長七占七云時二在井中人持餅正到出信外  
 以宗得接渡腰回到本程之沒死極出靈靈經之船人  
 良機之乃子之危也死泥中之以中人之一死已之也  
 而少云唐舍其之川曰詠阻詠為帶長甚多一川人  
 馬名众策軍末供踊者一未草並而淺一林末直五占  
 百錢之り而窮  
 初五下陰晴早餘活者到白後堡中而後七陰而窮窮  
 後者りり三十里  
 初六日陰平日者早餘右獅子唐未耐接芦河是十

得救來 書狀終夜 水中能免大死傷損 誠可幸惠信 伴  
 奴輩 負來卜物 亦免見失 行中刷馬之溺死泥中者四  
 匹 書狀奴世贊 及河世興 譯官邊尙中 其他從人所持 驢子之棄置  
 道中者 亦六七云 昨日 二道井胡人 持餅追到 出售於  
 下輩 得錢纏腰 回到半程 而沒死 拯出盧泰鉉之胡人  
 受錢與刀子而還 亦死泥中 而行中人 無一死亡 其喜  
 不可言 店舍甚少 而行旅阻路留滯者甚多 一行人  
 馬 亦衆 柴草米供踊貴 一束草 直百錢 一升米 直五六  
 百錢 是日 留宿

初五日 乍陰乍晴 早飯後 發行 到白旗堡 聞前路亦險 留宿察  
 院 是日 行三十里

初六日 陰 平明 發行 早飯於石獅子店 未時 抵蘆河溝十

五里之今沈滂之世且有大水间浚跋涉人馬俱疲遂  
留宿於莊必代家言以三十里

初七、晴平日昔小鏡大小黃莊堡後至野鵲屯早飯於  
江亭子村以十里至出大路至虞原河堡見古車路  
告自中而始馬涉難渡園後河曠村和張子  
止宿於津人乘之清亦言以七十里

初八、晴平日昔引早飯於大方身居辰永步橋北路渡  
此之橋夕持簿切中丁者乘馬之入止宿登院是以

初十、陰至先道南費為莊及軍卒也柵以等持來京書

初九、晴日出後若引到浮河過橋地已有友船一隻車  
馬駢闐爭渡余則賃私船以渡華以二隻馬尚橫估舖  
板不見甚危早飯於白塔堡時持十金僅止宿於李

五里之間 泥濘亦甚 且有大水間關 跋涉人馬俱疲 遂  
留宿於張明代家 是日 行三十里

初七日 晴 平明 發行 繞大小黃旗堡後過野鷄屯 早飯於  
江亭子村 行十餘里 出大路 過周流河堡 見李泰錫晦日所留  
告目中 所騎驛馬病斃 渡周流河 晡時 到孤家子  
止宿於漢人褻之清家 是日 行七十里

初八日 晴 平明 發行 早飯於大方身店 從永安橋北路 渡  
壯元橋 夕抵瀋陽西門外 乘馬而入 止宿察院 是日 行  
九十餘里

初九日 晴 日出後 發行 到渾河邊 橋圯 只有官舡一隻 車  
馬駢闐 先送商賈 別將及軍牢於柵門 使之持來京書 爭渡 余則賃  
私船以渡 概以二隻馬尙橫結舖  
板 所見甚危 早飯於白塔堡 晡時 抵十里堡 止宿於李

廷玉家<sup>音</sup>りり六十五 余自<sup>音</sup>少<sup>音</sup>微有<sup>音</sup>感<sup>音</sup>氣<sup>音</sup>痛<sup>音</sup>勢<sup>音</sup>甚<sup>音</sup>刻<sup>音</sup>

始<sup>音</sup>差<sup>音</sup>飲<sup>音</sup>取<sup>音</sup>汗<sup>音</sup>

初十日晴金平<sup>音</sup>後<sup>音</sup>奇<sup>音</sup>早<sup>音</sup>行<sup>音</sup>分<sup>音</sup>爛<sup>音</sup>泥<sup>音</sup>堡<sup>音</sup>出<sup>音</sup>海<sup>音</sup>關<sup>音</sup>落<sup>音</sup>後<sup>音</sup>河<sup>音</sup>友<sup>音</sup>  
金<sup>音</sup>商<sup>音</sup>信<sup>音</sup>過<sup>音</sup>寺<sup>音</sup>中<sup>音</sup>未<sup>音</sup>如<sup>音</sup>遲<sup>音</sup>到<sup>音</sup>未<sup>音</sup>末<sup>音</sup>到<sup>音</sup>秋<sup>音</sup>遠<sup>音</sup>東<sup>音</sup>止<sup>音</sup>宿<sup>音</sup>未<sup>音</sup>候<sup>音</sup>廷<sup>音</sup>  
聘<sup>音</sup>高<sup>音</sup>多<sup>音</sup>りり六十五

十一日晴平<sup>音</sup>後<sup>音</sup>奇<sup>音</sup>日<sup>音</sup>到<sup>音</sup>冷<sup>音</sup>井<sup>音</sup>初<sup>音</sup>後<sup>音</sup>拾<sup>音</sup>飯<sup>音</sup>金<sup>音</sup>勢<sup>音</sup>多<sup>音</sup>分<sup>音</sup>

正<sup>音</sup>史<sup>音</sup>名<sup>音</sup>務<sup>音</sup>入<sup>音</sup>揚<sup>音</sup>州<sup>音</sup>村<sup>音</sup>店<sup>音</sup>第<sup>音</sup>井<sup>音</sup>泉<sup>音</sup>過<sup>音</sup>心<sup>音</sup>美<sup>音</sup>心<sup>音</sup>名<sup>音</sup>覺<sup>音</sup>有<sup>音</sup>味<sup>音</sup>  
補<sup>音</sup>時<sup>音</sup>撻<sup>音</sup>程<sup>音</sup>山<sup>音</sup>出<sup>音</sup>宿<sup>音</sup>未<sup>音</sup>天<sup>音</sup>程<sup>音</sup>多<sup>音</sup>りり七十五

十二日晴平<sup>音</sup>後<sup>音</sup>奇<sup>音</sup>日<sup>音</sup>到<sup>音</sup>冷<sup>音</sup>井<sup>音</sup>初<sup>音</sup>後<sup>音</sup>拾<sup>音</sup>飯<sup>音</sup>金<sup>音</sup>勢<sup>音</sup>多<sup>音</sup>分<sup>音</sup>

東<sup>音</sup>二<sup>音</sup>里<sup>音</sup>許<sup>音</sup>川<sup>音</sup>過<sup>音</sup>りり此<sup>音</sup>●以<sup>音</sup>揚<sup>音</sup>總<sup>音</sup>為<sup>音</sup>後<sup>音</sup>張<sup>音</sup>之<sup>音</sup>生<sup>音</sup>買<sup>音</sup>魚<sup>音</sup>心<sup>音</sup>

憂<sup>音</sup>信<sup>音</sup>衣<sup>音</sup>擻<sup>音</sup>飯<sup>音</sup>到<sup>音</sup>忘<sup>音</sup>穿<sup>音</sup>履<sup>音</sup>、上<sup>音</sup>為<sup>音</sup>杜<sup>音</sup>鰓<sup>音</sup>村<sup>音</sup>之<sup>音</sup>名<sup>音</sup>者<sup>音</sup>查<sup>音</sup>於<sup>音</sup>屋<sup>音</sup>

冰<sup>音</sup>蘭<sup>音</sup>十<sup>音</sup>有<sup>音</sup>一<sup>音</sup>程<sup>音</sup>始<sup>音</sup>步<sup>音</sup>驟<sup>音</sup>馬<sup>音</sup>獲<sup>音</sup>一<sup>音</sup>大<sup>音</sup>鹿<sup>音</sup>割<sup>音</sup>收<sup>音</sup>出<sup>音</sup>腸<sup>音</sup>橫<sup>音</sup>拖<sup>音</sup>鞵<sup>音</sup>

廷玉家 是日 行六十里 余自昨夕 微有感氣 痛勢甚劇  
服茶飲取汗

初十日 晴風 平明 發行 早飯於爛泥堡 山海關 落後 譯官  
金商鉉 邊尙中 等始追到 未末 到新遼東 止宿於談廷  
聘家 是日 行六十里

十一日 晴 平明 發行 到冷井 初欲臨溪攤飯 余病不可風  
正使亦病 入接於村店 采芹泉邊 作羹以食 亦覺有味  
哺時 抵狼子山 止宿於王天祿家 是日 行七十里

十二日 乍陰 乍晴風 平明 發行 踰小石嶺 青石嶺 到聒水  
站 東二里許川邊 則書狀以騎先到 設帳而坐 買魚作  
羹 臨流攤飯 到會寧嶺 嶺上多杜鵑樹 而花意杳然 層  
氷闌干 有一樣 胡騎駿馬 獲一大鹿 刳腹出腸 橫拖鞍



上 腥血淋漓 殊甚快壯 先來軍官李泰錫等 書諸路邊  
石曰 初四日 午時過此云 夕抵連山關 止宿於漢人彭  
可進家 是日 行七十里

十三日 朝陰 午雨 平明 發行 到分水嶺上 遭雨入岾洞店  
舍 早飯 冒雨而行 未時 到通達堡 止宿於攔頭趙化民  
家 是日 行六十里

十四日 朝陰 午洒雨雪 平明 發行 到八渡河 與書狀設幕  
川邊早飯 午到松站 止宿於清人張天祥家 是日 行六  
十里 軍牢還 得見二月十五日二十五日所出家書 知諸  
家俱安 順兒學業有進 客中喜幸 無過於此 只  
是上候有加東宮患疹 設議藥廳 區區憂患 不  
可言

十五日晴平日暮日午至居城、在橋以馬步移野今日  
四鄰以橋涉柵丁云夕日已而宿於柵頭庵廷說宿是  
○川五十五

十六日晴午日暮日到柵丁宿宿世亦盡矣盧忠肱中  
至親外者去令人持杖午時出柵到溫井日未哺言於  
渡江似涉途夜仍宿於川七十五

十七日未日暮日早作於起城柵渡中至到鴨江涉尹  
李以擬周沒命以終入命之話朝於府史白守一執川  
府史董妻稱未見匠李丁入館於學叔軒亦如老金鼎  
九言元十二日而止亦云正史中已獲如妻許公狀中  
在獨子表克辨適度之正史出至於正史夕之碩金  
打行而夜深言夕川六十五

十五日 晴 平明 發行 午到鳳城 城將稱以馬 皆放野 今日  
內難以騎往柵門云 不得已留宿於攔頭扈廷設家 是  
日 行五十里

十六日 晴 乍明 發行 到柵門 安宣傳世泰 畫員盧泰鉉 聞  
其親訃 發喪令人慘患 午時出柵 到溫井 日未晡矣 恐  
渡江似涉 深夜仍爲止宿 是日 行七十里

十七日 未明 發行 早飯於九連城 舟渡中江 到鴨江 灣尹  
李令挺周設幕以待 入幕少話 朔州府使 白守一 龍川  
府使黃壽聃來見 從南門 入館於禦權軒東 別書金鼎  
九家 見十二日所出家書 正使聞其孳姪妻訃 書狀聞  
其獨子喪 哀號過度 與正使 出至於其二處 夕與碩令  
打話 到夜深 是日 行六十里

十八日晴云此鶴三鳴先若馳向東路余在正史早作後  
 望眺統軍卒遂若日中方而東補到衣策身伴塵花  
 亦臺上正史仿生聽逐香欄千金福望老俯信亦雲戲  
 誰如株杜鶴古向開招之先為，不日及在江錦河映  
 三池夕宿信云查是日七十王宣川軍友亦為激來  
 十九日晴未白先發早館於嶺山中方到宣川到郡山只  
 什峯噴夕到宣如入元身伴在正世陸而內而軒轉宣  
 松柏寺日已甚黑不遊瞻暢懷嘉山郡守宋陽敦小縣  
 吳慎以倫未見是日一百五十里  
 二十日晴午雷而平後若日到嘉山亦川而吳善時恒魚  
 川察訪吳守孫德川郡守朴東桓朱文翁察訪白鵬遠  
 亦縣吳金座未見中大後男而心川再後大宣清川而

十八日 晴 書狀鷄三鳴先發 馳向前路 余與正使 早飯後  
 登眺統軍亭 遂發行 中火於所串 哺到良策 主倅煮花  
 於臺上 正使倚坐聽流堂欄干 余獨登臺俯臨 相對戲  
 謔 數株杜鵑 方向開 恨差 先數日 不得見其紅錦倒暎  
 三池 夕宿清心堂 是日 行七十里 宣川軍官安世徽 來迎

十九日 晴 未明 先發 早飯於鎮山 中火於宣川 到郭山 只  
 供茶啖 夕到定州 入見主倅李令世瑾 於內東軒 暫登  
 松栢堂 日已昏黑 不能遊矚暢懷 嘉山郡守宋瑑 殷山縣  
 監慎汝儉 來見 是日 行一百五十里

二十日 晴 午雷雨 平明 發行 到嘉山 泰川縣監李時恒 魚  
 川察訪吳守經 博川郡守朴東樞 前察訪白鴻達  
 前縣監金埜 來見 中火後 冒雨作行 舟渡大定清川兩

江表後入安好彼亦望電楊昌川府史趙倣以每友未  
信若江過而冬女李若鶴靈候內周慶入又兵史夜役  
僱以世者川一百四十里

二十一日晴秋後考補到而川府史趙倣入見者  
川六十五

二十二日晴年必考中火お順安縣冬李親之入見補  
而到善通丁世伯李光仲光未丁楊以迎<sup>三</sup>止火止楊少  
徑逐乘輿入館三望石台以詢亦垂孫乞衆和維及  
主伴金和勉並入見禮山林人禁也少事止未考中七  
未見考川百十五

二十三日年必散川到中和村火趙<sup>倣</sup>及順川府守亦世  
悉以誠友未到並入見午到營如地金完潤趙者吳宗

江 昏後入安州館 於紫電樓 肅川府使趙儼 以兼官來  
候於江邊 前監使李尙馥 虞候閔周憲 入見 兵使夜設  
饌以供 是日 行一百四十里

二十一日 晴 晚食後 發行 晡到肅川 府使趙儼入見 是日  
行六十里

二十二日 晴 平明 發行 中火於順安 縣監李範之入見 晡  
時到普通門 方伯李光仲先來 門樓以迎 與正使上樓 少  
話 遂乘轎入館 三登縣令白以絢 永柔縣令宋相維 及  
主倅金相勛 並入見 禮山棘人英逸 以事已來營中 亦  
來見 是日 行百十里

二十三日 平明 發行 到中和 府使趙儼 及順川郡守宋洪  
龜 以試官來到 並入見 午到黃州地 金兌潤 趙尙賢輩

洪市被倚異德正有直避少面正火水生余老色名存  
 鷹司古澤床川伊之孫入水府救父李洪叔李文彬是  
 在事僕初淫至未見本野士人及為兵該族豐川宗人  
 軍者老未見長或難於涉誘或入見然而其多不於重  
 從補時信者如或抵鳳山野守李世聲入貝之川一  
 百四十里

二十四日晴余未任帶引在飾如知水中方有碧興縣是  
 悔之逸少信使川到蕊秀男余坐玉溜泉上杜鵑感開  
 川溪勝江老山縣宜翼西邊安野守鄭智未兄累在  
 蒼味便駕之川如或入平山村文朴銀祖入貝之川  
 一十七十里

二十五日夜白露三鳴帶引平夜到余川多伴金蔭妖有

設幕路傍 略備酒肴 懇邀少留 正使爲坐余光色 亦停  
 駕同座 對床行酒而罷 入將府 牧使李德夏 監使柳星  
 樞 虞候柳徵 並來見 本州士人 及尙賢諸族 豐川宗人  
 輩 前冬來見者 或邀於路傍 或入見館所甚多 不能盡  
 記 晡時催發 初昏抵鳳山 郡守李世馨入見 是日 行一  
 百四十里

二十四日 晴風 未明 發行 朝飯於劔水 中火於瑞興 與縣監  
 慎無逸少話 促行到葱秀 冒風坐玉溜泉上 杜鵑盛開  
 川流映紅 兎山縣監崔翼家 遂安郡守鄭智 來見 略進  
 茶啖 促駕而行 初昏入平山 府使朴起祖入見 是日 行  
 一百七十里

二十五日 夜雨 鷄三鳴 發行 平明 到金川 主倅金啓煥有

移入貝抄西曰白川那身尹得仁世泥未見午到松乾  
 遷啓李國休未見中大後啓扣留身閩台德厚分三第  
 軒曉時到長浩累建崇侯夕後修律命生梅及命海咸  
 又才未候舟上啓入夜石字又李生催初卷入城外牧  
 又金壽禮入尺音日引一万七千至耕人朱三吐伊  
 二千午口晴鷓鳴若引狂狂如真得矣河縣吳鄂希能以  
 無故未見多多戶李尔湯米迎也景防權外产書色之  
 金真金刑堂色之金世芝名遊福也時到弘海使德也  
 寧由立之正則誤命以終在萬也於年賡難之故竹盡  
 石才狀打石福時遊海山峴到京若於八座之依命終  
 正史一未回入 取改 命

病 入見於衙內 白川郡守尹得仁 出站來見 午到松都  
 經歷李國休 來見 中火後 歷拜留守閔台鎮厚 於三節  
 軒 哺時 到長湍 略進茶啖 夕渡臨津 兪生楫 及兪德咸  
 兄弟 來候 舟上歷入花石亭 見李生館 初昏入坡州 牧  
 使金夢瑞 入見 是日 行一百七十里 伴主人朱三吐伊 來候

二十六日 晴 鷄鳴 發行 早飯於高陽 交河縣監鄭希先 以  
 兼官來見 前萬戶李東錫 來迎於昌陵橋外 戶曹色吏  
 金莫金 刑曹色吏 金世光 亦迎謁 巳時到弘濟院 德必  
 宗甫 立之 正則 設幕以待 相對於經年 睽離之餘 忻喜  
 不可狀 打話移時 遂踰沙峴 到京營前 入座與依幕待  
 正使之來 同入闕 復命

高仍途中

誰道客散動征驂  
 五角拜寒江未酣  
 馬首冰程遠塞  
 北眼中山色失終南  
 異種粵才仍有  
 王事者在  
 分必甘所夕  
 候班今遠  
 障面  
 君傲烟最難堪  
 次

鷄鳴驛子裡行驂

高陽途中

離筵客散動征驂 畫角聲寒酒未酣 馬首冰程遙塞  
北眼中山色失終南 異邦專對才何有 王事奔忙  
分所甘 昕夕候班今遠隔 戀君微悵最難堪

次

鷄鳴驛子理行錄

靑石洞

兩山少來一川田十里峭崿右移開造世至今而子  
率此中去遺虜其來

金陵評舍石仲之白川併條退却要之於曉水  
梅仍之善狀少約壹次極上款

金陵形殊跡名如日暮征輟水整留村疊魚鱗既短  
崖若洞盡璋鏡清流吏人為識石台竹石寺相邀於

靑石洞

兩山如束一川回 十里崎嶇石路開 遺恨至今丙子  
歲 此中空遣虜兵來

金陵倅金明仲 與白川倅徐退叔 要會於暎水  
樓 仍與書狀小酌 走次板上韻

金陵形勝號名州 日暮征輶初暫留 村疊魚鱗依短  
岸 岩開畫障繞清流 吏人尙識曾分竹 太守相邀共

倚樓神重一杯成  
小話途中忘却客中憂

次

海邑名標沒金水  
西去鳴驄為暫留  
山擁翠屏迎檻立  
湖鋪澄練繞村流  
皇華大筆回闌石  
太守深盃映水樓  
祗乞吾川多好事  
終年矯首撫雄憂

聖典

倚樓 珍重一杯成小話 醉中忘却客中憂

次聖輿

海區名勝說金州 西去鳴驄爲暫留 山擁翠屏迎  
檻立 湖舖澄練繞村流 皇華大筆回瀾石 太守深  
盃嘆水樓 祇是吾行無好意 終南矯首摠離憂

鳳城途中以書付歎

平山北渡鴨江身日貴如產石我袍台從正驢佳境  
命在何種律列槍刀山形峯嶺分燕界人語啾唧類  
犬嘯荒在寒燈之寤坐僕夫赴道曉介釋道一作

次板前枕悶歎

燕山去、路悠々、客程差險似水流枕上頻成且子  
夢口過長統處 君處耐人勞座望西買雲譯會多  
我前飛到底孤川以若况仍時泊渡鴨江舟

渡江以後山野樹木葱鬱之楊之松木到乞房  
窟岩石面有西梯松如此有吃仍仍歎

鳳城途中 次書狀韻

平明北渡鴨江臯 已覺胡塵污我袍 暮稅征驂休毳  
幕 夜防猛虎列槍刀 山形峯嶺分燕界 人語啁啾類  
犬嗥 荒店寒燈無寐坐 僕夫愁道曉風號 道一作懷

次枚翁排悶韻

燕山去去路悠悠 客裏光陰似水流 枕上頻成思子  
夢 日邊長結戀君憂 廚人費度柴油買 衙譯貪多  
紙扇求 到底茲行皆苦說 何時歸渡鴨江舟

渡江以後 山野樹木蔥鬱 而獨撫松木 到無寧  
嶺 巖石間 有數株松 書狀有吟 仍次其韻

孤樹亭、傲雪寒朔、今直雪、年年、安千山、木脫、霜降、  
名、楊、也、青、入、眼、看

曉若松子山次叔翁款

清晨洽辦、戒厨人、鞞、禿、徐、一、餘、涉、身、遠、塞、日、程、亦、石、  
華、五、山、舒、信、凶、新、表、沙、統、引、駕、搖、通、險、車、執、爭、途、玩、  
如、產、第、王、間、閑、辛、若、足、馬、前、郵、辛、亦、相、親

到冷井卸馬仕鞞之食口辨示止文

放馬、荒、危、坐、小、車、後、中、看、心、好、家、居、穩、密、今、洲、仍、出、  
後、淫、竈、烟、瘴、日、午、初、厨、子、拉、刀、營、小、腰、如、雞、提、搥、賣、  
新、魚、出、間、名、合、以、宿、宿、竹、山、辛、勤、借、店、屋

數樹亭亭傲歲寒 朔風遼雪幸平安 千山木脫蕭條  
色 獨也青青入眼看

曉發狼子山 次枚翁韻

清晨治辦戒廚人 轎裏深深馱病身 邊塞行程當暮  
歲 燕山節候近新春 沙籠引駕纔通險 車軌爭途亂  
起塵 萬里間關辛苦足 馬前郵卒亦相親

到冷井 卸馬坐轎而食 口號示正使

放馬荒原坐小車 路中看作好家居 氈窓風冽陽生  
後 溪竈烟寒日午初 廚子持刀營小膳 胡雛提榼賣  
新魚 此間亦合今宵宿 何必辛勤借店廬

駐蹕山

一統山河不事閒  
勞軍以事出  
遼關當時未遂  
存兵  
汗千載  
去而駐蹕山

遼東口城

常痛千雉  
出崩頽  
憶昔駐蹕  
營苦第財  
可惜  
尚杜征戰  
地  
如兒  
婦馬  
敗商  
曲  
昔一征  
恨

華表柱

華表柱  
古鶴不  
怕遼  
乃  
戈物  
足今  
北  
書生  
感慨  
之  
意  
立馬  
荒城  
雲  
暉

次書山歌

駐蹕山

一統山河不等閒 勞軍何事出遼關 當時未遂窮兵  
計 千載空留駐蹕山

遼東舊城

嵩墉千雉盡崩頽 憶昔經營費萬財 可惜陽秋征戰  
地 胡兒騎馬販商回 惜一作恨

華表柱

華表柱空鶴不歸 遼陽或物又今非 書生感慨無窮  
意 立馬荒城對落暉

次書狀韻

向晚拉車古堞東  
天辛遠野又多風  
逢人箇一舞  
看  
異過肆家、貨室  
同日落磬鍾  
荒寺  
出性時墳  
至廢  
垣中干杜宏、興  
已非  
方子河  
流世不窮

遠野

茫、平野望無倪  
上有蒼穹接地低  
此路仙槎水不  
阻  
園遊  
吾欲到天西

次肅狀駐蹕山韻

唐帝仍年大若  
其親  
征遠  
左一  
孤城  
自誇  
海內  
川仁  
效  
漫  
乃  
山  
阿  
駘  
蹕  
名  
四  
教  
停  
時  
起  
金  
動  
鑿  
碑  
豎  
文  
悔  
心  
生  
書  
生  
乃  
於  
干  
杜  
奉  
歲  
慨  
仍  
歌  
出  
塞  
行

向晚驅車古堞東 天寒遼野又多風 逢人箇箇聲音  
異 過肆家家貨寶同 落日磬鍾荒寺外 往時墳墓廢  
垣中 千秋衰衰興亡恨 太子河流共不窮

遼野

茫茫平野望無倪 上有蒼穹接地低 此路仙槎如不  
阻 周遊吾欲到天西

次書狀 駐蹕山韻

唐帝何年大發兵 親征遼左一孤城 自誇海內行仁  
效 謾得山阿駐蹕名 嚴鼓停時悲念動 踣碑豎處悔  
心生 書生尙論千秋事 感慨仍歌出塞行

思家

去、長程駮使車如山日  
倚彌雲底盈梅趁腊花應  
着以鬢短旬年未梳憶  
才時看秋五障憇兒頻  
陶丘  
佳書張中驚切東回夢  
猶臥遠甸留子產

青石嶺次書此  
勅當在棧共林子山下

山深林莽密徑險石峻  
峽馬之緣冰滑携夫卸  
駕登  
羊腸應此地鳥道即平  
陵  
落日憑高望長嘯一撫  
膺

書仍

車快

巖峨杉櫟混河過  
支、樓臺彩挿天  
人  
枹  
幽  
燕  
汗  
空  
馬市通  
閩  
浙  
販  
珠  
船  
先  
酋  
自  
謂  
有  
三  
窟  
如  
運  
誰  
道  
無

思家

去去長程驅使車 胡山日隔彌雲居 盆梅趁臘花應  
着 頭髮經旬手未梳 憶弟時看新畫障 戀兒頻閱近  
傳書 帳中驚起東歸夢 猶臥遼陽滿子廬

青石嶺次書狀韻

當在曉發狼子山下

山深林鬱密 路險石峻嶒 馬足緣冰滑 轎夫卸駕登  
羊腸應此地 鳥道卽平陵 落日憑高望 長嘆一撫膺

瀋陽

嵯峨粉堞混河邊 處處樓臺彰插天 車服幽燕汗血  
馬 市通閩浙販珍船 老曾自謂有三窟 胡運誰道

無百年酒德 房陵未究業去令志士津健

懷古有感二首

先生節義煌赫是為懷此因北館辰有勝傲於不肯  
跪正、拜師獨存人

右清陰先生

其二

美古綱常三節士退懷此率為心驚今銅皮帶遠仍  
涉駐馬西門不忍行

右三節士

次正使韻

無百年 緬憶寧陵未究業 空念志士涕漣

懷古有感 二首

(一)

先生節義凜秋昊 尙憶幽囚北館辰 有膝傲然不肯  
跪 區區拜謝獨何人

右清陰先生

(二)

萬古綱常三節士 追懷往事尙心驚 今朝皮幣遼陽  
路 駐馬西門不忍行

右三節士

次正使韻 二首

清君偉哉古邊城  
程日衝寒百里行  
秣馬沙河終向  
午從鞍旌堡已  
初更拂凍飲  
公尋常廣興  
到此篇容  
易成小命殘  
燈熱不寐  
卧看扇面  
冰為程

其二

星輶為月者  
多城多里  
關河不住  
行香、家山  
書久  
彭驥、吳城  
帝於更年  
素出費力  
疔車老去  
全志  
事咸等  
石及石清  
陰分佳  
友伯  
卧待  
回程

次書狀款

殊方卸假  
始於深京  
國音書  
障多岑  
荒野是  
川今透  
帳廣炕  
宮寤  
燈凝  
余少  
切之  
限莫  
雄骨  
露詒  
古仿  
志

(一)

清晨催發古邊城 短日衝寒百里行 秣馬蘆河纔向  
午 稅鞍旅堡已初更 病深飲食尋常廢 興到詩篇容  
易成 小幕殘燈愁不寐 臥看扇面計前程

(二)

星輶前月發京城 萬里關河不住行 杳杳家山書久  
斷 駸駸異域歲將更 年來漸覺身痾重 老去全無志  
事成 茅屋數間清漢外 休官歸臥待回程

次書狀韻

殊方節候臘冬深 京國音書隔萬岑 荒野晨行風透  
帳 廢炕宵宿雪凝衾 沙場無限英雄骨 客路空傷志

士心一髮上高依曰色山頭曉月坐骨襟

次正使歌

燕京一袂接天長大漠無聲日色黃灣界何時  
耳遠河冰夕渡年腸正閭山秀留心常杜慎城  
目西每念皇朝頌夜祿東林之伐最高育

其二戲吟

唯余一疾從源長遠後由來日瘦黃腸候定知  
由肺胃壅於奈未潤心腸竟若且有今疾若瘴  
海去唐水土何言終以表意國日佳友品  
煇膏育

退次正使渡江時歌

士心 一髮巫閭依舊色 山頭曉月照胸襟

次正使韻 二首

(一)

燕京一路接天長 大漠飛塵日色黃 灣界何時駐馬  
耳 遼河昨日渡羊腸 巫閭山秀留心賞 壯鎮城荒觸  
目傷 每念皇朝傾覆禍 東林忍伐最膏肓

(二) 戲吟

嗟余一疾證源長 遠役由來日瘵黃 渴候定知由肺  
胃 醫治奈未潤心腸 寒冬且有風痰苦 瘴海專爲水  
土傷 意待明春還國日 休官只欲炳膏肓

追次正使渡江時韻 二首

眞·岩林一涉斜如金吹逐如舞能傲才只恨世專  
軍心上區、敢念家

其二

批沙寒日易西斜牧馬群中能動氣不食吾心輕遠  
後如身只以快 邦家

次正失款

徑趨元朝向北京劫餘在奈因惜程益中意氣今無  
士天下與寒孰察情幾日身故生羽翼乎生我自仗  
忠誠斜陽歌馬蒼原上且五實整逢正能

寧遠衛見祖大壽牌樓上書正款以賦

(一)

漠漠蘆林一路斜 胡風吹送數聲笳 微才只怪非專  
對 心上區區敢念家

(二)

壘頭寒日易西斜 牧馬聲中亂動笳 不是吾心輕遠  
役 將身只欲報邦家

次正使韻

催趁元朝向北京 病軀其奈困脩程 燕中意氣今無  
士 天下興衰孰察情 幾日身故生羽翼 平生我自仗  
忠誠 斜陽歇馬荒原上 且爲寬愁進酒觥

寧遠衛 見祖大壽牌樓 與書狀拈韻以賦

遠左名客赫世雄石橋千尺自銘功  
鑄錫巧出天工  
分彙宛克生玉房中業僅箕裘著  
七月世移紫海梁  
膠金千金細役今仍有岷首沉碑亦  
是空

次正休款

双橋琢石勢崢嶸  
祖水多年費力營  
金碧炫煌起  
嶺頭煖饒盤屈刻  
果極自誇  
聖主千金獎  
要勒私門  
一代名可作  
隴西遺業墜  
少卿深恥  
至以評

西水河

美里遊程已半通  
涉途不廢吟  
我鴉啼古堞  
三臺  
堡馬傷層冰  
西水河野唐青  
帘迤客旅海堙  
黃草散

遼左名家赫世雄 石樓千尺自銘功 鏤鑄巧出天工  
外 褒寵光生玉牒中 業墜箕裘羞古月 世移桑海染  
腥風 千金勗設今何有 峴首沈碑亦是空

次正使韻

雙樓琢石勢崢嶸 祖將當年費力營 金碧炫煌題榜  
額 蛟螭盤屈刻梁楹 自誇聖主千金獎 要勒私門  
一代名 可恨隴西遺業墜 少卿深恥至今評

兩水河

萬里燕程已半過 病沈猶不廢吟哦 鴉啼古堞三臺  
堡 馬糞層冰兩水河 野店青帘延客旅 海堙黃草散

牛驃有时留个伤时侯  
匣裡杖藜漫手摩

感吟

長夜寒炕度似年  
擁衾如坐五更天  
呼燈展卷花生眼  
寶鏡搔頭雪滿腮  
腰玉燕山修去馬  
海色箕壇控  
恹無半生豪氣  
只須垂自惜  
流光意慘然

次正使望夫石歌

迨、筭做老日、望夫回魂未  
閨月音書斷  
驛梅  
愁顏仍化石  
貞志肯成灰  
遙濤依然去  
千秋控怨哀  
望海亭次書此歌

高、亭子按雄閑眼界  
按案編石  
間栏瞰東溟  
初出

牛驪 有時獨下傷時淚 匣裏秋蓮謾手摩

感吟

長夜寒炕度似年 擁衾起坐五更天 呼燈展卷花生  
眼 覽鏡搔頭雪滿顛 臘盡燕山催去馬 海連箕壤想  
歸船 平生豪氣今消盡 自惜流光意愴然

次正使望夫石韻

悠悠築城苦 日日望夫回 魂迷夢關月 音書斷驛梅  
愁顏仍化石 貞志肯成灰 遺蹟依然在 千秋想怨哀

望海亭次書狀韻

高高亭子接雄關 眼界扶桑碣石間 檻瞰東暝初出

日簷圍北溟，孔騰山百年。迷根空長嘯，萬里羸絛絛。  
碎影生交仗，粉生相舞冷。直欲御今危。

冒雪早登栢閣

栢閣西曉動，小軒石帚亭。天亂雪翫一，夜獲霏函山。  
海百年膠微，洗孔神傳雞犬吠。榮章存頁，移人恂白。  
石村美果休，言正後若此。臨隨交抱，君恩。

次書北長城歌

屹、長城勢撐去，秦皇斯築。奈何雄周遠，遠指河湟。  
北形便橫，連渤海東。千堞未防，宮鹿逸八區。危且怪。  
舟同步膏，竭盡終仍。是曹沛，曹哥起大令。

日 簷圍北漠亂騰山 百年遺恨空長嘯 萬里羈愁獨  
醉顏 坐處恍疑生羽翼 冷然直欲御風還

冒雪早發榆關

榆關侵曉動行軒 暮歲寒天亂雪翻 一夜瓊霏滿山  
海 百年腥穢洗乾坤 隔籬犬吠榮家店 覓路人歸白  
石村 萬里休言征役苦 壯遊隨處總君恩

次書狀長城韻

屹屹長城勢撐空 秦皇斯築意何雄 周遭遠控河湟  
北 形便橫連渤海東 千堞未防宮鹿逸 八區還如壑  
舟同 民膏竭盡終何益 豐沛高譎起大風

撫房途中

羈紲窮、追車遇境幽  
遠、口少據、區存類、奇品  
東入閑、社賈、藏書苦、封  
華表、作、金、映、雕、樓、某  
氏、閣、前、代、典、三、喜、問、交、夕、仍、駐、馬、城、墟

山海閑情  
吳三桂感吟

重閣自閑、出金湯、一  
旅、未、扶、天、才、原、屈、膝、成、公、事  
業、尺、書、法、口、絕、天、帝

次書坊射虎石款

旣西、飛、羽、帶、微、醺、飛、標、向、未、日、色、燠、頰、石、血、閑、射、虎  
箭、舞、石、遠、拓、度、遠、年、三、過、白、首、知、得、西、多、里、臨、山、頁

撫寧途中

羈愁袞袞迫征車 遇境幽懷得小攄 過店頻嘗奇品  
果 入關初買古藏書 苔封華表誰家塚 金暎雕樓某  
氏閭 前代興亡無問處 夕陽駐馬廢城墟

山海關憶吳三桂感吟

重關自關失金湯 一旅未扶夏少康 屈膝終成何事  
業 尺書徒得絕天常

次書狀射虎石韻

隴西飛將帶微醺 罷獵歸來日色曛 頑石忽開射虎  
箭 聲名遙振度遼軍 三邊白首知緣數 萬里陰山負

勒勳不滅迹奴道恨之至今在形拘膠氣

曹潤途中

道未歸碧骨成流巨濕心短折少支日事每怪鷓唱  
後極成難到日其可任人當見與賢輩和款強成近  
作此真歎殊方殘宿忠薊門表樹是恂取曹潤秀才  
宗手筆中書樞密及王書也樹是恂取曹潤秀才  
評宗紹興雜錄未勅以曹王一後孫忠真德秀忠岳飛岳岳飛岳

薊門烟村

百里薊門樹蒼茫浩瀟斜業田成碧海林藪香滄波  
映日浮光遠值令落悲多拋眠仍交得此此偶輕羅  
宿薊如般云廣有松竹梅三益在葉上梅香精

勒勳 不滅匈奴遺恨在 至今應欲掃腥氛

豐潤途中

邇來鬢髮覺成絲 原濕馳驅病不支 行李每催鷄唱  
後 穩眠難到日高時 從人借見前賢筆 和韻強成近  
體詩 莫歎殊方殘臘盡 薊門春樹是歸期

薊門烟樹

百里薊門樹 滄茫淡靄斜 桑田成碧海 林藪杳滄波  
曠日浮光遠 隨風變態多 龍眠何處得 將此寫輕羅

宿薊州般若庵 有松竹梅三盆在案上 極其精

妙可老梅則千葉紅梅方盛開之如木枯韻得  
松字

薄暮投艱古寺中一床三友竹梅松紅葩粉蘂尚殘  
搖綠蒼蒼舞傲大冷枕畔清田霧夢冷杯心影落酒  
香濃燈為相照看無厭未覺梵檮動曉鐘

妙可愛 梅則千葉紅梅 方盛開 與書狀拈韻 得  
松字

薄暮投鞭古寺中 一床三友竹梅松 紅葩粉蘂開殘  
臘 綠葉蒼髯傲大冬 枕畔清侵羈夢冷 杯心影落酒  
香濃 燈前相對看無厭 未覺梵樓動曉鐘

여 백

# 燕行別章



여 백

夢窩金公昌集汝成官領議政

贈別

趙令錫五赴燕之行  
燕山苦况我曾徑 且向君行  
說與聽 金石山前愁弊幕 玉  
河館裏困巖扃 音書兩阻冥  
冥翼 飲食多逢鴟鴞腥 出柵  
春來唯快意 濟江遙認統軍  
亭

己亥中冬

夢窩

夢窩 金公昌集 汝成 官領議政

贈別

趙令錫五赴燕之行

燕山苦况我曾徑 且向君行  
說與聽 金石山前愁弊幕 玉  
河館裏困巖扃 音書兩阻冥  
冥翼 飲食多逢鴟鴞腥 出柵  
春來唯快意 濟江遙認統軍  
亭

己亥中冬 夢窩

踈齋李公頤命養紱官左議政

侍郎趙汝五使燕求余以別語 余辭以焦憂  
 不能歌詠曰 何必詩乎 余曰金縉百年冠蓋織如  
 山川跋履之苦 麥秀香離之悲 人人必能言之 吾何  
 贅乎曰 雖好去二字 可也 噫 其意勤矣 顧汝五韶  
 顏 未衰方仗 王靈行忠信 去來非可憂也 拜  
 稽之忍其恥 獻納之不能爭 余曾所自傷者 今無可  
 爲 汝五謨將 何以副其望乎 但余當入燕有疑 而不  
 自決者 夫燕都之不競 天下其言之矣 將未知扶蘇項燕  
 之倫首事乎 中國與阿骨鐵木之屬 憑陵於邊土  
 歟 天道人事十年 尤有可見者 願汝五默察 而  
 東歸以決余疑

己亥仲冬  
 踈齋病拙拜

踈齋 李公頤命 養紱 官左議政

侍郎趙汝五 使燕求余以別語 余辭以焦憂  
 不能歌詠曰 何必詩乎 余曰金縉百年冠蓋織如  
 山川跋履之苦 麥秀香離之悲 人人必能言之 吾何  
 贅乎曰 雖好去二字 可也 噫 其意勤矣 顧汝五韶  
 顏 未衰方仗 王靈行忠信 去來非可憂也 拜  
 稽之忍其恥 獻納之不能爭 余曾所自傷者 今無可  
 爲 汝五謨將 何以副其望乎 但余當入燕有疑 而不  
 自決者 夫燕都之不競 天下其言之矣 將未知扶蘇項燕  
 之倫首事乎 中國與阿骨鐵木之屬 憑陵於邊土  
 歟 天道人事十年 尤有可見者 願汝五默察 而  
 東歸以決余疑

己亥仲冬  
 踈齋病拙拜

寒圃齋李健命仲剛官左議政

奉贈

節使趙侍郎錫五赴燕之行  
冠蓋年年走北庭更將何  
語慰君行天時人事今  
難料別恨羈愁且莫驚異  
地山川看咫尺丈夫忠信  
仗平生懸知智士能觀國  
他日歸來仔細評

己亥陽月下澣



寒圃齋 李健命 仲剛 官左議政

奉贈

節使趙侍郎錫五 赴燕之行

冠蓋年年走北庭 更將何  
語慰君行 天時人事今  
難料 別恨羈愁且莫驚 異  
地山川看咫尺 丈夫忠信  
仗平生 懸知智士能觀國  
他日歸來仔細評

己亥陽月下澣

丈巖鄭公澣仲淳官領議政

奉送趙承宣錫五赴燕

從古燕南義士多臺

臺早晚倘相過

逢人若問吾東事

試誦當年七首歌

歲己亥季秋下澣烏川

鄭澣稿

丈巖 鄭公澣 仲淳 官領議政

奉送趙承宣 錫五 赴燕

從古燕南義士多 金

臺早晚倘相過

逢人若問吾東事

試誦當年七首歌

歲己亥季秋下澣 烏川

鄭澣稿

止齋 閔公鎮厚 靜能 官判書

此役曾傷虎 嗟  
君又飲冰吟詩幽  
憤瀉撫劍壯心憑  
燕市千年照灤河  
一派澄今行遊賞  
遍亦足丈夫稱

鎮厚

止齋 閔公鎮厚 靜能 官判書

此役曾傷虎 嗟  
君又飲冰 吟詩幽  
憤瀉 撫劍壯心憑  
燕市千年照 灤河  
一派澄 今行遊賞  
遍 亦足丈夫稱

鎮厚

寒竹齋申公鉉華仲官判書

奉別

趙侍郎錫五令公使燕副

价之行

一去燕關歲動經

送別戒長程

役何時已默數茲行近

百齡

又

店開奎壁鬻義經

書傳則程三絕弟編每承

望祇堪披玩度御齡

歲暮己亥復月上浣八十

一歲老人竹里申華仲初

寒竹齋 申公鉉 華仲 官判書

奉別

趙侍郎錫五令公 使燕副

价之行

一去燕關歲動經 天寒

送別戒長程 金強遠

役何時已 默數茲行近

百齡

語有無百年之運故云

(又)

店開奎壁鬻義經 四聖奉

書傳則程 三絕弟編每承

望 祇堪披玩度御齡

歲暮己亥復月上浣 八十

一歲老人 竹里 申華仲

宋公相琦玉汝官吏判

送

趙錫五侍郎赴燕

莫說烏巒館 生憎鴨

水船北來唯古月 西

去豈朝天 往跡空遼薊

悲歌尙趙燕 那堪似

峴路此別在年年

己亥至月之初 宋玉汝

宋公相琦 玉汝 官吏判

送

趙錫五侍郎赴燕

莫說烏巒館 生憎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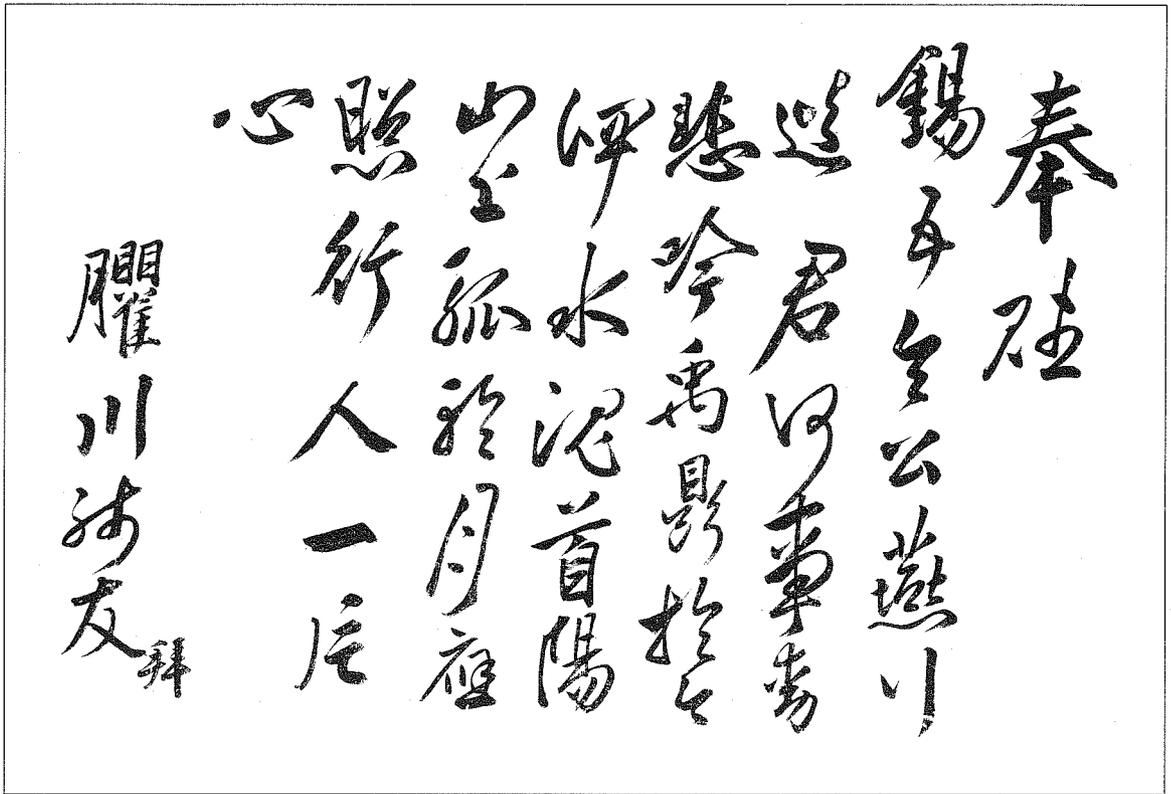
水船北來唯古月 西

去豈朝天 往跡空遼薊

悲歌尙趙燕 那堪似

峴路此別在年年

己亥至月之初 宋玉汝



奉贐

錫五令公燕行

送君何事動

悲吟禹鼎於今

泗水混首陽

山上孤吟月 應

照行人一片

心

矚川病友拜

屏山李公觀命子賓官左議政

# 送別

趙令錫五以副价赴燕  
 褰衣獨上望洋亭脚下  
 雲煙九點青河北男兒今  
 幾介山西戰血尙餘腥怒  
 鯨掣海波濤黑亂靄鋪  
 空日月冥漢節歸來留  
 感慨送君此去說丁寧  
 己亥孟冬 李子賓

屏山 李公觀命 子賓 官左議政

## 送別

趙令錫五以副价赴燕

褰衣獨上望洋亭 脚下  
 雲煙九點青 河北男兒今  
 幾介 山西戰血尙餘腥 怒  
 鯨掣海波濤黑 亂靄鋪  
 空日月冥 漢節歸來留  
 感慨 送君此去說丁寧  
 己亥孟冬 李子賓

芝村李公喜朝

官大司憲

## 別 趙令公赴燕序

趙令公錫五以副价使燕臨行送牋求別語余方吟痛伏枕兼且心事悲苦有不暇爲役於筆研間者然亦何可全無一言以孤其意蓋惟晦翁夫子嘗序南軒先生文集以奏議爲已施行而不錄余每未詳其義及見大全中答胡季隨書有曰南軒文集方編得略就便可刊行最好是奏議文字及往還書中論時事處確實痛切今却未敢編入異時當以奏議自作一書而附論事書尺於其後勿令廣傳或世俗好惡稍衰乃可出之後又考文獻通考經籍考果有南軒奏議十卷見載蓋序文所論雖如許其實則必如書意爲避時諱故然也但所謂奏議十卷者當時似已刊

芝村 李公喜朝 官大司憲

## 別 趙令公赴燕序

趙令公錫五以副价使燕臨行送牋求別語余方吟痛伏枕兼且心事悲苦有不暇爲役於筆研間者然亦何可全無一言以孤其意蓋惟晦翁夫子嘗序南軒先生文集以奏議爲已施行而不錄余每未詳其義及見大全中答胡季隨書有曰南軒文集方編得略就便可刊行最好是奏議文字及往還書中論時事處確實痛切今却未敢編入異時當以奏議自作一書而附論事書尺於其後勿令廣傳或世俗好惡稍衰乃可出之後又考文獻通考經籍考果有南軒奏議十卷見載蓋序文所論雖如許其實則必如書意爲避時諱故然也但所謂奏議十卷者當時似已刊

行未知出於晦翁所編定而論事書尺並附入於其中  
 否此書宜與文集一體并傳於東方而乃未也良以別行  
 之故人不能知前後使行一不購求故耳苟能至誠求之  
 寧有不得之理哉以近日四書精義勉齋集等書觀之可  
 知也倘錫五廣問博訪期於有得又必不惜重價而買取  
 歸而獻諸九重以備省覽而資講論則亦庶幾有補  
 於君德與治道矣抑此外如宋元明諸儒先文集以暨  
 性理諸書亦宜一併訪問隨得市來噫今天下之爲長夜者  
 久矣然此等文籍必當依舊在於書肆中錫五於今行  
 如不欲以燕市一物洩於歸橐則已不然須留意於此使如  
 我匏繫一方者亦得見平日所願見而未得者則豈非吾  
 人一大快事耶余當拱而俟之歲己亥至月日靈芝主人書

行未知 逆出於晦翁所編定 而論事書尺並附 入於其中  
 否 此書宜與文集一體 并傳於東方 而乃未也 良以別行  
 之 故人不能知 前後使行 一不購求故耳 苟能至誠求之  
 寧有不得之理哉 以近日四書精義 勉齋集等書 觀之可  
 知也 倘錫五廣問博訪 期於有得 又必不惜重價而買取  
 歸而獻諸九重 以備省覽 而資講論 則亦庶幾有補  
 於君德 與治道矣 抑此外如宋元明諸儒先文集以暨  
 性理諸書 亦宜一併訪問隨得市來 噫今天下之爲長夜者  
 久矣 然此等文籍 必當依舊在於書肆中 錫五於今行  
 如不欲以燕市一物 洩於歸橐則已 不然 須留意於此 使如  
 我匏繫一方者 亦得見平日所願見 而未得者 則豈非吾  
 人一大快事耶 余當拱而俟之 歲己亥至月日 靈芝主  
 人書

黃公龜河聖徵官戶判

贈別

趙侍郎錫五奉使之燕

我有青雲友 惟子最相親 銀臺三接武 華甲又同辰  
 清朝揀專對 萬里口含綸 歸槎將泛漢 荒堞必愴  
 秦中州今不古 溢目惔腥塵 玉帛為誰執 紅閣  
 已荆榛 想過燕市路 須訪擊節人 世無明天  
 子 疇復肯拖紳 年年走北塞 嗟我小邦臣  
 十月朔風寒 行李亦艱辛 此去謹奉命 殊  
 方更護身 悲歌仍慷慨 離席感懷均 莫  
 唱皇華句 何地尋王春 欲將志士淚 寄洒  
 泣殷民 一篇勤致意 要得看檢頻

己亥仲冬上浣

庚弟黃聖徵謹稿

黃公龜河 聖徵 官戶判

贈別

趙侍郎錫五 奉使之燕

我有青雲友 惟子最相親 銀臺三接武 華甲又同辰  
 清朝揀專對 萬里口含綸 歸槎將泛漢 荒堞必愴  
 秦中州今不古 溢目惔腥塵 玉帛為誰執 紅閣  
 已荆榛 想過燕市路 須訪擊節人 世無明天  
 子 疇復肯拖紳 年年走北塞 嗟我小邦臣  
 十月朔風寒 行李亦艱辛 此去謹奉命 殊  
 方更護身 悲歌仍慷慨 離席感懷均 莫  
 唱皇華句 何地尋王春 欲將志士淚 寄洒  
 泣殷民 一篇勤致意 要得看檢頻

己亥仲冬上浣

庚弟黃聖徵謹稿

奉贐

趙侍郎錫五令公赴燕

城南飲餞送扶桑厚

意殷勤尙不忘此日

聞爲冬至使當時屈

在地曹郎六年宦業

登霄漢萬里王程

犯雪霜知子含恩

輕遠役愧吾淹病負

于將

己亥孟冬

奉贐

趙侍郎錫五令公 赴燕

城南飲餞送扶桑厚  
意殷勤尙不忘此日  
聞爲冬至使當時屈  
在地曹郎六年宦業  
登霄漢萬里王程  
犯雪霜知子含恩  
輕遠役愧吾淹病負  
于將

己亥孟冬

尹公陽來季亨官奉朝賀

贈別冬至副使

趙令錫五赴燕

人說燕槎效壯遊 我曾榆  
塞飽牢愁 飄風曠野腥  
塵漲黑霧崩城鬼燐流  
客館羈魂驚曉角 故園  
歸夢拗冰輶 知君長  
物惟忠信 南北賢勞定不  
憂

己亥仲冬上浣尹季亨稿

尹公陽來 季亨 官奉朝賀

贈別冬至副使

趙令錫五赴燕

人說燕槎效壯遊 我曾榆  
塞飽牢愁 飄風曠野腥  
塵漲 黑霧崩城鬼燐流

客館羈魂驚曉角 故園

歸夢拗冰輶 知君長

物惟忠信 南北賢勞定不

憂

己亥仲冬上浣 尹季亨稿

老稼齋金公昌業

趙叅議錫五以冬至副使赴

燕乃述一路山川事景為絕

句贈之凡三十六首

燕役悠悠半載間許多酸味又

雄觀如今摠向詩中說寄與行

人次第看

關西千里路無塵幾處笙歌鬧

錦茵行到箭門岡上望胡山萬

疊始愁人

弘濟橋邊別袂分忽忽祖席日

將曛登車不覺重回顧一帶蒼

山是彌雲

老稼齋 金公昌業

趙叅議錫五 以冬至副使赴

燕 乃述一路山川事景 為絕

句贈之 凡三十六首

燕役悠悠半載間 許多酸味又

雄觀 如今摠向詩中說 寄與行

人次第看

關西千里路無塵 幾處笙歌鬧

錦茵 行到箭門岡上望 胡山萬

疊始愁人

弘濟橋邊別袂分 忽忽祖席日

將曛 登車不覺重回顧 一帶蒼

山是彌雲

紛紛導泛至江停馬首唯留一  
蓋青行入蘆林迷咫尺回頭不  
見統軍亭

北風號怒雪凌兢露宿荒原兩  
夜仍金石山前指欲墮鍋中熱  
飯旋成冰

柵門百里莽蒼然往往空林馬  
骨損知是獵胡來放火望中時  
有燭天烟

龍山秀色鳳山連四五峰巒特  
可憐上有石城何代築世稱安  
市是訛傳

紛紛導泛至江停 馬首唯留一  
蓋青 行入蘆林迷咫尺 回頭不  
見統軍亭

北風號怒雪凌兢 露宿荒原兩  
夜仍 金石山前指欲墮 鍋中熱  
飯旋成冰

柵門百里莽蒼然 往往空林馬  
骨損 知是獵胡來放火 望中時  
有燭天烟

龍山秀色鳳山連 四五峰巒特  
可憐 上有石城何代築 世稱安  
市是訛傳

護行麻貝是官員 駿馬憑陵忽  
後先 操縱去留元惡習 近聞微  
索更加前

荒涼察院四圍牆 破簞鋪炕未  
有床 人馬滿庭同擾擾 買柴買  
水徹宵忙

草河何在亂山多 此地曾經  
聖祖過 陰雨冷風歌曲在 至今  
悲憤滿山河 百年

歷盡連天兩嶺高 茫茫遼野望  
來豪 誰能胸次恢如此 多少崎  
嶇覺自勞

護行麻貝是官員 駿馬憑陵忽  
後先 操縱去留元惡習 近聞微  
索更加前

荒涼察院四圍牆 破簞鋪炕未  
有床 人馬滿庭同擾擾 買柴買  
水徹宵忙

草河何在亂山多 此地曾經  
聖祖過 陰雨冷風歌曲在 至今[百年]  
悲憤滿山河

歷盡連天兩嶺高 茫茫遼野望  
來豪 誰能胸次恢如此 多少崎  
嶇覺自勞

遼陽城郭盡荒殘 白塔亭亭獨

自閒欲訪千山路 遠近有僧深

巷一門關 城中有閩僧雲生居永安寺知千山路

瀋陽形勝一何雄 百雉崢嶸大

野中市肆繁華宮闕壯 漢車胡

馬八門通 瀋陽城在十里外望見城中有汗伊所居宮闕

宮闕

文山柴市西門外 屬國羝羊北

館中往事驚為心 那可問悲風朔

雪古今同

瀋陽西門外三學士死處北館清陰先祖被拘處文山死

柴市日大風畫晦

遼陽城郭盡荒殘 白塔亭亭獨  
自閒 欲訪千山路遠近 有僧深  
巷一門關

城中有閩僧雲生 居永安寺 知千山路

瀋陽形勝一何雄 百雉崢嶸大  
野中 市肆繁華宮闕壯 漢車胡  
馬八門通

瀋陽城在十里外 望見城中 有汗伊所居宮闕

文山柴市西門外 屬國羝羊北  
館中 往事驚為心那可問 悲風朔  
雪古今同

瀋陽西門外 三學士死處 北

館清陰先祖被拘處 文山死

柴市日大

風畫晦

邊城北望朔雲高 當面胡風利  
似刀歸日泥塗更此地 馬瘖車  
陷僕夫唾 邊城地名

周流河是古遼水 極目邊沙塞  
草凋盡日駢車何處宿 黃旗過  
了白旗遙 黃旗白旗地名

貢車皆從兀刺至 日夜轉轉向  
北京駝峰高坐知蒙古 一陣臊  
風過後生

板門道店愁朝餐 臭水如涎近  
口難大抵燕中無好井 有金何  
處覓甘寒 一板門 二道井 皆店名

邊城北望朔雲高 當面胡風利  
似刀 歸日泥塗更此地 馬瘖車  
陷僕夫唾  
邊城 地名

周流河是古遼水 極目邊沙塞  
草凋 盡日駢車何處宿 黃旗過  
了白旗遙  
黃旗白旗 地名

貢車皆從兀刺至 日夜轉轉向  
北京 駝峰高坐知蒙古 一陣臊  
風過後生

板門道店愁朝餐 臭水如涎近  
口難 大抵燕中無好井 有金何  
處覓甘寒  
一板門 二道井 皆店名

一坐烟臺費萬金 星羅碁布互  
相臨 祇今頽廢皆生樹 戚老堪  
悲枉用心

征鞭遙指六重山 馬首烟霞萬

古閒 一路桃花須記取 春流不

隔白雲關 關山一名六重謂其  
掩抱六重也 山中有

桃花洞  
白雲關

慘愴松山殺氣停 天兵十萬死

斯城 行人莫飲凌河水 猶帶當

年戰血腥 凌河在松山東十里  
許世傳汗攻松山日

孝廟在其陳中當夜求水從  
者進之 孝廟不御命覆之翌

朝視其  
哭血也

一坐烟臺費萬金 星羅碁布互  
相臨 祇今頽廢皆生樹 戚老堪  
悲枉用心

征鞭遙指六重山 馬首烟霞萬  
古閒 一路桃花須記取 春流不  
隔白雲關  
關山 一名六重 謂其掩抱六重也 山中有  
桃花洞 白雲關

慘愴松山殺氣停 天兵十萬死  
斯城 行人莫飲凌河水 猶帶當  
年戰血腥

凌河 在松山東十里許 世傳汗攻松山日  
孝廟在其陳中當夜求水從  
者進之 孝廟不御命覆之翌  
朝視其  
哭血也

鎔鐵為城渤海回魏公設置亦

雄哉誰知恃險非長策昔日華

譙盡草萊魏公大明徐達用鐵汁灌海築城其上

萬雉奔騰勢莫停危亭突兀入

滄溟憑欄一望舒長嘯大漠群

峰不盡青

千年孤竹有遺城一派灤河見

底清袒裼何人敢侮聖清高廟

貌儼如生

萬頃江波忽眼前薊門烟樹古

來傳重重野樹渾成畫却筆就

眠定悵然

鎔鐵為城渤海回 魏公設置亦  
雄哉 誰知恃險非長策 昔日華  
譙盡草萊  
魏公大明徐達 用鐵汁灌海 築城其上

萬雉奔騰勢莫停 危亭突兀入  
滄溟 憑欄一望舒長嘯 大漠群  
峰不盡青

千年孤竹有遺城 一派灤河見  
底清 袒裼何人敢侮聖 清高廟  
貌儼如生

萬頃江波忽眼前 薊門烟樹古  
來傳 重重野樹渾成畫 却筆就  
眠定悵然

三盤秀色薊城西 松石表郎有  
 品題望裡雲梯空縹緲 到今遺  
 恨失攀躋 山有上盤中盤下盤  
之名  
 白河一道貫城流 橋下皆通萬  
 斛舟 兩岸高樓居百貨 金陵賈  
 客盡淹留 白河通 為水名  
 轂擊肩磨嶽廟前 朝陽大路玉  
 河連 傷心今日華人少 見我衣  
 冠盡駭然  
 異方除夕若為情 紙砲城中徹  
 夜轟 獨坐氈房愁不寐 但聽門  
 外過車聲

三盤秀色薊城西 松石袁郎有  
 品題 望裡雲梯空縹緲 到今遺  
 恨失攀躋

山有上盤中盤下盤之稱

白河一道貫城流 橋下皆通萬  
 斛舟 兩岸高樓居百貨 金陵賈  
 客盡淹留

白河通 為水名

轂擊肩磨嶽廟前 朝陽大路玉  
 河連 傷心今日華人少 見我衣  
 冠盡駭然

異方除夕若為情 紙砲城中徹  
 夜轟 獨坐氈房愁不寐 但聽門  
 外過車聲

五鳳門開燭影深 肆然御座老  
胡臨回看東海何由蹈 萬歲呼  
來欲碎心

荊棘銅馳不足悲 大明文物盡  
為夷 龍興宮闕胡塵暗 蹴破彤  
庭馬競馳

燕市悲歌舊俗非 荊卿名字少  
人知 昭王駿骨歸何處 喬木荒  
臺指點疑

玉館羈懷不可論 五旬塊坐面  
高垣 群胡日晚相呼出 愁絕軍  
牢告鎖門

五鳳門開燭影深 肆然御座老  
胡臨 回看東海何由蹈 萬歲呼  
來欲碎心

荊棘銅馳不足悲 大明文物盡  
為夷 龍興宮闕胡塵暗 蹴破彤  
庭馬競馳

燕市悲歌舊俗非 荊卿名字少  
人知 昭王駿骨歸何處 喬木荒  
臺指點疑

玉館羈懷不可論 五旬塊坐面  
高垣 群胡日晚相呼出 愁絕軍  
牢告鎖門

漫說通官徵索多 囊金垂盡欲  
如何 夥然紙扇歸何處 大率皆  
無但咄嗟

出門燕柳已依依 歸鴈爭如我  
馬飛 行近鳳城鄉信得 向來飢  
渴盡忘之

鴨綠春波漢水如 龍灣何異返  
吾廬 於馬更展斯詩讀 方識篇  
篇不浪書

己亥陽月下浣 金昌業

漫說通官徵索多 囊金垂盡欲  
如何 夥然紙扇歸何處 大率皆  
無但咄嗟

出門燕柳已依依 歸鴈爭如我  
馬飛 行近鳳城鄉信得 向來飢  
渴盡忘之

鴨綠春波漢水如 龍灣何異返  
吾廬 於馬更展斯詩讀 方識篇  
篇不浪書

己亥陽月下浣 金昌業

奉贐

趙承旨赴燕之行

義卦純陰霜雪天

悲歌遠送趙承

宣於身莫覩一千

運有口應羞三百

篇苦節伯夷遺廟

在深恩樂毅舊

臺傳中州聞說名

儒出講否春秋魯

十年

南谷蟄人拜

奉贐

趙承旨赴燕之行

義卦純陰霜雪天

悲歌遠送趙承

宣於身莫覩一千

運有口應羞三百

篇苦節伯夷遺廟

在深恩樂毅舊

臺傳中州聞說名

儒出講否春秋魯

十年

南谷蟄人拜

金公民澤致仲官承旨

己亥仲冬

贈 光山金致仲 稿

趙侍郎錫五使燕

西塞頻年勞

遠使東城增

築更何爲八

觀不待夷吾

術天下紛紛

金公民澤 致仲 官承旨

己亥仲冬

贈 光山金致仲 稿

趙侍郎錫五使燕

西塞頻年勞

遠使東城增

築更何爲八

觀不待夷吾

術天下紛紛

早已知  
天機聊且驗  
君行正是微  
陽地底生白  
髮腐儒增起  
色黃河昨夜  
夢中清

早已知  
天機聊且驗  
君行 正是微  
陽地底生 白  
髮腐儒增起  
色 黃河昨夜  
夢中清

趙公正萬定而官判書

奉贐

趙錫五令公赴燕之行  
 看君御命出銀臺  
 可耐王程濟歲迴最  
 是侯班蹤跡阻也應  
 歸夢曉蓬萊  
 燕客此別若爲情  
 虐  
 雪獐風擁遠征歸  
 日洛城春正好  
 北山  
 花柳笑相迎  
 己亥至月初四日  
 趙定而艸

趙公正萬 而定 官判書

奉贐

趙錫五令公 赴燕之行  
 看君御命出銀臺  
 可耐王程濟歲迴 最  
 是侯班蹤跡阻 也應

歸夢曉蓬萊  
 燕客此別若爲情 虐  
 雪獐風擁遠征 歸  
 日洛城春正好 北山  
 花柳笑相迎  
 己亥至月初四日 趙定而艸

李公重協 稚和 官參判

喜送

趙侍郎 翁文 赴燕

之行

旋節 辭 龍關 輶車

渡鴨河 星辰 瞻極

遠冰雪 入遼 多石

破將軍 射波 寒壯

士歌 此時 卷裏 涕使

灑此 中過

己亥孟冬 漢南景蹤 艸



李公重協 稚和 官參判

奉送

趙侍郎副使 赴燕

之行

旋節辭龍關 輶車

渡鴨河 星辰瞻極

遠 冰雪入遼多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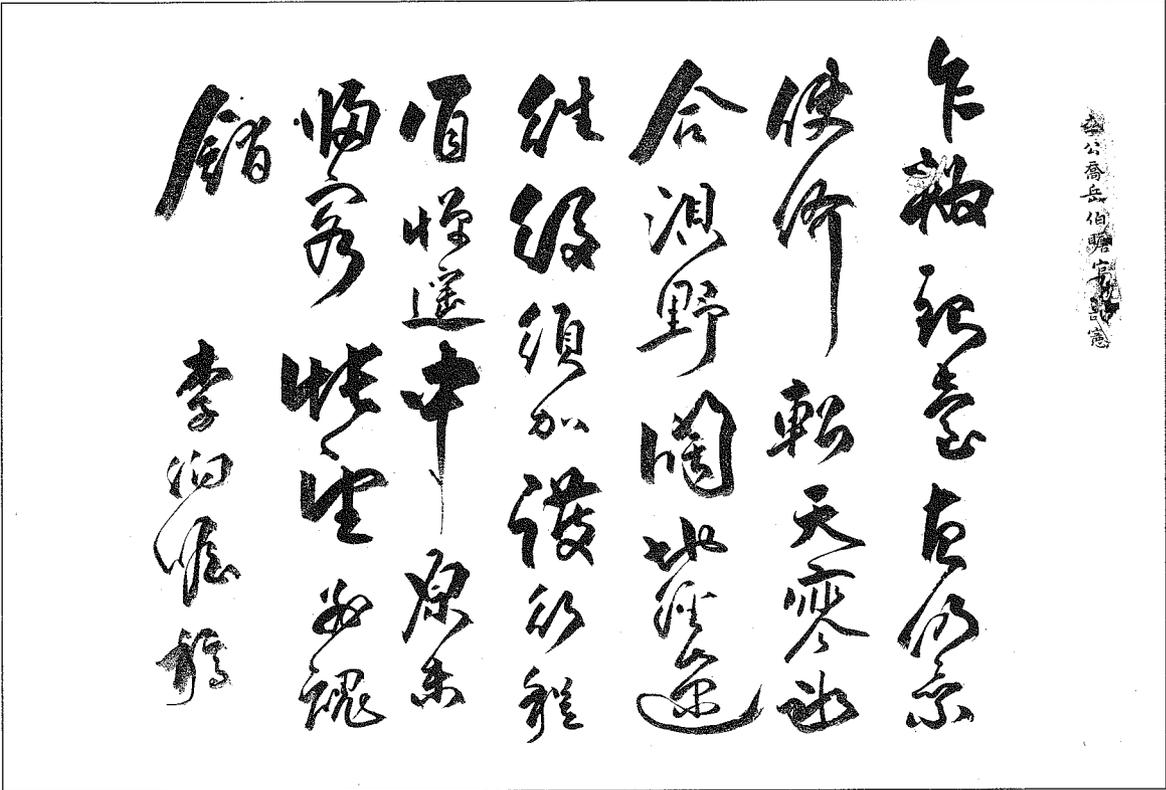
破將軍射 波寒壯

士歌 此時卷裏涕 使

灑此中過

己亥孟冬 漢南景蹤艸

李公喬岳伯瞻字瞻憲



李公喬岳 伯瞻 官大司憲

乍報銀臺惠 仍乘  
 使價輶 天寒水  
 合澗 野闊地經遼  
 往復須加護 行程  
 莫憚遙 中原未  
 歸客 悵望別魂  
 銷 李伯瞻稿

尹公錫來仲吉官參判

送  
趙令錫五燕京使价行

東韓學士走燕山路

出龍城鶴野間

幾處倚樓長短詠

春風携滿錦囊還

己亥陽月 尹仲吉稿

尹公錫來 仲吉 官參判

送

趙令錫五 燕京使价行

東韓學士走燕山路

出龍城鶴野間

幾處倚樓長短詠 春

風携滿錦囊還

己亥陽月 尹仲吉稿

金公濟謙必亨官承旨 竹辭

奉贖

錫五令兄赴燕

遼野茫茫接大荒

秦城西望竟已

長 人生一見斯

為快 萬里水程也

可忘

己亥陽月 金必亨



金公濟謙 必亨 官承旨

奉贖

錫五令兄赴燕  
遼野茫茫接大荒  
秦城西望竟已  
長 人生一見斯  
為快 萬里水程也  
可忘  
己亥陽月 金必亨

*A Cho Young-bok's  
Travel Diary to Yenching, China*